조금이라도 날 바라봐준다면 그대로 달려가 치맛자락을 붙잡고 엉엉 울 것 같았다. 그러나 어미의 시선은 끝끝내 나에게 향하지 않았고 반면 이부 오라비의 시선만이 내게 가시처럼 박혀왔다.

억세게 치맛자락을 붙잡고 모질게 오라비를 외면했다. 그럼에도 두 눈 똑똑히 어미가 붙잡은 오라비의 손이 보였다. 그 귀하다던 눈 여우의 가죽으로 만든 장갑임에도 내 손만이 홀로 삭풍에 에이는 것 같았다. 그것은 결단코 내겐 단 한 번도 허용치 않던 접촉이고, 애정이었다.

그래서 나는 네가 싫다. 네가 아무리 날 가엾다, 사랑한다 속삭여도 결국 넌 내 어미가 아니니까. 어미는 나 대신 널 선택했으니까.

암울할 정도로 회색으로 가득한 하늘 너머로 새하얀 뭔가가 빛처럼 빛났다. 다급히 어미를 불렀다. 그러나 세차게 부는 바람처럼 가벼이 흘려버렸다. 목 끝까지 설움이 차올라 다시 어미를 불렀다.

이대로 놓을 수 없었다.

달려가 어미의 풍성한 치맛자락을 붙잡았다. 이제껏 단 한 번도 만져보지 못했던 어미였다. 제발, 나도 데려가라고 애원했다. 이제 오라비가 날 어찌 보는지 신경 쓸 틈조차 없었다. 나는 다급했고 절박했다. 그러나 어미는 그런 나에게 자애로운 손길 하나 없었다. 애달픈 시선 하나 동정처럼 던져주지도 않았다.

“휘– 데르.”

짧은 명령에 어미의 치맛자락을 놓치고 데굴데굴 눈 덮인 벌판에 나뒹굴었다. 차가운 눈에 온 몸이 젖어들었다.

열 달을 품고, 제 배로 낳았으면서 나는 어미의 자식이 아닌 정결한 새의 날개를 짓밟은 남자의 자식이었다.

그것은 지난 10년간 변함없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난 그녀의 하나뿐인 딸이었고, 그녀는 내 하나뿐인 어미였다. 어느새 하늘 위에 빛처럼 날던, 새하얀 눈보다 더 시린 커다란 새가 어미 앞에 유순한 양처럼 고개를 조아렸다.

그 거대한 몸집은 족히 성인을 여럿 태우고도 남을 정도였다. 온통 회색빛으로 어두운 하늘 아래 홀로 빛처럼 반짝였다. 그러나 황금을 녹인 것 같은 금빛 눈은 야수와도 같이 흉포하게 날 향했다. 내가 몸을 일으켜 다가가려 하자 새의 깃털과도 같은 빛의 새하얀 부리가 날카로운 검처럼 날 향했다.

“나도! 제발, 나도 데려가!!”

저 부리가 두려워, 어미의 냉대가 차가워 눈에 젖은 채로 크게 울부짖었다. 그러나 어미의 손은 오직 오라비를 잡아끌며 집보다 더 커다란, 새의 등으로 올라갔다. 뒤늦게 달려갔지만, 새가 날아오르며 피워낸 거센 날갯짓에 서 있을 수가 없었다. 시린 바람에 눈조차 뜰 수가 없었다.

“엄마!!”

악을 쓰고 눈을 뜨자 차가운 송곳 같은 바람이 눈알을 후벼 팠다. 그 불티가 쏘인 것 같은 통증에 비명을 내지르며 두 눈을 막았다. 세찬 눈동자 속 저 깊은 곳에서부터 뭔가가 얼어붙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아픔은 이내 눈처럼 녹아 사라졌지만, 눈을 감았다가 떴을 때, 이미 아무것도 없었다.

눈 덮인 벌판에 새가 날아오르며 어미와 오라비의 발자국마저 지워버렸다. 마치, 처음부터 이곳엔 나만 있었다는 것처럼.

“돌아와!!”

들릴 턱이 없음에도 불렀다. 회색빛으로 물든 하늘에 대고 소리 질러도 돌아오지 않았다. 어디에도 그림자조차 없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어미에겐 나는 이 녹고 마는 눈처럼 기억할 필요도 없는 자식이란 걸.

속에서부터 서러움이 터져 거친 김이 쏟아졌다. 그런데 아무것도 흐르지 않았다. 눈물은커녕, 표정조차 달라지지 않았다. 마치, 얼음을 뒤집어쓴 것 같았다.

나는 그제야 어미가 나 대신 내 눈물만을 가져갔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다

해마다 새하얀 눈 위를 휘몰아치는 바람이 숨결을 멈추고, 얼었던 물줄기가 갈라져 메아리 소리가 울리는 겨울의 막바지가 되면 조용한 성이 술렁인다. 차가운 한기가 돌 벽 사이로 스미는 겨울 성에서 그나마 온기 서린 방의 벽난로 앞에 머물던 사내들이 동면을 끝낸 곰마냥 기어 나오기 시작한다.

평소엔 두꺼운 카펫으로 바닥의 냉기만을 가리던 성의 응접실이 이때만 되면 삼삼오오 모이는 사내들로 인해 커다란 벽난로에 땔감이 쉬지 않고 타올랐다.

곰처럼 느린 사내들도 이럴 진데 성의 여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더더욱 분주해진다.

화덕에 두툼하게 살이 오른 생선을 찌고, 빻아 보관했던 곡식 가루에 찰 깨를 넣고 속살이 보드라운 빵을 굽는다. 얼려둔 푸른 채소를 살짝 녹여 어석어석 썰어 매운 향신료와 버무린 샐러드를 만들도, 절인 과일로 파이도 굽는다. 지하실에 보관한 포도주를 열어 향을 맡고, 달콤하게 절인 과실과 석쇠에 구운 양고기를 한 상 가득 차린다.

그러나 풍성하고 기름진 음식을 만드는 여자들의 얼굴이 밝지만은 않았다.

계단을 돌아 내려오며 혀를 찼다.

“또, 이 지긋지긋한 때가 돌아왔어.”

성의 돌 벽 사이로 스미는 냉기와도 같은 목소리였다. 그러나 성의 여자들에게도, 가신들에게도 그것은 익숙했다. 횟수로 9년. 저 냉기 같은 말이 시작하는 바로 이때.

‘눈 여우’사냥이 시작된다.

지긋지긋해도, 끔찍해도 성의 하나뿐인 대리자.

잠시 머리에서 목 끝까지 감싼 베일이 흐트러지진 않았는지 확인하며 응접실 안으로 들어갔다. 얼마나 땔감을 땐 건지 부드러운 토끼털로 안감을 채운 실내화 속에 땀이 배어 나올 것 같았다.

‘허약한 남자들 같으니.’

“어이쿠. 아가씨, 따뜻한 방 안에서 뜨개질이나 하실 것이지 용케도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누누이 괜찮다고 했는데 말이죠.”

성의 가장 오래된 가신 중 하나인, 아벨린 경이 과장하듯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노련한 얼굴 속 짙은 회색의 눈동자가 조롱하듯 바라봤다는 건 모르지 않다. 앉은 채 인사하는 주변 인간들 모두 같다.

제 주인의 하나뿐인 딸이자 성의 대리자이니 고개는 숙이나 저들 딴에는 고깝기 그지없는 나였다. 새파랗게 어린 것이, 그것도 검을 들고 사냥을 할 줄도 모르는 여자가 감히 응접실의 문을 열고 훈수를 두려 하니 기가 막히겠지.

“불씨가 꺼질까 전전긍긍하며 보초 설 정도는 아니니 너무 걱정 마세요.”

우습게도 그것은 벌써 9년째, 매년 연례행사처럼 나오는 말이라 이젠 내게 그건 한낱 재 부스러기만도 못한 말이었다. 해마다 비꼬는 강도는 더해가지만 응수하는 요령도 해마다 늘어 이젠 없으면 섭섭할 지경이었다.

“그 불씨도 다 저희들이 구해온 겁니다만?”

“내 성에서 내가 사들인 곡식을 먹고, 내가 사들여 빚은 술을 마시고, 내가 사들여 날카롭게 벼린 칼을 들고 다니시는 분이 그런 말 하니 섭섭하군요. 내년에는 먹을 줄만 알고 제대로 쌀 줄 모르는 입을 꿰매라 명해야겠습니다.”

고저도 없이 내뱉는 말임에도 조롱하는 말투에 기분이 나빴는지 아벨린 경이 콧김을 요란하게 내뿜었다. 그가 그러거나 말거나 그를 지나쳐 응접실 한가운데의 원탁에 다가갔다.

“나 참, 마드렌 부인을 당장 내쫓아야지 안 되겠군. 가르치라는 신부수업은 안 하고 정숙하지 못하게 벌써부터 남자를 쥐어짜는 기술만 가르치는 거 보니.”

의자에 앉기 전에 그들을 돌아봤다.

저질스런 언변에 주변 사내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우습지도 않은 말이지만 아직 미혼이자 이 자리에 홀로 여성인 내게 수치를 주기 위해 그만한 효과가 없으니 저러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이들의 본성이자, 성주의 딸에게 보내는 경고다.

혹독한 위그노드(Wignode)에서 겨울 민족은 오로지 힘과 본능만으로 살아 남아왔기에 예의나 명예 따윈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눈만큼이나 가치 없었다. 그렇기에 지독히도 남성 우월주의적인 사회였다.

베일 너머 그들의 시선을 바라봤다.

“이런, 벌써 소문이 새어 나갔나 보군요. 다들 아시니 잘하실 거라 믿습니다. 함부로 놀리는 혀 때문에 아래가 반 토막 부러지는 꼴을 두 눈으로 경험하고 싶지 않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나 역시 겨울 민족의 딸. 얼음을 세 치의 혀 밑에 두고 말하는 법쯤은 걸음마 뗄 때부터 자연스레 익혀왔다.

“성주님을 믿고 너무 까부시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까불지 언제 까불겠습니까.”

고저는 없지만 고압적인 말투에 아벨린 경과 주변 가신들의 얼굴이 질렸다. 쓸모없이 무겁고 커다란 원탁의자를 붙잡으며 쐐기를 박았다.

“더욱이. 치매라도 걸리신 겁니까? 영지를 지키는 노아의 씨앗이 누구 것인지 자꾸 잊으시나 봅니다.”

겨울민족이 사는 위그노드를 지키는 것은 겨울 성의 원탁의 기사들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보다 더 막강하게 위그노드를 지키는 건 노아의 씨앗으로 자란 얼음 가시나무였다. 그들이 내 여성성을 가지고 놀렸으니 나도 그들의 무능한 남성성을 가지고 비꼰 거였다.

하지만 그들은 내 말에 더는 아까처럼 웃을 수 없었다. 절대 부정하지 못할 사실이었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9년 새 상황은 너무도 달라져 있었다.

위그노드가 혹독하다고 하나 계절이 겨울 뿐이었다면 제아무리 얼음을 베고 잔다는 겨울 민족일지라도 살아남지 못했을 거였다. 열두 달의 달 중, 아홉 달을 제외한 나머지 석 달은 봄이었다.

그 말은 즉, 사내들이 집안의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사냥할 수 있는 계절은 오로지 이 석 달 뿐이라는 소리였다. 그런데 겨울 성의 성주인 아버지가 자리에 누운 9년간 위그노드에 불어 닥친 혹독한 바람은 칼날과도 같아서 나머지 석 달조차 겨울이 간섭하기 시작했다.

눈이 그치고, 바람이 멈추는 아주 적은 날만이 봄인 거였다. 사람조차 버거우니 영지 내 겨울 숲에 사는 동물 역시 수가 줄기 시작했다.

자연스럽게 사냥의 계절이 축소되니, 사냥 하지 못하는 남자들의 입지조차 축소되었다. 이 혹독한 위그노드는 땅을 일궈 밭을 가는 풍요로운 대지가 아닌지라 사냥을 해 그들의 뼈와 살과 가죽을 취하며 사는 곳이었다.

오래전에 복속한 남쪽 이브실라(Ivshila)의 풍요로운 영지가 없었더라면 겨울민족일지라도 얼음만 퍼먹고 살 순 없으니 진즉에 굶어 죽었을 것이다.

아벨린 경이 신경질적으로 벽난로에 땔감을 던져 넣었다.

“제길, 내 저 성격에 이렇게 생색낼 줄 알았지. 풍요로운 시절엔 죽자 사자 영지를 지키고, 사냥하며 곰이고 여우고 잡아와 호강시켜준 것은 홀랑 잊고서. 이래서 여자들이 사내 고생하는 걸 모른다니까. 그저 숲에만 가면 가죽이고, 털이고, 고기며 나무에 걸린 줄 알고. 에잇, 짜증 나.”

그가 툴툴거리며 빈정거렸다.

저 과거 예찬은 늘 있었던 일인지라 가벼이 말을 무시했다. 그리고 원탁 의자를 빼기 위해 힘을 주는데 커다란 손이 앉기 편하게 의자를 빼주었다.

“아이샤.”

푸른 눈동자가 다정하게 웃는 게 검은 베일 너머로도 똑똑하게 보였다. 목에 닿을 듯 길게 자라난 옅은 금발과 시릴 정도로 하얀 피부는 순수혈통의 겨울 민족만이 타고나는 것이기에 긍지와도 같은 모습이었다.

그리고 위그노드에서 거의 볼 수 없는 맑은 하늘과도 같은 푸른 눈동자. 그것은 위그노드의 지배자 즉, 이 겨울 성의 가계라는 증명이고, 앞으로 내 반려가 될 자의 것이었다.

그러나 그뿐.

그가 손을 뻗어 베일에 손을 대려 하자 고개를 피하며 자리에 앉았다.

“거기까지. 자리에 앉아, 레사휘.”

아무리 사촌이자, 1년 뒤 성인식을 치르면 남편으로 맞을 자이긴 하나 스스럼없이 베일에 손을 대려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 그나마 이것도 봐준 거였다. 다른 이였다면 당장에 매섭게 손을 내리쳤을 것이다.

“여전히 얼음장이군.”

레사휘는 허공에 남은 손을 내리며 옆자리에 앉았다.

“쓸데없는 짓 하니까.”

옆을 바라보는 대신 앞을 보며 작게 말했다. 굳이 표정을 보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을 거란 건 자명했다. 이런 거 하나에 신경 쓸 살얼음 같은 신경 줄이라면 그는 겨울 민족이 아니다. 더욱이 1년 후에는 반려가 될 상대. 태생이 사냥꾼인 이들에게 곧 잡아먹을 먹잇감은 귀하지 않다.

아내 될 자이고, 성주의 딸이기에 미소는 주되, 도움의 손길은 내밀지 않는다. 그러니 이들이 날 조롱해도 그는 나서지 않는다. 그리고 나 역시 도움 받을 정도로 약하지 않다.

더욱이 아비가 병상에 누운 지금, 그걸 호의라 판단할 정도로 멍청했다면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을 거였다.

만일, 반려가 될 자라고 쉽게 얼음을 녹여대다간 날 물로 보고 이것저것 간섭할 것이 분명할 테니까.

노어 경이 내 앞으로 지도를 가져다 놓았다. 이미 응접실에 오기 전, 성의 가장 높은 탑에 머무는 관측자들에게 다녀왔던 터였다.

“성의 관측자들 말로는 앞으로 두 달은 봄이 지속될 거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회에 여기. 사슴의 숲을 지나 얼음 봉우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지도를 가느다란 막대로 가리키며 사냥 경로를 짰다. 드디어 겨울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는 건지 저번 해에는 한 달 반이었던 봄이 이번에는 보름이나 더 길었다. 이건 기회일 수도 있다. 영지민들의 사냥 범위를 넓히게 하는 것과 동시에 안전한 수호범위를 넓히는 거였다.

그러나 반대로—

‘눈 여우’에게도 기회일 수도 있었다. 그래서인지 지도를 보는 눈길들은 얼음처럼 찼다.

“위험합니다. 날씨는 어느 때고 변덕적인 것. 관찰자들의 말만 믿었다가 중간에 다시 겨울이 오게 된다면 전멸할 수도 있습니다.”

노어 경이 제법 침착하게 말했다.

‘눈 여우’에게 겨울이 약점이듯 우리에게도 겨울은 살아남을 수 없는 절벽과도 같았다.

예고도 없이 순식간에 눈보라가 휘몰아치며 지상의 모든 것을 얼리고 그 위에 눈으로 덮는다. 겨울은 잔인하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겨울이 있기에 우린 살아남을 수 있었다.

지도에 적힌 얼음 봉우리란 글자를 지나 한참을 시선을 위로 올리면 동그라미가 그려진 눈 여우들판 글자가 있다. 그것은 십 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로 희귀한 하얀 털을 가진 눈 여우가 사는 들판이었다.

고개를 들었다.

“안전만 따지기에 이번 봄은 깁니다. 우리에게 봄이듯 ‘눈 여우’에게도 봄이니까요. 이제 길어진 기간만큼 수시로 내려오는 ‘눈 여우’를 막기만 하다간 우리가 전멸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더욱이 이 근방의 숲은 이미 사슴은 물론 토끼마저 씨가 마를 지경 아닙니까?”

그러나 내 물음에도 모여선 기사들의 입은 열리지 않았다. 한심스럽지만 이해한다.

나 역시 ‘눈 여우’를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그것의 두려움을 익히 몸으로 익혔던 것. 그래서 그들이 기사임에도 두려워하는지 안다. 하지만 이 기회를 녹아 사라질 얼음처럼 만드는 것은 멍청한 일이다.

오랜 시간 동안 끌어온 방어는 더 이상 최상의 수단이 아니다.

“먼저 가서 땅 속에 드러난 채 아직 깨지 않은 ‘눈 여우’를 죽이고 사냥터를 넓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린 정말로 긍지를 버려야 할 때가 올 것이니까요.”

계속 이대로 가다간 결국 겨울 민족의 긍지이자 터전인 위그노드를 포기하고 이브실라로 옮겨야 할지도 모른다.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를 지나 그리고 자식에게 물려줄 땅을 버리고. 그러나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남자들의 입은 봉한 것처럼 열리지 않았다.

‘용기라곤 쓸개도 없는 남자들 같으니라고.’

속으로 혀를 찼다.

“노어 경의 말대로 얼음 봉우리는 너무 멀고, 그곳이 어떻게 변했을지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사슴의 숲까지 만으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럼, 솎아내는 것도 더 쉬울 겁니다.”

그중에서 기네드 경이 입을 열고 지도를 가리켰다. 확실히 사슴의 숲까지 만으로도 영지를 넓힌다면 조금 더 버틸 수 있다. 그러나 그건 정말로 ‘조금’ 더 버티는 것이다. 위험할지라도 강행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시련이 닥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그럼, 차라리 조를 나누는 건 어떻습니까? 소수로 노아의 씨앗을 심는 조를 보내고 나머지가 방어에 치중하는 거로. 소수인 경우 기동성도 빨라 일을 처리하는 것도, 도망치는 것도 수월합니다. 지금 우리에겐 ‘눈 여우’에게 뺏긴 터전을 되찾아 사냥터와 안전한 수호범위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지 내에 침입하는 ‘눈 여우’도 잡아야 합니다.”

레만 경의 제안에 다들 수긍하는 분위기였으나 나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소수만 보내기에 ‘눈 여우’는 만만치 않습니다. 오히려 소수의 기동대가 성공하지 못하고 전멸하게 된다면 그거야말로 개죽음. 더는 인력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예전이었다면 찬성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아니다. 가뜩이나 원탁의 빈자리만큼이나 기사들의 수도 줄었고 병사들도 많이 죽었다. 단결성으로 뭉친 영지민을 차출하기에도 한계가 있었다. 아벨린 경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실로이의 병사들은 남았습니까?”

“남긴 무슨. 지난해 거의 다 죽었습니다. 봄도 못 견디는 나약한 것들을 보내니 아깝게 먹이고 입힌 것만 날렸습니다.”

‘하긴‘

입술을 깨물었다. 실로이에서 보내주는 지원 병사들은 남쪽의 땅에서 온 자들이라 추위와 공포에 질려 영지민보다 제구실을 못 했다. 겨울 민족이 괜히 겨울 민족이라 불리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부족하게 된 이유는 모두,

‘눈 여우’ 탓이었다.

9년 전, 갑자기 나타난 그것.

그것은 봄이 시작되던 날, 갑자기 나타났다. 땅 아래 잠들었던 씨앗이 싹을 틔우듯이 얼어붙은 땅이 봄을 맞아 녹자 땅속에서 튀어나왔다.

사람만 한 몸체에, 하얀 털로 뒤덮인 몸. 날카로운 손, 발톱과 붉은 눈을 가진 그것은 비정상적인 크기를 빼고 외양만으로 논할 때, 예전에 우리가 사냥 때 잡던 눈 여우와 흡사했다. 그러나 아니었다. 그것은 몸을 베어도 얼음처럼 떨어져 나갔다가 다시 붙고 억센 악력과 손발톱으로 사람의 몸을 산채로 찢어 발겨 피를 탐한다.

한 번에 목을 베거나 심장에 검을 꽂지 않는 이상 죽지도 않는다. 우리는 지상의 모든 것을 먹지만 그것은 오로지 사람만을 먹었고, 눈이 녹은 땅 위에 시체가 눈처럼 쌓여 갔다.

9년 전, 어미가 오라비와 함께 떠나고 아비가 병으로 쓰러지자마자 나타난 그것은 저주처럼 위그노드를 감쌌고 속수무책으로 영지민들이 죽어갔다. 그것이 어디에서 왔고, 어떤 존재인지 아무도 몰랐다. 도망치려 해도 우리에게 봄이듯 그들에게도 봄인지라 끝없이 땅속에서 나와 위에서부터 내려왔다.

살아남은 자들은 아시네헤의 딸을 탐한 아비의 죄로 저주가 내려졌다 소리쳤고, 나는 그 아비의 딸이자 겨울 민족의 딸로서 그들의 분노를 막아야 했다.

더욱이 우리는 긍지 높은 위그노드의 겨울 민족.

겨울에게서도 도망치지 않은 민족이 한낱 삿된 것에게 터전을 뺏기고 위그노드의 한 줌도 안 되는 이브실라에 정착할 순 없는 노릇이다. 이제와 여기서 우리가 도망친대도 결국 그 아래 이브실라는 물론 타레베와 헤스티, 그리고 왕족이 사는 실로이까지 위험해지는 건 불 보듯 뻔하다.

우리가 살 최선의 방법으로 노아의 씨를 땅에 심었다.

노아의 씨를 땅에 심으면 그 반경 백 미터에 겨울의 효과가 나타난다. 그로 인해 겨울이 약점인 ‘눈 여우’가 침입하지 못한다. 그렇게 우리는 대륙의 삼분의 이를 차지하고 있던 위그노드의 땅을 거의 다 ‘눈 여우’에게 내주고 영지 주변의 땅만을 겨우 보존할 수 있었다.

만일, 겨울이 조금이라도 짧았다면 노아의 씨앗이 있다 하더라도 얼음을 녹아내리게 하는 봄볕에 의해 우린 전멸했을지도 모른다.

그게 벌써 9년 전.

더는 겨울민족에게 봄의 평화란 없다. 노아의 씨는 순식간에 싹을 틔워 백 미터 주변에 얼음으로 만든 가시나무를 자라게 하지만 땅을 얼려 사람도, 동물도 살 수 없게 만든다. 더욱이 그것도 완벽하지 못하다.

봄이 되면 땅속에서 깨어나 올라오는 ‘눈 여우’는 가시나무가 녹은 사이로 침입했고 우리는 매년 봄이 되기 전, 겨울의 막바지에 ‘눈 여우’ 사냥을 한다.

땅이 녹은 틈 사이로 깨어나 가시나무 틈으로 들어오는 ‘눈 여우’를 죽이고 노아의 씨를 점점 위로 심어 우리의 영지이자 사냥터를 넓힌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솎아내기’라 말하며 노아의 씨를 심어 탈환한 영지 내의 ‘눈 여우’를 죽인다.

“그럼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면 어쩌자는 겁니까?”

짜증난다는 듯 아벨린 경이 투덜거렸다.

나는 베일 너머로 날 바라보는 그들을 흐트러짐 없이 응시했다.

“반대로. 반대로 해야 합니다. 삼분의 일의 소수 병력이 영지에 남아 가시나무를 넘어오는 ‘눈 여우’를 죽이고 나머지 모두가 영지를 넓히는 데 힘써야 합니다. 최종 목적지는 얼음 봉우리. 기필코 여기까지 나가야 합니다.”

막대 대신 손가락으로 강하게 지도의 적힌 ‘얼음봉우리’ 글자를 눌렀다.

“아이샤의 말대로 합시다.”

조용히 침묵하던 레사휘가 입을 열었다. 힐끗 그를 향해 고개를 돌리자 그가 미소를 흘렸다.

“어차피 가시나무를 넘는 ‘눈 여우’는 소수. 그러니 아이샤 말대로 영지를 방어할 나머지를 제외한 모두가 영지를 넓혀야 하는 게 맞습니다. 이 중 어느 누구도 내년에도 이렇게 봄이 길지는 장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얼음 봉우리까지라면 산새가 험하고 깊은 탓에 큰 동물들도 많고 나무들이 많은 탓에 ‘눈 여우’가 잠든 땅도 많지 않으니 되려 ‘솎아내기‘ 가 더 쉽고 안전할 겁니다.”

원탁에 앉은 기사들이 레사휘의 말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한숨이 나올 것 같은 작태지만 가만히 두고 봤다.

어차피 레사휘의 말은 내 말을 대변한 거나 다름없지만 저들에게는 여자가 아닌 남자에게 나온 말이라는 게 중요했다. 저들은 내 의견이 마음에 들어도 따르겠다는 말은 죽어도 하지 않는다.

그들이 레사휘의 말에 동의하는지 원탁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반박도 없다. 힘이 지배하는 사회, 차기 성주가 될 레사휘의 말에 따르는 건 당연한 일이다. 9년간 익히 봐온 자들이지만 그들은 고작 성주의 딸이 영리할 것을 원하지 않았고 좋은 제안을 하는 것도 원하지 않았다.

‘좋을 대로.’

그대로 일어나 응접실 밖으로 나섰다. 이제 다가오는 봄을 위해 남자들이 일하기 시작했고, 그것은 곧 여자들이 우는 일이 시작되는 일이다.

그러므로 계단을 돌아 여자들이 모인 방으로 내려갔다.

책장을 넘기자 그 위에 가느다란 손가락이 읽지 못하게 가렸다.

“아이샤! 지금 이렇게 책을 읽을 때가 아니라고!”

고개를 들자 얼굴을 가린 검은 베일이 흔들렸다. 그러나 토라진 얼굴을 하는 나베란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하필이면 고문에 대한 재밌는 글이 적힌 부분이었는데. 그걸 가린 나베란의 손을 꼬집었다.

“뭐가.”

“아야야. 못된 지지배. 넌 오라버니가 걱정되지도 않니?”

불에라도 덴 듯 책에서 손을 떼어내며 나베란이 날 흘겨봤다. 대답대신 나베란을 가만히 바라봤다. 옅은 금빛의 머리카락을 곱게 빗어 내려 세공된 은장식 머리핀을 한, 푸른 눈의 나베란은 레사휘와 친 오누이 지간이었다.

“죽을 정도로 무능하진 않잖아.”

“뭐? 아니, 우리 오라버니가 대단한 건 나도 잘 알긴 아는데. 그래도 네 약혼자잖아.”

“그래서?”

태연히 되받는 대꾸에 되려 나베란이 입술을 머뭇거렸다. 나베란과 레사휘가 이 겨울 성에 온 건 9년 전이고 내 태도는 그때와 단 한시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나베란은 매번 저런 얼굴을 했다.

“혹시 말야, 아이샤. 너는 오라버니가 싫은 거야?”

“아니.”

걱정하던 나베란의 얼굴에 희미하게 화색이 돌기 시작했다. 다시금 책에 시선을 돌리며 입을 열었다.

“좋아하지도 않아.”

“그, 그게 뭐야.”

“뭘 더 바래.”

애정이 없어도 어차피 이어질 사이.

우리의 사이는 고인 채 얼어버린 얼음처럼 9년 전과 다름이 없었다. 지금이야 레사휘가 어떨지는 물어보지 않아 모르겠다만 적어도 내게 그는 싫지도, 좋지도 않은 존재였다.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나베란이 입을 삐죽이 내밀었다.

“아이샤, 그런 건 좀 아닌 거 같아. 90살 먹은 할머니도 아니고 왜 그래? 넌 파릇파릇한 열아홉이라고. 아니면 오라버니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다른 사람이 좋아?”

책에 집중하고 싶은데 오늘따라 매서운 칼바람마냥 휘몰아치는 나베란 덕분에 다음 장을 넘길 수가 없었다. 원하던 대로 책에서 눈을 뗐다.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레사휘 오라버니 말야. 여동생인 내가 봐도 멋지고, 잘생겼다고. 그런데 넌 여자로서 두근두근하지 않아? 서로 가깝게 대화하거나 눈 마주칠 때. 손잡을 때도 있을 텐데 떨린 적이 한 번도 없어?”

짙은 한숨에 검은 베일이 작게 떠올랐다가 가라앉았다.

“마샤에게 일러둬야겠군. 나베란은 점심에 뭘 잘못 먹은 모양이니 저녁은 굶기라고.”

“아이샤! 점심을 잘못 먹어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고. 난 말야 네가 안타까워. 대체 뭐가 문제인거야? 사랑에 빠져 날아다니고 애가 끓어도 모자랄 판에. 네가 사랑에 빠져 아름다워지는 모습이 보고 싶어.”

“…정말, 한심스러워서.”

아벨린 경이 이런 헛소리를 했다면 모르는 척 발이라도 밟을 텐데. 똑바로 바라보는 푸른 눈동자는 한 줌의 의혹조차 없이 순수하게 바라는 눈빛이어서 차마 그럴 수가 없었다.

“나는 네 미래의 시누이로서 둘이 좀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됐으면 좋겠어. 이게 뭐야. 오라버니도 그렇고, 너도. 지금 오라버니가 널 지키기 위해 밖에서 싸우는 데 걱정도 안 돼?”

“나베란. 정확히 말하면 날 위해서가 아니라 위그노드의 영지민을 위해서야.”

노아의 씨앗을 가지고 영지를 확장하기 위한 ‘눈 여우’ 사냥에 성의 남자들이 나간 것은 벌써 한 달 전의 일이었다. 관측자들의 예측이 정확했는지 아직 겨울이 올 기미는 보이지 않아 날씨는 매일매일 화창했다.

하지만 그만큼 얼음 가시나무가 녹아내려 ‘눈 여우’가 영지 내로 출몰하기도 해 분주한 나날이기도 했다.

“그래도! 어떻게 손수건도 하나 안 만들어주니?!”

성의 여자들은 사냥을 나서는 남자들을 위해 분주히 기름진 음식으로 배불리 먹이고 오랫동안 이동하면서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챙겨주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 남편, 아버지의 무사 기원을 위해 하얀 손수건을 만들어 전한다.

흰 손수건에는 하얀 날개와 금빛 눈동자를 가진 새의 그림이 수놓아 있는데 하얀 새는 아시네헤의 자손을 의미했다. 현재 위그노드에 출몰하는 ‘눈 여우’는 아시네헤의 분노를 사서 나타났다고 영지민들은 믿고 있었다.

그만큼 요사하고 기이한 것.

들어주지 않을 거란 걸 알면서도 그런 ‘눈 여우’에게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아시네헤의 가호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네가 만들어 줬으니 됐잖아. 문제야?”

“문제야! 아주 큰 문제라고.”

“마샤한테 말해서 내 저녁은 빼라고 해. 헛소리를 많이 들어서 배가 부르다고.”

책을 내려놓고 일어섰다. 날 보는 나베란의 푸른 눈이 겨울이 오기 직전 요란한 하늘마냥 흔들렸다. 한동안 조용하다 저렇게 날뛰는 거 보니 여자들이 모인 침방에서 또 나와 레사휘에 대한 이야기가 오간 모양이었다.

“아이샤. 네가 자꾸 그러니 다들 이상한 말들만 해...”

등을 돌리고 창가에 다가가는데 뒤에 앉아있는 나베란의 입에서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원래 넌 그런 애가 아닌데. 얼굴도 보여주지 않으니 다들 오해하고 있잖아.”

창문 아래, 드문드문 눈이 녹아 내려 질퍽한 흙이 드러난 밖을 바라보며 옅게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표정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저 버릇처럼 한숨만 내쉴 뿐.

다정하고 온화한 나베란.

레사휘의 여동생으로 9년 전에 겨울 성으로 온 내 사촌. 레사휘와 닮은 얼굴이지만 겉으로만 웃는 그와는 다르게 온 마음을 다해 웃고 솔직한 그녀였다.

이 겨울 성안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더 봄처럼 밝은 나베란은 모두가 좋아했다. 레사휘의 여동생일지라도 여자라면 누구나 고깝게 보는 성격의 아벨린 경마저 그녀의 웃는 얼굴에 녹아내릴 정도였다.

그녀를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추운 겨울 성에 돌아다니는 것도, 듣는 것도 많다는 소리였다. 그러니 그녀는 그만큼 주변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듣지 못하는 날 걱정해서 저리 말하는 것이었다.

“나베란.”

“응?”

“밖이 소란스러워.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아.”

조용하던 밖이 어느 순간 소란스러워지면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다가오는 게 보였다. 다급히 몸을 틀자 검은 베일이 살짝 들렸다가 얼굴을 다시 가렸다. 꼼꼼하게 베일을 정리하며 밖으로 나섰다.

레사휘와 함께 기사와 병사들의 3/2는 모두 얼음봉우리까지 사냥을 나가서 이렇게 빨리 돌아올 리는 없었고, 지금 돌아오는 것은 아마도 영지 내로 들어오는 ‘눈 여우’를 사냥하는 기사들일 것이다. 저녁 시간이 가까워지긴 하지만 지금 이렇게 해가 지지도 않은 시간에 들어온 적은 없었다.

“사고가 난 거야?”

나베란이 내 등 뒤를 다급히 따라오며 물었다.

“글쎄.”

멀리서 본 거라 나 역시 모르는 일이었다. 영지 내에 머문다 하지만 ‘눈 여우’를 사냥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기에 불행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었다.

계단을 돌아 내려가는 데 그들이 벌써 안으로 들어왔는지 소란스러운 여자들의 목소리까지 한데 섞였다. 울음소리가 나지 않는 것 보니 다행이긴 하다만 방심할 순 없는 노릇이었다. 사람은 너무 쉽게 다치고 죽는다.

이렇게 사람의 힘이 절실할 때라고 예외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아이샤 님.”

내가 내려가자 성의 부엌일을 관리하는 마샤가 내 이름을 불렀다. 성 입구 쪽의 홀에 모두가 모여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사람들이 내가 수월하게 걸을 수 있도록 길을 터주었다.

“무슨 일이지?”

“오셨습니까.”

린드 경이 내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공식적으로 남자들의 공간인 응접실에 들어갈 때가 아니라면 나는 이들에게 하대 하는 게 당연했고, 이들은 성주의 딸인 내게 예를 보였다.

“얼음 가시나무를 넘어온 사냥물을 포획했는데 그게 차마, 죽일 순 없어서 그대로 데려왔습니다."

“왜? 하얀 새도 아니고 사슴이면 상관없잖아.”

하얀 새는 아시네헤의 자손이라 일컬어져 예부터 잡는 것이 금기였다. 그러나 린드 경의 뒤로 보이는 사냥물은 새카만 발굽과 단단한 뿔을 가진 사슴이었다. 가뜩이나 겨울 성은 사냥으로 인해 사람들이 많이 빠진 터라 의기소침한 상태였다.

영지 내에서 ‘눈 여우’를 사냥하는 데 힘을 쓰는 기사들과 병사들을 위해서라도 저 사슴은 오늘 저녁 식사의 만찬이 되어 성내의 활기를 되찾게 해야 한다.

“실은 눈동자 색이 금색입니다.”

린드 경이 말하면서 내가 사슴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몸을 비켰다.

웬만한 성인만큼 커다란 하얀 사슴이 밧줄에 매인 채 서 있었다. 이토록 크고 순백의 사슴은 흔치 않았다. 아니, 적어도 나의 경우 처음이었다. 나뭇가지마냥 커다랗고 울창한 뿔과 제법 단단한 몸체를 가지고 있는데 반항하거나 거칠게 위협하지 않았다. 그저 사람의 손이 익숙한 것처럼 온순하게 서 있었다.

그러나 이상한 건 그것만이 아니었다.

마주친 눈동자는 선명한 금빛이었다.

“…”

쯧– 하고 작게 혀를 찼다. 마치 뭔가를 알고 있다는 것처럼 사슴의 눈동자가 나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조차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 눈빛이 기분 나빠 고개를 돌렸다.

“버려.”

새하얀 순백의 몸과 금빛의 눈동자. 그것이 아시네헤의 자손의 특징이었다. 다만, 그것은 새의 모습에 한정되었다. 그러나 지금 위그노드의 겨울 민족은 아시네헤와 연관 지을 수 있는 그 어떠한 것에도 예민한 상태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었다.

뭔가가 계속 바라보는 시선에 힐끗 뒤를 바라보자 역시나 그것의 시선이 나에게 향해있었다.

“아이샤 님. 차라리 성에서 기르는 게 어떨까요? 지금 성 밖으로 놔줬다가 죽거나 다치기라도 하면 괜히 더 신경 쓰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아시네헤의 자손과 닮은 이 사슴을 잘 기른다면 아시네헤께서도 좋게 봐주실 수도 있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만일 ‘눈 여우’가 정말로 아시네헤의 저주를 받아 생겨난 존재라면 고작 이걸 기른다고 아시네헤의 분노가 녹아 사라질 리는 없다. 그러나 성의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하는지 시선을 내게 두고 있었다.

쓸모없는 짓을 한 린드 경을 바라봤다.

“고작 이 정도로 분노가 사라진다면 애당초 저주 또한 없었겠지. 더욱이 야생으로 살던 것을 기를 수는 없어. 다시 밖에 풀어주고 와.”

“아이샤, 다시 한 번 생각해주면 안 될까? 아무리 야생이라지만 얘 말야. 성격도 온순한 거 같아. 봐봐, 이렇게 털을 만져도 가만히 있어.”

내 등 뒤에 가만히 있던 나베란이 언제 사슴에게 다가갔는지 화사하게 웃으며 사슴의 등을 쓰다듬고 있었다. 나베란의 손길에 온순한 짐승의 모습을 한 그것을 노려봤다.

“나베란, 이리 와.”

“아이샤. 정말 안 돼? 성을 수호한다고 생각해도 되잖아. 영지 밖으로 나간 사람들이 무사하게 돌아오는 기원동물이라고 여기자. 응?”

점점 머리가 아파지는 기분이었다. 평소엔 이런 자리에선 내 뜻을 존중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던 그녀가 오늘따라 이상할 정도로 고집을 부렸다.

한 치도 흐트러지지 않고 날 향하고 있는 금빛 눈동자를 돌아봤다.

‘어이가 없군.’

그 이유를 모르진 않아서 더 크게 말할 수 없었다. 길어진 봄만큼이나 성을 나간 남자들의 귀환이 늦어지고 있으니 무엇이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일 것이다. 그래서인지 나베란의 말에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간청하듯 날 바라봤다.

“…기르면 안 돼요? 아이샤 님이 신경 안 쓰게 제가 빗질도 하고, 먹이도 줄게요.”

성의 여자들 중에서 가장 어린 아홉 살의 다핀이 날 바라보며 조심스레 간청했다. 여자들은 그렇다 치고 남자들까지도 사냥을 접고 보물이라도 캐온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요물이군.’

이 짧은 사이에 이 많은 사람들을 홀렸으니.

나 역시 모르지 않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무언가라도 좋으니 간절히 빌고 싶을 테니까.

옅은 한숨을 내쉬었다.

“좋아, 데려가. 단, 아무도 저 사슴은 만지지 마. 특히, 여자들. 관리는 하스. 네가 맡도록 해.”

사슴을 신기하게 바라보는 어린 시종 중 하나가 내 말에 퍼뜩 고개를 들었다. 짙은 회색 머리의 하스는 아비 쪽에 외지인의 피가 섞여 있는 혼혈아였는데 제법 말귀도 잘 알아듣고 일도 빨라 성에서 아비와 함께 마구간에서 일하고 있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이샤 님.”

내심 사슴을 만져보고 싶었던 모양이었는데 내가 갑작스럽게 지목하자 하스는 발그레 볼을 물들이며 기쁜 얼굴을 양껏 드러냈다. 그리곤 린드 경의 손에서 사슴의 목줄을 넘겨받았다.

아니, 그러려고 했다. 갑자기 사슴이 미친 듯이 움직이는 통에 놀라 하스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목줄을 놓쳤다.

마치 엉덩이에 벌이라도 쏘인 것마냥 갑작스런 돌변이었다. 오랫동안 사람의 손에 자란 집짐승마냥 온순하게 서 있던 그것이 거칠게 머리를 흔들며 발굽으로 매섭게 바닥을 굴렀다. 요란한 비명이 터져 나왔고 놀란 사람들이 뒤로 물러섰다.

아름답고 강하다 생각한 뿔은 검보다도 더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 사람들에게 향했다. 사슴은 아무도 제게 다가오지 못하게 뿔을 흔들더니 이내 내게 다가오기 달려왔다.

“아이샤님!!”

삽시간에 주변이 소란스러워지면서 남자들이 검을 꺼내 들었지만 차마 찔러 다치게 할 수도 그렇다고 저 거친 뿔 앞에 이도 저도 할 수 없었다. 그 소란에 내가 몸을 돌리자 거대한 뿔에 검은 베일의 끝이 걸렸다. 마치, 의도한 것 같았다. 베일이 당겨 벗겨질락 말락 한 순간, 사슴의 몸이 요동치는 걸 멈췄다.

“…”

사슴의 금빛 눈을 힘주어 바라봤다. 사슴역시 제깟 게 감히 날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내 속내를 알기라도 한다는 것처럼 움직임을 멈춘 상태였다. 베일이 벗겨지기 전에 손을 들어 베일을 붙잡았다.

9년간 베일로 감춘 덕에 턱 아래가 조금 내비쳤을 뿐 드러나지 않은 입술까지 보였다.

짜증스레 입술을 짓이겼다.

뿔에 걸린 베일 끝도 잡아 빼려는 데 다시금 사슴이 고개를 들어 뿔을 당겼다.

“놔.”

고저도 없는 목소리가 홀 안을 울렸다. 마치, 날 상대로 장난치는 것 같았다. 내가 뿔에 걸린 베일 끝을 빼려고 하면 사슴은 다시 고개를 움직여 잡아당겼고 내가 베일을 건들지만 않으면 사슴은 가만히 있었다.

남자들이 사슴이 얌전한 틈에 제압하려고 다가가자 뒷다리로 거칠게 바닥을 차며 뿔을 흔들었다. 그 탓에 애꿎은 내 베일만이 벗겨지려 해 다급히 붙잡아야 했다.

“아이샤!"

"아이샤 님!“

이게 무슨 희극도 아니고. 속이 더 차게 굳는 게 느껴졌다.

“그만. 다들 멈춰.”

손을 들어 그들이 더는 아무 짓도 하지 않게 막았다. 이는 사슴을 위해서가 아닌 나를 위한 일이었다. 한낱 미물의 인질소동에 홀 안에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했다. 그게 어이가 없었다.

“아이샤, 괜찮아?!”

“아니.”

기분이 나쁘니 괜찮을 리가 없다.

“얌전한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아아. 아시네헤여, 제발.”

아시네헤의 분노를 풀어줄, 그리고 사냥을 나간 남자들의 무사귀환을 빌어줄 사슴이 저렇게 행동하자 다들 좌절스런 목소리를 내뱉었다. 겨울 민족 주제에 헤스티의 여름 민족만큼이나 변덕스러운 모습들이었다. 그러나 이해할만하다.

사람이 쉽게 죽는 봄은 사람들을 너무나 쉽게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만. 쓸모없는 말을 할 셈이라면 다물어. 이건 그저 사슴이야. 한낱 미물일 뿐이라고. 앞으로 일절의 말은 하지 마. 관리는 내가 하겠다.”

어차피 이렇게 된 이상 맡겠다 나선 이들은 없을 거였다. 바닥에 넘어진 하스는 그 자리에 주저앉은 채 바들바들 떨었고, 다핀은 여자들의 뒤에 숨어 숨죽인 울음을 토해내고 있었다. 성의 남자들에게 맡긴다면 하긴 하겠지만 이런 소동이 또 없을 거라 장담할 수 없었다.

사슴을 향해 시선을 내렸다.

“감히, 사슴 주제에.”

씹듯이 내뱉은 내 말에 사슴의 눈초리가 아래로 허물어졌다. 꼭 웃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것은 오로지 나에게만 보이는 거라는 걸 알고 있기에 다른 말은 더 하지 않았다. 여기서 더 이랬다간 나만 귀찮아지는 일.

베일을 붙잡은 채 몸을 돌렸다. 베일은 찢어지거나 바닥으로 흘러 내려가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얀 사슴이 내 뒤를 따라왔기 때문이었다. 홀 안에 선 모두가 놀란 것처럼 바라보는 게 등 뒤에서 똑똑히 느껴졌다.

짙은 한숨을 내쉬며 계단을 올랐다.

문을 닫자마자 그것을 돌아봤다. 그것은 마치 아주 당연하게 날 보고 있었다. 어느새 내 베일 끝에는 사슴의 뿔이 걸려 있지 않았다.

제가 목적한 것을 이뤄냈다는 표정을 짓기라도 하듯 그것의 금빛 눈이 호선을 그리며 내려갔다. 이제껏 아벨린 경이 그 어떠한 말을 이죽거려도 얼어붙은 채 깨지지 않던 것이 속에서부터 터지는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내 속 안의 마음이라는 얼음은 녹는 것보다도 더 빠르게, 언제 깨졌냐는 것처럼 다시 차게 굳었다. 싸늘하게 느껴지는 감정은 나조차 두려울 정도로 침착해졌다.

사슴의 눈빛을 피해 자리에 앉으며 옅은 한숨을 내쉬었다. 흐트러짐 없이 얼굴을 가린 베일이 한숨에 살짝 나부끼다 내려왔다.

“하긴, 이미 정해진 일.”

저게 정말로 아시네헤의 자손이든, 다른 요물이든 무엇이든지 알게 뭐야. 상관없다. 그저 철저히 무시하면 그뿐.

아까 나베란에게 말했던 대로 오늘은 헛소리를 많이 듣고. 헛짓을 많이 해서 그런지 배가 불러 저녁이 동하지 않았다. 더욱이 식당에 내려가 봤자 우는 소리나 들리겠지.

자그마치 9년.

어미에게 버림받은 열 살 계집애가 앞으로 1년 만 지나면 성년이 되는 시기. 짧다고 말하기도, 길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그 시간은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변해 사람을 무력하게 만들었다.

해가 지면서 서서히 어두워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내일 일을 생각했다. 소동을 벌였어도 사람들의 믿음이 있으니 마구간 같은 곳에 두고 함부로 대할 수는 없는 일. 그렇다고 이렇게 한방에 지낼 수도, 고작 미물인 주제에 사람처럼 빈방을 내줄 수도 없다.

‘내일은 사람을 시켜서 저것이 머물 곳을 만들…’

“헤에, 이것 참. 인간 주제에 얼음을 품고 있다니.”

갑작스레 들리는 목소리에 생각을 멈췄다. 믿을 수 없을 만큼 깨끗한 목소리인지라 마치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러나 방 안은 밤이 되면 몰아치는 추위를 피하고자 두꺼운 창으로 닫혀 있어서 어디에서도 그런 소리가 날 리가 없었다.

방 안에는 오로지 저것과 나.

시선을 돌려 사슴을 바라봤다. 아직 미친 건 아니기에 환청을 들을 리도 없고, 바보가 아니기에 멍청히 두리번거릴 생각 따윈 없다.

“사슴으로 있으면 사슴처럼 행동해.”

경고하듯 힘을 주며 말했다. 그러나 그것은 사슴의 몸을 가진 주제에 커다란 입을 벌리며 숨을 내뱉었다. 마치, 한숨이라도 쉬는 것처럼.

“이봐, 아가씨. 내 본모습을 똑바로 보고 있는 주제에? 이미 알고 있었잖아.”

황금빛 눈동자를 빛내며, 확실하게 소리를 내어 말했다. 깨끗하게 들리는 목소리는 역시나 저것에서 나는 목소리였다. 두터운 카펫을 밟으며 앉아있는 내게 가까이 다가왔다. 그것의 시선을 피하지 않으며 속으로 혀를 찼다.

이건, 사슴이 아니다.

처음엔 나 역시 홀에 모인 사람들과 똑같이 커다란 하얀 몸체에, 단단한 나뭇가지 같은 뿔을 가진 흰 사슴이라 여겼다. 그러나 황금빛 눈을 마주친 순간, 혀를 찰 수밖에 없었다.

이건 아시네헤의 자손이다,

날 버리고 떠난 어미와도 같은.

눈이 마주친 순간 저것은 더 이상 내 눈에 사슴으로 보이지 않았다. 손도 대지 못하게 겨울 성의 꼭대기에 내려앉아 햇빛에 반짝이는 눈처럼, 순백의 머리카락을 가진 사내였다. 겨울 민족의 사람마냥 새하얀 피부와 선이 고운 얼굴 때문에 착각할 만큼 아름다운.

얼핏 마른 듯 보이나 제법 단단해 보이는 몸매에 레사휘와도 맞먹는 체구였다. 그런 사내의 모습은 오로지 나밖엔 보이지 않았다. 그랬기에 나베란이 사슴이 아닌 줄도 모르고 그것의 허리를 쓰다듬어도 모두가 홀린 채 가만히 있었다.

그래서 저건 사람이 아닌 짐승이라 치부했다.

더군다나 아시네헤의 자손이 새의 형상이 아닌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에 ‘눈 여우’와도 같은 아류종이 아닐까 생각도 해봤다. 하지만 저렇게 지능을 가지고 말을 하는 이상 저것은 확실했다.

“그나저나 특이한걸. 아가씨의 그...”

그것이 채 말을 끝내기도 전에 내 옆에 놓인 책을 들어 발치에 던져버렸다.

“귀찮은 일을 벌일 생각이라면 당장 목을 베어 오늘 저녁 식사로 만들어주지.”

“사납긴.”

책을 주워들며 내뱉는 목소리는 묘하게 나른하게 울렸다. 남들 눈에 어찌 비칠까 궁금할 정도로 유려한 행동과 목소리였다. 검이라곤 잡아본 적 없는 사내처럼 길고 가는 손마디가 먼지를 털어내듯 책을 쓸어내렸다.

“가장 합리적이고 오래된 고문의 방식? 하, 아가씨. 예쁜 얼굴과는 다르게 무서운 취향을 갖고 있는데?”

‘망했군.’

저 눈을 오래 마주하자 더 이상 사슴으로 보이지 않았다. 처음엔 그래도 번갈아 사슴으로 보이기도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사람의 모습이었다. 더욱이 저것도 내가 본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걸 안 순간 당연하게 말까지 걸어왔다.

“저녁 만찬이 되고 싶지 않다면 사슴으로 행동해.”

한숨을 내쉬며 머리가 아파진 머리를 한 손으로 눌렀다. 베일도 벗겨지지 않았는데 맨 얼굴을 보기라도 한 것처럼 내뱉는 말을 보아하니 저것은 사람을 홀리는 존재다.

“아가씨는 잔인하기도 하지. 설마 날 먹을 거야?”

“필요하다면.”

주저 없이 내뱉는 말에 ‘흐음’ 하고 그것이 소리를 냈다.

“맛은 없을 거야. 우린 얼음이니까.”

순백의 머리카락과 정결함이 감도는 아름다운 외모, 신비로운 금빛 눈동자.

아시네헤.

위그노드의 최북단, 결코 살아있는 것은 지나갈 수 없는 얼음장벽 너머 네헤베(Nehebe)의 주인. 태초의 태양 아스헤의 누이이자 고고한 달의 여신. 인간을 사랑해 실로이(Shiloi)에 태양의 민족을 낳은 아스헤와는 다르게 아시네헤는 결코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아시네헤가 얼음으로 빗고 숨을 불어넣은 아시네헤의 일족. 그리하여 달의 일족이라 불리는 존재.

차갑기가 본성인 얼음과도 같아 아무리 아비가 사랑하였어도, 나를 낳고 10년을 살아왔어도 한 줌의 애정조차 남기지 않았다. 그랬기에 아비가 얼음의 독기에 지쳐 쓰러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떠났다.

“알아, 하지만 우린 얼음을 씹어 먹기도 해.”

나는 저 아름다운 일족이 달의 뒷면처럼 잔인한 걸 안다.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도, 쉬쉬하고 감추려 해도 ‘눈 여우’가 노아의 씨앗에 막혀 영지내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아시네헤가 만든 피조물이 맞다는 소리다.

노아의 씨앗은 그런 거니까.

그러나 그걸 굳이 영지민들에게 드러낼 이유도, 지금 내 앞에 선 이것이 아시네헤의 자손이라 말할 필요도 없다. 충분히 내 선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떠벌여 모두의 혼란으로 만들 만큼 어리지 않다.

“아가씨도?”

어느새 이렇게 거리를 좁혔는지 그것의 차가운 손길이 베일 끝을 잡고 있었다. 미간을 찌푸렸다.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지 기척조차 흐려서 이렇게 다가오는 걸 매번 눈치 채지 못했다. 그게 짜증스러웠다.

9년간 젖어미도 손 못 대게 한 걸 한 번도 아니고 번번이 제 것처럼 만지자 그것의 발을 있는 힘껏 짓밟았다.

“놔.”

“어?”

겨울 성의 한기를 견디기 위해 단단한 나무로 바닥을 덧댄 신이라 제법 아플 텐데 그것은 그저 놀란 눈으로 날 바라볼 뿐이었다. 아벨린 경조차 내가 발을 밟으면 소리를 질러대는데.

보이는 건 사람이지만 실은 사슴 발이라 그러한가 싶을 정도로 원했던 반응이 아니었다.

“아가씨 발이 내 발 위에 올라왔어. 왜?”

이건 뭐지.

골치가 아프군.

“놔. 네가 아무리 달의 일족이라 해도 그뿐. 내게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 없어.”

태도로 보여줘도 못 알아들으니 손을 거칠게 쳐내며 낮게 말했다.

“내가 보기엔 아가씨가 함부로 하는 거 같은데? 발도 여전히 내 발 위에 있잖아.”

“아가씨라 부르지 마. 네까짓 거에게 불리고 싶지 않아.”

“그럼 아이샤?”

홀에서 날 부르는 소리를 잊지 않았는지 장난치듯이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베일 너머로 그것을 노려보자 또다시 붙잡은 베일 끝을 흔들었다. 당장 그 손을 쳐내려 하자 이번엔 놀리듯 더 잡아당겼다.

그것의 손목을 억세게 붙잡았다.

“예쁜 아가씨라 좋긴 한데 좀 아파.”

그제야 그것이 눈살을 찌푸렸다.

“아무래도 요물을 성에 두긴 어렵겠어.”

“요물이라...”

“달의 일족은 웃지 않아. 그럼 대체 네 정체가 뭐지?”

심지어 날 가엾이 여긴 오라비조차 웃은 적도, 거짓으로나마 웃기 위해 입 근육을 움직인 적조차 없다.

그러나 저것은 이상하게도 아까도 그랬지만 눈을 휘며 입꼬리를 위로 올렸다.

“휘아르.”

바보도 아니고 그것이 저것의 이름이라는 걸 모를 턱이 없었다. 더러운 걸 잡은 모양새로 붙잡은 손을 내팽개치며 일어섰다.

“못 들어주겠군.”

요물과 상대하긴 쉽지 않다. 어차피 아시네헤의 일족이 아닌 것 같으니 죽여도 후환은 없을 터. 당장 밖으로 나가 저것의 목을 베라고 말해 귀찮은 것을 치워버릴 셈이었다.

“어미가 달의 일족이라 그런지 잘 아네. 맞아, 달의 일족은 얼음이니 웃지 않지. 하지만 난 달라.”

저 헛소리를 무시하며 문가로 가까이 다가갔다.

“아가씨가 그 베일로 감추는 게 뭔지 내가 모를 거 같아? 아가씨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홀로 날 알아봤듯이 나도 마찬가지야. 우린, 같아.”

삿된 요물의 말은 들을 필요 없다. 문고리를 잡아 돌렸다.

“내가 웃는 것과, 아가씨가 노아의 씨앗을 만드는 건 같은 맥락이니까. 뭐, 그래 봤자 쓸모없는 짓거리지만. 이제 앞으로 3일 후에 겨울이 와.”

베일이 흔들렸다.

“그럴 리 없어.”

문고리를 놓고 몸을 돌렸다. 그것의 눈을 노려봤다.

성의 관측자들은 이번 봄은 두 달이라 예측했다. 하지만 잔인한 겨울의 변덕성은 이미 알고 있기에 그걸 채울 만큼 어리석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보름 안에 영지를 넓히러 간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하지만 3일이라니.

그렇다면 봄이 고작 한 달하고 3일뿐이라는 소리다. 그건 작년보다도 짧다. 아무리 겨울이 길고 변덕스러워도 9년 간, 한 달하고도 이주일 정도는 확실하게 봄이었다. 그랬기에 토벌대도 무리를 감수하고 '얼음 봉우리'까지 나아간 것이었다.

관측자들의 말도 있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나 그가 또다시 입 꼬리를 틀어 올렸다.

“아시네헤가 네헤베에서 겨울을 불러오는 걸 막을 자는 아스헤뿐. 그러나 아스헤는 이미 죽고 없지.”

“널 죽이면 아시네헤가 겨울을 불러온다는 말인가?”

“아니. 날 죽이든, 죽이지 않든 3일 후에 겨울은 와.”

“쓸모없군.”

들을 필요도 없는 말에 다시 몸을 돌려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이번엔 그럴 수 없었다. 그것의 손이 내 손을 덮어 힘주는 것을 막았다. 쳐 내어 손을 떼어 내려 하자 베일이 바닥으로 흘러내렸다.

9년 간, 남들 앞에서 단 한 번도 벗지 않던 검은 베일이 떨어져 신발 위를 감쌌다.

“…!”

순간, 결코 녹지 않던 얼음이 깨지는 것 같았다. 너무 오래 잊고 있던 두려움이란 감정에 놀라 아무 말도 꺼낼 수가 없었다.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을 정도로.

“역시. 예쁘네.”

마주친 금빛의 눈동자가 호선을 그리며 손을 뻗었다. 내 머리카락 끝을 그것이 조심스레 붙잡았다.

탁 하고 손을 내치자 얼마나 세게 쳤는지 내 손조차 아릴 정도였다. 그것을 차게 쏘아봤다. 얼마만의 분노인지 입술 끝이 떨릴 정도였다.

“감히, 네까짓 게.”

“역시, 얼음에 마음이 다 먹힌 건 아니었어. 이렇게 화도 낼 수 있는 거 보면. 다행이야.”

시험이라도 했다는 어투로 그것이 허리를 숙여 베일을 주웠다. 먼지라곤 없을 텐데 탈탈 털어 다시 내 머리 위로 씌웠다.

“날 사랑해. 그럼 내가 너에게 봄을 가져다줄게.”

이게 무슨 개소리야.

요물의 얼굴에 차게 손을 들어 후려쳤다.

입맛이 없었기에 고기를 건네주는 것을 마다하고 빵을 뜯었다. 찰 깨를 넘어 감칠맛까지 나는 부드러운 빵이지만 입 안이 써서 그런지 맛이 잘 느껴지지 않았다.

“정말 신기해라. 저렇게 얌전히 앉아있는 거 보면 아까 일이 꿈 꾼 거 같다니까?”

옆에 앉은 나베란이 입가에 묻은 소스를 냅킨으로 닦으며 놀라운 듯이 힐끔거렸다. 시선을 내리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것이 날 향해 눈을 맞췄다.

다른 이들에게 그것은 사슴이었겠지만 내겐 달랐다. 순백의 머리카락을 가진 남자가 나른하게 다리에 턱을 대고 바닥에 앉아 있었다.

거기다 황금빛 눈을 호선으로 그리며 웃는.

저 웃는 얼굴을 향해 테이블 위에 놓인 나이프를 위협적으로 들자 언제 그랬냐는 듯 그것이 바닥으로 고개를 숙였다.

“아이샤가 좋나 봐. 대체 어떻게 한 거야?”

“모름지기 말 안 듣는 짐승은 매로 다스리랬어.”

차게 내뱉는 내 말에 그것의 고개가 더더욱 바닥으로 떨어졌다. 고개를 숙여 잘 보이지 않지만, 볼에는 벌건 손자국이 나 있었다.

“너무해...”

저것의 목소리는 오로지 내게만 들리기에 가벼이 무시했다.

나베란 역시 내 대답에 멋쩍게 웃으며 수프를 떠먹었다. 그러나 이내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다시 스푼을 내려놨다.

“근데, 저 사슴 말이야. 정말 네가 관리 할 거야? 거의 말만 하다고.”

“맞아요, 아가씨. 아까는 사람들이 많아서 놀래서 그런 거 같은데. 이제라도 다른 시종한테 맡기시는 게 어떻겠어요? 하다못해 마구간지기도 있고.”

마샤 역시 걱정스런 어조로 말하며 절인 과일을 내 쪽으로 건넸다. 입맛이 없어 마샤가 주는 걸 족족 거절했던 터라 그녀의 성의를 봐서도 더는 거절 할 수 없었다. 별수 없이 꿀에 절인 포도를 몇 개 집어 접시에 올렸다.

“아니, 관리는 내가 해. 세텐에게 말해 우리를 하나…아냐. 그것도 됐어.”

본모습을 훤히 아는데 이제 와 사람을 시켜 우리를 짓는다고 해서 저것이 그곳에서 잘 리가 없다.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 해도 아까의 일의 반복일 터. 어차피 저것의 정체를 아는 것은 나뿐이라 기분 나빠도 내가 보는 게 낫다.

쓸모없이 차가운 얼음 덩어리 같으니.

목을 축일 셈으로 입에 집어넣었다가 너무 차가워 뱉고 싶어도 혀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린드 경은 그런 쓸모없는 것을 데려왔다.

아까 일이 떠올라 바닥에 앉은 그것을 내려 봤다.

‘사슴이 아니라 개였어.’

한밤중에 잠도 안자고 개소리나 짖어대는 그런 개.

“우리를 안 지으면 대체 저 사슴을 어디에 재우시려고요?”

다가온 마샤가 내 접시 위에 절인 포도를 가득 담아주며 말했다.

“마샤, 그만. 다 못 먹어.”

젖어미인 그녀는 내가 장성한 뒤로는 부엌일을 관리 하면서 내 입에 하나라도 더 들어가는 걸 일생일대의 숙원이라도 삼듯이 매 끼니마다 난리였다. 그런 그녀가 싫지만은 않았지만 오늘은 아니다. 오늘은 예의상 먹는 다는 것 자체가 힘든 날이었다.

가뜩이나 위그노드에는 결코 나지 않는 귀한 과일. 단맛도 못 느끼고 목구멍 안쪽으로 넘길 바엔 저녁 식사에만 나오는 절인 과일을 손꼽아 기다리는 어린 아이들에게 주는 게 낫다.

더욱이 이 성에는 가신들의 어린 자녀들이 많았다.

“아가씨는 좀 더 먹어야 한다니까요. 지금도 이렇게 거죽만 남아서 내년에 시집가실 수 있겠어요?”

“그건 마샤 말이 맞아. 아이샤, 넌 너무 안 먹으려고 해. 오라버니의 이상형은 말야, 좀 더 풍만...”

“됐어, 그만.”

가뜩이나 골치 아픈 판인데 양 옆에 소란스럽게 지껄이는 말에 고개를 세게 내저었다. 그러나 접시 위에 절인 포도가 바닥으로 떨어질 지경이 돼서야 마샤의 손이 멎었다. 옅은 한숨을 내뱉었다.

저것과 단둘이 있다간 손바닥으로 끝날 것 같지가 않아 내려온 건데. 식당마저 순탄하지 못했다. 하지만 생각해준 일이니 화를 낼 일은 아니다.

그랬기에 기대하듯 바라보는 시선을 피하며 포크를 들었다. 음식이 귀한 곳. 접시 위에 놓인 자신의 음식을 깨끗이 비우는 건, 이제 막 동석을 허락받는 어린아이들에게도 가장 중하게 지켜지는 위그노드의 예절이다.

“…”

그런데 마샤가 너무 많이 쌓아준 탓에 포크를 들어 찍기도 전에 포도 두, 세 개가 데굴데굴 굴러 식탁 아래로 떨어졌다. 날 보고 있던 어린 아이들의 입에서 합창처럼 ‘아–’ 하는 옅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아무리 예절이라지만 바닥에 떨어지는 걸 먹는 것 역시 예절에 어긋난다.

한숨을 합창처럼 들으며 다시 포크를 들었다.

“달다.”

그러나 예상외의 목소리에 포크가 허공에 멈췄다. 고개를 돌려 아래를 내려 봤다. 바닥에 주저앉은 저것이 발치로 굴러 떨어진 포도를 입에 집에 넣고 있었다.

“아가씨, 이거 맛있는데? 더 줘.”

내게 맞아 뺨이 부푼 얼굴로 가까이 다가와 당연하다는 듯이 손을 내밀었다. 어이가 없어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만 보자 그것이 더 대담하게 내 무릎에 손을 올렸다. 그런데 문제는—

“에구머니! 이게 무슨 일이람?”

“아, 아이샤. 사슴이 또 화난 거야?”

“아이샤 님!”

다른 사람들 눈에는 사슴이 발을 들어 내 무릎 위에 올려놓은 것이었다. 그런데 이 사슴이 작은 체구도 아니고 아까까지 얌전히 있다가 갑자기 몸을 일으켜 발을 올리자 다들 경악하며 짧은 비명을 내질렀다. 그 모습이 아까의 모습과 같아 보였는지 삽시간에 주변이 얼어버렸다. 가뜩이나 여자와 어린아이들끼리 모여서 하는 식사시간이었다.

“치워.”

당당하게 요구하며 올린 발을 사정없이 포크로 찍자 그것이 입을 열어 한숨 비슷하게 내쉬며 바닥에 다시 주저앉았다. 아까도 그랬지만 짐승의 모습이 본체라면 두꺼운 털로 뒤덮여 있어서 아픈 게 덜한 건가 싶기도 했다.

“다핀, 피토.”

“네, 아이샤 님.”

갑작스런 부름에 벌벌 떨던 어린 아이 둘이 사슴을 피해 돌아 내게 다가왔다. 힐끗 힐끗 사슴을 보며 눈치를 보는 게 어린 아이들에게는 저 체구가 두려움을 유발할 수도 있겠거니 했다.

사용하지 않은 냅킨을 펼쳐 그 위에 접시 채 절인 포도를 쏟아 담았다.

마샤가 작게‘헉’하고 목이 막힌 소리를 내뱉었지만 개의치 않고 그것을 다핀과 피토에게 건넸다.

“가져가서 친구들이랑 나눠 먹어. 자기 전에 양치하는 걸 잊는다면 두 번은 없어. 알아서들 해.”

다소 엄한 목소리인지라 아이 둘은 조금은 언 얼굴로 받아들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샤 님.”

어차피 나는 더 못 먹을 거고 흘리기라도 했다간 저것의 차지가 될 테니 남에게 줘버리는 게 속 편하다.

“설마 방금 그거. 포도가 더 먹고 싶어서 그런 건가?”

사이좋게 포도를 들고 가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사슴을 보고는 나베란이 중얼거렸다. 사슴은 그 달콤한 것이 정말 마음에 들었는지 나베란의 중얼거림을 놓치지 않고 이번엔 나베란을 향해 고개를 틀었다.

“어머? 진짠가?”

절인 포도를 포크에 찍어 사슴 앞에 흔들자 그것이 그 흔드는 대로 고개를 움직였다. 그 때문에 커다란 뿔이 마구 움직여 위협적일 정도였다.

그걸 보고 나베란이 작게 웃음을 터뜨렸다.

“어머, 귀여워라. 정말 포도가 먹고 싶은 거야?”

포크에서 절인 포도를 빼내어 손바닥에 놓고는 사슴을 향해 내밀었다. 그러자 그것이 기쁜 듯 귀를 쫑긋거리며 주둥이를 내밀었다. 그러나 내 눈엔 다르게 보이기에 눈살을 찌푸렸다.

“나베란.”

“응?”

“사슴에겐 일절 손도 대지 말라고 했을 텐데. 먹이도, 재우는 것도, 관리는 모두 내가 해.”

“아. 알았어.”

거의 코앞까지 갔던, 나베란의 손바닥 위에 놓인 포도는 다시 고스란히 식탁 위로 올라가야 했다.

“먹는 거 같고 사악하긴.”

그것이 한탄하며 내밀었던 주둥이를 바닥으로 꺼지게 숙였다. 접시를 말끔하게 비운 이상 내 식사는 끝났기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먼저 올라갈게.”

내가 일어나자 그것 역시 따라 몸을 일으켰다. 냉기가 서린 바닥에 계속 앉아있어도 추워하는 기색은 없었다. 다만, 의자가 아닌 바닥인지라 불편했던지 크게 팔을 뻗어 기지개를 켰다.

아이들의 시선이 두려움과 신기함을 섞어 저것에게 향했다. 어찌 보일지 대충 예상은 됐다. 아시네헤의 자손이라 하니 신기하고, 갑자기 또 달려들까 봐 무섭기도 하고. 작은 손에 들린 포도가 입에 들어가지 않은 채 한참이나 저것에게 시선을 향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동물을 좋아하는 법. 포도를 좋아한다고 하니 무섭지만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모양이었다.

“안 돼.”

짧게 아이들에게 경고하며 돌아섰다.

“아가씨, 너무하잖아. 난 빈속이라고.”

기대가 허물어지는 건 비단 아이들 뿐만은 아니었던 듯 투덜거리는 소리가 식당 밖을 빠져나온 뒤에도 여전히 울렸다.

그러고 보니.

걸음을 멈추며 잠시 생각했다가 입 밖에 꺼냈다.

“사슴은 뭘 먹지?”

그제야 시끄럽게 투덜거리는 목소리가 멎었다. 조용해진 걸 확인하고 다시 생각하면서 걷는데 그것이 빠르게 앞을 막아섰다.

“이봐, 아가씨. 내가 진짜로 사슴도 아닌데 그런 걸 먹을 거 같아? 안 먹어.”

“배가 덜 고팠군. 사슴 주제에.”

“아니라고. 정말, 이렇게 해서 날 사랑할 수 있겠어?”

어이없는 대답에 한숨도 나오지 않았다. 웃을 수 있다면 웃어줬을 텐데.

“3일. 만일, 3일 후에 겨울이 오지 않으면 넌 내 방에 머리가 잘린 채 박제로 걸어 놓을 거야.”

“겨울은 와. 확실하게.”

자신감이 가득한 눈을 똑바로 바라보자 그것이 이내 호선을 그리며 웃었다. 아무리 아시네헤라 할지라도 계절을 함부로 움직일 순 없다. 만일 그러했다면 진즉에 위그노드의 겨울 민족을 없애기 위해 ‘눈 여우’보다는 확실한 방법으로 1년 열두 달을 모두 겨울로 만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니라 반박하기엔 의혹은 많았다.

하필, 겨울이 길어진 게 어미가 떠난 이후라는 것도, 노아의 씨앗이 겨울의 효과와 유사하다는 것도, 그리고 지금 내 앞에 선 아시네헤의 자손이라 일컫는 자가 확신하는 것도.

하지만 이미 식당에 가기 전 탑에 올라가 관측자들에게 들려 확인했다. 3일 후에 겨울이라니. 성의 대리자인 내게 우호적인 관측자들조차 어디서 개꿈을 꾼 거냐고 질타할 정도였다.

그만큼 헛소리인데 저것은 너무나도 확고하고 자신만만했다. 더욱이 웃는다고,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아시네헤의 자손이 아니라고 확정할 수 없었다.

불분명하고,

불확실한 것.

그럼에도 겨울이라는 죽음에 관련된 이상 함부로 묵과하기 어려운 것.

“그러니 날 사랑할 준비나 하라고.”

그렇지 않았다면 저 요사스런 말을 하는 저 머리를 당장 베어 죽였을 거였다. 옆으로 비켜서 걸으며 그것의 발을 꾹 밟고 지나갔다.

“정정하지. 넌 사슴이 아냐. 잡종이었어.”

“그런 무서운 말은 아가씨 입에서 할 소리가 아닌데. 어찌 보면 아가씨 역시 잡종이잖아? 나와 뭐가 다르지?”

“…허황된 말을 지껄이는 너보단 조용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시 복도를 걸었다. 그런데 이내 무서운 기세로 앞을 막아서는 저것 때문에 다시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고개를 들어 그것을 바라봤다.

“…?”

“그, 그러니까. 그게. 아, 정말. 아가씨. 왜 그래?”

“뭐가 말이지?”

겨울 민족의 피부만큼 창백한 얼굴이 붉게 달아 올라있었다. 사슴의 모습일 때는 어찌 보일까 궁금할 정도였다.

“그러니까. 그래, 내가 잘못했어. 말이 심했어. 심했다고. 용서해줘, 아가씨.”

가만히 그것의 얼굴을 올려봤다. 나보다 키도 큰 사내가 저렇게 얼굴을 발갛게 물들이며 고개를 숙이는 모습은 솔직히 별로였다.

“관둬, 추하니까.”

“아? 응?”

“3일 후나 생각해. 겨울이 올 리는 없으니까. 그때까지 목 간수나 잘하라고.”

과연 목을 자르면 사슴의 모습이 될까, 사람의 모습이 될까. 막연히 생각하는데 그것이 또다시 베일 끝을 붙잡았다.

짜증스러워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나 그것은 잡아당기거나 하지 않고 그저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붙잡을 뿐이었다.

“믿어줘, 3일 후엔 정말 겨울이 와. 그때 정말 겨울이 오면 어떻게 할래? 내게 뭘 해줄 거야?”

금빛의 눈동자가 깊숙하게 시선을 맞춰왔다. 황금보다는 달을 녹인 것 같은 색이었다. 달의 일족이라 불리는 존재에게 완벽하게 부합하는 그런 색.

하지만 그뿐.

내게 저 빛은 결코 좋아하는 색이 아니다. 속 안에 차게 식은 얼음이 요동 칠만큼 싫은 색.

위그노드의 겨울 성을 다스리는 자는 언제나 차갑고 변하지 않는 것. 사람이 아니고 물건이어야 한다고 했다. 나약하게 흔들리지 않게. 그래서 여자인 내가 성의 대리자가 되었을 때만 해도 반려를 정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나선다면 차라리 겨울 앞에 죽겠다 하며 성의 가신들이 반대했다.

그때는 저 밥버러지들을 ‘눈 여우’에게 던져줘야 하나 싶을 정도로 짜증났는데 지금은 조금,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흔들리지 않을 수가, 확고할 수가 없었다.

레사휘라면 가차 없었겠지. 불확실하고 불분명한 것은 죽은 가지처럼 쳐버리는 것은 겨울 민족의 성정. 그러나 너무 많은 것을 봐온 나는 그럴 수가 없었다.

남자들은 죽고,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너무나 많이 성에 남는다. 죽는 자들은 말이 없고, 남는 자들은 언제나 큰 소리로 울었다. 나는 이 이상 성이 시끄러워지는 걸 원치 않는다.

만일, 겨울이 온다면.

사실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돌아오라 해야겠지만 얼음 봉우리는 3일로는 부족할 정도로 멀다. 정말 3일 후에 겨울이 온다 하더라도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만큼 우리는 무력했고, 겨울은 강인했다.

“네가 바라는 게 뭐지?”

“내가 겨울을 몰아내 줄게. 그러니 아가씨. 그때가 되면 내 부탁을 들어줘.”

당당하게 자신을 사랑해달라고 요구할 때는 언제고 커다란 사내주제에 베일 끝을 조심스레 붙잡은 채 애처럼 애원했다.

“좋아, 단. 나 역시 조건이 있어.”

“뭐든지.”

내 말에 그것은 너무나도 기쁜 얼굴을 했다. 아까의 애타는 표정은 어디로 가고 내 조건이 어떻든 상관없다는 듯이 환하게 웃는 표정에 말을 잃었다.

‘앤가. 겉만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오라비의 경우를 봐도 아시네헤의 일족이라고 성장하는 게 사람과 다른 건 아니기에 레사휘와 비슷한 또래로 봤는데 저리 웃는 거 보니 그것도 아닌 듯 싶었다. 아니면, 본성이 사슴이라서 저런 건가. 펄쩍펄쩍 뛰고 싶어서?

사슴을 기른 적은 없기에 알 수 없다.

문득 책을 읽다가 가만히 고개를 들어 아래를 내려 봤다. 아무리 남들 눈에는 사슴이지만 적어도 내 눈에 저것은 사람이었다. 아무리 아시네헤의 자손이 얼음이라지만 내 기억에 오라비도, 어머니도 바닥에 그냥 눕진 않았었다.

“아가씨, 왜 그렇게 날 쳐다봐? 혹시, 그 고문 책에 사슴을 괴롭히는 방법이라도 나왔어?”

바라보는 시선에 개도 아니면서 용케 알아채고 가까이 다가와 물었다.

“헛소리.”

혀를 차며 시선을 돌렸다. 그런데 정말 사슴이 나올 문구를 찾기라도 하듯 허락 없이 책을 누르는 손길에 손이 닿았다.

“너.”

“응?”

함부로 책장을 넘기는 그것을 바라봤다.

만일, 내가 아니라 다른 이의 눈에도 사람으로 보였다면 기겁하며 놀랄 차림이긴 했다.

몸에 두르고 있는 건, 이브실라에서 입을 법한 얇은 재질로 외투도, 조끼도 없이 주름이 간 커다란 셔츠와 묵 빛깔의 바지뿐이었다.

실로이에서 온 기사들이 입은 것처럼 치렁치렁한 셔츠는 아니었지만 풍성한 소매 끝이나 크라바트(cravats) 없이 홀로 깃을 세운 셔츠 깃 끝에는 화려한 금빛 자수가 들어가 있었다. 어깨선이 팔뚝으로 내려가 다소 어깨가 넓어 보일 정도로 풍성한 리넨 셔츠는 과하거나 모자람 없는 체형으로 인해 깔끔하게 선이 맞았다.

“안 추워?”

하지만 아무리 봐도 보온성이라곤 없는 옷이었다. 봄이라 하지만 입김이 나올 정도라 설마 설마 했는데 맞닿은 손은 얼음 같았다. 아무리 아시네헤의 자손이 얼음을 빗어 만든 존재라지만 온기 정도는 있었다.

책을 넘기다말고 그것이 히죽 입가를 올렸다.

“추워. 엄청 춥다고. 아가씨,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그리곤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다.

바닥은 두꺼운 카펫으로 돌벽에 스미는 냉기만을 가렸을 뿐이지 아무것도 없었다. 벽난로는 봄이 오면서 재를 치우고 닫아놓은 지 오래였고, 침구는 침대 위에 놓인 것뿐이었다. 놋쇠 화로에 불을 때고 있지만, 벽난로에 비하면 방안을 온기로 채우긴 턱도 없었다.

“…”

잠시 고민했다.

마샤에게 일러 침구를 더 내오라 하면 가져다는 줄 일이지만 마뜩잖기에 입술 끝을 깨물었다. 한 번도 그리한 적이 없었기에 저녁 먹은 것부터 시작해서, 병에 걸린 게 아니냐고 구구절절 끝이 보이지 않는 걱정이 가득한 잔소리를 해댈 게 분명했다. 몰래 시켜도 결국은 마샤에게 들킬 일.

그러나 고민은 고민일 뿐. 고작 그만한 일로 추위에 떨며 잘 수는 없다. 분명, 마뜩잖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나은...

갑자기 피식 웃는 목소리에 생각을 깼다.

“아가씨, 지금 고민하는 거야? 귀엽네.”

베일을 벗지도 않았는데도 마치 눈에 보이기라도 한다는 것처럼 말했다. 그리곤 그것이 유려한 손을 뻗어 침대를 툭툭 쳤다.

“뭘 고민해. 그냥 아가씨 옆에서 자면 되잖아.”

당연하게 요구하는 태도에 고개를 단호하게 저었다.

“안 돼, 짐승은 바닥에.”

“대체 내가 사슴이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하는 건지.”

투덜거리며 한 손으로 머리를 쓸어 올렸다. 결 좋은 하얀 머리카락이 손가락에 걸려 마구 흐트러졌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 손을 뻗었다.

‘역시.’

사슴의 뿔이 만져지지 않았다. 저것이 전에 말한 대로 나와 저것은 ‘같으니까’. 그리고 의혹은 많았지만 이건 곧, 저것이 아시네헤의 일족이 맞다는 확증이었다.

“아직까지 의심해? 얼음을 품고 있으면서?”

“아시네헤의 일족이 새의 모습이 아니란 말은 못 들었으니까. 하지만 그것역시 확실한 게 아니지. 넌 아무리 봐도 아시네헤의 일족이니까.”

얼음으로 빚은 형상에 아시네헤가 숨결을 불어넣었다는 일족. 보통은 아시네헤가 다스리는 네헤베에 살지만 그곳을 나갈 경우에는 새의 모습을 한다고 전해진다. 하얀 깃털과 황금 눈동자를 가진 새의 모습은 곧 달의 일족의 모습이기도 했다.

어미도, 오라비도 늘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새이기도 했다. 어릴 적, 어미가 금지했으나 내게 잘 보이고 싶었던 오라비가 자신의 새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었다.

그때는.

부리도, 날개도 모두 사람의 흔적이라곤 한 톨도 보이지 않았다.

지금, 성 안의 사람들이 저것을 사슴이 아니라고 의심하지 않듯이.

내겐 아무것도 없는 허공이지만 보지 못하는 자들은 사슴의 뿔을 확연하게 보고, 느낀다. 내 눈엔 두 개뿐인 발자국을 네 개로 보고, 횃불 아래 드리워진 사슴의 그림자를 확인한다.

“내가 말했잖아, 아가씨. 아가씨와 난 같다고.”

“…”

하지만 그렇게 넘기기에 꺼림칙한 건,

저것에겐 그림자가 없다.

내 눈에는 사슴뿐만 아니라, 사람의 그림자도 횃불이 일렁임에도 불구하고 바닥엔 아무것도 드리워지지 않았다. 아무리 아시네헤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태양이 아닐진대 그림자가 없는 것은 없다.

“이만, 사람을 시켜 침구를 내오라 하지.”

하지만 굳이 물을 필요는 없었다. 이것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 필요도, 알고 싶은 마음도 없다. 어차피 3일 후에는 사라질 것. 그게 아니라면 묻는 것은 그 뒤다.

“아니, 그걸로는 부족해.”

“…?”

어이가 없어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말고 그것을 바라봤다. 명색이 얼음 주제에 뭐?

“아가씨, 방 안엔 젊은 남자랑 여자가 있어. 그리고 지금은 밤이야. 방은 춥고 사람의 살은 아주 따뜻하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거 같아, 아가씨?”

“역시.”

이해했다는 어투로 말을 내뱉자 그것이 반색하며 몸을 일으켰다.

“그렇지? 그렇지, 아가씨? 자, 이리…”

“역시 옛말이 맞아. 함부로 불가에 짐승과 동석하지 말라 했는데. 나가. 오늘 네 잠자리는 문밖이야.”

그래도 내 눈에는 사람이기에 방 안으로 들여보내 줬던 건데 저것은 그냥 짐승이었다.

“…너무해.”

방금까지 환하게 웃던 얼굴이 물 흐리듯 지워지더니 축 눈꼬리를 내리며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았다. 신경 쓸 필요 없는 일이었다. 어차피 저것은 얼음.

얼어 죽지 않기에 저리 입고 다니는 거고, 아직 입이 얼지 않아 저리 내뱉는 거였다.

“치사하게 밥도 안 주고.”

“…”

“아아. 추워. 바닥은 엄청 춥구나... 이러다 진짜 얼음 되겠네. 없는 사람이 참아야지... 아아, 춥고, 배고프고…잠들면 죽는 거야?”

아주 오래 전에, 성에 방문한 유랑극단의 연극 같았다. 내가 아무 말 없자 끝까지 시선을 내 쪽으로 향한 채 바닥에 머리를 대며 누웠다. 그 모양새를 가만히 지켜보는데 그것이 이젠 눈 꼬리를 축 내렸다. 가뜩이나 하얀 피부와 머리카락 때문인지 바닥에 눕자 파리할 정도로 창백해 보였다.

“콜록, 콜록. 내가 아무리 아시네헤의 일족이라지만 병에 안 걸린다는 건 아닌데...”

아까까지만 해도 잘도 누워있더니 이젠 간질병에 걸린 사람마냥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다. 더 지켜보면 뭐가 또 추가될까 싶어 가만히 하는 양을 바라봤다. 의외로 연극을 보는 기분이었다.

결국, 태연한 태도에 지쳐 그것이 벌떡 몸을 일으켰다.

“아, 정말. 아가씨, 내가 가엾지도 않아?”

“어차피 안 춥잖아.”

어미의 입에서도, 오라비의 입에서도 단 한 번도 춥다는 말은 들어본 적 없었다. 그러나 그것이 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내저었다.

“추워. 춥다고. 정말로 추워. 나는 아가씨와 같아. 아가씨도 추위는 느끼잖아. 나도 추워. 손 만져봐. 얼겠어.”

“그 입이 얼었으면 더 나았을 텐데.”

혀를 차며 이불을 걷고 침대에서 일어났다. 테이블 위에 놓인 컵을 들어 내밀었다.

“마셔. 따뜻해질 거야.”

내 말에 컵 안에 든 불그스름한 액체를 바라보며 손을 내밀어 받았다. 뭐냐고 물을 만도 한데 그것은 정말 배라도 고팠는지 바로 입가에 대고 한 모금 넘겼다.

“윽,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써.”

“자.”

쓰다고 잔뜩 찌푸린 입안에 손에 들고 있던 것을 날름 던져 넣었다. 그것의 잔뜩 일그러진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아, 달다.”

어린 아이마냥 단 것에 취해 배시시 웃는 게 신기해 가만히 지켜봤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절인 포도 때도 그러더니 또다시 손을 내밀었다.

“이건 뭐야? 또 없어? 아가씨, 손 내밀어 봐. 정말 없어?”

“애도 아니고.”

쯧–하고 혀를 차며 아무것도 없는 손을 보여줬다. 그러자 그것이 눈꼬리를 축 늘어뜨리며 굉장히 아쉬운 얼굴을 했다. 여기에 나베란이 있었더라면 당장에 입안에 손에 가득 초콜릿을 집어넣었을 것이다.

“취침 음료가 쓰니까 먹는 거야. 더 없어.”

“취침 음료? 아, 지금 내가 마신 술 말하는 거야? 애들이 먹긴 쓸 거 같은데.”

위그노드의 겨울 민족이 겨울을 이기고 살아남은 것은 취침음료라는 하나의 문화 덕분이기도 했다. 아무리 불을 지피고, 두꺼운 털로 몸을 감싸고 잠들어도 밤사이 체온은 떨어지기 마련.

그래서 자기 전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포도주에 보드카를 섞어 만든 취침 음료를 마시고 잔다. 열 살 이전의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엔 포도주가 섞인 코코아를, 열 살 이후는 포도주에 보드카를, 성년이 지나면 보드카를 마시고 잔다.

포도주에 보드카를 섞어도 써지기 때문에 이렇게 마시고 초콜릿을 입가심으로 먹는다.

“아가씨.”

이제라도 사람을 불러 침구를 가져다 달라고 말하려는데 갑자기 팔이 붙잡혔다. 미간을 찌푸리며 팔에 힘을 줬다.

“뭐하는 짓이지?”

“아이샤”

금빛의 눈동자가 똑바로 응시하며 더 세게 팔을 붙잡았다. 그것을 차게 노려봤다. 레사휘일지라도 내게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 없었다.

하물며, 이런 것에게.

주먹 쥔 손이 차게 식은 분노로 잘게 떨렸다.

“함부로 부르지 마.”

“아가씨, 그럼 나 여기 있어도 돼? 이불 없어도 돼.”

“놔.”

“이불은 다 아가씨가 덮고 자. 나는 그냥 옆에만 있을 게. 손도 안 잡아도 돼. 그냥, 그럴게.”

“놓으라고.”

제 말만 지껄이는 멍청이를 향해 발로 걷어찼다. 설마하니 걷어차일 줄은 몰랐는지 그것은 그대로 가슴을 맞고 바닥에 쓰러졌다.

“대체 놓으라고 몇 번을 말해야 하지?”

“진짜. 사납긴.”

언제 애원했냐는 듯이 그것이 몸을 일으키고는 쳇, 하며 혀를 찼다. 이제 보니 그냥 사슴이 아니라 연기가 수준급인 사슴이었어.

침구를 더 내오라 하고 싶은 마음이 녹은 물처럼 흘러 사라졌다. 문가로 향하던 걸음을 도로 돌려 침대로 갔다. 침대 옆 협 탁 위에 놓인 기름등의 불을 후— 불어 끄자 삽시간에 방 안이 어두워졌다.

“아가씨, 나 정말 바닥에서 자?”

어둠 속에서 가운을 벗고, 베일을 벗어 따로 협탁 위에 올려놨다. 어둠 속에 둥둥 황금빛 눈동자가 떠다니는 것처럼 보였지만 무시하고 침대 안으로 파고들었다.

마샤가 미리 넣어준 뜨거운 물주머니를 품 안에 끌어안고 눈을 감아버렸다. 등 뒤에서 사슴이 투덜투덜 거리는 게 들리긴 했지만 어차피 짐승은 밤에 우는 법이다.

더욱이, 제 입으로 이불이 필요 없다 했으니 자업자득. 귀를 막고 더 깊이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저것이 무슨 짐승인 줄 알면서도 방 안에 들인 것은 자신만만할 정도로 잠귀가 예민했기 때문이었다. 지난 9년간, 아무도 베일 안의 맨얼굴을 못 봤다는 것 역시 그것에 한몫했다. 갑자기 밤에 누가 찾아와도 그보다 먼저 잠에서 깨 베일로 얼굴을 감췄다.

그런데.

어둠이 가득한 방안에서 선명하게 마주한 눈(雪)과도 같은 것을 본 순간 와락 미간을 찌푸렸다. 손을 들어 사정없이 팔을 비틀어 꼬집었다.

“일어나.”

“으악!”

벌에 쏘인 짐승처럼 이것이 놀라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이불이 필요 없다는 것은 사실이었다. 한기에 눈을 떴을 때, 이미 이불은 바닥으로 추락해있었고 이불 대신 이것이 날 감싸고 있었다.

“확실하게 목줄을 메어놨어야 했는데.”

본디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지 기척이 흐렸다. 그 때문에 이렇게 가까이 다가온 것도 알아채지 못한 게 충격을 넘어 짜증스러웠다. 모든 게 다 기척이 흐리다는 것을 알면서도 충분히 깰 거라 자만한 내 잘못이었다.

갑작스런 통증에 놀라 눈을 뜬 이것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이내 나와 눈을 마주쳤다. 새벽이라 하지만 아직은 캄캄한 어둠. 바로 앞만 겨우 보일 정도였는데 이것이 날 향해 황금빛 눈동자를 휘었다.

“역시, 아가씬 자다 깬 것도 예쁘네.”

또.

맨 얼굴을 쓰다듬는 손길에 입술을 깨물었다. 사람이 아니라 여겨서 그런 건지 이것은 다른 누구보다도 쉽게 감춘 것을 엿보게 하였다. 말로는 아가씨 라 말하면서 실상 이 짐승은 성 안의 그 누구보다도 날 함부로 대했다.

이를 악물며 차게 입술을 열었다.

“…네가 매를 덜 맞았구나.”

“매는 그만... 그냥 자자, 아가씨. 자, 졸리고, 추우니까 다시…”

어이가 없어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자 이것이 긍정으로 본 건지 반쯤 잠든 눈으로 웃으며 어깨를 붙잡아 끌어안았다. 벗어나려 하자 졸리다는 말은 거짓인 듯 팔에 힘을 줘 더욱 세게 품으로 당겼다.

“놔.”

“윽!”

끌어안겨 자유롭지 못한 두 손 대신 무릎을 세워 복부를 세게 걷어차자 배를 붙잡으며 몸을 움츠렸다. 비명 하나 없이 맞던 것이 이번엔 정말 아픈지 얼굴까지 일그러뜨렸다. 그러나 동정이 가지 않았다.

호의를 가지고 다가와도, 잘 웃어도 이것은 우리와는 다른 아시네헤의 일족.

다른 누구보다 잘 아는 나는 처음부터 방안에 들이지 말았어야 했다.

아무리 마샤라 할지라도, 성안에 남은 기사들이 조롱하더라도 나는 이 성의 주인. 내 결정에 왈가왈부할 수 없다. 남들 눈에 사슴이라고 내 눈에 사슴인 것도 아니면서 나는 이것을 말을 하는 짐승쯤으로 보고 있었다.

아시네헤의 일족이 무엇인지 똑똑히 알면서.

“네가 감히 뭐기에.”

이것이 다시 또 무슨 요사스러운 말을 내뱉기도 전에 베개를 들어 냅다 후려쳤다. 쥐새끼마냥 저지른 일에 양심도 없이 웃는 얼굴이 꼴도 보기 싫었다. 그리고 이것의 정체를 알면서도 휘둘리는 나 자신의 멍청함에 치가 떨렸다.

3일이라는 세 치 혀에 휘둘려 침대 위까지 올라오는 것을 묵과했다.

저것은 달의 일족.

아비와 날 버렸던,

종국엔 사람들을 죽어 나가게 만들었던.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며 베개에 힘을 실어 치는데 이것이 손을 들어 내 팔을 붙잡았다. 고통스런 얼굴도, 분노하는 얼굴도 아니었다. 그저 금빛의 눈동자가 담담하게 날 바라봤다.

“…아가씨. 그만해. 어차피 나한텐 별로 아프지도 않아. 아가씨만 힘들 뿐이야.”

“감히, 네까짓 게.”

얼마나 베개를 들어 후려쳤는지 손안에 땀이 고일 정도였다. 그런데 우스운 건 이것의 말대로 때리는 것도 힘들었다. 세찬 숨을 내쉬며 베개를 손에서 놓았다. 화를 더 내고 싶지만 이내 잔잔해지는 마음에 갈데없는 분노가 속 안에 자글자글 끓다 식어갔다.

“얼음. 그리고 아가씨와 같은 거.”

“달라.”

이를 갈며 내뱉었다. 아무리 속 안에 얼음이 들어차 있다 하더라도 나는 결코 저것과 같지 않다. 내 강한 부정에 날 보는 얼굴에 옅은 한숨을 담았다.

“사실대로 말할게. 아시네헤의 일족은 모두 다 새야. 그건 결코 달라지지 않을 사실. 나 역시 본 모습은 새가 맞아.”

“수작질이라면 집어 쳐.”

차게 말한 내 목소리에 이것은 애타는 표정으로 손을 뻗었다.

“나는…!”

그러나 거기까지. 이것이 차마 다 내뱉지 못한 말처럼, 손은 내게 차마 닿지 못하고 허공에 얼어붙은 것처럼 멈췄다. 손끝이 잘게 떨리다 빈 채로 다시 내렸다. 이것은 날 보며 짙은 한숨을 내쉬었다. 반짝이는 눈동자가 빛을 잃은 채 날 바라봤다.

“나는 저주받았어. 아가씨처럼.”

저주.

“나는, 아냐.”

그 말이 주는 무게에 애써 그 시선을 피하며 중얼거렸다. 그러나 이것이 무엇을 바라보는지 똑똑히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덤덤하게 내 눈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아시네헤가 저주를 걸어 하늘을 날던 내 모습을 바꾸고 지상으로 추락시켰어. 두 번 다시 네헤베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나는…! 아가씨, 나는 돌아 가야 해. 반드시. 그러려면 저주를 풀어야 해. 네헤베는 오로지 달의 일족만의 땅. 새의 모습을 가진 그들밖에는 얼음 장벽을 넘을 수 없으니까.”

“…”

입술을 깨물었다.

모든 걸 믿을 순 없다. 하지만 내게 봄을 주러 왔다는 것보다는 믿을 만한 말이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은 한낱 눈처럼 녹아 사라질 감정보다 믿을 만하다.

피했던 시선을 다시 이것에게 향하며 입을 열었다.

“내가 저주를 풀 수 있다는 말인가?”

“응, 오로지 아가씨만이.”

“어떻게? 난 마법사가 아냐.”

아주 오래전, 아스헤가 아시네헤와 함께 있을 때에는 세상에 기기묘묘한 마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은 오로지 이야기 속에 전해질 뿐. 현재 사람은 마법이라는 것을 쓰지 못한다.

이것의 시선은 흔들림 없이 날 향하고 있었다.

“마법사는 못해. 오로지 아가씨만이 할 수 있어. 나는 그래서 온 거고.”

“…”

늘 웃던 얼굴이 아닌, 한 줌의 미소조차 없이 내뱉는 말은 마치 진실처럼 들렸다. 그러나 진실처럼 보이는 거짓도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지 않다. 더욱이, 내가 이것의 저주를 풀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럴 용의는 없다.

이건, 내 성의 가신도, 영지민도 아니며 그저 죽이지 않고 지켜보는 것.

마치 내 속을 읽은 것처럼 이것이 날 바라보며 다시 옅게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지금은 말하지 않을래. 어차피 날 믿지 않을 테니까. 들어주지도 않을 거잖아? 그러니 지금 말고. 이제 앞으로 이틀 후에 겨울이 올 때. 그때 말할 게.”

순간적으로 어이가 없어 미간을 찌푸리는 날 향해 이것은 미소를 지우지 않았다. 진지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또다시 헤실 거리는 얼굴로 돌아왔다. 뭔가 이상했다. 목 끝까지 치밀었다가 도로 내려간 것처럼.

기분이 이상했다.

그러거나 말거나 이것은 손을 뻗어 잔뜩 구겨진 베개를 두드려 모양을 바로잡더니 내 머리말에 다시 놨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이불도 주워 털고는 다시 침대 위에 올려놨다.

“뭐하는 짓이지?”

“아가씨, 그때까지 봐주면 안 될까? 나 정말 손만 잡고 잤잖아. 바닥은 너무 추워. 춥기만 해? 허리가 엄청 배긴다고. 남자한테 허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가씨가 모르진 않…”

“시끄러워.”

손을 들어 자꾸 요사스럽게 말하는 이것의 볼을 세게 잡아당겼다.

“정말. 아가씨는 버릇이 나빠. 툭하면 손이 나가잖아. 손도 어찌나 매운지. 나니까 맞아주는 거야.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돼.”

짐짓 제가 뭐라도 된 것마냥 훈계하는 모습에 기가 막혀 한숨을 내뱉었다.

“어디 매가 필요한 짐승만 할까.”

“아가씨. 진짜, 나 사슴 아니라고.”

베개에 맞아 잔뜩 헝클어진 머리를 세게 흔들며 이것이 반박했다. 그러나 더는 들어줄 필요가 없었다. 은근슬쩍 제자리의 시트를 툭툭 치며 누울 준비를 하는 이것은 진짜 사슴만도 못한 짐승이다.

함부로 주인의 침대에 올라온 짐승은 발로 걷어차 교육해야 한다.

벌떡 몸을 일으키자 이것이 의아한 얼굴로 날 올려봤다. 발을 들어 감히 침대에 올라온 이것을 걷어차 바닥으로 떨어지게 했다.

“악! 아가씨, 이건 정말 아파. 아가씨 다리 힘이 어찌나 센지 허리가 아파서 못 일어나겠어. 윽, 허리가…!”

다시 태어나도 제 잘못을 모를 것 같은 이것의 목소리에 미간을 찌푸렸다. 차서 굴러 떨어지게 할 게 아니라 입을 후려쳐서 다물게 했었어야 했다.

“연극하는 사슴 주제에.”

“…아닌데, 진짜 아픈데.”

조금 쉬었다 말하는 걸 보니 그나마 양심은 있는 것인가. 아니, 애당초 저것에게 양심이라는 건 불 앞에 선 얼음이다.

아침이 밝자마자 저 요사스러운 것을 데려온 린드 경을 족쳐야겠다고 생각했다.

“넌 내일. 린드 경에게 보낼 거야. 그때까지만 참지.”

이제 이틀이지만 나는 더는 저것과 이런 식의 입씨름 하고 싶지 않았다. 어차피 아시네헤에게 저주받았다고 했으니 이 이상 아시네헤로부터 분노를 받을 리도 없다. 그러니 굳이 내 옆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데려온 자가 린드 경이니 그가 해결하는 게 낫다.

“싫어.”

“싫으면 지금 떠나.”

허리가 아파 움직이지도 못하겠다는 말은 역시나 연극이었다. 이것이 벌떡 일어서서 다시 다가왔다. 그러나 싫어하는 걸 알기에 더는 내게 손대지 않았다.

금색의 눈동자가 간절하게 날 불렀다.

“제발, 아가씨. 나는 아가씨 옆이 좋아. 여기 있을래. 아가씨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 좋아. 만지지 말라고 하면 만지지도 않고, 보지 말라고 하면 보지도 않을 게. 그냥 옆에만 있게 해줘. 아가씨는 아니어도 난 아가씨가 필요해.”

“난, 아냐.”

“아니, 아가씨도 내가 필요하게 될 거야. 겨울은 앞으로 이틀 후에 반드시 올 거니까. 그때가 돼서도 안 된다면 떠날게. 하지만 아가씨. 아가씨는 결국 날 필요하게 될 거야. 절대적으로. 그때까지 아가씨가 하라는 대로 할 게. 응? 그러니까 제발. 날 곁에 있게 해줘.”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지? 난 저주를 푸는 힘 같은 거 없어.”

“말했잖아. 내 저주는 아가씨만이 풀 수 있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제발, 그냥 곁에만 있게 해줘. 이제 얌전히 있을 게.”

목구멍까지 차오를 것 같은 절박한 목소리에 이것의 눈을 올려봤다. ‘제발’이란 말은 절박하고 간절했다. 나는 그것을 안다. 나 역시, 간절했던 때가 있었으니까.

제발 곁에 있게 해달라고, 제발 데려가 달라고 수없이 애원했던 때가.

들어주지 않았을 때의 절망조차 안다.

억지로 잊고 있었던, 차갑게 쌓인 눈 위에 내던져졌던 감각이 떠올랐다. 가엾게 날 보던 오라비의 시선 또한 가시처럼 느껴졌다.

성의 남자들은 절대 입에 담지 않는 말. 어린 계집애들조차 잘 내뱉지 않는 말을 태연히 내뱉는 이것을 향해 한숨을 내뱉었다.

“이틀 후에는 내 방에서 나가.”

“고마워, 아가씨!”

조건이 붙는 허락임에도 기쁨을 주체하지 못한 이것이 날쌔게 팔을 뻗어 날 끌어안았다. 그러나 이내 불에라도 닿은 얼음처럼 화들짝 떨어지고는 멋쩍게 웃었다.

“아가씨 말대로 할게. 난 여기 바닥에. 아가씨는 침대에.”

한숨을 내뱉었다.

뭐든지 저것이 하자는 대로 끌려가는 기분이었다. 그런데 우습게도 저 모습에 어린 시절의 내 모습이 겹쳤다.

갖고자, 갖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던 그때와. 그러나 그 부질없음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내 안에 고여 있었다. 퍼내려 해도 손에 닿지 않는 아득한 저곳에 얼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올라와. 그 대신, 실수든 고의든 함부로 날 만질 시엔 두 번은 없다는 걸 기억해.”

금색의 눈동자가 다시 반짝거렸다. 내가 행여 말이라도 바꿀까 날쌔게 침대 위로 올라와 누웠다. 그리곤 행여 제가 실수하지 않게 똑바로 누운 채 깍지를 낀 손을 배 위에 올려놨다. 고개를 돌려 날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봐, 나 진짜 아가씨 말대로 할 거야.”

칭찬받길 바라는 태도라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이건, 아무리 봐도 애야.’

펄쩍펄쩍 뛰다가 훌쩍훌쩍 울기도 하는. 그러나 달콤한 것에 금세 웃고 마는. 만일, 이틀 후에 이것의 뜻대로 된다면 나이를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봄이 왔으니 남자들은 사냥을 나가고, 여자들은 양의 젖으로 음식을 만들고, 아이들은 모여서 함께 양과 순록을 친다. 위그노드의 땅은 척박하고 건조해 씨앗을 뿌려 추수하기는 어려워 대부분 사냥과 어업, 목축업을 한다.

식량 대부분은 이브실라에서 얻고, 양을 이용하여 양젖 등의 유제품과 털, 고기를 얻는다. 그리고 부족한 나머지는 사냥으로 구한다. 이번 예측한 봄은 길었고 기사들이 사냥터를 넓히고 있어 작년보다 제법 나은 분위기였다.

‘눈 여우’를 죽이고 귀환한 기사들과 영지의 남자들이 제법 괜찮게 사냥감을 들고 왔다. 다른 때보다도 사냥감은 풍부했다. 그 말은 즉, 밖으로 나간 기사들이 제법 잘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들이 순조롭게 영지를 넓히면서 남자들은 더 위로 갈 수 있었고, 사냥감 역시 아래로 내려오고 있었다.

“아이샤, 요새 계속 날씨가 정말 좋은 거 같아. 햇살 봐.”

나베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봄이라 할지라도 어제오늘 흔치 않은 맑은 날씨였다. 정원에는 우리뿐만 아니라 포근한 기후에 성 안의 어린아이들 역시 나와서 뛰어놀았다. 잠잠한 바람 덕에 매번 잘 익은 과일처럼 발그랗게 물든 뺨이 오늘은 제법 가라앉아 있었다.

위그노드를 모르는 자들은 그저 얼어붙은 곳이라 단정 짓기 쉽지만, 이곳은 봄이라는 계절이 존재하는 곳이었다. 완연하게 추위가 가신 것은 아니지만, 추위를 불어오는 바람이 잔잔해진다.

녹은 눈 사이로 어린 풀과 이끼들이 돋아나고, 목동들이 이끄는 양과 순록들은 바닥에 코를 대고 새순을 뜯어 먹는다. 더 위로 올라가면 매서운 바람으로 인해 키 작은 관목들이 대다수지만 영지는 위그노드의 비교적 아래쪽이라 키가 큰 침엽수도 제법 많았다.

“사슴도 처음엔 걱정 많았는데 이젠 괜찮은 거 같아. 요 며칠, 정말 얌전하잖아. 기분 좋나 봐.”

나베란의 말에 힐긋 고개를 돌려 보자 두 걸음 뒤에서 따라오는 저것이 내 시선에 멋쩍게 손을 흔들었다.

새벽의 일 뒤로 하루가 더 지났다. 그동안 자기가 말했던 대로 저것은 계속 얌전하게 굴었다. 멋대로 베일에 손대는 것도, 가까이 다가오는 것도 더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디고 저렇게 시선 가는 곳에는 꼭 따라 붙었다.

목줄을 메어 끄는 것도 아니고, 목동처럼 길을 지정해주는 것도 아닌데 마치 길들인 가축마냥 따라오는 모습에 아이들이 힐끗힐끗 시선을 줬다.

이 산책은 오늘만이 아니라 어제도 했는데 그때보단 조금 용감해진 표정들이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아이들의 눈에도 어제오늘 얌전한 사슴의 모습에 안도하는 눈치였다. 더욱이, 겨울로 인해 오랜 시간 동안 성 안에 갇혀 있다가 짧은 봄 기간에 정원에 나오면서 아이들은 들떴다.

“아이샤님...”

다른 애들처럼 큰 소리로 웃으며 뛰는 대신 조용히 다핀의 손을 잡고 걷던 파슈가 조심스레 날 불렀다.

“뭐지?”

걸음을 멈추고 검은 베일 아래로 내려 보자 파슈가 두 눈을 깜빡이며 입을 열었다. 이제 열두 살의 파슈는 다핀의 친언니로 얌전하고 말수가 적은 소녀였다. 평소라면 내게 가까이 다가오지도 않을 아이의 부름에 나베란 역시 흥미를 느끼고 파슈를 바라봤다.

“저...”

아이들은 나긋나긋하거나 다정한 성격이 아닌 나를 어려워했다. 더욱이,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성의 대리자를 자처하는 모습은 성 안의 여자들에게도 제법 곱게 보이지 않는지라 그들의 자녀들 역시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고 있었다.

“파슈, 왜? 떨지 말고 말해봐. 말한다고 아이샤가 잡아먹는 건 아니란다.”

“나베란.”

꺄르르 웃음을 터뜨리며 내뱉는 말에 나베란을 질타하듯 불렀다. 그러나 그녀는 베일로 얼굴을 가려 보이지 않는다고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하지만 나베란 덕분에 긴장이 조금 가셨는지 파슈가 그제야 내게 시선을 올렸다.

“사슴에게…이걸 줘도 될까요?”

파슈가 손 위에 올린, 곱게 싼 손수건 안에는 초콜릿이 하나 담겨 있었다. 10살이 넘은 아이들에게는 자기 전 취침음료와 함께 초콜릿이 하나씩 지급된다. 더 먹고 싶다고 떼를 써도 단 한 개.

지금 이 한 개는 어젯밤 먹지 않고 남겨둔 것이 분명했다.

“왜 먹질 않았지?”

“그게…”

고저가 없는 목소리라 질타로 들었는지 파슈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다시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렸다.

“네 맘대로 하렴.”

어차피 자기 몫이니 탓할 필요도 없고, 저것은 달콤한 것에 환장하니까.

그리고 진짜 사슴도 아니니 아무거나 준다고 문제 될 리도 없다. 식당에 내려가지 않고 따로 식사를 부탁해 저것과 같이 먹었다. 초식동물의 사슴이라면 먹지 않을 고기 수프에 빵을 찍어 먹는 데다, 고기가 부족하다 탄식하는 모습을 보고 저것이 사슴의 겉가죽을 뒤집어쓴 잡식이라는 것을 이미 확인했다.

“파슈, 잘 됐다. 어서 사슴에게 줘 봐. 좋아할 거야. 엊그제 저녁 식사 때에도 단 걸 좋아하는 것 같았잖아.”

나베란의 격려에 그제야 파슈가 움츠린 어깨를 펴고 내 뒤에 선 사슴에게 조심스레 다가갔다. 발갛게 물든 얼굴에 긴장과 기대가 어우러져 묘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건 따라가는 다핀 역시 마찬가지였다.

머뭇거리길 몇 차례. 나베란이 가까이 다가가 어깨를 감싸며 격려했다. 그러고 나서야 겨우 곱게 손수건에 싼 초콜릿을 저것의 입 쪽으로 내밀었을 때 금색의 눈동자가 내게 향했다.

“아가씨, 나 이거 먹어도 돼?”

좋아 죽겠다는 얼굴을 하는 주제에. 고개를 끄덕이자 어쩔 줄 모르는 얼굴로 초콜릿을 받아 입에 넣었다.

“달다.”

“아, 아…!”

“손이 닿았어!”

기뻐 볼이 터질 정도로 붉어진 파슈 대신 다핀이 환호하듯 말했다. 저번처럼 더 달라고 조르지 않고 이번엔 얌전했다. 그 모습에 긴장하던 소녀 둘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며 배시시 웃었다.

“마, 만져도 될까?”

다핀이 용기를 내 손을 뻗었다.

분명 일전에 여자들은 손도 대지 말라 그리 경고했는데. 하지만 저렇게 어쩔 줄 모르고 기뻐라 하는 아이들한테 그 경고를 상기시켜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어차피, 저것이 사슴인 줄 아는 어린 아이들에게 되려 두려움을 줄 필요는 없었다.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는 투로 저것에게 경고하듯 시선을 던지며 그들의 행태를 가만히 지켜봤다.

다핀의 작은 손이 바닥에 몸을 숙여 시선을 맞춘 저것의 볼을 가만히 쓰다듬었다.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저것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음을 아는데, 나를 제외한 주변 모두가 모두 저것을 사슴으로 보고 있다. 저들은 사슴의 얼굴을 쓰다듬는 줄 알겠지만 나에겐 아니었다.

다핀의 손길에 저것이 부드럽게 눈을 휘었다.

“꺄! 부, 부드러워…!”

이내 언제 닿았다는 양, 그 작은 손을 오므리며 부끄러운 듯 팔을 마구 흔들었다. 그 모습에 사슴에게 관심을 가졌던 어린아이들이 하나 둘씩 자석에 이끌리듯 가까이 다가갔다.

조금 나이가 있는 아이들이었다면 삐죽삐죽 대며 가까이 가지 않았을 텐데 지금 이 곳에 있는 것은 거의 10대 초반의 아이들이었다.

위그노드의 아이들은 10살이 넘으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한다. 영지민일 경우 남자아이들은 순록과 양을 보살피고, 여자아이들은 어머니에게 배운 바느질을 하거나 양털을 모아 실을 꼰다.

성의 아이들 역시 다르지 않다. 신분의 고하는 있어도 일의 고하는 없다. 10살이 넘은 여자아이들은 침방에 모여 바느질을 하거나, 양털을 꼬고, 그걸로 옷을 만든다. 사내아이들의 경우 영지민처럼 목동 일을 하진 않는다. 가신들의 자녀들이기에 아비를 따라 기사가 되기 위해 검을 배우고, 몸을 단련한다. 그리고 아비의 말을 관리하기 위해 마구간에서의 일을 돕는다.

“나, 나도 만져볼래!”

“나도!”

하지만 봄은 짧은 것.

13살 이상의 아이들이야 지금 침방에, 마구간에서 일을 하겠지만 그 이하의 아이들은 실상 일을 많이 하지 않는다. 어린 육체에 가뜩이나 해가 짧은 위그노드에서 햇볕을 많이 쬐는 게 좋기에 자주 밖으로 나와야 해서 더 그러했다.

갑자기 모인 아이들로 인해 저것이 난감한 기색을 보였다. 그러나 숙인 몸을 일으키진 않았다.

“잠깐만, 애들아. 갑자기 그러면 사슴이 놀랄 수도 있어.”

그러나 원래 하나가 시작하면 다른 하나도 똑같이 하고 싶은 게 애들 마음. 조금만, 조금만이라면서 다가온 애들이 손을 대기 시작했다. 그런데 개중엔 집게손가락으로 쿡 찌르고 도망치는 경우가 있었다.

“이 아가씨 말하는 거 참 마음에 드는데…말리는 거야, 마는 거야?”

쿡 찔린 허리를 매만지며 저것이 한숨을 내쉬었다. 확실히 나베란은 제지를 강하게 하는 편이 아니어서 더 그러했다.

“…”

나 역시 두 걸음 뒤에 서서 말릴까 하다 크게 곤혹스러워하는 것 같지는 않아 말리지 않았다.

어른들이 거의 다 나간 성. 아비가 무사히 돌아오길 빌며 불안에 떠는 어미를 아이들은 모르지 않다. 점차 시간이 지나 봄이 끝나갈 무렵이 다가오면 그런 분위기는 더 심화되어 아이들조차 잘 웃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 뭐가 그리 신 나는지 고작 사슴을 가운데에 두고 꺄르르 터지는 웃음은 나쁠 것 없었다.

“으앙—!”

“데르토!”

그런데 급기야 형들에게 밀린 데르토가 바닥에 넘어져 울음을 터뜨렸다. 다핀이 성의 여자들 중 가장 어린 애라면 데르토는 성의 모두 중에서 가장 어린 여섯 살의 소년이었다. 평소엔 조용히 누나들의 손을 잡고 다니던 애가 갑자기 크게 울음을 터뜨리자 모두가 놀라 멈춰 섰다.

“데르토, 괜찮니? 많이 아파?”

가까이 있던 나베란이 데르토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그만둬, 나베란. 스스로 일어나게 해.”

고개를 저으며 가까이 다가갔다.

어려도 위그노드의 겨울 민족. 스스로 일어설 줄 알아야 겨울을 버틴다. 내가 다가가자 모여 있던 아이들이 길을 피해줬다.

“데르토. 못 일어날 정도로 크게 다친 거라면 안고 가 주마. 하지만 아니라면 스스로 일어나.”

“…”

울음을 터뜨렸던 데르토가 내 말에 눈을 굴려 주변을 바라봤다. 어느 누구도 손 내밀어 주지 않았다. 울어도 달래줄 사람이 없다는 걸 알기에 울음을 그치고, 훌쩍훌쩍 눈물을 닦아냈다. 그리곤 흙투성이의 무릎을 세워 몸을 일으켰다.

작게 신음을 흘리는 걸 보니 제법 호되게 무릎을 찧은 모양이었다.

손바닥 역시 넘어질 때 바닥에 쓸렸는지 여린 살이 까져 흙과 피가 묻어 있었다. 훌쩍훌쩍 대기는 했지만 의연하게 일어났다.

“잘했어.”

손을 뻗어 데르토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아이샤님…저도. 사슴, 만지고. 싶어요.”

아직 채 진정되진 않았는지 간헐적으로 숨을 내쉬며 데르토가 날 불렀다. 시선을 저것에게 돌리자 고개를 끄덕였다.

“장하네, 이 꼬마.”

손을 뻗어 데르토를 붙잡아 목마를 태웠다. 과연 이들의 시선으론 어찌 보일까 싶을 정도였다. 한달음에 높아진 시선에 데르토가 짧게 비명을 질렀지만 그건 아주 잠깐이었다.

“우와! 데르토, 사슴이 등에 태워 줬어! 부러워!”

“데르토! 안 무서워?”

“부러워, 나도. 나도!”

저것이 도망치듯 몸을 움직이자 먹이를 쫓아가는 개미떼마냥 아이들이 매달리기 시작했다. 데르토는 저것의 얼굴을 붙잡으며 언제 울었냐는 둥 웃음을 크게 터뜨렸고 아이들은 그 웃음소리에 더 절실하게 달라붙었다.

“으아, 아가씨. 좀 말려 봐.”

어른은 아이들의 놀음에 끼지 않는 게 당연한 법.

저것이 애타게 날 불러대는 소리를 흘려버리며 정원을 걸었다. 저것은 한참동안이나 아이들의 성화에 사슴처럼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혀 아이들을 등에 태워야만 했다.

저것이 기꺼이 흙바닥에 제 무릎과 손바닥을 버리며, 등과 허리를 내준 것은 의외로 나쁘지 않은 결과를 만들었다.

왜냐하면—

“애들은 참 사랑스러운 거 같아. 안 그래, 아가씨?”

냅킨 안에 하나 가득 담긴 먹을 것을 보며 이것이 찢어진 입을 감추지 못했다.

이틀 내내 방에서 따로 먹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 오늘 저녁은 식당에서 식사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려 하자 다핀이 기다렸다는 듯이 사슴에게 다가가 목에 뭔가를 매주었다.

뭔가를 싼 냅킨을 주머니처럼 말아 노끈으로 묶은 것이었다.

“사, 사슴이 단 걸 좋아하는 거 같아서요, 아이샤님. 부디 허락해주세요...”

식탁에 앉은 아이들 모두 간절히 바라는 목소리와 시선에 고개를 끄덕였다. 어차피 못 먹는 것도 아니고 자기 몫으로 나온 걸 나눠준다는 데 말릴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아무리 제 몫이라 할지라도 계속되면 먹는 게 부족해질 수가 있었다.

“이번뿐이야.”

어차피 오늘이 약속한 3일의 마지막.

자연스럽게 테이블 맞은편 의자에 앉더니 냅킨에 쌓인 내용물을 풀어 봤다. 냅킨 안에는 고작 사슴에게 내준 것치고 모두 아이들이 저녁 식사만을 고대할 정도로 좋아하는 것들이 가득했다.

꿀에 절인 포도, 잼이 발라진 쿠키, 말린 과일과 얼린 과일 등이 한데 냅킨 안에 쌓여 있었는데 개중에는 완두콩이 섞여 있기도 했다. 먹기 싫은 음식을 은근슬쩍 담아준 것도 있었지만, 그마저도 이것에겐 맛있는 것이었다. 이것은 기뻐 어찌할 줄 모르는 얼굴로 하나하나 들어 입에 넣었다.

그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턱을 괴었다.

‘역시, 앤가’

겉보기엔 레사휘와 또래로 보이니 스물 초반쯤으로 보이는데.

다 큰 어른이 고작 먹는 걸로 저런 얼굴을 짓는 걸 보니 조금 이상했다. 원래는 관심 가질 턱이 없는데 이상하게 궁금해졌다.

“너, 몇 살이야?”

“나이?”

“그래, 나이.”

꿀에 절인 포도를 먹느라 손에 묻은 꿀을 핥으며 이것이 짐짓 고민하듯 눈을 굴렸다. 그러다 이내 날 향해 기대 서린 눈을 했다.

“아가씨! 내 나이 알려주면 이름 불러줄 거야?”

“관두자.”

“아, 정말. 왜 내 이름 안 불러줘? 나는 부르고 싶어도 못 부르게 해서 그러는 거지만. 아가씨는 좀 불러줘. 너, 너 하는 거 너무해.”

“내가 내 발치의 얼음을 깨뜨렸군.”

이득 하나 없는 궁금함에 스스로 내 발치의 얼음을 깨뜨려 물에 빠지고 말았다. 다시 보던 책으로 시선을 돌리려 하자 이것이 다급하게 고개를 들이밀었다.

“휘아르. 내 이름 휘아르라고. 좀 제대로 불러주면 안 돼?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니까 꼭 물건이 된 거 같아.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하지만 아가씬 나보고 사슴이라고 하잖아. 그럼 그 사슴의 이름 좀 불러달라고.”

“…”

실제로 내가 속으로 부르는 지칭은 ‘이것, 저것’이기에 물건이라는 말에 조금 걸리긴 했다. 남들 눈에는 사슴이라지만 내게는 확실하게 사람으로 보이면서. 그것도 비록 애처럼 행동하나 큰 키에 아름다운 얼굴을 한 성인 남자.

이름이라.

불러서 내게 해를 끼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니니 못 불러줄 것도 없다. 어차피 곧 사라질 거. 더욱이 지금이 아니면 언제 이런 기회가 있냐고 냅다 먹이를 문 것 같은 눈이었다.

이것이 얼마나 귀찮고 끈덕진 것을 알기에 그를 향해 입을 열었다.

“휘…”

“응, 응.”

“…됐다.”

그러나 이내 입을 다물었다.

“아니, 왜?!”

그가 불만스런 얼굴로 투정했지만 이상하게 입에 담는 순간, 부르고 싶지 않았다.

잔뜩 기대가 가득한 시선에, 오로지 입술 끝만 바라보는 시선에, 이름을 내뱉었다간 뭔가 잘못될 것만 같았다. 오늘만 지나면 죽이든, 내쫓든 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묘하게 혀가 굳어 내뱉을 수 없었다.

그 대신, 손가락으로 테이블 위에 놓인 음식들을 가리켰다.

“받은 거나 서둘러 먹어.”

쳇, 하고 그가 혀를 차며 날 보던 얼굴을 돌렸다.

“이름 부르는 게 뭐가 어렵다고. 나도 아이샤 라고 백번이고 천 번이고 부르고 싶은데.”

“다물어.”

“애들이 더 좋아. 솔직하잖아. 우리 아가씨는 아닌데.”

웃을 수 있다면 비웃어줬을 텐데. 책장을 넘기며 옅게 한숨을 내쉬자 베일이 흔들리다 가라앉았다.

“그것도 오늘만이야. 더는 아이들의 음식을 탐내지 마.”

겨울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은 죽었고, 잘 자라지 못했다. 겨울 민족의 핏줄을 타고났으니 다른 곳보다 강한 아이들이지만 태양이 부족하다는 것은 큰 타격이었다.

이브실라에서 가져온 태양을 머금은 과일들.

꿀에 절인 과일은 저녁 식사뿐이지만 말려놓은 과일들은 식사 때마다 나왔다. 그렇게라도 아이들에겐 태양이 필요했다.

“나도 알아, 아가씨. 아이들에게 봄이 필요하다는 것도.”

그가 당연하다는 식으로 내뱉는 대답에 그만 넘기던 책장을 놓쳤다.

이기적이게도 봄은 필요하지만 두렵기도 했다. 봄이 길면 길수록 ‘눈 여우’에게 어른들은 죽어가니까.

“이제 내일이야.”

아이들이 준 것 외에도 따로 부탁해 가져온 식사를 하던 그가 나를 향해 말했다.

“그래.”

미묘한 떫음이 입안에 남았다. 뭔가가 맴도는 것처럼.

“아직도 날 못 믿지?”

“당연히.”

여지도 없이 내뱉는 말에 그가 조금 미간을 찌푸리며 수프에 적신 빵을 삼켰다. 겨울이 당장 내일 닥친다고 믿기엔 어제오늘 날씨가 포근할 정도로 좋았다. 모르는 사람이 본다 할지라도 갑자기 겨울이 몰아칠 거라 믿을 수 없을 정도였다. 다시 시선을 돌려 책으로 향했다.

“근데 말야, 아가씨. 난 어차피 맨 얼굴도 아는데 내 앞에서 그거 벗으면 안 돼? 책 보는 것도 불편하잖아.”

“싫어.”

베일이 꼼꼼하게 잘 쓰여 있나 한번 확인하고는 다시 책으로 눈을 돌렸다. 오랫동안 반복해왔던 일이라 베일을 쓰고 책을 보는 게 불편하진 않았다. 이젠 이 베일 너머로 사람을 본다는 게 이상할 정도였다.

그만큼, 9년은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정도로 긴 시간이었다.

더욱이—

“왜? 누가 보는 게 그렇게 싫어? 예쁘면서.”

“…”

망할 사슴의 헛소리에 대꾸하기가 귀찮아 무시했다. 그러나 내 대답을 기다렸던지 그가 옅은 한숨 소리를 냈다.

“맨 얼굴을 보여주기 싫어서 그런 거잖아? 나는 아가씨를 원래대로 만들 수 있어.”

“헛소리 마.”

“내가 말했잖아? 우린 같다고. 내 저주를 아가씨가 풀 수 있듯이, 나도 아가씨의 저주를 풀 수 있어.”

“저주가 아냐.”

“아니, 내 말이 맞아. 그건 저주야.”

내 부정에도 불구하고 그는 확신했다. 탁 하고 소리 나게 책을 닫으며 그를 노려봤다. 이건 그렇게 쉽게 저주라 입 밖에 낼 게 아니다. 제까지 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한 마디만 더하면 내일까지 볼 거 없이 지금 당장 내쫓겠어. 입 다물어.”

“…”

그제야 이 짐승이 조용히 눈을 내리며 냅킨 위에 놓인 절인 포도를 입에 넣었다. 그러다 다시 고개를 들었다.

“누가 뛰어 오는데?”

얼마 되지 않아 다급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아이샤 님!”

린드 경의 목소리였다.

저녁 식사는 긴 밤을 버티고자 조금 늦은 시간에 하고 식사 후에는 예외가 없다면 두 시간 내로 잠든다. 벌써 잠을 이룰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자지 않고 내방까지 달려온 린드 경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가득했다.

“들어와. 무슨 일이지?”

내일이면 겨울이 온다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 때문에 잠옷으로 갈아입지도 않았던 터라 바로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었다.

방안에 들어온 린드 경의 얼굴은 그간 보던 것보다 훨씬 창백했고 축축하게 젖어있었다.

“아이샤님, 위급한 상황입니다. 망루의 보고로는 지금 영지 내로 ‘눈 여우’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급히 병사들을 내보내기 했지만 아무래도 얼음 가시나무가 뚫린 것 같습니다.”

낮에 봄볕이 다른 때보다 훨씬 따뜻했던 게 문제였다. 우리가 봄을 즐길 동안, 저들 역시 봄을 즐길 준비를 하고 있었다. 몸속이 차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다.

“몇 마리나 들어왔는지 확인했나?”

“망루의 보고로는 족히 스무 마리가 넘는다고 합니다.”

미간을 와락 찌푸렸다.

영지 밖으로 나간 토벌대가 ‘눈 여우’를 죽이고 노아의 씨앗을 심어가며 영지를 넓혀갔다. 잡히지 않고 빠져나간 것들이나, 땅속에서 발견되지 않고 지나쳤던 것들이 녹은 얼음 가시나무 틈으로 영지 내로 들어오면 성 내에 남은 기사와 병사들이 그것을 죽인다.

하지만 그 개체는 많아봤자 열 마리 안팎.

그런데, 스무 마리가 넘다니. 대체 어디서 그 많은 수가 갑자기 나타난 거지?

“아직도 그리 많이 남았다니. 노아의 씨앗은?”

“거의 다 영지 밖 토벌대가 가져가서 현재 성에 남은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필 병사들도 부족한 이때에.”

거의 다 차출되고 최소한의 인원만이 성에 남아 있었다. 더욱이 어두운 밤, 저것은 그것과 상관없이 쉽게 우릴 죽이겠지만 우린 어둠 속에서‘눈 여우’의 목과 심장을 노려야 한다. 불리하다.

지금 최대한으로 쓸 수 있는 건 노아의 씨앗뿐.

빠르게 머리를 정리하고 린드 경에게 명령을 내렸다.

“영지민들의 도움은 받지 마. 되려, 사망자만 늘어나니까. 밖에 나와 죽을 바엔 차라리 집에 남아 가족을 지키고 최대한 문을 막아 두라고 해. 못질이라도 하라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후로, 아무도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전해.”

“네.”

“린드 경, 일단 가지고 있는 노아의 씨앗을 먼저 사용하도록 해. 곧 사람을 시켜 망루로 보낼 테니.”

“알겠습니다.”

린드 경이 고개를 숙이고 밖으로 나갔다.

방 안에 놓인 놋쇠화로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눈 여우’가 스무 마리 이상이라니. 도대체 또 얼마나 많이 죽어야 하는 거지?

이제 겨우 아이들이 봄이 따뜻하구나 느끼려 하는데 또다시 아비의 죽음으로 가슴 속이 얼어버릴 것이다.

아시네헤는 우릴 기어코 죽이겠다는 건가? 이쯤 되고 보니 토벌대로 나간 자들의 생사도 걱정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잊고 있었다.

이 방안엔 나뿐만이 아니라는 걸.

“너도 나가.”

“또, 노아의 씨앗을 만들려는 거야? 기다려. 어차피 이제 곧 겨울이 오니까.”

“나가라는 말 못 들었어?”

시간이 얼마 없는데 계속 입씨름을 하게 만드는 저 짐승을 노려봤다. 그러나 그는 되려 내게 가까이 다가오며 고개를 내저었다.

“아가씨. 하지 마. 기다리면 돼. 겨울은 곧 온다고. 그럼 그것들도 죽을 거 아냐.”

“그래, 그리고 우리도 그 겨울에 죽겠지. 이제 그만. 네 말 같지 않은 헛소리를 믿을 시간 없어”

겨울이 우리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재해라면 저 ‘눈 여우’는 어찌할 수 있지만 매번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재해였다. 도망치고 숨어도 거대한 몸집과 강한 손아귀의 힘으로 지붕을 뜯고, 문을 부숴서 기어코 사람을 죽인다.

거기다 밖에 나가는 병사들의 수 역시 적다. 그들을 도우려면 노아의 씨앗이 필요했다. 더 수가 많아지기 전에 한시라도 빨리 노아의 씨앗을 심고 막아야 한다.

“나가. 나가라고!”

다른 때에는 고집을 부리긴 해도 곧잘 말을 들어주던 그가 지금 같은 상황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다리를 걷어차고, 뺨을 거칠게 올려쳐도 절대 움직이지 않았다. 입술을 잘근잘근 씹으며 그를 노려봤다.

다급한 마음에 얼마나 세게 쳤는지 입술이 터져 하얀 얼굴에 피가 턱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런데 신음하나 없이 가만히 서 있었다. 마치, 이제부터 내가 하는 것을 안다는 눈으로 날 바라볼 뿐이었다.

“그래, 좋아. 네 마음대로 해. 넌 이번 일만 끝나면 목을 자를 거니까.”

미동도 없이 버티고 선 그를 노려보며 차게 말했다. 의자를 끌어 놋쇠화로로 다가갔다.

노아의 씨앗.

의자에 앉아 주저 없이 치마를 걷어 올리고 속바지를 벗어 내렸다. 주르륵 흘러내리는 치맛자락을 끌어 올리자 찬 공기에 허벅지가 드러났다. 다시 내려가지 않도록 한 손으로 말아 쥐었다. 그리고 다른 손으로 놋쇠 화로 옆에 기대 놓은 집게를 들었다.

“…하지 마.”

귓가에 그의 목소리가 울렸으나 흘려버렸다.

집게로 놋쇠 화로를 뒤적여 가장 안쪽에 벌겋고 선명하게 타오르는 숯을 꺼내 집었다. 이글이글 타오르는 열기가 후끈하게 느껴졌다.

“제발. 제발, 하지 마.”

내가 만들 수 있는 노아의 씨앗은,

오로지 고통이 있어야만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찬 공기에 드러난 허벅지가 창백할 정도로 파랗게 떨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일 뿐. 비명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입술을 꽉 깨물고 익숙하게 집게로 집은 숯을 갖다 댔다. 허벅지에 가까이 다가가자 열기가 화끈거렸다.

“하지 마!”

그러나 숯이 채 허벅지에 닿기 전에 집게 채 바닥으로 떨어져 나뒹굴었다.

“무슨 짓이지?”

“아가씨야말로 이게 무슨 짓이야?!”

말린 치맛자락 사이로 드러난 허벅지를 바라보며 그가 크게 소리 질렀다. 그러나 이내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 얼굴이 일그러졌다.

“아. 어떻게 이렇게까지. 아프지도 않아? 상처가 지독해.”

그가 행여 아플까 싶을 정도로 조심스레 손을 댄 허벅지는 9년간의 상처로 가득했다. 매년 숯의 열기에 피부가 녹아 뭉개지고, 벌겋게 달아오른 피부는 가득 물집이 잡히다가 종국엔 그 안에 피고름이 고여 흘러내렸다.

긴 겨울의 시간동안 나아가고, 다시 봄이 오면 상처를 헤집어 화상을 입힌 탓에 허벅지 안쪽은 엉망이었다. 피부가 녹아 제멋대로 달라붙은 채 굳은 피부는 젊은 여자의 것이라 보기 어려울 정도였다.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다. 다치게 한 것도, 낫게 하는 것도 나였다.

“놔.”

그를 떼어내고 다시 집게를 주워들으려고 하는데 허리를 두 팔로 붙잡았다. 움직이지 못하도록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옭아맸다.

“놓으라고!”

차게 소리를 내질러도, 두 팔로 있는 힘껏 치고 밀어내도 이번엔 결코 먼저 팔을 풀지 않았다.

“제발, 이런 짓 하지 마. 내가 할게. 응? 그러니까 아가씨, 이제 그만 해.”

“하, 네가 어떡해? 얼음 주제에.”

간절히 바라보는 그의 금빛 눈을 노려보며 말했다. 온몸이 떨렸다. 얼음이 다시 얼기도 전에 화가 솟구치는 감정에, 온 몸이 분노로 떨려 멈출 수가 없었다.

금빛 눈동자가 요동치듯이 흔들렸다.

“내가 노아의 씨앗을 만들게.”

“거짓말.”

쉽게 거짓을 말하는 그를 차게 바라봤다.

“아냐, 내가 할 게.”

“넌 절대 못 해. 아시네헤의 일족은 절대 울지 못하니까.”

왜냐하면—

노아의 씨앗은,

오로지 달의 눈동자에서 흘리는 눈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달의 눈동자는 곧 아시네헤 일족의 금색 눈동자. 하지만 얼음으로 빚어 감정조차 차가운 아시네헤의 자손이 결코 울 리 없다. 그가 설사 웃을 수 있다 하더라도 눈물은 별개다.

그가 아무리 사람처럼 웃어도 결국은 다른 존재.

결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울지 못한다.

그의 얼굴이 괴로울 정도로 절망적으로 일그러졌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해? 난 아가씨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거 보고 싶지 않아.”

“나가. 그게 싫다면 눈을 감아.”

“아무도 모르잖아.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해? 이렇게 베일로 얼굴을 감추면서. 아가씨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거 아무도 몰라!”

그가 서슴없이 손을 뻗어 베일을 잡아당겼다. 내가 감추고 숨긴 베일 속에는 그와 한 쌍일 정도로 똑같은 금색의 눈동자가 자리하고 있었다.

아시네헤 일족의 달의 눈동자.

나에게 이건 피하고, 부정해도 결국은 그의 말대로 저주였다.

더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날 붙잡은 이것을 노려봤다.

“왜냐고? 난 이제 더는 못 잃으니까. 너희 아시네헤의 자손은 십 년을 함께 산 지아비와 자식을 그리 쉽게 버렸겠지만 난 아냐. 난 너희와 달라.”

어미는 그토록 우릴 쉽게 버렸지만 난 결코 이들을 버릴 수 없다.

비록, 검은 베일로 변해버린 모습을 감춘다 할지라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해 고통으로 눈물을 흘려야 할지라도.

어미가 떠났을 때, 그저 눈에 뭔가가 들어갔다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겨울 성의 딸인 나는 아비를 닮은 푸른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숨어서 바라본 거울 안에는 어미와, 오라비와 같은 눈동자가 새겨져 있었다.

나는 결코 아시네헤의 일족이 아닐진대.

눈동자는 베일로 감췄지만 달라진 것을 스스로에게 속일 수 없듯이 그 뒤로 결코 울 수 없게 되었다. 감정조차 차게 가라앉아 때때로 내비치는 분노 외에는 슬픔조차 없었다.

어제까지 만해도 보던 이가 오늘은 차가운 시체가 되어 돌아와 성 안의 모두가 울음을 터뜨려도 오로지 혼자서 울지 못했다.

안간힘을 쓰고 노력을 해봐도 절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했다.

우연히 불티가 튀지 않았다면 그대로 살았을 것이다.

여린 살에 튄 불티로 크게 데일 정도로 다쳤는데, 그때 건조할 정도로 메마른 눈 안쪽에서부터 뭔가가 흘러 굳었다. 무슨 짓을 해도 울 수 없던 것이 통증 앞에 무력하게 눈물이라는 것을 흘렸다.

하지만 이 눈물조차 본래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가슴 속이 얼음처럼 차가워진 것처럼 똑같이 얼어붙은 눈물이었다. 그리고 이것을 보자마자 누가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알았다.

이건, 노아의 씨앗.

아시네헤의 약속이 형상화한 이것은 뿌리내린 장소는 해치지 않겠다는 표식이었다. 그래서 ‘눈 여우’가 아시네헤가 만든 거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절대, 얼음 가시나무가 녹지 않는 한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것이 겨울의 효과를 준다 하더라도 아시네헤의 분노를 담은 존재라면 분명 뚫고 들어올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물러났다.

약속의 표식대로.

비록 그 눈물, 노아의 씨앗을 흘리기 위해 내가 고통을 겪어야 할지라도 괜찮았다.

나는 그제야 울지 못함을 구제받은 기분이었다.

나는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었다. 밖에는 아시네헤의 분노가 서린 ‘눈 여우’가 또다시 내 영지의 사람들을 죽이려 했다.

“놔.”

“내가 놓으면 아가씨는 또다시 울기 위해 스스로를 다치게 하겠지? 그건 싫어, 아이샤. 난 겨울 때문에 모두가 죽어도 상관없어. 오로지 너만 아프지 않으면 돼.”

“놔, 놓으라고!”

더는 그와 왈가왈부하며 린드 경을 기다리게 할 시간 없다.

구두를 신은 발에 힘을 줘 가슴을 쳤다.

“윽!”

정확히 명치를 쳤는지 그의 몸이 앞으로 고꾸라지며 팔이 풀렸다. 힘껏 밀어내고 몸을 일으켰다. 그가 다시 붙잡지 못하도록 빠르게 벽으로 다가갔다. 벽에는 다른 여자들처럼 아름다운 태피스트리로 장식하지 않았다.

내 방의 벽에는 날이 선 검이, 아버지의 검이 걸려 있었다.

“…안 돼!”

한달음에 그것을 뽑아 검 날을 손으로 세게 쥐었다. 눈에 보이는 흔적과 오랫동안 낫지 않기 때문에 검을 사용한 적은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시간은 없었다. 그대로 손으로 검 날을 붙잡은 채 힘껏 그었다.

“…!”

검 날을 타고 핏방울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떨어지는 피의 궤적을 응시하며 와락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다.

“네가!”

피는 내가 아니라 그의 것이었다. 내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검 날을 꽉 붙잡은 이 짐승의 것.

분노 섞인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 손에서 너무나도 쉽게 검을 빼앗아 쥐었다. 검을 붙잡은 그의 두 손은 온통 피투성이였고 그에 비해 내 손은 고작 얕게 베인 상처뿐이었다. 내가 검 날에 손바닥을 베는 걸 막기 위해 두 손으로 힘주어 막았기 때문이었다.

“아이샤.”

날 보는 금색의 눈동자가 서글플 정도로 어둡게 가라앉았다. 그러나 그 입에 나온 말은 평소와는 다르게 차가웠다.

“이해할 수가 없어, 네가 이러는 게. 너는 반이라도 아시네헤의 일족일 텐데.”

“아니, 달라. 나는 너희와 달라. 함부로 말하지 마!”

아무리 사람처럼 생겼고, 웃고 떠들어도 결코 사람이 아닌지라 죽어도 모를 것이다. 왜 지켜야 하고, 왜 고통을 자처하는지를.

절대 울 수 없는 일족.

그 이유가 있다. 결코,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내가 그토록 간절하게 어미를 불렀어도 단 한 번도 날 바라보지 않았듯이.

“그럼, 약속해 줘. 다시는 이런 짓 하지 않겠다고. 그러면 녹은 네 얼음 가시나무를 내 힘으로 다시 되돌려줄게. 네 노아의 씨앗이 필요하지 않도록.”

“수작질하지 마. 이제 네 말은 안 믿어.”

“아니, 넌 믿을 수밖에 없어.”

그가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었다. 그리곤 검을 바로잡아 검 날의 끝을 자신의 심장 부근에 겨누었다. 주저 없이 찔렀다.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고도 알 수가 없었다.

무릎이 무너지고 바닥에 쓰러지는 것을 보고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죽는 사람은 너무 많이 봤지만 이렇게 스스로 죽는 자는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스스로 검에 찔렸으면서 죽지 않았는지 바닥에 쓰러진 그가 바르작거리며 몸을 움직였다.

“…!”

바닥에 질펀하게 고인 피 웅덩이가 점차 넓게 퍼지고 퍼져서 내 발끝까지 닿았다. 이제 그는 점차 죽어갈 것이다. 온몸이 저렸다. 갑자기 저렇게 행동한 그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는 것은 끔찍했다.

혀가 굳은 것처럼 소리도, 손끝 하나도 움직일 수 없었다.

“으, 아…진짜, 아프다.”

고통스럽게 바닥에 쓰러진 몸을 일으키며 신음을 흘렸다. 등 뒤로 검 끝이 튀어나올 정도로 찔렀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했다. 분명, 죽었을 만큼의 상처일 텐데.

“윽…, 정말. 두 번은…하기 싫어. 윽!”

피투성이의 손으로 지체 없이 검을 뽑았다. 분수처럼 피가 쏟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그저 검이 박힌 부위에서 줄줄 흐르는 피가 다였다.

얼음.

마치 얼음을 쪼갰을 때 그 부위에서 녹은 물이 흘러내리듯이.

목구멍에 피가 고였는지 피를 뱉어내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하지만 눈물은 어디에도 없었다. 처음부터 고통에 둔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저만한 고통조차 참을 줄은 몰랐다.

그리고 그의 일그러진 얼굴에는 역시나 눈물이 없었다.

더욱이 회복하는 것이 빠른 건지, 점차 고통이 나아지는 건지 신음소리가 잦아들었다. 심장이 찔렸으면서 죽지 않고 몸을 움직이는 그를 기묘한 눈으로 바라봤다.

“…너, 뭐야?”

그 역시 비틀거리긴 하지만 몸을 완전히 일으켜 날 바라봤다. 고통으로 얼굴이 일그러지긴 했지만 곧 죽을 것처럼 숨넘어가게 보이진 않았다.

방금 검을 심장에 찔렀으면서.

“휘아르.”

입에 묻은 피를 닦아내며 숨을 몰아쉬었다. 천천히 발을 떼어 질펀한 피 웅덩이를 밟으며 내게 다가왔다. 검 날에 베여 너덜너덜한 손바닥으로 가슴에 묻은, 심장에서 흘린 피를 그러모았다.

“자, 아가씨. 받아...이게 진짜, 노아의 씨앗.”

손안에는 피가 아닌, 반짝거리는 붉은 보석 같은 것이 담아 있었다. 내가 흘린 얼음으로 된 결정과 닮았지만 본디 모습처럼 붉었다.

노아의 씨앗.

“아가씨 말대로 울지 못하니까. 우리한텐 눈물이 아니고 이게 진짜야. 뭐, 우리일족에겐 이런 짓을 저지른 것도, 이 노아의 씨앗도 내가 최초겠지만.”

내가 움직이지 못하고 가만히 그가 내민 손안에 든 것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러자 그가 내 손을 붙잡으려 했다. 하지만 힘이 잘 들어가지 않는 지 몇 번 헛손질 했다. 겨우 내 손을 붙잡자 손이 발갛게 전염되듯 피가 묻어 붉어졌다.

그는 더 이상 비틀거리지도, 신음을 흘리지도 않았다. 가슴과 입가에는 벌건 핏자국이 선명한데 마치 남의 것처럼 그가 아무렇지 않게 눈 꼬리를 휘었다.

끔찍하고

기묘하면서

무서운데,

한편으로는 불쌍한 짐승을 보는 기분이 들었다.

저건 대체 무엇이기에 내게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

“뭐해? 가져가. 이걸 원했던 거잖아.”

“넌. 아무 상관도 없어.”

“아아, 많이 아프냐고? 괜찮아. 우리 일족은 얼음이니까. 이런 건 곧 나아. 봐봐, 손도 거의 나았어.”

그가 내 말은 잘못 들은 척 웃으며 흘려버렸다. 어둡게 가라앉던 눈동자가 다시 반짝거리며 날 오롯이 담고 있었다. 차마 마주할 수 없어 그 시선을 피해버렸다.

이런 결과를 바란 적 없다.

하지만 그가 내미는 노아의 씨앗을 본 순간, 나도 모르게 간절한 욕심이 생겼다. 저게 있으면 내가 편해질 수도 있겠다고.

혐오스러웠다, 나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해? 내가 네 저주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가씨.”

“이제 이런 짓 하지 마. 난 네 저주를 풀 수 없으니까.”

잘게 떨리는 입술 사이로 비집고 나온 말은 자연히 냉기가 돌았다. 그러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가 내 손을 세게 붙잡았다. 평소처럼 놓으라고 말할 수 없었다. 붙잡힌 그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그래, 네 말대로 나는…! 간절할 정도로 저주가 풀고 싶어. 하지만 그만큼 네가 다치는 것도 싫어. 무슨 여자가 그리 독해? 아프잖아. 고통스럽잖아. 그냥 내가 주는 걸 받으면 안 돼? 이걸 버려? 그냥. 그냥 좀 바라면 안 되냐고. 나는... 나는 너한테 단 한 가지만을 바라는데.”

더욱 더 가까이 다가와 몸을 숙이고 시선을 맞췄다. 눈앞에 마주한 눈은 더 이상 반짝이지 않았다. 절대 보지 못하는 달의 뒷면처럼 어두움이 가득했다.

“아이샤, 제발 날 사랑해줘.”

그는 처음 내게 말했던 것처럼 간절하게 애원했다.

시간이 없었다.

성에 남은 병사에게 ‘노아의 씨앗’이 든 주머니를 건네주고 기사와 병사들이 모인 망루로 보냈다. 그리고 병사가 떠나자마자 사람들을 시켜 정문을 제외한 성 안의 모든 창과 문을 나무로 덧대 못질을 해가며 굳게 막았다.

성은 다행히 ‘눈 여우’가 어찌하지 못할 정도로 두꺼운 돌로 쌓은 것이기에 민가처럼 쉽게 힘으로 뜯어낼 수는 없었다. 거대한 정문은 닫아뒀지만, 곧 돌아올 병사와 기사들을 위해 창과 문처럼 완전히 봉쇄할 순 없었다.

마샤와 나베란의 도움을 받아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포함한 성의 모든 사람을 저장고 옆, 커다란 지하실에 모이도록 했다. 이곳은 9년 전,‘눈 여우’의 습격을 겪고 나서 만들어 둔 장소였다.

통로는 단 두 곳.

하나는 출구고, 다른 하나는 사면이 모두 막힌 식료품 저장고와 연결된 곳이었다. 그리고 이 문은 모두 안에서만 열 수 있는 돌문으로 되어 있다. 결코, ‘눈 여우’의 힘으로 뜯어낼 수 없도록.

‘눈 여우’에게서 숨기 위해 만든 곳이라 성 안의 모두를 수용하고도 남을 정도로 넓었고, 각종 상비품과 식품이 비축된 저장고와도 연결되어 있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이 이제라도 성을 버리고 이브실라로 도망쳐야 한다는 암울한 소리를 내뱉었다. 그 말을 내뱉은 건 9년 전 성안까지 ‘눈 여우’가 침입했을 때 살아남은 자들이었다.

‘눈 여우’가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을 찢어 죽이고, 잡아먹은 지 아는 사람들은 그 두려움에 바들바들 떨었다. 어른들의 두려움을 읽은 아이들마저 울음을 터트렸고 그나마 큰 남자애들마저 훌쩍훌쩍 눈물을 흘렸다.

“어디까지? 세상 끝까지 도망칠 수 없다면 그 입 다물어. 안 그럼 모두 위험해지니까.”

‘눈 여우’는 마수.

사람의 냄새와 소리에 예민하다.

그제야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입을 다물었다. 잠에서 깬 아이들도, 이곳에 있는 어른도 모두가 불안했다. 부러 잠든 사람들을 깨우면서까지 알려 불안을 도모할 필요는 없었다. 하지만 언제나 최악의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순 없다. 성의 모든 창과 문을 못질해 굳게 막아둔다 할지라도 결국은 사람의 힘으로 막은 거라 뚫릴 위험이 없진 않다. 안이하게 밖의 병사들만 믿고 방 안에 얌전히 있다간 위험해질 수도 있다.

이 모든 건 다 최악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함이었다.

아무것도 모르고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9년 전보다는 상황은 나았지만 하필이면 싸울 수 있는 자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토벌대가 돌아오기까진 아직도 일주일이상 남은 상황. 그들을 기대할 수 없었다. 최소한의 병력으로 수가 더 늘어났을지도 모르는 ‘눈 여우’를 상대해야 했다.

가장 최악으로 그들이 모두 죽기라도 한다면 다음은 영지민, 그리고 마지막은 결국 이 성에 남은 우리다.

모인 사람들의 숫자를 헤아리며 미간을 찌푸렸다.

장소가 지나치게 큰데 비해 사람들은 적었다. 본래, 이곳에 영지민들도 들어올 자리를 남겨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영지민들을 구할 수는 없었다.

‘눈 여우’는 적게는 둘, 많게는 넷이 뭉쳐 다니기 때문에 그들을 상대하기 위해선 병사들은 함께 움직여야 했다. 그만큼 ‘눈 여우’에 비해 우리는 기동성이 떨어졌다. 더욱이 밤과 낮 구분 없이 출몰하는 ‘눈 여우’는 민첩하고 빨라 낮에도 힘든 상대인데, 밤이라는 약점까지 더해 없애기 쉽지 않을 것이다.

수십 명이라면 들키지 않고 성으로 들어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수백 명이 된다면 다르다. 들어올 수 있고 없고를 떠나 모두 죽을 것이다. 그것들은 결코 사람의 냄새를 놓치지 않는다. 분명 사람 냄새를 맡고 득달같이 들이닥칠 것이고 상대할 병사들이 부족한 상황에 영지민들을 지켜가며 싸우긴 어려울 것이다.

모두를 구할 수는 없었다. 그리 잘 알면서도 빈자리를 보면서 한없이 막막했다.

“아이샤.”

아버지 옆에 얌전히 앉아있던 나베란이 조용히 소리를 낮추며 불렀다. 마샤는 불안에 떠는 어미 대신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떨어져 앉아 있었다. 내 곁에는 나베란. 그리고 아버지가 있었다. 나베란의 옆에 누워 계신 아버지는 바짝 마른 땔감처럼 야윈 몸과 흐리멍덩한 눈으로 허공을 보고 있었다.

어미가 떠나던 9년 전과 다름없는 눈으로.

나베란이 손을 뻗어 내 옷깃을 붙잡았다.

“아이샤, 그 손 왜 그래? 다쳤어? 언제?”

“별 거 아냐.”

주변 상황이 좋지 않은 덕에 애써 잊고 있었는데 나베란 덕분에 다시 떠올렸다. 크게 베인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멋대로 감아준 거였다. 나 역시 많진 않지만, 피가 계속 흘렀기 때문에 지혈할 필요는 있어서 내버려뒀다.

아까 일이 떠올라 한숨을 내쉬자 나베란이 옷깃을 잡아당겼다.

“아이샤, 우린 괜찮을 거야, 네가 노아의 씨앗도 줬다며. 곧 다 괜찮아질 거야. 성은 괜찮아. 우린 안전해.”

나를 위로하는 것인지,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에 옅게 한숨을 내뱉었다.

“그래.”

나베란의 말대로 성은 안전했다.

완벽하게 봉쇄한 건 아니지만, 강철을 돌과 함께 굳혀 만든 커다란 정문은 닫힌 상태에서는 과거 ‘눈 여우’도 열지 못했다. 만일, 창이나 다른 곳이 뚫린 다 하더라도 이곳만은 안전하다.

절대 ‘눈 여우’가 지하실의 문을 열지 못하도록 정문과 똑같은 구조로 문을 만들었고, 손톱 하나 박히지 못하게 틈 없이 막았다.

출구 외의 단 하나.

만약을 대비해 어린아이만 겨우 빠져나갈 정도로 작은 창문이 하나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연기가 새어나가기 때문에 불을 땔 순 없지만 두꺼운 가죽과 털을 가득 넣은 침구로 버틸 수 있다. 저장고에는 봄마다 이브실라에서 조공 받은 식량을 비축해두므로 성의 전부가 앞으로 1년은 먹고 마실 수 있다.

다만, 문제는 시간 싸움.

여러 명이 모이면 온기를 나누고, 안전할 수 있지만 아득한 두려움과 제 머릿속의 공포에 미쳐, 되려 이 안에 모인 사람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다.

모두의 시선이 간절하게 문을 향했다.

어서 빨리 이 밤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돌아와 두드려주길.

우리가 가장 바라는 건, 노아의 씨앗을 가지고 밖에 나간 기사와 병사들이 영지 내로 들어온 ‘눈 여우’를 몰살하는 것. 하지만 만일 그게 어려워 그들이 다 죽었다면, 토벌대가 돌아올 때까지 버티는 것.

가장 최악이라면,

겨울이 올 때까지 이 안에서 버티는 것이다.

“명수는 맞아. 하나도 빠짐없이 모였군.”

시종들의 도움을 받아 일사불란하게 모인 사람들의 명수를 확인했다. 늦은 시간이라는 게 약점이 되기도 했지만 이렇게 다 모인 것을 보면 장점이 되기도 했다. 시종들을 시켜 보드카와 초콜릿, 그리고 침구류를 꺼내 오라고 시켰다.

술과 초콜릿은 체온을 올려주고 사람을 잠들게 한다. 자정이 얼마 안 남은 이 늦은, 두려운 밤을 버티려면 차라리 잠드는 게 나았다.

어차피 깨어있으면 불안하기만 할 터.

천이 감긴 손바닥을 매만지며 눈을 감았다. 잠들 수는 없지만 눈을 감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앞으로의 일.

토벌대의 일.

날쌘 매라 할지라도 거리가 있어 소식은 느렸지만 착실히 얼음 봉우리까지 나아갔고 돌아온다는 글이 적혀 있었다. 인원이 많은 덕에 다친 자는 있어도 죽은 자는 없다는 것까지.

그런데. 대체 어디서 이 많은 수의 ‘눈 여우’가 들어온 걸까.

“아이샤. 왜 없어?”

갑자기 부르는 목소리에 눈을 떴다.

“사슴은? 아이샤, 사슴은 어디 갔어?”

손에 감긴 천을 매만지며 입술을 깨물었다. 나베란 역시 경황이 없었던지 이제야 사슴이 없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아직 잠들지 않은 사람들 역시 날 바라봤다. 이곳에 없는 게 확실한데 그들은 사슴의 존재를 눈으로 찾았다. 그러다 결국 어디를 봐도 존재하지 않은 순백의 모습에 다시 나에게 시선을 돌렸다.

왜.

왜, 하필 지금 아시네헤의 일족이 우리 곁에 없냐고.

왜, 하필 아시네헤의 일족이 없는 지금 ‘눈 여우’가 나타났냐고.

처음부터 가호 따위는 없었다. 오로지 아시네헤의 분노만이 위그노드에는 가득한데 이들은 그걸 믿지 않았다. 아니, 되려 아시네헤가 마음을 돌려 분노를 거둬갈 거라고 아직도 믿고 있었다.

절대로 그럴 리 없을 텐데.

그들이 살기 위해 믿는다는 걸 안다.

“없어.”

차게 입을 열어 짧게 대답했다. 하지만 이곳에 더는 그 짐승은 없다.

“왜? 갑자기 어디 간 건데?”

“내보냈어. 원래 그것이 살던 곳으로.”

나베란 조차도 멍한 눈으로 날 바라봤다.

“왜, 왜 하필 오늘 내쫓으신 거예요! 아시네헤의 일족이 우리 곁에 있었다면! 아시네헤께서 우릴 살려주실 텐데! 이제 우린…다 죽을 거야. 아시네헤는 우릴 버렸어.”

바들바들 떨며 어깨에 감싼 털 이불을 꽉 붙잡고 서서 여자 중 한명이 소리쳤다.

“애들이 깨. 헛소리들 그만 하고 잠들 자라고.”

다른 소리가 더 나오기 전에 마샤가 아이들을 끌어안은 채 여자를 노려봤다. 나에게 향한 감정의 방향이 안타까워 다가오고 싶은 얼굴이었지만 그녀는 품에 안긴 아이들을 내칠 수 없었다.

“밖에 나간 제 남편은요?! 이제 영영 못 볼지도 모른다고요! 아시네헤의 일족이 있었다면 살 수 있었을 텐데…!”

마샤가 말려도 소리를 지르는 건 그 여자뿐만이 아니었다. 불안은 두려움이 되고, 두려움은 분노가 된다. 그리고 그것들은 전염되어 암담한 현실에 한없이 가중되었다.

격양된 감정은 날카롭게 날을 세우다 결국 스스로를 찌르고 추락한다.

“시끄러워! ‘눈 여우’는 언제나 있었어. 이제 와서 아이샤가 사슴을 내쫓았다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고!”

나베란이 얼굴을 험상궂게 구기며 버럭 소리를 내질렀다. 평소엔 늘 웃는 얼굴로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던 그녀의 의외의 모습에 내게 분노를 토해내던 여자가 머뭇거렸다.

“하, 하지만. 왜 하필 지금…!”

“탓하려면 ‘눈 여우’를 탓해. 왜 아이샤를 탓해?! 지금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있었던 것도 다 아이샤 덕분이야. 잊었어?!”

그대로 일어나 멱살이라도 잡아 흔들 것처럼 화를 내는 나베란의 어깨를 붙잡았다. 어른들의 소란에 겨우 잠든 아이들이 깨는 것은 원치 않다.

“나베란, 그만해.”

“…아이샤. 왜 말려? 고작! 고작 사슴 때문에 네가…!”

몸을 돌려 날 바라보는 나베란의 얼굴이 붉었다. 애써 입술을 깨물며 참았지만 한번 터진 화를 참는 게 쉽지 않은지 눈가에 눈물이 한 방울 흘러 내렸다. 이런 일은 매번 내게 있어 왔던 일이었고 나베란 역시 잘 알고 있었다.

매번 잘 참아왔고 자신의 방식대로 중재하던 그녀가 오늘은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게 쉽지 않은 모양이었다.

“됐어, 다 끝난 일이야.”

이렇게 안에 있으면서도 싸운다는 것은 밖에서 싸우는 자들에겐 죄짓는 일이다. 소란이 일어 아이들이 깨고, 이곳으로 ‘눈 여우’가 몰리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아, 아, 아, 아이샤!!”

그런데 순간, 나베란의 얼굴이 일순간 허옇게 질리면서 내 등 뒤를 가리켰다. 크게 소리를 지르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 어느 때보다도 거친 소리였다.

나베란의 손을 따라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손이 가리키는 방향은 이곳에 유일하게 난 작은 창이었고, 지금 그 창 너머로 새하얀 것이 가득했다.

겨울.

자정이 넘은 지금, 모든 것을 얼릴 새하얀 겨울이 왔다.

결국, 참고 참았던 울음을 모두가 터뜨렸다.

굳건하게 아이들을 끌어안던 마샤마저 흐르는 눈물을 막을 수가 없어 입술을 깨물었다. 괜찮을 거라고 말했던 나베란은 몸을 가누지도 못할 정도로 흐느끼며 바닥에 젖은 헝겊처럼 쓰러졌다. 굳세게 서 있던 남자들마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무거운 눈물을 토해냈다.

모두가 그 어떠한 말도, 그 외의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없었다.

나 혼자만이 서서 메마른 눈으로 창을 바라봤다. 겨울의 눈 폭풍이 매섭게 창을 때리고 있었다.

겨울.

겨울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 강하게 휘몰아치는 눈 폭풍우와 우박을 동반했다. 살을 에는 추위가 아니다. 말 그대로 온 몸을 얼어붙게 만드는 추위에 아무도 밖에 나가지 못한다. 보이지 않는 공포 속에 길을 잃고 결국은 얼어 죽는다.

심지어 두꺼운 가죽과 털로 온몸을 무장하고 야생의 감각까지 있는 동물마저 이땐 결코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거의 많은 수의 동물들이 ‘얼음 봉우리’에 터전을 잡거나 가까이 존재한다.

그곳은 지형이 벽처럼 높게 솟은 형태라 겨울의 칼바람도 조금은 막아주는 탓에 높게 자란 침엽수림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곳은 제법 아래쪽이라 위쪽보다 조금 따뜻하긴 해도 ‘얼음 봉우리’처럼 막아주는 지형이 존재하지 않다. 키가 큰 침엽수는 거의 성 주변. 기사와 병사들이 있는 망루 쪽에는 얼음 가시나무가 있을 뿐, 바람을 막아줄 키가 큰 나무도, 둔덕도 존재하지 않다.

예고도 없이 휘몰아치는 눈 폭풍우에 전투 중인 그들이 건물 안으로 도망칠 수 있었을까.

불가능했고, 있어도 아주 소수일 것이다.

그리고 그건 토벌대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미 전에 ‘얼음 봉우리’에서 내려오고 있다는 전서구가 왔으니 그들이 내려오고 있는 지형은 봄에도 춥고, 짧은 관목들만이 가득한 곳일 것이다. 겨울 앞에 어떠한 막아줄 것도 존재하지 않는.

이를 악물었다.

몸을 돌려 문 쪽으로 다가갔다. 안에서만 열 수 있는 이 돌문은 힘이 강한 ‘눈 여우’가 열지 못하게 만드느라 무게가 엄청나서 결코 혼자서는 열 수가 없었다.

“베넨, 헨, 돌린. 문을 열어.”

절망하던 세 명의 시종을 부르자 그들이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애도하는 그들의 얼굴은 역시 어두웠다. 하지만 그 사정을 봐줄 만큼 여유롭지 못했다.

“지금 당장.”

“하지만... 아이샤 님. 지금 밖은 위험합니다.”

“안으로 들어온 ‘눈 여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단호하게 손을 들어 문을 가리켰다.

“내가 나가고 나면 문을 닫아. 나나, 다른 사람들이 문을 두드릴 때까지 절대 열어 놓지 마.”

“아이샤! 안 돼, 지금은 밖에 나가면 안 된다고!”

머뭇거리는 시종들을 밀어내며 나베란이 내 손을 붙잡았다. 모두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얼굴을 묻고 울고 있는데 그녀만이 날 보고 있었다. 애써 그녀의 손길을 세게 떼어냈다.

“나가서 가져와야 할 게 있어.”

겨울을 보는 순간, 아이러니하게도 그토록 믿지 않았던 그 목소리가 떠올랐다. 삿된 요물의 헛소리라고 부정하고 또, 부정했다. 하지만 눈앞을 가득 채운 새하얀 눈보라는 현실이었다.

=“날 사랑해. 그럼 내가 너에게 봄을 가져다줄게.”

고작 헛소리라 치부했지만 정말로 그의 말대로 지금 겨울은 왔고, 밖에 있는 모두가 추위에 얼어 죽을 목숨이었다.

아시네헤의 가호를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처럼 나 역시 원했다. 비록, 그것이 거짓이고 헛소리일지라도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었다. 이대로 모두를 죽음 앞에 버려둘 수 없었다.

“지금은 안 돼! 나중에, 나중에 겨울이 끝나면 찾아. 응? 지금은 안 돼. 위험하다고. 아이샤. 제발, 여기 있어.”

뿌리친 팔을 다시 억세게 붙잡으며 나베란이 고개를 내저었다. 시종들 역시 우리를 보고 어찌할 줄을 몰라 했다.

“아가씨, 안 돼요.”

잠든 아이들을 떼어 놓고 마샤마저 붉어진 눈과 얼굴로 날 붙잡았다.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자 고개를 돌려버렸다.

이곳에서 가장 이질적인 사람.

울 수도, 슬퍼할 수도 없다.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은 불과 얼음만큼이나 달라서 나는 견딜 수가 없었다. 더욱이, 나는 이들이 흘리는 눈물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없었다.

‘눈 여우’가 왜 왔는지.

‘겨울’이 왜 이렇게 길어졌는지.

사람들의 추측은 모두 맞는 말이니까.

감히 정결한 새를 잡아 한낱 여자의 몸으로 만들었으니 아시네헤는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두고 본 것은 오로지 어미가 있었을 때뿐. 그 어미가 떠난 뒤부터 우리에겐 저주와도 같은 분노가 쏟아졌다.

나와 아비를 내버려 둔 것은 내가 ‘노아의 씨앗’을 만들 수 있기에. 그리고 이 재해와도 같은 현실을 만든 게 우리 때문이라는 걸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아시네헤의 딸을 더럽힌 아비의 딸로서. 겨울 성의 대리인으로서.

비록, 거짓일지도 모르나 겨울을 몰아낼 방법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서.

“놔, 나베란.”

“아이샤. 안 돼, 제발 여기에 있어. 밖에 나가면 안 돼. 네가 죽는다고.”

붙잡은 나베란의 손에 더 힘이 들어가면 갈수록 그녀의 흐느낌은 심해졌다.

“마샤, 나베란을 잡아. 난 나가야 해.”

“아가씨.”

내 말에 그만 마샤마저 왈칵 울음을 토해내며 손을 떨었다. 내 명령을 따를 수도, 날 보낼 수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알면서도 초조함을 느꼈다. 이대로 시간을 보냈다간 겨울이 사라진대도 밖에 나간 자들이 모두 얼어 죽을 것이다.

완전히 다 믿는 것은 아니지만 돌이켜보면 거짓은 없었다.

겨울의 예고도.

노아의 씨앗도.

그는 내게 거짓을 말하지 않았다.

시선을 돌려 아직도 어찌할지 모르고 선 시종들을 바라봤다.

“문 열어, 명령이다.”

“안 돼!”

나베란이 세차게 고개를 저었다.

“열어, 너희가 나대신 성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다면. 성의 대리인인 내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 겨울이든 뭐든 상관없이 내쫓겠어.”

그제야 시종들이 얼굴을 구기며 문에 달려들었다. 나베란이 비명 같은 소리를 내질러도 지금 이 성의 주인은 나. 나베란의 말을 들을 리 없다.

“아가씨, 금방 돌아오실 거죠? 절대 위험한 짓 안 하실 거죠?”

마샤가 내 앞을 가로 막으며 말했다. 그녀는 날 말리고 싶어도 참고 있었다. 낳은 건 어미였어도, 젖을 주고 날 안아주고 키운 건 마샤였다. 그녀는 그만큼 날 잘 알았다. 절대 날 막지 못한다는 것을.

“절 슬프게 만들지 않을 거라고 말해주세요”

언제나 밖에 걸린 얼음처럼 어미없이 나도는 나를 불가의 장작처럼 끌어안은 건 마샤였다. 그만큼 날 이해했고 잘 안다. 내가 결코 그녀를 슬프게 만들지 않을 거라는 것도.

“그래, 안 해.”

내 말에 마샤가 나베란의 등을 끌어안았다

“아악, 안 돼…!”

안간힘을 써서 내 팔을 붙잡은 나베란을 온 힘을 다해 떨어뜨렸다. 얼마나 힘주어 잡고 있었던지 그녀가 바닥으로 넘어졌다. 얼굴이 온통 눈물로 범벅이었다. 하지만 그녀도 안다.

나를 말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아버지뿐. 그러나 그 아버지조차 저렇게 병들어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다.

“대체 나가서 뭘 찾겠다는 거야? 밖은 겨울인데. 오라버니마저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너마저 없으면 나는…!”

아이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크게 울부짖었다. 마샤는 그녀의 등에 얼굴을 묻고 눈물을 토해냈으며 문을 여는 시종들 역시 죄지은 사람마냥 고개를 숙였다.

“기다려. 돌아올 거니까.”

열린 문틈으로 발을 내디뎠다. 그 한걸음에 주저함이란 없었다. 등불이 모두 꺼져 어둡기 그지없는 복도는 어차피 눈 감고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한 내 성이었다.

“닫아. 누가 올 때까지 절대 열지 마.”

돌벽이 밀리며 굳게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울렸다. 천천히 벽에 손을 대고 걸었다. ‘눈 여우’가 성 안까지 들어온 것은 아닌 듯 그들 특유의 소리는 없었다. 하지만 만일을 대비해 조심히 움직였다. 그들에게 죽고자 나온 길이 아니었다.

성의 정문은 어차피 나 혼자 힘으로 열 수 없는지라 1층 뒤편의 쪽문으로 갔다. 쪽문은 키 작은 어린아이들만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작아 나무를 덧대 놓지 않았다. 다만, 문을 지나가기 위해 바닥에 무릎을 짚고 기어서 나가야 하지만 나갈 수 있음에 감사했다.

밖은,

눈 폭풍과 어둠이 한데 섞여 무서울 정도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아직 밖으로 나가기 전인데 불어오는 바람에 옷과 베일이 마구잡이로 펄럭였다.

“네 말이 맞구나.”

모든 게 그 짐승의 말대로 되고 있다.

그는 내게 노아의 씨앗을 건네주며 사랑해달라고 애원했다. 사랑이라니. 아시네헤의 일족이 내게 사랑해달라고 심장에 스스로 검까지 꽂다니.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었고, 듣고 싶지 않았다.

“나는 네가 바라는 걸 할 수 없어. 저주도 풀 수 없어.”

그가 아무리 원해도 사랑할 수 없다. 그를 밀어내고 그가 억지로 손에 쥐여준 노아의 씨앗을 힘껏 내던졌다.

“사랑해달라고? 아시네헤의 일족을? 집어치워.”

그토록 사랑해달라고 애원했을 때는 차갑게 돌아서 버린 일족을. 사랑하기는커녕 가까이 두는 것조차 싫다. 사람들의 바람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결코 이것을 곁에 두지 않았을 거였다.

“아이샤.”

“지금 당장 성 밖으로 나가. 3일간 아이들을 즐겁게 해줬으니 죽이지는 않으마.”

“그렇게 내가 싫어? 어떻게 노력할 수도 없을 정도로? 내가 네 저주를 푼대도? 봄을 가져다준대도?”

그가 어둡게 가라앉은 눈으로 날 바라보며 안타까울 정도로 애타게 물었다.

“그래, 싫어! 나는 너희 아시네헤의 일족이 소름 끼치게 싫어.”

겨울을 길게 만든 것도, ‘눈 여우’로 사람들을 죽이는 것도, 강하고 커다랬던 아비를 저리 허무할 정도의 늙은 노인으로 만든 것도, 내가 울지 못하게 된 것도 모두, 모두!

모두 다 아시네헤의 일족 탓이다.

그는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모든 게 그저 어미에 대한 내 화풀이일 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입을 멈출 수가 없었다. 내 안에 자리한 원망은 너무나도 오랫동안 뿌리 깊게 자라나 있었다.

그가 까맣게 죽은 눈으로 날 바라봤다. 그러다 이내 몸을 숙여 내가 바닥에 내던져 깨진 노아의 씨앗 파편을 주워담았다.

“나가.”

“그래, 네가 싫다면 나갈게.”

그가 다 주운 노아의 씨앗을 내게 내밀었다. 처음엔 피가 한데 굳어 커다란 보석 같던 노아의 씨앗이 작게 나뉘어 손안에 담겨 있었다.

“자, 이걸 버릴 순 없잖아. 기껏 아플 정도로 찔러서 구한 건데.”

한사코 받지 않자 결국 그가 내 손을 붙잡아 억지로 쥐여줬다.

“나갈게.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할게. 하지만, 아이샤. 너는 결국 날 찾게 될 거야. 날 찾으려면 밖으로 나와. 넌 분명 겨울에 얼지 않을 테니까.”

쪽문 밖으로 나오자 옷과 베일이 바람에 휘날렸다. 걷기는커녕 숨은 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였다.

그러나 역시,

춥지 않았다.

속에 얼음을 품고, 얼음으로 된 눈물을 흘리는 여자가 추위를 느낄 수 있을 리가. 그의 말대로 겨울에 얼지 않았다. 아무리 옷과 베일이 날려도, 눈앞에 나부끼는 폭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여도 걸을 수 있었다.

숨 쉴 수 있었고, 우박에 맞지 않았다.

속으로 혀를 찼다. 그토록 부정하려 했었는데. 이제 난 아시네헤의 일족인가, 아닌가.

모르겠다.

거센 폭풍우에 결국 붙잡을 새도 없이 날아가는 검은 베일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뱉었다. 어차피 이곳에서 아무도 볼 수 없는 데 저게 있을 필요 없었다. 겨울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느새 눈은 무릎까지 차오르고 걸어가는 땅이 얼어붙었다.

밖으로 나가면 바로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진 않았다. 아무리 걸어도 익숙한 것은 하나 없었다. 무릎으로 눈을 해치고 손으로 눈발을 가리며 걸었다. 보이지 않는 발밑의 돌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다. 흩날리는 눈 폭풍에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조차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멈춰 설 순 없었다.

“하아.”

또, 발에 걸려 눈 위로 넘어졌다. 얼마나 걸은 건지 시간조차 알 수 없지만 눈을 해치고 걷느라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숨을 토해냈다. 처음엔 아무렇지도 않더니 입김이 점차 하얀색을 띠기 시작했다.

손끝도 점차 파래지고 있었다.

아무리 얼음을 품고 있다 할지라도 반은 사람이니 당연할지도.

서둘러야 했다. 다시 일어나려는데 언 눈에 미끄러지면서 신발이 뒤로 벗겨져 버렸다.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다. 순간, 시선이 얼어붙었다.

무릎까지 차오른 눈 사이로 얼어붙은 손이 나와 있었다. 내 발에 걸리면서 위에 덮였던 눈이 벗겨지면서 드러난 것이었다.

“…안 돼.”

자리에 주저앉아 손을 꺼내기 위해 눈을 파냈다. 순식간에 꽁꽁 얼어붙은 눈을 파내기가 쉽지 않았다. 파내도 금세 쌓이는 눈보라에 끝이 없었다. 그러나 멈출 수가 없었다. 차갑게 얼어붙은 손은 허공에 드러났고 몸은 차디찬 눈 아래에 쌓여 있다.

죽었을 거다.

마음 어디선가 속삭이는데 멈출 수가 없었다. 이렇게 죽는 일은 없어야 한다. 지금 계절은 봄이고 겨울이 올 때가 아니다. 우리가 아무리 위그노드의 겨울 민족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눈에 닿은 손끝이 점차 감각이 둔해지고 얼어붙고 있었다. 점차 추위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어서 일어서서 걸어야 한다. 이 자는 분명 죽었을 것이다. 알고 있다. 알면서도 입술을 깨물며 손을 움직였다.

입술 사이로 거친 숨과 입김이 터져 나왔다.

“안 돼.”

우리는 결코 이리 죽기 위해 살지 않았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노아의 씨앗을 뿌렸고, 마수라 불리는‘눈 여우’와의 싸움에서 도망치지도 않았다.

제아무리 아시네헤가 우리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우린 필사적으로 살아남았다.

이렇게 허무하게 길가에 쓰러지기 위해 살아남은 것이 아니었다.

“안 돼!”

눈을 치우는 손이 점차 무뎌지면서 잘 움직이지 않았다. 얼굴이 얼어붙고, 발끝은 감각조차 없었다. 이제라도 돌아가야 한다. 같은 자리에 계속 멈춰 서 있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짓이다. 알면서도. 평소엔 그리 냉정하게 돌아가던 머리가 쉬이 움직이지 않았다.

아까는 그토록 쉽게 영지민을 버렸던 주제에.

웃을 수 있다면 웃을 텐데.

지금 이게 얼마나 못난 짓인지, 어리석은 짓인지. 마치 너는 어미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하는 것인지.

“휘–데르.”

나직하게 들려오는 목소리와 함께 폭풍우가 멈췄다. 그토록 춥게만 느껴지던 바람이 사라지자 얼어붙은 몸이 녹는 것 같았다. 그리고 시끄럽게 귓가를 때리던 소리가 사라지자 고요했다. 고개를 들자 마치 원이라도 그린 것처럼 이 자리만 바람이 멈췄다.

“이미 죽었어. 그러다가는 아가씨도 죽어.”

그리고 눈앞에 그가 서 있었다. 그토록 찾아 헤맸을 때에는 보이지 않던 그가 차가운 달의 모습으로 서 있었다.

“날 만나러 왔잖아. 아니야?”

“그래, 네 말대로 겨울이 왔어.”

그의 금빛 눈동자를 바라봤다. 그는 더 이상 웃고 있지 않았다. 가까이 다가오지도 않은 채 덤덤하게 내 목소리를 들었다.

“…”

“이제 내 말을 믿잖아? 근데 왜 아무 말 안 해? 내게 할 말이 있잖아.”

그의 말대로 나는 그에게 부탁할 게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바람이 멎은 곳에서 그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다. 그리 긴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닌데 아까의 그와 너무 달라서.

아니, 이제야 아시네헤의 일족다운 모습이라 말이 나오지 않았다.

덜컥, 겁이 났다.

저 차가운 눈은 어미를 보는 것만 같았다.

이제는 늦었다고. 더는 네가 바라는 것을 들어주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정말.”

어느새 가까이 다가온 그가 얼어붙은 손을 붙잡았다.

“다른 건 하나도 안 믿더니 얼지 않는다는 말만 냉큼 믿고 그렇게 나왔어? 나 참, 아가씨. 그러다 정말 아파. 봐, 손이 완전 차잖아.”

그가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눈 꼬리를 휘며 붙잡은 내 손에 입김을 호호 불었다. 언 손을 녹으라고 하는 행동이었다. 내가 말없이 그모습을 바라만 보자 그가 시선을 맞추며 고개를 가깝게 다가왔다.

“봐, 나만큼 자상한 사람 있을 거 같아? 이제 날 사랑해줄래?”

“널 사랑하면? 그럼 저주가 풀리는 건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거짓이라고, 허풍이라고 치부했다. 하지만 지금 내 앞에 있는 그만이 내게 봄을 가져다줄 수 있다.

“정확히 말하면 아이샤. 네가 날 위해 울어준다면.”

“하지만 난…”

울 수가 없다고 말하려는데 갑작스레 그가 히죽 웃으며 얼어붙은 어깨를 끌어안았다. 끌어안긴 품은 겉에서 느낄 정도로 세차게 뛰고 있었다.

“아냐, 넌 울 수 있어. 네가 날 진정으로 사랑하면 네 안의 얼음이 녹아서 흘러내릴 거야. 그럼 네 눈동자도 원래대로 돌아가 예전처럼 울 수 있어. 나는 그때 흘린 눈물이 필요해. 그 흘러내린 눈물을 내게 줘. 그 눈물이 있어야 내 저주를 풀 수 있어.”

눈물.

내가 과연 널 사랑해서 눈물을 흘리는 날이 올까?

저렇게 세차게 가슴이 뛸 수 있을까?

믿을 수 없고 확실하지 않지만 해야 했다. 왜 사람들이 아시네헤의 분노를 피하고자 아시네헤의 일족에게 희망을 두는지 알 것 같다. 그만큼 간절하니까.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니까.

지금, 나처럼.

“지금 봄을 가져다 줘. 그럼 노력해볼게.”

머리 위에서 그가 작게 혀를 차며 품에 안긴 날 놓아줬다.

“하, 절대 사랑한다는 말은 안 하네. 하긴, 아가씨는 쑥스러움이 많으니까. 그것도 좋아. 날 사랑해줘.”

그것만으로도 만족한다는 얼굴을 하는 그를 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손을 크게 들어 원을 그렸다.

“휘–데르.”

그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우리가 선 자리에서부터 천천히 눈 폭풍우가 잠잠해지기 시작했다. 사라져가는 눈 폭풍우와 함께 바닥에 쌓인 눈이 순식간에 녹아들었다. 그 틈으로 어린 새순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고 내 발치에 쓰러진 병사의 모습도 눈에 들어왔다.

그토록 꺼내기 위해 안간힘 썼을 때는 어렵던 일이 순식간에 진행되었다. 그는 노래하듯이 ‘휘–데르’를 불렀고 그러면 그럴수록 넓게, 넓게 봄이 퍼져가 겨울이 사라지고 있었다.

휘–데르

바라는 대로 이루어져라.

그 말 그대로 다시 봄이 오고 있었다.

바닥에 무릎을 굽히고 몸을 숙여 죽은 병사의 눈을 감겨주었다. 짧게 기도하고 몸을 일으키자 그가 손을 내밀었다.

이제 다시 봄이 왔으니 쓰러진 병사들을 깨우고 다시 봄에 의해 녹은 ‘눈 여우’를 마저 잡아야 한다. 눈보라가 사라져 드러난 하늘은 아직도 어두웠다.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손을 맞잡았다.

눈이 마주치자 그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하지만 흥–하고 콧김을 뿜으며 소리 나게 고개를 돌렸다. 몰래 눈동자를 굴려 보자 저 사람은 체면도 없는지 또, 아이샤에게 달라붙고 있었다.

“떨어지라고요!”

냉큼 일어나 아이샤에게 마수를 뻗는 이 요망한 사내놈의 손을 막았다. 그러자 그가 어쩔 수 없다는 듯 눈꼬리를 내리며 한숨을 내뱉었다.

“알겠어요. 바라는 대로 얌전히 있죠, 뭐.”

무슨 남자가 패기도 없이 저렇게 순순히 말을 듣지?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를 노려보며 아이샤가 앉은 의자에 슬쩍 엉덩이를 들이밀었다.

“나베란. 뭐하는 거야?”

“감시. 오라버니가 올 때까지 너는 내가 지킬 거야. 쓸데없는 해충이 끼지 못하게.”

해충이라고까지 말했는데 이 인간은 알아들은 건지, 못 알아들은 건지 연신 해실거리며 웃기만 했다.

“자리로 가. 불편해.”

모른 척 고집스레 앉아있기엔 솔직히 의자의 자리가 좁았다. 별수 없이 그를 노려보며 의자를 가져다 아이샤 옆에 바짝 다가앉았다. 졸지에 아이샤는 우리 사이에 낀 상태가 됐지만 그가 비켜나지 않는 한 절대 내가 먼저 비킬 생각은 없었다.

노골적으로 아이샤의 팔을 붙잡으며 노려보는데 그걸 가만히 지켜보던 그가 피식 웃었다.

“아가씨, 좋겠네. 이렇게 지켜주는 사람도 있고. 근데 여기에 해충도 있나?”

“당신이라고요, 당신! 당신한테서 지킨다고, 이 해충!”

버럭 소리를 질러도 하하, 노려봐도 하하, 비난해도 하하.

하, 지친다.

고단수의 전법에 되려 머리가 아플 지경이다. 그나마 먹히는 건, 아이샤에게 손도 못 대게 하는 거였다. 그제야 시무룩하게 간절히 원하던 것을 뺏긴 얼굴을 했다.

겨울 민족의 남자라면 자고로 즐거워도 즐겁지 않은 듯, 슬퍼도 슬프지 않은 듯 강하고 멋있어야 하는데 이 남자는 한참이나 모자랐다. 반응 하나하나에 긴 속눈썹을 깜빡이며, 파란 눈동자로 안타깝게 바라보곤 했다.

“떠들 거면 나가.”

한숨을 내쉬는 바람에 아이샤의 얼굴을 가린 검은 베일이 작게 펄럭였다. 분하고 저자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더 소리치면 아이샤가 내쫓을 게 분명하다. 어쩔 수 없이 입을 다물며 행여 저 사람이 내가 못 보는 틈에 아이샤에게 손을 댈까 신경을 곤두세웠다.

그런데 아무렇지 않게 아이샤의 베일 끝을 만지작거리는 저자의 손을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어, 어딜 만지는 거예요?!“

너무 놀라 목소리마저 새되게 갈라졌다.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걸 아이샤가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놀라 가슴이 벌렁거리는 게 멈추지 않았다.

9년간 저 베일은 아무도 벗기지 못했다. 어렸을 때에도 어린 마음에 어여쁜 사촌의 얼굴이 보고 싶고, 자꾸 감추려 드니 궁금해서 손을 대려 했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아이샤가 본 적도 없을 정도로 화를 냈다. 심지어, 베일을 만지려 했던 손을 때려서 손등이 부어오른 적도 있었다. 만지려 하면 조용하던 이가 매서울 정도로 화를 내니 유모인 마샤조차 저 베일에 손을 댈 수 없었다.

저렇게 얼굴을 가리니 상처가 생겨서 흉해져서 그런 거냐고, 얼굴이 이상해진 거냐고, 심하게는 저게 정말 아이샤냐고 수군거렸던 적도 있었다. 그렇게 쌓이고 쌓여 도를 지나친 궁금증은 때론 악질적인 장난이 되기도 했다.

더욱이 성주의 딸이라 하나 아직 어린 여자애.

여자임에도 순종하지 않고 지독시리 딱딱하고 오만하게 구니 그걸 마음에 들지 않던 기사들이 주도하여 베일을 벗기려 들었다. 그리고 그 일엔 레사휘 오라버니마저 가담했다.

반쯤은 궁금함을 해소하기 위한 장난이었고, 반쯤은 아직 어린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남자들 위에 서려 하는 것이 괘씸해 저지른 제압이었다.

더욱이 레사휘 오라버니마저 가담했으니 두려울 게 없었다.

성장 후 반려가 될 사이.

아이샤가 불같이 화내고 난리를 치는 건 두렵지만 설마하니 반려가 될 레사휘 오라버니를 벌줄까 싶은 기사들의 얄팍한 수였다. 하지만 그 계략은 실패했고 아이샤는 일을 주동한 오라버니와 원탁의 기사들을 모두 지하 감옥에 일주일을 음식조차 금하며 가뒀다.

지독하다고, 저리 뻣뻣한 여자를 반려로 삼아야 하는 오라버니가 가엾다고 기사들은 그때부터 노골적으로 조롱하거나, 눈에 띄는 행동을 하지 않고 순종하는 자들로 나뉘었다.

그런 일을.

그런데 저자는 아무렇지 않게 손을 대고 있었고 아이샤는 거세게 분노하거나 손을 때리지 않았다. 아무 상관 없다는 투로 책장을 넘길 뿐이었다. 그게 더 답답해 아이샤를 바라봤다.

“아이샤! 왜 보고만 있는 거야?”

붉으락푸르락 어찌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상하게 그가 아닌 바로 나였다. 그는 나른하게 긴 다리를 쭉 뻗고 의자에 고개를 기댄 채 일어선 날 올려봤다. 한쪽 입 꼬리를 올리며 웃는 얼굴이 아닌 승리했다는, 도취감 가득한 얼굴로 날 보고 있었다.

“이거 어떡하죠? 보고 있기만 해서는 자꾸 감질 맛나서요.”

“뭐라는 거야, 이 호색한이!”

탁—

“내 말이 안 들려? 떠들 거면 둘 다 나가. 머리 아프니까.”

읽던 책 위를 손으로 내리치며 아이샤가 차게 경고했다. 히죽 히죽 웃는 저 얼굴이 짜증이 나 억지로 치맛자락만 구겨지게 움켜쥐었다.

‘저딴 인간이 감히 우리 아이샤에게…!’

겨울에도 버티고 자란 전나무처럼 키가 큰 주제에 허리가 아프지도 않은 지 의자에 고개를 기댄 채 아이샤만을 바라보고 있다. 커다란 손이면서 검을 쥐어봤을 것 같지도 않은 하얀 손은 오로지 아이샤에게 내밀어져 있었고, 겨울 성의 핏줄 중에서 가장 진할 것 같은 푸른 눈은 늘 아이샤를 담고 있었다. 유려한 콧날은 얼음처럼 날쌔게 솟아 인중을 타고 화로에 타오르는 숯만큼 붉은 입술이 길게 늘어지며 웃었다.

숨을 내쉬며 화를 진정하도록 노력했다. 또 소리 지르지 않도록 입술을 깨무는데 반쯤 벌어진 저자의 입술이 눈에 띄었다.

솔직히, 여자보다도 예쁜 입술이었다. 다른 남자들의 입술은 거뭇거뭇한 죽은 색인데 비해 이 자의 입술색은 마치 흰 눈밭에 피가 묻은 것처럼 붉었다.

“왜 그리 빤히 보는 거예요? 입술에 뭐 묻었나?”

“내, 내가 언제!”

갑작스레 날 향한 말에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다. 저런 능글맞은 성격까지 도통, 마음에 드는 구석이 단 하나도 없다.

“아이샤는 우리 오라버니와 혼인할 거니까 관심 꺼요!”

“아아, 슬퍼라.”

그러나 정작 표정은 슬픔이라곤 배어있지 않는 얼굴이었다. 마치 연극배우의 톤으로 말하는 목소리였다. 침착하게 화를 내지 않도록 시선을 발치로 내리며 재차 입을 열었다.

“그러니까 아이샤한테 접근하지 말아요.”

“나베란.”

“아아, 안타까워라. 나는 우리 아가씨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완벽한 희곡 조의 목소리. 저건 분명 날 조롱하는 것이었다.

“뭐죠? 그 목소리는? 하나도 안 슬퍼하잖아요!”

분해 더 세게 치맛자락을 움켜쥐자 결국 탁–하고 책을 덮는 소리가 났다. 아이샤가 우리 둘 사이에서 일어나 문가로 걸어갔다.

“나가.”

“아이샤…”

왜 일이 이렇게 된 거지. 난 그냥 아이샤와 함께 있고 싶은 건데. 저자의 앞에서 완벽하게 있어야 하는데 울상이 되는 얼굴을 감출 수가 없었다.

“잘 가요.”

더더구나, 저렇게 손을 흔드는 저 자를 놔두고 나가야 한다니. 당장 마샤한테 뛰어가 아이샤 좀 말려달라고 울며 부탁이라도 해야겠다.

“너도 나가.”

“엥? 아가씨 나도? 나는 왜? 나는 얌전히 있었잖아.”

“네가 자꾸 나베란을 건드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나가.”

반색하며 아이샤를 바라봤다. 의자에 나른하게 앉아있던 그가 힘껏 의자를 붙잡았지만 결국 단호한 아이샤 덕분에 우리 둘 다 문밖으로 내쫓겨야 했다.

“…날 내쫓다니. 처음이야.”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보며 입을 벌렸다. 내가 좀 시끄럽게 굴었다지만 그래도 날 내쫓다니. 9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아이샤가 변했어.

홱 하고 고개를 돌려 나와 똑같이 문을 안타까이 바라보는 그를 노려봤다. 다 이 인간이 오면서부터 이렇게 된 거였다.

내 미래의 올케를 노리는. 요 요망한 마수같으니! ‘눈 여우’보다 지독하고 악질적인 인간 같으니!

내가 노려보거나 말거나 뒷목을 매만지며 고개를 흔들었다.

“이런, 아가씨한테 내쫓겼으니 애들하고 놀아야겠네.”

아까 하는 행동만 보면 제발 열어달라고 할 것 같은데 막상 그런 건 또 아닌 모양이었다. 그러고 보면 이 자는 참 이상하다.

“애들한테 괜한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을요?”

“아이샤는 레사휘 오라버니와 혼인할 거예요. 그 사실을 이 성에 사는 사람들 전체가 다 알고 있으니까 괜히 애들한테…”

“아아, 알고 있어요. 내가 뭐 말리는 것도 아니고.”

“…?!”

아무렇지 않게 내뱉고 돌아서는 그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다.

녹아 죽을 것처럼 달라붙던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혼인은 상관없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아니면 불륜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아님, 아이샤가 레사휘 오라버니를 거절하고 자신을 선택하는 게 너무나 당연해서 말릴 필요성도 못 느낀다는 건가?

갑작스런 물음표에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이러니 그를 보면 머리가 아프고 화가 치민다. 대체 저 인간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건지, 저 머릿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 수가 없다. 때때로 펄쩍펄쩍 뛰기도 하고, 단 것을 좋아하질 않나, 거기다 남자면서 근엄하기는커녕 애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리는 걸 보면 도저히 어른 같지가 않다. 그러고 보니 아이샤도 그랬다.

=“저건 애야. 그러니 나베란, 너도 괜히 열 낼 거 없어.”

“…정말 애구나. 그래, 애랑 싸워봤자 나만 피곤하지.”

확실히.

저 사람을 상대하고 나면 머리는 무거워지고, 몸은 무기력해져 마치 몸살처럼 결국은 끙끙 앓고 만다.

“빨리 돌아오라고요, 오라버니. 저러다 요망한 것에 아이샤를 뺏겨도 난 몰라.”

저 사람은 갑자기 나타났다.

갑자기 시작되었다가 사라진 겨울이 지나간 자리에서 마치 봄처럼 나타났다. 흔들리는 결 좋은 머리카락이 창가에 들어오는 햇살에 눈처럼 반짝거렸다. 마치, 아시네헤의 일족과도 같은 순백의 머리카락이었다.

하지만 겨울 성의 가계임을 증명하는 푸른 눈을 가진 그는 아이샤와 함께 성에 왔다. 창백하리만치 하얀 피부와 짙은 푸른 눈동자, 그리고 아름다운 얼굴에 걸맞은 순백의 머리카락을 가진 그는 겨울 성의 방계라고 했다.

나는 이런 사촌을 본 적도, 어른들을 통해 들은 적도 없다.

그리고 의심하는 건 나뿐만이 아니었다. 갑자기 나타난 방계의 사촌이라니. 믿을 수 있을 리가 없다. 하지만 모두 그가 이 성에 머무는 걸 반대할 수 없었다.

푸른 눈은 이 대륙에 그것도 위그노드의, 오로지 겨울 성의 가계에만 존재하는 눈동자 색이었다. 온 대륙의 민족 중 유일한 겨울성의 혈족. 모두가 의심의 눈으로 순수한 푸른 눈이 아닐까 했지만 저토록 짙은 푸른 눈은 직계라 할 정도였다. 그래도 계속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군다나, 성의 남자들이 거의 없는 지금 아이샤의 결정을 막을 자는 없다.

‘레사휘 오라버니라도 있었으면 당장 내쫓았을 텐데.’

이를 악물며 그가 가는 방향과 정 반대 방향으로 걸었다.

전서구로 온 서신을 다시 읽다가 일어서 창가로 걸어갔다.

순록의 들판. 부상자 넷, 사망자 X

갑자기 휘몰아친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노련한 기사들과 적절한 레사휘의 지휘 덕분이었는지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다. 겨울이 변덕적인 걸 알아 토벌대는 그에 대한 대비도 많이 했거니와 함께 모여 있다는 점 때문에 살아남을 확률이 높았을 것이다. 만일 겨울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았더라면 그마저도 무리였을 테지만.

하지만 영지 내의 병사들은 열 명이나 죽었다. 전투 중에 갑자기 닥친 겨울은 나타났던 것처럼 짧은 시간 안에 사라졌지만, 가뜩이나 열세적인 상황에 부상까지 당한 병사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할 시간이었다.

모두 기적이라 했다.

처음, 내가 노아의 씨앗을 건넸을 때처럼.

휘아르와 함께 봄을 퍼져나가게 하고 그의 힘으로 눈 여우를 얼어붙게 했다. 뒤늦게 깨어난 병사와 기사들이 얼어붙은 ‘눈 여우’를 처리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다만, 우리가 한 일을 모르기에 왜 눈 여우만이 녹지 않고 계속 얼어붙은 채로 남았는지는 의문점으로 남았다.

“뭐야?! 왜 나만 그렇게 잘 찾는 거지? 좋아, 나도 이제 다 찾아 줄 거야. 꼭꼭 숨어라, 숨어! 열까지 센다!”

“하하, 잘 좀 찾아보라고, 피토!”

“나는 찾지 마!”

“빨리 숨어야 하는데, 어디에 숨지?”

다시 돌아온 봄을 즐기며 정원에서 노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벽을 타고 창까지 올라왔다. 고개를 숙여 창 아래 정원을 내려 봤다. 커다란 전나무 아래 모인 아이들이 숨바꼭질이라도 왁자지껄하게 떠들며 웃는 소리가 만개한 봄처럼 울려 퍼졌다.

“…”

가만히 그들의 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오늘은 드물게도 하늘이 맑은 날이라 따사로운 봄날의 햇살이 정원에 가득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일을 다 끝냈는지 제법 나이가 찬 남자애들까지 한데 모여 노는 모습은 보기 좋았다.

매년 지금처럼 봄의 끝 무렵에는 바람이 소리까지 붙잡아 날려버렸는지 사람들의 말소리며 아이들의 웃음소리조차 사라진다.

봄의 짧은 기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데다 이번은 운이 좋아 사망자가 없었지만 보통 토벌대로 나가면 반 정도는 죽어서 돌아온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는 시기인 봄의 끝 무렵이면 자연적으로 분위기가 가라앉는다.

사람이 죽어 나가는 계절에 웃을 수 있는 일들이 많을 리가 없다.

그러나 이번은 달랐다.

린드 경은 몰살당할 수도 있었던 일에 고작 열 명만이 죽어 다행이라고 했다. 맞는 말이었다.

갑자기 불어 닥쳤다가 사라진 겨울은 혹여 ‘눈 여우’에게서 우리를 지켜주는 아시네헤의 가호가 아니냐 떠드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제 아시네헤께서 우리를 보살펴주시는 거냐며, 겨울이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는 건 아니냐며 희망적으로 생각한 자들도 생겼다.

그래서인지 성 안의 분위기는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둡게 가라앉지 않았다. 토벌대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희망과 기대로 부풀었다. 어디에도 죽은 자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런 어른들의 분위기가 아이들에게까지 퍼져 저렇게 웃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제법 적은 죽음으로 상황을 모면했다고 말하지만, 그 열 명 역시 한 가정의 아버지였고, 남편이었고, 형제였다. 이번처럼 내년에도 괜찮다고는 말할 수 없다. 아시네헤가 정말 우리를 놓아준 게 아니니까. 앞으로의 일은 장담할 수가 없었기에 성의 분위기에 동참할 수 없었다.

“왁!”

갑자기 바로 옆에서 들리는 큰 고함에 퍼뜩 고개를 들었다.

“아, 뭐야. 아가씨, 안 놀랐어? 하도 심각하게 아래 보고 있어서 놀라게 해주려고 했더니.”

짐짓 아쉬운 듯 입맛을 다셨다. 오늘도 꼼꼼하게 베일을 쓰고 있는데 대체 어떻게 본 건지 모르겠다. 새의 눈이라 이건가.

“뭐하는 거지?”

“숨바꼭질. 애들이 위는 잘 안 보거든.”

어이없는 말에 그만 한숨을 내쉬었다. 아무리 숨바꼭질이라지만 여기까지 올라오다니.

내 방 창문가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자라온 키가 큰 전나무 가지가 맞닿아 있었다. 아무리 오래 자라왔어도 창문가에 닿을 정도라면 안전의 이유로 베어버리는데 내 방은 성에서 높은 축이었고, 이 나무 역시 키가 커 아무도 타고 올라오지 못할 정도여서 놔둔 거였다.

그런데 힘든 기색도 없이 휘지 않을 정도로 단단하고 두꺼운 나뭇가지를 밟고 선 채 날 보고 있었다. 심지어 떨어질까 두렵지도 않은 지 제법 가지에 선 채 장난도 쳤다.

‘하긴. 본래의 모습이 새인데 높은 곳이 무서울 리가.’

햇살에 하얀 머리카락이 반짝반짝 빛났다. 얼핏 봐도 노인의 백발처럼 보이지 않는 게 이 때문이었다. 벌판 위에 손길이라곤 닿지 않은 눈처럼 하얀색은 진해서 햇살에 반짝일 정도였다.

“그리고…”

“…?”

갑자기 혼자 재잘재잘 거리다 어울리지 않게 뜸을 들이듯 말끝을 머뭇거렸다. 무슨 일인가 싶어 바라보는데 그가 입술을 매만지며 시선을 맞췄다. 마주친 시선에 눈을 휘며 웃었다.

“이렇게 안 하면 또 그 분노 아가씨가 나타나서 같이 못 있게 하잖아. 나는 늘 아가씨 곁에 있고 싶은데. 좋다, 이런 거.”

사랑해 달라, 함께 있게 해달라 떠들 때는 언제고. 고작 이 정도에 부끄러운 듯 말하는 태도에 기가 막혔다.

하지만 햇살보다도 짙은 시선에 가만히 시선을 아래로 돌렸다.

“분노 아가씨라니... 혹시나 하고 말하지만 나베란 앞에서 잘못 말하는 일 없도록 해. 분노가 폭력이 되는 건 쉬우니까.”

“설마, 아가씨만 할까.”

“…할 건 해. 노력하겠다고 말 한 건 나니까.”

한숨을 내쉬자 그가 어느새 내게 닿을 정도로 가깝게 다가와 내 베일에 손을 댔다. 그리고 너무도 쉽게 베일을 벗겨 맨 얼굴을 드러나게 했다.

“응, 알아. 나도 그래서 참아.”

“…참는다고?”

무엇을?

어이가 없어 햇살에 오롯이 드러난 눈동자를 모나게 치켜떴다.

나 역시 노력한다고 한 이상 저것이 함부로 나베란을 자극하는 걸 알면서도 말리지 않았다. 나베란이 아무리 화를 내고 난리를 쳐도 떼어내지 않았다. 물론, 솔직히 말하면 소름 끼치게 닿는 것도 싫다. 베일을 만지는 건 더더욱 싫다.

하지만.

감정은 이미 차게 얼어붙어 녹을 리 없지만. 그래도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말한 이상, 지킬 것이다. 나는 그에게 그만한 빚을 지었다. 하지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다.

쉽지 않다. 아주 오래전 애달플 정도로 어미를 사랑했던 건 기억만 나지 마음은 이제 남아있지 않았다. 그렇다고 이런 문제를 주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을 턱이 없다.

책에는 세상의 모든 지식이 적혀 있으니 찾아서 보긴 했다. 현자가 썼다 할지라도 다른 건 없다. 자주 만나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고, 서로의 체온을 느끼라 했다.

‘참 쉽게도 썼지.’

지금처럼.

서슴없이 내게 닿으려는 손을 보며 차마 피하진 못하고 눈을 돌려버렸다. 노력은 하지만 그가 내게 손을 대려 할 때마다 소름이 끼쳤다. 발밑의 얼음이 금이 가는 것처럼.

“아가씨, 날 좀 봐줘.”

코앞에 멈춰 서 닿지 않은 손가락이 잘게 떨렸다. 뭐하냐는 눈으로 그 손을 바라보자 머쓱하게 손을 접으며 내렸다.

“피하지 말고 날 좀 봐달라고.”

“이미 보고 있어.”

“날 좀 봐줘.”

끈기 있게 바라보는 시선과 목소리에 결국 혀를 차며 시선을 맞췄다.

겨울 성의 혈족치고는 진한 푸른색이었다. 하지만 저것은 가짜다. 그러나 가짜임에도 저토록 진한 하늘색은 위그노드에 흔치 않다. 저 맑은 하늘과도 같은 색은 잔인한 달이 존재하는 이곳보다는 태양의 주인이 사는 실로이의 태양 곁이 어울렸다.

반짝이는 눈동자와 머리카락처럼.

나와 마찬가지로 아비가 아시네헤의 일족이 아니라 했다. 누군지 말하지 않아 알 수는 없지만 나는 그것이 태양의 일족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림자가 없는 것도, 자유자재로 바꾼 하늘을 닮은 푸른 눈도 모두 아비에게서 물려받은 거라고. 아시네헤의 일족이라고 다 되는 건 아니라 말했다. 다만 어미를 더 많이 닮아 새의 형상을 하고 네헤베에 살았다고 했다.

나와는 다르게.

시선이 닿자 기쁜 내색을 숨기지 않고 내보이며 내게서 벗긴 베일을 세게 움켜쥐었다.

“아가씨가 날 봐주면 난 조금 더 참을 수 있어. 힘들지만 말야.”

“그래, 계속 참도록 해.”

그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물어서 좋은 말은 나오지 않을 거란 건 알았다. 아래에서 아이들이 어디 갔냐고 찾는 목소리가 들렸다.

못 찾겠다. 못 찾겠다.

뺏긴 베일을 다시 돌려받기 위해 손을 내밀었다.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수 없다.

“이만 내려…”

“참지 않으면 아가씨가 날 무서워할 테니까.”

“뭘?”

되묻는 물음에 그가 미소를 지웠다. 가만히 놔둬도 웃을 것 같은 입술 끝이 미소를 지우고 일자로 다물렸다. 그제야 내 앞에 선 그가 아시네헤의 일족이란 느낌이 들었다.

아시네헤가 빚은 아름다운 얼음.

그가 시선을 내게 향한 채 천천히 손에 쥔 베일의 끝에 입을 맞췄다. 붉은 입술이 검은 베일에 닿자 속이 울렁거렸다. 이제껏 저런 식으로 행동한 적은 없었다. 그가 탄식하듯 옅은 숨을 내뱉었다.

“다 갖고 싶다고 생각하면 안 되니까. 아가씨는 혼인할 상대가 있잖아.”

"…그래.“

창턱을 붙잡은 손에 힘을 주며 대답했다.

“나는 아가씨의 사랑만을 원하지만, 아가씨는 아니니까. 노력해서 날 사랑한대도 절대 나와 가지 않겠지. 그래서 참을 거야.”

그러나 입으로 내뱉은 말과는 다르게 눈은 끊임없이 애원하고 있다.

사랑해줘.

제발 나를 사랑해줘.

숨이 막힌다. 내가 정말로 저것을 사랑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을 버릴 정도로?

그럴 리가.

그래서 그가 이 겨울성에 머무는 기한은 1년이었다. 1년 후에 나는 레사휘와 혼인할 테니까. 나베란은 내 곁에 남자가 생겨 걱정했지만 나는 설사 그를 사랑하게 될지라도 내 의무를 게을리 할 생각이 없다. 나는 예정대로 레사휘와 혼인하여 이 겨울성의 안주인으로서 절대 이곳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잘 알면서도 레사휘와 혼인할 거라며 못을 박는 나베란을 자꾸 자극하는 것이었다.

“실은 아주 싫어. 아가씨가 다른 남자와 혼인하는 거. 내가 데려가고 싶어. 욕심내고 싶어. 참고 싶지 않아.”

마치 아이의 투정 같은 목소리였다.

제발 날 봐주세요, 날 안아 주세요, 사랑해주세요. 내가 바라보지도 않는 걸 알면서도. 어린 시절의 나처럼 끊임없이 갈구하는 시선은 흔들림 없이 날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내 마음은 과거의 어미처럼 차게 얼었다.

“참아.”

망설임 없는 내 대답에 그가 안타깝게 웃었다.

“아가씨는 정말 너무해.”

다시 베일을 들어 내 머리 위에 씌웠다.

다시 보호막이라도 된 것처럼 드리운 베일을 보며 속으로 안심했다. 이것이 갑옷이 아닐진대 어느새 얼어붙은 표정을 감추기가 어려워 베일이 없으면 발가벗긴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한숨 놓기도 전에 그가 베일을 살짝 걷어 올려 얼굴의 반이 드러나게 했다.

이건 또 뭐하는 짓거린가 싶어 가만히 노려보자 그가 답지 않게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베일을 붙잡은 손길엔 힘이 실려 있었다.

“나만 초조해. 그래서 그래. 그래서 그러는 거니까…”

뭐라 할 겨를도 없이 베일 밖으로 드러난 볼에 입을 맞췄다. 생전 처음 겪는 일에 얼어붙었다. 말랑말랑한 입술의 감촉이 짙게 볼에 닿았다. 순간, 책을 읽는 것 같았다. '그가 내게 베일에 입을 맞추던 것처럼 볼에 입을 맞췄다.' 라는 글귀를. 그러나 책이 아니다. 볼에 닿은 입술은 뜨거웠다.

이내 정신을 차렸다.

“네가 감히…!”

손을 휘두르자 맞기도 전에 그가 빠르게 뒷걸음쳤다. 어느새 나뭇잎이 차양처럼 드리워진 나무기둥을 붙잡으며 선 그를 노려봤다.

“미안, 못 참겠어서 그만. 보는 거로는 부족해. 너무 부족해. 계속 만지고 싶어. 끌어안고 싶고 힘주어 안고 싶어. 입을 맞추고…”

“그만!”

부끄럽지도 않은지, 술술 튀어나오는 요망한 말을 다 내뱉기도 전에 거센소리로 입을 막았다. 그가 하하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서, 그래. 아가씨가 너무 예쁘니까.”

“시끄러워!”

사람 죽이고도 네 탓이라 할 인간 같으니라고. 나베란의 심정이 이해가 간다. 저것을 힘껏 두들겨 패고 싶었다. 그러나 버럭 내지른 소란에 아이들의 목소리가 아래에서 타고 올라왔다.

“아! 저기에 있다!”

“저기다!”

“어떻게 올라간 거지?”

“휘아르 형!”

우리의 소리에 아래에 있던 아이들이 소리치며 위를 올려다봤다. 더는 소리를 지를 수 없었다. 그를 한번 노려보고는 창가에서 물러났다. 저것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그는 아래를 보고는 나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이크. 들켰네. 안녕, 아가씨. 난 다시 놀아야 하거든.”

그리고는 망설임도 없이 팔을 뻗어 가지를 붙잡고 내려가기 시작했다. 키가 큰 만큼 기다란 팔로 손쉽게 내려가는 모습이 신기할 정도였다. 전혀 힘들이지 않고 내려가자 밑에서 아이들의 놀란 감탄 소리가 들려왔다.

그래, 저것은 짐승.

때로는 사슴, 본래 모습은 새.

그리고 가장 확실한 건 애라는 거.

베일을 걷고 볼을 힘껏 문질렀다. 그리고 주저 없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책을 놋쇠 화로 안에 처넣었다.

별도 없이 어두운 밤에 뒤척이다 소리도 없이 열리는 문의 모습에 눈을 치켜떴다. 그것은 흡사 눈밭을 걷는 짐승처럼 살금살금 걸어 들어왔다. 그리고 용의주도하게 문까지 다시 닫아 걸쇠로 잠그는 소리가 났다.

어둠 속에서 그것의 하는 양을 가만히 지켜봤다. 두렵거나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어이가 없어 이것이 과연 어디까지 하는지 지켜보자는 심정이었다.

그도 그럴게, 어두운 밤이어도 누군지 알아보는 건 어렵지 않았다. 그만큼 그는 어두운 밤에도 얼음처럼 반짝 빛났다.

빛도 없이 어두운 하늘 같은 방안에 그의 머리카락은 은하수처럼 반짝였다. 어둠을 틈타 흔들리는 머리카락을 바라보며 나도 모르게 베갯잇을 세게 쥐었다.

어미는 어두운 밤, 창가 아래에서 빗질하는 것을 좋아했다.

평소엔 꼭꼭 묶어 올려 두건으로 감싸 보여주지 않다가 별이 하나도 뜨지 않는 고요한 밤에 두건을 벗고 머리를 빗어 내렸다. 길고 풍성한 머리카락이 어미의 빗질에 찰랑거리며 반짝거렸다. 어미가 싫어하기에 벽장에 숨어 몰래 바라보는데 밤이 늦어도 졸리기는커녕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땐, 그것이 남몰래 하는 짝사랑처럼 달콤하고 두근거렸다. 누군가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것처럼 간지럽고 나른한, 취한 것처럼 넋을 놓고, 비밀을 발견한 것처럼 가슴이 뛰었다.

그땐, 그랬다.

그리고 지금 다시 마주한 저 빛나는 새하얀 머리카락은 그때와는 다를 바 없을 텐데 기억도, 기분도 퇴색해 차라리 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다. 더욱이 아이러니하게도 어릴 적 보물과도 같았던 추억은 이미 9년 전부터 끔찍한 악몽같은 기억으로 변질하였다.

“아가씨, 왜 안 자고?”

불시에 마주친 시선에 눈을 깜빡였다. 도둑처럼 들어온 주제에 눈이 마주치자 활짝 눈꼬리를 휘었다.

“나 때문에 깬 거야? 더 자, 아직 한밤중이야. 더 자.”

손을 들어 어깨 아래로 흘러내린 이불을 추켜올리며 자연스럽게 말했다. 마치, 처음부터 이곳에 있었던 사람처럼. 손을 들어 태연자약한 그의 볼을 꼬집었다.

“아야야야…”

“너, 내가 이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지 않았던가? 방도 따로 내어줬는데 이게 무슨 짓이지?”

“음…”

그가 볼을 잡아당기며 묻는 내 말에 곤란한 눈으로 시선을 피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람의 모습이 보인 이상, 언제까지 내 방에 둘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날 당장 마샤에게 일러 방을 새로 내주고 문을 걸어 잠갔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재주를 쓴지는 모르겠다만 걸쇠로 잠근 문을 열고 들어왔다.

“바른대로 말해.”

“아야야야…”

“말 안 해? 심장을 찌르고도 멀쩡한 주제에 이게 아프다고 말을 안 한다는 거야?”

계속 회피하며 앓는 소리를 내자 기가 막혀 손에 힘을 풀었다. 대답이고 뭐고 빨리 내보내고 다시 자야겠다. 나가라고 손을 휘젓자, 그가 대뜸 볼을 문지르며 날 가늘게 노려봤다.

“아, 정말! 그래, 아가씨랑 자고 싶다고!”

“…”

어이가 없어 말없이 쳐다보기만 하자 그가 시선을 피하며 얼굴을 붉혔다. 부끄러움도 모르는 짐승이라 여겼더니 더 심각한 수준이었군.

짜증스럽게 어둠이 눈에 익어 그런 게 다 보였다. 참지 못하고 이불을 걷고 상체를 일으켰다. 더는, 이 말 같지도 않은 짐승의 헛소리를 들어줄 마음이 없다.

“나가.”

“내 이럴 줄 알았지. 그래서 몰래 들어왔는데…!”

언제 얼굴을 붉혔냐는 듯 혀를 차며 짜증을 내고는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러나 이내 다시 고개를 돌려 날 바라봤다. 잔뜩 구겨졌던 얼굴마저 환하게 피어 있었다. 단 몇 초 만에 돌변한 표정에 질릴 것 같았다.

“아가씨, 나 이제 사슴 모습 아니잖아.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옆에서 자도 되는 거 아냐? 이제 짐승 아니니까 바닥에서 안 자도 되잖아.”

이런 쪽에 대한 생각은 미친듯한 속도로 빠르게 돈다.

“네가 사람이야?”

“그럼 아가씨는 대체 내가 사람이 아니고 뭐로 보이는 건데? 나처럼 잘난 남자를 참.”

자부심 가득한 말에 한숨을 내쉬며 침대에서 일어나 바닥에 내려섰다. 그러자 침대에 누운 나와 시선을 맞추느라 무릎을 굽혔던 그가 고개를 들어 날 올려봤다.

간이 부풀어 겨울의 눈보라가 가득 찬, 이 입만 산 짐승을 내려 봤다.

“잘난 남자?”

“그럼, 성의 아가씨들이 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서 그래?”

“아아.”

말끝을 길게 늘이며 비아냥거렸다. 처음부터 부풀었던 자신감이 성의 지붕을 뚫을 정도로 기고만장해졌는지 알겠다.

성의 여자들.

어린여자에서 늙은 여자까지 위그노드에서는 벗어나지 않고 평생을 산다. 위그노드의 남자들은 강하고, 굳센 힘으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강인한 가장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건 곧, 여자를 존중하지 않는 남성 우월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리고 약한 존재는 지켜줘야 하지만 절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게 한다. 절대 자신과 동등하게 보려하지 않기에 내가 성의 주인이자 성주의 딸임에도 쉽게 날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런 생활 속에 갑자기 휘아르가 나타났다.

저질스런 농담이 아닌, 쾌활한 말재주와 남녀 구분 없이 여자를 배려하는 태도에 그녀들이 쉽게 이 외지인에게 마음을 놓는 건 일도 아니었다. 더욱이, 그는 일단은 내 사촌으로 이곳에 있으니까 믿을 만하다는 거였다.

“어이가 없군. 짐승이 아니라고 침대에 올라와도 된다 말한 적 없어. 더욱이, 잘난 남자라니.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너의 어디를 어떻게 봐야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지?”

“객관적으로?”

한 치의 고민도 없이 지껄이는 말에 미간을 찌푸렸다. 단순히 개념만 없는 짐승인 줄 알았더니 이거야 원, 구제가 불능인 수준이다.

“그 객관적인 근거는? 제 주제도 모르고 감히 반려가 정해진 처녀의 방에 무단으로 들어온 호색한에 대한 근거라면 많지. 거기다 넌 분명히 잠긴 문까지 열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넌 충분히 레사휘가 네 목을 벨 근거를 제공했어. 그리고 넌 내가 널 어떻게 보는지 조금도 신경 쓰지 않지? 그래, 좋아. 마음대로 해. 단, 지금 나가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넌 보상받지 못할 거야.”

그제야 그의 얼굴이 와락 일그러졌다.

“아니, 난. 그러니까, 난. 아, 정말.”

그가 곤혹스런 눈으로 더듬더듬 말을 이었지만 뭔가 잘 이어지지 않은 듯 입술을 깨물었다. 바라보는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러나 이내 한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솔직히 말하면 오늘이 처음 아냐.”

“미치겠군.”

겨울이고 뭐고 고마운 것도 다 사라지고 벌써 밑동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녀석을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게 과연 가당키나 할까?

차라리, 레사휘를 사랑하라고 시키지. 어차피 애를 낳고 살아야 할 사이니 어렵긴 해도 그쪽이 더 쉬울 텐데.

더욱이 그는 무례한 짓은 저지르지 않는다.

“요새 계속 분노 아가씨 때문에 얼굴 못 보고, 나무에 올라가 볼라 쳐도 아가씨가 창문을 닫아놔서 못 봤잖아. 식사도 따로 해야 한 대서 떨어지고, 방에 들어가면 분노 아가씨랑 같이 쫓겨나는데. 난, 싫어. 이럴 바엔 사슴이 나.”

“변명하지 말…”

“변명이 아냐. 나는 그냥 같이 있고 싶었을 뿐이었어. 잠든 얼굴이라도 좋아. 아가씨가 만지는 건 싫어하니까 나도 손 하나 안 대고 얼굴만 봤어. 정말이야. 호색한이라고 불릴 만한 짓은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어.”

잔뜩 찌푸린 미간을 손가락으로 누르며 차게 그를 바라봤다. 참 신기도 하지. 저런 말을 저렇게 쉽게도 하다니. 비웃음이 나온다면 좋았을 텐데. 실컷 대놓고 웃어주게. 웃지 못한다는 게 아쉬울 정도다.

그래서, 웃음 대신 단 한마디를 입에 올렸다.

“왜?”

“어? 왜냐고? 그게 무슨 말이야? 만져도 된다는 소리야?”

단 한마디에 이상한 얼굴로 변했다. 의아해하다가, 고개를 흔들다가 이내 기대에 가득 찬 시선으로 날 올려다본다. 그러나 정작 내가 바라보는 시선은 싸늘하기 그지없었다.

“왜 곁에 있고 싶은 건데?”

“그야, 당연히…”

“날 사랑해?”

그제야 그의 말문이 막혔다.

줄곧, 내내 묻고 싶었던 말.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사랑해달라고 하는 짐승. 처음엔 그저 허황된 말이고, 장난이라 넘겼다. 그러나 그 말의 무게는 장난치고는 무거워 그대로 끌어안기엔 내가 되려 얼어붙은 호수에 가라앉을 것 같았다.

그는 사랑해달라고 했지, 사랑한다 말한 적은 없었다.

“대체 네가 나에 대해 뭘 알아서? 오래 보길 해서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정말로 첫눈에 반했다는 거야?”

“…”

그의 눈동자가 가맣게 어두워갔다.

“내가 보기엔 넌 저주를 풀기 위해 감정까지 속이려 드는 걸로 보여. 내가 널 사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말야. 정말 대단하군.”

“…아냐.”

떨리는 무릎만큼 목소리도 떨렸다.

“하나 더 묻지. 그렇다면 왜 나야? 너같이 아름다운 아시네헤의 일족이라면 내 아비처럼 살이고, 피고 퍼줄 여자들이 넘쳐날 텐데 왜 굳이 나야? 아, 설마 그런건가. 혼혈이 흘리는 눈물이어야만 하는 거야?”

“아냐, 아니라고! 그런 게, 아냐.”

“그럼 뭔데? 난 빚을 졌으니 널 사랑하기 위해 노력할 거야. 하지만 굳이 내 앞에서 연극할 필욘 없어. 애가 아냐. 내가 사랑한다고 남이 날 사랑하길 원하지 않는다고. 그러니, 너도 그만…”

“아이샤, 그만.”

그가 일어나 내 어깨를 세게 붙잡았다. 혼란스럽게 휘몰아치던 눈동자가 제자리에서 빛을 내기 시작했다. 그 시선이 꼴도 보기 싫어서 고개를 피했다. 내 행동에 상처라도 받은 것처럼 그는 옅은 한숨을 내쉬었다.

“왜 그렇게 생각해? 난 네가 혼혈이어서도, 네 사랑을 받기 위해 거짓연극을 하는 것도 아냐. 나는 오로지 너여야만 해. 네가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왜?”

“내가. 내가 널...”

입안이 바짝바짝 타는지 혀로 붉은 입술을 축이고 마른 침을 삼키자 목울대가 움직였다. 어깨를 붙잡는 손아귀의 힘이 세졌다. 점차 아파져서 미간을 찌푸리다 고개를 드는데 붉게 타오르는 시선에 숨이 막혔다.

“이거 놔.”

“아이샤. 넌 모르겠지만, 난 아주 오래전부터 널 지켜봐 왔어.”

“뭐?”

그런 말은 처음 듣는다. 내 주변에 이 끔찍한 아시네헤의 일족이 계속 있었다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날 내려보는 시선의 열기가 조금씩 옅어졌다.

“샤하웨는 네헤베에서도 널 계속 걱정했으니까. 처음엔 귀찮은 친구의 부탁이라 거절할 수 없었어. 어차피 우리는 새니까 바라보는 것쯤은 어렵지 않았고, 아가씨는 지켜볼 만큼 예뻤으니까. 나쁠 거 없는 일이었지.”

“그만. 샤하웨의 이야기라면 듣고 싶지 않아.”

떫은 이파리를 깨문 것처럼 얼굴을 구기며 시선을 피했다.

샤하웨, 나의 이부 오라버니이자 어미가 사랑한 아들. 나와는 다른 아시네헤의 일족. 나는 그가 처음부터 싫었다. 그만 없었더라면. 그가 어미를 찾겠다 우리에게 오지만 않았더라면, 나는 어미에게 그래도 한 자락의 애정이라도 받지 않았을까. 어미는 그리 쉽게 우리를 버리고 가지는 않았을까.

나는 오라비가 보이는 애정이 위선처럼 쓰디썼다.

“아니, 들어줘. 나는 샤하웨 대신 온 게 아니니까. 내 이야기야. 그러니 들어줘, 아이샤.”

떨리는 손끝이 천천히 턱에 닿아 살짝 들어 올렸다. 어둠 속에 그의 눈동자가 본래의 금색으로 돌아와 날 바라봤다.

마치, 저 눈빛처럼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것처럼. 간절함이 깃들 정도의 목소리라 쉽게 내칠 수가 없었다. 어둠은, 밤은 사람을 이상하게 만든다.

“처음엔 그랬어. 샤하웨는 네 곁에 올 수 없으니 내가 대신 오빠의 눈으로 봐주겠다고. 나는 매일 매일 여기, 저 전나무 가지에 앉아 널 지켜봤어. 홀로 남겨진 아가씨를.”

이를 악물었다.

“아가씨는 매일 울었어. 힘들다고, 아프다고, 괴롭다고.”

“거짓말 하지 마. 난 울 수 없어.”

이를 악물며 말하자 그가 천천히 턱 끝에서 손을 올려 볼을 쓰다듬었다. 마치, 내가 흘렸다는 눈물의 흔적을 찾으려는 것처럼.

“아냐, 아가씨는 매일 울었어. 외롭다고. 나는 샤하웨가 내게 거짓말 했다고 생각했어. 왜냐하면 아가씨는 전혀 달랐으니까. 샤하웨가 말해준 아가씨는 힘차게 달리고, 웃는 아가씨라고 했어. 샤하웨에게 어머니를 뺏기지 않기 위해 늘 전전긍긍하는 주제에 그 앞에선 강한 척 도도하게 굴었다고 했어. 그러다 어미가 내치기라도 하면 이내 울음을 터뜨려 어찌할 줄 몰랐다고 말했어. 나도 그래, 아가씨. 그러니 이제 그만 울어.”

“울지 못한다고!”

거칠게 손을 떼어내며 소리를 버럭 내질렀다. 그러나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날 붙잡았다.

“나는 아가씨가 그만 울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왔어. 더는 울지 않게. 노아의 씨앗을 위해 다치지 않게. 아가씨가 외롭지 않게. 날 이용해도 좋아. 날 사랑해줘, 아가씨. 내가 아가씨를 울지 않게 해줄게.”

“놔!”

“날 이용해. 내가, 노아의 씨앗을 만들어 줄게. 아가씨를 고통스럽게 만들지 않을 거야. 응? 그러니 제발 날 미워하지 마. 내가 원하는 건 곁에 있는 거니까.”

노아의 씨앗.

그 말에 온 몸이 언 것처럼 뿌리칠 수가 없었다.

이용하라는 말은 너무나도 달콤해서 손길을 쉽게 떼어낼 수가 없었다. 밤의 어둠은 마력처럼 감싸 마음을 뒤흔들었다. 그리고 그 속의 추악함을 끄집어낸다.

입 밖으로 쏟아지는 한숨을 막을 수가 없었다.

“…그만 나가.”

애써 손을 들어 뿌리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아무리 나라도.

스스로에게 고통을 주면서 살고 싶지 않았고 그는 정확히 그것을 꼬집었다. 나는 알면서도 그 추악함에 그를 볼 자신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더욱 더 가까이 다가왔다.

“이용해도 돼. 난 아가씨처럼 많이 아프지 않으니까.”

어깨를 감싸 품 안으로 끌어안았다. 어둠처럼 내려앉은 목소리가 머리 위에서 들렸다. 어미와 같은 아시네헤의 일족이면서 이것은 간악하게도 속을 뒤흔든다. 눈을 감았다.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린다.

그의 머리카락이 부드럽게 볼을 스쳤다. 한숨이 비집고 새어나왔다. 나는 이것이 싫다. 그러나 그 달콤함에 내치지 못하고, 얼굴을 가린 손에 더욱 힘을 줄 뿐이었다.

내가 베갯잇에 넣어둔 어미의 머리카락을 버리지 못하는 것처럼.

옛날, 날개를 다친 새가 하늘에서 떨어졌고 성의 젊은 주인은 그 새를 가엾이 여겨 치료해주었다. 외로웠던 성의 주인은 새의 다친 날개를 치료해주면서 점점 그것을 소중히 여겼다. 다른 이들에게는 말 못할 자신의 고민과 두려움, 아픔을 새의 금빛 눈동자 앞에선 털어놓았다. 그리고 상처가 다 나아가던 즈음의 어느 날, 마치 기적처럼 그 새는 아름다운 여자의 모습으로 창가에 앉아 있었다.

세상의 눈보다도 아름답지만 차가운 여자가.

밤의 고요함이 가득했다. 그가 갑자기 끌어안은 팔을 풀고는 손을 붙잡아 당겼다. 올려다본 얼굴이 온통 붉었다.

“아, 아, 아가씨! 그래, 우리 기분 전환하자.”

“…뭐?”

미간을 찌푸리며 미심쩍어하는 내 얼굴은 보지도 않은 채 잔뜩 붉어진 얼굴로 시선을 피했다. 무슨 꿍꿍이를 저지르려나 싶어 의문이 가득한 눈으로 올려봤지만 무슨 상상을 하는지 그저 웃을 따름이었다.

“잠깐. 기다려!”

머뭇거리며 힘을 주자 그제야 시선을 돌렸다.

“응? 아, 그래. 아가씨, 잠옷이구나.”

문 앞까지 끌고 간 주제에 그제야 알아봤다는 말투였다. 그만 옅은 한숨을 내쉬며 이마를 한 손으로 눌렀다. 이게 지금 사슴뿔에 베일에 걸려 끌려가는 것과 뭐가 다르지? 그런데 그는 대체 무엇을 상상하는지 기분 좋아라 하는 얼굴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었다.

“나 밖에 나가서 기다릴까?”

“잠깐, 대체 어디에 가자는 거지? 이 밤중에?”

“좋은 곳. 아주 예쁜 곳이니까 기대해도 돼.”

“안 돼, 밤이 너무 늦었으니 너는 이만 돌아가.”

그가 기분 좋든 말든 내 기분은 지금 미묘했다. 뭔가 정리되지 않은 것. 엉망진창으로 구겨진 마음과 머리 때문에 잠이 필요했다.

문을 열어 그를 밀었다.

“나가. 지금은 그만 보고 싶어.”

이게 내 솔직한 마음이었다.

그가 자신을 이용하라는 달콤한 말에 더는 흔들리지 않도록. 그러나 밀어내자 그가 밀어낸 손을 붙잡았다. 아시네헤의 일족이니 그럴 리 없는데 붙잡은 손이 뜨겁다고 느껴졌다.

“아가씨.”

“…”

“이대로 나가면 아침에 내 얼굴 안 볼 거잖아.”

그만 한숨이 나왔다.

이 짐승은 어쩜 이렇게 눈치가 빠를까. 아닌 척, 실은 교묘하게 내 속을 뒤집어놓는 게 아닐까. 실은 내 머리 위에 서서 날 조종하는 걸까.

“아냐.”

“그럼, 나랑 가. 어차피, 아가씨. 지금 잠도 안 오잖아? 내가 안전하게 데려갔다가 안전하게 데려다 줄게. 응?”

그가 푸른 눈을 반짝이며 붉은 기가 그나마 가신 얼굴로 말했다. 대체 어디에 가자고 이러는 건지 얼굴은 잔뜩 기대가 서려 있었다.

하지만.

“싫어.”

내 대답은 한결같다. 지금 이 밤에 어딜 나간다는 건 말도 되지 않을뿐더러, 아무리 사촌이라지만 어두운 밤에 젊은 남녀가 어딜 나간다는 건 충분히 문제가 될 일이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싫다는 거였다.

그가 어깨를 늘어뜨리며 날 내려 봤다.

“정말 아가씨는 한 번도 좋다고 말 안 해. 매일 싫대.”

“그래, 싫어. 네가 지금 여기 있는 것도 싫으니까 나가.”

“날 사랑해준다며.”

순간, 정곡을 찌르는 말에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나 이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대체 내가 뭘 어찌해야 아가씨는 날 사랑해줄까? 겨울을 물러나게 해도, 노아의 씨앗을 만들어도 아가씨는 날 사랑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알려줘.”

다가오지 마.

날 보지 마.

날 뒤흔들지 마.

입가에 맴도는 수많은 말. 그러나 어느 것 하나 답이 없다. 나는 그를 볼 때마다 날 버리고 떠난 어미가 생각나 도무지 정이 붙지 않았다. 또다시, 버림받고 배신당할까 봐 두려웠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데 또 커다란 폭풍이 밀려와 모두를 잃을 것만 같았다. 차라리 이대로 사라져줬으면.

겨울도, 눈 여우도, 아시네헤도,

그리고 너도.

기한은 고작 1년인데.

“날 좀 봐줘.”

“그래.”

“나는 초조해. 아가씨가 흔들리지 않아서.”

무슨 이상한 말을 하냐는 눈으로 이상하게 바라보자 그가 멋쩍게 웃었다. 그러나 이내 계속 바라보자 미소가 잦아들며 시선을 피했다.

“그게 실은 말야.”

다시금 얼굴이 붉어지는 기이한 현상을 목도했다.

“아, 정말 아가씨. 너무해. 나는 말야, 아가씨가 얼음이라 할지라도 녹을 거로 생각했어. 그게 말야, 나는... 나는. 이제껏 날 싫어하는 여자는 못 봤으니까.”

“하...”

이게 무슨 자다가 얼음 깨지는 소리지.

내 표정이 심각하게 일그러지자 그가 변명하듯 손을 내저었다.

“아니 그러니까! 아, 정말. 솔직히 말해서 내가 어디가 부족한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만히 바라만 보는데 스스로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었다. 어느새 발치에 잔뜩 구겨진 채 주저앉은 그를 보며 어이없는 한숨을 내뱉었다.

“답이 없어, 너는.”

“…나도 알아, 아가씨.”

이런 기도 안 차는 것을 걷어차 내보내려는 데 그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 내 손을 붙잡았다.

“그러니까 알려줘!”

“지금 나가. 그럼 사랑해 줄 테니.”

싸늘하게 대답하며 손을 뿌리쳤다.

“아, 뭐야... 차라리 작게 만들고 싶어. 나만 보게 하고, 나만 볼 수 있으면 날 사랑할까.”

“헛소리.”

“그러게.”

하하 쓰게 웃으며 몸을 일으켰다. 어느새, 그의 손에 내 머리카락이 붙잡혀 있었다. 그러나 붙잡은 손이 눈에 보일 정도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자신조차 그 모습이 웃긴지 피식 웃으며 날 바라봤다.

“그러게, 어떻게 해야 할까.”

처음부터 답이 없는 미로를 헤매고 있다. 나조차도 모를 출구를 찾아서.

고개를 저으며 손에서 머리카락을 빼냈다. 그를 남겨두고 뒤로 돌았다. 밤이 참 시간이 길다고 무의미한 생각을 했다.

그가 비어버린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힘없이 섰다.

“뭐해?”

“…?”

“좋은 데 가자는 거 아니었어? 갈 거면 움직여.”

겉옷을 입은 채 다시 앞에 서자 그가 놀란 눈으로 날 봤다. 그러나 이내 머뭇거림도 없이 손을 붙잡았다. 잘못 버릇이 들었나 싶을 정도로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다.

미간을 찌푸렸지만, 소리 내어 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붙잡은 그의 손이 덜덜 떨고 있었기에.

어차피 그가 어려워하는 만큼, 나도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하니까.

“아가씨. 믿지 않겠지만 나는 아가씨가 좋아.”

히죽 웃더니 손을 잡아당겨 끌어안았다. 품 안에 가득한 떨림에 밀어내는 것 대신 한숨만을 삼켰다.

절실했던 소원이었지만 대가는 만만치 않구나 라고 떨떠름하게 생각했다.

밤의 어둠 속을 지나, 흘러내린 눈물로 자란 얼음 가시나무를 해치고 숲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을 걸었다.

그는 연신 노래하듯 ‘휘‒데르’ 를 흥얼거렸고 나는 말없이 눈이 남은 땅을 밟았다. 아시네헤 일족의 가호가 가득한 힘에 얼음 가시나무를 지난다 할지라도 눈 여우를 만나거나 걸음을 막아서는 것은 없었다.

“아가씨.”

그가 금색의 눈을 빛내며 날 바라봤다. 고개를 들자 장막처럼 드리운, 뾰족한 이파리가 달린 나뭇가지를 걷었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커다랗게 빛나는 달이 호수 수면에 가득하게 떠 있었다. 어둠이 녹아들어 잔잔한 호수가 달을 머금어 수면 위를 반짝였다. 그 빛은 매번 보던 달빛일 텐데 어쩐지 신기하고 달라 보였다.

마치, 아시네헤 일족의 눈동자처럼 금싸라기 같은 빛이었다.

아아, 하고 속으로 한숨을 삼켰다.

호수 바깥쪽으로는 살얼음이 남아있었지만, 안쪽은 잔잔하게 바람결에 흔들렸다. 호수를 에워싸듯 선 침엽수림은 새하얀 눈처럼 하얗게 물들었고, 그 주변엔 아직 녹지 않은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다.

반짝이는 호수와 하얗게 물든 나무숲은 세상과 동떨어진 곳처럼 고요했고, 반짝거렸다. 내가 말없이 주변을 바라보자 그가 고개를 내려 날 바라봤다.

그리곤 만족한 듯이 히죽 웃었다.

“어때? 내 말이 맞지, 아가씨? 마음에 들어?”

“…여기 알아.”

머리까지 눌러쓴 후드 자락을 꽉 쥐며 말했다. 그의 뒤를 따라오면서도, 심지어 이곳에 도착하면서도 반신반의했다. 비록 시간이 오래 지났을지라도 확실하다.

나는 이곳을 알고 있다. 그리고 잊지 못한다. 그러자 자신만만해하던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어째서? 여긴 아시네헤의 일족밖에는 오지 못하는데.”

“샤하웨.”

씹어뱉듯이 내뱉자 그가 ‘아’ 하고 납득한 듯 한숨처럼 내뱉었다. 황급히 몸을 틀었다. 치맛자락을 움켜쥐며 빠르게 걸었다.

“어, 어? 아가씨!”

그러자 그가 당황하며 다급하게 앞을 막아섰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맘에 안 들어?”

“그래.”

“왜?”

“싫어. 모두다.”

기껏 기분 좋게 해주려고 데려왔는데 그가 낭패라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그의 기분을 배려하고 싶지 않았다. 이곳에서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었다.

“대체 왜 그래? 내가 무슨 실수라도 한 거야?”

팔을 붙잡으며 그가 말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전정 긍긍한 얼굴에 방금까지 속 안을 까맣게 태우듯 타오르던 것이 맥없이 꺼져갔다.

연기가, 한숨이 차오른다.

그는 아무런 잘못한 게 없다. 기쁘게 하기 위해 데려왔을 뿐이었다. 다만, 문제는 바로 나. 나였다.

“네 잘못이 아냐.”

“그럼 샤하웨의 잘못인 거야?”

“…”

스스럼없이 물어오는 말에 대답 대신 가만히 그의 금색 눈동자를 응시했다. 그러나 이내 힘없이 고개를 돌렸다.

“…그래.”

어차피 감출 일도, 감출 필요도 없는 과거의 일이다. 샤하웨를 떠올리는 것은 싫다. 그를 생각하면 나는 언제나 철없고 떼쓰는 어린애가 된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더더욱 싫었다.

그런 날 보더니 그가 조심스레 붙잡은 팔을 놓고 대신 손을 붙잡았다. 손을 감싼 차갑지만 은은한 온기 서린 손이 기분이 묘했다. 그는 말없이 호숫가로 잡아끌었다.

“아가씨, 여긴 말이야. 우리 일족들은 샘이라고 불러.”

호숫가에 다가가자 발치에 서린 얼음에 뭉그러지게 우리의 모습이 비쳤다.

“샘은 목마름을 채워주는 곳이고, 안식을 주는 장소야. 그리고 바라는 사람을 만나는 곳이기도 해. 아가씨는 누굴 만나고 싶어?”

“헛소리 마. 그런 사람 없어.”

“마음은 거짓말을 못 하는 법이지. 그리고 샘은 그런 마음을 들여다본다고 해.”

그가 시선을 호숫가로 던지며 말했다. 순간, 이상한 기분에 그의 시선을 따라 발치의 얼음 틈 사이로 잔잔하게 흐르는 호수를 바라봤다.

이상한 일이었다.

얼음 위에 비치던 내 모습이 삽시간에 지워지고 누군가의 모습이 덧칠하듯 비추기 시작했다. 얼음 위에 비친 그 낯익은 모습을 보는 순간—

“아냐!”

거칠게 소리 지르며 발치의 얼음을 발로 밟아 깨뜨렸다.

“아가씨!”

발로 밟은 얼음이 쉽게 깨지면서 삽시간에 중심을 잃고 호수 아래로 빠졌다. 놀란 휘아르가 다급히 불렀지만 이미 머리끝까지 빠진 물속에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뼛속까지 차가운 얼음물이 벌어진 입과 코에 들이차고 옷에 무겁게 달라붙어 점점 아래로 잡아당겼다.

고개를 흔들며, 옷 무게로 무겁게 가라앉는 손을 뻗었다.

숨을 쉴 수 없는 것보다도 아래로 가라앉는 게 두려웠다. 이대로 영영 호수 밑바닥으로 가라앉을까 봐 필사적으로 손을 휘저었다.

“아가씨!”

그가 두 손으로 내 팔을 붙잡아 끌어 올렸다. 그리곤 물을 머금은 옷 때문에 가라앉을 것 같은 나를 세게 끌어안았다. 그 때문에 그의 옷이 축축할 정도로 젖었다.

품에 안겨 거칠게 물먹은 숨을 뱉어내며 기침을 토했다.

“제정신이야?!”

그가 이를 악물며 크게 소리 질렀다. 이토록 크게 성을 내는 모습은 처음이었다. 하지만 물 밖으로 나왔음에도 한기로 가득해 입이 얼어 답할 수가 없었다.

온몸이 떨렸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고 피가 얼어버린 것 같았다. 얼음으로 된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아직은 사람이었다. 완벽하게 추위를 느끼지 않는, 얼음으로 빚은 아시네헤의 일족이 아니었다.

그가 한숨을 내뱉으며 더욱 세게 끌어안았다.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젖은 뺨에 볼을 부비며 목덜미에 더운 숨을 불어넣었다. 심장이 멎을 것처럼 숨이 가빴다. 맞닿은 가슴에 누구 것인지도 모를 박동이 거칠게 뛰고, 그의 커다란 손이 스스럼없이 후드를 벗겼다.

“이, 이대로.”

밭은 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돌아…가.”

제대로 감각이 돌아오지 않아 잘 붙잡지 못하는 손으로 필사적으로 후드를 붙잡았다. 그래도 보통 사람보다는 버틸 만했다. 당장 죽을 것 같지는 않았다. 물에 빠진 것에 놀라 제정신을 차리지 못해 쉽게 옷을 벗도록 내버려뒀지만 이럴 수는 없다.

온 힘을 다해 손을 오므려 후드 끝을 붙잡았다.

“안 돼, 그러다 죽어.”

그러나 그가 너무나도 쉽게 후드를 손에서 뺏어 던져버렸다. 언 손을 감싼 손이 이상할 정도로 뜨거웠다. 그가 무슨 짓을 하려는 지는 충분히 알겠다. 얼음 가시나무를 헤치고 왔으니 여긴 봄이라 할지라도 추운 곳이다.

더군다나 쌓인 눈이 다 녹지도 않을 정도로 추운 숲에 젖은 옷을 입고 있다는 건 아시네헤의 일족이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매한가지였다.

“싫어... 하지 마.”

이를 딱딱 부딪치며 매섭게 그를 노려봤다. 설사, 그가 아무 마음 없다 할지라도 나는 레사휘의 사람이 될 여자다. 함부로 벗은 몸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차게 굳은 채 똑바로 날 바라봤다.

“어떻게 하면.”

새하얀 입김이 토해졌다.

심장이 얼어붙어 냉기가 밖으로 나오는 것 같았다. 그가 손을 뻗어 가슴 윗부분에 손을 댔다. 따스한 기운이 퍼져 헐떡이던 숨이 제자리를 찾았다.

“내게 기댈까.”

가슴부터 저릿하게 온몸으로 퍼졌다. 오므라지던 것이 펴지면서 얼었던 가슴이 뛰었다. 손끝에 심장이 달린 것처럼 두근거렸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얼어붙은 채 한결같이 날 향하고 있었다. 겨울에 잠자던 것이 봄에 녹듯이 나른해졌다.

“아이샤. 네가 원한다면 난…”

그의 뒷말이 궁금한데 몸의 의지를 반발하며 까무룩 정신을 놓고 말았다.

아름다운 여자는 작별을 고하기 위해 모습을 바꾼 거라 말했다. 성의 젊은 주인은 탄식했다. 지금처럼 외로운 자신의 곁에 남아 있어 달라 청했다. 그러나 여자는 거절했다.

그러하다면 은혜를 갚는다 치고 작별할 시간을 달라 청했다. 여자는 잠시 고민했으나 사흘의 시간을 수락했다.

사흘.

성의 젊은 주인은 그 길로 얼음 기둥 속에 산다는 마녀에게 찾아갔다. 마녀에게 새를 가둘 마법의 새장을 대가를 치르고 구해온다. 마녀의 강력한 마법으로 성의 젊은 주인은 아름다운 새를 새장에 잡아두는 데 성공한다.

성의 젊은 주인은 뛸 듯이 기뻐하며 영원한 사랑을 속삭였다. 그러나 새는 두 번 다시 성의 젊은 주인을 향해 지저귀지 않았다.

그것이 무슨 변덕이었는지, 마음의 변화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단 한 번 시선을 주었던 적이 있었다. 그것은 새하얀 눈꽃이었다.

하얗게 눈 성에가 낀 눈꽃을 어미의 시선이 향하고 있었다. 아비가 건네주는, 이브실라에서 나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에는 시선조차 주지 않던 어미가 그것에겐 시선을 주고 있었다.

그것이 어린 마음에 신기하고 뿌듯했다.

그 눈꽃은 내가 구해온 것이었다.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한달음에 두꺼운 털외투를 껴입고 밖으로 나섰다. 이제 곧 해가 진다고 마샤가 만류하는 것도 뿌리치고 나왔다. 어차피 저녁 식사 시간에 늦지는 않을 것이다.

‘그곳’은 멀지 않으니까.

성 밖으로 나오자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작은 새 하나가 다가왔다. 익숙하게 손을 내뻗자 마치 길들인 것처럼 익숙하게 새가 팔에 앉았다.

“오늘도 데려가 줘.”

금빛 눈동자의 새가 내 말을 이해하기라도 한 것처럼 날갯짓하며 다시 날아올랐다. 서둘러 그 뒤를 쫓았다. 새는 길잡이처럼 내가 더디게 오면 나뭇가지에 매달려 기다려 주곤 했다. 몇 번 가본 곳이라 익숙해져서 나 홀로 ‘그곳’을 찾으려 했는데 이상하게 저 새와 함께가 아닐 때에는 길을 헤매 찾을 수 없었다.

거침없이 뾰족한 나뭇가지를 쳐내며 앞으로 걸었다. 봄인데도 불구하고 이곳은 입가에 새하얀 숨결이 토해질 정도로 추웠다. 붉은 칠이라도 한 것처럼 물든 뺨을 한 채 숨을 몰아쉬었다. 고개를 들자 새는 언제나처럼 가지 위에 앉아 내려 보고 있었다.

웃었다.

저 눈이 좋았다.

저것은 어미의 눈동자와 같은 빛깔처럼 보여 더더욱 그러했다. 세상 어떤 것도 어미의 눈동자 색과 닮은 것은 없을 줄 알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내게 다가오는 것 중에 어미와 닮은 게 있는 것이 좋았다.

그래서 나는 저 새가 좋았다.

쌓인 눈을 밟으며 뾰족한 이파리가 달린 가지를 쳐내자 그 앞에—

잔잔하게 반짝이는 호수가 보였다. 아직 해가 지기 전이라 달이 비추지 않아 아쉽지만 그럴 틈이 없었다. 빠르게 시선을 돌려 눈꽃을 찾았다.

소복이 쌓인 눈 사이로 눈꽃이 피어 있었다.

‘신기하기도 하지’ 라며 무심결에 중얼거렸다. 봄임에도 불구하고 얼어붙은 호수와 눈으로 뒤덮인 호수 주변에서 새하얗게 성에가 낀 눈꽃이 자라고 있었다. 성 주변은 녹은 눈 사이로 푸른 싹이 돋아나 있었는데 이곳에 푸른, 봄의 것은 없었다.

오로지 하얀 눈과 파란 호수.

그리고 금색으로 빛나는 눈동자.

“아이샤.”

한 송이만으로는 부족할 거라 생각해 꺾다보니 어느새 팔 안 가득한 꽃다발을 든 채 놀라 섰다. 힘이 풀린 손 사이로 눈꽃 한 송이가 떨어져 내렸다.

“아이샤.”

곁에 앉아있던 새가 어느새, 동화처럼 소년으로 변해 내 앞에 서 있었다. 어미와 닮은 금색의 눈동자, 새하얀 머리카락을 한 소년이 익숙하게 내 이름을 불렀다. 소스라치게 놀라 경직되자 소년이 조심스레 가까이 다가왔다.

“놀라지 마.”

자기 전 아비가 들려주던 동화 같은 일이었다. 하지만 순간 알아챘다. 저 소년은 동화가 아닌, 마샤가 누누이 말했지만 늘 흘려듣던 아시네헤의 일족이라는 것을.

어미와 같은.

“누구야?”

두려움을 감추고 소년을 향해 물었다. 어미와 같이 아름다운 일족의 소년. 나는 그동안 저 일족에 대해 동화 같은 이야기만을 들어왔다.

더군다나 저 소년은 날 이곳으로 안내해주던 어여쁜 새. 어미처럼 아름답지만 차갑지 않게 내게 다가왔다.

“나는 샤하웨. 네게 부탁이 있어.”

“부탁?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거라면 들어줄게.”

어린애다운 치기어린 호의와 어여쁜 새에 대한 보답이었다. 그리고 마샤는 항상 내게 성의 차기 여주인으로서 높은 아량과 자애를 갖고 있으라 했다.

“나를 성에, 저녁 식사에 초대해줘. 내가 성에 들어가려면 네 초대가 필요하거든.”

소년이 미소조차 없는, 그러나 간절한 얼굴로 말했다.

“왜? 그런 게 왜 필요한데?”

“… 때문에 성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부탁이야.”

이상한 일이었다. 재차 물어도 앞의 말은 들리지 않았다. 다만, 그 얼굴에 표정이라곤 없었으면서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다.

이제 곧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밤이 온다. 성에는 저녁 식사 준비가 한창일 것이다. 언제나 성의 저녁 식사 시간은 풍족하다. 고작 나보다 한 뼘 정도 큰 소년이 먹는다 할지라도 문제 될 리 없다.

더구나, 어미도 오랜만에 같은 일족의 사람을 만나면 좋아할지도 모른다. 언제나 서늘한 얼굴을 지우고 웃을지도 모른다. 저 소년을 데려온 날 바라봐줄지도 모른다.

고민할 것도 없었다.

“좋아.”

꽃다발을 한 손으로 끌어안고 나머지 손을 내밀었다. 소년이, 아니 샤하웨가 다가와 손을 잡았다. 서늘하지만 묘하게 온기가 서린 손의 느낌이 나쁘지 않았다.

샤하웨는 날 바라봤다.

내가 성으로 돌아가기 위해 손을 잡아당기자 마치 얼음이 되어 바닥에 달라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성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청한 것은 그쪽인데 움직이지 않는 것 역시 그쪽이었다.

“왜? 안 갈 거야?”

맞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런데 내 쪽이 아니었다. 힘이 들어간 쪽은 샤하웨 쪽이었다. 샤하웨가 머뭇거리듯 입을 열었다.

“아이샤, 미안해.”

그때는 그저 철없이 갑작스런 저녁 초대를 요구한 것에 미안함을 느낀 거라 생각했다. 어리석고 어렸다. 알려주지도 않은 내 이름을 서슴없이 부르는 것에 의아함조차 느끼지 않았다.

“괜찮아.”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자신이 만들어낸 망상에 즐거워했다. 그 한없이 커진 망상이 자신에게 손을 내미는 어미를 만들어낼 정도로.

그러나 그것은 망상이 아니었다.

어미는 손을 내밀었다. 자신이 아닌, 자신이 데려온 샤하웨를 향해. 저녁 식사에 초대한 샤하웨가 내 어미를 어머니라 부르며 내 손을 놨을 때부터 그것은 더 이상 망상이 아니게 되었다.

끔찍한 악몽이었다.

어여쁜 새는 실은 간악하기 그지없는 마수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름다운 겉모습과 신비한 장소로 꼬드겨 새장으로 들어오는 문을 내 스스로 열게 했다. 그 문을 닫으려 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

어느 누구에게도 손을 뻗지 않던 어미는 오직 샤하웨를 향해 손을 뻗었고 어미에게 더는 내 자리는 없었다. 그는 어미의 친자로, 내 이부 오라비였다.

그때는 몰랐다.

어미를 성에 묶어두기 위해 성 전체에 아비가 마법을 걸어놨다는 것을. 아비는 마법사가 아니다. 기사였으나 어찌 된 일인지 어미를 성 안에 가뒀다. 그로 인해 어미를 찾아오려는 샤하웨는 부득불 나라는 길을 찾아야 했다. 그러나 샤하웨역시 성 밖을 나갈 수 없었다.

그러나 그 둘은 9년 전, 아비가 어미의 냉기에 몸이 망가지자마자 문을 부수고 네헤베로 돌아갔다.

바보 같은 아비와 어리석은 그 딸만을 내버려두고.

눈을 떴다. 오랫동안 옛날 꿈을 꾼 것 같았다. 그래서인지 아주 오랫동안 잠들었다가 일어난 것 같았다.

“깼어?”

“…”

창가에 서 있던 그가 몸을 돌려, 날 바라봤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그저 눈만을 떴을 뿐인데 그 기척을 알아차렸다. 긴 시간이 지난 것이 아닌지 그의 등 뒤로 하얗게 달빛이 부서졌다.

아니면, 꼬박 하루를 버린 건가.

꿈속의 나는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소녀. 소리 내어 울던 그 감정이 지금은 흘리지 못하는 마음에는 지독히 무거워 숨 쉬는 것조차 버거웠다. 피곤하고 지쳤다. 다시 눈을 감아버리는데 와락 손이 붙잡혔다.

“다행이야.”

어느새 다가온 휘아르가 내 손을 조심스레 붙잡고 있었다. 그리고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눈만 뜨고 있는 날 보며 잔뜩 걱정스런 눈을 했다.

“아가씨, 혹시 어디가 불편한 거야? 응? 열은 다 떨어졌는데.”

이마에 손을 대면서 안색을 살폈다. 애써 힘을 써 고개를 흔들어 이마에 놓인 손을 치웠다.

“가. 쉬고 싶어.”

저 일족은 감정이라곤 한 줌도 묻어나지 않는 새하얀 얼굴을 한 주제에 실은 원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새카만 색으로 변하기도 한다.

샤하웨가 친한 척 날 속이고 성에 초대받은 것처럼.

십 년을 살을 맞대며 살던 어미가 저주를 남기고 미련도 없이 떠난 것처럼.

저것 역시 그러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하지만 아가씨는 아직 아프잖아.”

“됐으니까, 이만 가…!”

가슴이 묵직해 숨을 토해내려다 기침이 한가득 쏟아졌다. 가슴까지 들썩이며 거칠게 쏟아지는 기침에 휘아르가 놀라 몸을 일으키고 등을 두드렸다. 그런데 기침이 너무 심한 탓에 위까지 들썩이며 속에 있던 것들이 튀어나오려 했다.

황급히 입을 막으려 하는데, 그보다도 먼저 휘아르의 손이 내밀어 졌다.

“아가씨, 토해. 참지 말고 토하라고.”

새하얀 손바닥이 주저도 없었다.

그는 내 유모도 아니고, 더러운 일을 하는 시종도 아니다. 심지어 가족도 아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 순간, 그는 가장 친밀한 얼굴로 가족처럼 내 옆에 있었다.

겨우 기침을 멈추며 손을 밀어냈다.

“이제…괜찮아.”

“아가씨, 약을 먹어야 하는 거 아냐?”

거짓으로 위장한 푸른 눈이 오롯이 날 보며 걱정했다. 낯익은 눈빛에 속이 답답해졌다. 이렇게 달이 얼음처럼 빛나는 밤에 아비가 내 방에 들어온 적이 있었다.

어미에게 보여줄 만큼 커다란 눈사람을 만들려다가 그만 감기에 심하게 걸려 열이 났다. 열에 들떠 앓다가 한밤중에 겨우 열이 잠시 내려간 사이 잠에서 깼다. 어린 날 그토록 아픈 것은 처음이었다. 거대한 망치로 온몸을 부서져라 내리치는 것처럼, 불구덩이에 온몸을 내던진 것처럼, 온몸이 저려서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게 쉽지 않았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찾았다.

이 정도로 아프니까 혹여 날 위해 오지는 않았을까 싶어서. 그러나 저렇게 얼음처럼 뜬 달빛에 의해 환하게 비춘 방 어디에도 어미의 그림자는 없었다. 침대 옆에 지쳐 쓰러진 채 누운 마샤뿐이었다.

혹, 내가 어미를 마샤로 잘 못 본 게 아닌가 싶어 몇 번을 눈을 비비고 다시 봤다. 그러나 아무리 질끈 눈을 감았다가 떠도, 검게 명멸할 정도로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마샤였다. 절대 어미가 아니었다.

어쩌면 내가 잠든 사이에 왔을지도 모른다고 애써 위안해도 부서지는 마음을 달랠 수가 없었다. 철없는 어린애라 욕해도 좋으니 이대로 큰 소리로 울어 어미를 부르고 싶었다. 내가 막 마음을 달래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려는 찰나—

“쉿. 울면 열난다. 그만 자거라.”

커다란 손이 다가와 얼굴을 쓰다듬었다.

달빛이 닿지 않는 창가의 어둠 속에 언제부터 있었는지 아비가 몸을 움직이자 창을 가릴 정도였다. 갑작스런 아비의 모습에 놀라 울음을 터뜨리려는 것도 잊고 아비의 얼굴을 바라봤다.

위그노드를 다스리는 위대한 성의 주인.

그러나 절대 부모답지 못했던 아비.

이보다 더 어렸을 때에도, 부모는커녕 남보다 못하다고 마샤가 소리 질러도 날 제대로 보지 않던 아비였다.

그런 아비가 이불을 끌어당겨 내게 덮어주었다.

“더 자거라.”

그런 아비가 이상하고 신기해 눈이 감기지 않았다. 이것이 꿈인가 싶었다. 이토록 자상하게 내 옆에 있는 아비라니. 다 같이 모인 식사자리에서도 사소한 대화조차 없던 아비였다. 열에 들떠 보는 환상이라고 생각하며 손을 뻗어 내 옆에 앉은 아비의 손을 붙잡았다.

꿈이어도 좋으니 잡고 싶었다.

크고 투박하지만 서늘한 손은 사라지지 않았다.

“…잠이 오지 않아요.”

잠긴 목소리로 겨우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잠들고 싶지 않았다. 아무리 성주의 딸이라 할지라도 외롭기만 한 내게 지금 이 순간은 환상이라도 좋으니 잠들고 싶지 않았다.

“자야 열이 떨어진다.”

일곱 살 난 딸을 달래는 것에는 적절치 않은 말투였지만 상관없었다. 붙잡은 아비의 커다란 손을 행여 놓칠세라 두 손으로 잡았다. 그러자 내내 얼음 같다고 생각한 아비의 눈동자가 그때만큼은 다른 빛을 띠었다.

“그럼, 네가 잘 수 있게 동화를 하나 들려주지. 눈을 감으렴. 눈을 감지 않으면 동화도 들려주지 않고 나갈 거니까.”

아쉽지만 더는 고집부릴 수 없었다.

그래서 아비가 들려준 동화는 실은, 어미와 아비의 이야기. 나는 그것이 그저 결국엔 모두가 행복해지는 동화라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동화가 아니었다.

“아가씨. 아가씨, 괜찮아?”

“괜찮아.”

잠시 멍했던 머리를 털어내며 말했다.

“걱정했어. 열이 얼마나 높았는지 알아? 다행히 마법이 잘 들어서 나았지만. 내가 괜히 그런 곳에 데려가 가지고. 미안해. 이제 다시는 고집 안 부릴게.”

잘못은 내가 했는데 용서는 휘아르가 구하고 있었다.

“너는 대체 뭘까.”

어미도 아니고, 아비도 아니고, 샤하웨도 아닌데 내 안에 남겨진 원망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존재.

화도 낼 법한데 그는 그러지 않는다. 날 속이기 위해 연극 하는 게 아니고 천성 같았다. 처음부터 아시네헤의 일족이 타인을 위해 노아의 씨앗을 만드는 것부터.

휘아르가 눈을 마주치며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아이샤, 너는 얼음 같아. 공기가 가득 들어가서 속에 얼어붙은 공기가 빛나는데 차갑고 딱딱한 겉모습으로 가려서 만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얼음 말이야. 수없이 많이 얼어붙은 얼음처럼 너는 감정도, 고민도, 생각도 많아. 그래서 아이샤, 너는 사실 얼음에 어울리지 않아. 실은 내가 싫은데도 못 밀어내고 있잖아.”

“…”

“아이샤.”

그가 더 가깝게 다가와 손을 붙잡았다.

“만일, 내가 아시네헤의 일족이 아니었다면 지금보다는 더 나를 봐줬을 거야? 억지로 날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그저 자연스럽게 말이야.”

착각했다. 절대 저 눈은 미묘한 눈빛이 아니었다.

뭔가를 찾는 듯, 갈구하는 듯한 눈동자였다. 그것이 위험스럽다는 것을 알면서도 늘 하던 대로 손을 놓고 피할 수가 없었다.

“…모르겠어.”

“왜? 네 마음이잖아.”

“내 마음이라서 더 모르겠어. 때때로 네가 싫고 끔찍하지만…”

바라보는 시선에 그만 말을 머뭇거렸다. 내 머뭇거림을 알아챘는지 그가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입 꼬리를 올리며 웃었다.

“좋을 때도 있단 소리네.”

그리곤 참을 수 없다는 얼굴로 말릴 틈도 없이 붙잡은 손을 당겨 손등에 입을 맞췄다.

“아가씨가 용기 냈으니 나도 여기까지. 그리고 할 말도 있고.”

“너…!”

손을 들어 후려치려다 이내 손을 접어 내렸다. 그가 어느 정도 기다리고 물러서는 게 있듯이 나 역시 어느 정도는 받아주는 것도 있어야 했다.

그게 대가였고, 약속이었다.

“아이샤.”

그의 부름에 대답하지 않고 시선을 돌렸다. 그러나 이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이틀 후 아침이면 네 반려가 돌아올 거야.”

그가 조금은 침울한 얼굴로 말하며 내 얼굴을 살폈다. 마치, 기쁨의 흔적이라도 보인다면 절망할 사람처럼.

레사휘.

그가 바라는 그 어떠한 표정도 지어지지 않았다. 다만, 그가 빨리 돌아오는 것에 속으로 놀라워했다. 전서구의 서신도 없었다. 그저 저번에 보낸 서신대로면 부상자도 있으니 다음 주 정도에 돌아올 거라 생각했는데 빠르긴 빨랐다.

아마도 날이 좋아서 일 것이다.

휘아르의 말은 늘 맞았으니 아침에 마샤를 불러 서둘러 토벌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일러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무것도 서리지 않는 내 얼굴에서 뭘 읽었는지 휘아르가 붙잡은 내 손을 놨다. 뜻밖에도 손을 감싸던 감촉이 사라지자 순간 당황했다.

“좋아?”

“…무엇이?”

그 말뜻을 이해하고 싶지 않아 되물으며 시선을 올렸다. 그러자 의기양양했던 표정은 어디로 가고 침울한 휘아르의 얼굴이 보였다.

“네 반려가 온다는 거 말이야.”

“토벌대가 돌아오는 건 기쁜 일이지.”

“너는 그를 사랑하는 게 아니었어? 그래서 자꾸 나한테 레사휘와 혼인할 거라면서 못을 박았잖아...”

당연한 말을 하는 그에게 뭐라 말을 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여기까지.

다른 때보다 더 지나치는 것은 그 밤의 모습과도 닮은 달 때문인가. 꼭 맺어져야 하기에 그렇다고 답하는 건 지나치다. 나답지 않은 말이다. 그리고 그걸 굳이 휘아르에게 말해줄 이유도 없다.

반려가 있다 하는데도 사랑해 달라고 말하는 그에게 굳이 레사휘를 사랑하지 않는다 말해줄 필요 없다. 이기적이게도 나는 그랬다.

결코, 그의 대가를 들어줄 생각도 없으면서 소원은 빌었다.

“…그래, 좋아.”

그의 시선을 피하며 못을 박듯 답했다.

그리고 레사휘는 나베란과는 다르다. 아무리 내가 성의 주인이지만 그는 내 반려라는 이름으로 이제껏 휘아르가 알던 성의 모습과는 다르게 만들 수도 있다.

나 역시 레사휘의 말을 언제까지 거부할 수 없다.

이곳은 위그노드.

여자의 권리보다는 남자의 권리가 더 높은 겨울의 나라. 나는 오랫동안 지켜온 이 작은 평화를 무너뜨리고 싶지 않다.

“이제 그만 나가.”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를 밀어내는 게 오늘은 쉽지 않았다.

흔들리는 검은 베일 사이로 익숙한 모습이 말에서 내려와 단숨에 내 앞으로 다가왔다. 닿는 것을 꺼린다는 걸 알면서도 그는 노골적으로 날 힘껏 껴안았다. 손으로 밀어내려다 모두가 기뻐하며 끌어안는 모습을 보고는 그만 손을 내렸다.

영지를 넓히고 눈여우를 토벌하고 돌아온 이들은 영웅이었다. 모두가 기뻐하며 가족을 반기는 틈에 나 홀로 마음이 얼어붙었다 해도 분위기를 망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체념하며 시선을 돌리자 그 시선 끝에 새하얀 것이 서 있었다.

“…”

휘아르였다.

그는 섞이지 않은 이방인처럼 멀찍하게 떨어진 곳에서 서서 우리를 보고 있었다. 거리가 꽤 있어서 그의 표정까지 보이진 않았지만, 그가 날 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기분이 이상했다. 언제는 옆에 있지 못해 안달이라도 난 사람처럼 굴더니 레사휘가 돌아오자마자 떨어져 있는 모습이.

레사휘가 돌아온다는 것을 알린 것도, 내가 반려가 있다는 것을 누누이 알고 있다고 말한 것도 모두 그였다. 그럼에도 저렇게 버림받은 것처럼 떨어져 있는 모습이 마치, 내가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기분을 이상하게 했다.

그러나 그는 떠나갈 자고, 나는 남을 자다.

애써 손을 들어 레사휘의 어깨를 붙잡았다. 그러자 끌어안은 레사휘의 팔에 힘이 들어갔다.

아무리 레사휘일지라도 여정이 힘들긴 힘들었던지 붙잡은 어깨가 다소 메말라 있었다. 하긴, 이번 여정은 고되다는 것을 넘어 중간에 들이닥친 겨울로 인해 전멸할 뻔했다. 그 생사를 붙잡고 모두가 돌아왔다.

“뭐지? 오랜만에 본다고 없던 마음이라도 생긴 거야?”

그러나 안타깝게도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돌아왔다 할지라도 기다리는 여자도, 돌아오는 남자도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다. 서로의 심장이 맞닿아 있음에도 두근거리지도, 귓가에 속삭이는 목소리도 달콤하지 않다.

서로의 미래를 약속했음에도 우리는 위그노드의 얼어붙은 얼음일 뿐이었다.

“헛소리.”

차게 조소하며 보여주기도 이만하면 됐으니 그를 밀어냈다. 그러나 그는 반발하듯이 도리어 힘주어 끌어안았다.

“놔.”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돌아왔는데, 너무하잖아.”

그리고는 서슴없이 손을 뻗어 베일로 감춘 맨얼굴을 매만졌다. 입술에 닿는 그의 손을 붙잡아 내리려고 해도 완강하기 그지없었다. 누가 보는 것도 상관없이 힘껏 발을 밟자 그가 아무렇지 않은 눈으로 날 바라봤다.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피하자 그가 혀를 차며 놔주었다.

“누가 보면 옷 속에 손이라도 넣은 줄 알겠어.”

“나는 아직 네 아내가 아니고 너는 아직 내 부군이 아냐. 함부로 대하지 마.”

베일을 정리하며 그를 쏘아봤다.

“차갑기는.”

내 시선을 피하며 그가 나를 등 뒤에 남기고 걸었다. 그를 따르는 아벨린 경과 노어 경이 마뜩잖은 시선으로 날 보는 게 느껴졌지만 무시했다.

끝난 줄 알았던 겨울이 갑작스럽게 온 탓에 전멸할 거라 예상했던 토벌대였던지라 사람들의 환영은 성대했다. 남편을, 아버지를, 가족을 얼싸안는 모습은 보기 좋았다. 어둡던 성이 순식간에 활기를 띠고 있었다.

나 역시 그들이 돌아오는 걸 반기지 않을 턱이 없다. 그런데 막상 레사휘의 얼굴을 보는 순간 몸이 굳어졌다. 그가 떠나기 전에는 싫다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오라버니!”

나베란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레사휘에게 달려가 목을 끌어안았다. 레사휘 역시 기쁜 얼굴로 자신의 누이를 끌어안았다.

‘아아, 그렇군.’

나는 점차 얼음인형이 되어가고 있구나.

저렇게 기쁘게 웃으며 맞이할 수도, 베일을 벗고 마주 볼 수도, 심지어 진심으로 끌어안을 수도 없다.

“왜 같이 안 가?”

언제 곁으로 다가왔는지 휘아르가 곁에 서서 날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옆에 오는지도 모르고 멈춰선 채로 그들의 뒤를 바라보고 있었다. 치부를 들킨 것처럼 부끄러웠다. 애써 시선을 피하며 걸음을 옮겼다.

“모처럼 가족이 만난 거니까.”

“아가씨도 가족이잖아.”

쉽게 내뱉는 휘아르의 말에 머뭇거리다 이내 다시 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아까 떨어져 있던 건 환상인 건지 다시금 달라붙듯이 옆에서 걷는다.

“웃지 않는다고 반기지 않는 건 아니잖아.”

마치 정곡을 찌른 말에 베일 안쪽에 숨긴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다.

“그만해.”

“기다렸으면서. 내가 다가가지도 못하게 할 정도로 기다렸으면서.”

그간 늘 하던 대로 투정이겠거니 하며 무시하려는데 돌연 휘아르가 내 손목을 붙잡아 당겼다.

“…이게 무슨…!”

베일이 펄럭였다.

“그런 얼굴 할 바에는 차라리 날 선택해. 나는 아가씨가 웃지 않는다고 싫어한다고 오해하지 않고, 베일로 얼굴을 감춘다 해도 괜찮아. 그러니 날 선택해. 그럼, 내가 평생 인간으로 옆에 있을게.”

팔에 힘을 주며 뿌리치려 하는데 평소와는 달랐다. 족쇄처럼 휘아르의 손이 매섭게 손목을 옥죄었다.

“헛소리하지 마.”

다행히 내 걸음이 느려 모두가 성에 들어간 터라 우리를 신경 쓰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휘아르의 태도는 도를 넘고 있었다.

“지금 같은 표정 짓게 하지 않을 게. 나는 알아. 아가씨는 충분히 소중히 하고 있다는 걸. 그러니 눈여우가 있어도, 겨울이 와도 성을 나왔지. 그래서 이게 뭐야? 아무도 모르잖아. 아가씨가 어떻게 노아의 씨앗을 만드는지 아무도 모르잖아!”

“그만! 그만 해.”

날 보는 휘아르의 푸른 눈동자가 형형한 빛을 띠었다.

“그러니 날 선택해. 같이 떠나자고 안 해. 아가씨한테는 이곳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남을 게. 아가씨가 원한다면 평생 사람으로…”

순간, 거센 손이 날 붙잡는 휘아르의 손을 뿌리쳤다.

“넌 누구지?”

나베란과 함께 성으로 들어간 줄 알았던 레사휘였다. 그의 싸늘한 시선에 아랫입술을 깨물었다.

“겁도 없군. 감히 내 반려에게 이런 짓을 하다니.”

그러나 레사휘가 무슨 말을 하든 휘아르의 시선은 오로지 나에게 향해 있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선택하라는 것처럼. 그러나 레사휘를 무시하는 휘아르의 태도에 레사휘의 얼굴이 잘게 일그러졌다.

괜한 소란으로 퍼질까 싶어 다급히 레사휘를 붙잡았다.

"그만해, 그런 거 아냐.”

“그런 거? 그런 거가 어떤 거지? 감히 남의 반려에게 손을 대는 짓을 말하는 건가?”

차갑게 돌아오는 레사휘의 말에 옅은 한숨을 내쉬었다. 레사휘는 휘아르를 노려보고 휘아르는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 상황이 지나치게 한심스러웠다.

그러나 이 상황을 초래한 건 나였다.

“그는 남이 아냐. 겨울 성의 혈통이고 우리 사촌이야.”

“하. 지금 그걸 믿으라는 거야?”

그제야 레사휘가 날 바라보며 짙은 경멸을 담아 말했다.

“그럼 저 눈은 어떻게 설명한 거지? 그리고 이미 성의 대리인인 내가 확인하고 성에 머무는 걸 허락했어. 그는 확실히 우리 가계의 사촌이야.”

“날 바보로 아는군.”

기막힌 웃음을 토해내며 레사휘가 날 노려봤다.

“아이샤.”

그리고 휘아르는 날 불렀다. 저 눈빛이 아무리 나만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나는 이곳에 남는 여자고, 그는 이곳을 떠나는 남자다. 나는 그를 선택할 리 없다. 레사휘를 붙잡은 손에 힘을 줬다.

“오래전의 약속대로.”

날 노려보는 레사휘의 시선을 마주치다가 날 바라보는 휘아르를 바라봤다. 그리고 마저 입을 열었다.

“너는 내 하나뿐인 반려고, 일 년 후에는 부군이 될 거야, 레사휘. 사촌이 아무리 많이 늘어도 그건 달라지지 않아.”

휘아르의 얼굴이 녹아서 흘러내리는 얼음처럼 일그러졌다.

레사휘가 손을 뻗어 베일 아래를 지분거렸다. 그의 손가락에 닿는 입술이 섬뜩했지만, 아까처럼 매섭게 쳐내지 않았다.

그는 마뜩잖지만 겨우 봐준다는 태도로 입을 열었다.

“그 말 믿겠어.”

“네가 믿든, 안 믿든 내 선택은 변하지 않아.”

그는 만족하는 얼굴로 내 손을 잡아당겼다. 뒤에 휘아르가 얼음 동상처럼 남아 날 바라보는 걸 알면서도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이미 밤이 늦은 시간임에도 아이들은 졸리지도 않은 지 삼삼오오 모여서 복도를 뛰어다니다가 쟁반을 들고 가는 어머니들에게 혼이 났다. 그러나 산이라도 쌓을 듯이 가득 담긴 쟁반을 들고 가는 어머니들의 꾸중은 잠시뿐이었다.

그도 그럴게, 오늘은 즐거운 날이었다.

아버지가, 남편이 돌아온 날.

다음 겨울을 어찌 나려고 이렇게 계속 식당에서 음식이 푸짐하게 나가나 싶을 정도로 호화스런 상차림이 계속 되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마샤의 전두지휘하에 벌어지는 일이기에 문제될 리 없다는 걸 안다.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겨울이 중간에 멈추지 않았다면 커다란 지하실에 갇혀 숨죽여 먹었을 음식들. 먹지 않아 썩거나 생을 이어갈 도구로서 존재할 뿐이었는데 가장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만찬이 되고 있었다.

거기다 그들이 가져온 짐승들이 통째로 구워 쟁반에 실려 나가고, 뼈를 발라내고 한입거리로 구운 고기, 큼직큼직하게 썬 생간과 피를 굳혀 젤리처럼 만든 푸딩이 식탁에 가득했다.

오랜 여정과 추위에 이기고 돌아온 자들을 위해 오늘은 지하실에 보관한 포도주가 아닌 보드카를 내놨다. 도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걸걸한 입담과 흥겨움에 취해 몇 통째 비워져 갔다.

“내가 막 땅에 파묻힌 ‘눈 여우’를 보고 당장에 머리를 으깨려고 하는 그 순간! 갑자기 눈보라가 휘몰아치면서 겨울이 오는 거야!”

손에 든 잔에서 술이 흘러넘쳐 옷을 적시는 것도 모르는 지 아벨린 경이 신이 나서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었다. 그 말에 여자들이 절망서린 한숨을 지었다.

“세상에…!”

“겨울이 갑자기 와서 어찌나 놀랐는지.”

여자들은 그때의 절망과 두려움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여자들의 반응을 기대했던지 아벨린 경이 가슴을 들썩이며 호탕하게 웃어제꼈다.

“그래서 바로 그때! 이대로 있으면 죽을 거라 생각하고 빠르게 몸을 숙이고 서로의 몸을 맞잡았지. 우리가 있는 곳은 몸을 피할 데도 부족하니까. 붙어 있지 않으면 죽을 뿐이야.”

여자들이 감탄한 얼굴로 박수치며 호응했다.

보드카 대신 포도주를 담은 잔에 버릇처럼 입에 대고는 이내 입을 뗐다. 음식도, 술도, 이야기도 맛있고 즐겁지만 술 취해서 반복되는 영웅담은 지겹기 그지없다. 힐끗 옆을 바라보자 레사휘는 그저 말없이 아벨린 경을 보며 웃을 따름이었다.

“그래서 무사히 돌아오신 거죠? 정말 다행이에요! 얼마나 걱정했는데!”

나베란이 환하게 웃으며 눈을 반짝였다. 발그랗게 홍조가 가득한 얼굴은 이미 취해 있었지만 그것마저 그녀를 더 아름답게 보여줄 따름이었다.

아벨린 경의 맞은편에 앉은 나베란은 처음엔 레사휘에게 그간의 이야기를 들려 달라 청했지만, 레사휘는 웃으며 고개를 내저었다.

‘무사히 돌아왔잖아’ 로 일축한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연극이라도 하는 것처럼 잔뜩 격양된 아벨린 경의 목소리에 여주인공처럼 잔뜩 호응했다. 그래서 그 덕에 여주인답지 않게 베일까지 쓰고 말없이 앉은 내가 나서지 않아도 되었다.

아마 나베란은 날 위해 더 아벨린 경의 비위를 맞춰주고 있는 지도 모른다. 그러나 술도 잘 하지 못하는 주제에 또다시 시종을 불러 빈 잔에 술을 따르려는 것을 보고 손을 들었다.

엉망으로 취하기 전에 이쯤에서…

“나베란.”

그녀의 잔 입구를 손바닥으로 막으며 레사휘가 나베란을 불렀다. 그 목소리가 시끄러운 와중에도 선명하게 들렸다.

“이제 그만. 너는 너무 많이 마셨어. 내일 후회할 거야.”

그러자 나베란이 레사휘에게 고개를 돌리며 히죽 미소를 지었다.

“어머, 오라버니도 참. 제 걱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괜찮아요. 아이샤나 봐주세요. 오랜만에 보는 거잖아요.”

그녀의 말에 매끄러운 포도주 잔을 매만지던 손이 경직되었다.

“아, 그런가. 하긴, 내가 내 아가씨에게 너무 무심했지. 안 그래, 아이샤?”

아까 나베란을 부를 때에는 제법 선명하게 들리던 목소리가 날 향하자 마치 소음같이 느껴졌다.

“나는 이만 나베란을 데리고 쉴 테니 너는 더 즐기든가 해.”

냅킨을 들어 입가와 손을 닦고는 일어날 준비를 했다. 그 모습을 레사휘가 가만히 지켜보더니 잔을 들어 단숨에 마셨다.

“나베란을 지금 침실로 데려다 줘.”

내가 일어서기도 전에 벽에 선 시종 중 하나를 불러 지시했다. 눈썹을 움찍이며 그를 보자 그가 먼저 몸을 일으켰다.

“우린 이만 일어날 테니 모두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그러자 모두의 시선이 우리에게 향했다.

아직 혼인 전이나 암묵적으로도, 공식적으로도 공인된 사이. 내가 1년 후 성인식을 치르면 혼인할 사이였다. 술에 취해 흐리멍텅한 그들의 눈이 발갛게 노골적으로 변하는 건 순식간이었다.

“그래요, 이런, 이런.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젊은이들의 즐거운 시간을 뺏었군요.”

“하긴, 저런 뻣뻣한 우리 아가씨도 여자니까.”

기사들의 점차 노골적인 음담에 시선을 내리며 몸을 일으켰다. 나베란은 어느새 뻗어 잠들었는지 시종에게 업혀 나가고 있었다.

“술보다 좋은 건 여자고, 우리는 그동안 추운 곳에서 고생했으니 그 보상으로 침대는 뜨겁게 달궈야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어미를 닮아 얼음 같은 아가씨를 녹이려면 꽤나 고생하시겠지만.”

아벨린 경의 말에 식탁 위에 앉은 모두가 일순간 얼어붙었다가 이내 큰 웃음을 터뜨렸다. 내 어미가 아시네헤의 일족이고, 저주를 불러오게 한 근원적인 원인이라는 걸 암묵적으로 알기에 그들은 이렇게 때때로 저급한 농담에 어미를 섞는다.

더욱이 그들을 통제하고 제어할 아비는 병들어 침대에 누워있다.

아시네헤는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내몬 상황을 혐오하기에 나 역시 들어도 모른 척 하곤 했다. 더욱이 이렇게 내 앞에서 대놓고 이야기 한 적은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몸을 돌리던 걸음을 멈췄다. 그저 무시하면 그만인데 술에 취한 영웅담을 너무 오래 들어 귀가 아픈 탓이었다.

“그렇군요, 아벨린 경. 경의 충고 잘 들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아벨린 경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런데 아벨린 경은 겨울이 꽤나 추우셨나 봅니다. 제 구실 못하는 입처럼 아래도 얼어붙어서 과연 침대를 뜨겁게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더운 물이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마샤에게 아낌없이 내어드리라 할 테니.”

거침없는 남자들처럼 위그노드의 겨울 여자들이 마냥 온순하고 순종적이지만은 않다. 그들의 입담은 때론 이브실라의 창녀촌 여자들보다 걸걸할 때가 있다. 그래서 때론 야만적이고 야성적이라고 듣는 위그노드의 겨울 민족.

나는 그 여자들의 주인이고, 이 성의 대리인이었다. 원하든 원치않던 여자들은 성에 머물고 그녀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모두 내 귀에 들어간다.

순식간에 아벨린 경의 얼굴이 술에 취한 것보다도 더 빠르게 빨개졌다. 저급한 이야기에 술에 취한 모두가 웃자 아벨린 경이 큰 소리를 내며 잔을 내려놓았다.

“아무리 아가씨라지만…!”

“그만하세요, 아벨린 경. 취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아벨린 경을 손을 들어 막아서며 레사휘가 날 붙잡았다. 그의 제지에 아벨린 경이 씨근덕거리며 날 노려봤다.

“취해서 하는 이야기에 일희일비하는 건, 보기 좋지 않군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더 있으시다면 날이 밝으면 찾아오세요.”

날 붙잡는 레사휘의 손을 떼어내며 문을 나섰다.

문을 나서자 은근히 술을 마시긴 마셨던지 머리가 작게 흔들렸다. 숨을 작게 한 번 내쉬고는 발을 옮겼다.

“술 취해서 떠드는 소리에 그렇게 말하는 너도 보기 좋은 건 아냐.”

따라 나왔는지 등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무시하며 걸었다. 그러나 이내 골이 흔들릴 정도로 잡아채는 손길에 의해 걸음을 멈춰야만 했다.

“언제까지 나한테 그럴 거야?”

그의 푸른 눈이 징그럽다는 듯이 노려봤다. 내가 취한만큼 그도 취한 모양인지 새하얀 얼굴이 옅은 분홍빛을 띠고 있었다.

“놔.”

“네가 아무리 성의 대리인이라지만 이제 1년 후면 내 반려야. 언제까지 그렇게 딱딱하게 굴래?”

“그만해.”

술에 취해 하는 소모적인 말싸움은 사람을 지치게 한다. 평소와는 다르게 이리 행동하는 건 술 때문인가.

아니면—

“너는 내가 아직도 이 성에 온 철부지 어린애로 보여? 네 명령으로 감옥에 갇힌 어린애로 보이냐고.”

무시하고 붙잡은 손을 떼어내려는데 그는 그만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 손에 힘을 주는 탓에 붙잡힌 손목이 아팠다. 별수 없이 시선을 들어 그를 바라봤다.

“대체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건데?”

“언제까지 널 이렇게 놔둘 수는 없어.”

동문서답하는 그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손을 떼어내려는데 그가 강하게 손을 잡아끌었다.

“어차피 1년 후가 아니더라도 너는 내 여자. 확실히 알려줘야겠어.”

“뭐?”

힘으로 버티는 것도 무색할 정도로 그가 완강하게 날 잡아 끌었다. 두 손으로 붙잡아 멈추려 했다. 그러나 붙잡힌 손을 떼어낼 수가 없었다.

“놔!”

소리를 질러도 밤이 늦은 시각, 복도엔 아무도 없었다. 떠들썩한 식당 외에는 고요하기만 했고 돌아다니는 시종조차 없었다. 타들어가는 등불만 복도의 어둠을 은밀하게 비추고 있을 뿐이었다.

“혹시 모르잖아? 저들 말처럼 얼음도 침대에선 녹을지.”

날 바라보는 레사휘의 눈동자가 평소와는 달랐다. 불에라도 휩싸인 듯 정욕이 서린 눈에 소름이 끼쳤다.

“…레사휘!”

“너도 언제까지나 아가씨일 수는 없지. 그러니 강간이라도 당하는 태도는 버려. 그저 조금 시간을 앞당기는 거니까.”

성은 크고, 사람은 너무나 많이 죽어 빈 곳이 많다. 그는 거부하는 나를 무시하며 억지로 방의 문을 열었다.

청소할 때 외에는 열지 않은 문의 경첩 소리가 귀를 찢듯이 울렸다.

“그만해!”

문 앞에서 그에게 끌려가지 않게 발에 온 힘을 실었다. 나도 안다. 이것이 무의미하고 부질없는 행동이라는 거.

내가 여기서 소리 지르고 도와달라고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도 아무도 나올 리 없다. 심지어 마샤 역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곳은 위그노드.

여자의 의사 따윈 배려 받지 않는 곳. 그리고 그는 어차피 내 반려였다. 모두가 암묵적으로 지금 이 상황을 바라왔을 수도 있다.

그래서 싫다.

내 어미처럼 싫은 것을 억지로 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정당한 절차와 순서를 밟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건 내 아비가 한 짓과 다를 바 없다.

이건 사랑이 아니다.

그저 욕정일 뿐이다.

“윽.”

거칠게 침대 위에 내팽겨 치자 머리가 흔들렸다.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뜨자마자 레사휘의 얼굴이 눈에 가득 들어왔다.

“하지 마.”

이를 악물며 그를 노려봤다. 그러나 그는 빙그레 웃으며 손을 뻗었다. 뚜득 뜯어지는 소리와 함께 얼굴 위에 방패처럼 감싼 베일이 벗겨졌다.

“아이샤.”

눈을 질끈 감았다.

감은 두 눈 위로 그의 거친 숨결이 소름끼치게 느껴졌다. 맞닿은 가슴과 묵직한 무게가 끔찍했다. 그러나 눈을 뜨면 변한 눈동자 색을 들킬까봐 눈을 뜰 수가 없었다. 온힘을 다해 밀어내도 당해낼 수가 없었다.

말캉하게 닿는 입술에 목이 꺾일 정도로 고개를 돌리자 그가 옅은 웃음소리를 내며 목에 입술을 댔다.

“좋아, 거부해. 밀어내고 저항하라고. 딱딱하게 언 얼음보단 낫지.”

조롱 섞인 말에 입술을 깨물자 그는 보란 듯이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겨울 성의 혈통처럼 피도 차가울 것 같던 그의 손이 뜨거웠다. 안달이라도 난 사람처럼 손에 잡히는 대로 벗겼다. 이브실라의 여자들처럼 얇은 옷이 아니라 찢기는 버거운 탓에 그는 작게 욕지거리를 내뱉었다.

그러나 이내 그 욕지거리도 시간이 지나자 달뜬 신음처럼 토했다.

“아이샤.”

손을 들어 귀를 틀어막고 싶었다. 거대한 짐승이 축축하게 침을 흘리며 혀를 내밀어 온몸을 핥아 내린다. 이건 사람이 아니다. 그가 내지르는 숨, 맞닿은 입술, 코끝에 느껴지는 체취가 더러운 오물처럼 녹아내렸다.

“…그만해.”

결국 참지 못하고 서슴없이 치마 아래로 내리는 손을 붙잡으며 다리를 오므렸다.

“네가 운다면 어디 한번 참아볼게.”

정복감이 가득한 목소리로 그가 오만한 왕처럼 내 볼을 쓸어내렸다. 닿은 부분이 썩는 것 같았다.

“그만하라고.”

“울어. 내 아래에서 네가 운다면 놔줄게. 아니면, 너는 다른 식으로 울게 될 거야.”

“그만! 그만 하라고! 그만해!!”

거칠게 다리를 들썩이고 힘껏 고개를 내저었다.

주먹을 들어 마구 흔들었다. 그러나 눈을 감은 탓에 양손은 너무나도 쉽게 레사휘에게 붙잡혔다.

“뭘 이렇게 거부해? 아니면, 이미 처녀가 아닌 건가?”

“…!”

깨문 입술에서 피가 흘러내릴 정도로 화가 치밀었다.

“그래, 확인해야겠어.”

그러나 그는 내 입술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것도 신경쓰지 않으며 손으로 차갑게 드러난 배를 쓰다듬었다. 다리를 들어 쳐내자 그가 다른 손으로 다리를 눌렀다.

“이 곳에 자리 잡는 건 오로지 내 핏줄뿐이니까.”

축축한 혀가 평평한 배를 핥았다. 그 어떠한 것보다 더한 혐오가 어둠처럼 밀려왔다. 더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눈을 떴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숙이고 날 핥느라 내 얼굴을 보지 않고 있었다.

“하지 마!!”

하지만 우리만이 있을 거라 생각한 그 어둠 속에 금색 눈동자가 있었다.

쓰러진 레사휘를 바라보던 나는 시선을 들어 그를 바라봤다.

“이런 자가 반려야?”

“…”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정말 얼음인형이 된 것처럼 손 하나 까닥할 수가 없었다. 그가 한숨을 내쉬며 몸을 숙였다.

엉망이었다.

허벅지 안쪽의 상처자국만 가릴 정도로 치마는 올라가고, 가슴과 배는 벗겨진 채 선명한 붉은 자국마저 모두 드러나 있었다. 그가 이를 악물며 셔츠를 벗어 내 몸을 가렸다. 내 옷은 엉망으로 벗겨져 다시 추스르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단추를 채우며 내 벗은 몸을 가리는 그가 인상을 쓰는 게 보였다. 그런데도 속도가 나지 않았다. 그의 손이 바들바들 떨려서 단추를 채우는 데 시간이 걸려서 느린 거였다.

이 기분은 뭘까.

“어머니도 이런 기분이었겠군.”

그의 떨리는 손가락을 보며 그 말이 입에 걸린 채 나왔다.

“그러니 내가 끔찍했겠지.”

원하지 않은 깨달음을 얻었다.

웃으면 좋으련만. 웃을 수 없어 대신 하— 하고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속에 켜켜이 쌓인 오물이 응어리처럼 남아 여전히 답답했다. 그리고 그것이 몸을 무겁게 했다.

왜 날 봐주지 않느냐고.

난 그렇게 어미에게 소리 질러서는 안 되었다. 나는 자격이 없으니까. 소름끼치게 끔찍할 테니까.

“그러지 마.”

그가 내게 닿지 않게 셔츠 자락만을 움켜쥔 채 고개를 저었다.

“아가씨는 끔찍한 일을 당하려 했던 거야. 끔찍한 건 저자라고. 아가씨가 아냐.”

내가 시선을 내려도 그는 고개를 들지 않고 마저 단추를 채웠다. 하지만 그가 어떤 말을 해도 내속에 오물이 가득차 나도 오물이 된 것 같았다.

더욱이, 나는 거짓된 희망으로 그를 붙잡아 두고 있지 않은가. 그런 내가 강제로 취하려고 하는 레사휘와 다를 바가 뭐지.

“나는 널 사랑할 수 없어.”

단추를 채우던 그의 손이 멎었다.

“아무리 기다려도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

그제야 그가 고개를 들어 날 바라봤다. 푸른 눈이 아닌, 본래의 금색의 눈으로. 그저 얼음이면 족하련만 그의 눈은 얼음이 아니었다.

마치 속을 꿰뚫어 바라보는 달 같았다.

“그래도 좋아.”

“내가 널 위해 울 수도 없어.”

“그래도 좋아.”

“결국은 널 버리고 레사휘와 혼인할 텐데도?”

“…”

그가 대답 대신 뚫어지게 날 바라봤다. 그의 금색의 눈동자가 반짝거리지 않는 대신 잔잔한 호수 위에 뜬 달처럼 날 담고 있었다.

“아이샤. 네가 옆에 있어도 좋다고 한다면 나는 그래도 좋아.”

잔인한 질문에도 하나만을 바라는 대답에 그만, 자신이 수치스러워 입술을 깨물었다. 벗은 몸을 보여줘도, 겁탈을 당하려는 상황을 보여도 아무렇지 않던 마음이 수치스럽고 흉해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끔찍하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이기적이고 속물적인 아비의 피가 내게도 있었다.

“이용해도 좋아.”

“그만 나가줘.”

더는 자신이 끔찍해 그를 마주볼 수 없다. 저 아름다운 금색의 눈동자에 오롯이 비치는 끔찍한 괴물. 그것이 나였다.

“아이샤.”

그가 두 손으로 숙인 내 얼굴을 들어 올려 시선을 맞추게 했다. 그의 손은 더는 떨고 있지 않았다. 오로지 내 몸만이 죄인처럼 흔들렸다.

나는 아직도 술에 취한 것 같았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를 밀어내지 않을 리 없으니까.

그는 마치 소중한 것을 붙잡은 것처럼 내 볼을 쓰다듬었다.

“나는 널 사랑해.”

숨을 멈추고, 마른 침을 삼켰다.

그의 눈은 달랐다. 질척이지도, 붉지도, 정욕에 타오르지도 않았다. 그러나 눈처럼 새하얀 것은 아니었다.

감정이 깃든 눈은 무거울 정도로 깊었다. 호수의 깊은 바닥처럼.

“네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할 정도로. 네가 울면 내가 울고 싶을 정도로. 네가 괴로우면 내가 괴로울 정도로. 나는 네가 나보다 소중해.”

그가 천천히 다가와 힘껏 깨무느라 찢어진 입술에 입을 맞췄다.

괴물의, 짐승의 입맞춤이 아니었다.

사랑하지만 소중해서 조심스러운 입맞춤이었다. 가만히 그를 바라보자 그가 옅게 웃으며 손으로 내 입술을 살살 쓸었다.

가슴이 묵직하게 내려앉아서 손을 떼어낼 수가 없었다. 그가 아프지 않게 살살 입술을 매만졌다. 벌어진 입술 끝에 손가락이 닿자 그만 나도 모르게 버릇처럼 혀를 내밀어 입술을 핥았다. 그러나 핥은 것은 그의 손가락이었다.

순간, 그의 눈빛이 변했다.

아까의 일이 떠올라 몸을 뒤로 피하자 그가 고개를 저으며 손을 치웠다.

“널 무섭게 하지 않아. 다만...”

그가 말끝을 흐리며 혀가 닿았던 손가락에 살짝 혀를 대고는 입을 맞췄다. 그의 모습이 이상하게 낯설었다.

그저 사슴.

아시네헤의 일족.

얼음이면서 웃는 혼혈.

때로는 아이.

그런데 지금은 그가 너무나도 낯설었다.

“너는 저자가 미쳐 날뛰는 게 이해될 정도로 사랑스러우니까.”

겨울 같았다.

거센 눈보라를 속에 가득 채운 겨울. 그러나 그는 폭풍의 눈과도 같은 차분함으로 몸을 일으켜 내게 손을 내밀었다.

“곁에 있어도 된다고 해.”

손을 내민 건 자신이었으면서 허락은 내게 구하고 있었다. 그의 새하얀 손가락, 내 혀가 닿았던 손가락을 바라봤다.

나는 손을 잡지 않았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긴다 해도 너는 날 구하면 안 돼. 오늘처럼 내게 손을 대서도 안 돼. 레사휘가 날 끌어안아도 너는 바라만 봐야 해. 그럴 수 있어?”

우리가 닿았던 것은 손가락과 입술. 그러나 앞으로 레사휘는 내 몸 전부를 삼킬 것이다. 그제야 차분함으로 둘러싼 휘아르의 공기가 파삭 일그러졌다.

“한 번 저지른 짓 두 번을 못할까. 사촌이라고 네가 나타났으니 결국 레사휘는 1년도 되기 전에 내 몸을 취할 거야.”

이 끔찍한 짓이 이번으로 끝날 리 없다.

제 욕구를 풀지 못했으니 두 번은 더 집요하게, 세 번은 더 혐오스럽게, 네 번은, 그리고 그 이상 날 엉망진창으로 할 것이다.

그리고 떠나지 못한 휘아르는 그걸 지켜봐야 한다.

이것은 경고이되, 부탁이었다.

다가오지 마.

“싫어.”

그가 거세게 고개를 저으며 내민 손으로 날 붙잡아 안았다. 갑작스레 붙잡혀 끌어 안겼지만, 버둥거리지는 않았다.

“싫으면 떠날 수밖에.”

“나는 집요하고 끈질겨. 네가 사랑하는 게 아닌 이상 나는 절대 저 녀석이 널 강제로 만지게 하지 않을 거야. 아니, 설사 네가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가 끌어안은 팔에 힘을 살짝 풀고는 날 바라봤다.

“이제 안 돼. 이런 건 두 번은 못 봐. 네가 날 평생 만지지 못하게 해도 좋아. 닿지 못해도 좋아. 다른 남자가, 설사 반려라 할지라도 이제 안 돼. 처음엔 반려니까 물러서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젠 아냐. 널 그렇게 대할 바엔 절대 손대지 못하게 할 거야. 너는 안 돼. 아이샤, 너는 안 돼. 너는 소중해. 사랑스럽고 소중해. 나는... 나는 이제 네가 날 위해 울어주지 않아도 좋아. 그런데 다른 남자 때문에 우는 건 더더욱 볼 수 없어.”

레사휘는 내게 울라고 했다. 울면 놔주겠다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식으로 울게 할 거라고.

그리고 휘아르는 말한다.

이제는 울지 말라고.

“…평생을 저주받은 채 산다고 해도?”

“그래, 상관없어. 네 옆에 있을 수 있다면 저주 받아도 돼.”

그가 팔에 힘을 줘 더욱 세게 끌어안았다. 그러자 아까 괴물이 핥았던 가슴이 아릿하게 아렸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가슴 안에 든 묵직한 얼음이 어디서부턴가 녹는 소리가 들렸다.

가만히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 창가에 보이는 전나무 가지를 바라봤다. 중간에 사라진 겨울 대신 봄이 가득한 따스한 온도에 이파리가 생기를 머금고 새파랗게 보인다. 그리고 그 가지를 바라보고 있자니 겁도 없이 가볍고 날쌔게 창가까지 올라온 그가 생각났다.

애처럼 웃던 얼굴이 순식간에 남자처럼 변해 은밀하게 웃는다.

손가락을 핥던 얼굴이 생각나 질끈 눈을 감았다. 머릿속이 혼란스럽다. 그리고 그 혼란의 중심엔 어찌할 수도 없이 그가 있었다.

휘아르.

이제 와서 그를 사랑한다는 게 아니다.

그저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이 끔찍하고 질척거려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에 떠올리는 도피처일 수 있다. 당연했던 일이 실은 아주 끔찍하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가 내민 도피가 구원 같았다.

그를 선택하면, 이런 짓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고.

변해버린 눈동자를 가리지 않아도, 노아의 씨앗을 만들기 위해 상처 낸 허벅지를 가리지 않아도, 짐승 같은 행위를 요구받지 않아도 된다고 자신도 모르게 기대고 있었다.

아무리 성의 대리인이라도 나는 위그노드의 여자였다. 아비가 오래전에 결정한 반려를 거부할 수 없다. 어차피 나는 이곳에 나서 살아왔고, 평생을 이곳에 살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레사휘와의 혼인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다.

거부하든, 사랑하지 않든 어쨌든 해야 할 일이었다. 어미처럼 원치 않는 상대에게 갇혀 사는 게 아닌 타의가 섞인 일일지라도 자의가 없지는 않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어젯밤 일을 경계로 정당한 혼인관계라 할지라도 어미의 인생과 다를 바 없을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그저 아이를 낳는 도구로, 정욕을 해소하는 도구로 방 안에 갇혀 나오지 못할 수 있다.

어젯밤, 아무도 날 구해주지 않았던 것처럼.

작게 들리는 소리에 눈을 뜨자 가지 위에 새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하얀 새가 아닌 그저 마른하늘을 나는 검은 새.

“…그래도 어미는 새를 타고 떠났지.”

커다란 새를 타고서.

나는?

반만 얼음이 된 나는 새로 변할 수도, 새를 타고 떠날 수도 없다. 그저 참을 수밖에. 참고 참아 세월이 흘러 죽는 수밖에.

노아의 씨앗을 만드는 것처럼.

솔직히 말하면 줄곧 보아온 레사휘의 태도로, 기사들이 들려주는 음담으로, 여자들이 수군덕거리며 바느질 방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로 모르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은연중에 레사휘와 혼인할 날을 마치 세상의 끝으로 정해 두고 있었다.

그저 참으면 된다고 당연하게 생각했다.

휘아르가 내게 오기 전에는 분명 그리 생각했다.

이곳을 떠날 용기도, 마음도 없으면서 나는 그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이내 언제 한숨을 내쉬었냐는 것처럼 얼굴을 굳히며 베일을 정리했다.

어제는 제대로 듣지 못한 토벌대의 성과를 들으러 응접실로 가야 한다.

아직은 내가 이 성의 대리인.

무거운 마음을 애써 뒤로 돌리고 방문을 열었다. 나는 여자지만 아비를 대신한 성의 주인이어야 했고, 나를 고깝게 보는 기사들에게 무시 받을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응접실의 문을 열 수 없다.

그러나 방문을 열자마자 애써 울음을 참으며 날 부르려던 아이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미간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다.

평소라면 응접실 안에서 장작이 마를 틈 없이 시시덕거릴 기사들이 문 앞에 모여 있었다. 내가 계단을 돌아 내려오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문을 가로막았다.

“무슨 일이지?”

“아가씨, 오늘은 모른 척하고 돌아가십시오.”

노어 경이 제법 진중한 태도로 내 앞을 막았다.

“비켜.”

“안됩니다.”

명령에 대한 거부의 말을 내뱉는 노어 경을 고개를 들어 바라봤다. 그러자 비록 베일에 감춰있으나 내가 바라보는 시선을 느끼며 노어 경이 곤란한 얼굴로 눈을 피했다. 그러나 문을 막은 몸을 비켜주지 않았다.

“두 번 말하게 하지 마. 비켜.”

“…죄송합니다.”

노어 경이 고개를 숙이자 그의 옅은 금발이 흔들렸다. 이제 갓 서른이 된 이 기사는 젊은 나이답지 않게 노련하고 강해 원탁의 기사 칭호를 얻었으나 그로 인해 제 주제를 모르고 간혹 제 위치를 망각할 때가 있다.

발을 들어 힘껏 그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윽!”

돌벽으로 스미는 한기를 막기 위해서 단단한 나무로 덧댄 신을 맞고 괜찮았던 건 휘아르 뿐이었다. 검에 심장이 찔리고도 멀쩡한 이는 흔한 게 아닌지라 노어 경이 고통스럽게 허리를 숙였다.

천하의 아벨린 경도 내게 발만 밟혀봤지 설마하니 이렇게 걷어차일 줄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아플 것이다. 몸을 굽힌 그를 차게 내려 봤다.

“감히 응접실도 아닌 곳에서 내게 대우받을 생각 마라. 너는 그저 이 성의 녹을 받는 가신일 뿐. 한낱 가신 주제에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개만도 못할 뿐이지.”

응접실에서의 대화였다면 노어 경은 내게 고개를 숙이며 용서를 빌지 않았을 것이다. 나도 이렇게까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곳은 응접실 밖. 내 명령은 성주의 명령과 다를 바 없다.

“린드 경, 당장 이 무례한 자를 끌고 가. 주인을 못 알아보는 개는 매가 약이다. 오십 번 채찍질한 뒤 성벽에 매달아라.”

날 따라온 린드 경이 고개를 숙이며 노어 경의 몸을 붙잡았다. 노어 경이 이를 악물었으나 저항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도리어 반발은 옆에서 들렸다.

“아가씨, 아무리 그래도…그건!”

“채찍질 오십 번이라니. 이제 막 돌아온 가신에게 너무 심한 처벌입니다!”

차마 말을 제대로 내뱉지 못하는 기네드 경 대신 레만 경이 거세게 반발했다. 같은 원탁의 기사이자 노어 경의 형인 레만 경이었다.

“레만도 데려가. 형인 주제에 동생의 잘못을 보고도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소리치는 꼴이라니. 레만은 백 번 채찍질한 뒤 동생과 사이좋게 매달아라.”

“이게 무슨…! 아무리 아가씨라지만! 이건 너무 심하신 처삽니다! 우리는 성의 기사이자 레사휘 님의 명을 따른 겁니다!!”

린드 경과 병사들에게 잡히자 그가 거세게 반항하며 소리 질렀다.

“그래서 잘못이라는 거다.”

그를 보며 차게 말했다.

“너는 성의 신하이고, 나는 엄연히 성의 주인인데 네가 다른 자의 명령을 나보다 우선했으니까. 나는 아직 레사휘의 아내가 아니고, 레사휘는 내 부군이 아니다.”

“하지만…!”

아직도 할 말이 남았는지 그들이 바르작거리며 반항했다. 이들이 왜 저러는지 모르지 않다. 어젯밤의 일을 들었으니 더욱더 기고만장해져서 레사휘의 명령을 나보다 우선해서 따랐겠지.

더욱이 고작 1년. 세상이 두 쪽 나지 않는 이상 예정대로 흘러간다.

고작 방에 갇혀 살게 될 여자의 말보다 앞으로 그들을 통솔할 차기 성주의 말을 듣는 게 당연한 거였다.

하지만 아니다.

나는 어미처럼 성에 갇혀 살지 않을 것이다.

“내 명령을 따르기 싫다면 나가도 좋아. 단, 얼음 가시나무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야. 노아의 씨앗을 누가 주는지는 잊지 않았겠지.”

그러자 노어 경과 레만 경의 얼굴이 황망하게 굳었다.

노아의 씨앗은 나의 것이다. 우습게도 저주라 여긴 것이 이제는 나의 무기가 되고 있었다. 나는 어미처럼 성에 갇히지도 않을 거고, 도망치지도 않을 것이다.

이 앞의 미래가 어찌 될지 뻔히 알면서 걸어 들어가는 미친 짓은 아비로 족하다. 그 딸마저 그리 살고 싶지 않다.

다시 고개를 돌려 기네드 경을 바라봤다.

“언제까지 내 앞에 있을 거지? 문을 열어.”

기네드 경이 당황을 감추지 못하고 황급히 문을 열었다. 그리고 열린 문 안쪽에서는 짙은 피 냄새가 났다.

문이 두껍다 하나 바로 문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리 없다. 이 소란을 다 듣고 있었으면서 얼굴도 내밀지 않은 자의 푸른 눈이 정면으로 보였다.

그가 비릿하게 웃으며 허리를 숙였다.

“성의 주인이 납시셨군. 어서 오십시오.”

조롱이 가득한 인사였고 나는 그 인사를 받아줄 마음이 없기에 무시하며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두꺼운 카펫이 축축할 정도로 피에 젖어 있었다.

“어디서 이런 사람 같지도 않은 걸 사촌이라고 들이댄 건지.”

얼마나 많은 피를 머금은 건지 검붉은 색으로 변한 카펫에는 아직도 기둥에서 흘러내리는 피로 새카맣게 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기둥에는 휘아르가 팔이 묶인 채 서 있었다. 단숨에 심장에 검을 찔러 넣었을 때에도 이보다 적은 피가 흘렀던 것 같았다.

벌거벗은 상체가 온통 붉었다.

아시네헤의 일족이면서. 겨울도 물러나게 하는 힘을 가진 주제에 이렇게 맥없이 붙잡혀 있는 모습이 이상했다. 하지만 이내 입술을 잘게 깨물었다.

‘내가 사촌이라 했다고.’

아시네헤의 일족이 아닌, 겨울 성의 혈통이라 했기에 힘을 쓰지 않는 것이었다. 정말로 사람인 것처럼.

들킨다면 반드시 떠나야 하니까.

죽을 것처럼 맞은 주제에 그는 날 보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기절하지도 않았다. 그저 새파란 눈으로 맞은편에 오만하게 앉은 레사휘를 노려보고 있었다.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아가씨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소매를 접은 채 땀을 잔뜩 흘리던 아벨린 경이 나를 힐끗 보며 말하더니 이내 매서운 소리를 내며 채찍을 휘둘렀다. 그러자 날카로운 채찍 끝이 매섭게 휘아르의 등을 할퀴었다. 아니, 살을 찢었다. 평소의 징계용으로 쓰는 채찍이 아니었다.

가죽과 쇠가 섞인 채찍은 소리도 소리지만 위력도 엄청나 살을 찢고 뼈를 부술 정도였다. 살가죽이 난도질당한 것 같았다.

계속된 고문에 그도 벅찬지 이를 악물었다.

“그만 하세요. 감히, 겨울 성의 혈통에게 매질이라니 있을 수 없습니다.”

위그노드를 지배하는 혈통.

실로이에 진짜 왕과 왕족들이 산다 하나 위그노드의 겨울 성 혈족은 실로이의 왕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어차피 겨울 성의 혈통도 아니지 않습니까.”

레사휘 쪽은 바라보지도 않고 아벨린 경을 노려봤다. 저 작자가 문 앞에 없을 때부터 이런 일이 생길 거라는 건 예상했다. 더욱이 아이들이 울면서 휘아르가 아벨린 경에게 끌려갔다고 말해주었다.

“휘아르는 겨울 성의 혈통이 맞습니다. 아벨린 경, 채찍을 내려놓으세요. 아무리 그대가 아비의 친우라 하나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날 조롱하고, 무시하고, 고깝게 여겨도 나는 응접실 안이나 밖이나 그에게 하대한 적 없다. 그는 아비의 친우이자 이 겨울 성을 오랫동안 지킨 기사였다. 그러나 그는 절대 나를 친우의 어린 딸로 보지 않고 도망친 아시네헤 일족의 딸로 본다.

“언제는 꼭 봐주신 걸로 들립니다?”

아벨린 경이 히죽 웃고는 그대로 채찍을 휘둘렀다.

“아벨린 경!”

“그만. 이만 나가주세요, 아벨린 경. 우리끼리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차게 휘아르의 등을 찢은 채찍이 레사휘의 말에 멈췄다. 이를 악물었다. 아벨린 경은 레사휘의 말에 따라 채찍을 내던지고는 문밖으로 나갔다.

원탁의 기사 중 수장이라는 자가 앞장서서 나를 무시하니 기사의 거의 다가 나를 무시할 수밖에.

1년 후에는 나를 어찌 대할지 훤히 보인다.

“왜 그런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는지 모르겠군요. 설마하니 정말로 나보다 먼저 침대로 끌어들이신 겁니까?”

아벨린 경이 나가자 레사휘가 의자에서 일어나 내게 가까이 다가왔다. 그러자 레사휘를 노려보던 휘아르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아이샤에게 다가가지 마!”

입에 고인 피를 뱉어내며 휘아르가 소리 질렀다.

“이런, 채찍질할 게 아니고 혀를 자를 걸 그랬나. 용케도 말을 하는군. 내가 없다고 이런 자를 끌어들이다니. 천하의 아가씨도 제 어미와 다를 바 없군.”

괴물을 보는 눈으로 속내는 누구보다도 추악한 짐승과도 같은 자가 혀를 달싹이며 말했다.

“그런 적 없어. 추잡한 말로 매도하지 마.”

“과연 그럴까? 나 없는 사이에 수차례는 네 방을 들락날락했다는데 그 안에서 단둘이 무엇을 했을지.”

“끔찍하군. 이런 자를 부군으로 맞아야 한다니.”

“그래, 나는 성주님과는 달라. 갑자기 어디서 아들이라고 나타났다고 내 씨도 아닌 걸 덥석 내 아들로 삼을 마음 없어.”

“…”

도를 지나친 모멸적인 말에 그만 입술을 깨물었다.

샤하웨.

레사휘는 지금 샤하웨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어미의 아들. 어미를 만나려고 성으로 온 샤하웨를 아비는 어미의 환심을 사기 위해 내쫓지 않고 아들로 삼았다.

그는 지금 그 일을 비꼬고 있었다.

나는 절대 날 봐주지 않던 어미의 사랑을 받는 샤하웨가 밉고 싫었지만, 그것은 질투였다. 결코, 받을 수 없는 애정에 대한 분노였을 뿐이었다. 우리와 엮이지만 않았다면, 그는 그저 어미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

그 행복을 파괴한 건, 나와 아비였다.

이토록 함부로 추잡하게 오르락내리락한다는 게 참을 수 없어 몸이 떨렸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누가 너 같은 줄 알아? 너처럼 함부로 아이샤가 싫어하는 짓은 안 해!”

휘아르가 경멸을 담아 쏘아 말했다.

“네가 뭘 알지? 아이샤가 싫어할지, 좋아할지 네가 어떻게 알지?”

그러자 평소 순백으로 빛나는 머리카락이 온통 피에 젖어 붉게 변한 걸 레사휘가 우악스럽게 잡아당겼다.

“아아, 그래. 너, 그 자리에 있었군. 나한테서 훔쳐가서 실컷 탐했나? 응? 내가 먹지 못한…”

“그만! 그만해, 레사휘!”

참지 못하고 소리를 높이자 그가 비뚜름하게 날 바라봤다.

“그만한 건 너지, 아이샤. 난 멈춘 적 없어. 어제도 말이야.”

그의 눈이 비릿하게 타오른다. 내가 눈을 가릴지언정 그래도 나는 사람이다. 레사휘처럼 짐승의 눈을 하진 않는다.

다가가 휘아르의 머리를 붙잡은 레사휘의 손을 붙잡았다.

“놔줘. 그는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어.”

“그걸 내가 어찌 믿지?”

“내가 또다시 명령해야 들을까? 감옥에 처넣어 물도 음식도 내주지 말아야 정신을 차릴까? 아직은 내가 성의 대리인이야. 네가 아냐.”

그러자 그가 휘아르의 머리를 놓더니 반대로 내 손을 붙잡았다. 피에 젖은 손이 닿자 끔찍했다. 어제의 기분과 감정이 새삼 잊지도 않고 느껴졌다.

“그럼 네가 날 믿게 해.”

“손 놔. 어차피 믿지도 않을 거, 나도 더는 상대 안 해.”

그러나 그는 도리어 붙잡은 손에 힘을 줬다.

“네가 믿게 하면 네 말을 들을게. 이 자를 성에 두는 것도 반대 안 해. 네가 원한다면 혼인 전까지 너한테 손도 안 대. 어떻게 할래?”

레사휘가 히죽히죽 웃으며 숨이 닿을 만큼 다가왔다.

“수작 부리지 마.”

“고귀한 아가씨. 아름다운 성의 주인. 그러나 결국 내 것이 될 여자.”

“아이샤를 건들지 마!”

그가 내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휘아르가 미친 듯이 소리 질렀다. 그러나 아무리 아시네헤의 일족이라도 피를 너무 많이 흘렸고, 기둥에 매인 줄은 그냥 끈이 아니어서 쉽게 풀어내거나 끊어낼 수 없었다. 철저한 레사휘가 준비한 것답다. 기둥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치는 소리와 그의 목소리가 비명처럼 울렸다.

그러나 레사휘는 오로지 나만을 바라봤다.

“벗어. 그리고 날 받아들여. 그럼 믿을게. 네가 바라는 대로 오늘 이후로 널 건들지도 않을게.”

그리곤 붙잡지 않은 다른 손으로 베일 아래를 쓰다듬었다. 함부로 매만지는 손길에 치가 떨렸다.

“더러워…!”

“알아. 그게 사내지. 그래서 여자는 더럽혀진다는 거야, 남자에게.”

단번에 끌어안듯이 들어 올렸다.

“놔! 놓으라고!”

“여기서 벗기기 싫으면 얌전히 있어. 원한다면 상관없지만. 대신, 내 여자를 본 저자는 두 눈을 도려내서 성 밖으로 내쫓을 거야.”

목에 닿는 숨결과 체취, 끌어안은 팔이 질척한 오물 같다. 더는 싫다.

싫다.

싫다.

또다시 어제와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은 싫다.

내가 나고 자란 이곳이 소중하기에 눈을 가리고, 상처를 내 노아의 씨앗을 만들어도 괜찮았다. 하지만 나는 어미가 아니다. 성을 나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나가지 않는 것이다.

이 성은 나의 것.

아비가 물려준 나의 것이다.

이곳을 지키기 위해 참았다. 하지만 내 힘으로도 지킬 수 있다. 방에 갇힌 채 소름 끼친 자와 몸을 섞으면서 살고 싶지 않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휘아르!”

휘아르와 눈이 마주쳤다. 피를 잔뜩 뒤집어쓰고 상처투성이의 그는 어느 때보다 부서지고 엉망인 모습이었다. 하지만 끔찍하진 않았다. 적어도, 날 끌어안고 정욕에 휩싸인 이 자보다 순수하고 깨끗했다.

달과 같은 얼음.

그 앞에서는 베일을 벗어도 괜찮고, 상처를 숨기지 않아도 된다. 위그노드의 다른 사내들처럼 제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함부로 여자를 대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어젯밤 그가 한 입맞춤은 끔찍하지 않았다.

“아이샤!”

그가 날 불렀다.

절망이 가득한 눈을 본 순간, 깨달았다.

이것이 도피처일지라도, 레사휘에게서 도망치기 위한 출구일지라도 그래도 원한다고. 녹은 얼음 틈 사이에서부터 뭔가가 부서지는 것 같았다.

있는 힘껏 레사휘를 밀어내고 휘아르에게 달려갔다. 그리고 응접실에 오기 전, 혹시 몰라 준비한 단검을 꺼냈다.

“널 선택할게.”

그의 눈과 마주치며 묶인 줄을 단숨에 풀었다.

나는 언제부턴가 네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게 되었어.

그건 아마도.

나 때문이겠지.

줄이 풀리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은 나를 품 안으로 단단하게 끌어안은 것이었다. 이제껏 그가 날 끌어안은 적은 많았다. 하지만 이토록 맞닿은 그의 가슴이 벅찰 정도로 떨린 적이 없었다. 내가 한 것은 고작 말인데, 그는 고귀한 선물이라도 받은 것처럼 황홀한 숨을 터뜨렸다.

“아이샤…!”

그러나 이내 자신이 피투성이라는 것을 기억한 그가 황급히 날 놓아줬다. 그러나 이미 늦어 잔뜩 피가 묻은 내 모습을 보더니 그가 호쾌하게 웃었다. 이렇게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맞았으면서 고통은 잊은 것처럼. 그 모습이 마치 울다가 웃는 아이 같았다.

그는 그 정도로 가슴 벅차게 날 바라봤다.

“하, 이젠 대놓고 내 앞에서 끌어안는군.”

고개를 들자 레사휘가 혀를 끌끌 차며 우리를 노려봤다. 내가 그를 향해 입을 열려고 하자 이내 차가운 손이 베일 위로 눈을 가렸다.

“휘‒데르.”

바라는 대로 이루어져라.

지금, 내가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네가 바라는 것은.

눈이 가려져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의외로 손은 금방 내려갔다. 눈을 뜨고 앞을 보자 깨끗했다.

피투성이의 휘아르는 변함없이 내 앞에 있는데 그의 피로 가득했던 카펫과 피가 튄 커튼에는 피가 흔적조차 없이 지워져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피가 묻었던 적은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서슬 퍼렇게 우리를 바라보던 레사휘가 언제 그랬냐는 양 고요히 의자에 앉아 있었다.

깊은 잠에 든 것처럼 의자에 앉아 있는 레사휘를 보다가 고개를 돌려 휘아르를 바라봤다.

“뭘 한 거지?”

“재웠어. 사람은 물건처럼 쉽게 기억을 지울 수가 없거든. 그래서 미안. 미안해, 아이샤. 너는 날 택해줬는데 정작 난 아무것도 못해 줘서.”

정작 자신은 피투성이이면서.

상처투성이의 몸을 보자 한숨이 나왔다.

“너는 처음부터 이렇게 해야 했어.”

고통에 무디다고 아프지 않은 건 아닐 텐데. 심장을 찔러도 죽지 않지만, 상처가 나면 피나고 아픈 건 같았다.

“그럼…옆에 있을 수 없잖아. 믿지는 않아도 사촌이라고 해서 겨우 있는 건데, 사람은커녕 아시네헤의 일족이라고 하면 성에서 나가야 하니까.”

내 말에 그가 머뭇거리다 이내 변명하듯 말했다.

내가 무엇이라고 너는 내게 이럴까.

“그리고 나중엔 쓰고 싶어도 못 썼어. 너한테 손도 못 대게 하려고 했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

아까 일이 떠오르자 분한 듯 휘아르가 이를 악물었다.

휘아르의 손목에 묶인 줄. 첫눈에 보자마자 알아차렸다. 저건 어미가 성에 살았던 시절, 성벽에 둘러져 있던 것이었다.

아비가 들려준 동화에는 얼음 기둥 속에 산다는 마녀가 준 거라 했다. 하지만 그런 마녀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에, 아비가 어찌 이런 것을 구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그 출처가 불분명해도 확실한 것은 아시네헤의 자손이 힘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저 줄 외에도 분명 몇 가지가 더 있었으나 9년 전, 아비가 쓰러지자 이 줄 빼고는 모두 무용지물이 되었다.

“저자는 위험해. 내가 아시네헤의 일족이라는 것도 모르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런 것까지 준비했어. 한 치의 틈도 없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무서울 정도로 철저해. 그래서 그만큼 악질이고. 원하는 건 어떤 식으로라도 가지려고 할 거야. 아무리 싫다고 해도.”

그가 말을 끊으며 날 바라봤다. 그의 눈이 밤에 비친 것처럼 어둡게 가라앉았다.

“망가뜨려도 상관없을 정도로 제 욕심을 채울 거야. 네가 결국은 망가질 때까지.”

그의 시선에 결국 입술을 깨물고야 말았다.

그 밤, 저항하는 날 억지로 누르고 탐하려 했던 것처럼. 휘아르가 없었더라면 내가 굴복할 때까지 몇 번이고 날 나락으로 떨어뜨렸을 것이다.

“죽이고 싶어.”

어울리지 않는 말에 떠올렸던 생각을 지우고 새삼 그를 다시 봤다. 뭔가 이상했다. 마치, 어린애가 어울리지 않는 욕을 한 것처럼 휘아르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얼음으로 빚은 일족이면서 늘 웃고 봄과 같은 목소리로 말해서 잊고 있었다.

그가 얼음이라는 걸.

그가 내뱉은 말에 색이 있다면 날카로운 검에 서린 빛 같았다. 그러나 그 차가운 말과는 다르게 그의 손가락이 조심스레 베일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느릿느릿하게 깨문 입술을 베일 위로 살살 쓸었다.

아프게 하지 말라는 것처럼.

베일에 가려져 못 봤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베일을 사이에 두고 입술에 닿는 손가락의 느낌이 기묘하다. 그는 마치 보이기라도 하듯 선을 따라 그리는 것처럼 손가락이 입술을 매만졌다.

나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나오자 느릿하던 손가락이 멎었다.

“당장에라도. 내 마음 같아서는 창밖으로 내던지고 싶어…!”

황급히 입술에서 떨어진 손을 쥐어 가슴을 누르며 말했다.

애써 참는 것 같은 목소리처럼 그는 시선을 내려 자신의 피가 잔뜩 묻었던 카펫만을 노려봤다. 저 카펫에 레사휘의 얼굴이라도 있는 것처럼.

그리곤 이내 토하듯 입을 열었다.

“다시는 그런 눈으로 아가씨를 보지 않게. 더러운 손으로 아가씨를 더럽히지 않게, 추악한 말로 아가씨를 괴롭히지 않게!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죽이고 싶어. 내가 당한 건 아무것도 아냐. 이런 거. 이까짓 상처 아가씨가 당한 거에 비한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니까. 화가 나. 살면서 이렇게 누군가를 죽이고 싶었던 적이 없었어.”

그의 시선이 더더욱 아래로 내려갔다. 더한 말이 쏟아질까 두려워하듯 그가 이를 악물었다. 그러나 꽉 다물린 입술도, 잔뜩 주먹 쥔 손도 분노에 휩싸여 떨리고 있었다.

그런 그를 말없이 물끄러미 바라봤다.

그는 자칫 레사휘를 바라봤다간 그대로 참지 못하고 죽여 버릴까 봐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있었다.

“왜?”

몸을 돌려 레사휘가 보이지 않게 가리고 섰다. 그리고 손을 뻗어 바닥을 노려보는 휘아르의 얼굴을 들어 시선을 맞췄다.

“왜 네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지?”

그러자 그가 날 바라보며 앙다문 입술을 열었다. 금색의 눈동자가 파르라니 떨렸다. 어찌 보면 원망하는 것 같은 눈이었다.

“아가씨가…원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못내 화나고 싫은 어조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얼굴이었다. 그게 어쩐지 짠하고 안타까웠다.

하지만 사실이었다.

“…그래.”

나는 레사휘가 죽는 걸 원하지 않았다.

“죽는 게 싫다면 영원히 잠들게 할 수도 있어. 아무도 구하지 못하는 곳에 가둬둘 수도 있어. 한마디만 하면 돼. 그럼, 다시는 아가씨를 괴롭게 하지 않게 할 수도 있다고.”

그가 날 보며 간절하게 말했다. 어리석은 선택을 하려는 어린애를 붙잡고 다시 한 번 더 설득하는 것 같았다. 그가 왜 이렇게 간절한지 모르지 않다.

레사휘가 내 옆에 있다면 또다시 그 밤과 같은 일이, 오늘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내 대답에 그의 금빛 눈동자가 거멓게 죽어갔다. 그러나 그가 바라는 말 한마디를 할 수 없었다.

“내 삶이 망가졌다고, 남의 삶도 망가지게 할 순 없어.”

평생을 잠에서 깨지 못하게 한다면, 아무도 구하지 못하는 곳에 가둬두면 결국 레사휘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걸까.

그 삶은 결국 어미가 떠나고 망가진 내 삶처럼 자의는 사라지고 타의만이 남은 삶일 뿐이다. 그것은 죽은 것과 진배없다.

휘아르의 시선을 피하며 등을 돌려 의자에 앉은 채 잠든 레사휘를 바라봤다.

레사휘.

그가 날 함부로 대하긴 하나 그는 성에 필요한 사람이었다.

아비가 쓰러지고 눈 여우가 나타나 어수선한 와중에 노아의 씨앗을 갖고 있다곤 하나 여자인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주 적었다. 그런 혼란을 수습하고 정리한 건 레사휘와 아벨린 경의 공이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매년 ‘눈 여우’를 죽이는 데 앞장서며 토벌대를 이끄는 것도, 기사들을 단련시키는 것도, 성의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주는 것도 모두 그였다. 비록 그는 오만하나 그만큼 힘과 용기가 있었고, 여자를 하찮게 보는 만큼 약하기에 자신이 나서서 지켜야 한다는 생각도 강하게 갖고 있었다.

더욱이 이 성은 자신의 누이인 나베란도 사는 곳.

그는 언제나 필사적으로 최선을 다해 지켰다. 다만, 문제는 우리가 서로에게 실망을 너무 이르게 했다는 거였다.

우리는 처음부터 어긋난 단추였다.

한순간에 가족을 잃은 내 곁에 머물렀으면서 보란 듯이 친혈육인 나베란을 살갑게 챙기는 레사휘가 싫었고, 여자이고 성장한 후에는 부부가 될 사이임에도 순종적이지도 살갑지도 않은 나를 레사휘는 억지로라도 제 뜻에 맞게 변하게 하려 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긴 시간 동안 서로를 사랑하지 않았다.

더욱이 그에게 여자란 남자에게 순종적이고, 보호받을 정도로 약해서 지켜줘야 하는 상대였지만 나는 그에 걸맞지 않았다. 나는 약한 게 싫었다. 할 수만 있다면 몸을 부숴서라도 지키고 싶었다. 거기다 어미가 사라지고부터 생긴 ‘눈 여우’로 인해 더 몸을 부숴야 했고, 눈물을 보이지 않는 만큼 나약한 모습도 보일 수 없었다.

이런 결과는 어쩌면 어릴 적 그가 내 베일을 함부로 벗기려 했을 때부터, 내가 그를 벌하기 위해 감옥에 가둔 때부터 예정되어 있던 건지도 모른다.

휘아르가 등 뒤에서 내 어깨를 살짝 안았다.

“아이샤, 네가 싫다면 나도 싫어. 널 괴롭게 하는 건 모두 없애고 싶어. 하지만 그렇다고 네가 원하지 않는 걸 억지로 하고 싶지 않아.”

너는 왜.

내가 무엇이라고 너는 내게 이럴까.

이전에는 그의 말이 듣기 싫었다. 어미와 같은 아시네헤의 일족. 사탕과도 같은 달콤한 말로 나를 속이는 거라 생각했다. 그리고 두려웠다.

나는 줄 것이 하나도 없는데 네가 바라는 것이 하나라도 있을까 두려웠다. 그리고 결국 원하는 것을 찾으면 한 줌의 감정도 남기지 않고 어미처럼 떠날 것 같았다.

아비처럼.

그 아비의 피를 이은 내가 아비처럼 될까 봐.

어깨를 감싸 안은 그의 손을 밀어내고 한걸음 물러서 몸을 돌렸다. 드물게 맑은 날씨에 응접실 창으로 햇살이 쏟아지자 그의 머리카락이 아름답게 빛났다.

비록, 피투성이이긴 하나 아름답다는 것은 변함이 없었다.

사슴의 형상일 때에도 휘아르는 아름다웠다. 아름다운 아시네헤의 일족. 그러나 감정이 메말라 절대 웃지 않는 일족.

그러나 그는 웃는다.

사랑을 속삭인다.

소중하다고, 함께 있어주겠노라고, 더는 다치지 않게 소중히 지켜주겠다고 그는 말한다.

“나를, 정말로 사랑해?”

어미조차 사랑하지 않은 나를.

사랑이라는 것과 가장 멀리 떨어진 나를.

그의 손을 밀어내고 떨어지자 의아함과 실망으로 어둡게 가라앉았던 눈동자가 내 말에 크게 부풀어 올랐다. 그리곤 한걸음에 내 앞으로 다가와 내 손을 붙잡았다. 자신에게 떨어지지 말라는 것처럼 잡힌 손이 아플 정도였다.

“아이샤.”

아시네헤 일족이 얼음이긴 하나 온기는 있다. 하지만 이건 온기가 아니었다. 붙잡힌 두 손이 뜨거웠다, 얼음이 녹을 것처럼. 이전에는 쉽게 손을 뺐다. 닿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 저 시선 앞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 나도 모르게 시선을 피했다.

“나를 봐. 나를 선택한다고 했잖아.”

그의 말에 한숨을 내쉬며 결국 눈을 맞췄다. 그러자 그가 빙긋 웃으며 천천히 베일을 잡아당겼다. 베일이 벗겨지면서 가로막혔던 시선이 온전하게 날 향했다. 그는 그대로 시선을 고정한 채, 붙잡은 손을 들어 손등에 입을 맞췄다.

“사랑해.”

“…”

“정말로 사랑하고 있어.”

그리곤 그가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환하게 웃더니 손을 잡아당겨 그대로 품으로 끌어안았다.

“사랑해. 사랑해, 아이샤.”

그가 말을 하면 할수록 망치로 가슴을 쾅쾅 내리찍는 것 같았다. 그는 이대로 함께 녹아내릴 듯이 힘껏 끌어안으며 귓가에 만족스러운 숨을 터뜨렸다.

“이제는 못 놔.”

귓가에, 볼에, 머리에 닿는 숨이 자꾸 속을 뭉툭한 뭔가로 비벼대는 것 같았다. 비벼진 곳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속이 답답해졌다. 그가 너무 세게 끌어안는 건지 저려서 힘이 잘 들어가지 않는다.

“네 입으로 말했어. 날 선택한다고. 이제 아무에게도 내 아가씨를 못 건드리게 할 거야. 더는 아프게 하지 않아. 내가 네 옆에 있을게. 그러니 아가씨가 싫다고 해도 이제는 안 돼. 절대로.”

맞닿은 가슴이 묵직하게 울렸다.

그가 그동안 내게 했던 말을 믿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아비와 어미 같은 그릇된 사랑도 있었지만, 이런 한결같은 것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어느새 색 없이 빛나던 햇살이 붉은빛을 띠며 그늘이 지기 시작했다. 발치에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가 검은 먹물처럼 짙어졌다.

그러나 그동안 단 한 명도 문을 두드리거나,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았다.

레사휘의 명령.

설사 자신이 이곳에서 비명을 내질러도 아무도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을 정도로 아무도 없었다.

새삼 화가 나지도, 슬프지도 않았다.

다른 이가 바라보는 내 위치는 이미 질릴 정도로 잘 알고 있다. 나는 성주인 아비의 딸이지만 그들 눈에는 아니었다. 위그노드에 저주를 내리게 한 아시네헤 자손의 딸. 아비에 대한 예를 갖춰 성에서 내쫓지 않는 걸 감사히 여겨야 하는, 제법 유용한 '노아의 씨앗’을 만드는 도구.

그리고.

새로운 성주의 반려.

나 역시 모르지 않다. 잘 알기에 받아들였고 그것을 운명이라 여기었다. 그들이 날 어떤 식으로 바라볼지라도 내게 이곳은 태어난 곳이자 터전이었고 고향이었고 소중한 이가 사는 집이었다.

집을 버릴 수 없다.

떠날 수도, 그럴 마음도 없다.

그러나 더는 운명이라 여기고 순응하고 싶지 않았다. 더는, 자신을 죽여가면서 살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와 그토록 지키려 한 집을 그리 쉽게 떠나버릴 수 없다. 절대 그러고 싶지 않았다.

이곳은 나의 집. 내가 일어서려는 것을 반대한다면, 그렇다면—

“아이샤, 정말로 마음을 바꾸지 않을 거야? 이제라도…”

말끝을 흐리는 그를 향해 고개를 젓자 그림자에 베일이 흔들렸다가 이내 어둠에 가렸다.

—집을 바꿀 수밖에.

“깨워.”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다 해주겠다는 그였지만, 아무래도 탐탁지 않기에 그는 머뭇거리고 주저했다. 그러나 내 생각은 변함이 없었다. 휘아르가 날 바라보는 것을 알면서도 바라보지 않았다. 내 시선은 맞은편에 앉은 레사휘를 향해 고정했다.

결국, 깊이 새어나오는 한숨 소리와 함께 손가락이 부딪쳤다.

그러자 곧, 레사휘가 정신을 차리며 눈을 떴다. 갑작스레 잠들어버린 터라 잠시 멍한 눈을 했으나 이내 나와 휘아르를 바라보는 시선이 날카로워졌다.

그가 빠르게 상황을 파악했다.

“또, 내가 잠들었던 거군. 거기다 이런 짓까지 당했는데도 깨지 않았다니, 믿을 수 없어.”

술에 취한 것도, 약을 먹은 것도, 어딘가를 맞아서 기절한 것도 아닌데 벌써 두 번이나 반복된 상황이었다. 그렇게 잠든 것도 모자라 인과응보처럼 휘아르를 묶었던 줄로 의자에 묶인 상태였다.

평소라면 기사인 만큼 예민한 기척을 알아차리는 그가 이렇게 몸을 묶는 동안 깨지 않았다는 것을 믿을 리가 없다. 그는 바보가 아니다.

레사휘의 시선은 정확히 내 뒤에 선 휘아르에게 향했다.

그 눈은,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었다.

우리와는 다른 것을 보는 눈.

“확실히. 너한테 뭔가가 있어.”

다만, 아시네헤의 일족이라 하기엔 모습도, 성격도 일치하지 않다. 더욱이 아시네헤에게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와 아시네헤의 자손이, 그것도 자의로 성에 머문다는 게 믿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확신이 부족할 뿐이지 그는 충분히 휘아르를 의심하고 있었다.

“레사휘.”

내 부름에 휘아르를 노려보던 그가 날 차게 바라봤다.

“뭐지?”

“앞으로 1년 뒤, 성인식을 치르더라도 나는 너와 혼인 하지 않겠어.”

“뭐?!”

머리보다 먼저 레사휘의 입에서 경악서린 말이 튀어나왔다. 그러나 이내 빠르게 놀란 얼굴을 지우며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이토록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은 감옥에 가뒀을 때 이후로 처음이었다.

“하! 그래서 날 묶은 거였어! 감히, 네가!”

그가 거칠게 소리치며 몸을 움직이자 함께 묶인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런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다시 입을 열었다.

“줄을 풀라면 풀 수도 있어. 내가 원하는 건 네가 내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방해받지 않고 다 듣는 거니까. 내 말을 듣겠어?”

“닥쳐! 네가 아무리 기고만장하게 굴어도 오래가지 못해. 너는 결국, 내 여자가 될 거니까.”

의자를 들썩이며 분노하는 레사휘의 말에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다. 그저, 다리에 무겁게 매달리던 것 중 하나가 풀어진 기분이었다. 그러나 그런 나와는 다르게 잇새 사이로 분을 삭는 소리가 등 뒤에서 났다.

하지만 등 뒤에서 그가 몸을 움직이지도, 목소리를 내지도 않았다. 내가 레사휘에게 전하는 말을 방해하지 않았다. 내가 바란 대로.

“그래, 예전에는 그랬지.”

“예전? 웃기는 소리 마. 지금도, 미래도 똑같아.”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젠 아냐. 나는 네 여자로 살지 않겠어.”

“허튼소리 하지 마. 그럼, 네가 나 말고 누구의 여자로 살 건데? 아아, 그랬군. 결국, 나보다 먼저 저놈에게 다리를 벌려줬어."

그가 말을 하다 말고 시선을 움직여 휘아르와 나를 번갈아 바라보더니 이내 비릿하게 웃으며 조롱했다. 상대할 가치도 없는 질 낮은 조롱이기에 말없이 바라보는 나 대신 결국, 참지 못한 휘아르가 바닥을 힘껏 걷어찼다.

순간, 그 소리에 죽이고 싶다고 말한 휘아르의 목소리가 생각났다.

당장에라도 창밖으로 내던지고 싶다고 했던 그 목소리가.

“함부로 떠들지 마. 너와는 달라.”

정욕에 눈이 벌게진 채로 날 침대에 내던져 누르지 않았다. 그는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기사처럼 손등에 입을 맞췄다.

그러나 레사휘는 코웃음 쳤다.

“달라? 아, 그래? 그 정도로 좋았다는 거야? 대체 얼마나 좋았길래 너 같은 얼음이 이런 짓까지 저지를까. 대단하군, 대단해. 어떻게 녹였지? 응? 그래서 너도 결국, 네 어미처럼 성을 나가겠다는 건가?”

“아니, 성은 나가지 않아.”

내 말에 크게 비웃던 그의 웃음소리가 기적처럼 멎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더더욱 차가워졌다. 부정을 저지른 여자를, 아니 더러운 것을 보는 눈초리였다.

“걸작이군. 차라리 이렇게 묶을 게 아니라 날 죽이지 그랬어? 그럼, 네가 바라는 대로 됐을 텐데. 어리석기는.”

“레사휘.”

“부르지 마, 더러우니까.”

“너는 착각하고 있어.”

몸을 일으켜 레사휘에게 다가갔다. 손을 들어 레사휘의 가슴을 밀자 의자에 묶인 채로 레사휘가 바닥으로 넘어졌다.

“이게 무슨 짓이야!”

“네가 아직도 제 위치를 모르니까.”

바닥에 쓰러진 그를 내려다보며 목소리에 힘을 줬다.

“이건 제안도 아니고 설득도 아냐. 이건 성의 주인으로서 하는 명령이다. 이 성의 주인은 네가 아냐. 네가 아무리 겨울 성의 혈통이라 할지라도, 이곳에서 거의 십 년 동안 살아왔다 할지라도 나는 너와 나베란을 내쫓을 수 있어. 지금 당장이라도 ‘눈 여우’로 무너진 영지로 돌아간다는 걸 말리지 않아.”

그가 이를 악물며 나를 노려봤다.

“해 봐. 누가 네 말을 따를지 어디 보자고.”

“따르지 않으면 따르게 해야지. 이 성의 주인은 나고, 너는 아니니까. 당장 노아의 씨앗이, 얼음 가시나무가 없어져야 정신을 차릴까?”

“…!”

그의 얼굴이 일순간 흐트러졌다. 그것이 얼마나 유용한 지는 기사인 그가 나보다 더 잘 알았다. 우리가 위그노드를 버리지 않고 이만큼 살 수 있었던 건 다 그것 덕분이었다.

겨울을 제외하고 사람을 죽이는 ‘눈 여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것.

그것은 그들이 하찮게 여기는 여자에게서 나온다.

“결국, 모두 죽자는 소리야?”

그가 정신을 차리며 날카롭게 물었다.

“그렇게 되길 바라지 않는다면 억지로 날 취하려 하지 마.”

“넌 못해! 그랬다면 진즉 그렇게 했겠지.”

“모두 죽게 할 수 없다면 하나는 죽게 할 수 있어. 가장 확실하게. 네 소중한 나베란을 잊지 마.”

버릴 수 없어 약점이 된다면 내게 그것은 아비가 물려준 이 성이었고, 레사휘에게는 피를 나눈 나베란이었다. 나베란의 이름이 나오자 그가 이때까지와는 사뭇 다른 얼굴을 했다.

경멸만이 가득했다.

“갈 때까지 같군. 고작 남자 때문에 그렇게 따르는 나베란도 버리겠다는 건가?”

“그래. 너도 하는 거, 나도 못할 거 없겠지. 날 만지지 마. 억지로 누르려도 하지 마. 또다시 그랬다간 나베란은 얼음 가시나무 저편으로 내쫓을 테니까.”

“넌, 할 수 없어,”

“해. 나베란은 네가 아니니까. 누군가의 반려도 아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저 여자. 내가 노아의 씨앗을 주지 않고 버티면서 나베란을 내쫓으라 명한다면 어느 누가 내 명을 거부할까?”

“하지 마!”

그제야 그의 오만으로 가득한 얼굴이 깨졌다. 절박함과 분노로 그가 몸을 비틀었으나 줄은 쉽사리 끊어지지 않았다.

“그런 짓은 하지 말라고!”

거세게 저항하는 그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나도 저랬겠구나.

물에라도 빠진 사람처럼.

“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를 이제 알겠어?”

그러나 그는 내 말을 묵살했었다.

“하지만 너도 그랬잖아? 하지 말라는 말을 남자들은 너무 쉽게 무시하니까.”

그 밤처럼.

그리고 오늘처럼.

“네가 바라는 게 뭐야?!”

“휘아르와 정정당당하게 반려의 자리를 놓고 겨뤄. 성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이제 와서 레사휘가 아닌, 휘아르와 혼인한다는 것을 누가 받아들이고 인정할까. 갑자기 나타난 겨울 성의 혈통. 사촌이라지만 성의 사람들이 레사휘를 제치고 받아들일 리 없다.

레사휘가 나와 혼인하지 않겠다고 할지라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나베란을 약점으로 잡아도 레사휘가 나와의 혼인을 쉽게 포기할 리 없다.

그는 그런 사내였다.

9년이나 봐왔으면서 날 설득하고 사랑하게 하는 것보다 손쉽게 몸을 취해 누르려 했던 것처럼.

“내가 이기면?”

그가 웃음기를 지우며 날 노려봤다.

“만일, 네가 이긴다면 순순히 혼인할 거야. 네가 바라는 대로.”

그가 잔인하게 입 꼬리를 올렸다. 제법 아름다운 그의 얼굴이 잔인하게 보였다. 그리고 그 속에 든 생각은 더 혐오스럽고 잔인할 거라는 걸 모르지 않았다.

“하지만 휘아르가 이긴다면 이번에 네 차례야. 내가 바라는 대로 해.”

“좋아. 네가 바라는 거? 저놈과 혼인한다는 거잖아?”

“하나 더.”

그와 눈을 마주쳤다.

“나베란을 이브실라로 보낼 거야.”

더는 이 차가운 땅에서 살지 않게.

그러자 그의 굳은 눈동자가 흔들렸다. 9년 전,‘눈 여우’에 의해 영지를 잃고 이 성에 의탁한 레사휘와 나베란. 레사휘에게 나베란은 단 하나의 가족이었다.

“그 애는 위그노드의 사람이야. 겨울 성의 혈통이라고.”

“알아. 그래서 내보내는 거야. 또다시 우리의 힘겨루기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그가 이를 악물었다.

“마음대로 해! 어차피 내가 이길 거니까. 이번에는 그냥 안 당해. 너나 저 녀석이 무슨 수를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번은 없어.”

그렇겠지.

고개를 끄덕였다.

“공정하게 서로 한 가지씩 겨룰 종목을 정해.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나베란 보고 정하라고 하겠어.”

그러자 레사휘가 미간을 찌푸렸다.

“여기서 왜 또 나베란이 나오지?”

“그 애가 가장 공정하니까.”

마샤는 날 사랑하지만, 뼛속까지 위그노드의 여자였다. 내가 언젠가 베일을 벗고 레사휘에게 순종하는, 그의 연약한 아내가 되길 바란다.

그래서 날 구해주지 않는다.

하지만 나베란은 다르다. 그날, 술에 취해 잠들어 실려가지 않았더라면 그녀는 내 비명을 듣고 누구보다도 먼저 뛰쳐나왔을 것이다. 아무리 레사휘를 좋아한대도 그녀에게 나도 레사휘와 같은 무게만큼 의미가 있었다.

그러니 이 성에서 그녀만큼 공정한 자가 없었다.

“이제 그만 풀어줘.”

잔뜩 얼굴이 굳은 휘아르가 내 말에 레사휘를 묶은 줄을 끊었다. 몸을 일으키자마자 레사휘가 풀어진 줄을 채찍처럼 휘둘렀다.

“윽!”

날 감싼 휘아르의 등을 매섭게 치고는 줄을 바닥에 내던졌다. 휘아르에게 안긴 채 레사휘를 노려봤다. 휘아르에게 휘둘렀으면 이리 쉽게 맞았을 리가 없다.

날 노리고 휘둘렀다.

그가 끔찍하게 웃었다.

“그래, 좋아. 겨루자고. 단, 시간과 장소는 내가 정하겠어. 저놈이 무슨 허튼짓을 벌일지 모르니까.”

그리곤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옷을 툭툭 털고는 뚜벅뚜벅 걸어 응접실 밖을 나갔다. 그의 등을 노려보며 휘아르의 팔을 붙잡았다.

“괜찮아?”

손을 뻗어 등을 매만지자 옷이 젖었는지 손이 축축했다. 황급히 손을 보자 역시나 손끝에 피가 묻어있었다. 아까처럼 쇠가 섞인 채찍도 아니었다. 세게 휘둘렀으나 옷 위로 단 한 번 맞은 거였다. 상처가 터졌다고 하기엔 아무리 상처가 깊어도 아시네헤 일족이기에 거의 다 나았었다.

“그 줄 때문인가?”

아시네헤 일족이 힘을 쓰지 못하게 하는 줄. 그런 것에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상처가 난 거였다. 우리에게는 고작 줄인데, 아시네헤 일족에게는 얼음을 내려찍는 쇠망치와 같았다.

“아가씨는?”

“…난 맞지 않았어. 오히려 네가 다쳤잖아.”

나 대신 다친 주제에 걱정스런 얼굴이라 순간 민망했다. 그러나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가 끌어안은 팔을 놓고는 양손으로 내 귀를 막았다. 이런다고 안 들릴 리가 없는데 그는 안타까운 얼굴을 했다.

“또, 약속 못 지켰어. 그런 소리 듣게 하기 싫었는데.”

한숨을 내쉬며 손을 들어 그의 손을 감쌌다.

“됐어.”

“꼭 이길게. 이겨서 더는 그런 소리 듣지 않게 해줄게.”

그가 그대로 몸을 부딪쳐 끌어안았다. 고개를 내 목에 묻자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다. 그래도 이상하게 싫지만은 않았다.

상처가 닿지 않게 조심스레 그의 등을 붙잡았다.

바느질 방에 들어가자 여자들이 숙덕이는 소리를 지우고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얌전한 눈으로 바느질하고 있었다.

그러나 은근슬쩍 날 바라보는 눈빛을 보아하니 그녀들은 어젯밤 내가 지른 소리로 이미 레사휘와 밤을 지새운 줄 알고 있는 눈이었다. 그리고 휘아르를 아벨린 경이 끌고 갔다는 이야기는 아이들을 통해 들었을 것이다.

“나베란은 어디에 있지?”

그녀들의 힐끗거리는 시선을 받아가며 나베란을 찾았으나 그녀는 어디에도 없었다.

“아침부터 보이지 않은 거 보니 방에 있는 것 같아요.”

“방에는 없어.”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던 내 방에도, 그녀의 방에도 나베란은 없었다.

“이제 곧 저녁 시간이니 식당에 간 건 아닐까요?”

“마샤 옆에도 없었어.”

바느질 방에 오기 전, 식당에 들려 마샤를 보고 오는 길이었다. 마샤의 걱정스러운 눈을 애써 무시하며 찾았지만 역시나 없었다. 성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재잘거리는 나베란의 목소리가 오늘은 없었다.

나베란의 행방에 모두 고개를 가로저었다. 정원으로 나간 건 아닐까 싶어 등을 돌리자 뒤에서 웃음이 터졌다.

“그러지 말고 아이샤 님. 레사휘 님에게 가보세요. 하나뿐인 오라버니가 돌아왔으니 같이 있는 건 아니에요?”

고개를 돌리자 여자 중 하나가 바느질감을 내려놓으며 의뭉스레 말했다. 지금 말한 여자뿐만이 아니었다. 마치 모두가 다 안다는 눈빛을 했다.

“맞아요, 아이샤 님. 이제 곧 오라버니가 혼인하니까 섭섭해서 바느질 방에도 안 나오고 온종일 곁에 있는 건지도 몰라요. 두 분은 사이가 좋으시니까. 오라버니를 빼앗긴다고 생각하실지도. 정말, 나베란 님은 귀엽게도 이럴 땐 애 같다니까.”

“맞아요, 맞아. 어릴 때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혼자 남겨져서 외롭다고 생각해서 어딘가에 틀어박힌 건지도 몰라요. 나베란 님이 옛날에 자주 그랬듯이…”

“그만!”

더 들어줄 수가 없어서 발을 한 번 구르며 그녀들의 말을 끊었다. 그러자 그녀들이 웃던 얼굴을 지우며 입을 다물었다.

나베란이었으면 조금 기분은 상하겠지만, 그저 웃고 지나갔을 이야기였을 것이다. 하지만 내 앞에서 할 말은 아니었다.

“나베란이 너희에게 격의 없이 군다 해도 주인의 혈족이다. 함부로 말하는 건 용서하지 않아.”

아니, 내 앞에서도 이 정도인데 그저 웃고 마는 나베란 앞에서는 더 했을 것이다. 친절과 충고라 가장했지만, 실상은 무시와 조롱에 가까운 말을 지껄였을지도 모른다.

그것이 듣는 이에게 상처인 줄도 모르고.

그저 웃고 가만히 있기에 정말로 즐거워하는 줄로 착각하고.

“죄…죄송합니다, 아이샤 님.”

“저희가 실언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이샤 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녀들의 얼굴을 매섭게 훑었다.

"오늘 일은 잊지 않고 두고 볼 거다. 겨울성의 일족이 다스리는 성에 살면서 그 잘난 세 치 혀를 어찌 사용하는지.”

고개를 숙인 그녀들의 머리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 이내 빠르게 밖으로 나갔다. 걸음을 빠르게 옮기자 베일이 흔들렸다.

정원으로 가는 계단을 내려가면서도 나베란이 보이지 않는다.

언제 안 보였냐는 것처럼 늘 곁에 있었다. 그런데 어제저녁 이후로 나베란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 레사휘가 무사히 돌아오길 빌고 또 빌던 그녀가 레사휘 옆에는커녕 성 안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

빠르게 걷던 걸음을 멈추고 입술을 깨물었다. 나야말로 악의조차 없는 말에 의미를 부여하며 괜스레 기분을 나쁘게 했다.

그저, 내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나베란이 있었더라면 왜 그러냐고. 심각한 상황도 웃으며 풀게 했을지도 모른다. 그녀들에게 악의는 없었다. 성의 남자들이 늘상 지껄이는 질 낮은 음담도, 조롱도 아니었다. 그저 정말로 나베란을 귀여워하며 하는 말일 수도 있었다. 발끈하며 쏘아붙일 일이 아니었다.

다시 계단을 내려갔다.

타박타박 발밑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게 꼭 나베란이 쉴 새 없이 재잘대는 소리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상, 그녀들에게 그런 말을 한 건 고작 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만은 아니었다.

나는 이제 레사휘와 혼인하지 않는다. 그 말은 곧, 레사휘가 성주가 되지 않는다는 말과 같았다. 그러면 나베란 역시 성주가 될 레사휘의 누이동생이 아닌, 그저 겨울성의 혈통일 뿐이다.

하지만 레사휘는 성을 지키는 기사고, 이제껏 혁혁한 공을 쌓은 남자였다. 성주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를 무시하거나 거역할 자는 없다.

그러나 나베란은 다르다.

제 오라비인 레사휘의 고집으로 나와 나이도 같으면서 이제껏 반려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그녀는 겨울 성의 혈통이지만, 실은 그녀를 지켜줄 든든한 양친도, 반려도 없는 성의 여자일 뿐이었다.

그래서 그녀를 함부로 대하는 듯한 말에 발끈했다. 이제 앞으로 레사휘와 혼인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그녀의 대우가 달라지길 바라지 않았다.

더욱이.

아무도 모르게 서랍에 넣어둔 서신을 머릿속에 떠올렸다가 빠르게 지워버렸다. 그러다 문득 고개를 들었다.

‘아무도 모르게…’

이제껏 내려가던 계단을 다시 올라갔다.

겨울이 오기 전에 안부 차, 성에 놀러 왔다가 갑자기 닥친 겨울과 ‘눈 여우’로 인해 레사휘와 나베란은 목숨은 부지했지만, 양친을 잃고 그들이 다스리던 위그노드 북쪽 영지를 ‘눈 여우'에게 내주게 되었다.

레사휘야 어릴 때부터 아비가 정한 약혼자이자 내 반려가 되어 성주가 될 이였다. 그는 슬펐지만, 이곳에 정착해 자신의 자리를 쌓아야 했다. 어릴 적 그에게 눈물은 사치일 정도였다.

그러나 나베란은 달랐다.

갑작스레 바뀐 환경과 갑작스레 죽은 양친.

어린 그녀가 감당하기엔 버거울 정도였다. 거기다 의지할 데라곤 하나뿐인 가족인 레사휘인데 그는 너무나 바빴다. 나 역시 갑작스레 바뀐 모습과 암울한 상황에 제 한 몸 지키기도 벅차 그녀를 신경 쓸 틈이 없었다.

오르고 올라 성의 꼭대기 탑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문 앞에 섰다.

여기까지 올라와 이 문을 열고 탑으로 가는 계단을 오르는 자는 오로지 나와 관측자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음식을 가져다주는 시종뿐이었다. 관측자들은 낮에는 하늘을, 밤에는 별을 보며 어지간하면 내려오지 않는다.

그래서 예전에 누구에게도 자신의 외로움을 들키고 싶어 하지 않던 그녀가 걸핏하면 이곳에 있었다.

아무도 모르게 홀로.

문을 열자, 역시나 어두운 공간에 주저앉아 있었다.

나베란이.

“나베란.”

어둠에 녹아들듯이 미동조차 없는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자 검은 인영이 부스스 몸을 움직였다.

“아이샤…”

설마하니 정말로 여기에 있을 줄은 몰랐다. 정말로 또다시 외로움을 느끼는 건가.

“왜 여기에 있지?”

“…그냥. 생각할 게 많아서.”

가까이 다가오지는 않고 애써 웃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그녀답지 않게 목소리는 한없이 우울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뭘?”

“아무것도 아냐. 그냥, 좀.”

순간, 바느질 방의 여자들 말이 생각났다. 오라비가 혼인하면 혼자 남겨질 것을 외로워할지도 모른다는 말이.

하루아침에 양친을 잃고, 단둘만 남은 오누이.

나에게 형제라고는 아비가 다른 샤하웨가 있었지만 나베란과 레사휘와는 달랐다. 그래서 그녀가 느끼는 감정을 이해할 수가 없지만, 여자들의 말처럼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레사휘와 혼인하는 거 때문에 그런 거라면…”

“아냐! 아냐, 아이샤. 그런 게 아냐.”

가까이 다가가자 나베란이 기겁하며 몸을 일으키더니 말을 끊었다. 다가오는 것을 피하는 태도에 걸음을 멈췄다.

“그런 게 아냐... 나는, 나는.”

갑자기 나베란이 울먹이듯 말하며 얼굴을 가렸다. 나베란이 울고 있었다. 옅은 한숨을 내쉬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러나 이내 내뱉는 그녀의 말에 걸음을 또다시 멈추고 말았다.

“나는…도망쳤어. 응접실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 차마. 차마!”

“…!”

“아이샤! 너를…나는, 너를…! 오, 오라버니가…!”

그녀가 결국 참지 못하고 무릎으로 걸어와 내 치맛자락을 붙잡았다. 절망과 고통으로 가득한 얼굴은 온통 젖어 있었다. 그녀가 숨을 몰아쉬며 입을 열었다.

“오라버니가 그럴 줄은 몰랐어. 어떻게 너한테…! 너한테 어떻게 그래?! 그런데 나는. 나는 봤으면서…아무것도 못 했어. 도망쳤어. 너를 두고…!”

감정이 격해지는지 붙잡힌 치맛자락이 세게 구겨졌다.

“나베란.”

“나는 그동안…! 왜 네가 오라버니를 싫어하는지 이유를…몰랐어! 정말이야. 정말로 몰랐어. 오라버니가 너를 그렇게…함부로…!”

목이 멘 나베란의 얼굴이 새빨갛게 물들었다. 숨이 넘어갈 듯 안간힘을 쓰며 말을 뱉었다.

“너를…도구처럼 대했어. 너는 도구가 아닌데!”

결국, 치맛자락을 놓친 나베란이 바닥에 엎드려 크게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바닥에 쓰러진 머리카락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오늘 왜 나베란이 보이지 않았는지 알겠다. 나베란이라면 분명 날 찾았을 거고, 아이들의 이야기까지 들었으니 응접실까지 왔을 것이다. 본래라면 그녀는 응접실에 들어오지 않는다. 하지만 오늘은 무슨 일인지 달랐다.

응접실의 문을 열고 레사휘가 내게 하려던 것을 봤다.

믿고 의지할 것이 남아있지 않은 나와는 다르게 나베란은 레사휘를 사랑했고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믿었다. 그녀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생전 처음 본 오라비의 흉포하고 잔인한 모습에 도저히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없었을 테니까.

“일어나, 나베란.”

“다 똑같아! 네가 그 안에서 그렇게 소리 질렀는데 아무도 문을 열지 않았어. 기사들이라는 자들이! 남자란 자들이!”

분을 삭이지 못한 그녀의 손가락이 바닥을 긁었다. 기기긱 소리와 함께 아름다운 손톱이 부서지는 것을 볼 수 없었다. 몸을 숙여 나베란의 양손을 붙잡았다.

“아무 일도 없었어.”

그러자 그 말에 나베란이 고개를 들었다. 믿을 수 없다는 눈이었다.

“정말로. 휘아르가 도와줘서 괜찮았어.”

나베란의 눈가를 붉게 적시며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후회하는 것 같았다. 도망친 자신을. 그녀는 휘아르 대신 자신이 직접 구하고 싶었다는 얼굴을 했다.

“…차라리.”

그녀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다.

“휘아르와 혼인해. 그 속에서 휘아르만 널 불렀어. 그러니 휘아르와 해. 휘아르는 너를 그렇게 대하지 않을 거니까.”

“너는 휘아르를 싫어했잖아.”

“지금도 싫어.”

나베란이 이를 악물며 답했다. 그리곤 붙잡힌 팔을 빼 얼굴을 닦았다. 아니, 얼굴을 가렸다.

“하지만 내가 너라면 혀를 깨물었을 거야. 창밖에 떨어졌을 거고, 얼음 가시나무를 넘었을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네가 그렇게 되는 것보단 나아.”

두 손으로 가리고도 흘러넘치는 눈물이 뚝뚝 턱 아래로 떨어져 차가운 바닥에 모였다. 그녀의 손과 턱,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눈물을 번갈아 바라봤다. 울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이렇게 차가운 얼음처럼 바라보는 것 말고.

“휘아르가 내게 청혼했어.”

얼굴을 가린 나베란의 손을 붙잡으며 말하자 그녀가 놀란 눈을 했다. 믿지 못하는 눈이었다. 그도 그럴게 휘아르는 예전에 나베란 앞에서 반려가 있어도 상관없다는 태도를 보였었다.

“언제? 오늘?”

“그래서 레사휘와 정정당당하게 겨룰 거야. 성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확실하게 이긴 사람과 혼인하기로 했어. 이건, 레사휘도 받아들인 거고. 그러니까 나베란.”

“…응. 응?”

눈코입이 모두 붉어진 얼굴로 나베란이 멍하니 있다 재차 입을 열었다. 설마하니 반려의 자리를 놓고 겨룰지는 예상하지 못한 얼굴이었다.

“그럴 거 없이 차라리 휘아르와…”

“이제껏 나와 혼인할 사람은 레사휘라고 뿌리 깊게 박힌 사람들이 휘아르를 인정할 리 없어. 그러니 이게 나아. 확실하게 모두가 인정할 수 있도록. 만일, 레사휘가 이긴다면 나는 두말 않고 그와 혼인할 거야.”

나베란의 얼굴이 잘게 일그러졌다.

“너는? 너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아이샤, 왜 너의 의사는 없는 건데?”

순진무구한 나베란.

여자의 의사는 아비의 선택에, 남편의 결정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인 위그노드에서 너만이 유일하게 내 마음을 묻는구나.

그러나 생각을 구태여 입 밖에 내뱉지는 않았다. 그저, 그녀의 말에 고개를 저으며 다시 입을 열었다.

“처음 대결은 레사휘가, 두 번째 대결은 휘아르가 종목을 정하기로 했어. 세 번째는 네가 정해.”

“내가…?”

그 순간, 나베란이 내 손을 역으로 붙잡았다.

“내가 만약! 잘못 하면 어떻게 해? 네가 그런 취급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하냐고.”

나베란의 눈동자가 두려움에 흔들렸다.

“그럴 리 없어.”

그녀의 손을 놓으며 몸을 일으켰다. 그러자 나베란이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날 올려봤다. 그녀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네가 이 성에서 가장 공정하니까.”

그 말에 그녀가 한참을 고개를 뒤로 젖힌 채 날 바라봤다. 베일에 가려 보이지 않을 텐데, 마치 휘아르처럼 베일 너머 가려진 눈동자를 보는 것 같았다.

“그럴 게. 가장 공정하게 네가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을 거야.”

그녀가 내 손을 붙잡고 일어섰다. 그러나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고 있었다. 애써 웃는 나베란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먼저 걸었다.

나베란.

나는 너를 이브실라에 보낼 거야.

너는 이런 차가운 땅에 어울리지 않으니까.

하물며.

태양의 땅도 결국 너를 불태우겠지.

그는 꼼꼼히 베일을 정리하는 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리고 그건 옆에 앉은 나베란 역시 마찬가지였다. 내가 평소보다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둘 역시 평소와는 달랐다. 누구보다도 말이 많은 저 둘이 입을 굳게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늘은 레사휘와의 혼약을 정식으로 파기하는 날이고, 적합한 절차로 반려를 정하겠다 공표할 날이었다.

그리고 휘아르를 정식으로 겨울 성의 일족으로 받아들겠다 말하는 날이었다.

“가기 전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자 기다렸다는 듯이 나베란이 입을 열었다. 그녀는 앞으로 두 손을 모아 기도하듯이 붙잡았다.

“아이샤, 사실대로 말해줘. 위그노드의 얼음처럼 아무런 더러움도 없이.”

그녀의 붙잡은 손이 작게 떨리고 있었다. 그것을 보며 속으로 작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네가 알고 싶은 걸 말해.”

나베란의 시선이 그제야 휘아르를 향했다.

“정말로 겨울성의 일족이야?”

이 세상에 푸른 눈을 가진 사람은 오로지 위그노드의 겨울 성 일족뿐이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살지라도, 돌연변이라 할지라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휘아르가 갑자기 나타나 성에 머물러도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진짜 겨울 성의 혈족이라면 그동안 아무도 알지 못하다가 이제 와 나타났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부모 모두 겨울 성의 일족이라면 태어나는 아이들은 모두 푸른 눈이지만 둘 중 하나만 일족이라면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푸른 눈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예외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나.

어미가 겨울 성의 일족이 아님에도 나는 푸른 눈을 타고 난 일족이었다. 그때는 아시네헤의 자손이 본디 얼음이기에 그러하다 생각했지만 이렇게 휘아르가 나타나자 겨울 성의 일족은 의심한다.

돌연변이일 수도 있고, 최악으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고.

레사휘라면 그리 생각하고 그리 물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베란은 다르다. 그녀는 정말로 순수하게 진실을 묻고 있었다.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제야 얼음처럼 굳어졌던 나베란의 얼굴이 활짝 폈다. 그리고 언제 말을 아꼈냐는 양 휘아르에게 다가가 시시콜콜 잔소리하기 시작했다.

“아니, 옷이 그게 뭐예요, 대체?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몰라요? 아이샤한테 망신 줄 일 있어요?!”

내내 하고 싶어서 어찌 참았나 싶을 정도로 나베란의 말은 쉴 새 없이 터져 나왔다.

“그 머리! 빗은 거 맞아요? 아, 진짜. 미치겠네. 한번 해충은 영원한 해충인 건가?”

나베란의 말에 그제야 얼음 같았던 휘아르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아, 그런가요?”

헤실 웃으며 기다란 손가락으로 머리를 정리했다. 그의 손가락에 의해 결 좋은 머리카락이 흔들렸다. 그러나 나베란의 눈에는 영 마뜩잖은 모양인지 빗을 손에 들었다.

“아이참! 그걸 지금 빗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리 와 봐요. 가만 놔두면 우리 아이샤를 보모로 만들겠네.”

“하하.”

언제 딱딱하게 굳었냐는 것처럼 원래의 여유롭고 나른한 얼굴로 돌아왔다. 평소에는 나베란이 저렇게 죽자사자 달려들면 무시하거나 에둘러 비꼬면서 같이 싸우기 마련이었는데 오늘은 달랐다.

아닌 척하지만 휘아르를 대하는 나베란의 태도가 달라져 있었다. 내가 휘아르를 선택한다고 한 그 순간부터 그녀는 자신의 마음은 내려놓고 내 선택을 존중했다.

더욱이, 그녀는 알아챘다,

“걱정 마세요. 아이샤가 싫어하는 짓은 안 할 테니까.”

휘아르가 날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그 말에 빗을 든 채 두피가 떨어져 나갈 것처럼 빗겨대던 나베란의 빗질이 얌전해졌다. 그녀의 손이 잘게 떨렸다.

“알아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무심히 말하려고 했지만 나도, 휘아르도 알 수 있었다. 그 말이 그녀에게 얼마나 무거운지를. 만년설이 얼어붙을 정도로 오랜 시간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을 삽시간에 녹여야 하는 일인지를.

“소중히 여길게요.”

휘아르의 머리를 빗겨주느라 나베란은 내게 등을 돌린 상태였다. 그래서 나베란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휘아르의 시선은 흔들림 없이 내게 향했다.

푸른 눈.

저 눈을 바라보면 나베란이 내게 왜 물었는지 알 것 같다. 같은 푸른 눈이라 할지라도 휘아르의 눈동자는 더 깊고 진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나베란은 다른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의 대결 역시 공정하게 종목을 정할 것이다.

그래서 말할 수가 없었다.

사람들은 나베란의 마음이 깊고 넓어 모든 것을 품어줄 수 있을 거라 여긴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성년도 치르지 않은 어린 아가씨일 뿐이었다. 그녀는 굳이 내 문제가 아니어도 참고 견뎌야 하는 일들이 많다.

이 이상 짐을 넘겨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왜 진작 레사휘에 대한 일을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그녀가 묻지 않았던 것처럼 나 역시 레사휘가 내게는 어떤 사람인지 말하지 않았다. 우리는 매우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매우 닮았다.

휘아르가 겨울 성의 일족도 아니며 사실 어미와 같은 아시네헤의 일족이라 한다면 그녀는 감당할 수 있을까. ‘눈 여우’에게서 부모를 모두 잃은 그녀가.

나조차도 끔찍이 여겼던 사실을.

“어머머머. 아직 반려 아니거든요? 그때까지 아이샤는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나는 벌써 아이샤의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길 수 있어요.”

조악스러운 빗질에도 아픈 줄 모르는 휘아르가 눈꼬리를 접으며 웃었다. 그 말에 나베란이 흥! 하고 콧김을 내뿜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으면서 자존감이 대단하시네요.”

“이길 거니까 걱정 말아요.”

“하, 걱정? 아니거든요? 내가 진짜 누굴 걱정한다는 거야. 우리 오라버니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요? 이렇게 비리비리해서 만약 못 이기면…”

“이겨요. 근데 슬슬 아파지는데... 아, 언제 이렇게 많이 빠졌지.”

휘아르가 결국 나베란의 손에 든 빗을 뺏었다. 그러나 빗살에 가득 매달린 머리카락을 보며 힘없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자 나베란이 민망한 듯 고개를 저었다. 휘아르가 워낙에 아픔에 둔감한 탓에 자신 역시 조금 놀란 모양이었다.

“세, 세 번째를 내가 정한다고 이제 와서 나한테 잘 보일 생각하지 마요.”

“언제요? 잘 보인 적 없는데요?”

빗을 뒤로 던지며 휘아르가 비죽 입을 내밀었다.

“나는 그저 아이샤가 바라는 대로 하는 것뿐이에요. 아이샤가 당신을 소중히 여기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그 말에 나베란의 귓가가 붉게 달아오른 게 뒤에서도 보였다. 휘아르가 미묘한 표정을 지으며 내게 다가오려고 한순간—

“그럼, 이겨요.”

나베란이 휘아르를 붙잡았다.

“성의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정도로 확실하게. 두 번 다시 아이샤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게 똑바로 하라고요.”

그러자 오롯이 날 향하던 휘아르의 시선이 나를 벗어나 나베란에게 향했다.

“나는 누구의 편도 들지 않을 거니까. 오로지 아이샤가 행복해지는 방법만을 찾을 거니까. 그러려면 최선을 다해요. 말뿐이 아니라는 걸 보여 달라고요.”

“이길 거예요.”

나른한 웃음도, 느긋한 표정도 더는 휘아르에게 남아 있지 않았다.

“반드시.”

“그럼, 약속해요.”

나베란이 고개를 돌려 뒤에 선 나를 한 번 보고는 다시 휘아르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 마음 절대 변하지 않겠다고.”

사람을 뒤에 두고 너무 많은 말을 하는 것 같아 그만두게 하려고 나베란을 부르려 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나베란의 말이 빨랐다.

“남자라고, 성의 주인이라고 제 욕심부려서 상처 주지 않고 정말로 아껴주겠다고. 마음이 변해서 사라지지도, 먼저 죽지도 않고 언제까지나 곁에 있겠다고.”

담담하게 내뱉는 나베란의 말에 그만,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자기 오라비의 일을 말하고.

날 두고 떠난 내 어미의 일을 말하고.

‘눈 여우’에 의해 죽은 자신의 양친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웃음이 많은 것만큼이나 눈물이 많은 그녀답게 차라리 울면서 그리 말했으면 아무렇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휘아르의 눈동자가 나를 향했다.

언뜻 그 속에 금색으로 빛나는 것이 보이는 것만 같았다. 그는 나를 보고는 이내 다시 나베란에게 시선을 내렸다.

“약속할게요.”

그제야 휘아르를 붙잡은 나베란이 손을 뗐다.

“그럼, 내가 증인할게요.”

그리고 익숙하게 그녀는 내게 다가와 내 손을 붙잡았다.

“내가 당신이 겨울 성의 일족이라는 것에 증인하겠어요. 그러니 오라버니에게 지지 말아요. 휘아르.”

내 손을 붙잡은 나베란의 손은 땀으로 축축했다. 그러나 그 손을 떼어내지 않았다.

예상했던 대로 원탁에 앉은 이들은 누구 하나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말을 잃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그들은 마치 나라를 망하게 한 원수라도 보는 것처럼 고함을 지르며 몸을 일으켰다.

거칠게 일어서느라 뒤로 넘어지는 의자 소리가 요란했다. 그러자 레사휘가 그것 보라는 식의 눈빛을 하며 옆에 앉은 채 여유롭게 감상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오만한 얼굴을 보며 내심 안도했다.

나베란이 이 모습을 안 보는 것을.

아까 나베란은 증인을 서겠다며 응접실에 들어오려 했지만 레사휘가 거칠게 거부하는 통에 들어올 수 없었다.

그래서 다행이었다.

마음 깊숙한 곳에는 아직도 레사휘를 믿는 나베란이 어리석지만, 그것이 형제이기에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란 걸 안다.

더욱이, 지금 이렇게 꽥꽥 소리 지르는 자들은 기사가 아니고 이브실라의 창녀촌에 머무는 술주정뱅이들과 다를 바 없었다.

거센 반향(反響)이 응접실 안에 쏟아졌다. 그리고 그것 중 하나가 가장 새되고 목소리 높게 날 향했다.

“약혼을 깨겠다니! 기어이 성주님의 말씀을 거역하실 겁니까?”

그들의 수장, 레사휘의 열렬한 지지자인 아벨린 경이 가느다란 입술을 비뚜름하게 한 채 날 노려봤다. 부정을 저지른 더럽고 요사스러운 것이라도 보는 눈이었다. 하지만 아비가 쓰러진 뒤로 숱하게 그런 눈빛을 받아왔기에 새삼 두려울 것도, 화가 날 것도 없었다.

그저 지겨울 따름이라 시선을 찻잔으로 옮겼다.

“저는 단, 한 번도 거역한 적 없습니다.”

“지금 이런 짓을 저지르고도? 겨울 성의 일족인지도 확실치 않은 자를 반려로 내세우겠다고 하면서요?”

“이미 레사휘와 정한 일. 또 한 번 더 설명해야 알아듣겠습니까?”

레사휘가 너무나도 쉽게 그러자 했을 때부터 예상했다. 그는 휘아르와의 대결에서 이길 자신도 충분했지만 내가 이렇게 공식으로 말을 내뱉을 시 퍼질 파장도 예상했기에 순순히 약속한 것이었다.

네까짓 게 벗어나려고 발버둥 쳐도 절대 못 벗어난다고 상황으로 돌려서 보여주고 있었다.

“정말 미친 겁니까? 네? 제정신입니까? 내 언젠가 아가씨가 이렇게 일을 그르칠 날이 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지난 몇 년간 요사스런 어미와는 다르게 제법 버틴다 생각했는데. 젠장할, 역시 피는 못 속이는 법이지.”

그가 대놓고 혀를 차며 조롱했다. 그의 멸시가 가득한 시선을 받으며 손에 쥔 찻잔을 내려놨다. 부딪쳐 소란스러운 것은 모두 다 남자들이 만든 얼음이라는 말처럼 제각각 떠드는 소리에 찻잔에 금이라도 갈 것 같았다.

“경의 말대로 피는 못 속이는 법입니다.”

손가락으로 찻잔을 어루만지며 태연하게 이어 말했다.

“그래서 이러는 겁니다.”

“하,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가 어이없는 숨을 내쉬며 말했다. 메아리치듯 서 있는 자들 몇몇이 따라 웃었다. 옆에 앉은 레사휘 역시 다르지 않았다. 이를 드러내지 않을 뿐, 그의 시선은 조롱으로 가득했다.

고개를 들었다.

한심하게 이를 드러내며 웃는 자들에게 눈조차 돌리지 않고 똑바로 바로 앞에 선, 아벨린 경을 바라봤다.

“나는 내 아버지처럼 잡아서 가둘 줄만 알지 내가 갇히는 건 못하겠거든요. 그렇게 살고 싶지도, 그렇게 참기도 싫습니다. 대체 왜 그래야 하는 거죠?”

“이 위그노드에서는 모든 여자가 그렇게…!”

찻잔이 벽에 부딪쳐 깨지는 요란한 소리에 아벨린 경의 말이 잘렸다. 내가 아벨린 경을 향해 내던진 찻잔이었다. 처음부터 아벨린 경을 맞추고자 던진 게 아니기에 깨진 찻잔은 바닥을 나뒹굴었다. 그러자 깨질듯이 부딪치며 소리를 내던 기사들이 겨울이라도 본 것처럼 얼어붙었다.

“그래서 이렇게 깨겠다는 말입니다. 이제 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시선을 내려 아벨린 경이 아닌, 레사휘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푸른 눈이 차게 날 노려봤으나 입을 열지는 않았다. 다시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는 시선들을 훑었다.

성주의 딸이자, 성의 대리인이라지만 남자들의 공간인 응접실에서 내가 이렇게 행동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얼굴들이었다.

그것도 하물며 여자가.

“감히, 여자 주제에!”

거센 비난에 가만히 있겠다고 약속한 휘아르마저 악에 받친 아벨린 경의 목소리에 몸을 움찔했다. 얼마나 아득바득 참고 있는 건지, 잔뜩 힘을 쥔 손이 원탁 위에서 새하얗게 질렸다. 정작 나는 아무렇지 않은데 약속에 묶여 바닥만을 노려보는 그가 가엾었다.

보면 못 참겠다고 휘아르는 말했고 나는 그럼 나가라고 말했다.

휘아르는 그럴 수 없다 말했고 나는 그럼 그들을 바라보지 말라고 말했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된다고.

그래서 그는 이를 악물며 버티고 있었다.

“아무리 아가씨가 성의 대리인이라 해도 분수라는 게 있습니다. 감히 남자들의 위에 서려 하십니까?!”

“처음부터!”

고저 없이 일정하던 목소리에 힘을 주며 의도적으로 말을 멈췄다. 그리고 날 바라보는 자들을 바라봤다.

“나는 여자이기 이전에 그대들의 주인이었고, 이미 그대들의 머리 위에 있었습니다. 전자는 내가 아버지의 하나뿐인 자식이기에 그런 것이고, 후자는 영지를 지키는 노아의 씨앗이 내 것이기에 그런 것입니다.”

“그 노아의 씨앗도 그냥 지켜주는 줄 아십니까?”

“그럼 지금 당장 얼음 가시나무 밖으로 나가세요. 말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떠나지 않겠다면, 명예를 보이세요.”

그러자 아벨린 경이 배를 붙잡고 크게 비웃었다.

“명예? 어떤 명예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그노드의 주인에게 한 맹세. 그대들이 원탁에 앉기 전 나눈 맹세를 잊으신 겁니까?”

거세게 몸을 돌리자 베일이 흔들렸다. 살짝 드러난 턱을 매섭게 굳히며 원탁에 앉은 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인트 경을 바라봤다.

“인트 경, 무엇을 맹세하셨습니까?”

“저는…”

원탁의 기사가 된 지 얼마 안 된 그는 내 말에 말끝을 흐리며 머뭇거렸다. 최연소로 원탁의 기사가 되었지만, 그는 아직, 성인식도 치르지 않은 열다섯의 소년일 뿐이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를 향했다.

아벨린 경이 짜증스런 욕지거리를 내뱉었고, 몇몇 기사들이 그를 향해 야유를 퍼부었다. 그러나 내 시선은 오로지 그를 향해 있었다.

“무엇을 맹세하셨습니까?”

재차 묻는 말에 그가 당황하며 눈을 질끈 감았다. 소년의 얼굴이 발갛게 물들었다. 그가 생각하는 바를 모르지 않다. 차라리 내가 남자였다면 이런 일도 없을 거라 생각하겠지. 하지만 나는 여자였고 일은 이미 눈앞에 벌어졌다.

“인트 경.”

“저는…”

비록 내가 주인이되 여자였고, 뒤에는 자신들의 수장인 아벨린 경이 눈을 시뻘겋게 뜬 채 바라보고 있었다.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건 안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시선을 떼지 않았다.

몇 번이나 입을 달싹여 머뭇거리던 그가 눈을 다시 떴다. 마음을 정했는지 감았을 때와는 확연하게 달랐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주먹으로 가슴을 내리누르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저는, 겨울 성의 주인에게 목숨을 다해 충성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른 기사들의 야유를 묻히게 할 만큼 컸다.

비록 많은 기사들이 겨울에 의해 죽고, ‘눈 여우’로 인해 원탁의 기사 자리가 비어있었다고 하나 운 때문에 얻은 자리가 아니었다. 비록 아직 어리고 수줍음이 많아 다른 기사들에게 무시와 조롱을 받지만, 그가 가진 가히 천부적인 재능과 실력으로 내가 추천했고 스스로 쟁취했다.

그의 옆에 앉은 린드 경에게 시선을 돌렸다.

“린드 경. 그대는 원탁에 앉기 전 무슨 맹세를 하셨습니까?”

아벨린 경이 아비의 오른쪽에 섰다면 린드 경은 왼쪽에 서서 성을 지켰다. 아벨린 경이 성 밖으로 나가 싸우면 그는 성 안의 사람들을 지키며 싸웠고 오른쪽에 섰던 친우와는 다르게 아비의 하나뿐인 딸에게 충성했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의자에서 일어나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겨울 성의 주인을 목숨을 다해 지키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세이 경. 그대는 원탁에 앉기 전 무슨 맹세를 하셨습니까?”

“겨울 성의 주인을 위협하는 적에게 망설임 없이 검을 들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그의 동생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들의 반대편에 위치한 원탁에 앉았다가 거세게 반발하며 일어난 자들에게 시선을 돌렸다.

“노어 경. 맹세를 어길 시 어떻게 한다고 맹세하셨습니까?”

갑작스럽게 마주치는 시선과 몰아치는 질문이 다른 사람과 다르자 그가 당황으로 얼굴을 붉게 물들였다. 아무리 나를 몰아붙이는 형세의 자리라 해도 그의 위치상 아벨린 경처럼 대놓고 나를 무시할 수는 없었다.

“기, 기사의 명예를 잃은 자. 살기 위해 비, 비겁하게 도망치거나…”

그가 답지 않게 말을 더듬었다.

“크게 말하세요.”

“…주인의 검에 목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그럼, 레만 경.”

노어 경의 옆에 선 그가 부르는 소리에 나를 매섭게 노려봤다. 가뜩이나 저번에 채찍질한 뒤 성에 매달리게 한 벌을 준 뒤로 그는 더욱더 나에게 날을 갈았다.

“아가씨는 제 주인이 아닙니다!”

순간, 시끄럽게 떠들던 얼음들이 모두 녹은 것처럼 말문을 닫았다. 그건 심지어 날 조롱하던 아벨린 경 역시 매한가지였다.

손을 들어 레만 경을 가리켰다.

“세이 경. 주인을 못 알아보는 적의 목을 베세요.”

내 말에 세이 경이 허리춤에 찬 검을 빼 들어 레만 경에게 다가갔다.

“그만!”

참지 못한 레사휘가 의자를 거세게 박차고 일어섰다. 그리고 억세게 내 팔을 붙잡았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 우리가 한 약속대로 대결 종목을 정하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 겨루면 끝이라고.”

붙잡힌 팔을 차게 쳐냈다.

“그게 정말 끝일까?”

레사휘를 노려보며 말을 이었다.

“주인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앞에서 겨룬다고? 그럼 과연 누가 결과에 승복할 거지? 난 정정당당한 결과를 원해.

레사휘, 너는 착각하고 있어. 우리가 약속한 반려를 정하는 대결이 그저 꼬마들의 대장놀이인 줄 알아? 겨울 성의 주인을 결정하는 자리라고. 그런데 싸움도 시작하기도 전에 주인도 못 알아보는 멍청한 개를 데리고 하라는 거야?”

세이에게 걷어차여 억지로 무릎을 꿇은 채 목에 검이 겨누어진 레만을 노려봤다.

“레사휘가 나와의 약속대로 혼약을 깨든, 안 깨든 성의 주인은 내 아버지고, 그 병든 아버지를 대신한 주인이 바로 나다, 레만. 이 성에서 서른 해가 넘게 살아왔으면서도 모른다면 앞으로 서른 해가 더 지난다 해도 모르겠지. 그런 자를 내 성에 둘 수 없다.

노어 경, 다시 말해라. 기사의 맹세를 어길 시 어떻게 한다고?”

레만의 옆에 선 노어를 부르자 그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어느새 내 말투는 고압적으로 변해있었지만 아무도 지적하지 않았다.

“무, 무례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가씨!”

“아벨린 경.”

소리 높여 지저귀던 독수리가 입을 다무는 게 아이러니했다. 그러나 그는 입만 닫았을 뿐이지 번뜩이는 눈으로 날 노려보고 있었다.

“그대는 뭐라 맹세했지?”

그가 이를 악물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부터 레사휘도 날 막을 수 없다. 약혼을 깬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내 반려가 아니었고 겨울 성의 차기 주인도 아니었다. 그저 기사이자 겨울 성의 혈통. 내 사촌일 뿐이다.

성의 대리자인 나보다 높은 자는 지금 이 자리에 없다. 그리고 그건 레사휘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다.

“평생토록…겨울 성의 주인과”

잔뜩 독기가 서린 눈으로 날 노려보며 그가 한마디씩 내뱉으며 무릎을 꿇었다.

“그 일족을, 지키기로 맹세했습니다.”

“그 맹세 잊지 않도록.”

뼈가 바스러질 것처럼 쥔 휘아르의 손을 붙잡아 일으켰다.

“겨울 성 주인의 이름으로.”

휘아르의 시선이 나에게 닿았다.

“앞으로 휘아르를 겨울 성의 일족이 아니라며 음해하는 자들을 처단하고 벌을 줄 것이며, 레사휘와 함께 반려의 자리를 겨룰 수 있는 자격을 준다. 푸른 눈이 말해주듯이 그는 확실한 겨울 성의 혈통이니까.”

내 말에 모두가 무릎을 굽히고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휘아르가 말없이 날 바라봤다.

이것이 비록 대결에서 지게 된 순간 사라져버릴 신기루 같은 평화일지라도 지금 이 순간, 눈이 녹아 호수가 된 것처럼 마음이 한없이 잔잔했다.

그래, 너는 어느 곳에서도 아름답지.

그래서 나는 아득한 마지막을 떠올린다.

그 순간에도 네가 아름다울까 봐.

응접실에 단둘이 남게 되자, 그는 허기라도 진 사람처럼 허겁지겁 품 안으로 붙잡아 끌어안았다. 살갗을 파고들 정도로 새하얗게 질렸던 손으로 가슴이 짓눌릴 만큼 등을 감쌌다. 그러는 바람에 눌림 가슴이 답답할 정도였다.

그러나 밀어낼 수가 없었다.

끌어안긴 채 맞닿은 가슴이 겨울의 눈보라에 휘말린 것처럼 와들와들 떨고 있었다. 마치 처음 빛이라도 본 사람처럼 그는 필사적으로 날 안아도 부족하다는 것처럼 힘을 줬다.

“아이샤…”

그가 내 목에 고개를 파묻고 나서야 겨우 숨을 내쉬듯 내 이름을 불렀다.

“…”

평소와는 달랐다. 귓가에 선명하게 들리는, 분명하게 들리는 내 이름인데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기분이 이상했다.

“아이샤…”

연거푸 부르는 목소리는 마치 마법 같았다. 그가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오목하게 들어간 가슴 중앙이 마구 아려서 혹여 부서지지는 않을까 덜컥 겁이 날 정도였다. 목에 닿은 그의 숨결이 평소처럼 차갑지 않았다.

열병에라도 걸린 것처럼 더웠다.

그리고 그 순간, 그가 내 목에 입을 맞췄다.

“…!”

와르르 가슴 중앙의 뭔가가 무너진다. 참을 수 없어 손을 뻗어 그의 가슴을 세게 밀어냈다. 처음이 아니었는데 그때와는 달랐다.

뭔가가, 참을 수가 없었다.

“아이샤.”

그의 입술이 닿았던 목을 한 손으로 누르며 고개를 내저었다. 그러나 휘아르가 다가와 베일을 잡아당겼다.

“아.”

베일을 잡아당기느라 슬쩍 손이 닿은 볼이 뜨거웠다. 베일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그가 내 손을 붙잡았다. 힘이 잔뜩 들어간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뿌리칠 수가 없었다. 어찌하지 못하고 고개를 내리자 그가 간질이듯 손가락으로 볼과 턱을 매만지더니 자신을 바라보도록 들어 올렸다.

“아이샤.”

또다.

그가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가슴 중앙의 안쪽이 아린다. 콕콕 쑤시다가, 뭉툭한 뭔가가 은근히 비벼지는 것 같아서 붙잡힌 손을 빼내어 문지르고 싶었다.

참을 수 없어 입술을 깨물었다.

“상처 내지 마.”

가늘지만, 남자다운 커다란 손이 살살 달래듯 깨문 입술을 문질렀다. 마치 뭔가를 바라는 것처럼 반복되는 행동에 저번 일이 떠올랐다. 아무래도 여기서 멈춰야 할 것 같아서 얼굴을 굳히며 그를 향해 입을 열었다.

겨울 성의 일족이라기엔 짙은 푸른색의 눈동자가 미소조차 지운 채 날 보고 있었다. 그의 저런 얼굴은 낯설었다. 더군다나 그의 눈에 오롯이 담긴 내가 부담스럽고 무거워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이내 그의 행동으로 인해 숨이 멎을 만큼 놀랐다.

벌어진 틈으로 들어간 손가락이 혀에 닿았다. 겨우 정신을 차리며 입을 다물기도 전에 그가 손을 빼내었다. 그리고 그 손가락을 자신의 입에 집어넣었다. 은근하게 핥는 눈빛이 몸을 감싸는 것 같았다.

그의 시선이 날 향하자 평소처럼 움직이고 말할 수 없었다. 사냥당한 짐승처럼 그저 숨을 몰아쉬었다.

내가 피하지 않자 그가 손을 뻗어 볼을 감쌌다.

“뺏기지 않아.”

고개를 숙여 입을 맞췄다. 전과는 달랐다. 입술이 닿은 채로 그가 혀로 핥으며 쓸어내렸다. 이런 입맞춤을 받은 적은 없었다. 입술이 떨어져도 놀라 얼음처럼 굳었다.

“무조건 이겨. 너를 뺏기지 않을 거야.”

다짐이라도 하듯이.

그는 혼란스러워하는 내 눈가와 볼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그러니 무서워하지 마, 아이샤. 나는 널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

그가 멋쩍게 웃으며 나에게서 손을 뗐다.

마치, 조금 전에 했던 행위가 모두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처럼. 그러나 날 바라보는 그의 눈은 짙었다.

내가 빤히 바라보자 그가 당황하며 눈을 손바닥으로 가렸다.

“안 돼, 보지 마. 지금은 안 돼.”

뭔가를 염려하는 것처럼 그가 눈을 가리자 순간 속에 짜증이 났다. 웃지도 못하는 얼음이되, 아직 완전하게 언 얼음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얼음과 가장 가까운 나였다.

이렇게 불처럼 이는 감정이 생소했다.

손을 뻗었다. 닮았는데 이상하게 계속 보고 싶었다. 눈을 가린 휘아르의 손목을 붙잡자 그가 한숨을 내쉬었다.

“왜?”

“너는 그만큼…”

그가 눈을 가린 채 머뭇거리며 말끝을 흐렸다. 그의 손을 붙잡아 아래로 내렸다.

“…”

눈앞에 드러난 눈동자는 더는 청명한 푸른색이, 어느 때고 깨끗하기만 한 색이 아니었다.

금색으로 빛나는 눈동자가 더는 감정을 속이지 못하고 오롯이 내비치며 날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본능.

안에 숨겨진 내면을 내비치는 눈동자.

이전엔 쉽게 알아채지 못하는 게 당연했다. 혼혈이기에 바꿀 수 있는 눈동자 색이지만 본래의 색은 금색이었다. 푸른 색은 진실이되 위장이었다. 마법을 쓸 때도 나타나는 금색 눈동자는 본래의 모습이기에 감정까지 감출 수 없었다.

“…참지 못하게 하니까.”

그가 하려다 머뭇거린 말이었다. 금빛으로 빛나는 눈동자가 빼곡하게 날 담으며 말했다. 왜 감추려 했는지 알겠다.

저 눈은, 레사휘의 눈과 닮았다.

사내의 눈.

내가 그가 숨기려 한 본성을 들추었다.

“널 갖고 싶으니까.”

여자를 갖고자 하는 눈빛이었다. 내가 불에라도 덴 듯 손을 떼자 그가 그런 눈빛을 지우며 처량한 표정을 지었다.

“이럴까 봐 감춘 거야.”

탓하는 말투와는 다르게 그가 미안하다는 태도로 무릎을 굽혀 몸을 낮췄다. 내가 자신을 바라보는 게 편하도록. 위가 아닌 아래로.

그리고 눈동자 색도 어느새 푸른색으로 돌아와 있었다.

“네가 싫다고 하면 안 해.”

그가 진심을 담아 말한다.

그 목소리에 뭉근하게 가슴이 아린다. 손으로 오목하게 파인 가슴의 가운데를 내리눌렀다. 그래도 뭔가 답답하고 아프다.

그의 눈을 보며 다른 쪽 손을 뻗었다.

몸을 낮춰서 쉽게 얼굴에 손이 닿았다. 가슴 안쪽이 뻐근하다. 그런데 싫지 않다. 내 손길에 그가 눈을 나른하게 한 채 날 바라봤다.

긴 속눈썹을 매만지다가 날렵한 콧대에 손가락이 슬쩍 닿자 그가 설핏 웃었다. 눈꼬리가 새의 꽁지깃처럼 휘었다. 오른쪽 볼을 쓸어내리며 왼쪽 볼로 넘어가려 하자 그 아래에 자리한 입술에 손가락이 닿았다.

손가락에 그가 입 맞췄다.

더는 웃음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가 침음성을 삼키며 날 바라봤다.

그의 눈동자가 금색으로 변했다고 생각한 순간, 그가 단숨에 허리를 끌어안아 품 안으로 감쌌다. 그가 굶주린 사람처럼 입술을 허겁지겁 닿으며 집어삼키듯이 입을 맞췄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처럼 입술을 깨물며 벌어진 틈으로 혀를 집어넣었다.

“…읏!”

당황해 고개를 움직이려 하자 그가 한 손으로 볼과 턱을 감싸 벗어나지 못하도록 했다. 온전하게 그에게 닿게 했다. 맞닿은 가슴이 아리는 것을 넘어 팽창할 것처럼 부풀어 올랐다. 그의 숨결이 입안에 가득 차올랐다.

숨이 차고 답답해 세차게 그를 밀어냈으나 그는 결코 피하게 두지 않았다. 잠깐씩 입술이 떨어질 때마다 숨을 불어 넣었다. 그리곤 이내 언제 떨어졌냐는 것처럼 멋대로 들어온 혀가 몇 번이나 입안을 탐하고 또 탐했다.

맞닿은 입술이 떨어지고 그가 위에서 날 내려 봤다.

언제부터인지 알 수도 없을 만큼 몰아붙인 탓에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이미 응접실의 카펫 위에 누운 채였다. 거기다 휘아르가 내 몸 위에 타고 올라가 있었다.

“…”

겨우 흐릿한 눈을 반듯하게 뜨자, 그가 얼굴을 붉게 물든 채 당황했다. 새하얀 눈과도 같은 얼굴이 붉어지는 게 신기할 정도였다.

“내가…!”

그가 다급히 몸을 일으켰다. 그리곤 잔뜩 젖은 입술 주변을 소맷자락으로 다급히 닦아냈다. 눈앞에 보이는 그의 입술이 그가 심장을 꿰뚫어 만든 진짜 노아의 씨앗만큼이나 붉었다.

“아이샤?”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누워있기만 하자 휘아르가 놀라 날 불렀다. 뭉근하게 비벼지는 통증에 숨을 내뱉었다.

신기하게도 입 밖으로 내쉰 숨이 더웠다.

그의 열기가 입안으로 옮아간 것처럼.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너는 이런 거 원하지 않을 텐데. 내가, 내가 미쳤어. 미친놈이야. 너무 좋아서…으, 아냐. 내가 발정 난 미친놈이야. 날 때려. 응? 걷어차도 돼. 발로 차. 밟아.”

“…않았어.”

“응?”

가슴이 더욱더 저릿하다.

이러다 안에 든 얼음이 깨질 정도로.

화를 내지도, 때리지도 않고 묵묵히 바닥에 누워 있는 날 휘아르가 의아한 눈으로 바라봤다. 그의 시선에 슬그머니 눈을 피했다.

“싫지 않았어.”

“…”

그가 믿지 못하겠는지 말이 없었다. 하지만 사실이었다. 레사휘와는 달랐다. 싫지 않았다. 오히려, 뭉근하게 비벼지는 통증이 실은 쾌감이라는 것을 알아챌 정도로.

끌어안는 손도, 맞닿은 입술도 싫지 않았다.

“…정말로?”

그가 조심스레 카펫 위에 흐트러진 내 머리카락을 쓸어내리며 물었다. 시선을 돌리자 그가 날 바라보고 있었다.

저 눈 앞에서 거짓을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

내 대답에 그가 손을 뻗어 내 머리카락을 붙잡아 입을 맞췄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부풀어 오른 입술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미친놈이어도 좋아.”

대답 대신 눈만을 바라봤다.

“너를 갖고 싶어.”

이제껏 수도 없이 말했던 말이 아닌, 사내로서의 욕망을 담은 말이었다. 덜컥 겁이 날 정도로 휘아르의 눈빛은 진지했고 날 원하고 있었다.

그 눈빛에 겁이 나 눈을 피하자 그가 작게 웃음소리를 냈다. 완곡한 거절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는 안타까운 손길로 내 볼을 매만졌다.

“알아. 나도 네가 싫은 건 싫어. 그러니 아프게 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일어서더니 내 손을 붙잡아 일어나는 걸 도와줬다. 바닥에 떨어뜨린 베일도 주워 먼지라도 묻지 않게 탈탈 털고는 내 머리 위에 씌웠다.

다시금 드리워진 검은 장막에 뭔가 숨이 트인다.

순수한 어린아이.

그러나 그 어린아이도 결국은 남자고 제가 원하는 여자를 가지려고 손을 뻗을 때도 있다. 더욱이, 휘아르는 어린아이가 아니다.

그의 오롯이 날 담은 눈을 보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손을 뻗어 먼저 문가로 걸어가는 그를 붙잡았다.

“휘아르.”

“응?”

마치 이제껏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그가 웃으며 날 돌아봤다.

“레사휘에게서 이겨.”

“응, 그럴 거야. 걱정 마.”

내 말이 걱정으로 들렸는지 그가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그래서 날 가져.”

“…!”

“너에게라면 좋아. 하지만 레사휘는 아냐. 네가 이기지 못한다면, 나는 나를 포기하겠어. 그에게 더럽혀질 바엔 차라리 내 손으로…”

“절대로!”

그가 내 말을 자르며 으르렁거리듯 날 안았다.

“네가 그놈한테 더럽혀지게 하지 않아. 아이샤. 아아, 나의 아가씨. 나는 이겨. 이길 거야. 설사, 괴물이 돼도 좋아. 나는 너를 가질 거야. 그러니 너도 날 가져 줘.”

그가 팔을 풀어내며 베일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부풀어 오른 입술을 쓰다듬었다. 그는 더는 급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아프지 않게 조심스럽게 입을 맞췄다.

방 안에 앉아 가만히 눈을 감았다가 이내 조심스레 손으로 입술을 매만졌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살짝 부풀어 올라 따끔따끔하던 것이 이젠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 끌어안고 입을 맞춘 게 처음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건 달랐다.

떠올릴 때마다 가슴 안쪽이 뭉근하게 답답해서 문지르지 않으면 자꾸 두근거리는 이것. 싫지 않았다. 레사휘처럼 떠오를 때마다 강한 혐오감과 질척거리는 기분을 느끼게 하지 않는다. 같은 사내인데 상대가 다르다고 감정까지 달랐다.

언제부터 그가 나를 만지는 게 싫지 않았을까.

보통의 위그노드 여자라면 부모가 정해준 반려를 만나 혼인하고 평생을 산다. 나 역시 그러려고 했다. 하지만 난 그걸 거부했다. 그래서 더 모르겠다.

이 감정은 필요에 의한 욕구일까.

아니면 내가 정말로 그를 바라는 사랑일까.

받은 적도, 준 적도 없는 것이기에 어렵고 생소하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베일을 정리했다.

“아이샤 님, 베넨입니다.”

“들어와.”

베넨이 문을 열고 쟁반 위에 놓인 편지를 내게 내밀었다. 보자마자 눈살을 찌푸렸다. 만약, 내 표정을 베넨이 봤다면 왜 그러나 싶을 것이다.

베넨이 가져온 편지는 은쟁반이 반짝일 정도로 화려하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을 썼다.

선명한 붉은 바탕에 금가루를 뿌린 편지는 이브실라의 연회 때나 입을 법한 드레스처럼 화려하기 그지없었는데, 편지는 그에 그치지 않고 밀랍 대신 금으로 녹인 인장이 거대하게 찍혀있었다.

“실로이에서 보냈습니다.”

굳이 베넨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겉봉에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지만, 고작 편지에 이만큼의 금을 쓸 정도면 답이 나온다.

금은 대지에서 나지 않는다. 그런 금을 이렇게 남용이라 말해도 좋을 만큼 쓰는 사람은 오로지 황금의 일족, 실로이의 왕족뿐이다.

그것도 이렇게 거대하게 인장을 찍을 만큼 금을 쓰는 건, 직계 왕족일 터. 저번에도 받아본 편지기에 익히 누군지 알 수 있다.

편지를 손으로 집어 들었다.

“아이샤 님, 답장을 기다릴까요?”

손에 쥔 편지를 내려보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 무례한 자에겐 더는 의미가 없다.”

답장은 이미 지난번에 확실하게 거절의 뜻을 담아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더 보란 듯이 화려하게 보낸 걸 보면 답은 뻔하다,

그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겠지.

굳이 읽지 않아도 훤히 드러난 욕심에 짜증이 인다. 손을 흔들어 베넨을 내보냈다.

‘단호하게 거절했건만.’

손으로 편지 겉봉을 쓸자 손가락에 반짝거리는 금가루가 묻어난다. 금을 녹인 인장의 크기 역시 지난번보다 컸다. 내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직설적인 표현이었고, 자신의 힘과 권좌에 대한 가까움을 나타낸 오만함이었다.

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건, 돈이 많다는 게 아니었다. 금은 값을 매길 수도 없을 만큼,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아무리 대부호라 할지라도 얻을 수 없는 게 있다면 그건, 마음이 아니라 금이다.

금은 대지에서 얻는 게 아닌, 태양의 일족, 황금의 일족이라 불리는 실로이의 왕족에게서만 구할 수 있다. 그것이 어떤 방식이고, 어떤 식으로 얻게 되는지는 아무도 모르나 서적에 적힐 만큼 확실한 건, 금을 많이 가진다는 건 곧 물려받은 신의 힘이 강하다는 것을 뜻했다.

그 옛날, 아시네헤의 쌍둥이 오라비인 아스헤가 태양을 녹여 황금을 만들었다는 전설처럼.

실로이는 아스헤의 자손들이 사는 땅이다.

아시네헤는 인간을 싫어해 얼음장벽을 쌓아 자신과 얼음 인형들만이 사는 네헤베를 만들었지만, 아스헤는 달랐다. 인간을 사랑해 스스로 신의 이름을 버리고 지상으로 내려가 인간과 혼인하고 대지에 잠들었다.

그래서 황금은, 신의 보석이라 불리기도 하지만 아무도 그것의 정체를 모른다. 오로지 실로이의 왕족을 제외하고.

이 마음에 들지 않는 편지에 굳이 레터 나이프를 쓰고 싶은 마음도 없어 죽 찢어 열었다. 얼마나 금을 써댄 건지 겉봉을 찢자 허공에서 바닥으로 금가루가 반짝이며 떨어졌다.

편지를 읽으며 미간을 찌푸렸다.

“감히.”

와락 편지를 구겼다. 분해서 입 밖으로 소리가 나올 정도였다.

황금으로도 부족해 얼음을 탐내려 하다니.

아무리 실로이의 왕족이라 할지라도 위그노드의 겨울 성 일족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다. 이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위그노드의 겨울 민족이 이 땅을 벗어나지 않겠다는 긍지와 맹세에 대한 정당한 예우였다.

그러나 이 자는 그 약속을 벌써 두 번이나 어겼다.

처음은 권좌에 대한 욕심으로 눈이 어두운 거라 생각하며 그 어리석음을 딱하게 여겼다. 그러나 두 번째는 다르다.

그는 감히 위그노드를 발아래로 보고 있다.

“감히, 위그노드를 어찌 보고.”

테이블 옆에 놓은 책장에 다가갔다. 열쇠로 잠근 서랍을 열자 이것과 같은 편지가 나온다. 분해하며 서랍 안에 든 편지를 꺼내 찢어버렸다. 금이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위그노드에서 금은 한낱 쓸모없는 돌일 뿐이다. 찢어버린 편지를 놋쇠 화로 안에 넣어 불쏘시개로 만들었다.

모두가 가지길 선망하는 금이지만, 나는 저 금에서 피 맛이 난다는 것을 안다.

편지가 불에 탈 때까지 그것을 지켜본 후, 서둘러 방 밖을 나섰다.

문이 열리자 그가 의외라는 얼굴을 했다. 옆으로 비켜서며 들어오라는 말에 거절하려는 찰나에, 그가 비켜준 틈으로 의자에 앉아 있는 나베란이 보였다.

“시종들도 지나다니는데 밖에서 얘기할 셈이야? 어차피 나베란도 있으니 들어와.”

그는 아무 짓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말 한 거겠지만, 나는 레사휘를 잘 알았다. 방 안에 나베란이 없었어도 그는 더는 날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휘아르에게서 이겨 다시 나의 반려가 될 거라 확신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내가 머뭇거리는 건 나베란 때문이었다. 내가 지금 할 얘기를 나베란이 듣길 원하지 않았다.

“아이샤, 무슨 일 있어?”

하지만 나베란이 의자에서 일어나 문 앞에 선 내게 가까이 다가왔다. 별수 없이 방 안에 발을 들이밀었다.

간단히 할 말만 하고 갈 예정이었는데 어려워졌음에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성의 주인께서 대체 이 기사의 방에는 무슨 일이지?”

나베란의 맞은편에 앉자마자 옆에 선 레사휘가 비아냥을 담아 물었다. 나베란의 미간이 설핏 일그러졌지만, 못 본 척했다.

“시간과 장소는 네가 정하기로 했으니까. 언제로 할 거지?”

“급할 게 뭐 있지? 어차피 네 성인식은 내년이잖아.”

나베란이 앉은 의자에 등을 살짝 기대며 레사휘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급할 건 없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미룰 수도 없는 일이니까. 언제까지 질질 끌 셈이야?”

그가 내 말에 마뜩잖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지워버렸다.

“확실히 네 말대로 마냥 미룰 일은 아니지.”

나베란이 옆에 있어서인지 레사휘의 말투 역시 평소와는 다르게 고분고분했다. 위화감은 없었다. 그는 원래 제 누이동생 옆에선 늘 다정했고, 차분했다.

“원탁의 기사들과 상의한 뒤에…”

“아니. 그들과 굳이 상의할 필요가 뭐 있지? 넌 더 이상 내 반려가 아니니 그들의 주인도 아냐.”

대뜸 자르는 말에 레사휘의 미간이 잘게 일그러졌다.

“나보고 결정하라고 한 거 아니었나?”

“맞아. 하지만 시기를 늦추지는 말란 말이야. 봄은 짧아. 관측자들이 예상하기도 전에 겨울이 왔듯이, 또 언제 겨울이 올지 예상하지 못해. 이런 일로 시간을 보낼 수는 없어.”

레사휘의 눈이 날 살폈다.

우리는 이 성에서 십 년이 가까운 시간을 함께 보냈다. 그것도 평생을 함께할 반려라는 이름으로. 내가 그를 잘 알듯, 그도 날 잘 알았다.

“겨울이 오기 전에 끝내야 하는 이유가 있군.”

그가 생각해야 할 답이기에 굳이 대답하진 않았다.

위험을 무릅쓰고 토벌대가 얼음 봉우리까지 나아갔기에 창고에 식량은 넘쳐났고, 얼음 가시나무 역시 뿌리를 뻗어 ‘눈 여우’를 막는다. 그리고 토벌대가 내려오면서 영지 내 남아있는 ‘눈 여우’ 도 소탕했다.

이브실라처럼 땅에 씨를 뿌리고 거두는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서 지금 당장 겨울이 온다 할지라도 더는 아쉬울 게 없는 시기였다.

하지만 내겐 아니었다.

나는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고, 이대로 겨울이 와 꼼짝없이 한 해를 보낼 수는 없었다. 다음 봄이 올 땐, 갓 스무 살이 되는 위그노드의 여자들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부모가 정해준 반려와 혼인한다.

그것은 아무리 성의 주인이라 자처하는 나라도 벗어나지 못하며, 설사 약혼자가 없는 여자라 할지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짧은 봄의 시기에 위그노드의 남자와 혼인한다.

베일 너머 나베란을 바라봤다.

이브실라는 다르다.

혼인의 시기도, 혼인할 상대도 정해져 있지 않다. 신분의 고하는 있어도 신분에 대한 벽은 없다. 사시사철 풍요로운 계절의 땅은 위그노드의 사내들처럼 차갑지도, 여자를 자신이 잡은 사냥감으로 여기지도 않는다.

온화하고 너그러운 계절처럼 가슴에 얼음이 아닌, 미풍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양친이 없는 나베란의 혼약자는 본래라면 레사휘가 정하겠지만, 내가 이긴다면 다르다.

나는 그녀를 그곳으로 보내고 싶다.

본래라면, 내가 운명에 순응하듯이 나베란 역시 그리 살아야 한다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순응하길 거절했고, 우리의 미래는 달라졌다. 내가 달라졌으면 나베란 역시 달라져야 한다. 그녀까지 얼음에 묶여 있을 필요 없다.

더욱이.

불태운 편지를 생각하자 속에 잘게 분노가 치민다.

머리가 좋은 만큼 눈치까지 빠른 레사휘가 예전에 내가 했던 말 중 하나를 떠올렸는지 눈살을 찌푸렸다.

“그렇군. 겨울이 오면 위그노드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새파랗게 날이 선 레사휘의 말에 옆에 앉은 나베란의 몸이 움찔했다. 그를 노려보다 시선을 돌려 나베란을 바라봤다. 보아하니 내가 이겼을 때의 조건으로 나베란을 이브실라로 보낸다는 것을 아직 전하지는 않은 모양인 것 같았다.

하긴, 자기가 이길 거라 자신만만해하는데 질 때의 조건을 굳이 말할 필요 없을 테니까. 나베란 역시 조금 날카로워진 우리의 대화에 움찔했던 것뿐이었다.

남은 건 시간이다.

겨울이 오기 전, 실로이의 오만한 편지의 주인이 오는 것이 더 빠를지, 대결을 끝내고 나베란이 이브실라로 떠나는 것이 더 빠를지.

“좋아, 어차피 내가 이길 대결. 늦던, 빠르던 상관없지. 내일 성의 사람들과 영지 내 백성들에게 정당한 성의 주인을 가리는 대결을 한다고 선언하겠어. 날짜는 삼일 뒤, 정오에 치를 거야. 장소는 그날 알려주지. 대결할 종목도.”

‘정오’라는 말에 속에서 바람 빠진 소리가 나오려는 것을 가까스로 참았다.

‘눈치가 빨라.’

어미와 샤하웨는 낮에는 잘 움직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그들이 본디 얼음이기에 태양을 피했다는 것은 아니었다. 샤하웨에게 듣기론 힘을 쓰는 것에 제약이 생길 뿐, 고통스럽거나 하는 건 아니라고 했다. 더욱이 이곳은 위그노드.

바다라는 광활한 호수가 있고, 사시사철 땀이 흐를 정도로 무더운 헤스티(Hestie)가 아니다. 하지만 본디 얼음. 그들은 낮의 더움보단 밤의 서늘함을 사랑했다.

"그 날을 기대하지.”

네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더는 나눌 대화가 없기에 의자에서 몸을 뗐다. 그러자 나베란이 슬그머니 내 옷자락을 붙잡았다.

걱정이 가득한 얼굴이었다.

그녀의 입장을 알기에 손등을 가볍게 감쌌다가 떼고 일어났다.

창밖에서 작게 두드리는 소리가 난 것 같아 고개를 돌아보자 검은 깃털 하나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내 빠르게 창 아래로 떨어졌다.

“왜? 거기 뭐가 있어?”

나베란의 물음에 아무것도 없는 창밖을 보며 고개를 내저었다. 휘아르도 아니고 굳이 위험하게 내 방 창까지 올라올 사람은 없다.

“아니.”

아무래도 예민하게 신경을 쓰고 있는 탓에 잘못 들은 것 같았다. 열린 창으로 환호성과 기대에 찬 목소리들이 소란스럽게 들려오는데 그런 작은 소리를 들었을 리가 없다.

“아무것도 없어.”

“그럼, 가자. 시작할 시간 다 되었어.”

레사휘가 바란 시간은 정오.

태양이 머무는 시간이 짧은 위그노드에서 가장 뜨거운 시간이었다. 또한, 얼음이 가장 빨리 녹아내리는 시간이기에 그의 의도를 알만했다. 하지만 야비하다는 생각보다는 그의 지나친 철저함에 경외감이 들 정도였다.

뼈아프게 아시네헤의 일족에게 당했기 때문일까.

우리와 전혀 다른 점을 그 앞에서 드러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도 레사휘는 의심했다. 지지 않을 거라 자만하면서도 허점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치밀함이 공존했다. 그래서 그는 강했고, 부모도 없는 몸으로 나베란을 지켜가며 이 위그노드의 겨울성에서 살아남았다.

생각을 지우고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자 무슨 일이라도 난 건지 밖에서의 소란이 한층 더 커졌다. 그러자 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나베란의 얼굴이 눈에 띄게 질려있었다.

이유를 알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베일 너머 바라보는 시선을 느꼈던지 나베란이 빠르게 굳은 얼굴을 지웠다. 그리고는 장난치듯 가볍게 말했다.

“아이샤가 차라리 남자였으면 좋았을 텐데.”

말의 무게는 가볍지 않았다.

내가 남자였다면.

“아마도 많은 게 달라졌겠지.”

이렇게 반려의 자리를 정하기 위해 대결을 하는 일도, 레사휘와 반목하는 일도, 아비의 뜻을 거스르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당당히 겨울 성의 주인으로 나서서 원탁의 기사들과 함께 위그노드를 지켰을 것이다.

“그럼 나는 아이샤와 함께 평생 살았을 텐데.”

내 팔을 감싸 손을 붙잡으며 나베란이 눈웃음을 지었다. 천진하게 웃는 미소를 보며 아무 말 할 수가 없었다. 내기에 대해서 아는 건 나와 레사휘,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휘아르 뿐이었다. 그러나 휘아르는 물론이고, 나베란을 이브실라에 보낼 생각이 없는 레사휘가 말했을 리 없다. 그런데 나베란의 눈이 불안하다.

마치, 내기의 결과에 대해서 안다는 것 같아서.

“나베…”

“하지만 휘아르는 울겠지? 흥, 바보. 불쌍해서 봐준다. 아이샤를 갖기엔 한참은 모자라지만 나라도 이해해줘야지.”

부르는 내 말을 못 들었는지 자르며 나베란이 자못 새침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리고는 귀밑머리를 살짝 한 손으로 넘기며 베일로 가린 내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리고 아이샤는 예쁘니까. 남자라는 건 안 될 말이지.”

그녀는 절대 보일 리 없는 내 얼굴이 보인다는 것처럼 말했다.

9년 전, 푸른빛이 사라지고 달의 눈동자를 갖게 되면서 비록 눈물은 흘리지 못했지만, 남들보다 훨씬 시력이 좋아졌다. 노아의 씨앗이라는 눈물을 흘리듯이 그들의 본질과 닮아 있어서 그런 것 같았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 촘촘하게 짠 베일을 쓰고 다닐 수 없었을 것이다.

“나베란.”

“응?”

“…이만 나가자. 이러다 시간이 지나겠어.”

불러 놓고서 차마 입을 열 수 없어 그대로 다른 말을 내뱉었다. 그녀가 설사 안다 해도 절대 되돌릴 생각이 없으니까.

나는 이 내기에 반드시 이겨야 한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게 될 테니까.

계단을 돌아내려 오자 한층 더 사람들의 소리가 커졌다. 저 환호성에 야유와 비난이 섞이지 않을 리는 없지만, 원탁의 기사들만큼의 완고함은 없었다. 물론, 성의 여자들과 가신들, 그리고 시종들과 영지 내의 백성들도 나와 혼인함으로써 당연하게 예정되었던 성의 주인이 레사휘가 아니게 된다는 말에 크게 놀라기는 했다.

다만, 그들을 오랫동안 다스리던 자는 아비에서 나로 이어지는 우리의 가문이었다. 같은 겨울성의 일족이라 할지라도 이 땅의 주인은 나였다.

성 밖으로 나오자 비록 헤스티처럼 한여름의 열기는 아닐지라도 봄의 정오 역시 위그노드 답지 않게 푸근하고 따뜻했다. 더욱이 겨울이 한차례 왔다가 사라진 후 더없이 평화로운 날씨가 지속되었다.

“바느질 방 여자들 말로는 내기도 걸렸다던데.”

오랜만에 개방한 겨울 성의 정원에는 성내의 사람뿐만 아니라 성 밖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나베란이 정원의 넓다른 공터에 빽빽하게 몰려든 사람들을 보며 귓가에 대고 말했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열기가 지나치게 높아 그렇지 않고서는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한낮의 열기만큼이나 모인 사람들의 관심이 대단했다.

“하긴. 이런 걸 놓칠 리 없지.”

드높은 긍지와 고고한 명예를 따지는 기사들조차 내기라면 한 며칠 굶은 비렁뱅이처럼 게걸스럽게 달려들기 일 수였다. 하물며 그건 어린아이들이라고 다르지 않았다. 어른들의 모습을 따라 하듯이 사내애들은 사내애들대로, 여자애들은 여자애들대로 반짝이는 돌에서 어여쁜 장신구와 호신용 검까지 다양하게 내기의 대가로 내놓았다.

그건 우리가 위그노드의 겨울 민족이기 때문이었다.

이 땅, 위그노드는 풍요로운 대지를 가지고 있어 아무리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배 곪는 이가 없는 이브실라가 아니었다. 평생토록 추위를 몰라 얼어 죽는 자가 없다는 헤스티가 아니었다.

우리에게는 풍요로운 대지도, 춥지 않은 날씨도 없었다.

우리에게는 눈과 얼음, 그리고 추위뿐이었다.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 그 생명을 마시고 먹고 입어야만 살아남는다. 죽지 않으려면 결국 다른 생명을 죽여야 하는 법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생명을 마시고 자란 아이들에게로 또 그 아이들에게로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이어져 왔다.

삶이 비록 투쟁이지만 우리는 그 삶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그리 살아왔다. 온몸이 얼어붙는다 할지라도 얼음을 베고 자고, 더 큰 사냥감을 잡기 위해 눈과 얼음을 헤치는 것을 마다치 않는다.

사냥에 열광하고, 그 사냥감의 피에 취하는 민족이었다.

“어차피 누가 성의 주인이 돼도 겨울은 오니까.”

오랫동안 아이에서 아이에게로 이어져 온 호전적이고 잔인한 민족이 오랜 시간 겨울과 ‘눈 여우’로 인해 숨죽여 살았다. ‘눈 여우’가 나타나 많은 이가 죽고, ‘겨울’이 길어져 사냥하지 못해 또 많은 이가 죽었다.

성의 주인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이 상황에 더는 달라질 게 없다. 성의 주인이라도 결국은 사람. 그 사람이 겨울을 물러나게 할 수도, ‘눈 여우’가 더는 나타나지 않게 할 수도 없다. 그러니 그들의 입장에서 이건 겨울이 오기 전 기억할만한 봄날의 스포츠고, 놀이었다.

싸워 이겨 취하는 위그노드의 겨울민족에게 이보다 더 흥미진진하고 열광적인 경기는 없을 것이다.

“누굴 더 많이 응원하는 거지?”

나베란이 눈을 빛내며 사람들이 뭐라 소리치는지 듣기 위해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잘 들리지 않는지 미간을 곱게 접었다.

“이기는 자를 응원하는 거겠지.”

사냥에 실패하는 것은 곧 죽음과도 같다. 그러니 대결 역시 과정이 어찌어찌 하다 할지라도 승리한다는 그 결과가 중요하다.

“그럼, 아이샤는 휘아르를 응원해. 나는 아무도 안 할 거니까. 아…나라도 공평해야 하잖아.”

그녀를 향해 슬쩍 고개를 돌리자 섭섭하게 여겼다 생각했는지 그녀가 변명하듯 끝에 덧붙였다.

“마음대로 해. 네가 레사휘를 응원한다 해도 달라지는 건 없어. 세 번째 대결 주제를 정하는 건 너야.”

그러자 내 말에 그녀가 조금 아쉬운 얼굴을 했다.

정작 섭섭하게 여긴 건 그 말을 내뱉은 나베란이었다.

“다 모인 건가?”

무대라고 하기엔 조잡할 정도로 잡초와 풀 이끼를 뽑아내고 돌을 골라낸 땅에 둥그런 줄을 둘렀다. 어차피 대결 종목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단 세 번뿐이기에 구태여 단상을 만들 필요는 없었다.

만들어진 경기장 가까이에 차양이 둘러쳐 있고 그 아래에 푹신하게 짐승의 가죽을 덮은 의자를 갖다 놨다. 그리고 그 옆으로 원탁의 기사들이 서 있었다. 물론, 몇몇이 눈에 띄게 자못 기세등등하고, 어이없는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거기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었다.

어차피 이 대결의 주인공은 그들이 아니었다.

차양 가까이 다가가자 경기장 안에 서 있는 휘아르가 보였다.

태양을 받아 새하얀 눈과 같은 머리카락이 반짝반짝 빛나며 길게 뻗은 팔과 다리를 풀며 준비하고 있었다. 바닥을 바라보는 그의 눈이 평소와는 다르게 웃음기도 없이 건조해 얼핏 무심해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내 그가 언제 그랬냐는 양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다. 예전처럼 그림자가 없을까 걱정했지만, 그는 바보가 아니었다. 그가 입꼬리를 올린 채 하늘을 바라보고 있자 이상하게도 그는 얼음이면서 이 빛 아래에서는 누구보다 태양처럼 빛났다.

“아이샤!”

그러다 뒤늦게 차양 안으로 들어가 앉는 날 봤는지 그가 두 손을 뻗어 흔들었다. 긴장감이라곤 없이 환하게 웃는 얼굴에 나베란이 진지하지 못하다고 발끈할 정도였다.

하지만 저런 얼굴이 오히려 그다웠다.

강하고 자신만만해하던 그가 이제 와 긴장하며 겁에 질린 얼굴을 했다면 나조차 절망했을지도 모른다.

“사람이 조금은 진지할 줄도 알고 그래야 하는데. 어쩜, 저렇게. 대체 장소가 바뀌어도 어째 달라지는 법 없…”

나베란이 투덜투덜 불평, 불만을 터뜨리는데 그 소리를 삼켜버릴 정도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그러자 소란스러운 곳을 바라보는 나베란의 얼굴이 얼음처럼 굳어버렸다.

‘레사휘로군.’

굳이 눈으로 보지 않아도 알만했다. 레사휘가 등장하자 정원에 물결이라도 치듯이 술렁거렸다. 아무리 이 땅의 영지민들에게 성의 주인이 될 자가 누구인지 상관이 없다지만 처음 보는 얼굴인 휘아르와는 달랐다.

레사휘는 근 십 년이 되도록 기사로서 위그노드를 지키는 용맹한 자였고, 남자로서는 영지 내의 아가씨들을 두근거리게 할 정도로 호남이었다.

겨울 성 특유의 옅은 금빛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흔들리자 더더욱 목소리가 커졌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는 여유 있게 경기장 안으로 들어왔다.

정오.

그가 바란 시간이었고, 그가 바란 장소였다.

성의 주인을 대신해 탑에서 잘 나오지 않는 관측자 중 한 명인 스토웰이 심판을 맡았다. 그는 비록 기사는 아니지만 희끗희끗한 머리처럼 지난 50년간 평생이라도 좋을 만큼 겨울 성에서 탑을 관리했고 대대로 성주의 천문학 스승이었기에 자격은 충분했다.

비록 부탁은 내가 했지만, 나 역시 그가 심판을 보는 게 의외였다. 그는 심지어 천문학을 가르칠 때에도 탑으로 올라와 배우라 했고, 지난번 겨울이 갑자기 들이닥쳤을 때에도 탑에서 내려가지 않았다.

그리고 그건 그와 같이 탑을 관리하는 관측자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기사들에게조차 고집스럽고 우직하다는 소리를 듣는 그들은 절대 타협하는 법이 없어 심판에 더없이 적합했다.

경기장 안으로 들어서기 전, 스토웰이 날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다가 들었다.

“아이샤 님,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나 웃지도 않아 재미도 없다며 타박만 하던 그였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다. 그답지 않게 허리 숙인 자세와 말투에 새삼 나도 모르게 주변을 돌아봤다. 날 보는 기사들, 날 보는 이 땅의 백성들.

나베란과 레사휘.

그리고 휘아르.

스토웰은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여자가 아닌, 성의 주인으로 대하고 있었다. 오랜 시간 지내온 기사들은 어려워하는 것을 내 천문학 스승은 머리가 하얗게 세는 일처럼 자연스럽게 했다.

“그래, 시작해.”

내 말에 잠시 동안 고요히 말을 멈췄던 사람들이 환호성을 내질렀다. 나 역시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이건, 휘아르와 레사휘만의 대결이 아니었다. 내가 진정으로 성의 주인이 될 수 있느냐의 대결이었다.

“조용. 조용하도록.”

스토웰이 경기장 안으로 들어서며 손을 흔들며 좌중을 침묵시켰다. 그의 목소리는 비록 크지도 위압적이지도 않았지만, 힘이 있었다. 더군다나 그는 성의 주인을 대신하는 심판이었다.

“오늘은 아이샤 님의 반려이자 성의 차기 주인을 결정하는 자리다. 오른쪽은 레사휘 경. 그리고 왼쪽은 휘아르 경. 두 분 다 성의 주인이 될 자격은 충분하다. 첫 번째 대결은 레사휘 경이 정한 대로—”

그가 오른쪽 손에 쥔 두루마리를 폈다.

“‘이 땅의 겨울 민족에게 가장 인정받는 자’로 정한다.”

침착하게 내뱉는 스토웰의 말에 순간, 고조되었던 긴장이 맥없이 꺾였다.

그러나 이내 허탈한 야유와 어이없는 목소리들이 경기장 밖에서 울렸다. 그도 그럴게 호전적인 겨울 민족이자 기사인 레사휘였기에 거의 대다수가 당연히 검술 대련을 할 거라 예상했었던 모양이었다.

“대결방식은 간단하다. 레사휘 경이 낸 문제 세 개를 영지민들의 도움을 받아 휘아르 경이 답을 찾아서 보여주면 된다. 단,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되나 영지민들이 말하지 않은 답은 찾을 수 없다. 그리고 세 문제 중 단 한 문제라도 틀릴 경우 이 대결은 레사휘 경이 이기는 걸로 한다.”

한없이 유리하지도, 그렇다고 한없이 불리하지도 않은 대결이었다. 이런 걸 레사휘가 제안했다는 게 기이했다. 그라면 이런 식이 아니라 영지민을 선동하는 식이었어도 쉽게 이겼을 것이다.

대결 주제를 정하는 기회는 한 번. 이 좋은 기회를 그는 보다 유리하게 할 수도 있었다. 답을 알려주는 영지민의 수를 정해서 제한하거나 자신이 우승하길 바라는 영지민들로 고를 수도 있었다.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았다.

정말로 겨울민족에게 인정받는 자를 가리려는 것처럼.

물론, 사람들이 휘아르를 반대한다면 정확한 답을 알려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라면 서로의 의견이 다르기도 하다. 싫어하는 자가 있다면 좋아하는 자도 있다.

‘무슨 속셈이지?’

레사휘를 바라봤다. 그는 여유가 가득한 눈으로 휘아르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가 쉽게 검을 이용한 대결을 할 거라 생각하진 않았다. 내가 그였어도 휘아르가 아시네헤의 일족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할 때부터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무력을 이용한 대결은 하지 않을 것이었다.

오랫동안 함께 자란 사이이기에 나는 그를 제법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어쩌면 그가 나베란에게 내기의 결과를 말해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불현듯 든다.

“흐음, 그렇단 말이지.”

휘아르가 머리카락을 뒤로 쓸어 넘기며 입 꼬리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 한 걸음 가까이 레사휘에게 다가갔다.

“아쉽네. 나는 너와 싸우고 싶었거든. 뭐, 두 번째가 남아있으니까. 자, 어서 말해. 답을 맞혀야 할 문제는 뭐지?”

그러자 레사휘가 차갑게 눈을 번뜩였다.

“너는 스스로 포기하게 될 거다.”

그 둘의 사이를 끼어들며 스토웰이 두루마리를 마저 들어 읽었다.

“첫 번째 문제다. 지금 이 위그노드에서 아시네헤의 일족과 닮은 자는 누구인가?”

“…”

당황한 휘아르의 얼굴처럼 나 역시 의자의 팔걸이를 세게 움켜쥐었다. 아시네헤 라는 말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예민한 존재의 단어였다. 그런 존재를 성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자를 결정하는 자리에서 굳이 상기시키려는 의도였다.

웅성거리는 사람들이 점차 시선을 하나로 모으기 시작했다.

얼음의 일족은 순백의 머리색에 달을 닮은 눈동자를 지녔다. 그러나 금색의 눈동자는 절대 동물에서도, 사람에게서도 나올 수 없는 색이었다. 그것은 오로지 아시네헤 일족의 것. 그러나 새하얀 머리카락이라면 다르다. 날 때부터 타고난 색이라면 흔치 않지만, 노인의 것이라면 심판을 맡은 스토웰 역시 하얗다.

하지만 이 자리에 얼음의 일족처럼 새하얀 머리색을 가진 건, 단 한 명이었다.

마치, 레사휘가 선동이라도 했나 의심할 정도로 모두가 그를 바라봤다. 그렇게 단번에 시선을 모을 정도로 그는 눈과 같은 새하얀 머리색이었다.

휘아르.

“음, 휘아르 님?”

답은 어린아이의 입에서 쉽게 터져 나왔다. 정원에서 휘아르와 함께 자주 놀던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품에 파묻힌 채 소리쳤다.

“휘아르 님!”

“휘아르 님이 맞아요!”

“답은 휘아르 님입니다! 휘아르 님!”

그 목소리들이 모아모아 커져서 휘아르가 정답을 내뱉게 했다. 스토웰이 정답이라고 말했지만, 문제를 맞혀 좋기는커녕 불길함이 들었다. 고작 문제. 그러나 사람들은 휘아르가 우리 겨울민족이 그토록 경외하나 증오하는 아시네헤 일족과 닮았다는 걸 머릿속에 집어넣었다.

‘고작 이 정도?’

이 정도는 곧 잊어버리고 만다. 더군다나 경기장에 모인 사람들이 빨리 다음 문제를 내놓으라 독촉했다. 휘아르가 예고한 대로 두 번째 대결 주제는 호전적인 겨울 민족이 좋아할 만한 무력대결인지라 더 서두르는 거였다.

레사휘의 얼굴엔 아무런 표정이 없어 알 수가 없었다.

“그럼, 두 번째 문제다. 이 땅의 주인인 겨울 성 핏줄의 특징이 선명한 여자는 누구인가?”

급기야 차양 옆에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선 아벨린 경조차 눈살을 찌푸렸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가 아니었다면 아무리 추종하는 레사휘일지라도 뭐라 한마디 던질 분위기였다.

곁에 선 기사들 몇몇이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며 작게 걱정스런 목소리를 냈다.

“오라버니는 무슨 생각인 걸까? 질 생각이신 건가?”

나베란이 도통 모르겠다는 얼굴로 속삭였다. 오로지 아는 것은 평온한 얼굴의 레사휘 뿐이었다. 그의 표정은 처음과 다름이 없었다.

휘아르가 차양 안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계속되는 시시한 문제에 양미간을 작게 찌푸리고 있었다. 그는 우리 겨울 민족처럼 피를 좋아하고 싸우길 좋아하는 호전적인 사람이 아니었다.

다만, 그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서 확실히 하고 싶어 했다. 이렇게 어린애 장난 같은 대결이 아니라 진지하게. 그리고 나에게 고통을 준 만큼 배로 되갚아 줄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아이샤 님 이에요! 아이샤 님!”

“아냐, 나베란 님도 있어! 휘아르 님, 나베란 님이요! 나베란 님!”

그러나 어른들의 그런 사정을 알 리 없는 아이들은 오로지 정답 맞추기에 재미가 들려 아까보다 더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다.

“영지민이 말한 답은 둘. 그 중 정답을 레사휘 경 앞으로 데려와라, 휘아르 경.”

그러자 휘아르가 잔뜩 곤혹스러운 얼굴로 날 바라봤다. 그러나 나는 반대로 레사휘를 바라봤다. 이런 시시한 문제로 과연 그가 얻는 게 무엇일까.

나베란의 말대로 정말 질 생각이라서?

“아이샤, 내가 나갈게. 성의 주인은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해.”

고개를 돌리자 어느새 휘아르가 가까이 다가와 있었다. 그가 머뭇거리는 이유를 모르지 않기에 고개를 저으며 몸을 일으켰다.

어차피 이길 생각이라면 마다할 필요가 없는 일이었다.

“아이샤. 그냥 난 나베란과…”

하지만 휘아르는 날 이용하는 것 같았는지 내가 아닌 나베란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의 손을 먼저 붙잡았다.

“너, 이길 생각이잖아.”

“응. 당연하지.”

“그럼, 머뭇거리지 마.”

휘아르가 날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답답해, 이런 대결. 찝찝하기만 해.”

내 손을 부드럽게 감싸며 평소의 그가 그렇듯 익숙하게 불평을 터뜨렸다. 하지만 어딘가 좀 달랐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위축되기는커녕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 되레 새삼스러웠다.

그가 얼음으로 이루어진 일족이라는 것이 새삼 실감할 정도로.

그는 더는 머뭇거리지 않고 레사휘의 앞까지 내 손을 붙잡았다.

“두 번째도 정답이다.”

가까이서 본 레사휘의 얼굴은 차양 안에서나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질 것을 기다리며 체념하는 얼굴이 아니었다.

그의 눈은 마치—

“레사휘.”

불길한 느낌에 입을 열어 그를 불렀다. 그러자 그가 더없이 만족한 표정을 지었다.

“세 번째 문제를 말해 주십시오, 스토웰 님.”

내게 시선을 고정한 채로 스토웰에게 말을 걸었다.

“세 번째 문제다.”

스토웰이 두루마리 양피지를 완전히 펴 가장 아래쪽의 문제를 읽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검은 베일을 쓴 여자의 맨 얼굴은 어떻게 생겼는가?”

“…!”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레사휘가 빠르게 내 베일의 끝을 붙잡으며 비릿하게 입 꼬리를 올려 웃었다. 그리고 그의 팔을 휘아르가 억세게 붙잡아 잡아당기지 못하게 했다.

—오랜 시간 기다린 먹이를 낚아채는 짐승의 것이었다.

“이제야 9년 만에 어디 하나 가리지 않는 반려의 얼굴을 보는 건가?”

“그 입 다물어!”

그가 조롱을 담아 이죽거리자 휘아르가 악에 받친 소리를 내질렀다. 첫 번째 문제에도, 두 번째 문제에도 정답을 외치던 이들이 입을 다물었다.

9년 전 이후로 아무도 보지 못했기에.

입술을 깨물었다.

그 불길함의 정체가 이거였구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휘아르조차 의심하는데 갑자기 노아의 씨앗을 건네주는 나를 의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그는 치밀하고 예리한 사내였다.

내가 어찌 변해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지만, 베일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벗지 않으니 이유가 있을 거라 여겼을 것이다. 그 이유가 9년 전, 성에 가득했던 숱한 소문들일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9년 동안이나 맨 얼굴을 본 사람이 없을 정도였던 내가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과연 어찌나 하는 조롱. 과거 함부로 내 베일을 건드렸다는 죄로 감옥에 가뒀던것처럼 이번에도 네가 그럴 수 있냐는 비웃음이었다.

“네가 진짜 아이샤가 맞아?”

또한, 9년 전에도 베일로 얼굴을 가렸을 때, 사람들은 내가 진짜 아이샤가 아니기에 얼굴을 가린다고 의심을 했다.

“이런 미친 짓을 저질렀으니 네가 아이샤일 리가 없어.”

베일 너머 얼굴을 봐야겠다는 식으로 그가 손에 힘을 줬다. 모두가 질 생각으로 이런 주제를 정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로서는 절대 손해 보는 대결이 아니었다.

베일을 벗는다면 비록 지금은 레사휘가 지겠지만, 내게서 설사 거짓이라 할지라도 겨울성의 혈족이 아닌 흔적을 찾아 주인의 자격을 박탈하려 할 것이다. 아니, 어쩌면 자신이 최종으로 이길 거라 확신하고 반려가 될 내가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려 하는지도 모른다.

“…”

베일 너머로 영리하게 머리를 쓴 그를 노려봤다. 그는 처음부터 이런 결과를 노렸다. 휘아르가 그를 노려보며 분노했다.

“놔!”

“놓으면? 네가 질 텐데? 이긴다면서. 아, 그래, 좋아. 이렇게 놓으면 이제 어떻게 할 거지?”

베일을 놓은 레사휘가 휘아르에게 조롱하듯 말했다.

하지만 베일을 벗지 않으면 휘아르가 진다. 이 모든 건 이곳에 모인 영지민들이 모두 보고 있다. 그런데 휘아르가 다 이긴 대결을 스스로 포기할 정도로 베일을 벗지 않으려 한다면 의심할 것이다.

레사휘의 말대로 내가 정말로 ‘아이샤’가 맞는지.

시간을 끌자 역시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대체 이 간단한 문제에 왜 시간이 걸리는지. 정말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정말로 내가 베일을 벗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지.

“…”

초조함에 입술을 짓이기듯 깨물어도 아픔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다. 더는, 물러설 방법도, 물러설 장소도 없었다. 쉽게 떠먹을 수 있는 수프에 그만 입안이 모두 벗겨질 정도로 데인 것과 같았다. 나는 좀 더 의심했어야 했다.

마녀가 내미는 수프를.

“아이샤.”

돌연, 휘아르가 커다란 손으로 내 얼굴을 이마에서부터 감싸며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다. 졸지에 품으로 끌어당겨 지자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물을 틈도 없었다. 그리곤 순식간에 얼굴을 가린 베일을 한 손으로 붙잡아 벗겼다.

“…!”

삽시간에 드러난 맨얼굴에 놀라 소리조차 지를 수가 없었다. 그러나 순식간에 햇살이 쏟아지듯 얼굴을 비췄다. 방 안에서도 이렇게 얼굴을 태양 아래에 오롯이 드러낸 적이 없었다. 반쯤은 어두운색으로 가린 풍경이 아니라 눈이 부실만큼 환해 눈을 뜰 수가 없었다.

휘아르가 그대로 감은 눈동자 위에 입을 맞췄다. 멀리서 웅성거리던 사람들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챌 정도로 그는 길게 입술을 댔다. 눈동자 위에 닿은 입술이 햇볕보다도 뜨거웠다.

그가 눈가에 살짝 숨을 내쉬며 그대로 자신의 품 안으로 내 얼굴을 끌어안았다. 베일이 벗겨지고 이렇게 품에 끌어안길 때까지 눈 한번 뜰 수가 없었다.

“봤어요. 됐죠?”

그러나 그 외의 모습은 모두가 선명하게 바라봤는지 사람들이 날 부르는 소리가 요란하게 났다. 목과 어깨를 끌어안은 그의 손이 살짝 떨리며 더 세게 감쌌다.

“아, 더는 안 돼요. 아이샤는 내 아가씨니까.”

품에 끌어안긴 상태라 그가 어떤 얼굴로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수군거리던 사람들에게서 박수 소리와 웃음이 같이 나는 걸로 보아 대충 예상이 되었다.

하지만 탑의 관측자에게는 못마땅한 답이었다.

“똑바로 얼굴이 보이지 않았으니 무효. 다시 보여라, 휘아르 경.”

“또 보이라는 건가요? 숨기고 나만 봐도 모자랄 판에? 됐어요, 그럼 안 할래요. 어차피 난 두 번째에서 반드시 이기니까 졌다고 쳐요.”

“그럼, 이번 대결을 졌다고 인정하는가?”

“네, 그래요.”

그러나 웃는 말투와 보이지 않는 표정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끌어안은 팔이 다시 작게 떨렸다. 져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상황이 몰린 게 기분이 나쁜 것 같았다. 그가 다시 내 머리 위에 베일을 씌워주자 그제야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볼 수 있었다.

“미안, 두 번째는 꼭 이길게.”

그가 날 바라보며 안타깝게 웃었다.

옆에서 레사휘가 날 어찌 보는지 알면서도 차마 그 시선을 피할 수가 없었다. 그 짧은 찰나, 아마 레사휘는 알아챘을 것이다.

그가 검을 쥐자 그날이 문뜩 떠올랐다. 얼음 가시나무가 녹아 ‘눈 여우’가 갑자기 영지 내로 들어온 날이. 내게서 검을 빼앗아 심장을 찌르던 그의 모습이 떠올랐다.

평소의 그는 다른 사내들처럼 허리춤에 검을 들고 다니기는커녕 품에 그 흔한 단검 하나 없었다. 기사들처럼 검을 휘두르는 모습 역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언제나 내 옆에서 가만히 앉아있거나 정원에서 아이들과 노는 것뿐이었다.

그런 그가 검을 쥐고 서 있었다.

모나거나 날카로운 건 하나도 없어서인지 어른들에게는 쭈뼛쭈뼛한 아이들이 그에게는 스스럼없이 다가와 안기고 매달렸다. 그 때문에 그는 성인이면서, 남자이면서 아이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었다.

그 날 피로 젖은 검을 들고 있었던 그 모습처럼 검을 든 그는 완벽할 정도로 어울렸다. 그가 든 검은 마치 얼음처럼 새파란 빛을 띠었고 표정 역시 차갑기 그지없었다. 그래서 저 얼굴이 휘아르가 내비치지 않았던 진실한 모습일 거라 생각했다.

“두 번째 대결은 휘아르 경이 정한 대로 ‘절대 물러서지 않는 자’로 우열을 정한다.”

검을 쥔 것만으로도 경기장이 들썩일 정도로 시끄러워졌다. 그리고 그것은 비단 어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언제부턴가 소리를 지르며 사냥의 후희를 즐기던 밤이 사라지고 어른들이 죽어가면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까지 작아졌다. 부러 그러라고 말한 적도, 타박한 적도 없건만 아이들은 철도 들기 전에 당연하게 웃음소리부터 낮췄다.

작은 체구로 얼마나 열성적으로 응원하는지 경기장 줄에 걸려 데굴데굴 구르는 아이를 보고는 여자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뿐만이 아니다. 허리가 굽어 지팡이로 몸을 지탱하던 노인조차 지팡이를 흔들며 침을 튀겼고, 그 흔든 지팡이에 머리를 얻어맞은 사내가 깜짝 놀라 바닥에 철퍼덕 주저앉기도 했다.

대본이 있는 유랑극단의 무대가 아닌, 순수한 모습들이었다. 점차 퍼지는 웃음소리에 그만 긴장으로 바들바들 떨던 나베란조차 입을 가리며 작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 모습에 애써 시선을 돌려 베일 안쪽의 얼굴을 매만졌다. 얼음으로 조각한 조각상처럼 차게 굳은 입매가 억지로 웃으려 해도 떨리기만 했다. 애써도 울 수도, 웃을 수도 없다. 이미 알면서도 그걸 확인하려 했다는 자체가 어리석었다.

“오로지 단 한 번으로 승패를 정하고, 시간도, 규칙도 없다. 끝까지 검을 놓지 않은 자가 승리한다. 대결은 아무리 목숨이 위험할 정도로 다친다 해도 승자와 패자가 정해질 때까지 멈추지 않고 진행한다. 그럼, 시작한다.”

스토웰이 경기장 밖으로 나가자마자 둘은 서로를 노려보며 검을 겨누었다. 휘아르가 검을 쥐는 것처럼, 레사휘 역시 사람에게 검을 겨누는 모습은 9년 만이었다. 부모를 죽게 한 ‘눈 여우’를 죽이겠다며 성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아서자 검을 빼 들었던 레사휘도, 내가 아픈 것을 볼 수 없다며 스스로 검을 들어 심장을 찔렀던 휘아르도 다르면서도 검을 겨누고 선 둘은 닮아 보였다.

그러나 서로 겨눈 검처럼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였다.

먼저 움직인 것은 휘아르였다. 크게 휘두르는 검의 궤적에 모두가 숨을 삼켰다. 어린아이들의 대련에서도 서로의 기량을 파악하려고 처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는다.

저런 것은 적을 상대할 때나 쓰는 검이다.

그만큼 조급하다고 여길 정도로 그의 검은 급하고 빨랐다. 그 단 한 동작만으로 차양 밖에 서 있는 기사들에게서 비웃음이 새어나왔다. 레사휘는 가볍게 아래에서 한 손으로 검을 맞받아쳤다. 그러나 의외로 날카로운 소리가 아닌, 크고 묵직하게 울리는 소리에 비웃던 기사들마저 입가를 굳혔다. 레사휘마저 미간을 찌푸리며 마저 다른 손으로 함께 검을 붙잡아 옆으로 밀어냈다.

검이 아닌 몽둥이.

오히려 휘아르만이 입 꼬리를 올리며 레사휘를 매섭게 몰아붙였다. 레사휘가 이를 악물며 두 손으로 검을 쥐고 막았다. 모두가 그를 다시 봐야 했다. 그건 검을 잘 다뤄서가 아니었다. 곰과 같은 체격도, 우락부락한 팔 근육을 가진 것도 아닌 큰 키에 마른 체격의 남자.

그것도 그동안 검을 드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는 자. 크게 휘두르는 모습만 봐도 검술을 제대로 배운 적 없는 자세에 기사들이 비웃었다. 그러나 그의 힘은 가히 예상하지 못할 정도였다.

검이 부서질 수도 있을 거라고 주변 모두가 생각할 정도로 그는 어디서도 보지 못한 괴력을 보이고 있었다.

지축을 울릴 듯이 검에서 소리가 났다.

레사휘가 검을 옆으로 흘리면서 휘아르가 미처 검을 회수하지 못한 순간에 빠르게 가슴을 발로 걷어찼다. 불시에 가슴을 맞은 휘아르가 살짝 뒤로 밀려났다.

검이 아닌, 발로 차인 것에 기분이 나쁜지 그가 인상을 썼다.

“규칙은 없다고 네가 정했지.”

“알아. 근데 아이샤면 모를까 이렇게 맞는 건 기분 나쁘거든. 아이샤만큼 아프지도 않은 게.”

가슴에 묻은 흙을 털어내며 휘아르가 레사휘를 노려봤다. 그러나 모두의 시선은 내게로 향했다.

“아이샤?”

“헛소리.”

앞을 똑바로 바라보며 씹어 뱉듯이 말했다. 레사휘의 표정이 미미하게 굳어지자 씨익 웃으며 휘아르가 날카롭게 검을 휘둘렀다. 레사휘가 그 검을 막아서자 그대로 검 날을 맞붙인 채로 눌러버렸다. 레사휘의 두 손이 검을 잡은 채 아래로 향하자 휘아르가 그대로 미끄러지듯이 목 가까이 검 날을 들이댔다. 그러나 레사휘가 멍청하게 서 있지만은 않았다. 그는 빠르게 몸을 뒤로 피하고는 역으로 휘아르의 목을 노렸다.

“악!”

목 가까이 검이 날아오는데 휘아르는 가볍게 옆으로 피했다. 외려 비명은 그것을 눈으로 보는 사람들에게서 튀어나왔다.

물이 묻은 얼음처럼 검과 검이 미끄러지면서 다시 붙고 다시 떨어지길 반복했다. 기사들의 검을 쓰는 레사휘와는 다르게 휘아르는 기교는 없지만, 힘과 유연함으로 대처했다. 그는 힘으로 크게 공격하기 때문에 그 틈을 노려 레사휘가 공격했다.

“읏!”

레사휘가 신음을 토하며 뒤로 물러섰다. 순식간에 베인 그의 팔에서 피가 흘러내려 검을 적셨다. 휘아르가 전의 공격처럼 크게 휘두르는 척하다 손을 바꿔 왼팔로 레사휘의 팔을 베어버렸다.

그는 당연히 아래에서 맞받아칠 예정이었던 터라 손쉽게 팔을 내주고 말았다. 설마하니 양팔로 검을 쓸 줄은 생각도 못했기에 더 그랬을 것이다. 그나마 그는 오랫동안 검을 다뤘기에 재빠르게 피해 깊은 상처는 아니었다.

“저런 검도 검술이야?”

“세상에. 말도 안 돼, 레사휘 님을…!”

생전 보도 못한 검술에 비난 섞인 야유와 환호성이 함께 터졌다. 그러나 처음에 말했던 대로 규칙은 없었다. 발로 차도, 왼팔을 써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물론, 목숨이 위험할 정도로 다친다 할지라도 패를 말하기 전까지 경기 중단도 없다.

“어때, 아직 할 만하지? 그 정도로 아프다고 하면 안 되지. 나는 이제 재밌기 시작했어.”

노려보는 레사휘의 눈빛을 향해 휘아르가 개구쟁이 아이처럼 지껄였다. 그는 정말로 재미라도 붙은 것처럼 눈빛이 빛나기 시작했다. 그 역시 레사휘만큼이나 여기저기 다치고 베였다. 심지어 더 심한 것도 있었다. 그러나 지친 기색 하나 없었다.

다시금 맞붙는 검과 요란하게 울리는 소음. 그리고 사람들의 환호성을 들으며 휘아르를 물끄러미 응시했다.

누가 저 얼굴, 저 행동, 저 말을 듣고 휘아르가 얼음으로 빚은, 아시네헤의 일족이라 여길까.

어미도, 오라비도 언제나 얼음처럼 차갑고 냉기가 돌아 겉모습은 분명한 사람이되 나는 그들이 뼛속까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언제나 실감했다. 그들은 아시네헤가 빚은 얼음 인형이었다.

그러나 휘아르는 달랐다.

그는 속에 불이라도 가둔 얼음처럼 언제나 뜨거웠다. 웃고, 즐기고, 화내고, 슬퍼하고 실망했다. 그래서 아시네헤의 일족을 증오하는 내게 그의 본질이 어떻든 반만 섞인 흔적처럼 사람에 더 가까웠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피가 튄 얼굴에, 여기저기 상처가 났으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덤벼드는 모습이 마치.

‘눈 여우’가 떠올랐다.

‘너도 아시네헤의 일족이구나.’

아무리 아니라고 모른 척해도, 웃는다고 사람이라고 애써 우겨도 그의 본질은 결국 아시네헤의 일족이었다. 어미와 오라비와는 다르지만, 그래도 아시네헤가 만든 피조물인 ‘눈 여우’와 닮아 있었다.

레사휘가 휘두른 검에 휘아르의 눈 바로 아래가 가로로 베였다. 깊이 베인 건지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다.

“휘아르 님!”

“어쩜 좋아! 휘아르 님!”

이제야 볼 만큼 흥미진진해하는 어른들과는 다르게 여자와 어린애들은 볼을 감싸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정작 휘아르는 무심하게 손등으로 눈가를 휙 닦아내고는 다시 세차게 달려들었다. 뛰어올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긋자 레사휘가 차마 막지 못하고 옆으로 몸을 돌려 피했다. 옆에 앉은 나베란이 어찌할 바를 모르며 안절부절못했다.

그때, 휘아르의 검이 빠르고 매섭게 레사휘의 다리를 내리찍었다.

“안 돼!”

비명이 나베란과 기사들에게서 터져 나왔다. 그러나 휘아르의 검은 레사휘의 다리가 아닌 바닥에 꽂혔다. 그 틈에 레사휘가 몸을 빠르게 일으켜 휘아르에게 검을 겨누었다. 날카로운 검 끝이 아슬아슬하게 목을 베어버릴 듯이 닿았다.

모두가 손을 쥐었다.

지팡이를 쥔 노인도, 그 지팡이에 얻어맞은 사내도, 여자와 아이들도. 그리고 차양 밖에 선 기사들과 나베란도.

모두가 그 검의 끝을 바라볼 때 나만이 똑바로 휘아르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진심으로 즐거운지 입 꼬리를 틀어 올리며 웃었다.

스스로 심장을 찌르고도 멀쩡했던 그였다.

그가 두려워할 리 없다.

애상했던 대로 휘아르가 발로 힘껏 레사휘의 검을 걷어찼다. 그 무시무시한 힘에 레사휘조차 어쩌지 못하고 손에서 검을 놓쳤다. 휘아르는 그대로 땅에서 검을 뽑아 레사휘의 가슴을 길게 베었다.

“으악!!”

그제야 레사휘의 입에서 거친 비명이 터져 나왔다.

“레사휘 님!!”

“레사휘 경!”

“오라버니!!”

급기야 나베란이 얼굴을 가리며 소리 질렀다. 레사휘의 옷자락이 벌어지면서 그 사이로 벌건 피가 뿜듯이 흘렀다. 휘아르의 눈가가 베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순식간에 땅이 검게 변할 정도로 무섭게 피가 흘러넘쳤다.

바로 앞에 선 휘아르의 몸 역시 가득 피가 튀었다.

더는 소리 지르는 사람도, 환호하는 사람도, 야유하는 사람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달랐다. 피가 묻은 검을 허공에 흔들어 털어내며 그가 히죽 웃었다.

“이런? 나름 조절했어. 그러니까 애처럼 그렇게 크게 소리 지르지 마.”

옆에서 한데 웃는 휘아르의 웃음소리가 무시무시하게 울렸다.

“그만! 이제 그만 하십시오! 어차피 한 번은 이겼으니 동점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

그를 신처럼 떠받드는 노어 경이 경기장 밖에서 다급히 말했다. 그 말에 휘아르가 피를 털어낸 검을 다시 레사휘에게 내밀었다. 검은 정확히 레사휘의 심장에 겨누어져 있었다. 레사휘는 참으려 했으나 떨리는 몸을 차마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벌써?”

그의 검이 조금씩 앞으로 다가가 레사휘의 몸을 찔렀다.

“정말로, 벌써? 고작 이 정도로?”

가슴이 벌어지는 통증에 레사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그러나 그도 고집스레 졌다는 말을 내뱉지 않았다. 입술을 깨물며 휘아르를 노려봤다. 오히려 주변에서 그 모습을 경악스럽게 바라볼 뿐이었다.

피를 뒤집어쓰고도 웃는 그를.

“휘아르.”

몸을 일으켜 그를 불렀다. 소리는 작았지만, 주변의 소리가 작아 있어 충분히 들을 수 있었다. 그러자 그가 고개를 돌려 날 바라봤다.

그의 눈이 흔들렸다. 그러나 고집스레 검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조금만 더 힘을 줘 깊게 찌르면 레사휘는 죽는다.

그리고 그건 휘아르가 가장 바란 일이었다. 그는 옆에서 우는 나베란에게도,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도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오로지 나만을 바라보다 이내 검을 내던지듯 내려놨다.

“알아? 너는 그렇게 아이샤를 죽도록 몰아세우지만, 아이샤는 아니야. 내 아가씨는 네가 죽는 걸 원하지 않아. 나와는 달라.”

레사휘가 그 검을 바라보며 떨리는 무릎으로 바닥에 쓰러졌다. 레사휘가 이를 악물며 휘아르를 노려봤다.

“그래, 내가…졌다.”

스토웰이 휘아르가 승리했다고 말하자, 경기장 밖에서 그를 지지하는 기사들이 달려들 것처럼 레사휘에게 다가갔다. 그들은 휘아르를 노려보며 레사휘를 부축하고는 빠르게 경기장 밖을 벗어났다.

곁에 얼어붙은 채 망연자실한 나베란을 돌아봤다.

“가보도록 해.”

이런 대결에는 언제고 크게 다치는 일이 생길 위험이 있어 차양 옆에 천막을 하나 쳐놓고 의사를 불러놨었다.

“아니.”

나베란이 고개를 저었다. 천막 안으로 다급히 들어가는 레사휘 쪽에는 눈도 돌리지 않은 채 나베란이 얼굴을 차게 굳혔다.

“가. 얼마나 다쳤는지 내게 알려줘."

“어차피 세 번째 대결을 해야 하니까 금방 확인하고 시종이 알려줄 거야. 나는 정말로 괜찮아, 아이샤. 나는 여기에 있을게.”

그녀는 답지 않게 고집을 부리며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경기장 안을 바라봤다. 경기장 안에는 피로 젖은 얼굴을 닦는 휘아르와 레사휘가 흘려 검게 물든 땅이 있었다.

“휘아르가 대단해.”

무엇이?

차마 물을 수 없어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애써 웃었다.

“정말로 아이샤를 소중히 여기는구나.”

“나베란.”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참을 필요 없어. 공정해야 한다고 중립까지 지키라고 강요하지 않아. 레사휘는 네 오라버니잖아.”

“아냐, 아이샤. 나는 정말로 괜찮아. 싸우면 다친다는 건 당연한 거잖아? 오라버니도, 나도 알아. 오라버니는 졌어. 그래서 다친 거야.”

단 둘뿐인 남매.

비록 레사휘가 내게 잔인할지라도 나베란에게는 다정했고 여동생을 소중히 여겼다. 그리고 그건 나베란 역시 다르지 않았다. 그녀는 내게 저지르는 레사휘의 행동을 알았어도 차마 미워하지 못할 만큼 레사휘를 사랑했다.

그런데 지금의 나베란은 그때랑은 달랐다.

마치, 선이라도 긋듯 행동했다. 저렇게까지 말한 이상 더는 나설 수 없었다. 성의 의사가 레사휘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종에게 알려줄 때까지 나베란의 옆에 앉아 기다렸다.

다행히 시간은 길지 않았다.

새하얀 붕대로 가슴을 칭칭 동여맨 레사휘가 부축을 떼어내며 천막 밖으로 걸어 나왔다. 창백한 피부가 파리할 정도로 질려 있어 붕대 밖으로 번지듯 새어나온 피가 확연하게 붉어 보였다.

그러나 그는 고집스레 스스로 걸어 나왔다. 옆에 선 아벨린 경이 혀를 찼다. 그러나 그 눈은 그답지 않게 걱정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아벨린 경조차 꺾지 못한 고집을 꺾을 자는 없었다.

레사휘는 내가 앉아있는 곳을 바라보고는 이내 경기장 안으로 들어섰다. 의사의 말을 전해온 시종은 다행히 두꺼운 옷 덕분에 장기가 다치거나 뼈가 상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워낙에 크게 베이고 피를 많이 흘렸으니 당분간 무리하게 몸을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고 했다.

“걱정 마. 세 번째는 금방 끝나.”

나베란이 무심히 말하며 스토웰 대신 경기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원래는 스토웰이 심판으로 해야 할 일이었지만, 마지막 대결은 꼭 자신이 나서겠다고 나베란이 고집을 부렸다.

뼈와 장기가 다친 건 아니지만 크게 베여 고통스러울 텐데도 부득이하게 경기장 안으로 들어간 레사휘나, 그런 오라버니에게 시선 한 줌 주지 않는 나베란이나 똑같이 고집스러웠다.

“그럼, 세 번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녀는 레사휘와 휘아르를 바라보며 조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나베란을 바라봤다. 자신들이 정한 주제가 아닌 여자이면서, 여동생이면서, 대결과는 무관해 보이는 나베란이 정한 주제.

그들뿐만이 아니라 경기장 밖에 모인 사람들조차 나베란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아까의 일에 주춤한 모습을 보인 것도 잠시뿐이었다.

“이 자리에서 선 레사휘 경, 그리고 휘아르 경. 그대들에게 묻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천천히 허공을 갈랐다.

“그대들이 반려로 삼고자 하는 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말해주세요.”

순간, 잔뜩 긴장한 레사휘가 바람 빠진 숨을 터뜨렸다. 자신의 동생이지만 이 순간만은 여자로 여기고 있었다. 유약하고, 호전적이지 못한, 피를 두려워하고 이런 주제나 내건 가냘픈 여자로.

그의 눈에 조롱과 어찌하지 못할 안쓰러움이 담겨 있었다.

“그게 대결의 주제인가?”

“그렇습니다.”

레사휘의 말에 나베란이 침착하게 답했다.

“아이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어이없는 웃음을 참지 못하는 레사휘와는 다르게 휘아르는 입술을 매만지며 말의 의미를 고민했다. 경기장 밖에 선 사람들 역시 한참을 술렁거렸다.

성의 주인이되, 여자인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처음에 누군가는 내가 여자이기에 혀를 차며 '가족‘이라 말했다. 위그노드의 모든 여자가 그렇듯. 그러나 그것도 정말은 모르는 답이다. 정말로 위그노드의 여자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가족’일지는.

다른 누군가는 내가 성의 주인이기에 조롱을 담아 ‘권력’이라 말했다. 내가 그것을 바라고 여자이면서도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고 탐탁지 않아 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재물’을, ‘생명’ 등을 말했다. 모두가 소중히 여길 만한 것들이었다. 그러나 나는 가만히 앉아 아무 말하지 않고 나베란을 바라봤다.

그녀는 내게 세 번째 대결 주제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정작 내 일이면서도 나조차도 모를 답이었다. 그러나 거짓이라고 하기엔 나베란의 눈은 확고했다.

그녀가 말하는 답이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심사숙고해서 생각해주세요. 답을 정할 기회는 단 한 번. 나중에 후회해도, 실수였다고 말해도 단 한 번뿐입니다. 답을 정하면 제가 드린 종이에 답을 적어주세요.”

레사휘가 뭐라 입을 열려고 하자 나베란이 손을 들어 강하게 말했다. 그러자 그가 고민하는 눈을 했다. 휘아르는 눈을 감은 채 생각을 하는 것 같았다. 그들에게 나베란은 작은 종이를 건네주었다.

무슨 생각을 저리할까?

우리가 알고 지낸 시간은 매우 짧아 더듬을 만한 기억도, 그에게 알려준 것도 없다. 하지만 레사휘는 다르다. 비록 사랑하진 않지만 레사휘는 나와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지냈고, 내가 그를 잘 알듯 그 역시 나를 잘 알았다. 하지만 뼛속까지 위그노드의 남자인 그는 죽어도 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명백하게 있었다.

“네가 소중히 여기는 거? 있기는 있냐?”

핀잔을 주듯 스토웰이 옆에서 작게 속삭였다. 주인 대접을 해줄 때는 해줄 때고 이렇게 단둘이 차양 안에 남자 속삭이는 모습이 과연 내가 알던 자였다.

아무리 성주의 하나뿐인 딸일지라도 모르면 알 때까지 배워야 한다며 밤새도록 탑 위에 가둬놓고 별만 보게 한 적도 있었다.

고집은 또 얼마나 센지 내 아비가 죽을 때 아니면 탑 아래로 내려오지도 않을 거라 생각했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의 대답에 나 역시 평소대로 덤덤히 말했다. 그러자 그가 혀를 짧게 치며 비웃었다.

“그렇다면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 없을 텐데? 너는 답지 않게 정이 많으니까. 저 애도 그런 거냐? 못 본 새 새로운 게 생겼어.”

새로운 거라 지칭한 휘아르를 눈짓으로 가리키고는 내가 말이 없자 스토웰이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어릴 때도 그렇게 사람을 주워오더니 여전히 그 버릇 못 버렸어. 겁도 없이.”

“겨울 성의 혈족입니다.”

“거짓말. 네가 주워온 건 다 다른 거였어. 손으로 눈을 녹인다고 만년설이 녹더냐? 모른 척 네 장단에 맞춰주는 거겠지.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더니 너도 결국 비스테 만큼이나 힘들게 사는구나.”

끝끝내 나온 아비의 이름에 그만 고개를 돌려 스토웰을 바라봤다.

“아버지는 자기 것이 아닌 것을 탐냈지만, 저는 아닙니다.”

“이미 이렇게 일을 벌인 것부터가 비스테보다 더 한 거야. 누가 그놈의 딸 아니라고.”

혀를 끌끌 차며 그가 고개까지 저었다.

탑에서 별을 보고, 땅을 보듯 그는 때때로 그렇게 사람을 바라봤다. 그 눈빛이 지독시리 검어 나도 모르게 할 말을 찾지 못하고 피해야만 했다.

“누가 맞출지는 모르겠다만, 그래도 네가 바라는 녀석이었으면 좋겠다.”

“레사휘가 아니어도 괜찮겠습니까?”

스토웰이 내 천문학 스승이듯 레사휘에게도 그는 스승이었다. 천문학은 대대로 성주가 배우는 학문이었다. 나는 성주의 하나뿐인 딸이기에, 레사휘는 내정된 반려로 성주가 될 예정이기에 그에게서 천문학을 배웠다.

스승의 내리사랑은 늘 공평했기에 그에게는 나만큼이나 레사휘 역시 소중한 제자였다.

“네가 언제 남의 말 들었냐? 듣지도 않는 주제에. 저 문제에 답은 없어. 다만, 얼마나 서로를 생각하느냐에 따라 갈릴 뿐이지. 레사휘가 널 생각한다면 맞추겠지.”

스토웰의 시선을 따라 경기장 안으로 다시 눈을 돌렸다.

“저 가엾은 애한테 왜 짐을 떠넘겼냐?”

“모든 걸 끊고 떠나가라고요.”

나도, 제 오라비도, 이곳도 훨훨 털고 따뜻한 곳으로 가라고. 그것은 설사, 내가 진다 해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건 오만이야. 남의 삶을 네가 뭐라고 대신하는데?”

날카로운 일침에 그만, ‘아’ 하고 작게 탄식했다.

내가 뭐라고.

사촌이라면서 따뜻하게 먼저 손 내민 적도 없고, 따뜻하게 웃어준 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나베란은 내게 다가왔다. 모두가 날 싫어해도 내게 다가와 손 내밀고 웃어주었다.

그녀는 그랬다.

“쟤한테 어리광부리지 마라.”

어리광이라니. 마샤도 아니고 내가 나베란에게? 그의 말을 반박하려던 찰나에 순간, 나베란과 시선이 닿았다. 그녀의 푸른 눈동자가 찬연하게 웃으며 날 바라보고 있었다.

모두가 수군거리고 있는 지금.

이 대결로 내 반려가 정해지는 지금.

그녀는 웃는 얼굴이었다.

“…”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스토웰의 말이 사실이었다. 내가 뭐라고. 내가 그녀에게 어리광을 부리고 있었다. 따뜻하게 웃어준 적도, 손 내민 적도 없으면서. 나는 나보다 작고 여린 그녀에게 기대고 있었다.

“쟤는 네가 아냐.”

결국,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그래서 너만은 행복해지라고. 이렇게 차가운 땅에서 눈물마저 얼어붙은 이런 여자가 되지 말고 너는 따뜻한 곳에서 나 대신 행복해지라고.

울어서 이 감정을 토해낼 수만 있다면 좋으련만.

웃어서 이 감정을 뱉어낼 수만 있다면 좋으련만.

저릿저릿한 가슴을 짓누르며 애써 밭은 숨을 내쉬었다.

“나베란은 행복해질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할 거니까.”

얼어붙은 땅도, 금과 태양의 땅도 그녀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 나는 그녀를 풍요로움 만큼이나 자유로운 곳에서 살게 할 것이다.

“고집부리는 건 네 아비나 똑같지. 마음대로 해라. 결국, 후회하는 건 네 몫이니까.”

레사휘가 먼저 답을 적어 접은 종이를 나베란에게 건넸다. 나베란은 그 종이를 받았다. 그녀의 손이 잘게 떨렸다.

“나베란.”

레사휘가 손을 내밀어 그 손을 붙잡으려 했으나 도리어 나베란이 손을 피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눈을 감았던 휘아르가 나를 보고 이내 종이에 뭔가를 적었다. 그리고 작게 접었다. 그리고 머뭇거리듯 나베란에게 건넸다.

“나는 이게 답이길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니었으면 해.”

그 말에, 나베란의 떨리던 손이 멎었다.

“저도 그래요.”

그리고는 그 둘에게서 몸을 돌려 사람들에게 정면으로 섰다. 스토웰 역시 공정을 기한 심사를 위해 경기장 안으로 들어섰다.

“이 대결의 답은 여기에 적혀있습니다.”

그녀가 내민 것은 종이가 아닌, 작게 자른 천 조각이었다. 손수건처럼 네모지게 접어서 답을 감춘 그것을 나베란은 스토웰에게 내밀었다. 그리고 레사휘와 휘아르가 쓴 답 역시 그에게 건넸다.

“먼저, 레사휘 경의 종이부터 확인한다. 반려로 삼고자 하는 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한 답으로 레사휘 경은.”

스토웰이 짓궂게도 말을 멈추었다.

그러자 잔뜩 긴장한 경기장 밖의 사람들과 기사들이 흥분하여 야유했다. 그러나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느릿느릿하게 종이를 폈다.

“레사휘 경은 ‘아버지’라고 적었다.”

아버지.

뼛속까지 위그노드인 그다운 답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틀린 답은 아니었다. 어미를 괴롭게 하고, 오라비를 슬프게 했으며, 결국엔 나까지 울 수 없게 만든 아비.

그러나 나는 그 어두운 밤, 열이 나 어미를 찾으려 했던 때 다정하게 다가온 아비를 잊지 못한다. 비록 아비답지 못했어도, 아비이기 이전에 냉혹한 성주였어도 내게 단 하나뿐인 아버지였다.

나는 그래서 아버지가 소중하면서도 한 편으로는 증오스러웠고 또 한편으로는 절대 손에서 놓칠 수 없는 것 중 하나였다.

레사휘가 의기양양하게 날 바라봤다.

“다음은 휘아르 경의 답을 확인한다. 반려로 삼고자 하는 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한 답으로…”

이번에도 역시 느릿느릿하게 말하며 종이를 열던 그가 와락 미간을 찌푸렸다. 그리고는 답지 않게 휘아르를 바라봤다.

“이게 맞나?”

“맞습니다.”

“실수가 아니고?”

“아닙니다.”

그는 태연하게 얼굴을 굳힌 채 말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 둘의 반응에 궁금증을 표시했다. 나 역시 그가 무엇을 썼는지가 궁금했다.

“휘아르 경이 쓴 답은 ‘눈물’이다.”

순간, 누군가 세게 명치를 내려친 것처럼 숨을 쉴 수가 없어 한참을 그렇게 있어야만 했다. 그를 노려보듯 바라봤다.

그 역시 웃지도, 울지도 않는 얼굴로 내 쪽을 바라봤다. 그의 얼굴은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차게 굳어 있었다. 이런 얼토당토않은 답에 모두가 졌다고, 이제 성의 주인은 레사휘라고 아직 답도 정해지지 않았는데도 크게 떠들어댔다. 아벨린 경 외 레사휘를 지지하는 기사들은 크게 환호성 치며 레사휘의 이름을 불렀다. 레사휘는 휘아르를 향해 어처구니없는 웃음을 터뜨리며 비난을 감추지 않았다.

이 자리에서 표정을 감추고 선 자는,

“그만! 아직 이 대결의 정답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조용히 하세요.”

나베란 뿐이었다. 스토웰마저 당황함을 감추지 못하는데 그녀만이 고요히 사람들을 진정시켰다. 그리고 스토웰을 바라봤다.

“정답을 말해주세요, 스토웰 님.”

그가 겨우 당황함을 감추며 손수건처럼 싼 천을 열었다. 천을 열자 그 안에 접은 종이가 하나 들어 있었다.

‘아.’

낡게 색이 바랜 그 종이를 본 순간, 떠올랐다. 그리고 왜, 나베란이 이런 대결 주제를 정했는지 알 수 있었다.

‘눈 여우’에 의해 양친을 모두 잃고 성에 살게 된 나베란은 종종 혼자서 자는 밤을 두려워했다. 하지만 언제까지 오라비인 레사휘가 그녀 곁에 머물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 나 역시 성을 지키는 일에 급급해 그녀를 제대로 신경 쓸 수가 없었다.

결국, 나베란은 두려움에 못 이겨 밤마다 등을 켜놓고 잠을 자지 못했다. 마샤가 어미처럼 따뜻하게 곁에 머물러 줘도 그녀는 불안해했다. 언제고 여기도 ‘눈 여우’에 의해 부서져 모두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불안해했다. 언제나 곁에 있을 줄 알았던 양친마저 허무하게 죽었다.

그녀는 덧없는 현실에 시름시름 말라가고 한참을 앓아야 했다.

“네 오라버니가 성을 지켜줘도 두려워?”

탑으로 올라가는 계단 옆 어둠 속에 숨은 채 훌쩍이는 나베란을 불렀다. 또 이렇게 숨은 걸 알면 마샤가 걱정할 게 분명한데도 그녀는 침대에 가만히 있질 못했다. 자다가 죽을까 봐. 자기가 잠든 사이 누군가 죽었다는 소리를 전할까 봐. 그리고 이렇게 자신이 우는 것을 보고 걱정할까 봐.

그래서 이렇게 몰래몰래 숨는다.

“아이샤, 나는. 나는 오라버니도, 너도 죽을까 봐 무서워.”

“사람은 결국 죽게 마련이야.”

“그래도 무서워, 아이샤.”

“어떻게 하면 안 울래? 성에 너만 사는 게 아냐. 네가 그렇게 불안해하면 모두가 불안해 한다고.”

아무리 어려도 주인의 혈족. 이 성에, 병든 아비를 제외하고는 겨울 성의 혈족은 단 셋뿐이었다. 차디찬 말에 결국 나베란이 크게 울음을 터뜨렸다. 이 상황이 답답했고 짜증이 났다. 밖에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 가는데 여기서 이렇게 무의미한 시간을 흘려보내는 게 싫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어릴 때 마샤가 해준 말이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줄게. 그럼 그게 널 지켜주겠지.”

“응?”

“네 두려움, 슬픔, 괴로움을 모두 대신 빨아들여 줄 거라고.”

품 안에 넣고 다니던 작은 단검을 꺼내 치마 안쪽의 부드러운 속치마 한쪽을 네모난 크기로 잘랐다. 그리고 멍하니 내가 뭐하나 바라보는 나베란을 내버려두고 계단을 올라가 탑에서 종이와 펜을 빌렸다.

“그게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야?”

종이에 적는 단어를 보며 나베란이 물었다. 그때 가장 생각났던 단어. 그리고 가장 바랐던 단어.

가장 원했던 단어.

가장 소중했던 단어.

고개를 끄덕이고는 접어서 잘라낸 속치마 천에 접어 건네주었다. 어린 시절 마샤는 마법이라고 했다.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적어 넣어야만 이루어지는 마법. 그 소중히 여기는 것이 진실하면 진실할수록 지니고 있는 자를 온갖 괴로움에서 지켜준다고 했다.

나는 그래서 어린 시절 제일 처음 만들 때, 몰래 어머니의 이름을 적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나베란이 아직도 가지고 있는 줄은 몰랐다. 스토웰이 차마 말을 열지 못하자 나베란이 그 종이를 들었다.

“반려로 삼고자 하는 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한 답은.”

모두의 시선이 나베란에게 향했다.

레사휘도, 기사들도.

그러나 휘아르는 얼굴을 굳혔다.

“바로…”

나베란이 입술 끝에 애써 힘을 줬으나 터져 나오는 울음을 막지 못했다. 그녀의 두 눈 아래로 눈물이 흘러 볼을 적시고 턱 아래로 떨어져 부서졌다.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입니다.”

이제는 잃어버린 사람다움의 흔적이며 과거의 기억. 그리고 사람들을 지키는 도구. 하지만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중하고 소중해서 다시 한 번 흘리고 싶은 것. 내가 그토록 갖고자 소망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었다.

그녀가 어찌하지 못할 정도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나베란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내가 베일로 얼굴을 가리는 이유를. 그녀는 내가 울지 못하는 것 역시 알아채고 있었다.

“어떻게…”

망연한 눈으로 나베란을 바라봤지만, 그녀는 꾹 참고 터뜨린 눈물을 쉬이 멈추지 못했다.

“아냐! 그런 게 답일 리 없어!”

레사휘가 비명처럼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는 스토웰에게 달려들듯 다가가 그의 손에 들린 종이를 펼쳐 봤다. 그리곤 바닥에 내던지고는 발로 짓밟았다.

“제대로 해! 제대로 하라고! 이따위 수작 하지 말고!”

“오라버니!”

“그만둬.”

휘아르가 다급히 레사휘를 막아섰지만, 갑자기 무슨 힘이라도 난 건지 다친 몸으로 휘아르를 밀쳐냈다.

“나베란!”

레사휘는 그대로 거칠게 나베란의 어깨를 붙잡았다. 하얗게 가슴을 감싼 붕대에 벌건 피가 번져 나왔다. 그 모습에 나베란이 놀라 말리는 대도 막무가내였다.

“네가 아이샤를 이전부터 친밀하게 여긴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 하지만 나베란. 그래도 이건 아냐. 이런 짓을 저질러서는 안 되는 거야!”

“어떻게 그런 말을. 오라버니야말로 약속을 지키세요!”

그녀가 생전 처음이라 해도 좋을 만큼 레사휘를 노려보며 말했다. 그러나 그의 눈에 그런 게 들어올 리가 없었다.

“약속? 무슨 약속?”

“세 번째 대결은 휘아르가 이겼어요. 오라버니가 졌다고요! 이제 성의 주인이 되는 아이샤의 반려는 휘아르에요!”

나베란의 말에 그가 그녀의 어깨를 놔주며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가관이로구나. 이래서 흰 눈 가까이 흙탕물을 두지 말라 했거늘.”

“오라버니!”

갑자기 변모한 레사휘의 태도에 경기장 밖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분명 휘아르가 정답을 맞혔지만, 레사휘는 그동안 이 땅을 지킨 기사였다. 자신들의 주인이 될 거라 확신했던 자였다.

“그만해.”

결국, 차양 밖으로 나서야 했다.

“아니지. 아냐. 그만할 건 내가 아니고 바로 너야.”

그가 차게 조소하며 손을 들었다. 그러자 순식간에 경기장 밖에 서 있던 병사와 기사들이 몰려나왔다. 사람들이 놀라 소리 지르며 피하는 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은 검을 빼 들었다.

“이게 무슨 짓이지?”

심지어 나에게조차 아벨린 경이 검을 빼 들고 다가오자 린드 경이 다급히 내 앞을 막아섰다. 그가 아벨린 경을 향해 노기 서린 고함을 터뜨렸다.

“감히, 아벨린 네가!”

주군을 지키는 기사들이 주인에게 검을 빼들었다. 그것만으로도 일어나선 안 되는 일들인데 병사들까지 합세했다.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 스스럼없이 검을 겨누어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불시에 당한 일에 당황했지만 이내 기사들은 침착하게 대응했다.

“감히 라고 할 일은 아니지. 어쨌든 레사휘 님 역시 겨울 성의 혈족이니까.”

아벨린 경이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린드 경에게 검을 겨누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그에게서 날 지키기 위해 검을 휘둘렀지만, 합세하여 여기저기 찌르는 검 날에 무릎을 굽힐 수밖에 없었다.

“린드 경!”

입가에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린드 경을 붙잡았다.

아무리 기사들이라지만 수적으로도 열세였고, 철저히 준비한 자들에게는 당하지 못하는 법이었다.

“윽!”

레만 경이 거칠게 반항하는 인트 경의 다리를 검으로 베자 그가 고통스러운 소리를 내며 바닥에 쓰러졌다. 베인 다리를 붙잡고 고통스러워하는 인트 경을 보며 주먹을 쥐었다.

“레사휘, 그만해!”

“아, 반려의 부탁인가? 그러나 지금은 들어주고 싶지 않군.”

그의 비아냥에 몸을 일으키자 삽시간에 검이 내게 향했다. 휘아르가 빠르게 검을 들었지만, 내게 향하는 검 날에 이를 악물며 검을 내려야만 했다.

“감히, 사람도 아닌 것이.”

레사휘가 휘아르의 옆구리를 차며 바닥에 쓰러뜨렸다.

“그만하세요, 오라버니!”

참지 못하고 나베란이 소리를 질렀다. 병사들이 사람들을 막아서고, 날 따르는 자들에게 검을 겨누어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그런 와중에 나베란은 레사휘의 여동생이기에 아무 제재도 받지 않았다.

그녀는 바들바들 떨며 바닥에 쓰러진 채 레사휘에게 짓밟히고 있는 휘아르를 바라봤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레사휘를 노려봤다.

“약속을 지키세요.”

“약속은 처음부터 아무것도 아니었어.”

“꼭 이렇게 해야 했나요? 왜, 오라버니는.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우리는 아이샤에게 빚을 졌는데. 고아가 된 우리가 지금 이날까지 살 수 있는 건 모두! 아이샤 덕분이라고요. 아벨린 경!”

내게 검을 겨눈 아벨린 경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그녀의 몸은 레사휘를 따르는 기사들에게 붙잡혀 움직일 수 없었다.

“어떻게 당신이! 우리가 모두 어찌 사는 데! 대체 우리가 ‘눈 여우’에게서 이만큼 죽지 않고 살아남았는지 생각 못 하는 거예요? 위그노드를 다스리는 건 오라버니가 아니에요. 아이샤라고요!!”

“그만. 그만해, 나베란. 아무리 너일지라도 이 이상…”

“이 이상 뭐요? 절 가두기라도 하실 건가요? 그렇다면 차라리! 제 발로 이 성을 나갈 거예요.”

나베란의 말이 끝나자마자 밖이 어수선하기 시작했다. 영지민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느라 성문을 지키고 섰던 병사들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문을 두드리는 거친 소음들이 나기 시작하자 레사휘가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일이지? 확인해.”

그러나 확인할 것도 없이 우르르 몰려오는 병사들과 기사들의 모습에 레사휘의 미간이 일그러졌다. 위그노드의 민족이 아니었다.

붉은 갑옷과 붉은 옷을 차려입은,

지난겨울에 왔지만 처음 겪은 겨울에 모두 죽어버렸던.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들은 실로이의 기사들과 병사들이었다.

겨울도 아니고, 하물며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찾아온 갑작스런 등장에 나도, 레사휘도 모두가 얼어붙었다. 그러나 우호적인 방문은 아닌 것 같았다. 그들은 나타나자마자 레사휘와 그를 따르는 기사들을 붙잡았다. 거칠게 반항해도 나와 똑같이 수적으로 열세였다.

그러나 붉은 병사들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사내를 보고는 입술을 깨물었다. 순간, 서랍에 넣었던 편지를 떠올렸다. 나는 확실하게 거절했다.

검붉은 색이 아닌, 화려할 정도로 밝은 붉은 머리카락을 가벼이 뒤로 넘기며 그가 주변을 살폈다. 태양을 닮은 붉은 눈에는 흥미로움이 서려 있었다.

“와우, 날 위한 환영인가?”

그가 다소 위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는 한달음에 나베란을 붙잡고 선 병사들에게 다가갔다.

“이런. 이건 아니지.”

그의 손짓에 실로이의 병사들이 나베란을 붙잡은 위그노드의 병사들을 쳐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다. 졸지에 나와 같은 꼴이 되어 실로이의 기사들에게 붙잡힌 레사휘가 소리 질렀다.

“나베란에게 무슨 짓을 하려는 거냐!”

“어?”

그가 레사휘를 보며 모른 척 히죽 웃더니 이내 나베란을 향해 과장이라고 해도 좋을 듯이 크게 손을 내밀며 무릎을 꿇었다.

“내 아내를 찾으러 왔는데.”

“나베란.”

당황한 것은 레사휘만이 아니었다. 나는 거절했다.

그가 두 번이나 보낸 편지에 두 번 다. 자신의 화려한 외모만큼이나 화려하기 그지없는 붉은 편지를.

“미안해, 아이샤. 내가 선택했어. 오라버니는 분명 이런 짓을 저지를 거니까.”

“나베란!”

레사휘가 피가 배어 나와 뚝뚝 흐를 정도로 몸부림쳤지만 나베란은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는 손을 내미는 자,

실로이의 태양의 일족.

이 대륙을 다스리는 왕의 아들.

내게 두 번이나 편지를 보내 겨울성의 혈족을 아내로 보내달라고 했던, 데미온 라 실로이의 손을 붙잡았다.

거친 레사휘의 비명을 들으며 어지러움에 눈을 감았다.

내 어릴 적에 따뜻한 말 한마디, 다정한 손길 하나 주지 않았어도 네게 당당했던 건, 내심 하나 결심한 게 있기 때문이었다. 너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도 다정히 웃어줄 때마다 하나씩 쌓여 그 결심은 누구도 깨지 못할 맹세처럼 내 안에서 얼어붙었다.

나는 너를 행복하게 만들 거야.

“무례하십니다!”

인트 경이 얼굴을 붉게 물들이며 크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의자에 눕듯이 등을 기대고 원탁 위에 두 다리를 올려놓은 데미온이 고까운 표정을 지었다.

“무엇이?”

그의 태연자약한 말투와 행동에 인트 경의 얼굴이 와락 일그러졌다. 인트 경은 분을 참을 수 없어 거친 숨을 터뜨렸으나 그는 빙그레 웃을 뿐이었다. 그 속에 깃든 표정이 우아할 정도로 즐거워 무엇이 그리 즐겁고 신이 나는지 묻고 싶을 정도였다. 그러나 원탁의 기사들은 이 무례한 왕족에게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벌써 몇 번이나 주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내 이 상태였다. 생전 화내는 법 없는, 다른 기사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법이 없는 인트 경이 큰소리를 낼 때부터 이미 한계를 넘은 거였다. 앳된 얼굴이 무시 받았다는 생각에 더더욱 분노로 타올랐다.

“아무리 저하라 할지라도…”

“그만.”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손을 들어 막자 인트 경이 얼굴을 잔뜩 찌푸리며 가까스로 화를 억눌러야만 했다. 인트 경뿐만 아니라 모두가 검을 꺼내고픈 눈으로 날 봤으나 더 입을 열지 않았다. 인트 경은 이를 악물며 뒤로 물러섰다.

“왜? 놔두지 그러나? 실로이에는 저런 방자한 이가 없어 내심 재미났었는데.”

그가 조롱어린 말을 지껄였다.

“제 기사들의 소란함에 사죄드립니다.”

그를 향해 살풋 고개를 숙이자 허리춤에 매어둔 검들이 시끄럽게 울리는 소리가 원탁 주위로 났다.

“됐어. 기사란 것들은 실로이나 위그노드나 시끄러운 건 똑같으니까. 너야말로 여자의 몸으로 힘들겠어.”

그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손을 흔들며 위로 아닌 위로를 고고하게 내뱉는다. 베일을 살짝 어루만지며 원탁에 서서 우리를 지켜보는 기사들을 바라봤다. 그들의 눈은 한결같이 뭔가를 외치고 있었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마지막으로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거 아십니까?”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그를 향해 던진 질문에 그가 눈을 빛냈다. 그는 내심 기사들을 놀리면서까지 내가 움직이기를 바라고 있어서 더 그러했다.

“얼음은 소리 나면서 녹지 않습니다. 소리가 난다면 분명 망치를 대고 두드리는 자가 있기 때문인 거죠.”

바로 너처럼.

“그게 나라는 건가?”

“그리 말하진 않았으나 그리 들었다면 그런 걸 겁니다.”

돌려서 말하는 긍정에 기분이 나쁘지도 않은지, 아님 말귀를 못 알아먹은 건지 그는 유쾌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얼음들의 주인께서는 꽤나 이들을 신뢰하나 보군. 배신당한 주제에 말야. 내가 없었더라면 그대로 목이 날아갈 뻔하지 않았나?”

레사휘와 아벨린 경 외 그들을 따르는 기사들이 내게 검을 겨눈 것을 똑똑히 보았던 그가 제법 신랄하게 비꼬았다.

“얼음에 흙이 묻었다면 닦아내면 그만. 아무리 태양의 일족이라 할지라도 눈과 얼음의 대지에서 일어난 일에는 관심을 끄시지요.”

“왜지? 나는 대륙의 패자, 실로이 왕의 아들이다.”

오만하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그는 자신의 가진 것을 여실히 드러내며 말했다. 그러나 비꼴 수 없을 정도로 그건 명백한 사실이었다.

허나,

“이곳은 위그노드입니다.”

“그게 뭐?”

“실로이의 왕께서도 위그노드의 법칙은 따릅니다.”

“그래서 뭐?”

그는 한결같이 내 말에 비꼬듯이 사족을 달았다. 그리고는 비웃듯이 잔뜩 이를 드러낸 기사들을 눈짓으로 바라봤다. 그들이 검을 뽑지 못하는 것을 알기에, 내가 그를 내쫓을 수 없음을 알기에 이리하는 것이다.

허나,

이곳은 위그노드다.

“모르기에 저지른 일이라면 말씀드리지요. 우리는 죽은 짐승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의 여유로움이 일순간 깨지며 당황함을 금치 못했다. 삐딱하게 자리한 자세가 들썩거리며 날 바라봤다. 그러나 꼿꼿하게 앉은 내 자세와 베일 너머의 시선은 변함이 없었다. 그는 내 태도에 부아가 나는지 결국 몸을 일으키며 씩씩거렸다.

“지금 내게 죽은 짐승이라 말하는 건가?!”

“그렇습니다.”

“감히…!”

모욕당했다는 생각에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그가 소리 질렀다. 그러나 얼음은 본디 조용한 것이다. 그의 붉은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했다.

“탁자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물건과 양식으로 삼는 죽은 짐승뿐입니다. 그리하여 알려 드렸던 것뿐. 알면서도 그리한다면 그리 대우할 수밖에요. 말씀하십시오. 어찌 대우받길 원하십니까. 실로이의 왕자 저하.”

내 말에 그의 뒤편에 선 실로이의 기사들이 검을 뽑아들어 겨누었다. 그러자 이때만을 기다린 원탁의 기사들 역시 망설임 없이 검을 꺼냈다. 삽시간에 맞부딪친 검처럼 날카로운 공기가 응접실에 가득했다.

그러나 데미온도 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말한 의미를 그가 모르지 않기에 그는 아까의 여유로 가장한 얼굴대신 자신의 본 얼굴을 드러냈다. 이곳이 아무리 대륙의 북단, 저주라 세간에 오르내리고 있는 ‘눈 여우’에 의해 옛날보다 위상도, 명예도 약화했지만 그래도 이곳은 위그노드였다.

실로이의 왕조차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이 위그노드를 한낱, 왕위 계승 서열에조차 오르지 못하는 서출 출신의 왕자 따위가 어찌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생각보다 멍청하다고 여긴 건 가장이었던지 그의 붉은 눈이 침착하게 가라앉았다.

정말로 앞뒤 구분 못하고 행패를 부렸더라면 당장 기사들을 동원해 감옥에 가뒀을 것이다. 아무리 실로이의 왕자라 해도 그가 있는 곳은 위그노드였다.

“확실히 얼음들의 주인. 배짱 하나 좋구나.”

그러나 그런 번거로움을 굳이 감수할 필요 없이 데미온이 똑바로 의자에 앉았다. 자신의 기사들에게 손짓하자 그들은 검을 내렸고 내 기사들 역시 검을 거뒀다.

역시나.

입가를 살짝 늘어뜨렸다. 처음과는 예상이 다른 자였다. 포기를 모르고 번번이 보낸 편지처럼 그는 집요했고, 자신에 대한 무례와 무시에도 분노를 숙이고 감출 정도로 똑똑했다.

대륙의 패자라는 이름답게 실로이의 왕에게는 수많은 왕자와 공주가 있다. 그러나 적통 왕위계승자도 아닌, 고작 서출 출신의 왕자가 이 위그노드에까지 이름이 알려졌다는 것은 실로 대단한 일이었다. 그것은 그가 왕을 제 품에 끼고 주무르는 어미의 덕을 보는 게 아닌, 스스로의 실력과 기량이 다른 왕자들을 제친다는 것을 의미했다. 심지어 왕위 후계자보다도.

하지만.

“저는 분명 거절한다고 전했습니다.”

그에게 왕위가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결코 얻지 못하는 것처럼 나베란 역시 이와 같다. 나는 그에게 나베란을 보낼 생각이 없다. 그가 아무리 보기와는 다르게 자상하고 나베란을 사랑으로 아껴줄지라도 그런 폭풍의 눈으로 보낼 생각은 결단코 없었다.

“하지만 허락한다는 편지를 나는 받았어.”

그가 탁자 위에 편지를 꺼냈다. 그것은 내가 보낸 편지가 아닌, 나베란이 멋대로 저지른 흔적이었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리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그리 나온다는 건가?”

어이가 없다는 어투로 그가 편지를 흔들었다. 그러나 그의 붉은 눈은 가라앉아 있어 냉소적으로도 보였다. 화려한 불꽃처럼 타오를 것 같은 붉은 눈동자는 의외로 시린 한기를 띠고 있었다.

“저하 이전에도, 그리고 제 아버지가 위그노드의 주인일 적에도 겨울 성의 혈족을 반려로 달라 청하는 일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입니다.”

“왜지?”

“겨울 성의 혈족은 오로지 위그노드에만 존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그노드의 민족은 오로지 위그노드의 민족과.

그것은 이 피와 눈과 얼음으로 이루어진 대지에서 떠나거나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오래전부터 이어진 생존법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의 이유가 어떻든 어린아이일 때부터 당연하게 정설로 받아들일 정도로 이미 우리의 전통이었다. 그리하여 이브실라를 복속하였음에도 그 땅에 내려가 살지 않고, 그 땅의 민족을 반려로 삼지 않는다.

우리가 ‘눈여우’에 의해 목숨을 잃어도, 겨울이 길어져도 이 땅을 버리고 도망치지 못하는 건 뼛속까지 이어온 긍지. 그리고 오랫동안 이어진 우리의 전통 때문이기도 했다.

위그노드의 민족이 그럴진대 하물며 겨울 성 일족이라 할지라도 다르지 않다. 겨울 성 혈족만의 고유한 푸른 눈을 경외하긴 하나 근친혼을 정례로 따르는 것은 아니다. 직계를 제외한 나머지는 원한다면 위그노드의 다른 사람과 맺어져도 된다. 그러나 절대 위그노드 밖으로 나가 씨를 퍼뜨리지는 않는다. 그때만큼은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다.

그러니 내가 나베란을 이브실라에 보내겠다는 말에 레사휘가 놀라는 것이다. 위그노드의 긍지와 뼛속까지 박힌 채 이어져 온 전통에 정면으로 부딪치는 일이니까.

그가 고개를 저었다. 그러자 태양의 자손답게 붉은 머리카락이 눈앞에 어지러이 흔들렸다.

“얼음도 결국은 깨지기 마련이지.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어디에 있지?”

침착하게 가라앉았던 그의 눈이 불씨를 당긴 화로처럼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이 그의 열망을 가득 담은 채 타올랐다. 그 눈이 익숙하다.

절대 가질 수 없는 것을 당당하게 제 것이라 말하며 손을 뻗는 저 눈을, 나는 안다. 저것은 절대 가질 수 없음에도 오만하고 포기를 모르던 아비의 눈과 같았다. 당당하게 제 것이 아닌 것을 제 것이라 말하는,

주인의 눈이었다.

“모든 것에는 제 자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암암리에 도는 소문이 사실이었다. 한낱, 서출 출신의 왕자가 감히 제 것이 아닌 왕좌를 탐내고 있다는 소문이. 물론, 내 앞에 앉아있는 그가 비극적인 인물이라는 것은 안다. 남보다 가진 것은 많으나 딱 하나, 왕후가 제 어미가 아니라는 것이 가진 모든 것을 무(無)로 만들었다.

더없이 붉은 머리카락과 붉은 눈동자.

예전에 본 차기 왕의 후계자는 붉은 빛이 도는 갈색의 머리카락을 지닌 사람이었다. 붉음이 짙다는 것은 곧, 아스헤의 힘. 신의 힘을 가장 많이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아스헤의 힘은 왕위 후계자보다도 왕위에는 손도 대지 못할 서출 출신의 왕자가 더 많이 가지고 태어났다.

그가 붉은 눈을 빛냈다.

“일찍이 주인으로 길러진 그대는 모르겠지.”

어쩌면 그와 나는 같을 수도 있다. 자신의 자리를 찾기 위해 극명하게 싸우는 그런 모습은 닮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주인으로 길러진 게 아니라 주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누구와는 아주 다르게.”

그는 주인이 되기 위해 위그노드의 힘을 이용하려고 나베란을 달라 청했다. 그는 그럴 수만 있다면 몇 번이고 청을 할 정도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수도 있고, 내게 분노를 감출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가지려고 제 형제를 모두 숙청할 수도 있다. 그는 능히 피를 뒤집어쓰고 피투성이의 왕관을 쓸 수 있는 사람이었다.

허나, 나는 다르다.

이곳은 나의 것. 나의 집. 나의 자리였다. 스스로의 살을 태워 얼음눈물을 흘릴 정도로, 레사휘가 끔찍이 싫어도 그와의 혼인을 받아들일 정도로, 모두가 내게 검을 겨누어도 떠나지 않을 정도로 이곳은 내가 사는 곳이었다.

종국엔 스스로 휘아르와 함께 일어섰으나 그러해도 나는 어느 누구도 다치거나 죽게 해서 내 집을 더럽히고 싶은 마음은 없다.

이곳은 나의 집.

내가 사는 나의 집이었다.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떠날 수 없는 곳이었다.

“하.”

그가 웃음을 터뜨렸으나 눈은 다시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대가 아무리 안 된다 하더라도 이 편지의 주인은 내게 약속했어. 내 반려로 오겠다고. 내 아무리 서출이나 성스러운 혼인 약속을 눈앞에서 망가뜨리는 무례를 두고 보지는 않아. 그러니 그대는 준비해라. 그대의 사촌을 나와 같이 실로이에 보내는 일을.”

그가 또다시 흔드는 편지를 노려봤다.

그의 말대로 저것은 성스러운 혼인의 약속. 구두(口頭)로 한 것도 아니니 무효라 할 수도 없었다. 성스러운 혼인의 약속은 왕이라 할지라도 깨지 못한다. 그것을 깨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를 죽이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 앞에 앉아서 편지를 흔드는 저자는 서출이라 하나 왕자. 감옥에 가두는 것과 죽이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하물며.

“내 어미가 황금의 여자임을 잊지 마라.”

애써 잊어두었던 것을 그가 쐐기처럼 박았다. 그 말에 참을 수 없어 미간을 찌푸리며 입술을 깨물었다.

고작 서출. 그러나 그의 어미는 왕의 애첩이었다. 아직도 왕을 품에 넣고 주무른다는, 황금의 여자. 황금의 여자라는 별명은 우아한 귀부인에게 주는 말도, 아름다움이 빛이 난다는 말도 아니었다.

천한 매음굴 출신의 금발 무희가 왕의 눈에 들어 총애를 하사받아 총희가 되었다. 거기다 그녀가 낳은 아들을 왕자로 만들었다. 그것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다. 왕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뒷배를 가진 친정을 둔 왕후로 인해 지금보다 더 많은 수의 왕자와 공주가 세상에 대놓고 드러나지 못하고 있었다. 아무리 고관대작의 영애라 할지라도 불가능한 일을 고작 천한 무희가 해냈다.

거기다 왕은 그녀를 위해 황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어 신전에 바쳤다. 그녀를 총애한다는 것을 왕이 드러내놓고 공개한 것이었다. 그로 인해 뒤에선 천하다 멸시하는 이들도 앞으로는 온갖 화려한 미사여구를 붙이며 그녀와 그녀의 아들을 무시할 수 없었다.

“위그노드에서 나가는 겨울 성의 혈족은 더는 위그노드의 민족이 아닙니다. 그래도 데려가실 겁니까?”

그가 손을 들어 탁자를 두드렸다. 마치, 악기를 연주하듯이. 그러나 분위기는 한없이 무거워져서 어느 누구도 그것에 토를 달지 못했다.

그는 탁자를 두드리는 손을 보며 입을 열었다.

“이런 말이 있지.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그대가 과연 사촌을 내버려둘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살얼음판으로 떠나게 되는 사촌을?”

“위그노드를 떠나면 그녀는 더는 제 사촌이 아닙니다.”

“아니, 그대는 그러지 못해. 그랬다면 이브실라로 보낼 생각을 처음부터 하지 않았겠지.”

쾅–

하는 요란한 소리가 나며 의자가 뒤로 넘어졌다.

도저히 똑바로 의자에 앉아있을 수 없었다. 억지로 주먹을 쥔 손이 떨렸다. 대체 어느 누가 그런 말을 저자에게 전할 수 있지? 순식간에 머리가 검게 죽어 아무것도 떠올릴 수가 없었다.

“이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지 않다고 할 텐가?”

그는 그런 날 향해 차게 조소했다.

드러내놓고 소리를 내서 웃지는 않았지만, 베일 안쪽까지 확연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의 오만한 얼굴에 도리어 머릿속이 차게 가라앉았다.

그의 붉은 눈동자를 응시했다.

한순간에 주인이라 불릴만한 자들이 죽거나 병들어 아이들이 남게 된 그 날부터 성의 대다수가 저런 눈을 했다. 지켜주고 보호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고 휘두르려고 마음먹었던 그 눈빛이었다.

그 눈앞에 레사휘는 더욱더 차갑게 날을 갈아야 했고, 나베란은 더더욱 몸을 낮췄어야 했으며, 나는 베일로 얼굴을 감추고 마음을 얼게 했다.

고작 이따위 도발에 넘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나는 이 땅의 주인이고, 그는 이 땅의 힘을 취하기 위해 감히 흙발로 들어온 자였다.

그 눈을 보며 입을 열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

말끝을 흐렸지만, 그의 눈을 피하지는 않았다. 그는 나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나 그 말의 의미는 불순할 정도로 직접적이었다.

위그노드의 딸을 데려가니 그녀를 위한다면 그만큼 원조하라는 뜻이었다. 내 눈앞에 앉은 이 남자를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눈 여우에게 피를 흘린 만큼의 피를, 아니 그보다 더 많은 피를 이 남자를 위해 흘리라고 강요하고 있었다.

“부정할 수도 없이 그 말은 분명 맞는 말입니다. 허나, 제 사촌이 아무리 혈육이라 할지라도, 제 백성보다 무거운 적은 없습니다. 제게 어떤 대답을 듣길 원하셔도 저는 원하시는 답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혼인의 서약이 있는 이상, 데려가신다면 붙잡지 않겠습니다.”

“그녀가 왕후가 된다면 이보다 더한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몰아치는 겨울에 죽을 필요도 없고, 눈 여우라는 괴수에게 벌벌 떨 필요도 없지.”

마치 굉장한 제안이라도 한 듯 그는 자신만만한 얼굴을 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선 자들 모두 아무런 표정조차 짓지 않았다.

한순간, 공허한 정적이 찾아왔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찰나였다.

“킥…!”

참기 위해 갖은 노력을 했으나 그만 참지 못하고 새어나온 웃음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하나로 모였다.

자상 때문에 서 있기도 벅찬 주제에 피가 배어 나온 다리에 붕대를 질끈 감고 악을 쓰고 서 있는 인트 경이었다. 그가 다소 수줍게 얼굴을 붉혔다가 이내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 원탁의 기사들이 소리 내 비웃었다.

“무엄하다!”

실로이의 기사들이 거칠게 소리 질렀으나, 원탁의 기사들의 웃음소리는 멎지 않았다. 더 크게 조롱하듯 커지기만 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가만히 나의 기사들을 응시하다 당황한 데미온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봤다.

“이 무슨 무례지? 당장 멈추게 해.”

시선을 그대로 둔 채 손을 들자 떠들썩하게 웃던 소리가 삽시간에 사라졌다. 그는 그것이 더욱 기분 나쁜지 날 노려봤다.

“저희에게는 이미 풍요의 땅, 이브실라가 있습니다.”

“알고 있지. 그래서 내가 이보다 더한 부를 약속한다고 하지 않았나? 원한다면 위그노드의 겨울 민족 전부가 이주할 수 있는 땅을…”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그의 말을 자르며 한 걸음 앞으로 내디뎠다. 그러자 오만한 실로이 왕의 아들, 태양의 일족의 얼굴이 잘게 일그러지는 게 보인다.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삿된 눈 여우가 우리를 죽여도, 겨울에 의해 몸이 얼어붙어도, 이보다 더한 시련이 닥친다 할지라도 위그노드의 겨울 민족은 이 땅에서 살고 죽을 것입니다. 절대 이 땅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땅은 우리 겨울 민족의 긍지고, 명예이며, 아주 오래전부터 이 땅을 벗어나지 않겠다고 실로이의 초대 왕과 한 우리의 맹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하께서는 우리의 명예를 입으로 더럽히셨기에 조롱을 당하신 겁니다.”

그러자 그가 크게 비웃던 원탁의 기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어보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자리에 앉은 채 크게 웃었다.

“하, 하하!”

비웃음을 당한 주제에 그의 기세는 전혀 수그러들지 않았다. 이 자가 정신이 제대로 박힌 자인지 의심이 들 정도로 그는 배를 붙잡고 웃었다. 그러더니 언제 웃었냐는 얼굴로 음험하게 눈을 빛냈다.

“그래서 그대는 지금 절대로 내 말에 응하지 않겠다는 건가?!”

“그렇습니다.”

“실로이에서 위그노드의 딸이 죽는다 할지라도? 아, 이런. 그런 얼굴들은 하지 말라고. 내가 죽이는 게 아니니까. 다만, 아무리 얼음의 땅에서 온 여자라 할지라도 검 앞에는 모두가 평등하니까 하는 말이지.”

그가 끝까지 이죽거리며 하고픈 말을 토해냈다. 세이 경이 다시 일으켜 세운 의자에 앉자 붉은 눈이 한결 더 가까이 보였다.

그는 모든 게 다 장난 같았다.

목숨이라도 건 도박을 하는 것처럼 그는 가차 없었다. 내가 끝끝내 안 된다 말하자 나베란을 죽인다고 대놓고 말하고 있었고, 내가 결국 된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나베란은 도구일 뿐, 더 나아질 길이 없었다.

나베란은 너무나도 위험한 자에게 미래를 약속해버렸다. 그동안 울었던 것보다 더 많은 나날을 피가 섞인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그 비통한 미래가 너무나도 참담해 베일 안에서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원탁 아래에 감춘 두 손을 세게 쥐었다.

“어쩔 수 없지. 땅의 주인인 그대가 그리 결정했다면 따를 수밖에. 그러나 그대도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게 있어. 지금 이 순간부터 그대의 사촌, 나베란에 대한 권한은 내게 있다는 것을.”

그가 끝까지 조롱하듯 말하며 몸을 일으켰다.

“가자.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하니까.”

그가 걸음을 내딛으며 이 모임의 파함을 선고했다. 그를 따라 실로이의 기사들이 발을 내디뎠고 문으로 향했다.

이제 그가 저 문을 나서면 나베란과는 끝이었다.

원탁의 기사들의 허리춤에 매인 검들이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나베란을 모르지 않다. 우리의 어린 시절을 지켜본 자들도, 우리와 함께 자란 자들도, 우리가 어린 시절을 지켜본 자들도 기사들 중에는 있었다. 우리는 모두 다 위그노드의 겨울 민족이었다.

내 결정이 무겁기에 그들은 검만 움켜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걸음을 떼지도 않았다. 그러나 모두의 시선은 내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다. 어느 곳에서 시선을 두지 않고 똑바로 앞만 바라봤다.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창밖은 아직 어둠이 도래하지 않았기에 푸르기 그지없었으나 아무런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아까의 그 얼음조차 녹일 열기도, 하늘을 치솟을 것 같던 소란도 모두가 사라져 있었다.

그게 모두 다 오늘의 일이었다.

그 열기와 소란 틈 속에서 그녀가 내 곁에 있었다. 내 행복을 바라마지 않던, 그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세 번째 대결의 주제를 결정했던 그녀가. 그토록 오랫동안 내가 준 부적을 가지고 있던 내 사촌이.

그리고 레사휘에게서 날 지키기 위해 소중히 품어왔던 자신의 미래를 제 손으로 포기한 나베란이.

스스로의 미래를 포기하는 게 어떤 건지, 그 무게를 모르지 않다. 알기에 처참했고, 알기에 고통스럽다. 결국, 참지 못하고 옅은 한숨에 베일이 살짝 펄럭였다.

“위그노드의 딸을 정녕 원하신다면.”

나지막하게 내뱉은 말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지 그가 걸음을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저하께서 진실로 우리의 힘을 원하신다면.”

“그래.”

“그러하다면 위그노드의 방식으로 겨울민족의 딸을 데려가십시오. 우리의 혼인 풍습으로.”

몸을 일으켜 돌아서서 날 보는 데미온을 바라봤다. 그의 붉은 눈동자가 빙글빙글 굴러가며 날 살피고 있었다. 그는 이 무슨 재밌는 내기인가 가늠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결국 그의 말에 굴복한 나는 좌절을 감추고 있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나는 나베란을 버릴 수 없었다.

“혼인 풍습?”

“위그노드에서는 신부를 얻기 위해선 신부의 가문에 지참금을 지급합니다. 과거에는 신부의 가문에서 원하는 지참금을 구하지 못해 혼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하께서는 그 지참금을 저희 가문에 내실 수 있겠습니까?”

그가 입 꼬리를 크게 올렸다.

“그대는 지금 나를 놀리는 건가? 언제는 부와 명예에는 관심도 없다고 하더니. 나는 태양의 일족이자 황금의 일족이다. 그대가 바라는 지참금이 얼마인들 내가 지급하지 못할 거라 여기는 건가?”

황금을 만들어내는 아스헤의 자손, 황금의 일족.

가치를 따질 수 없는 황금보다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없었다. 그는 내게 손을 내밀었다.

“그래, 말을 해 봐. 그대가 원하는 지참금은 얼마인 거지?”

내가 만일 산만큼 거대한 돈을 원한다 할지라도 순순히 들어줄 것처럼. 그는 자신만만한 눈빛과 목소리로 날 바라봤다. 그 옛날, 전설에 나오는, 만지는 순간 황금을 만들어냈다는 그 왕처럼 그는 손을 내밀고 있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황금을 만들 생각으로 보였다.

아마 이 손을 나의 아버지도, 나의 할아버지도, 그리고 선대의 선대도 보았을 것이다. 황금을 무기로 겨울 성의 딸을 요구하는 실로이의 왕족이 비단 이 자뿐만이 아니었으니 말이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 공통점은 바로—

그를 향해 한 손만을 내밀었다.

“제 손을 채울 황금을 지참금으로 원합니다.”

—황금의 일족은 모두 빈손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고작 그대의 손을 채울 정도라고?”

그가 어이없다는 듯 탄식하더니 이내 기가 막힌 웃음을 터뜨렸다. 이번엔 반대로 그를 따라 실로이의 기사들이 똑같이 우릴 향해 조롱하듯 비웃었다.

“이 응접실을 가득 채워도 모자란다 말할 줄 알았는데? 성의 모든 방 안을 가득 채운다는 것도 아니고? 고작 손을 채워달라? 얼음들의 주인께서는 통이 작군. 두 손도 아니고 고작 한 손. 날 무시하는 건가?”

그가 언제 웃었냐는 양 날 살폈다. 베일 안에 감춘 속내라도 찾듯이.

“싫으시다면 거절하시지요. 저는 저하의 말마따나 피는 물보다 진하기에 제안을 한 것일 뿐입니다. 받아들이는 것도, 거절하는 것도 다 저하의 선택일 뿐입니다.”

담담하게 내뱉는 말에 그가 살피던 것을 멈추고 작게 입가를 들어 올렸다.

“하긴, 아무리 얼음들의 주인이라 할지라도 여인. 여자들의 마음은 여리지. 눈물도 많고. 제 것이라 여긴 것에는 온갖 정을 줘버리고 그것이 다칠세라, 아플세라 노심초사하곤 하지. 그래, 그대도 그런 여인이었지. 내 잠시 잊고 있었어.”

단 한마디로 단정 짓는 것을 구태여 막지 않았다.

“저하께서는 저희의 혼인풍습을 따르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랬지.”

담담히 내뱉는 내 말에 그가 품에 집어넣었던 혼인 서약을 꺼내 들었다. 황금으로 치장한 편지의 반짝임은 어느 순간 사라져 있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내게 향해 있었고 그는 두말없이 그것을 반으로 찢었다.

“좋아.”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내려다보자 그가 뒤이어 말했다.

“실로이의 이름으로 약속하지. 그러니 그대 역시 두말하지 않도록.”

“실로이의 이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스헤의 이름으로. 위그노드의 이름으로 맹세하십시오.”

“좋아, 맹세하지. 실로이의 이름으로, 아스헤의 이름으로, 위그노드의 이름으로 지참금을 내고 신부를 데려가겠다.”

아스헤의 이름으로.

그리고 위그노드의 이름으로.

그가 내 손을 붙잡았다. 맹세한 지참금을 내기 위해. 그리고 나는 그런 그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

그는 순간,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날 바라보다 이내 다시 손을 꽉 쥐었다. 그러나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내 오른손 바닥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어서 주십시오.”

아무것도 모르는 양 재촉이자 그가 입술을 와락 깨물며 날 노려봤다.

“이게 무슨 짓이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가 붙잡은 손을 세게 내던지듯 놓았다. 그 바람에 베일이 살짝 흔들리자 내 뒤에 선 원탁의 기사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움직였다.

“이게 무슨 짓이냐!”

그러나 큰 소리는 되려 데미온의 입에서 나왔다. 나는 베일을 정리하며 분을 참지 못하고 소리 지르는 그를 바라봤다.

“아스헤의 이름으로, 위그노드의 이름으로. 그리고 실로이의 이름으로 맹세했습니다. 그새 잊으셨습니까?”

태연자약하게 내뱉는 날 향해 그가 손을 뻗었으나 이내 원탁의 기사들에 의해 저지당했다. 실로이의 기사들 역시 날카롭게 움직이며 그들의 주군을 보호했다. 그는 기사들 틈에서 비명을 내질렀다.

“황금이! 왜, 황금이 만들어지지 않냐고! 내게 무슨 짓을 한 거지?!”

“아무것도.”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지?”

거센소리에도 흐트러지지 않은 목소리에 그가 다소 지친 어조로 되물었다.

“여기는 위그노드입니다. 아마 거의 모든 대륙의 사람들이 네헤베만이 아시네헤의 땅이라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이곳 위그노드 역시 아시네헤가 만든, 아시네헤의 땅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얼음벽으로 나뉘었지만, 이곳도 그녀의 힘이 통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겨울의 여신 아시네헤의 힘으로 겨울이 몰아치고, 눈 여우가 나타나고, 얼음이 녹지 않는 것이겠지요.”

“…”

그가 참담한 눈으로 날 바라봤다. 무릎을 굽히고 바닥에 떨어진 혼인의 서약을, 황금으로 치장했던 편지를 주워들었다.

“아시네헤가 증오하는 아스헤의 힘이 위그노드에 통할 것으로 생각하셨습니까?”

화려한 금가루들은 모두 돌가루가 되어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황금으로 찍은 인장은 이미 돌이 되어 있었다.

위그노드에서 황금은, 한낱 돌과도 같다.

아시네헤의 힘으로 가득한 위그노드에 아스헤의 힘으로 만드는 황금은 힘을 잃고 돌로 변하고 만다. 처음에야 반짝이던 것들도 모두 시간이 지나면 돌로 돌아가기에 위그노드에서 황금은 가치가 없다.

내 아버지의 앞에 섰던 실로이의 왕족도, 할아버지의 앞에 섰던 실로이의 왕족도, 또 그 선대의 경우에도 언제나 한결같았다. 그들은 믿지 않았으나 결국은 믿을 수밖에 없었다. 자손에서 또 자손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일이었으나 권력자의 힘이 위그노드에서 통하지 않음을 어느 누구도 입을 열어 말하지 않았다.

아마도 데미온 역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서서 이 일을 알게 된 실로이의 기사들의 입을 모두 막을 것이다.

“여자라 하셨습니까? 그리 무시하는 여자의 힘이 이렇게 황금을 돌로 만든다는 것을 아셨어야 했습니다.”

그는 여자라 단정 지으며 무시했지만, 그런 그 역시 황금의 여자에 의해 지켜지고 보호받았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가 이토록 오랫동안 살아남았을 리가 없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잘난 척 언제나 우의를 선점한다. 자신들이 그런 여자의 뱃속에서 나왔음을 어리석게도 매번 잊기 때문이었다.

그의 붉은 눈이 흐릿해졌다.

“돌아가십시오.”

대대로 실로이의 왕족들이 위그노드의 딸을 얻지 못한 이유는 그 힘을 위그노드에서 쓰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럴 순 없어.”

절망한 얼굴로 중얼거리는 그를 지나치며 말했다.

“혼인 서약은 무효입니다. 만약, 무력으로 진압하시겠다면 그땐 저희도 참지 않습니다. 정당하지 못한 무력은 침략이며 우리는 절대 그 침략에 함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실로이의 초대 왕과의 맹세처럼.

우리가 이 땅을 떠나지 않듯이 어느 누구도 우리의 땅을 침략하지 못한다.

“며칠의…”

그의 목소리가 발을 멈추게 했다.

“며칠의 말미를 달라.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하니까.”

베일을 흔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스헤의 이름으로, 실로이의 이름으로, 그리고 위그노드의 이름으로 한 맹세를 설사 실로이의 왕이라 할지라도 깰 수 없다. 아무리 그의 어미가 황금의 여자라 할지라도, 그가 아스헤의 힘을 많이 타고난 왕자라 할지라도 깰 수 없다.

절대로.

“린드 경.”

응접실을 나오자마자 린드 경을 불렀다. 아벨린 경의 검에 맞아 피를 흘리고 쓰러진 주제에 인트 경처럼 고집스레 자리를 지키고 섰다.

“그만 들어가도 좋아. 다들 숙소로 돌아가 치료를 받도록.”

레사휘와 그를 따르는 기사들에 의해 뒤통수를 맞고 검에 찔리거나 베인 자들이었다. 당장 쓰러져도 무관한 이들이 극한으로 정신을 몰고 가며 서 있었다. 심지어 어린 인트 경조차 혈색 없이 서 있는 모습이 위태로워 보였다.

“저…아이샤 님.”

세이 경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레사휘 님은 어쩌실 것입니까?”

미간을 살풋 찌푸렸다. 어쩌면 데미온보다 더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러나 미룰 수 없는, 서둘러 해결해야 할 난제였다. 단순히 성의 주인에게 검을 쳐든 반역자로 대한다면 간단하겠지만, 그는 겨울 성의 혈족이자, 함께 자란 내 사촌이었고 오늘 이전까지 성을 위해 충성한 기사였다. 그리 쉽게 쳐낼 수 없는 존재였다.

“휘아르와 상의해보겠다.”

결국, 무겁게 입을 열어 궁핍한 답을 내뱉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계속 감옥에 구금해두겠습니다.”

고개를 끄덕임으로 회피했다. 우리의 전투는 사람이 아닌 것에만 해당하는 줄 알았다. 이제껏 우리는 그리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리 살 줄 알았다. 그런데 아니었다. 눈 여우나 산의 짐승들이 아닌, 사람을 향해 검을 들어 싸웠다.

어제까지의 동료와 싸우는 일은 나도, 여기 선 기사들도. 그리고 밖에 있는 병사들도 지치는 일이었다. 그것을 지켜보는 성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으리라.

“그리고.”

결국, 걸음을 멈추고 불러 세웠다.

“시종장을 불러 다친 사람들과 병사들에게 의사의 진료를 볼 수 있게 하고 죽은 병사들에게는 위로금을 지급하라고 해. 그리고 그들의 가족 명단을 확인해서 내게 가져오라고 해.”

"알겠습니다.”

그들을 뒤로하고 계단을 올랐다. 더는 원탁의 기사들이 나를 붙잡지 않았다. 그 소리 없는 정적에 안도하며 걸음을 뗐다. 이 성에서 태어나고 걸음을 떼었을 때부터 수없이 오르던 계단을 밟고 올라서자 텅 빈 기다란 복도가 눈앞에 자리했다. 창이 달린 복도에는 여전히 빛이 들어오고 있었고, 해는 지지 않았다.

해는 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복도의 그림자가 진 곳은 어두웠다.

순간, 선뜻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매번 오르락내리락하던 계단이, 매번 지나가던 복도가 싸늘했다. 그리고 어두웠다. 아직 해가 지지도 않았는데도 이상하게 어두워 눈앞이 흐리다. 답답해 베일을 살짝 붙잡았다. 그러나 그것을 절대 걷지 않았다.

이것은 족쇄와도 같다.

쉽사리 타인을 믿지 못하게 하고, 마음을 열지 못하게 하며, 자신을 감추게 한다. 그래서 오늘의 일이 벌어졌다. 내가 믿었던 이에게 배신당했다.

절대적이라 장담할 수는 없지만 나는 그래도 나베란을 믿듯, 그를 믿었다. 우리는 외로운 어린 시절을 함께 했으며,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친 동지이자 아군이었다. 태생적으로 나뉜 차이에 대해서 그가 날 어찌 대하는지 알았어도 달라질 걸 기대하지 않았듯, 그도 내가 변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린 닮았고, 그런대로 살을 섞고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것은 내 오만이었고, 오산이었다.

우리는 닮았기에 결코 둘이서 동등하게 앞에서 존재할 수 없었고, 하나는 반드시 뒤에 서야만 했다. 나는 내가 그의 반려가 되면 뒤에 설 생각이었다. 스스로를 낮추려 했다. 그러나 일은 그렇게 되지 않았고, 이번엔 그가 내가 그러했듯 감수해야만 했다. 저항이야 하겠지만, 그도 결국은 받아들일 거라 여겼다.

정당한 결과니까.

그러나 아니었다.

망설임 없이 내게로 검이 향한 순간, 불현듯 어미가 나를 버리고 떠나던 순간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것이 절망이라는 것을 알았다.

한기가 느껴져 어깨를 감싸며 천천히 걸음을 내디뎠다. 아직 겨울이 온 것도 아닌데 이 겨울서의 한기가 몸서리쳐질 만큼 추웠다. 평생을 이 성에서 살았으면서 추위를 감내하는 게 벅찼다.

복도가 어두워서 나도 모르게 자꾸 고개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괜찮아.”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나직한 목소리가 머리 위에 들렸다. 고개를 들지 않았다. 아니, 들 수가 없었다.

“괜찮아.”

서늘한 두 팔이 내 목을 감싸고 끌어안았다.

나는 그를 믿었다. 내가 그를 쳐내지 못하듯, 그 역시 나를 쳐내지 못할 거라 믿었다. 우리 사이에 애정이라는 것은 없어도, 그것과는 다른 종류의 애정이 있을 거라 여겼다.

그러나 아니었다.

“휘아르.”

두 손으로 살짝 밀며 고개를 들자 내 어깨 위에 손을 그대로 올린 채 휘아르가 날 내려 봤다. 창에 비치는 빛에 흰 눈을 실로 엮은 것 같은 머리카락이 반짝반짝 빛이 났다. 그리고 그 어떠한 보석보다 아름다운 금색의 눈동자가 마치 모든 일이 꿈인 것처럼 날 보고 있었다. 겨울성의 혈족인 척 가장하기 위한 푸른 눈을 하지 않고, 처음 오로지 나한테만 보였던 모습대로 내 앞에 서 있었다.

“응.”

그러나 순백의 머리카락엔 흙과 피가 묻어 있었고, 볼에는 미처 닦지 못한 핏자국이 묻어 있었다. 레사휘에게 배와 옆구리를 걷어차이면서 피를 토한 입술에도 흔적이 남아 있었다.

손을 뻗어 입술을 쓰다듬었다.

“미안하다.”

이런 결과를 원했던 게 아니었다. 쓰디쓴 자괴감에 손을 떼어 말아 쥐었다. 그러자 날 보던 휘아르의 얼굴이 잘게 일그러지며 말아 쥔 손을 붙잡았다. 늘 서늘하기만 했던 손이 미묘하게 뜨거웠다.

“아가씨가 왜?”

갑작스런 변모라 해도 좋을 만큼 휘아르가 차게 말했다.

“내가 다친 거 때문에? 어차피 아프지도 않고 금방 나아. 심장에 검도 꽂아봤는데 까짓게 아플 거 같아?”

“그런 게 아냐.”

고개를 내저으며 붙잡힌 손을 빼내려 했지만, 그는 쉽사리 놔주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힘을 줘 붙잡았다.

“그런 게 아니면 그런 말 하지 마. 오늘의 일은 아가씨 잘못이 아니니까. 아가씨는 충분히 지키려 했어. 막으려고 했다고. 그러니까 정정당당하게 대결을 한 거잖아. 잘못은 네가 한 게 아냐. 지나친 욕심 때문에 결국은 일어날 일이 벌어진 것뿐이라고. 그런데 왜…!”

거칠게 말을 하던 그가 끝내는 말끝을 흐리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곤 손을 놔주더니 그대로 끌어안아 품에 감쌌다.

“그냥 차라리 날 탓해.”

정당한 승리자임에도 패배자가 된 쓰디쓴 기분을 느끼게 해야 했다. 오늘이 오면 여기저기 떠들던 소음이 사라지고 완벽하게 정리될 거라 생각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상황이 한결 나아질 거라 생각했다.

레사휘가 이기던, 휘아르가 이기던.

그러나 현실은 이랬다. 그래서 결국, 한숨을 내뱉고야 말았다.

“널 탓한다고 일이 달라지진 않아.”

“그래도 좋으니 날 탓해. 내가 너무 잘나서 그런 거라고. 검을 너무 잘 써서 탈이었다고. 너무 잘생겨서 문제였다고.”

마지막 말에 그만 어이가 없어 기가 막힌 숨을 터뜨리며 품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밀어냈다. 그러나 이번엔 쉽게 풀어주지 않았다.

“내가 널 너무 잘 알아서 탈이었다고...”

그 말에 밀어내는 것을 멈췄다. 그는 어찌 알았을까.

내가 소중히 여기던 것이 ‘눈물’이라는 것을.

단순히 아시네헤의 일족이라서?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여자라서? 아니면, 정말로 날 사랑해서?

믿었다가 배신당하는 건 이제는 정말 지긋지긋하다. 어미도, 샤하웨도, 심지어 레사휘도. 모두가 지긋지긋하다. 제멋대로 믿어버리고 상처받은 어리석은 여자. 이제는 더는 그러고 싶지 않다.

“세 번째 답을 어찌 알았어?”

그러자 머리 위로 한숨이 흘러나온다.

“내가. 아가씨에게 가장 돌려주고 싶은 거니까. 울리고 싶다는 게 아냐. 울지 않는 사람이, 웃을 수도 없는 거니까. 나는 아가씨가 웃는 게 보고 싶어.”

귓가에 두근거리는 박동 소리가 쿵쿵 울려댔다. 이 말이 진실이라는 것처럼. 그래서 그 두근거리는 박동에 가만히 고개를 기댔다.

“그래, 나도 가지고 싶어.”

이 두근거림이 결코 거짓일 리 없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어보겠다고 어리석은 여자는 속삭였다.

어느 누구도 입을 열어 말하지 않았지만, 짧은 봄의 따스함은 머지않아 사라질 것이다. 이제 곧 겨울이 온다. 예측 불가한 변덕처럼 중간에 겨울이 휘몰아쳤지만 그렇다고 겨울이 물러난 것은 아니었다. 성의 관측자들은 머지않아 겨울이 다시 올 거라 예고했다.

준비를 해야 했다.

우리는, 아니.

나는.

부상당한 자들의 상태파악과 죽은 자들의 장례 및 남은 가족들의 처우를 확인한다며 이틀을 그냥 보냈다. 또 하루를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응접실에는 발도 들이지 않았다. 어느새 밤으로 젖은 창을 바라봤다.

이제 몇 시간 뒤면 또다시 하루가 시작된다. 더는 미룰 확인도, 처우도, 핑계도 없다. 이제는 결정해야 했다. 마치 이런 날 탓하기라도 하듯 며칠째 하늘은 뭐라도 쏟아질 것처럼 음울하기만 했다. 그러나 정작 안에 든 것을 감추듯 내리는 것은 없었다.

회색으로 얼룩진 세상은 나처럼 답답하기만 했다.

레사휘와 그를 따르는 기사들은 모두 감옥에 가둔 상태였고, 떠날 준비를 하게 기다려달라던 데미온은 방에 틀어박힌 채 나오지 않았다. 어느 것 하나 순탄하게 넘어가는 게 없었다. 성 밖도, 성 안도 온통 어둡고 음울하게 가라앉았다.

답은 알고 있다.

성 밖의 구름은 내 힘으로는 걷을 순 없지만, 성 안의 문제들은 모두 나만이 해결 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그럼에도.

선뜻 해결치 못하는 것은 명백히 답지 않은 미련이었다. 모질게 마음먹고 단칼에 쳐내면 이리 고민할 것 없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었다.

성을 지키는 기사들이었고, 오랫동안 겨울 성의 혈족에게 충성한 가신들이었으나 감히 제 주인을 몰라보고 검을 든 반역자들이었다. 그들이 성공했다면 죽거나 쫓겨날 자는 바로 내가 되었을 것이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커왔으나 돌아온 대가는 배신이었다. 나는 그가 반려가 아니어도 사촌으로 남을 수 있을 거라 믿었지만 그는 아니었다. 반려가 아니라면 그에게 나는 사촌이 아닌, 자신의 권위를 추락시킬 적대자일 뿐이었다.

아마도 처음부터.

그가 내 베일을 벗기려 기사들과 내기했던 그 오래 전부터 서로가 어긋나기 시작했을 것이다. 처음에는 나 역시 바로잡을 수 있을 거라 여겼다. 정당한 권리와 대가를 치룬다면. 그러나 아니었다. 그것은 한낱 부질없는 꿈이었다. 그러니 이제 와서 목줄로 묶어 제압한다는 것은 우습고 바보 같은 짓거리다.

나는 더는 감당치 못할 것이다.

길들이지도, 제압하지도 못할 개를 곁에 둘 수는 없다. 거기다 감히 제 주제를 모르고 주인에게 이빨까지 내비치며 위협까지 했다.

답은 정해져 있다.

죽이거나, 쫓아내거나.

역사서에 적혀있듯이, 선례에도 그러했듯이 그들 일가의 사내는 모조리 찾아내어 목을 베고, 여자는 위그노드의 땅에서 추방시킨다. 그 후손일지라도 절대로 두 번 다시는 위그노드의 땅을 밟지 못하게 낙인을 찍고 가장 먼 땅으로 보낸다.

그러면 되는 일이었다.

그러나.

“…”

입술을 말아 깨물며 미간을 눌렀다.

나베란은 레사휘의 단 하나뿐인 친 누이동생이었다. 그녀에게 죄가 있고 없음을 떠나 아직 반려가 정해져 있지 않았으니 가족인 레사휘의 죄를 함께 짊어져야 했다. 그것이 위그노드 여자의 운명이었다. 그러니 그녀역시 이 땅에서 쫓겨나야 했다.

원래대로라면.

비록 레사휘의 동생이긴 하지만, 그녀는 몇 안 되는 겨울성의 혈족이며, 내 사촌이기도 했다. 죄인의 신분으로 위그노드를 떠나게 된다면 분명 미련을 떨치지 못한 데미온이나 그 외 다른 욕심 많은 자들이 그녀에게 검은 손을 뻗칠 수도 있었다. 그걸 안다 해도 위그노드에서 추방당한 순간부터 위그노드의 주인인 나는 그녀를 보호할 수도, 지켜줄 수도 없었다. 그렇다고 덮어놓고 무시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아무리 그녀가 죄인이 된다 할지라도 겨울성의 혈족인 것은 분명했다. 그 말은 즉, 내가 후계자를 낳지 못하게 된다면 그녀의 아이를 내세운 질척한 후계자 다툼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니 결국 나베란의 선택지는 하나뿐이었다.

나베란은 한평생 이 성 밖을 나가지 못할 것이다.

다른 누군가를 만나 혼인을 하는 것도, 아이를 낳는 것도 절대로 그녀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 어쩌면 못 이기는 척, 위그노드의 법칙을 무시하고 데미온과 함께 가는 길을 택했어야 했나?

그러나 단호히 고개를 흔들었다.

아무도 없는 태양의 대지에서 홀로 외로이 시들어가는 것이 뻔히 보이는 데 그 길을 택할 수가 없었다. 왕의 부인, 왕의 어머니가 될지언정 그녀는 왕실이라는 치열한 전쟁터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못한 채 내던져질 것이다. 보호받아 마땅할 남편의 사랑도 결국은 겉만 벗지르한 가식과 우롱일 것이다. 끝내는 질척한 전쟁터에 제 자식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비단 내 처참한 상상만은 아니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

고개를 숙여 아무것도 없는 손바닥을 내려 봤다.

"…하.”

기침을 토하듯 짧게 숨을 터뜨렸다. 마치, 모르는 누군가가 봤다면 웃는 거로 오인할 정도로. 그러나 이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터뜨린 숨이었다.

나는 그녀를 이브실라에 보내고 싶었다.

밝고, 따뜻하며, 풍요로운 자유의 나라로.

그토록 지키고 싶어서 얼음눈물까지 흘리는데 정작 지키고픈 이는 홀로 고독하게 갇혀 살아야만 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이제껏 한줌의 욕심조차 내비치지 않던, 바라는 것은 모두 제 피를 나눈 자들의 행복이었을 뿐인 여자가 가야하는 땅은 풍요로운 곳일 거라 믿었다.

이런 얼어붙은 땅의, 쓸쓸한 방안에서 홀로 지내게 되는 미래가 답일 줄은 나도, 그녀도 몰랐을 것이다.

왜, 어째서.

그 애가 이런 일을 겪어야만 하나.

나에게 나베란은, 레사휘에게 나베란은 반드시 지켜야하는 것 중 하나였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애가 언제나 눈물을 속으로 삭히는 것을 알면서도 달래줄 틈이 없었다. 늘 바빴다. 그 애를 지킨다는 것은 즉,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찾아야한다는 것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나는 애써 귀를 막고 눈을 돌렸다. 차후에 다 보상해주겠다는 마음으로.

레사휘 역시 나와 다를 바 없을 거라 생각한다. 그러나 결과는 이런 꼴이었다.

몸을 일으켰다.

레사휘를 만나야 했다. 영리한 그가 이런 엄청난 일을 계획하고 실패했을 때의 일을 생각해두지 않았을 리 없다.

이불을 걷어내고 발을 덧신에 집어넣으며 몸을 일으켰다. 꺼뜨린 기름등의 심지에 화로의 불씨로 불을 밝혔다. 달도 없이 칠흑같이 어두운 방안에 주홍빛 불빛이 자그마하게 사물을 비췄다. 어둑한 어둠처럼 방안은 깊은 잠의 시간을 말하듯 고요하기만 했다.

검은 베일을 머리 위에 쓰고, 겉옷으로 어깨를 감쌌다. 이제는 이 베일이 마치 옷처럼 익숙해서 어둠 속에도 답답함을 느끼지 못했다. 그리고 불을 밝힌 기름등을 랜턴 안에 집어넣고 들어올렸다. 아무리 위그노드의 밤이 길다 할지라도 눈과 귀가 잠든 시간은 짧은 법이다.

서두르며 방문을 열었다.

“…!”

그러나 선뜻 앞으로 나서지 못했다.

새카만 어둠을 뒤집어 쓴 것처럼 어두운 빛깔의 망토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린 자가 방문 앞에 서서 내 앞을 막았다. 마치 어둠의 일부인 것처럼 자연스러워 기름등의 불빛이 없었더라면 사람이라 알 수도 없을 정도였다. 놀라지 않았다면 그것은 거짓. 방패처럼 드리워진 베일이 없었더라면 놀란 눈을 가릴 수 없었을 것이다.

재빠르게 뒤로 물러섰다.

“누구냐.”

그리고 고개를 들어 똑바로 내 앞에 선 것을 바라봤다. 문을 닫거나 도망치지 않았다. 이것이 만약 나를 해하려 했다면 고작 잠긴 문을 열지 못해 기다리고 있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문을 열자마자 나를 어찌하려 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그저 가만히 나를 지켜볼 따름이었다.

마치, 진짜 어둠이라도 된 양.

그러나 나는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를.”

낮은 목소리가 망토의 틈 사이로 흘러 나왔다. 탁하거나 녹슨 소리가 아닌, 감정이라고는 깃들지 않은 건조한 목소리가 시선을 잡아끌었다. 랜턴을 든 손을 초조하게 움켜쥐었다. 지금 이 상황은 분명 처음인데 낯설지 않았다.

“잊었니.”

마치 조각상처럼 희고 유려한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여 얼굴을 가린 망토를 뒤로 젖혔다. 와락 미간을 찌푸렸다. 새카만 어둠과도 같은 것은 순식간에 달빛처럼 순백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그래, 마치.

새에서 사람으로 바뀌듯이.

문득, 얼핏 시선을 둘 때마다 창밖에 있던 검은 새가 떠올랐다. 생각해보니 그것은 늘 혼자였고, 본 적이 없는 새였다. 어느 날부턴가 나타난 검은 새는 내 창문 앞 전나무에 둥지라도 튼 것처럼 근래 자주 눈에 띄었다.

“그 검은 새가 너였군.”

씹어 뱉듯 말하자 그가 그 특유의 무심한 눈으로 날 내려 봤다. 도자기인형처럼 새하얀 얼굴에 금빛의 눈동자로. 그러나 안다.

저 눈빛이 그의 최대의—

“그래, 네가 걱정되니까.”

—감정표현이라는 걸.

저 눈은 나에 대한 걱정, 연민, 위로가 엉망진창으로 뒤섞여 있어서 나는 언제나 끔찍했다.

“샤하웨.”

9년 전 어미와 떠난, 어미가 선택한 아들. 그로 인해 결국 버려져야만 했던 나는 그가 끔찍이도 싫었다. 그의 앞에 서면 나는 내 바람이 한낱 싸구려가 되는 비참한 기분을 느껴야만 했으니까.

그런 그가 9년 만에 다시 내 앞에 나타났다.

아주 오래 전에는 그 앞에서 웃었던 적도 있었다. 그가 아름다운 하얀 새였을 때에는. 내 비밀의 친구가 되어 비밀의 장소에서 함께 놀았다. 그 곳에서 어머니에게 줄 눈꽃을 한아름 따고 돌아가기도 했다. 그러나 그 짧은 웃음은 그가 소년이 되어 성에 들어온 뒤부터 절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었다. 그것은 마치 암묵적으로 한 약속처럼 자연스러워서 그도, 나도 아쉽게 여긴 적은 없었다.

다만.

어미를 찾아 온 소년은 자신이 성에 들어오면서 무엇을 바뀌게 했는지를 내 앞에 서면 반복적으로 깨달았다. 어미를 향해 내게는 단 한 번도 허락되지 않은 시선과 허공에 저 혼자 지껄이다 끝나버린 말을 샤하웨는 보고 또 들었다.

그때부터였다.

어미를 찾아온 소년은 도리어 제쪽에서 먼저 어미를 피했다. 그는 어미의 품을 밀어내며 내게 손을 뻗었고, 어미의 부름에 고개를 내젓고 날 찾아다녔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끔찍이도 싫었다. 이제 와서 보여주는 그 그릇된 애정에 단 한번도 마음 뺏긴 적 없었다. 그래서 부러 못 들은 척도 하고, 눈앞에 있으면서도 유치하게 보이지 않는 척도 했다. 때로는 모질게 몰아세우기도 했고, 너 때문이라며 악을 쓰고 덤빈 적도 있었다.

그때마다 그는 늘 한결같았다.

그는 아시네헤의 일족이었다.

도자기 인형처럼 새하얀 얼굴엔 한줌의 표정조차 없었고, 어미와 닮은 금색의 눈동자는 마른 흙보다도 더 건조한 시선으로 날 바라봤다. 그럼에도 그의 시선은 늘 내게 향해있었다. 자신의 시선 닿는 곳에 내가 없기라도 한다면 무슨 일이든 내팽겨치고 나부터 찾아다녔다.

소리 내어 부르지도, 기필코 찾아내서도 손 한번 내민 적 없어도 그는 매번 그랬다. 나는 그것이 마치 제 시선 앞에 없으면 금방이라도 죽을 짐승처럼 대하는 것 같아 몹시도 거슬렸다.

같잖은 위로도, 너절한 연민도, 반쪽짜리 여동생에 대한 걱정도 내게는 불쏘시개로 상처를 헤집는 것처럼 아프고 끔찍할 뿐이었다. 차라리 어미처럼 무시하는 게 나았다. 그러나 그는 어미와 닮은 얼굴로, 어미와 닮은 눈으로 끊임없이 나를 비루먹은 거지로 만들었다.

나는 그것이 끔찍해 그를 보기 싫었다.

“가. 너와 할 얘기는 없어.”

하물며 지금이라고 다를 것은 없다. 그는 오히려 내 시간을 뺏고 있었다. 내 말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처럼 그는 그 자리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다. 아니, 외려 할 말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손을 뻗어 길을 막았다.

“이게 무슨 짓이지?”

그러나 절대 내게 손을 대지는 않았다. 어릴 때와 똑같이.

“아이샤.”

“부르지 마. 더 이상 네게 그리 불릴 일 없으니까.”

차게 응수하며 노려봤다. 어미가 떠난 이상 그는 더는 거짓된 내 형제도 아니었고, 어미가 날 버리고 저주를 내렸으니 내게 아시네헤의 일족이란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존재일 따름이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개의치 않은 얼굴로 날 볼 뿐이었다.

“아이샤.”

지긋지긋한 부름에 고개를 한 차례 흔들며 시선을 피해버렸다. 아무리 얼음눈물을 흘릴 지라도 그는 내 가장 깊숙한 곳, 가장 부서지고 연약한 곳을 손쉽게 더듬는 자였다. 그를 볼 때마다 번번이 깨닫는다. 내가 버림받았다는 것을. 마지막의, 그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믿었던 결과가 이런 저주뿐이었다는 것도.

“그를 믿지 마.”

할 말은 오직 그것뿐이라는 듯 그는 입술을 다물었다. 그런 그에게 눈길을 다시 돌리며 헛숨을 내뱉었다.

“…기가 막히는군.”

겉옷자락을 세게 움켜쥐며 그를 노려봤다. 언성을 높이고 싶지 않다. 이 조용한 복도에서 소란이 이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네가 무엇인데? 너는 더는 내 오라버니가 아냐. 나는 네 누이도 아니고. 너는 한낱 사람도 아닌 것이 내게 무슨 자격으로 말을 하는 거지? 그따위 말을 들으면 황송해서 손이라도 붙잡을 줄 알았나?”

“아니.”

그는 담백하고 건조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래도 너는 내 누이동생이니까.”

“끔찍해.”

“그리고 나는 너의…”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짝‒하고 거친 마찰음이 고요한 복도를 울렸다. 어쩌면 이렇게 아시네헤의 일족은 얼음을 타오르게 만들까. 불같이 이는 감정이 낯설고 어색해도 쉬이 꺼지지 않는다.

나는 그가 싫다.

끔찍하게!

“감히, 네 까짓게. 내게 저주를 남기고 떠난 것들이! 왜! 떠났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 왜 이렇게 또 오는 건데. 또 무슨 저주를 남기려고. 겨울로 부족해? 눈 여우로는 부족한 거야? 나를! 나를 이렇게 만든 주제에…!”

힘껏 그의 가슴을 두들기듯 내리쳤다. 얼음에 붙은 불은 쉬이 꺼지지 않았다. 참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피하지 않았다. 가만히 내 분노를 응시하며 한숨 비스무리한 것을 토해냈다.

미안하다는 말도, 그만하라는 말도 없었다.

그는 그저 물끄러미 날 내려 볼 뿐이었다. 처음과 똑같은 눈으로. 이리 화를 내는 자신이 우스울 정도로 어이가 없어진다. 저것이 대체 뭐라고 내가 화를 내는 걸까. 얼음에 붙은 불은 이내 꺼지고 그에게 닿았던 손길을 그림자 속으로 가렸다.

저것은 과거. 상대할 필요도 없는 악몽일 뿐이다. 나는 그를 무시하며 몸을 틀었다. 그에게 붙잡혀 감옥에 가는 시간만 늦춰질 따름이었다.

“하나만.”

새하얀 얼굴에 붉은 낙인이 선명하게 찍혔음에도 그의 표정엔 변화조차 없었다. 그는 붉게 변한 입술을 살짝 깨물었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하나만 들어.”

들리지 않는 양 다른 곳에 시선을 두었다. 걸음을 내딛었다.

“내가 널 속였던 걸 잊지 마.”

그래, 잊지 못해. 넌 어미를 찾기 위해 날 속였던 거지만 결과적으로 나는 어미를 잃고 저주를 갖게 되었으니까. 그러니 네가 보여주는 그 헛된 애정도 결국은 거짓이라는 걸 알고 있어.

“우리는 본디 그런 일족이라는 것을. 그라고 다를 것 없어.”

그의 무심하게 내뱉는 말에 그만 내딛던 발이 얼어붙은 것처럼 멎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도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휘아르가 내게 했던 말들이 속사포처럼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나의.

한숨을 내뱉으려다 부러 입술을 깨물었다.

나의 황금색 눈을 가진 사슴.

“우리는 언제고 원하는 것을 얻고자 거짓을 속삭일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마.”

입술을 깨문 자국이 잘게 떨렸으나 애써 외면했다.

그의 말들은 모두 다 믿을 것 없는 거짓투성이다. 굳이 귀담아 들을 필요 없는 이야기들이었다.

그때, 계단을 넘어질 듯 요란하게 올라오는 소리가 났다. 빠르게 뒤를 돌아보자 어느새 샤하웨는 사라져 있었고, 잔뜩 당황한 얼굴의 인트 경이 내 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아이샤 님!”

지금 이 야심한 시각이라면 교대로 성의 경비를 돌 이가 지금 내 앞에 있을 리 없었다.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했다. 어지럽게 흔들리던 마음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무슨 일이지?”

어린 나이답지 않게 조용조용하던 그가 평소와 같지 않게 당황을 감추지 못한 얼굴로 숨을 몰아쉬었다.

“지, 지금 당장 지하 감옥으로! 지하 감옥으로 가셔야 합니다!”

인트 경의 말이 마치 비명을 내지르는 것만 같았다. 미처 눈치 채지 못했지만, 성 아래쪽이 소란스러웠다. 불길했다. 갑자기 나타난 샤하웨. 한밤의 소동.

지하 감옥에는 레사휘와 그를 지지하던 자들이 갇혀 있었다. 레사휘가 또다시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일까. 그는 도대체 얼마나 일을 그르쳐야 만족할 것인가. 하나밖에 남지 않은 친누이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걸까.

치밀어 오르는 쓰디쓴 감정을 애써 손으로 누르며 그를 앞장서게 했다. 돌고 돌아 끝없이 계단을 내려가면서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인트 경이 당황하고 초조한 눈을 했지만 부러 무시했다.

그러나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았다.

감옥에 발을 딛자 짙은 피비린내가 끼칠 만큼 온통 피투성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를 흘린 채로 검을 쥔 레사휘와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진 데미온이 있었다.

어느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레사휘가 든 저 검이 데미온을 찔렀다는 것에 한 줌의 의심조차 없었다.

눈 여우가 처음으로 나타났을 때, 성의 모두가 날카로워 있었다. 성주는 병이 들어 침상위에 벗어나지도 못하고 의식조차 불분명했다. 그리고 그의 어린 딸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여자였다. 그런 상황에 훌쩍훌쩍 몰래 우는 소리는 분명 소위 어른들이라 일컫는 기사들의 귀에 거슬렸을 것이다.

차마 주인의 혈족이니 함부로 대하진 못하나 바로 목전까지 치솟는 죽음의 두려움에 말이 막 나오는 건 당연했다. 사람은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망가진다는 걸 그 순간 알 수가 있었다.

평화로운 시절엔 그저 어린 아가씨가 몰래 우는 울음소리 따윈 가볍게 넘기거나 달래줬을 일이었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엔 그건 불행을 자초하는 불길한 울음이었다.

“그리 양친이 보고 싶으시면 당장 성 밖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어느 누구도 말리지 않을 테니. 나가십시오! 나가시란 말입니다!!”

기어이 몰래 우는 나베란을 끌고 와 내지르는 소리들은 차갑기 그지없었다. 나베란은 그 작은 몸을 잔뜩 움츠린 채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마샤가 당황해 나베란을 억세게 붙잡는 손을 치우려 했으나 기사들의 기세는 흉흉하기 짝이 없었다. 심지어 아벨린 경마저 눈으로 보기만 할뿐 정작 손 내밀어 구해주지 않았다. 나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아무리 그녀가 내게 남은 몇 안 되는 혈족이라지만 내게는 내 상황만으로 벅찼다. 갑자기 사라진 어미와 자리에 쓰러진 아비. 그리고 낙인처럼 남은 눈동자와 몰려드는 눈 여우만으로 골치가 아팠다.

더욱이 어렸어도 알았다. 지금 저들은 죽음이라는 두려움에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고, 폭발하기 전이라는 걸. 여기서 내가 나섰다간 도리어 폭동이 일어나 스스로 자멸할 거였다.

“눈 여우에 미쳐 누가 위이고 아래인지 몰라서 하는 헛짓거리겠지.”

그 흉흉한 기세에, 다른 어른들조차 차마 말리지 못하고 가만히 자리에 앉아있던 그때에 오로지 레사휘만이 겁 없이 일어섰다.

그는 검을 들고 있었다.

“그러니 알려주지. 누가 위고, 아래인지. 내일부터 나도 소탕작전에 나간다.”

그의 말에 모두가 그를 바라봤다. 그는 성인식도 치르지 않은 고작 열 살의 소년이었고, 기사도 아니었다. 겨울민족을 다스릴 겨울성의 혈족이지만 단 하나 남은 남자로서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었다. 조금만 더 자라 내 반려가 되어 일족의 가계를 잇고, 성을 다스리는 걸로도 충분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내뱉는 말대로 검을 들고 눈 여우를 죽였다. 곧 죽을 거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루를 살아오면 그만큼 나베란의 눈물은 늘어도 아무도 두 남매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입지를 쌓았고, 얇은 얼음 위에 떠 있는 동생의 발밑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얼음들을 쌓았다.

내가 모두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눈물을 흘릴 때, 그는 오로지 단 하나 남은 동생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노련한 기사들마저 눈을 마주치면 벌벌 떤다는 눈여우에게 검을 겨누는 것도, 그 눈 여우의 날카로운 손발톱에 의해 다치는 것도 그는 개의치 않아했다.

단, 자신의 하나뿐인 누이가 모진 말과 태도에 상처받아 우는 것을 누구보다도 못 견뎌했다. 그래서 나베란은 점점 더 아무도 찾지 못하는 어둠 속에서 홀로 울었고, 레사휘는 겉으로 보이는 위안과 미소를 믿었다. 그래도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는 게 눈에 보이는 남매였다. 차가운 얼음 같은 그가 누구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를 믿었다.

“…레사휘!”

그러나 어리석은 여자의 헛된 믿음 따윈 새파랗게 벼린 칼날 아래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떨어졌다.

“아이샤.”

겨울민족 특유의 얼음처럼 새하얀 얼굴이 온통 불그스름하게 젖을 정도로 피투성이의 그가 내 이름을 입에 올렸다. 그것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의 분노를 터뜨리게 했다. 치맛자락을 비틀어 움켜쥔 채로 그를 노려봤다.

“네가 결국 모든 걸 망치는 구나.”

우리의 관계도.

나베란의 인생도.

그리고 그토록 지키고자 소망했던 위그노드의 미래도.

레사휘의 곁에서 쓰러진 채 움직이지 않는 데미온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당장 그의 생사를 확인해야 하는데 세이 경과 병사들은 레사휘가 검을 들고 서 있어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있었다.

저 오만한 실로이의 왕자가, 황금의 여자의 단 하나뿐인 자식이 레사휘의 발아래 쓰러져 있을 거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가 왜, 어째서 여기에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가 레사휘와 무슨 거래를 했든, 무슨 일을 벌였든 지금 이 순간, 알 수 있는 건 하나였다.

그의 죽음은 눈여우만큼이나 위그노드에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일으킨다는 것.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대지를 다스리고, 중앙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왕의 아들을 죽였다는 게 정당화되진 않는다.

이것은 부정하고 변명하려 해도 반역이었다.

“뭣들 해. 당장 저 죄인을 잡아.”

우리의 사이는 이미 끝이었다. 나는 아니라고, 분명 다른 무언가가 있을 거라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 끝없이 믿었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에게 나베란도 아무것도 아닌 거였다.

모질게 눈을 돌렸다

이제 이 자리에 오래 전부터 함께 성을 지키던 기사는 더는 없다. 더는 겨울 성의 혈족도 아니고 나와 피를 나눈 사이도 아닌 그저 죄인, 레사휘였다.

나는 그를 보는 대신 그를 에워싸고 있는 세이 경과 병사들에게 명령했다.

“저항한다면 죽여도 좋다.”

세이 경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내 명에 머뭇거리던 병사들 역시 손에 든 검을 고쳐 쥐었다. 내 말의 파장은 무겁게 감옥 안을 내리 눌렀다. 하지만 누구하나 동요하거나 저항은 없었다. 시기가 당겨지긴 했지만 결국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결과였다. 오랜 시간동안 눈여우에게서 우리를 지키던 그가 그 검의 방향을 내게로 돌렸을 때부터 우리는 더는 같이 살수 없는 거였다.

“죄인이라…”

그가 실소를 터뜨리며 검을 쥔 손을 아래로 내렸다. 본격적으로 그를 제압하기 위해 다가서던 병사들이 긴장을 놓치지 않았다.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는 기사와 병사들을 지휘하던 자였고, 그만큼 실력이 출중했었다. 거기다 아무리 부상을 당했다 할지라도 죽음을 앞에 둔 자는 더 절실해지는 법이었다.

“아이샤.”

그러나 그가 내 이름을 입에 올린 순간, 고개를 들 수밖에 없었다. 피가 잔뜩 튄 그의 얼굴은 이전과는 달랐다. 위그노드의 겨울민족 특유의 눈처럼 새하얀 얼굴에 잔뜩 튄 피가 섬뜩할 정도였지만, 눈빛은 이상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의 저런 눈과 얼굴은 이상하게 낯설었다. 심지어 감옥에 갇힐 때조차 형형하게 타오르던 눈빛이었다. 그런데 목소리마저 자부심 넘치고 강하던 이전과는 달랐다.

“너는 그리 살았나.”

순간, 달군 숯으로 허벅지를 지지던 고통이 떠오를 만큼 그의 목소리는 기괴하기 짝이었었다. 저렇게 자신 없고 고통스러운 목소리라니.

어색하고 낯설어 저렇게 잔뜩 튄 피가 마치 그의 것 같았다.

"우리는 결국 모두 다 꼭두각시였던 거야. 너도, 나도. 결국, 이 땅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지.”

짐짓 날카롭게 그를 노려봤다.

“헛소리 하지 마. 너는 지금 네 입장이 어떤지 알고 있는 건가?”

그러자 그가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감옥 안에서 크게 내지르는 웃음소리는 피투성이의 그를 더욱 더 기괴하게 만들었다. 광기에 젖어있는 것 같아 다가가는 병사들이 주춤할 정도였다. 그러나 이내 그는 쉽게 검을 바닥에 내던졌다. 피투성이의 감옥 바닥에 울리는 검의 소리가 무섭게 날카로웠다.

“마음대로 해.”

그가 검을 내던지자마자 세이 경이 빠르게 달려들어 그를 제압했다. 그리고 뒤를 이어 병사들이 그의 두 팔을 양쪽으로 잡고 바닥에 무릎 꿇렸다. 실상 제압이랄 것도 없었다. 그는 처음부터 그럴 의도조차 없었던 것처럼 너무나 손쉽게 손을 내밀었고 저항조차 하지 않았다.

그에게 다가가 거세게 뺨을 올려쳤다. 손바닥에 닿는 축축한 느낌도, 선뜩한 아픔도 주먹을 말아 쥐며 무시했다.

“너절한 헛소리를 지껄이지 마. 너는 한낱 죄인일 뿐이야. 다만 이거 하나는 알아둬. 너는 절대 그냥 안 죽여. 이제 우리는 너로 인해 실로이의 왕에게 무슨 짓을 당해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까. 네 잘난 이기심이 무슨 결과를 초래했는지 똑똑히 보라고.”

내 옆에 있던 인트 경이 허겁지겁 데미온의 몸을 살폈다.

“아직 살아 계십니다!”

가슴에 검을 맞긴 했으나 아스헤의 가호가 여전히 남아 있는 건지 그는 죽지 않았다. 한시름 쓸어 내렸다. 온통 피로 젖어 있어 알아채긴 어렵지만, 벌어진 옷자락 사이로 얕게나마 숨을 내쉬고 있었다.

인트 경이 필사적으로 옷을 잘라 가슴을 가르는 선명한 자상을 붕대로 감았다. 그러나 지극히 바랐으면서도 우습게도 그 순간 그만두라고 말을 할 까봐 입술을 아플 정도로 깨물었다. 잠시나마 고민 했다.

그가 살아남아 일으킬 파장이 충분히 예상되었다. 그가 일어나 무엇을 요구할 지 눈에 보듯 훤했다. 저 잘난 오라비에 의해 나베란의 인생은 결국 끝이 났다.

그러나 나는 위그노드의 주인, 아비를 대신한 겨울 성의 성주였다. 자칫 잘못하면 반역으로 몰려 위그노드마저 위험해지는 일에 가담할 수 없었다. 처음부터 데미온이 원했던 대로 그의 바람을 들어준다면 위그노드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그가 바란 것은 왕좌이고 그걸 거머쥐기 위해선 위그노드가 탄탄히 존재해야 하니까.

그래서 나는 오래전, 나베란의 눈물을 외면했었던 것처럼 부러 눈과 귀를 과거에서 지워버렸다.

“…그를 의사에게 보내. 무슨 수를 써도 좋으니 살려내라고 해.”

인트 경은 다리를 다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라 그 대신 병사들이 데미온을 조심스레 일으켜 세웠다.

“아니, 지금 죽여! 반드시 죽여야 해!”

그때, 세이 경과 병사들에게 붙잡혀 의지 없이 제압되어 있던 레사휘가 거친 소리를 내지르며 몸을 움직였다. 검조차 내던진 그가 거칠게 움직이자 그를 제압하던 병사들이 안간힘 썼다. 순순히 검을 내던진 게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잔꾀를 부린 건가 싶었다.

“죽여! 죽여야 한다고!”

“막아!”

그러나 내 말보다 그가 더 빨랐다. 그는 빠르게 왼쪽에서 자신을 붙잡은 병사를 팔꿈치로 명치를 후려치고는 오른쪽 병사의 검 집에서 검을 꺼내 그대로 심장에 내려꽂았다. 순식간에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레사휘의 얼굴을 더더욱 기괴하게 만들었다.

그의 극단적인 행동에 모두가 순간 얼어붙었다가 이내 빠르게 몸을 움직였다. 세이 경이 단숨에 그의 검을 막았다.

“멈추십시오!”

“저자를 죽이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죽어.”

“그 입 다물어!”

억세게 주먹을 쥐며 소리 질렀다. 저 어처구니없는 궤변론자에 의해 삽시간에 병사가 죽고, 또다시 데미온의 목숨이 위협당할 지경이었다.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정말 미친 거였다. 감히, 위그노드의 겨울민족을 죽이다니!

횃불이 형형하게 밝혀진 지하 감옥 안이 난장판이 되었다.

“윽…!”

힘과 실력 차이에 세이 경의 검이 뒤로 밀리고 그가 나가떨어졌다.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어.”

“레사휘!”

그리곤 그 피 묻은 검을 바로 앞에 선 날 향해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찔렀다. 끔찍한 비명이 내 입에서 튀어나왔다. 바로 앞에서 터지는 붉은 핏물에 검은 베일이 무겁고 질척하게 젖어 들어갔다.

“…!”

입에서 거친 숨과 함께 울컥하고 피가 쏟아졌다. 그걸 두 눈으로 바라봤다. 숨이 막히고 가슴 위로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세이 경이 소리 질렀다.

“인트 경!”

작고 어린 인트 경이 흔들리는 시선을 필사적으로 내게 맞췄다. 눈을 바로 떴다. 쓰러지는 그의 몸이 내 몸을 감싸자 온 몸이 부들부들 떨려왔다.

“인트 경.”

“…아이샤님.”

그가 애써 힘주어 날 부르자마자 입가에 피가 왈칵하고 터져 나왔다. 나대신 레사휘의 흉악한 검을 몸으로 받은 그의 몸에서 피가 감싸 안은 내 몸을 적시고 바닥을 잠길 만큼 흘러 나왔다.

“이런.”

레사휘가 인트 경의 등에 꽂힌 검을 뽑으며 혀를 짧게 찼다.

“레사휘, 네가!”

검을 뽑자마자 무너지는 인트 경의 몸을 필사적으로 붙잡았다. 나만큼이나 작은 몸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려가며 창백해져갔다.

“두 번은 없어.”

다시 그 피묻은 검으로 데미온을 향하자 인트 경의 모습에 잠시 멈춰섰던 세이 경이 다시 그를 막았다. 그는 더는 아까처럼 밀리지 않았다. 죽은 병사의 모습에 주춤했던 병사들마저 합심해 레사휘를 막아섰다.

“인트 경. 정신 차려라!”

끌어안은 그의 무게에 지탱하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으며 필사적으로 그의 등을 감쌌다. 아무리 누르고 막아도 선뜩한 뜨뜻한 피가 등의 자상에서 계속해서 흘러내렸다. 막으려 해도 막아지지 않았다.

“인트 경!”

연거푸 그를 부르며 재차 깨웠다. 그가 까무륵 눈을 감았다가 이내 날 보며 애써 초점을 맞췄다.

“괜찮…으십니까?”

겨우 내뱉은 말이지만, 검에 내장도 상한 건지 또다시 입에서 피가 쏟아졌다. 아직 어린 티가 완연한 얼굴에 고통스러움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이를 악물었다.

“정신…차려라, 인트 경.”

자꾸만 숨이 끊길 것 같은 그를 붙잡으며 그를 불렀다. 너무나도 쉽게 어린 몸이 차가워졌다.

“제발!”

나는 이런 것을 원하지 않았다. 내가 울어도 좋으니 내가 사는 이 땅을 지키고 싶었다. 내가 외면 받아도 좋으니 내가 사는 이 땅의 민족들을 지키고 싶었다.

나는 이들을 지키고 싶었다.

“말하지 않았습니까…저는.”

그가 찬 입김을 내뿜으며 밭은 숨을 내쉬었다. 고통스런 얼굴이 안타까워 그를 붙잡은 손이 떨렸다. 자꾸만 붙잡은 손이 떨어지려는 것을 필사적으로 움켜쥐었다.

“저는 겨울 성의 주인에게…”

“그만. 그만 말해.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그가 순간, 옅게 웃었다.

아직 어리고, 어린. 그러나 누구보다 충성스러운 원탁의 어린 기사가 핏자국이 낭자한 입술을 틀어 올려 웃었다. 흔들리던 시선이 똑바로 내게 향했다.

수줍어 말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던 어린 기사가 아니었다. 똑바로 제 주인에게 검을 들이미는 자들에게 검날을 세웠다. 그는 아직 성인도 되지 않은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래도 나의 기사였다.

“목숨을 다해 충성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니. 괜찮…”

나의 기사였다.

바라 건데 이런 괴로운 일을 겪게 하고 싶지 않은 나의 기사였다. 우리의 적은 단연코 눈 여우였지, 사람이 아니었다. 절대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람에게 죽임 당하라고 기사로 임명한 게 아니었다.

“…그래.”

피에 젖은 옅은 금빛 머리카락을 쓸어내리고, 그 안에 오롯하게 날 향한 눈동자를 감겨주었다. 아직 어리고 여린 얼굴을 마지막으로 한번 쓰다듬었다.

“고마웠다, 인트 경.”

몸을 일으켰다. 그와 동시에 세이 경의 검이 레사휘의 검을 쳐내고 요란한 소리와 함께 내 발치에 검이 떨어졌다.

“이제 나도 망설이지 않겠어.”

검을 주워들며 나직하게 내뱉었다. 세이 경의 검이 목에 닿자 레사휘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손을 내렸다. 병사들은 이제 더는 호락호락하게 당하지 않을 기세로 그를 제압했다. 밧줄을 가져와 그를 묶으려 했다.

“오른 팔을 내밀게 하고 붙잡아.”

두 번 다시 헛된 짓거리를 하지 못하게.

“아이샤!”

검을 위로 치켜들자 레사휘가 눈에 띄게 당황한 얼굴로 날 바라보며 소리쳤다. 그러나 더는 멈추지 않았다. 이미 나는 너무나 많이 머뭇거렸고 그로 인해 많은 걸 잃게 했다. 그의 오른팔을 자른다고 모든 일이 해결되는 건 아니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따로 감옥에 가뒀어도 이런 일을 저지른 자였다.

병사들은 그가 절대 움직이지 못하게 온몸으로 붙잡았다.

검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치려는 찰나—

“얼음들의 주인은 마음이 약하군. 물러 터졌어.”

허공에서 검을 잡은 내 손목을 누군가가 붙잡았다. 고개를 뒤로 돌리자 죽은 것처럼 쓰러져 있던 데미온이 어느새 내 뒤에 서 있었다. 몸에 잔뜩 묻은 피만 아니면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양 아무렇지 않아 했다.

“놔주십시오.”

“고작 팔로 끝내려는 건가? 안되지. 감히 태양의 주인에게 검을 겨눈 자다. 그걸로는 부족하지.”

데미온이 혀를 끌끌 차며 내 손목에 힘을 실었다. 그리고 그대로 레사휘의 가슴을 향해 꽂았다.

“컥—!”

“데미온 저하!”

그는 내 허리를 감싸고 다시 손에 힘을 줘 검을 빼냈다. 심장을 찌른 게 아니라 아슬하게 비켜 찔렀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도륙이라도 하듯 배를 찌르고, 어깨를, 팔을 찔렀다. 손 안에 가득한 끔찍한 감각에 이를 세워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나 데미온은 멈추지 않았다.

이 잔인한 도륙에 그를 멈출 수 있는 자는 이 자리에 아무도 없었다. 귓가에 데미온의 기분 좋은 웃음소리가 레사휘의 비명보다도 더 혐오스럽게 울렸다. 우리는 봄 사냥에 나서도 짐승을 저렇게 죽이지 않는다.

우리는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려운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 이것은 우리의 방식이 아니었다.

“이 손 놓으십시오.”

이를 악물며 내뱉자 뒤에서 그가 웃었다.

“위그노드를 내가 가만 놔둘 줄 아느냐? 감히, 이 나를 해친 미치광이들의 소굴을? 그러니 얌전히 있어. 내 기분이 나쁘지 않게.”

검을 붙잡은 손에 힘이 실렸다. 내가 고개를 돌리자 그가 피묻은 손으로 내 턱을 들어 올렸다.

“똑바로 봐라. 내게 검을 겨눈 자가 어찌 죽는지를.”

그가 킥킥 웃으며 마지막으로 심장에 검을 꽂았다.

벌어진 셔츠 사이로 그의 가슴에 선명하게 남은 자상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온통 피로 젖어 딱딱하게 굳은 옷이 아니라면 다쳤다는 걸 아무도 모를 정도였다. 아시네헤의 일족도 아닐 진데 저런 경이로운 회복속도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었다. 정말로 신의 일족이라서. 아스헤의 피를 이은 일족이라서 그러한 것인가.

그러하다면 레사휘는 정말 끔찍한 짓을 저지른 거였다.

애써 침착하게 의자에 앉았으나 요란한 소리를 내며 실로이의 기사들에 의해 방 안으로 끌려오는 나베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아득함을 느꼈다.

그가 장난을 치듯 손 안에 단검을 쥐었다가 던지고 다시 받았다.

“이게 갑자기 무슨…”

자다가 갑자기 끌려온 나베란은 흐트러진 옷차림을 주섬주섬 손으로 감싸 쥐며 불안하게 말을 내뱉었다. 그러다 이내 방 한쪽에 앉아있는 날 보더니 이내 말을 삼켰다.

방 안의 공기가 검 끝에 선 것처럼 아슬아슬해서 자칫 잘못했다간 그대로 검에 찔릴 것 같았다. 숨 쉬는 소리조차 크게 울렸다. 바로 목 앞에 검만 없을 뿐이지 우리의 목숨은 그가 쥐고 있었다.

아무리 실로이의 왕족이라 할지라도 위그노드의 겨울성의 혈족에게 이리 할 순 없다. 하지만 이미 우리가 저지른 과오가 있었다. 우리가 아무리 위그노드를 다스린다 할지라도, 실로이에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신하된 민족이었다.

부당한 처사와 강압적인 지배는 굴복하지 않고 저항하겠지만, 오늘의 일은 그러한 게 아니었다. 우리는 이제 반역자의 민족이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실로이의 군대가, 거기다 감히 왕족을 해친 반역자들을 처단할 왕의 명령으로 테레베와 헤스티의 군대까지 이곳으로 밀려올 것이다. 그들이 아무리 겨울을 겪지 못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수적으로 우린 이미 열세였다.

레사휘가 그런 짓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겐 위그노드를 지킨다는 명분이 있으니 테레베와 헤스티의 군대는 아무리 왕의 명령이 있다 할지라도 참전할 리 없다. 실로이의 군대뿐이라면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눈 여우에게 싸워 이긴 기사들과 겨울에 맞서 살아남은 병사들이 쉽게 질 리 없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위그노드는 레사휘에 의해 기사들이 반으로 나뉘고, 형세가 어지러워졌다. 거기다 왕족을 해치려 했으니 명분 따윈 없다.

우습게도 지금 이 순간, 겨울이 오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하지만 그도 그뿐이다. 겨울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짧은 틈일 뿐이다. 꼼짝없이 겨울에 갇혀 살아남는다 할지라도 다른 세 민족에 의해 죽는다.

“나는 두 번 말하는 게 싫어.”

그가 허공에 내던진 단검을 다시 쥐며 날 향해 입을 열었다.

“그러게 처음부터 내가 하란 대로 했으면 좋았잖아? 나도 찝찝하게 사람 죽이는 걸 좋아하지 않아.”

그가 내뱉는 말이 방 안을 울렸지만, 나도 나베란도 답하지 않았다. 나베란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지 알아듣지 못해서였고, 나는 알아들었음에도 답할 수가 없었다.

그저 고요히 어둠 속을 바라봤다.

아직 내 몸에 남은 피비린내가 끔찍하게 맴돌았다.

“바라시는 게 무엇이십니까.”

“바라는 게 뭐냐고?”

그가 날 향해 크게 웃음을 터뜨리다가 이내 돌변한 것처럼 차갑게 내뱉었다.

“우습군.”

그러나 시선은 나에게 가 있지 않았다. 잔인한 붉은 눈이 바닥에 쓰러진 채 바들바들 떨고 있는 나베란에게 향해 있었다. 그가 단검을 고쳐 쥐고는 나베란에게 향했다. 나베란은 애써 입술을 깨물며 소리를 삼켰다.

“모두 다. 나는 모든 것을 내 손에 쥐길 원해.”

그가 거칠게 나베란의 목깃을 붙잡아 끌어 올렸다. 나베란이 창백하게 질린 채 그의 손아귀에 붙잡혀 거칠게 끌려 일어섰다. 나베란의 새하얀 몸이 달빛에 비쳐 아슬아슬하게 보였다. 그의 단검이 나베란의 목을 향하다가 그 아래로, 가슴 정 중앙을 가르며 옷을 베었다.

벌어진 옷깃 사이로 새하얀 살결이 보이자 차마 고개를 돌렸다.

“으흑…!”

나베란이 이 치욕적인 행위에 그만 참지 못하고 입술 밖으로 억눌린 설움을 터뜨렸다. 그러나 애써 입술을 깨물며 참는지 더는 소리를 내뱉지 않았다.

“어떻게 할까, 응?”

“…”

대답 대신 의자의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다. 딱딱한 나무의 질감이 손바닥에 선명하게 느껴졌다. 이미 내 손도, 얼굴도, 그 얼굴을 가린 베일도, 옷도 피투성이였다. 그러나 아직 위그노드의 겨울 민족은 피로 젖지 않았다.

“아, 그래, 생각을 바꿨어. 우는 여잔 취향이 아니거든.”

“…아, 안 돼…!”

고개를 들자 어느새 상의를 벗어 던지 데미온이 내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붉은 눈이 욕망에 젖어 번뜩거렸다. 소름이 얼어붙은 가슴에서부터 돋아났다.

끔찍한 혐오.

잔뜩 찢긴 옷가지로 겨우 몸을 가린 나베란이 필사적으로 데미온을 붙잡았다. 그의 손속이 어찌나 거칠었는지 찢긴 옷 사이로 나베란의 흰 살결이 단검에 베여 피가 배어 나와 있었다. 그는 거칠게 붙잡은 나베란을 쳐냈다.

“악!”

그녀가 세차게 바닥에 쓰러졌다가 이내 다시 몸을 일으켰다.

“안 돼! 아이샤는 안 돼요! 제가, 네?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녀는 필사적이었다. 두려움이라곤 없는 얼굴로 애써 웃으며 데미온을 붙잡았다. 그러나 의자에 앉아 있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가슴이 얼어붙은 게 아니라 온 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다.

말 하나 내뱉지 못하고, 손 하나 움직이지 못했다. 그저 치밀어 오르는 혐오감에 속이 울렁거렸다. 레사휘가 내게 저지른 일들이 떠올랐다.

그때의 그 거칠고 잔혹한 손길이.

귓가에 내쉬는 숨결이.

잔인하게 욕망에 젖은 눈빛이.

그 끔찍함에 손을 들어 몸을 감쌌다. 그런 내 앞을 나베란이 가리듯이 막아섰다.

“제가 할 수 있어요. 네? 아이샤는 처녀가 아니에요. 이미 휘아르의 아이를 배고 있는 몸이니까 차라리 제가 나아요, 네? 데미온 저하.”

“하. 뭐야, 벌써 더럽혀진 여자인가.”

그가 혀를 끌끌 차며 날 훑어봤다. 내가 몸을 감싸는 걸 배를 가리는 걸로 착각했던 건지 나베란의 말을 수긍했다. 나베란은 제가 무슨 말을 지껄이는지도 모르는 얼굴이었다. 그러나 그는 데미온의 말에 눈에 띄게 안도했다.

“그래, 어차피 너도 상관없지. 겨울성의 혈족이고 또…”

그가 음습하고 지독히 탐욕적인 얼굴로 나베란의 몸을 훑었다. 그리고는 찢기고 벌어진 옷깃 안에 서슴없이 손을 집어넣었다. 나베란이 애써 참느라 그녀의 어깨가 바들바들 흔들렸다.

그럼에도 그녀는 처음처럼 우는 소리 하나 내뱉지 않았다. 어릴 때와 같다. 우리는 어쩜 이렇게 같을까. 나는 외면하고 그녀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이제 더는 지켜줄 오라비도 없는데.

소리를 내지르며 몸을 일으켰다.

“그만!”

당장 저 눈을 칼로 후비고 싶었다.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이런 꼴을 보기 위해 살아왔던 게 아니었다. 이렇게 될 걸 알면서도 막상 두 눈 뜨고 보자니 견딜 수 없었다. 어쩌면 레사휘의 말이 맞았을 지도 모른다. 우리는 그를 죽였어야 했다.

이런 치욕적인 일을 당하기 전에!

그러나 나베란이 그대로 데미온의 몸을 끌어안았다.

“괜찮아, 아이샤. 그냥 그대로 있어. 응? 몸을 소중히 해야지. 엄마잖아.”

“나베란.”

내 배에는 한 줌의 생명조차 없었다. 그리고 그건 나베란역시 잘 알고 있었다. 날 구하기 위해 다급히 내뱉은 조잡한 변명일 뿐이었다. 그러나 정작 내 눈 앞의 생명조차 붙잡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이제라도 차라리 기사들을 불러야 했다.

그러나 문을 열고 쏟아지는 무장한 실로이의 기사들의 모습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

“허튼 짓 하지 마. 실로이의 군대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곳으로 오고 있으니까.”

레사휘를 막아설 때의 기사와 병사들뿐만이 아니었다는 뉘앙스였다. 확실히 실로이의 왕자가 가는 길에 너무 적은 수의 병사들과 기사들이었다. 그것은 오로지 보여주기 위한 모습일 뿐이었다.

시선을 창가로 돌리자 아직 새벽녘의 어둠이 가득했지만, 성 안에 빼곡하게 들어차는 군대의 횃불에 눈이 어지러울 지경이었다. 어느새 라고 말할 수 없었다. 그는 절대 포기하고 돌아갈 인간이 아니었다. 잠시만의 말미를 달라 하며 이런 짓거리를 뒤에서 벌이고 있었다.

“일부러 감옥에 내려간 거였군. 칼에 맞아도 죽지 않으니까.”

“뭐, 반은 맞았어. 반은 틀렸지만. 이 성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작전이라 여겨줬으면 좋겠군. 그 어여뿐 입술을 가만히 놔두지 않으면 애를 배고 있든, 아니든 당장 다리를 벌리게 할 테니까.”

그는 비릿하게 웃으며 나베란의 허리를 끌어안았다.

“나베란!”

비명처럼 나베란을 불렀다. 그러나 그녀는 처연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다시 나베란을 부르며 손을 내밀었지만, 내 몸을 우악스럽게 실로이의 기사들이 붙잡았다.

“이제 그만. 밤은 짧잖아?”

나베란의 벌거벗은 등에 입을 맞추며 그가 간악스럽게 웃었다. 비명을 내질렀다. 비명을 피처럼 토하며 그의 기사들에 의해 방 밖으로 내쫓겼다.

방 안에는 데미온과 나베란만을 남겨둔 채로.

“나베란!”

굳게 닫힌 문 너머로 아무런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음에도 내 비명만이 어두운 복도를 갈랐다.

우악스럽게 붙잡은 기사들의 손을 쳐냈다. 그리고 한달음에 복도를 내달렸다. 실로이의 기사들은 날 붙잡지 않았다. 어차피 그들은 자신의 주군인 데미온을 지키기만 하면 되었으니 문에서 멀어지는 날 구태여 잡을 필요 없었다.

아니, 어쩌면 잡을 필요를 못 느꼈던 걸지도 모른다. 그들은 이제 곧 이 성을 장악할 것이고 내가 저항한다 할지라도 충분히 제압할 거라 믿었다. 그들은 여자를 무시했고, 여자의 힘을 인정치 않았다.

나는 그들 앞에 나베란처럼 한낱 다리를 벌리는 여자였다.

입술을 깨물며 계단을 오르고, 복도를 지나 방문을 두드렸다.

“휘아르!”

지금 내게 남은 최후의 수는, 휘아르였다. 그가 가진 힘이 필요했다. 레사휘에게서 나를 구했듯이, 지금 데미온에게서 나베란을 구하려면 그가 가진 힘밖에 없었다. 얼음으로 된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나는 고작 인간이었다. 인간의 법에 매이고,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적인 권력을 지닌 그를 어찌할 수 없었다.

나는 지금 겨울조차 멈추게 한 그가 필요했다.

“휘아르!”

그러나 방 안은 온기라고는 없을 정도로 쌀쌀했다. 아무리 그가 아시네헤의 일족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방이 차가울 리는 없었다. 침대로 다가가자 잘 정리된 침구에, 흔적도 남아있지 않는 자리를 보고 그가 방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도대체 언제부터?

순간, 나답지 않게 당황했다.

주먹을 말아 쥐었다. 눈에서 얼음으로 된 눈물 대신 피가 쏟아질 것만 같았다. 이토록 이성을 잃고 내달린 적이 없었다. 가슴속에 얼음으로 된 심장이 바스락 거려 소리가 날 것 같았다.

문을 거칠게 박차고 나섰다. 도대체 어디?

그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지?

이제껏 그가 내 곁에 없었던 적이 없었다. 찾지 않아도 그는 내 곁에 있었고,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었다. 그러나 이토록 오랫동안 내 곁에 없었던 적이 없었다.

그가 없다.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는 게 느껴졌다. 아직 겨울이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 성안에 겨울이 휘몰아친 것 같았다.

이 밤이 너무나 길어 무서울 정도였다. 눈을 뜬 채로 악몽을 꾸는 기분이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꿈을 꾸고 있는 걸까. 샤하웨일까. 아니, 도대체 어디서부터일까.

걸음을 멈추고 차게 얼어붙은 손끝을 감싸 쥐었다. 그리고 길고 긴 숨을 내뱉었다. 아무도 없는 복도. 이 서늘하고 가라앉은 한기.

이건 꿈이 아니다.

나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이대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없다. 모든 것을 송두리째 잃었던 것은 9년 전으로 족하다. 나는 그때의 어린아이가 아니다.

차게 젖은 숨을 내뱉었다.

걸음을 돌렸다. 작금의 상황을 모두에게 알려야 한다. 그는 이럴 작정으로 감옥 안에 있던 병사들과 세이 경을 도리어 구금했다. 하지만 그는 나를 붙잡지 않았다. 그것이 과연 내가 저항한다 할지라도 부질없다는 것을 보여줄 셈인지, 아님 정말로 반역의 빌미를 잡아 이 위그노드를 억압하려 하는 건지 확실치 않다.

하지만 이 틈은 짧다.

데미온이 그 방을 나서는 순간, 나를 찾을 것이다. 그러니 그때 나까지 데미온에게 붙잡힌다면 늦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간 너무나도 쉽게 위그노드가 그의 손에 떨어진다.

빠른 걸음으로 복도를 되돌아 계단을 올랐다. 이 계단 아래로 내려가면 나베란이 있는 그 방이 나온다. 그럼에도 시선 한 줌 주지 않았다.

계단을 돌아 오르고 오르자 문이 보였다. 성의 꼭대기 탑으로 오르는 문이었다. 그 문을 밀자 탑으로 오르는 계단 옆, 횃불의 빛마저 닿지 않는 어두운 공간이 나타난다. 나베란은 저 어둠 속에서 몸을 말아 숙이고 몰래 울었다.

애써 시선을 돌렸다.

그러나 말아 쥔 주먹 틈으로 뚝–하고 핏방울이 눈물처럼 흘러 떨어졌다. 꼭대기 탑 안으로 들어가자 아직도 별을 보고 있는 스토웰의 등이 보였다.

“스토웰.”

“오, 이 새벽에 무슨 일이지?”

그의 새하얗게 변한 머리를 보자 가슴이 뜨뜻미지근하게 선득하다. 그의 말이 맞다. 나는 오만하기 짝이 없었다. 내가 무엇이라고. 나는 오만하게도 내 뜻대로 할 수 있을 거라 믿었다. 그러나 결국은 이 꼴이었다.

레사휘도, 나베란도, 인트 경도.

그리고 이젠 모두를 잃을 지경이었다.

“스토웰.”

내가 재차 입을 열자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바라본다. 그러나 쉽게 말이 떨어지지 않았다.

나만 못 듣고, 못 보고, 못 들은 척 하면 비록 위그노드의 위상이 땅으로 떨어지고, 이전과는 다르게 실로이에 완벽하게 복종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모한 죽음 없이 살아남을 수 있다. 사람 대 사람으로 싸울 필요 없다.

어차피 데미온은 나베란을 원했으니 처음대로 이루어졌다고 여기면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나베란을 위해 실로이를 지원한다고 생각하면 되었다. 데미온, 그가 왕이 될 수 있게.

그 방을 외면하면 되었다. 나베란도 이런 결과를 원치 않을 것이다. 우리는 겨울과 눈여우에게 너무나도 많이 죽었고, 싸웠고, 결국은 이렇게 초라해지고 말았다. 그러니 이제 그만해도 좋았다. 여기서 사람과의 전투까지 벌어져 더 죽을 필요 없었다.

입술을 깨물었다.

“…구하고 싶어요.”

모두가 날 탓해도, 성의 운명을, 위그노드의 운명을 움켜쥔 내가 저지른 이 행동에 욕을 해도 좋았다. 나는 그녀를 구하고 싶었다. 또다시 겨울이 몰아치기 전에 피 흘리는 전투가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럼, 지켜. 우리는 위그노드의 겨울 민족이야. 싸워서 승리하는 민족이라고.”

스토웰이 경쾌하게 답했다.

우리는 봄이 짧아지고, 겨울이 길어져도 절대 꺾이지 않는다. 살아남기 위해 터전을 넓히고 스스로 싸워 쟁취한다.

하지만 데미온 그는 우리의 의지를 짓밟았고, 우리의 긍지를 꺾었다.

레사휘를 쉽게 죽인 그가, 나베란을 쉽게 붙잡아 간 그가 우리 위그노드의 겨울민족을 어찌할 지는 눈에 훤했다. 향락을 위해 여자들을 끌고 가고, 남자들을 자신의 왕좌를 위한 밑거름으로 만들 것이다.

결국, 지금 싸우나 그때 싸우나 우리는 이미 빌미를 제공해버렸다. 그렇다면 망설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싸우고, 이기고, 지킬 것이다.

“지금 당장 성의 주민들에게 전령을 보내세요.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이브실라로 보내고 남자들은 무장을 하고 성으로 집합하라고. 성 안의 병사들은 1층 홀에. 기사들에게는 무장하고 응접실로 모이라고 전해주세요.”

꼭대기 탑은 관측을 위한 곳이기도 하지만, 성의 긴급 연락을 취하는 곳이기도 했다. 내 말에 그가 얼굴을 딱딱하게 굳혔다.

“알겠다.”

그는 일언반구도 없이 그대로 고개를 끄덕였다.

“왜 묻지 않으세요?”

“어차피 물어도, 묻지 않아도 나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할 테니까. 그러니 그런 얼굴 하지 마.”

손을 들어 얼굴을 매만졌다. 그러나 잔뜩 마른 피가 엉겨 붙은 베일이 꺼끌꺼끌하게 매만져질 뿐이었다.

“내가 널 한 두 해 본 줄 알아? 너 태어났을 때부터 봐왔어. 우리는 모두 네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너는 우리의 하나뿐인 주군이다.”

주군.

아비가 어미를 데려와 나를 낳았고, 나는 그런 어미의 자식이었다. 그리고 그 어미는 위그노드를 저주한 아시네헤의 딸이었다. 아비가 눈 뜨고 걸어 다닐 적엔 그나마 나았지만, 아비가 쓰러지자 그 냉막한 시선들은 모두 다 내게 향했다.

내가 흘리는 노아의 씨앗이 얼음 가시나무를 싹트게 하는 건 당연하다. 내가 가시로 뒤덮인 사람이니까.

진심도, 믿음도, 마음도 모든 걸 내치고 가시로 날 감쌌으니까. 그런 여자의 눈물이 가시가 되는 건 당연하다.

오늘의 일은 내 잘못이고, 과오다.

그리고 이제 내가 벌일 일 역시 끝없는 실수의 연속이다. 그럼에도 나는 나베란을 버릴 수 없었다. 위그노드의 겨울 민족을 사랑하지만, 나는 내게 손 내밀어주던 그 여린 아이도 사랑한다.

비록,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도.

“그리고 응접실에 모인 린드 경에게 전해주세요. 지금 감옥에 갇힌 세이 경과 병사들, 그리고 아벨린 경과 레사휘를 따랐던 병사와 기사들도 함께 풀어주라고. 지금은 그 어떠한 죄도 책망하지 않을 테니 자신의 위치에서 날 기다리라고.”

지금 우리는 우리끼리의 전쟁을 할 때가 아니다.

날 보는 스토웰을 향해 참참하게 정리된 눈으로 바라봤다.

“저는 실로이의 왕족을 위그노드에 가둘 겁니다. 그를 인질로 삼아 절대 실로이가 이 위그노드를 치지 못하게.”

아주 오래전, 봄의 테레베, 여름의 헤스티, 가을의 이브실라, 겨울의 위그노드는 중앙의 태양 실로이에 복종을 맹세했다.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그 맹세는 신에 의해 지켜지고 견고해 어느 누구도 깰 수 없다. 그때 우리 위그노드는 실로이에 맹세했다.

절대로 실로이를 침범하지 않겠다고.

대륙의 3분의 2나 되는 땅을 가졌지만, 그 대부분이 혹독한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대지를 가진 위그노드는 죽을 때까지 북쪽을 지키기로 맹세했다. 절대, 힘과 권력을 키워 실로이를 침략하지 않고 인간의 적인 아시네헤에게서 대륙을 지키겠다고.

그리하여 실로이는 그 예우로 복속이 아닌 공존이라 말하며 함부로 우리를 대하지 않았다. 우리가 긍지와 의무를 가지고 대륙의 북쪽을 지키는 것을 실로이의 태양은 언제나 감사히 받아들였다.

그러나 실로이의 태양이 위그노드의 얼음을 녹인다면 우리도 절대 가만히 부서지고 녹아내리지 않겠다.

초조하게 탑의 계단을 내려갔다. 자꾸만 차게 저리는 손끝을 말아 쥐며 마음을 다잡았다. 나는 성의 주인이고, 모두를 지켜야 한다.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로 데미온에게 갔다간 도리어 약점만 잡히고 그땐 위그노드의 반역을 기정사실로 만들 것이다.

일단, 먼저 기사와 병사들을 모아야 한다.

이곳은 우리의 땅. 쉽사리 당할 리 없다. 그들이 아무리 수가 많아도 우리는 이곳에서 눈을 먹고, 얼음을 베고 살아왔다. 아시네헤조차 어찌하지 못한 우리를, 혹독한 겨울에서도 살아남은 우리를 그깟 태양의 힘이 어찌할 리 없다.

눈과 얼음을 태양이라 할지라도 쉬이 녹일 리 없다.

그리 잘 알면서도.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그 문을 부수고 싶다. 그 끔찍하고 혐오스런 작자에게서 나베란을 떼어내고 싶다. 나베란은 날 향해 미소 지었다. 그러나 나는 그 미소가 어미처럼 변할 것만 같아 두려웠다.

한 번 절망을 알아버린 사람이 그 전과 같을 리 없다.

나베란은 그때 응접실에서 레사휘에게서 날 구하지 못하고 도망쳤다고 수없이 탓하고 자책했다. 그래서 날 지키기 위해 스스로 몸을 던진 거였다. 그리고 나는 그런 그녀를 두고 나와야 했다.

도망쳤다.

애써 아니라고. 그보다 더 큰 일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난 버리고 도망친 거였다.

내가 그에게 붙잡힐 게 두려워서.

내가 나베란처럼 될까봐.

아니, 결국 어미처럼 될까봐.

눈앞이 어지러웠다. 마음을 다잡아도 이 순간 나는 가장 초라한 여자가 된 것만 같았다. 제 한 몸 살기 위해 도망친 여자.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과 치 떨릴 만큼의 무능함에 길을 잃을 것 같았다.

아니, 길을 모르겠다.

누가 제발 나를 이끌고 길을 알려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지금 내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 여겼던 아비는 병들어 눈조차 뜨지 못한 상태였고, 검을 들고 성을 지키던 레사휘는 데미온의 손에 쓰러졌다. 그리고 나베란은 더럽고 음험한 손에 갈갈이 찢기고 있었다.

나는 다시 나베란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내게 시기하는 눈빛조차, 단 한 번의 차가운 얼굴조차 보여준 일 없던 그 애가 이제 날 어찌 볼까. 나에게 단 한 번의 시선조차 주지 않던 어미처럼, 나에게서 어미를 찾던 아비처럼, 한없이 관망하면서도 동정하던 샤하웨처럼 그리 변할까.

나는.

오랜 시간 끝없이 오르고, 내려갔던 계단인데 한순간 발끝이 툭 하고 미끄러지며 아래로 떨어졌다.

“아가씨!”

고개를 들자 어둠 속에서 새하얀 빛을 잃지 않는 그의 모습이 눈에 가득 들어왔다. 그가 힘주어 손과 허리를 잡아 떨어지지 않게 지탱해줬다. 이제껏 어디에 있다가 갑자기 나타난 걸까. 그는 여느 때와 똑같았다.

“한 참 찾았어. 대체 어디에 있었던 거야?”

내가 물을 말을 그가 하고 있었다. 그의 팔을 세게 붙잡았다. 너야말로 이 새벽에 어디에 갔었냐고. 어디에 있었었냐고. 지금 이 성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냐고. 그러나 붙잡은 그의 팔이 차가웠다.

본래도 얼음으로 빚은 일족.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은 얼음이 아니었다. 살아있다는 걸 확인이라도 시키듯 온기가 서려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유난히 차가웠다.

마치.

“밖에 나갔었어?”

내 말에 그의 얼굴 위로 그늘이 내려앉았다. 그는 날 보며 입술을 몇 번 짓이기더니 이내 별 수 없이 입을 열었다.

“아이샤. 놀라지 마. 지금 밖에 눈이 내리고 있어.”

그럴 리가.

순간, 어처구니가 없어 그를 멍하니 바라봤다.

“아이샤.”

“지금 뭐라고?”

탑의 관측자들은 이제 곧 겨울이 올 거라고 말했지만, 예상치 못하고 갑작스럽게 나타난 겨울로 인해 관측이 더 어려워졌다. 그땐 휘아르의 힘으로 겨울을 물러가게 할 수 있었다. 다행이지만 그 뒤로는 탑의 관측자들조차 겨울을 예상할 수 없었다. 규칙이 깨진 것처럼, 흐름이 뒤틀린 것처럼 그저 조금씩 차가워지는 날씨로 예상만 할 뿐이었다. 하지만 이건 아니다.

적어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올 거라 예상하진 않았다.

안색이 점차 어두워지는 그를 밀어내며 빠르게 계단 아래로 내려갔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가 밖을 확인해야 했다. 심지어 눈이라니. 아까까지 밖을 내다봤을 땐 흔적조차 없던 것이었다.

달도 없이 어둔 밤. 그럼에도 복도는 실로이의 군대들이 들고 있는 횃불에 비치는 빛으로 빛났다. 그래서 창문으로 밖을 보는 게 어렵지 않았다.

오히려, 그 너무나 선명한 모습에 창문을 누르는 손에 힘이 들어갈 정도였다.

“아이샤.”

내 얼굴에 옆에 선 휘아르가 걱정스레 날 불렀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다. 눈앞에 선명하게 내리는 새하얀 것. 얼음으로 빚은 달의 일족의 머리카락만큼이나 새하얗고 미온한 온기를 지니지만, 사람의 손에는 닿자마자 사라지는 것.

눈이었다.

우리에게 겨울은 지나치리만치 익숙한 것이지만, 이렇게 고요하게 내리는 눈은 낯설었다. 매번 무섭게 휘몰아치는 눈보라의 폭풍 속에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얼어붙었다. 눈은 저리 고요한 것이 아니었다. 귓속이 찢어지리만치 휘몰아치고 날카롭게 벼린 칼처럼 세차게 몰아 결국은 심장을 얼렸다.

이렇게 조용히, 그리고 꽃처럼 내리는 광경은 처음이었다.

그것은 비단 나뿐만이 아니었던지 밖에 서있는 실로이의 기사들조차 놀라운 기색으로 여기저기 손을 하늘로 향하고 있었다. 살아 있는 시선으로는 메마른 땅 위에, 때론 나무 위에 미처 녹지 않은 눈을 봤지 저렇게 내리는 눈은 처음이었을 것이다.

“겨울이,”

손이 나도 모르게 떨렸다.

“정말로 온 건가?”

고개를 뒤로 돌려 휘아르를 바라봤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매번 겨울은 처참하리만치 무섭게 들이닥쳤다. 이리 조용히 내리는 게 아니었다.

“나도 모르겠어.”

휘아르의 힘없는 목소리에 고개를 저으며 황급히 몸을 돌렸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었다. 만약 이게 겨울이 오는 새로운 전조라면 지금 이브실라로 떠나선 안됐다. 가다가 죽을 것이다. 이 겨울의 틈바귀에 모두 얼어버릴 것이다.

“아이샤!”

다급하게 탑으로 다시 올라가려는 찰나에 휘아르가 거칠게 손을 붙잡아 몸을 돌렸다.

그 바람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린 베일이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다. 베일 없이 오롯하게 보이는 휘아르의 시선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다시 밖을 봐. 이상하지 않아?”

언제 웅성거렸냐는 것처럼 밖이 조용했다. 빨리 전달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눈치 채지 못했었다. 그러고 보니 조용했다.

방금 전, 정말로 찰나밖에 지나지 않은 시간 전에는 그토록 신기한 경외로 웅성거리던 밖의 소란이 삽시간에 멎어 있었다. 마치, 눈보라 속에 갇혀 소리가 먹힌 것처럼. 다시 고개를 들어 밖을 보자 알았다.

사부작 내리던 눈이 밖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무섭게 얼게 만든 것을.

이렇게 삽시간에 모두를 얼리는 눈은 소름끼칠 만큼 하늘이 아닌, 네헤베의 장벽에서부터 불어오고 있었다.

아시네헤가 9년 만에 정말로 우릴 죽이려 하고 있었다.

“안 돼, 지금은. 지금 겨울이 오면 안 돼!”

휘아르의 손을 뿌리치며 탑으로 가는 문을 향해 빠르게 달렸다. 보기엔 새하얀 꽃과 같이 아름답게 보이는 저 눈은 불길한 징조이자, 죽음의 증표였다. 스토웰이 내 명으로 전령을 보내면 영지 내의 여자와 아이들이 밖으로 나갈 것이다. 그걸 막아야 했다.

“아이샤, 진정해. 진정하라고.”

그러나 휘아르가 막듯이 내 팔을 붙잡아 당겼다.

“놔!”

그를 매섭게 노려보며 팔을 뿌리치기 위해 힘을 줬다. 다른 것도 아닌 겨울이 또다시 우릴 얼려 죽이려고 했다. 고작 이 짧은 밤 동안에 무섭게 몰아치는 일에 가슴 안에서 요란하게 소리가 울린다.

“관측자는 바보가 아냐. 이 눈을 보고 그런 전령을 보낼 리 없다고.”

하지만 그것은 불확실하다. 그가 내 명을 더 우선시하여 전령을 보냈을 수도 있다. 저 눈을 보고 그저 가벼이 여겼을 수도 있다. 아무리 스토웰이 유능한 자라 할지라도 이 눈은 그간 접해본 적 없는 것이었다.

나는 그 불확실함에 사람들의 목숨을 내걸 수 없었다.

더군다나.

“이거 놓으라고! 놔!”

목소리가 거세게 올라갔다. 휘아르가 평소와는 다른 내 목소리와 얼굴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날 바라봤다. 그러나 나 역시 그런 것을 추스를 수 없었다. 내 얼굴 위에 베일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망설일 틈이 없었다.

한순간에 레사휘의 배신으로 나의 어린 기사가 죽고, 데미온에 의해 레사휘가 죽었다. 그 죽음에 슬퍼할 겨를조차 없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나베란을 버리듯 빼앗겼다. 모든 게 삽시간에 손 안에서 흘러내렸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터전에 겨울이 내린다.

모두를 얼리게 하는 죽음의 눈이.

이 모든 게 고작 짧은 밤의 틈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니 믿겨지지 않는다.

무너진다.

겨우 남은 우리의 터전이.

내 마음이.

“아이샤.”

뿌리치려고 안간힘 쓰는 날 거세게 품으로 끌어안았다.

“내가 있잖아. 내가 막을 수 있어. 그러니까 진정해. 죽지 않아. 아가씨가 우려한 일은 일어나지 않아.”

“놔, 놓으라고!”

몸부림치는 날 더욱 세게 감싸 안으며 그가 귓가에 속삭였다.

“제발 진정해. 괜찮아, 내가 있잖아.”

귓가에 울리는 목소리는 겨울 속에서 불어오던 눈보라를 멈췄을 때처럼 크지도 높지도 않았다. 그저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다. 그럼에도 맞닿은 채 끌어안은 팔이, 미온의 체온을 가진 가슴이 몸부림을 멈추게 했다.

그 말이 나를 멈추게 했다.

“내가 있어.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괜찮아. 내가 네 옆에 있어.”

떨리는 입술을 세게 깨물었다.

이토록 무서운 밤이 또 올 줄은 몰랐다. 아비가 쓰러지자마자 어미를 잃고, 겨울이 몰아치던 그 무서운 밤. 눈여우라는 흉악한 괴물이 나타나 모두를 죽인 밤.

그 밤이 또다시 내 숨을 이렇게 거머쥘 줄은 몰랐다.

또다시 열 살 먹은 계집애가 되어 이렇게 겁에 질릴 줄은 몰랐다. 나는 정말로 몰랐다. 그래서 오만했다. 스스로 이 성의, 영지 내의 사람들을 지킬 수 있다고 자신했고, 노아의 씨앗만 있다면 그 무엇도 다 할 수 있을 거라 맹신했다.

그러나 아니었다.

이 무서운 밤에 나는 내 소중한 이를 너무나도 쉽게 잃었다. 녹아내리는 얼음을 차마 손안에 가두지 못하고 모두 다 흘려버려야 했다. 그래서 슬프다, 괴롭다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내가 놓쳐버린 것이 더 많아질까 두려워 초조했다.

“내가 있어.”

“…”

재차 입술을 깨물었다.

열 살의, 그 무서운 밤 나는 홀로 있었다. 스스로 숯으로 달군 부지깽이로 허벅지를 헤집었던 그 무서운 밤. 내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실은 무섭다.

무서워 놓아버리고 싶다고 말하고 싶을 만큼. 누가 내 손을 잡아 이끌어줬으면 하고 원할 만큼. 누가 제발 내 옆에 있어줬으면 하고 바랄만큼.

“네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줄게.”

두근거리는 품안으로 끌어안은 그는 마치 나를 아이 다루듯 내 등을 쓸어내리며 두드렸다. 이것이 거짓이라 할지라도 너무나 달콤한 말이었다. 보드카의 쓴 맛을 잊게 해줄 초콜릿처럼.

“…”

눈을 깊게 감았다. 마음을 다잡았다. 진정해야 했다. 아무리 버겁고 무거워도 내가 흔들려선 안 된다.

나는 이 땅의 주인이니까.

약해져서도 안 되고, 흔들려서도 안 된다. 무너져서도 안 된다. 무섭다고 도망쳐서도 안 된다. 이끌어 달라고 청해도 안 된다.

내가 이 땅의 주인이다.

떨리는 숨을 크게 내쉬었다.

“놔. 이제 괜찮으니까.”

나직하게 내뱉는 내 말에 그가 끌어안은 팔을 풀었다.

“그런데 입술이 왜 이래? 쯧쯧, 제발 소중히 여겨줘. 내가 아프잖아.”

내가 언제 흔들렸다는 양 그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소와 같았다. 하지만 이미 드러난 금색의 눈동자는 깊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의 시선이 내 입술에 향해 있었다. 조심스레 뻗은 손이 깨물린 입술을 살살 어루만졌다. 그러나 내가 피하듯 고개를 돌리자 아쉬운 듯 작게 웃음소리를 냈다.

그리고 얼굴을 가리듯 바닥으로 허리를 숙였다. 바닥에 떨어진 베일을 주워 조심스레 털었다. 이미 피에 젖어 더러워진 베일인데도 그는 소중하게 대했다.

마치, 나처럼.

그 일련의 과정을 넋을 놓은 것처럼 물끄러미 바라봤다. 불현듯 샤하웨의 말이 떠오른다. 그를 믿지 말라는 말이. 시리도록 언 눈을 깊게 감았다가 떴다.

감은 눈을 뜨자 눈이 마주치며 그가 부드럽게 웃었다. 어느새 그의 본디 빛깔인 금색의 눈동자는 사라지고 푸른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자, 명령해. 아가씨, 제가 무엇을 할까요?”

한없이 가벼워 보이는 말투와는 다르게 그의 눈은 더없이 무겁게 날 바라봤다. 샤하웨는 그를 믿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뼛속까지 아시네헤의 일족인 샤하웨를 믿는 것보다 내 앞에 선 흰 사슴의 눈을 믿고 싶었다.

더군다나 샤하웨는 날 속인 적이 있었다. 그도 결국은 아시네헤의 일족. 결과를 위해서라면 치장하고 현혹시켜 결국은 성 안으로 초대받게 하는 잔재주를 부릴 줄 아는 자였다. 더군다나 멋대로 다시 내 앞에 나타난 주제에 내가 곤란한 상황인 걸 뻔히 알면서도 또다시 사라진 샤하웨였다. 물론, 기대도 하지 않았다. 그는 사람이 아니다. 인간의 법에 메일 필요가 없었다.

우리는 피를 나눈 사이였지만, 본질적인 근본이 달랐다. 우리가 함께 지낸 건 고작 어린 시절의 아주 토막과도 같은 짧은 틈이었고, 그는 그때 날 속여 어미의 곁에 머물렀다.

“휘아르.”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았다.

“말해.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할게.”

그는 제법 자신있게 말했으나 실은 알고 있었다. 아무리 그가 아시네헤의 일족이라 할지라도 아시네헤의 뜻을 꺾어가며 우리를 지키지 못할 수도 있었다. 그건 이미 저 기묘한 눈이 내리면서 나도, 그도 예상한 바였다. 하지만 그는 해내고자 한다면 해낼 것이다.

나는 그를 믿었다.

“응접실로 가서 그 곳에 있는 린드 경에게 내 말을 전해.”

하지만 이상하게 두근거리던 가슴은 어느새 다시 차가워지기 시작했다. 그가 마법을 부린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진정되고 있었다.

두근거리는 가슴이 진정되자 머릿속이 정리된다.

“성 안에 남은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조리 지하로 대피시키라고 해. 최대한 은밀하고 빠르게. 그리고 절대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대피하도록.”

성에 있는 여자와 어린아이라면 모두.

“실로이의 군대가 막아서더라도 우리의 민족을 지키라고. 어차피 밖에 있던 실로이의 군대는 거의 전멸한 거나 다름없어. 성 내에 남은 수는 얼마 되지 않으니 우리가 몰아세우면 충분히 제압하고도 남는다.”

영지 내의 사람들이 나오지 않고 집안에만 있다면 충분히 살아남는다. 우린 폭풍우처럼 몰아치는 겨울도 수없이 견딘 일족이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지킬 것은 이제 성 안의 내 사람들이었다.

잔정에 이끌려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매섭게 끊어내려 했지만, 실은 그녀역시 위그노드의 민족이었고 내가 지키려는 내 사람이었다.

내 말에 휘아르가 고개를 끄덕였다. 서둘러 발걸음을 돌렸다.

그의 뒷모습을 보다가 이내 탑으로 올라섰다.

“스토웰.”

탑으로 미처 채 올라가기도 전에 스토웰이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그의 흔치 않는 당황한 얼굴을 보고 사태를 읽었다.

“아이샤. 밖을 보았니? 지금 밖에 눈이. 눈이 내리고 있다. 겨울이 온 것처럼…!”

“전령을 보냈습니까?”

그의 당황한 말을 자르며 차분히 말하자 그가 조금 진정한듯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무리 네 명령이라 해도 하지 않았다. 밖에 나가면 다 죽어.”

“잘하셨습니다.”

그가 초조하게 마른 침을 삼키며 날 바라봤다. 그는 내가 빨리 무엇을 하길 바라고 있었다. 그리고 그건 나도 잘 알고 있었다.

“초조해도 이미 저 눈이 내린 이상 전령도 보낼 수 없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그동안 겨울을 숱하게 겪었으니 분명 저 이상한 사태에도 충분히 파악해 집안에만 머무를 거라고.”

저렇게 모든 걸 얼리는 눈을 헤치고 전령을 전할 수 있는 새도 없다. 우리는 지금 고립된 상태였다. 절망하고 좌절해도 그 사실은 변치 않는다.

겨울이 왔다.

그러나 우리는 이 겨울을 숱하게 겪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리고 오래 전에도. 매번 겪을 때마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겪었다. 그러니 당황해할 것도, 당황할 필요도 없다. 매번 하는 것처럼 지내면 된다.

그리고 지금이 기회다.

“쥐를 잡아야겠습니다.”

내 갑작스런 말에 스토웰이 의아한 눈으로 날 바라봤다. 검은 베일 안에 무슨 표정을 짓고 있는지 궁금해 하는 얼굴이었다. 그러나 내 말에 번복은 없었다.

“감히 얼음에 이를 댄 추잡한 쥐를.”

감히 함부로 얼음을 갉아먹을 생각을 한 쥐를 잡아야 한다. 겨울이 오면 늘 두려움에 떨었지만, 그래도 지금은 쥐를 고립되게 했다. 심지어 그의 수많은 군대마저 죽였다. 이제 성에 남은 건 몇 안 되는 수의 기사와 병사들 뿐.

매번 인간이 아닌 눈 여우와 싸워 이겨 살아남은 내 기사들이 그들을 제압하지 못할 리 없다.

“쥐 사냥을 하게 기사들뿐만이 아니라 병사들까지 모두 응접실 앞으로 모이도록 전해주세요.”

이제 시작이다.

쥐구멍이 막힌 쥐를 잡아야 하는 사냥을.

응접실에 모인 뒤부터 일은 순조로웠다.

감옥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눈뜬 채 데미온의 만행을 지켜본 아벨린 경은 그 어느 때보다 묵묵하게 행동했다. 평소 내게 노골적으로 유감있게 드러낸 그의 이죽거림이나 반발적인 행동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의 모습에 레사휘와 함께 감옥에 갇혔던 기사들조차 이렇다 할 큰 소란 없이 묵묵히 따랐다.

그렇다고 레사휘가 없어 이제 나를 주군으로 모시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아벨린 경의 모습을 보며 어째서 레사휘가 나와 그토록 극명하게 대립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달았다.

그는 절대자였다.

다스릴 지 언정 결단코 지배당하지 않을 자였다. 그건 그의 오른팔이나 다름없는 아벨린 경의 모습으로도 극명하게 드러났다. 그러니 그들에게 내가 가시 같고, 방해물 같았으며, 본래 얼음성의 주인임에도 자신의 주군을 위해 쳐내야할 얼음으로 여겼을 것이다.

그의 지시 아래 레사휘의 사람들이 어떠한 불협화음 없이 협조했다. 그리고 그 모습에 어떠한 위화감은 없었다.

그들은 기사였다.

레사휘를 지지하기 위해 나에게 반발하여 검을 쳐들었지만, 그들은 위그노드를 지키는 기사들이었다. 마땅히 위그노드를 위협하는 자들에게 검을 세우는 것에 두려움조차 서리지 않는 모습을 지녔다.

세이 경이 여자와 어린아이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자들을 모아 지하실로 조심스레 이동했다. 사실상 들킬 염려는 적었다. 성 내에 들어온 기사는 데미온 휘하의 소수 기사들이었고 나머지 군사들은 밖에서 전멸했다.

두려움과 불안을 안고 계단을 내려가는 여자와 어린아이, 그리고 시종에 의해 업혀 내려가는 아버지를 보다가 이내 빠르게 걸음을 옮겼다. 아무리 대단한 기사일지라도, 절대적인 지배자일지라도 병은 사람을 나약하게 만든다.

업힌 채 황망하게 흔들리는 가는 팔과 다리는 보는 눈을 괴롭게 했다. 어미는 떠났으나 아비는 끝없는 잠 속으로 빠져 들어 어미가 떠난 사실을 잊고 있을 지도 모른다.

차라리 그게 나을지도.

“아가씨…!”

등 뒤에서 마샤가 울음을 삼키며 날 불렀다. 고개를 돌리자, 아직은 턱없이 어린 아이들의 손을 붙잡아 내려가는 그녀가 날 보며 얼굴을 떨었다.

성에는 기사와 가신들이 함께 살기에 아이들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그 때문에 그만큼 고아인 아이들도 많았다. 오랜 시간동안 눈 여우에, 겨울에 아비를 잃고, 마음이 무너진 어미를 잃어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에 손 하나 붙잡아 줄 어른이 없는 아이들이 많았다. 마샤는 내 유모지만, 내가 성장하면서 그런 아이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었다.

“아가씨!”

마샤가 절박하게 재차 날 불렀다.

그런 어린 아이들을 인솔하는 입장이기에 애써 울지 않기 위해 무던히 노력하는 입매가 자꾸만 어긋나 있었다. 그녀는 날 보면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어미에게 버림받았을 때에도.

아비에게 버림받았을 때에도.

나 혼자 남겨졌을 때에도 그녀는 눈물을 감추지 않았다.

머릿수건으로 머리카락 한올 흘러내리지 않게 감싼 얼굴은 그간 수없이 봤던 얼굴인데도 짐짓 낯설어 걸음을 멈춰 섰다. 새하얀 낯빛과 다정한 눈빛은 여전한데, 움푹 패인 볼과 머릿수건 아래로 드러난 이마에 주름이 너무나도 깊게 패여 당황스러웠다.

마샤가 언제 저리 늙었지.

“조심하셔야 해요. 꼭. 아가씨는 제가 딸처럼 길렀지만, 그래도 제 딸은 아니니까. 그래서 같이 가자고 말도 못하지만, 그래도 아가씨. 아시죠? 저를 슬프게 하지 말아주세요.”

매번 나만 보면 울던 마샤가 오늘은 눈물을 내비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울고 있었다. 자신과 함께 지하실로 가지 못함에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금방 끝나.”

부러 그 시선을 피하며 짧게 답했다. 평생을 내 옆에서 살았으면서 그녀에게 나는 아직도 어미에게 버림받은 아기였다. 애써 마음을 추슬렀다.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이 여자와 아이들의 행렬에 나베란이 없었다.

“빠, 빨리 오세요. 아셨죠? 꼭 빨리 오셔야 해요. 나베란 아가씨랑 같이요.”

빨리 오세요.

지체한 만큼 걸음을 빠르게 내디뎠다. 그럼에도 등 뒤에서 날 바라보는 것쯤은 알겠다.

내 유모.

날 위해서라면 성의 기사들조차 벌벌 떨던 아비에게 소리치던 사람.

오로지 나만 바라보고, 나를 달래던 사람.

자신하건데 제 죽은 자식에게도 이리 나만큼 사랑하진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곁에서 날 호위하는 기네드 경조차 한마디의 말도 내뱉지 않았다.

응접실에서 짠 작전대로 일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다.

병사들을 시켜 성문을 굳게 잠그고, 형제인 레만 경과 노어 경의 지휘아래 두 조로 나눈 병사들이 1층 중앙 홀에서부터 수색을 시작했다. 데미온 휘하의 기사들은 거의 다 그의 방 쪽에 있겠지만 혹여 떨어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거였다. 수색이 끝나면 바로 급습 장소로 모이기로 했다.

그리고 아벨린 경과 린드 경이 병사들과 함께 데미온의 방을 급습할 준비를 했다.

지체하지 않고 올라가자 데미온의 방에서 멀지 않은 복도에 서 있는 린드 경의 얼굴이 보였다. 아벨린 경의 검을 맞은 지 불과 며칠 되지 않아 그의 낯빛은 여전히 창백했다. 그럼에도 고집스레 서서 기사와 병사들을 통솔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모두 명령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다.

복도 가득 아벨린 경과 병사들 그리고 휘아르도 서 있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숨소리조차 삭히며 날을 갈고 있었다. 한층 만 더 올라가면 데미온의 방이었다. 살짝 떨리는 손끝을 거머쥐었다.

이것이 옳은 선택일지,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지 끝없이 생각했다. 하지만 답은 하나였다.

얼음은 절대 더럽혀지지 않는다.

설사, 이 결정으로 인해 위그노드의 모두가 위험해진다 할지라도 살기 위해 우리의 긍지를 꺾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얼음과 겨울의 민족. 혹독한 겨울 앞에서, 잔악한 아시네헤의 눈 여우 앞에서도 기개를 꺾지 않았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으며, 우리의 명예를 깎아내릴 수 없다.

날 보는 기사들과 병사들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들의 표정에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우리는 검을 꺼내면 절대 지지 않는다.

“가자. 지금이 우리가 절대 더럽혀지지도, 밟혀 녹지 않는다는 것을 보일 때다.”

얼음이 거세게 움직이는 소리가 요란하게 났다. 마치 벼락을 내리치는 것 같았다. 이것이 우리의 기개였다. 아벨린 경과, 린드 경 그리고 기네드 경이 검을 든 채 빠르게 내달렸다. 그 뒤로 병사들이 따랐다.

“가자.”

내 손을 살짝 쥐며 휘아르 역시 검을 꺼내들어 내 앞을 열었다.

거친 발길질로 문을 부수어 박차고 들어섰다. 돌지 않고서야 설마하니 태양의 아들, 황금의 여인의 아들에게 검을 들이밀 줄 몰랐던 데미온의 기사들이 당황하며 몸을 일으켰다. 검을 빼들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어 검을 빼들기도 전에 잘린 머리가 바닥에 나뒹굴었다.

하지만 이내 빠르게 정신을 차리고 실로이의 기사들이 몸을 뒤로 피했다.

방심했다고는 하나 왕자의 호위 기사들은 전에 보내준 기사들과는 달랐다. 전에 실로이에서 보낸 기사들은 겨울을 버티지 못하고 모조리 전멸했으나 황금의 여자는 단 하나뿐인 아들을 지나치게 사랑했다. 그랬기에 고작해야 서출의 왕자를 호위하는 기사들치고 수준이 높았다.

“저하를 지켜라!”

베이고 잘리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필사적으로 방 안에 있는 데미온의 침실 문 앞을 지켜 섰다.

“감히, 이런 짓을 하다니! 반역이다! 이 곳에 계신 분이 누군지 잊었는가!”

그들의 수장으로 보이는 이가 노호성을 터뜨렸다. 그러나 그에 아랑고하지 않고 킥킥 웃는 비웃음 소리가 내 주변에서 났다.

“그러니 왔지. 그럼, 없는데도 왔겠냐?”

기사라기보단 길거리 시정잡배만큼이나 볼썽사나운 어투였지만, 너무나 그다웠다. 그래서인지 노호성을 터뜨린 기사도, 흉흉하게 검을 빼든 실로이의 기사들도 당황해 일순간 얼굴근육이 풀어질 정도였다.

“멍청하긴. 여기 다 개떼처럼 몰려있으니 온 거지. 아직도 모르겠냐? 모르면 관둬라. 어차피 다 죽을 거니까.”

그 말을 끝으로 아벨린 경이 피 묻은 검을 털듯이 흔들며 무섭게 돌진했다.

“무, 무엄하다!”

“그렇다면 그건 반역…!”

“반역? 그저 고약한 쥐를 잡는 것뿐이지.”

어느새 합세해 검을 쳐내는 린드 경이 차갑게 응수했다. 실로이 기사들의 얼굴이 비장하게 일그러졌다. 이만큼 도발했으니 그들 역시 참을 리 없다. 더군다나 주군의 침실 앞에 검을 들고 나타났으니 그들 역시 죽기 살기로 막아야 했다.

기다렸다는 듯이 양극단으로 내몰린 자들이 맞닿기 시작했다. 귀가 아플 정도로 요란하게 검이 맞붙었다. 서로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휘두르는 검이었다.

엎치락 뒤치락 맞붙으며 린드 경의 등을 노리는 검에 아벨린 경이 막아섰다.

“그렇게 일찍 죽으려면 내 검에 죽지 그랬냐? 덜 아프게.”

“그것만 아니면 이 꼴 안 본다.”

“개소리.”

욕을 하면서도 아벨린 경이 린드 경의 등을 맞댄 채로 실로이의 기사들에게 검을 겨누었다. 그 모습이 자못 익숙했다. 누구 하나 쓰러지면 그대로 등에 검이 박힐 텐데도 그들은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아비가 성의 주인이었을 적에는 그런 모습이었을 지도 모른다.

아비의 검으로서 성 밖을 지키는 아벨린 경,

아비의 눈으로서 성 안을 지키는 린드 경.

대결을 치렀을 때처럼 서로에게 검을 겨누는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의 등을 지키는 게 당연했을 것이다.

“이건 태양에 대한 위그노드의 반역이다! 감히 아스헤의 약속을 어기다니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쥐가 사람을 상대로 반역이란 말을 하다니? 가소롭군. 다들 봐. 실로이에서는 쥐가 말도 해!”

아벨린 경이 평소의 내게 하던 이죽거림이 실로이의 기사들에게 쏟아졌다. 그가 껄껄 웃는 소리에 합세하던 병사들 역시 검을 휘두르며 같이 웃었다.

“과연 태양의 나라군요.”

과묵한 기네드 경조차 실로이 기사의 팔을 베어내며 조롱했다.

“이틈에 내가 문을 뚫을 게. 따라 와.”

삽시간에 내게 달려든 기사의 가슴을 찔러 발로 밀쳐 내고는 휘아르가 내 손을 붙잡아 당겼다. 병사들과 기사들의 소리 어디에도 여자의 목소리는 들려오지 않았다. 그것이 자못 불안했지만, 드러내고 티를 낼 순 없는 노릇이었다.

“여길 먼저 정리해. 그게 먼저야.”

“안 돼. 네가 계속 여기 있는 게 더 위험하다고.”

알고 있다. 그래도 고개를 내저었다. 아무리 우리가 급습했고, 수가 많다 할지라도 병사들과 기사들 중에는 다친 자들이 많았다. 우리가 서로를 공격했던 게 불과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린드 경이 아무렇지 않게 검을 휘둘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얼굴이 땀범벅이 되가는 것을 모르지 않았다.

그것은 비단 린드 경뿐만이 아니었다. 감옥에 구금당한 아벨린 경 역시 상황은 좋지 않았다. 서둘러 끝내야 했다.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었다.

빨리 여길 정리하고 데미온을 잡아야 한다. 이들만 쳐내면 데미온은 독에 갇힌 쥐. 조용히 얼어붙게 하는 겨울의 한복판에서 그는 어디에도 도망치지 못한다.

“아이샤.”

맞부딪치는 검의 소리가 위협적으로 다가오자 그가 날 더 가까이 붙잡아 당겼다. 하지만 이미 이 방은 격전지였다. 위협적인 검날의 부딪침도, 고통스런 소리도, 뭔가가 부서지는 소리도 모두 다 이 안에서 나는 소리였다.

결코 피할 수 없었다.

하물며, 이것을 시작한 이가 나였다.

“두 번 말하지 않아. 여기가 먼저야.”

누구도 살아남아선 안 된다. 우리가 데미온에게 검의 날카로운 면을 보여준 것을 결코 어느 누구라도 봐선 안 된다.

우리는 눈.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겨울이었고, 눈 여우였으며, 아시네헤의 저주였다. 데미온을 평생 이 땅에 묶어두기 위해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태양의 것들은 모두 죽어 말을 남기게 해서는 안됐다. 오직, 단 하나.

태양의 아들만 제외하고.

그러나 살아남되, 그는 평생토록 위그노드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차라리…내가 죽일까?”

황급히 날 붙잡아 끌어안으며 내 등 뒤의 것에게 검을 날리는 게 느껴졌다. 정체를 드러내 날 지킬 수 없기에 그는 다소 초조한 얼굴이었다. 그에게 검은 아무것도 아닌, 조금은 아프게 하는 도구지만, 나에게 검은 날 죽게 할 수도 있는 위협적인 것이었다. 그렇기에 맞닿은 그의 심장이 두근거리는 게 여실히 느껴졌다.

“절대 데미온은 죽으면 안 돼. 내가 다친다 하더라도 데미온은 살아야 해.”

살아남아야 거래가 된다. 이미 죽은 시체는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지만, 그 자체만으로 반역의 증거로 남는다. 황금의 여자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거래가 성사될 때까지는 그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여야 한다.

그가 절망스런 한숨을 내쉬며 끌어안은 팔을 풀고 다시금 안전한 곳으로 날 잡아당겼다. 그러면서도 꾸준히 내게 다가오는 기사들에게 검을 찔러 넣었다.

“못살아. 난 아가씨가 다칠까봐 미치겠다고. 근데 어떻게 보면 아가씨도 참 대단해. 무섭지도 않아? 이런 건 처음일 거잖아.”

휘아르가 내 눈치를 보며 슬며시 말했다.

분수처럼 튄 피가 창과 어두운 벽에 튀고, 심지어 잘린 팔이 바닥에 떨어져 발에 밟혀 으깨진다. 잘린 머리는 발로 박차 박살나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생살을 후벼 판다.

괴물.

오로지 사람의 살과 피만을 취하는 눈 여우처럼 기다란 송곳니와 찢어진 입으로 찢고 잘라 고깃덩이로 만든 사람을 우겨넣지만 않을 뿐 그와 다를 바 없었다.

“앞을 봐.”

그러나 또한 안다.

여기서 두렵다 멈춰 섰다간 또다시 감옥에서의 일만 반복될 뿐이라는 걸. 나에게 얼마 남지 않은 혈육이, 이제 곧 커다랗게 자랄 어린 기사가 그리 쉽게 목숨을 잃지 않았을 것이다.

“나도 앞을 보고 있으니까.”

무섭지 않을 리 없다. 우린 괴물을 상대했지, 사람을 상대하지 않았다. 이처럼 사람을 도륙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눈 돌려 피하지 않았다.

기사들은 이번에 날 말리지 않았다. 실로이의 왕자를 잡는 다는 말에도, 나베란을 구하겠다는 말에도, 나도 따르겠다는 말에도 반대하지 않았다.

그들은 고개를 숙였다.

내 명령에 따르기로 검을 내리고 맹세했다.

이것이 내 고집이고, 위그노드를 전멸하게 할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따르기로 맹세했다. 심지어 아벨린경조차 날 비난하지 않았다.

그러니 나도 지켜야 할 것을 지켜야 했다.

절대 스스로를 위험하게 하지 말 것을 린드 경은 지켜 달라 청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절대 그들보다 먼저 움직이지 말 것을 아벨린 경은 청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둘은 데미온을 습격하고 나면 절대 휘아르가 내 옆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청했다.

기사들은 멍청한 자들이 아니었다.

“여자! 여자를 먼저 죽여!”

“감히, 어딜. 쥐새끼가!”

위그노드의 기사와 병사들이 데미온을 붙잡기 위한 발판으로 이 안에 있는 모든 기사들을 죽이려 하듯 실로이의 기사들 역시 나를 죽여 이 상황을 끝내기 위해 검을 휘둘렀다.

“손 끝 하나 델 생각하지 마. 더러우니까.”

차마 막지 못한 기사 둘이 나와 휘아르에게 다가섰다. 그는 나를 뒤로 밀어내며 검을 겨눴다. 내가 무모한 부탁을 했다는 걸 안다. 내가 옆에 있다면 휘아르는 날 신경써가며 움직여야 하니까.

그러나 내가 여기에 있지 않는다면 날 호위하기 위해 기사가 차출되어야 한다. 그럴 순 없다. 우리는 지금 한 시의 시간도 아깝고, 한 사람의 손도 부족하다.

“아이샤, 조심해.”

그러는 정작 그가 힐긋 겁도 없이 뒤에 선 내게 시선을 주며 말했다. 그 틈에 상대가 검을 내찔렀지만 그는 가볍게 검을 들어 쳐냈다. 레사휘와 대결할 때도 그랬지만, 휘아르는 제법 신기하게 검을 썼다.

검이 아닌 몽둥이.

우락부락한 근육을 가진 것도 아니면서 그가 검을 휘두르자 무섭게 바람 소리가 났다. 한 손으로 검을 들어 막자 그대로 발을 들어 상대를 걷어찼다. 옆에서 다른 기사가 검을 내리치자 피하지도 않고 그 자세 그대로 심장에 검을 찔러 넣고 빼냈다.

다치는 것에, 통증에 두려워하지 않기에 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그리고 처음 걷어차인 기사의 가슴에 검을 내려박았다.

검을 박자 솟구친 핏줄기에 얼굴이며, 몸이 온통 피범벅이었다. 이 장소에서 다치지 않고, 피가 튀지 않은 사람은 오로지 나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날 보기 전에 소매로 쓱쓱 닦아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그럴 필요,”

없다고 말하려는 찰나 날 보던 휘아르의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다급하게 다가왔다. 일어선 채로 심장을 찔렀다고 여겼는데 빗겨 맞았던지 기사가 고통으로 얼굴을 구기며 내게 검을 휘둘렀다.

“아이샤!”

무섭도록 분노한 얼굴로 휘아르가 다가와 어깨를 감싸 쥐었다. 그리고 그대로 휘두르는 검을 막아서고 그의 목을 베어냈다.

두 눈이 부릅뜬 채로 방금까지 날 노려보던 기사의 머리가 바닥에 나뒹굴었다. 머리가 없는 몸은 분수처럼 피를 토해내며 그대로 바닥으로 엎어지기 시작했다. 선명한 붉은 단면과 뭉개진 뼈.

베인 목에서 토해진 피가 베일을 적실 정도로 튀었다.

애써 입술을 깨물었다.

“괜찮아?”

날 끌어안으며 휘아르가 달래듯 물었다. 그를 밀어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이 안으로 발을 들이밀기 전부터 이런 죽음을 볼 거라는 걸 알았다. 그랬기에 아무렇지 않은 척 떠는 손을 감췄다.

이들은 사람이다.

눈 여우에게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검을 들던 자들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먼저 약해질 순 없는 노릇이었다.

나는 이들의 주인이었고, 이 명령을 한 주군이었다.

“난 괜찮아.”

시선을 문 쪽으로 던지며 말했다. 이만한 소란이 임에도 불구하고 데미온은 요지부동이었다. 심지어 소리조차 새어나오지 않았다.

그는 대체 무슨 생각인 걸까.

겁에 질린 걸까?

시간이 지체되자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베일 너머 내 표정을 보기라도 한 것처럼 휘아르는 그 뒤부터 거침없이 검을 휘둘렀다. 한 손으로는 절대 내 손을 놓지 않은 채 마치 눈 여우라도 된 것처럼 움직였다. 그는 검에 맞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내게 다가오기만 하면 더 잔악하게 검을 휘둘렀다. 어느새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를 뒤집어썼다. 그러나 내 앞을 막은 덕에 나는 처음에 베일에 튄 피와 발에 묻은 피 외에는 깨끗했다.

이 중에서.

“윽…!”

린드 경이 비틀거리며 팔을 베여 검을 떨어뜨리자 아벨린 경이 잽싸게 그를 부축하며 검을 내찔렀다. 아벨린 경의 흔들리는 검에 맞아 절명할 만큼 실로이의 기사들도 거의 다 죽고 지쳐 있었다. 우리 쪽도 무사한 건 아니었다. 린드 경도, 아벨린 경도, 그리고 기네드 경도 모두 피투성이였다. 실은 그 피가 죽은 자의 것만은 아닐 것이다.

마지막 기사의 목을 벤 휘아르가 제법 멀쩡한 모습으로 허공에 검을 흔들어 피를 털어냈다.

“열어.”

내 명령에 바닥에 주저앉은 기사들과 병사들이 숨을 크게 내쉬며 몸을 일으켰다. 드디어 여기까지 왔다.

드디어.

그러니 나는 이 앞이 어떻게 되어 있을 지라도 눈 돌리지 않기로 다짐했다.

문을 열자 기다렸다는 것처럼 데미온이 의자에 앉은 채 우리를 바라봤다.

“이야, 대단한데? 그래도 나름 어마마마가 뽑은 자들이었는데. 박수칠게. 대단해. 과연 위그노드의 얼음 기사들이로군.”

과장스럽고도 극적이게 유랑극단의 희곡이라도 본 양 몸을 일으켜 박수를 쳤다. 피투성이의 기사들이 그를 차게 노려봤다. 우리가 죽인 건 유랑극단의 배우들이 아니었다.

뜻은 다르지만, 목숨을 걸고 검을 부딪친 기사들,

그런 실로이의 기사들이 그를 지키기 위해 도륙당해 죽었음에도 그에게 그건 연극인 것 같았다.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말하는 그의 표정은 나른하기 그지없었다. 노곤하게 풀린 눈매와 풀어진 셔츠, 엉망으로 더럽혀진 침대.

그리고 바닥에 찢겨진 옷처럼 널부러진 나베란을 목도한 순간 입술을 짓깨물었다. 벌거벗은 나베란의 새하얀 몸은 낙인처럼 잔인한 손속이 여지없이 드러나 있었다. 그녀는 거리의 여자가 아니었다.

황금의 여자처럼 천한 창녀가 아니었다.

고귀한 겨울 성의 혈족.

눈과 얼음의 땅을 지키는 일족.

레사휘가 지키고자 했던 마지막 보루.

저리 강팍한 손길과 무도한 행위에 더러워질 이가 아니었다. 그러나 나베란은 지금 저렇게 꺾인 채 있었다. 아무리 위그노드의 남자들이 여자를 무시한다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여자는 아내였고, 어머니였으며, 딸이었다.

저리 가축처럼 벌거벗은 모습을 남에게 보이지 않는다.

“감히…!”

겨우 검을 붙잡고 서 있는 린드 경이 고개를 돌리며 씹어 삼키듯 말을 내뱉었다. 아벨린 경의 피 묻은 검 역시 흔들리고 있었다. 침착한 기네드 경마저 일그러진 얼굴을 차마 감추지 못하고 바닥을 노려봤다.

병사들조차도 모두가 그러했다.

“…”

새하얗게 질릴 정도로 주먹을 말아 쥐었다. 단 한 번의 선택이었다. 저리 쓰러질 여자가 나였을 수도 있었다. 우리는 같은 장소에 있었고, 단 하나의 말이 지금 우리를 다르게 했다. 더군다나 나베란에게 이제 레사휘는 없었다.

저리 무도한 손아귀에서 구해줄 오라비가 이제 더는 없었다.

뭐라 말을 해야 하는데 목이 먹먹하게 막혔다. 애써 턱에 힘주어 고개를 뻣뻣하게 들었지만 하염없이 무너지는 시선을 막을 수가 없었다. 구해야 하는데. 저기 저렇게 가엾이 쓰러진 이는 어느새 내 어미로 보였다.

사랑하지 않은 남자에게 유린당한 여자.

지금 저 여자는 나베란이자 내 어미였다.

“저렇게 둘 수 없어. 내가 할게, 아이샤.”

내 손을 쥐던 휘아르가 내 떨림을 눈치 채고 먼저 말을 걸었다. 그 말에 먹먹한 가슴에 숨을 한 번 들이키며 눈앞을 바라봤다.

현실이 무겁게 와닿았다.

나는 말을 할 수 있을 때부터 어미에게 소리 질렀다. 나를 좀 바라봐달라고. 나를 안아달라고, 나를 사랑해달라고. 나를 한 번이라도 좋으니,

내 이름 한 번만 불러달라고.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 안쓰러워서 한 번은 봐주겠지.

손 뻗어 닿는 데에 있으면 어쩌다 실수로라도 한 번은 잡아주겠지.

끊임없이 부르고 부르면 언젠가 질려서라도 한 번은,

내 이름 불러주겠지.

나는 그래도 어미의 딸이니까.

뻣뻣하게 굳은 목을 돌렸다. 찢어져 피비린내가 나는 입술을 핥으며 어쩐지 조소 비슷한 게 나올 것 같았다. 나는 웃을 수 없는데 왠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만큼 그건 오산이고 오만이고 기만이다. 내가 어미라면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다. 부모의 죄를 아이에게 끌고 가는 것만큼 처연한 것은 없으나 내가 어미라 할지라도 애정 한 줌 나눠주지 않을 것이다.

낳아도 그건 내 자식이 아닐 테니.

손을 들어 가리켰다.

“…지금 당장. 저 괴물을 잡아.”

그건 자궁을 게걸스럽게 탐한 괴물의 자식이다.

내 말은 짧았고, 크지 않았다. 그럼에도 모두가 알아들었다. 기다렸다는 듯 모두가 검을 빼들어 데미온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너무나도 쉽게 제압되었다. 쓸데없는 몸부림도, 반항조차 없었다. 싱거울 정도로 쉬워 오히려 그를 지키고자 했던 기사들의 죽음이 재차 떠오를 뿐이었다.

태양의 자손이 성난 기사들의 손에 의해 의자에서 끌어내려 바닥이 부서져라 무릎을 꿇렸다. 끔찍한 붉은 눈이 게걸스레 탐하지 못하게 머리채를 단단히 내리눌렀다.

그를 노려보며 걸음을 옮겼다.

“큭…!”

그러나 타는 불길처럼 붉은 머리채에서 나는 숨죽인 웃음소리에 걸음을 멈췄다. 모두가 알면서도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 지 정확히 말할 수 없었다.

“크크큭, 아 정말. 미치겠어…키킥!”

“입 닥쳐!”

거센 발길질로 머리를 후려쳐도 그의 웃음소리는 가시지 않았다. 모두가 괴상한 것을 보는 눈으로 그의 붉은 머리카락을 바라봤다.

“어쩜 이렇게 웃긴지…!”

거센 발길질에 고꾸라진 채 검붉은 피를 뱉어내며 그가 황홀하게 말했다. 마치 약이라도 한 것 같았다. 제정신이 아니었다. 단숨에 다가가 머리채를 잡아 올렸다. 손안에 잡힌 머리카락이 으슥하고 습한 곳에서 자라는 벌레를 손에 쥔 것만 같았다.

끔찍한 시선이 맞닿았다.

”앞으로 평생 눈과 얼음에 뒤덮여 살아야 할 텐데도 웃음이 나오는가 보군.”

“여전히 독해서. 여기 얼음의 여자들은 왜 이리 독한지. 고분고분했다면 나도 이리 아프게 하진 않았을 거 아냐.”

흉측하고 잔털이 난, 다리가 여러 개가 달린 징그러운 벌레의 시선이 서슴없이 휘아르에게 향했다. 아니, 그가 아니었다. 벌레는 그가 품에 안아들은 나베란을 보고 있었다.

나베란을 가만히 놔둘 수 없었던 휘아르가 이불로 그녀의 몸을 감싸 안고 있었다. 이불에 감싸인 그녀의 몸은 아주 작고, 또 작았다. 휘아르에게 안긴 그녀는 눈을 뜨지 못했다. 잔인한 폭행에 정신을 잃고 있었다.

“그래도 뭐, 뻣뻣한 게 나름 즐거웠지만.”

아벨린 경이 노성을 내지르며 거칠게 데미온의 머리를 바닥에 부수듯이 내리찧었다.

“추잡한 그 입 다물어!”

그러나 바닥에 짓눌린 그의 얼굴에선 미친 것 같은 웃음이 멈추지 않았다. 미친 건지, 아직 상황파악을 하지 못한 건지 그는 겁에 질려 있지 않았다.

그가 내뱉는 저 웃음이 악마의 숨결처럼 끔찍했다.

“아무리 네가 황금의 여자를 어미로 두었다 할지라도 위그노드의 얼음과 눈의 분노엔 미치지 못해. 너는 평생 이 땅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제야 웃음소리가 멎었다. 그가 비적비적 몸을 움직여 날 올려봤다.

“과연. 그게 가능할까?”

“가능해.”

눈이 내리는 창가에 가만히 시선을 던졌다.

“이 눈이 그치면 널 인질로 실로이의 1왕자와 거래할 거다. 그에게도 나쁘지 않은 거래겠지. 골치 아픈 배다른 동생이 없다면 왕위는 쉽게 손에 들어오니까. 황금의 여자가 아무리 기세등등하다 할지라도 차기 왕의 입김보단 약할 테니까. 우린 우리대로 널 구금하는 죗값은 치르지 않을 테니 좋은 거래를 하는 거지.”

내 말에 그의 얼굴이 자못 일그러졌다.

쾅—!!

그것을 여유롭게 바라보기도 전에 귓가를 찢듯이 울리는 요란한 소리와 지축을 뒤흔드는 어딘가 거센 흔들림에 몸이 무너졌다. 가만히 서 있던 기사들과 병사들이 예상 못한 울림에 당황한 얼굴로 몸을 세우며 주변을 살폈다. 몇 몇은 보란 듯이 나뒹굴 정도로 거셌다. 아무리 당황했다 할지라도 성인 남자였다. 그런 그들이 나뒹굴 만큼 강한 흔들림이었다.

성이 흔들릴 정도로.

곁에 있던 기네드 경이 다급하게 날 붙잡아 주지 않았더라면 나 역시 꼼짝없이 넘어졌을 것이다.

“이게 무슨…!”

살면서 이런 흔들림은 처음이었다. 아니, 위그노드에 지진은 없다. 이 땅에 오랫동안 살아온 노련한 기사들마저 당황함을 감추지 못했다.

"갑자기 무슨 일이지?”

“지진인가?”

“위그노드에 지진이라니. 말도 안 돼!”

“아니면 침입인가?”

“장난하는 거야? 지금 이 눈을 뚫고?!”

진중한 기사들과 병사들이 평정을 잃고 어린 소년들처럼 떠들었다. 그 틈에 휘아르가 다가와 팔을 붙잡았다.

“아이샤, 괜찮아? 어디 다친 덴 없어?”

나베란을 품에 안은 채 당황하는 기사들 틈으로 휘아르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 웅성거리던 기사들과 병사들이 소리를 낮췄다. 보다 못한 아벨린 경이 머쓱한 헛기침을 내뱉었다. 아무리 겨울성의 혈족이라 하나 혈통도 불분명하다고 여기는 휘아르보다 당황했다는 것에 애써 아무렇지 않으려 했지만, 이미 그의 얼굴은 붉어져 있었다.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휘아르를 보며 고개를 살짝 저었다.

“당장 내려가서 확인해.”

흐트러진 베일을 정리하며 병사를 가리켜 명령했다. 이 정도의 충격이라면 성이 어딘가 무너졌다 해도 믿을 정도였다. 그렇다면 지하로 대피한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걱정되었다.

“그래, 확인해야지. 무너졌으면 어쩌려고?”

비아냥 가득한 목소리에 날이 선 눈으로 노려봤다.

“얼려서 보관되고 싶지 않다면 그 입 다물어.”

“정말 그렇게 될까?”

“헛소리 하지 마라!”

아벨린 경이 너절한 헛소리를 내뱉는 입을 막기 위해 피 묻은 검 날을 들어 목에 갖다 댔다. 미친 것처럼 구는 실로이의 왕자라 하나 죽음 앞에선 그도 한낱 사람이었다.

“고작 이까짓 걸로 날 제압할 생각인가?”

“죽기 싫으면 입 다물어.”

냉랭하게 말하는 아벨린 경의 말에도 그가 껄껄 웃었다. 그의 시선이 나에게 향했다가 창가로 향했다. 순간,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기묘한 일은 너무나 순식간에 찾아온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아까도 그러했다, 레사휘가 그리 쉽게 죽었을 때에도.

“아까 봤잖아? 난 안 죽어. 하지만 너흰 모두 다 죽겠지. 내 병사들한테.”

쾅—!!

아까보다 더 거센 흔들림에 벽에 서있던 가구들이 바닥으로 쓰러지고 책과 물건이 떨어져 내렸다. 기사와 병사들조차 거인이 발을 들어 내리치는 충격에 아까처럼 노련하게 제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 머리와 몸 위로 떨어지는 책과 조각상, 액자 등의 날카로운 부분에 머리가 찢겨 피를 흘리거나 등과 어깨를 얻어맞았다.

모두가 제자리에 그대로 서 있을 수 없었다.

심지어, 휘아르조차.

모두가 바닥에 아비규환으로 엎드렸는데 오로지 단 한사람만이 유유자적 일어서 있었다. 데미온이었다.

그가 뚜벅뚜벅 걸어 내 앞에 섰다. 그가 걷는 소리가 밖에서 나는 소리와 한데 겹쳤다. 밖에서 낯익은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그것은 자칫 잘못 들으면 바람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고, 만년설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했다.

하지만 절대로 한 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소리였다.

이 안에 있는, 휘아르와 데미온을 제하고 위그노드에서 살아온 모두가.

“들려?”

그가 친절을 가장해 내게 손을 뻗었다. 내밀어진 손을 매섭게 후려치고 일어섰다. 몸을 일으키자 성이 흔들리면서 밀려난 탓에 어느새 창문과 가까웠다. 그 덕분에 성의 정원이 훤하게 눈에 들어왔다.

더 이상 성이 흔들리진 않았으나 발에 힘이 풀려 또 다시 넘어질 것만 같았다. 그가 웃음소리를 감추지 않으며 내 팔을 붙잡았다. 바닥이 무너지는 것 같아 그가 날 붙잡은 것을 신경 쓸 수가 없었다.

이 안의 모두가 일어서서 창을 바라봤다. 더는 누구도 데미온을 막지 못했다. 눈이 내리는 성의 정원을 아연한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또다시 성의 정원에서 소리가 울렸다.

“자, 들어봐.”

그가 내 귓가에 잔망스럽게 속삭였다. 단호하게 그를 밀어낼 수가 없었다. 정원 아래에서부터 날 향해 시선이 마주쳐 있기 때문이었다.

새빨간 붉은 눈이.

정원에서 나는 저 소리는 우리가 단 한 번도 잊지 못한, 눈 여우의 울음소리였다. 꽃처럼 내리는 눈에 새하얀 얼음으로 변한 실로이의 병사들이 어느새 붉게 변한 눈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아니, 먹이 사슬의 위로서 이제 곧 잡아먹을 것들이 들어있는 이 ‘성‘을 보고 있었다.

“이제 너희가 가축으로서 죽을 시간이야.”

새하얗게 얼어버린 병사들의 몸이 기괴하게 부풀어 커지며 옷이 마구잡이로 찢겨졌다. 그리고 그 틈으로 보이는 몸은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마치 짐승처럼 새하얀 눈과 같은 털로 뒤덮였다. 얼어 다물렸던 입은 귀까지 찢어지고, 입 밖으로 뾰족한 송곳니와 붉은 혀가 드러났다. 머리뼈는 여기까지 울릴 정도로 빠각빠각 소리를 내더니 어느새 머리 위로 두 귀가 드러났다.

손, 발톱이 길게 자라나 바닥을 긁었다.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다. 한 순간에 사람이 눈 여우로 변했다.

그리고 변한 그들은 본능처럼 차례대로 성의 문을 향해 달려들기 시작했다. 그러자 또다시 아까처럼 성이 뒤흔들렸다. 그것을 보고 넘어진 병사들이 참지 못하고 겁에 질린 소리를 내질렀다.

이 안에서 데미온만이 유일하게 배를 붙잡고 미친 듯이 웃었다.

눈앞의 참상에 눈을 의심했다. 지금 이 순간, 눈조차 감을 수 없었다. 가슴은 답답하고 머리는 혼란스러웠다. 하물며 얼음으로 변한 여자조차 이럴 진데 이 참상을 목도한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었다. 병사들은 우왕좌왕하며 소리 지르고, 데미온은 뭐가 그리 즐거운지 미친 것처럼 끊임없이 웃어댔다.

내 옆에 선 휘아르조차 창백한 얼음처럼 굳어 말을 잃었다. 그의 시선이 못 박힌 것처럼 정원에 향했다.

“눈 여우라니…! 우리에게 정말 길은 없는 건가?”

기네드 경이 탄식하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날카롭게 일침을 던질 아벨린 경조차 넋을 놓은 채 서 있을 뿐이었다. 린드 경 역시 고개를 떨군채 떨었다. 이제껏 저렇게 많은 눈 여우는 본 적이 없었다. 거기다 사람이 눈 여우로 변했다. 얼마나 더 많은 눈 여우가 밖에 있을 지 상상이 되지 않았다.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심지어 나조차도.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차게 떨리는 목소리가 믿을 수 없이 내 입에서 새어나왔다. 눈 여우는 아시네헤의 저주로 만들어진 괴물이었다. 오로지 아시네헤의 딸을 유린한 이 위그노드의 민족을 죽이고자 만들어진 저주의 산물.

오로지 사람만 먹고 사람만 죽인다.

그런 눈 여우로 사람이 변하는 건 본 적이 없었다. 만일, 정말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 우리가 그동안 몰랐을 리 없다. 우린 그만큼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이었다. 그런데 왜 하필 실로이의 병사들이, 그것도 아시네헤의 장벽 너머 불어온 눈에 얼어 죽은 실로이의 병사들이 눈 여우로 변한 걸까.

거기다 지금은 겨울.

눈 여우라 할지라도 겨울엔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불어오는 눈을 맞으며 움직이는 것은 명백한 눈 여우였다. 눈앞의 이 모든 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었다. 그리고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건—

이를 악물고 고개를 돌려 데미온을 바라봤다.

“너는…!”

휘아르의 검을 빼어 들어 단숨에 데미온의 어깨를 내리 찔렀다. 그제야 소름끼칠 만큼 방안을 울리던 웃음이 멎었다. 그의 어깨에서부터 흐르는 피가 검을 타고 바닥에 뚝뚝 떨어졌다. 그러나 이제 와 손 안에 들어찬 선명한 감각과 피비린내에 흔들릴 틈조차 없었다.

“윽…! 이게 갑자기 무슨 짓이지?”

데미온의 말을 무시하며 망설임 없이 검을 뒤로 뺐다. 베일을 젖을 정도로 뿜어질 거라 여긴 피는 없었다. 그러니 피비린내 역시 오래가지 않았다. 검을 바닥으로 내던지며 데미온을 차게 바라봤다.

통증에 고통스레 미간을 찌푸리던 그가 표정을 풀었다.

“너는 누구지? 검에 찔리고도 이렇게 금방 낫는 사람은 없어! 더군다나 여긴 위그노드지. 아스헤의 힘은 통하지 않아. 너는 아스헤의 자손이 아니, 사람이 맞긴 한 건가?”

내가 낸 상처는 어느새 이미 완전히 나아 피가 멎어 있었다.

감옥에서 레사휘는 실수하지 않았다. 그는 철저한 자인지라 절대 후회할 것을 만들지 않는다. 그러니 데미온을 죽이기 위해 휘두른 검에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을 거고 내가 본 자상은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미온은 죽지 않았다.

심지어 상처가 흔적도 없이 나았다. 아무리 그가 아스헤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태양의 힘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여기는 위그노드였다. 아시네헤가 증오하는 아스헤의 힘은 위그노드에서 통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그의 상처는 흔적도 없이 나았다.

지금 또한.

마치 검에 찔리고 베여도 금방 낫는 아시네헤의 일족처럼. 목을 베지 않으면 죽지 않는 눈 여우처럼.

그의 붉은 눈이 태양을 닮은 듯 넘실거리며 날 바라봤다.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군. 그럼 지금 네 눈앞에 있는 내가 저 아래에 있는 마수라는 건가? 나는 아스헤의 자손. 태양의 일족이다.”

“허튼 소리. 사람은 그리 쉽게 낫지 않아. 아무리 태양의 일족이라 할지라도!”

단언했다. 그러나 그 단언에 데미온의 눈빛이 마치 우매한 것을 바라보듯 변했다. 그가 손을 뻗어 내 손목을 붙잡았다. 그리고 단숨에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깝게 끌어당겼다.

마주친 눈동자가 극명하게 대립했다.

절대 섞일 수 없는 빛. 붉은 빛은 이 위그노드에 흔치 않은 색이었다. 하물며 얼음성의 푸른 눈동자와 정반대의 색이었다.

“나는 사람이야. 모든 사람이 그러하듯 욕망하고, 끝없이 욕심내며 탐하지.”

그는 마치 비밀이라도 말하는 것처럼 속삭였다. 그러나 혐오만 깊어질 뿐이었다. 이를 악물며 그를 노려봤다.

“이거 놔.”

붙잡은 팔을 더 세게 쥐며 더더욱 날 끌어당겼다. 조금만 더 다가가면 코끝이 맞닿을 것 같았다. 벗어나려 했으나 그는 쉽사리 날 놔주지 않았다.

“다만, 네가 예상하지 못한 건 오래된 증오라 할지라도 눈앞의 증오에 덮어지는 법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만큼 증오의 깊이는 배가 돼. 아무리 여신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인간적이란 소리지. 덕분에 중간에 내가 큰 이득을 얻었지만. 아, 이런. 이래도 모르겠어? 내가 너무 어려운 말을 하는 건가?”

어느새 열기를 띈 숨결이 광기를 덧대고 있었다.

“왜, 갑자기 내 병사들만 괴물로 변했을까?”

전멸했다 해도 좋을 만큼 눈에 의해 얼어 죽은 실로이의 병사들. 검에 찔리고 베여도 죽지 않는 데미온. 갑작스럽게 눈 여우로 변한 병사들.

다시 눈을 돌려 창문을 바라봤다.

성 밖에는 실로이의 병사들만 있는 게 아니다. 아무리 내가 모이라고 전했으나 성으로 들어오는 실로이의 병사들을 감시하기 위해 남아있던 병사들도 있었다. 그리고 갑작스런 병사들의 이동은 그들의 의심을 사기에 조금씩 이동했던 탓도 있었다.

그 때문에 눈에 의해 얼어 죽은 것은 비단 실로이의 병사들뿐만이 아니었다. 위그노드의 병사도 소수지만 포함되었다. 하지만 지금 창 아래에서 부서지는 것은 위그노드 병사들의 시체였다. 반으로 쪼개진 시체는 분명 우리의 갑옷이었고, 우리의 문장이었다.

눈을 크게 치떴다.

“함부로 만지지 마. 네가 그리 쉽게 만질 사람이 아냐.”

억세게 조이던 팔을 쉽게 떼어내며 그대로 뒤로 끌어 안겼다. 그는 마치 날 데미온에게서 가리듯 등 뒤에서 안았다. 가슴 속에 깃든 얼음조각이 흔들어 깨질 만큼 놀라 미처 말릴 틈이 없었다.

왜.

왜?

왜!

“너, 이제 보니 섞였어. 끔찍해. 탐욕의 대가를 우습게 여기지 마.”

휘아르가 데미온을 보며 경멸조로 말했다. 고개를 퍼뜩 들어 데미온을 바라봤다. 그가 비릿하게 웃었다.

“뿌리 깊은 앙금은 어쩌지 못하니까.”

눈 여우로 변한 실로이의 병사들.

죽지 않는 데미온.

아시네헤의 눈.

절대 어울리지 않을 이 세 가지 한데 뒤엉키기 시작하자 말도 되지 않을 결론을 만들기 시작했다. 절대 그럴 수 없다고. 그러나 지금 이 곳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

콰앙—!!

입을 열어 그 말도 안 된 결론을 내뱉으려는 찰나, 또다시 성이 흔들렸다. 충격은 아까보다 덜하나 그래도 결코 만만치 않은 것이었다. 삽시간에 혼란스럽던 머리가 또렷해졌다. 황급히 시선을 내려 창 아래를 보자 눈 여우들이 떼거지로 성벽과 성문에 달라붙어 있었다.

우리를 죽이기 위해.

저 요란한 광음과 기괴한 소음들은 눈 여우가 성문을 부수듯이 몸으로 내리치면서 내는 소리였다. 성문은 과거 눈 여우에 의해 뜯겨 나간 적이 있어 두 번 다시 그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화한 것이었다. 그러자 저 영악하고 잔인한 마수가 손발톱으로 뜯지 못하자 몸으로 부딪치고 있었다.

“정신 차려!”

몸을 움직이며 발을 굴렀다. 지금 이렇게 멍청하게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었다.

“당장! 지금 당장 모든 창과 문을 닫고 내려가서 성문을 막으라고 전해!”

거세게 소리를 내질렀다. 그러나 내 뜻과는 다르게 이미 전의를 상실한 이들은 일어서지 않았다. 절망이 깃든 얼굴은 이미 죽음을 보고 있었다. 이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살아도 산 자들이 아니었다. 기절한 자들, 누군가를 향해 기도하는 자들, 체념한 자들로 넘쳐났다.

“그래봤자 결국 다 죽을 거…!”

차마 말을 내뱉지 못하겠는지 기네드 경이 말끝을 흐렸다.

“아시네헤에 의해 우린 죽을 겁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지금 밖을 못 보셨습니까? 저렇게 많은 수를…!”

참지 못하고 당장 린드 경 앞으로 달려가 그의 뺨을 거세게 내리쳤다. 손바닥이 얼얼하리만치 붉어졌다. 그래도 린드 경은 제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가관이구나, 기사란 것들이.”

병사와 기사들을 노려보며 차게 말했다.

“한낱 마수 따위에게 위그노드의 아이들을 죽게 만들 셈인가? 고작 그따위 나약한 정신으로 검을 들었나? 우린 겨울 앞에서도 살아남았어. 그 어떠한 것도 우릴 죽이지 못해! 일어서! 일어서라!”

여기서 물러서려고 그리 살지 않았다. 그토록 아등바등 버티면서 필사적으로 살아남았다. 고작 저 마수 따위에게 죽고자 살아남은 게 아니었다.

“이제 그만 솔직해 지라고. 말해봐. 너도 무섭잖아? 도망치라고.”

기사들에게 언성을 높이는 내 등 뒤에서 데미온이 비아냥거렸다. 홱 하고 고개를 돌렸다. 분노하면 할수록 가슴이 차게 식었다.

“너야말로 이대로 있다간 죽을 텐데? 설마하니 눈 여우한테 찢겨 죽어도 죽지 않는다고 할 셈인가?”

내 말에 그가 나른하게 팔짱을 끼며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잊고 있나 본데, 저것들은 모두 다 내 부하들이다. 실로이의 병사들이라고. 못 믿겠어?”

찰나였다.

데미온의 말이 끝나자마자 요란하게 창문이 깨지더니 저 아래에서부터 벽을 타고 올라온 눈 여우가 거침없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자 기겁하며 병사들이 뒤로 물러서며 비명을 질러댔다.

단 한 번도 잊을 수 없는 모습이었다. 눈앞에서 사람에서 괴물로 변하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없는 몰골이었다. 저것 어디에도 사람의 흔적은 없었다.

“아이샤!”

삽시간에 내 앞으로 다가온 눈 여우에 휘아르가 다급히 날 불렀다. 그러나 피할 틈이 없었다. 어느새 그것이 날카로운 발톱이 내게 뻗어졌다.

“안 돼!”

“멈춰.”

눈을 질끈 감기도 전에 휘아르의 비명에 상반된 단조로운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목소리의 주인은 데미온이었다. 그리고 그의 말대로 눈 여우는 그대로 멈춰선 채 움직이지 않았다. 내 안에서 의심하던 가설이 정설로 변하고 있었다.

“봐, 이래도 안 믿을 건가?”

그가 장난스레 눈 여우를 가리키며 가는 입 꼬리를 치켜들었다. 말아 쥔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가 왜 웃는지 알겠다.

그에게 이건 모두 다 희극이었다. 자신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인형극.

“살려줄까?”

그를 노려봤다.

“그 여자를 내놔. 꽤 마음에 들었거든. 그럼 다른 사람들 목숨은 살려줄 테니까.”

세상을 구원할 구세사라도 된 양 그가 자애롭게 말했다. 하지만 실은 오물덩어리였다. 그가 말할 때마다 오물이 튀어 몸을 더럽혔다. 치솟는 분노에 떨리는 몸을 멈출 수가 없었다.

“수작질은 집어 쳐.”

가는 핏줄기가 말아 쥔 주먹 사이로 흘러 떨어졌다.

“그럼 다 죽던가. 대단한 주군이야. 고작 여자 하나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버리다니. 이래도 피는 묽다고 할 수 있겠어?”

그의 손짓에 멈춰 선 눈 여우가 몸을 돌려 병사들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자 요란한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다. 토벌대를 파견할 정도니 병사들이라 할지라도 눈 여우를 잡지 못하는 건 아니다. 손을 모으면 죽일 수 있다. 하지만 전의를 상실한 이들은 허리춤에 찬 검을 들 생각도 하지 못했다.

그저 벌벌 떨 뿐이었다.

“그만. 그만해!”

“자, 그럼 내놓을래?”

나베란을 물건처럼 대하는 남자와 그의 손안에 든 목숨. 어느 것 하나 무겁지 않은 게 없었다. 어느 것 하나 내놓을 게 없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세요, 아이샤 님!”

“살려…살려 주십시오!!”

병사들의 다급한 목소리에도 시선을 돌릴 수가 없었다. 어느 쪽으로도 고개를 돌리 수 없어 데미온의 얼굴만을 노려봤다. 무엇 하나 무겁지 않은 게 없었다. 그는 관대한 척 날 바라봤으나 치밀어오는 토기에 입술을 짓깨물었다.

이 안에 눈 여우만이 마수가 아니었다. 지금 여기, 사람 같지 않은 자의 악취에 코가 떨어져 나갈 것 같았다.

“어서.”

그러나 그가 오물이든, 괴물이든 철저하게 그에게 조종당해야 했다. 그가 이 성에 발을 디뎠을 때부터 우린 이미 그가 쥔 인형극의 인형이었다.

나는.

토기를 가라앉고자 마른 침을 삼키자 입 안이 쓰디썼다. 그 어떠한 때보다 맵고 썼다. 하지만 그럼에도 눈물은 한 방울도 흘러나오지 않았다.

“…”

이미 결정을 내렸으면서 눈물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얼음을 태우는 무정함에 입술 끝이 벌벌 떨렸다.

그때 조용하게 서늘한 온기를 띈 손이 벌벌 떨리는 손을 감싸 쥐었다. 익숙하고 부드럽게. 감싸쥔 손은 떨림을 막아주었다. 고개를 돌리자 휘아르가 날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지 마. 아가씨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그렇게 해줄게. 지켜줄게.”

날 내려 보는 그의 눈동자가 서서히 찬란한 달의 빛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비록 거짓이나 인간으로서, 얼음성의 일족으로서 내 곁에 있던 이가 조용히, 그렇지만 극명하게 다른 아시네헤의 일족으로 변했다. 어떻게 사람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을까 싶을 만큼 달랐다. 그러나 그러지 말아 달라 말할 수가 없었다. 나는 지금 겨울 앞에서 봄을 불러달라고 말했던 때처럼 간절했다.

“휘– 데르”

그가 내뱉는 말이 주문이 되어 눈 여우가 삽시간에 녹아 피와 물로 변했다. 그 기묘한 일에 살려달라 소리치던 병사들의 눈이 크게 떠졌다. 모두의 시선이 휘아르에게 향했다.

그의 금색으로 빛나는 눈동자에.

모두가 그를 보고 있었다. 마치, 달처럼.

“잘도 내 아가씨를 건드리더군. 그래, 어디 네 뜻대로 해봐. 너만은 반드시 내가 막을 테니까.”

데미온을 향해 휘아르가 한걸음 다가가며 말했다.

순백의 머리카락과 정결함이 감도는 아름다운 외모, 신비로운 금빛 눈동자.

최초의 태양 아스헤는 인간을 사랑해 신의 탈을 벗고 인간을 낳아 태양의 힘을 자손에게 대대로 물려주었다. 그러나 누이인 아시네헤는 달랐다.

고고한 달의 여신.

지상의 그 어떠한 것도 사랑하지 않는 여신이 얼음으로 빚은 인형. 땅 위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불리는 존재가 움직이자 얼어붙었던 시선들이 모조리 휘아르에게 향했다.

그의 금빛 눈동자는 마치 달과 같아 매혹적으로 시선을 빼앗기게 했다.

“너는 건드려선 안 될 사람을 건드렸어.”

그의 주위로 이전까지와는 다른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달은 따뜻하지 않다. 달의 이면은 어둡고 차갑기 그지없다.

휘아르의 손이 허공으로 들어 올려지자 데미온의 몸이 천천히 들어 올려졌다.

“네가 아시네헤의 일족…!”

휘아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허공으로 들어 올려진 데미온이 얼굴을 붉게 물들인 채 고통스럽게 입을 열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으로 목을 조이는 것 같았다. 여유롭게 비웃던 데미온의 얼굴 위에 핏줄이 도드라지며 고통이 서리기 시작했다.

남의 것으로만 여긴 고통이 그에게도 미치기 시작하자 더 괴로워지길 바라는 내가 있었다. 더 아프고 괴로워지길 바랬다. 우리가 고통 받은 만큼. 유린당한 나베란, 고통스럽게 죽은 레사휘, 그리고.

지금도 눈 여우에게 위협당할 위그노드의 사람들.

떠오르는 살육의 광경에 미간을 찌푸리며 시선을 내렸다. 창 아래에는 지금도 눈 여우들이 성문을 뜯어내기 위해 문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창문이었다. 이렇게 갑자기 눈 여우가 얼음가시나무 안쪽으로 생겨날 줄은 몰랐기에 창문은 열린 상태였다. 누구하나 닫을 사람이 없었다.

그 틈으로 눈 여우들이 제 머리를 집어넣으려 했다. 소수라면 충분히 기사와 병사들이 상대할 수 있다. 우리가 그동안 잡았던 것들도 눈 여우였다. 하지만 저렇게 감당할 수 없이 많은 다수라면? 저 많은 것들이 문을 여는 것을 포기하고 창문으로 들이닥치면? 아직 대피중인 여자와 아이들은?

이럴 때가 아니었다.

“휘아르.”

다급히 그를 부르며 손을 붙잡았다. 갑작스런 손길에 휘아르가 놀랐는지 내게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맞닿은 손길은 사람의 온기가 아니었다. 사람의 것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가운 온도에 마치 얼음을 손에 쥔 것만 같았다.

나와 같지만 더 투명하고 정순한 금빛 눈동자, 그리고 얼음과도 같은 온도. 새삼 내 앞에 있는 이가 아시네헤의 일족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아이샤, 괜찮아. 내가 있어.”

그러나 진정이라도 시켜주듯 맞잡아 주는 손길은 차가웠지만, 시리도록 아프지 않았다. 얼음이되 손을 얼리지 않았다. 나를 사랑한 달은 어둡지 않았다.

“아직 데미온을 죽여선 안 돼. 눈 여우를 몰아내려면 이 자가 필요해. 더군다나…죽지도 않아.”

분명 검에 찔리고 베였는데도 죽지 않았다.

“맞아, 섞였으니까.”

내 말에 휘아르가 질리듯이 데미온을 바라보며 혀를 찼다. 섞였다는 말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대강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었다.

아시네헤.

실로이의 병사가 이 땅에 온 건 오래되지 않았다. 기나긴 겨울과 눈 여우의 등장으로 우리가 실로이에 지원 요청을 하자 적선이라도 하듯 보내준 것이 실로이의 병사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난생 처음 겪는 겨울에 맞서기는커녕 추위에 얼어 죽거나 눈 여우에게 찢겨 죽었다. 그러나 그들의 시신이 눈 여우로 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변했다. 그리고 그들의 주인이라 불린 자가 마치 아시네헤의 일족처럼 검에 심장이 찔리고도 죽지 않았다.

아시네헤다.

이 땅 위에 눈 여우를 만들어내고 움직이게 하는 것은 오로지 아시네헤 뿐이다. 신의 핏줄이지만 신이 아닌 데미온이 눈여우를 다룰 리 없다. 오래된 증오라 할지라도 눈앞의 증오에 덮어지는 법이라 데미온은 말했다. 아시네헤는 이번엔 결단코 우릴 죽일 생각이었다. 오래도록 증오하는 아스헤의 혈족과 손을 잡을 정도로.

“너흰 죽을 거야.”

휘아르가 그를 옭아매는 구속을 조금 헐겁게 하자마자 그가 빈정거리는 말을 내뱉었다. 허공에 둥둥 떠 있음에도, 휘아르가 아시네헤의 일족이란 것을 밝혔음에도 그는 초반에만 조금 놀랐을 뿐, 기세가 전혀 수그러들지 않았다.

거세게 손바닥을 들어 그의 뺨을 올려쳤다.

“입 다물어.”

손바닥이 얼얼할 정도로 내려치자 그가 주절거리던 입을 다물었다. 내 앞에서는 어떤 너절한 헛소리를 주절거려도 상관없으나 패기를 잃고 두려움을 잔뜩 집어먹은 자들 앞에서는 그의 말은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가 찢어진 입술을 혀로 핥으며 날 노려봤다.

“이렇게 매워서야. 그냥 널 안을 걸 그랬어. 취향은 아니다만, 고집스러운 건 길들이는 맛이 있거든. 네 그 고고한 기세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지켜보는 건 유쾌할 거 같아. 더군다나 뱃속에 애까지 들었으니 나중에 내 자식이라고 들이대진 않을 거 아냐? 물론, 그 전에 질려서 죽이겠다만 너는 정말…”

끔찍한 말을 지껄이는 데미온의 말은 중간에 끊길 수밖에 없었다. 창백하게 질린 휘아르가 데미온을 얼굴을 주먹으로 세게 후려쳤기 때문이었다. 연거푸 반복되는 주먹질에 천하의 데미온 조차 눈을 까무룩 뒤로 넘기며 기절했다. 이제껏 어느 누구에게도 주먹 한 번 휘두른 적 없던 그의 모습에 도리어 내가 그를 바라봤다.

휘아르 역시 잔뜩 질린 얼굴로 날 보고 있었다. 그는 아님을 알면서도 나를, 내 배를 보며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감추지 못했다.

“나는 괜찮아.”

그가 무어라 말하기도 전에 서슴없이 먼저 말했다. 그는 통증에 둔감하지만 타인의 통증을 모르진 않았다. 레사휘에게 그리 채찍질 당했음에도, 무시당하고, 모멸 당했음에도 그는 레사휘에게 대련 때 외에는 손 하나 대지 않았다.

“지금 죽이자.”

그가 씹어뱉듯 이를 악물며 기절한 데미온을 노려봤다.

“죽일 수 있어. 어차피 아시네헤의 일족도 아니고 고작…!”

“휘아르.”

그의 손을 붙잡았다.

“휘둘리지 마.”

“지독해. 저렇게 지독한 놈을 살려둔다고 눈 여우를 몰아낼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아닐 걸. 그러지 않을 거야, 저 놈은. 차라리 처음부터 죽이는 게 병사들한테나, 나한테 나은 일이야. 죽이자.”

휘아르의 금색 눈동자가 흔들렸다. 나 역시 안다. 그가 이제와 정신을 차리고 눈 여우를 멈추게 할 리 없다. 그렇게 쉽게 변할 인간이었다면 이리 함부로 행동하진 않았을 것이다. 제 부하를 저런 괴물로 변하게 놔두지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난 여기서 죽을 마음 없어. 살아남을 거고 그러려면 저 자가 살아있어야 해. 우리의 적은 아시네헤뿐만이 아냐. 위그노드 밖의 사람도 적이라고.”

아시네헤가 중간에 엮여서 그렇지 원래 계획은 데미온의 구금이었다. 그를 여기서 죽인다는 건 우리 역시 여기서 죽길 각오한다는 것과 다름없다.

죽지 않는다.

이런 고비와 역경은 매년 겪었던 일이다. 언제고 아시네헤가 우릴 죽이지 않으려 했던가. 눈 여우는 매년 우릴 죽였고, 겨울은 질리도록 왔던 계절이다.

“우린 안 죽어, 절대로.”

바닥에 주저앉은 기사와 병사들을 바라봤다. 모르는 얼굴 따윈 하나도 없었다. 내가 그들을 봐온 만큼 그들 역시 나를 보고 살았던 성의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저렇게 아연한 얼굴로, 겁에 질린 눈으로 주저앉은 것을 본 것은 실로 오랜만이었다.

9년 전에도 저들은 저런 얼굴을 했다.

“그래, 그대로 있어도 좋고 두렵다고 도망쳐도 좋고 검을 버려도 좋다. 모두 9년 전에 죽었다고 여길 테니까. 그러니 싸움에 검을 놓친 자들에게 같이 싸우자고도, 지키자고도 말하지 않겠다.”

휘아르의 손을 놓고 그들에게 다가가 바닥에 떨어뜨린 검을 바라봤다. 그토록 용맹하게 빛을 내며 휘둘러졌던 검이 현실을 목도한 순간 날이라도 무뎌진 것처럼 바닥에 떨어졌다. 발치에 놓인 검을 주워들었다.

검의 무게에 손목이 시큰거린다. 검을 들 때 그냥 들지 않음을 안다. 검은 지키는 것도, 죽이는 것도 가능한 것이었다. 지금 내게는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했다.

휘아르가 내가 무슨 짓을 할 지 먼저 눈치 채고 손을 내밀었으나 단칼에 밀어냈다.

“하지만.”

망설임없이 검을 들어 손바닥을 그었다. 손바닥에서 흐르는 피가 바닥으로 떨어지자 병사와 기사들이 내게 시선을 던졌다. 고통에 눈가가 젖어들었으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아냐. 나는 그대로 있지도, 도망치지도, 검을 버리지도 않을 거다.”

베일 아래로 차갑게 얼어붙은 노아의 씨앗이 뺨을 스쳐 바닥에 떨어졌다.

“포기하지 않아. 우리는 살아남을 거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아남을 거니까. 악몽은 깨어나기에 악몽이지 잠들어있으면 현실이다. 고작해야 삿된 괴물에게 우리의 터전을 내주는 악몽을 그대로 꿀 것 같아? 발버둥 칠거야. 깨기 위해 손가락이라도 움직일 거다!”

아벨린 경이 날 바라봤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게서 떨어지는 노아의 씨앗을 바라봤다. 그가 노아의 씨앗을 못 알아볼 리 없다.

그의 눈이 경악으로 커지는 게 훤히 보였다.

노아의 씨앗.

지금 이 순간 이것을 더는 감추지 않는 건 지금 그만큼 내가 급했기 때문이었고 또한 이들의 떨어진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그동안 이 노아의 씨앗을 이용해 눈 여우를 막았다. 아무리 많은 수라 할지라도 노아의 씨앗이 있다면 제법 할 만했다. 아시네헤가 어떠한 방법으로 막을지는 모르겠으나 이곳에 아시네헤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가능했다. 여신이 그리 쉽게 나타났다면 9년을 기다리진 않았을 것이다.

바닥에 흘러내린 노아의 씨앗.

굴러온 노아의 씨앗을 주워들은 아벨린 경이 창백하게 질린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베일로 감싼 나를.

“…이것의 주인이십니까?”

그토록 숱한 밤. 숱한 시간 동고동락 했음에도 손에 쥐어지는 것의 무게를 가볍게 여겼던 그가 입을 열었다.

이것이 그들을 지켜왔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물은 적 없던 질문.

그저 내가 쥐어주기에 갔다 썼을 뿐. 위그노드의 남자가 고작 여자에게 휘둘려진다하여 어디서 가져오는지, 어떻게 만드는 지에 대해 묻지도 않았다. 금세 녹아 사라지는 얼음처럼 매번 쓰고 난 후 새까맣게 지웠다.

나 역시.

어디서 가져오는지,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 말할 수 없으니 오히려 나조차도 겨울이 지나 봄이 오면 씨를 뿌리듯 그것을 당연하게 내어주고 입을 다물었다. 이렇게 흐르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었다.

“우리는 그동안…당신의 피눈물을 썼던 겁니까?”

아벨린 경이 비척비척 몸을 일으켜 내게 다가오며 물었다. 잔뜩 젖은 목소리가 흔들리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를 모두가 들었다. 린드 경도, 기네드 경도 경악으로 날 바라봤다. 하지만 지금 내 눈앞에 선 회색 눈동자보다는 덜했다. 매번 나를 향해 오만하게 치켜뜬 회색 눈동자가 삽시간에 늙어버린 것처럼 약해졌다.

아비의 오른손.

평생을 내게 다정한 말 한마디 해주지 않던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는 기사였다. 위그노드를 지키는 기사. 그리고 그 위그노드에 나도 포함이었다.

“말해보십시오. 이게 진실입니까?”

아벨린 경이 내 앞에 서서 손을 내밀었다. 잔뜩 주름진 손이 흉하게 떨리고 있었다. 베일을 향해 뻗는 그의 손을 휘아르가 붙잡았다.

“무엇이 진실이든 상관없어. 지금 살아남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기 위해 있는 노아의 씨앗이다.”

린드 경을, 기네드 경을, 그리고 쓰러진 병사들을 바라봤다. 그들 역시 날 보고 있었다.

“악몽을 악몽으로 만들지 않아. 악몽은 9년 전으로 족해. 아무리 여신이라 할지라도 겨울민족을 함부로 죽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줄 거다. 우리는 한낱 미물이 아니니까. 이리 쉽게 죽이고, 찢기고자 그 숱한 겨울 동안 살아남은 게 아냐. 악몽은 오늘로 끝이다. 우리는 긍지 높은 위그노드의 겨울민족. 더는 아시네헤에게서 목숨을 위협받지 않을 거다.”

긍지 높은 위그노드의 겨울민족.

누구도 버티지 못하는 겨울 속에서 사는 민족. 얼음장벽 너머 아시네헤가 그토록 죽이고자 했으나 우리는 살아남았다.

앞으로도 계속 살아남을 것이다.

그때 갑자기 아벨린 경이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기묘한 변화가 두려울 정도였다. 그러나 그가 웃음을 멈췄을 때, 나약하게 변한 눈동자가 다시 형형한 빛을 냈다.

그에게 어울리는 빛이었다.

“나참. 방에 들어가 숨는다 할지라도 욕하지 않을 어린 여자보다 못하다니. 수치다, 수치야. 안 그런가?”

그가 날 힐끔 보더니 여느 때와 똑같이 입을 열어 비아냥 거렸다. 그 말에 린드 경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다치고 약해졌음에도 그는 검을 주워들었다. 아비의 왼손이, 아비의 오른손이 시선을 마주쳤다.

“그러니 아이샤 님은 가만히 계시죠. 이런 건 우리 같은 남자들이나 드는 거니까. 손이나 베고 쓸 줄도 모르면서.”

아벨린 경이 내 손에 든 검을 빼앗아 들었다. 그러나 그것보다 의외의 말에 한마디의 말도 할 수 없었다.

아이샤 님.

아벨린 경은 절대 날 그리 부르지 않았다. 아가씨. 성주의 딸이기에 말은 높이나 결코 주인으로 인정치 않겠다는 듯이 항상 날 ‘아가씨’라 불렀다. 자신의 주군이 아닌, 그저 신분 높은 여자를 부르듯이 그리했다.

손을 들어 날 살짝 밀자 휘아르가 내 팔을 붙잡았다.

“노아의 씨앗도 되었습니다. 이런 거 없어도 우린 이겼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 뒤에 계시죠, 아이샤 님.”

말투는 변함없으나 그의 회색 눈 어디에도 조롱이나 비아냥은 없었다. 날 은연중에 깔아뭉개는 시선 또한 보이지 않았다. 린드 경도, 기네드 경도, 병사들도 그런 우리를 바라봤다.

겁에 질린 자도 있었다.

다시 검을 들지 않으려고 눈을 감은 자도 있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을 제외한 자들이 검을 들고 일어섰다.

“맞습니다. 우리는 긍지 높은 위그노드의 겨울 민족. 저런 삿된 괴물에게 죽을 리 없습니다.”

기네드 경의 말에 그들이 다시금 검을 쥔 손에 힘을 줬다. 두렵지 않을 리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들과 병사들은 검을 들었다.

눈 여우가 제 힘으로 성 안으로 들어오려 한다면 창이 열려있든, 닫혀있든 의미가 없다. 모조리 힘으로 부수고 들어올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겐 지하 대피실이 있었다. 설사 눈 여우가 이 성안에 모조리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절대 죽지 않는다.

다만.

손에 쥔 노아의 씨앗을 가만히 매만졌다.

그동안 눈 여우는 겨울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노아의 씨앗으로 자라난 얼음가시나무로 부족하나마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 어떠한 때보다 괴상하게 나타났듯이, 종잡을 수 없었다.

지하실의 식량은 1년을 버틸 만큼 충분하지만, 그 이상은 장담할 수 없었다. 아무리 튼튼하고 안전할 지라도 갇힌 쥐 신세가 될 수도 있었다.

“정문은 아직 닫힌 상태니 안에서 버틴다면 제법 승산은 있습니다.”

린드 경의 말에 모두가 날 바라봤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은 정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정문은 눈 여우라 할지라도 힘으로 뜯어내지도 부수지도 못했다. 거기다 겨울성의 창문은 다른 지역 성의 창문과 달랐다. 사람마저 얼려버리는 혹독한 겨울의 바람과 눈보라를 견디고 성 안에 들이치는 한기를 막기 위해 창의 폭과 높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작았다. 휘아르가 예전에 내 방에 들어올 때처럼 성인 하나쯤은 들어 올만한 크기는 되지만, 저렇게 어마어마한 체구의 눈여우가 쏟아져 들어올 만큼 크지 않았다.

그것이 지금 이 상황에 그나마 다행이었다.

“아벨린 경, 린드 경.”

“말씀하십시오.”

“지금 경들은 성 안을 최대한 수비하기 위해 정문에서부터 방어중인 레만 경과, 노어 경과 합류해라. 기사와 병사들을 모아 정문을 방어기점으로 정하고 틈으로 들어오는 눈여우를 처단하도록.”

기네드 경과 아벨린 경이 빠르게 목례하며 방을 벗어났다.

“기네드 경.”

“네.”

“지금쯤이면 거진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하실로 모였을 거야. 그러니 그대는 세이 경과 함께 이 성의 모든 창문을 막아. 끝없이 새는 구멍을 두고 손으로 막는 건 바보짓이니까.”

말을 하면서 시선을 병사들에게 내렸다.

아직도 얼굴에 가득한 두려움은 쉬이 가시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들은 검을 들고 일어섰다.

“저, 저희도 하겠습니다.”

눈여우 앞에서 살려 달라 빌던 병사였다.

“하게 해주십시오.”

긍지를 잃고 검을 내던진 병사였다.

그러나 본디 이들도 토벌의 이름으로, 경계선 부근의 경비라는 이름으로 눈여우의 목을 베고, 심장을 찔러 집을 지키고, 어린 자식들을 구했다. 그들이 도망치지 않았기에 우리는 살아서 여기까지 왔다.

“아무리 겨울 성이 창문이 다른 성에 비해 현저하게 적다하나 그래도 막으려고 보면 수가 꽤 된다. 세이 경과 기네드 경만으로는 벅차겠지. 경들을 도와서 눈여우를 막아라.”

이 자리에 있는 그 어느 누가 두려움을 완연하게 떨칠까. 나라 할지라도 떨리는 몸을 막을 수 없었다.

그러나 살아남겠다는 의지와 위그노드의 긍지로 일어선다. 제 한 몸 건사하겠다 검을 드는 게 아니다.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살아남았던 건, 우리보다 어리고 약한.

가는 가지 위에 소복하게 얹힌 여린 눈처럼 약하고,

짧은 봄에도 생명을 품고 움트는 어린 새순들을 위해서였다. 어린 날의 우리처럼 혹독한 겨울여신의 분노에 어버이를 잃고 우는 아이가 더는 없도록.

“주군의 명령대로.”

기네드 경이 목례하며 병사들과 함께 빠르게 방을 빠져나갔다. 밖에 내리는 눈은 여전히 그치지 않았다. 하늘은 구름에 빛이라도 삼켜진 건지 별빛 하나 없이 여전히 어두웠다. 이 밤 끝없이 길고, 이 어둠이 한없이 무거웠다. 그러나 밤이 아무리 길지어도 밤이다. 아무리 춥고 혹독한 겨울일지라도 언젠가 끝이 나듯이 동이 트고 온 사방이 밝아지는 아침은 반드시 온다.

거기다 깊은 새벽에 일어난 일이라 자칫했으면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었다. 얻어맞아 기절한 채 휘아르에게 묶여 바닥에 아무렇게나 널부러진 데미온을 보며 생각했다.

그래, 그나마 다행이었다.

죽은 레사휘.

죽은 인트 경.

그리고 지금 이불에 감싸진 채 쓰러진 나베란.

“…아냐.”

다행이 아니다, 치가 떨릴 만큼. 그럼에도 나는 이들의 주군이기에 다행이라 여겨야 했다. 여기까지라고 다행이라 여겨야 했고 더 일이 번지지 않기 위해 움직여야했다. 그래서 애써 힘주어 앞을 바라봤다. 자꾸만 손이 떨려 손안에 든 노아의 씨앗을 세게 붙잡았다.

“이제 우리도 빨리 움직이자. 나베란을 마샤에게 맡기고 지하실에 사람들이 제대로 대피했는지 확인해야 해.”

“아이샤.”

세이 경이 빈틈없이 일을 했겠지만, 다급히 움직이면 틈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때 돌연 휘아르가 팔을 붙잡아 돌아 세웠다. 휘아르의 시선이 내 손에 향해 있었다.

“이거 놔. 이럴 시간 없어.”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았다. 반이나마 달의 일족의 피를 받았으면서 상처는 쉬이 낫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그동안 더 많은 눈물을 흘리려고 안간힘 썼던 탓인지 얕게 베인 상처로, 가벼이 지진 상처로는 눈물이 나지 않았다. 고통스럽게, 무자비하게. 그랬기에 상처는 스스로 낸 주제에 결코 얕게 베지 않았다.

“아프지 마."

가뜩이나 힘주어 쥔 탓에 베인 상처에 파고든 노아의 씨앗을 꺼내며 그가 나직하게 말했다. 아프고 다친 사람은 나인데 그가 다치 사람 같았다. 고통에 한없이 무디면서 내 상처엔 견디지 못했다. 내가 아픈 걸 보느니 차라리 제 심장에 검을 박아 넣을 만큼.

인간을 싫어하는, 감정엔 차갑게 언 아시네헤의 일족이면서.

“이렇게 다치지도 말고.”

상의자락을 망설임 없이 찢어 내 손을 감으며 그가 말했다. 손에 닿는 온기는 뜨겁지도, 차갑지 않았다. 미온의 손길은 아주 조용히 스며들었다.

데미온의 병사들이 처연히 내리는 눈에 온몸이 얼어가는 걸 모를 만큼.

이제껏 끌어안긴 적도, 입을 맞춘 적도 있었다. 그러나 시선이 맞닿자 나도 모르게 숨이 막혔다. 막막했다. 그토록 끝없이 증오하고 혐오하던 금빛의 눈동자에 오롯이 담긴 내 모습에 속이 저렸다.

떨림을 잊을 만큼 저렸다.

“휘아르.”

더는 피나지 말라고 꽁꽁 싸맨 손으로 휘아르의 손을 붙잡았다. 속이 답답할 만큼 저렸다. 그래서 말이 쉽사리 나오지 않았다. 샤하웨는 나에게 그를 믿지 말라했다.

그래, 나도 그를 믿지 않았다.

제 배로 나은 어미조차 한 톨의 망설임 없이 날 버리고 떠났는데 하물며 똑같은 아시네헤의 일족. 그라고 다를 바 없었다. 눈물이라니. 같잖은 술수라 생각했다. 그래서 나 역시 끝없이 의심하고, 확인하고, 몰아세웠다.

하지만.

“휘아르.”

고작 나에게서 그가 뭔가를 얻어낼 가치가 있을까. 제 살기조차 급급한 나에게서 그가 뭘 갖겠다고 속일까. 날 미끼로 위그노드의 민족을 모두 죽이려는 아시네헤의 수작일까도 생각했다.

그러나 답은 아니었다. 우리는 그녀의 교만한 자비로 살아남았을 뿐, 그녀가 죽이고자 마음먹는다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과거 이 성을 괴멸직전까지 몰아세웠을 때처럼. 그러나 얼음의 여신은 돌아섰고 그리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남았다.

“차라리 내가 할 걸 그랬어. 어차피 정체도 들켰는데 그냥 내가 다치고 말걸. 난 어차피 그렇게 아픈 것도 아니고 빨리 낫잖아. 상처가 남으면 어떻게 하지? 세게 쥐지 마. 그러면 또 피가 날거야.”

그가 상처 난 손바닥을 안타까이 어루만지며 날 바라봤다. 아비는 병들고, 어미는 떠났고, 레사휘는 죽고, 나베란은 쓰러졌다. 내게 남은 곳은 이 곳이었고, 남은 사람들 역시 이곳에 있었다. 그리고 휘아르가 있었다.

“고마워.”

그 말을 내뱉자 차게 가라앉은 가슴 속이 미지근해지는 것 같았다. 그는 무수히 많은 감정을 내게 토해냈지만 나는 단 한 번도 허락하지 않았다. 감정이 한 톨이라도 섞인 말을 내뱉으면 마치 내가 변할 것 같았다.

그게 두려웠다.

그런데 내 마음 한 켠이 녹아내리는 것은 생각만큼이나 두렵지도, 이상하지도 않았다. 간지러울만큼 따뜻했다. 상황은 다급했고, 현실은 암담했으나 지금만큼은 고요했고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다시 용기를 낸 말에 내 상처를 매만지던 휘아르의 손길 역시 멎었다. 혹여, 답지 않은 내 말에 놀랐나 싶어 슬쩍 시선을 들자 그가 황급히 손을 들어 얼굴을 가렸다. 그러나 미처 채 가려지지 않은 부분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 반응이 기묘해 할 말을 잃고 가만히 그를 올려봤다.

내가 한 말은 고작해야 감사의 말이었다. 사랑한다 말한 것도 아닌데. 고작해야... 그러나 귓불이 터질 듯 붉어져서 그는 내게 시선조차 대지 못했다.

“휘아르.”

“자, 잠깐만 아이샤. 잠깐, 시간을 줘. 기다려. 아, 아냐. 기다리다니!”

횡설수설 주문처럼 말을 늘여놓더니 그가 얼굴을 가린 손을 내려놓더니 잔뜩 붉은 얼굴을 한 채 날 끌어안았다.

“나도…!”

어찌하지 못할 정도로 끌어안은 기세에 숨이 막혔지만, 목울대에서 울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선명하게 들리는 게 나쁘지 않았다.

“아이샤, 네 옆에 있게 해줘서 나도 고마워. 언제까지나 옆에 있게 해줘. 그래서 널 아프게 하는 건 내가 대신할게. 이제는 사랑해달라고 고집부리지 않을 거야. 그냥 곁에 있고 싶어. 널 행복하게 해줄게. 앞으로도 계속.”

미온의 감촉이 아니었다. 맞닿은 가슴이 뜨거웠다. 거북하거나 괴롭지 않았다. 소망처럼 와닿은 감정의 깊이는 따뜻했다. 머뭇거리다가 손을 뻗어 휘아르의 등을 감쌌다.

이제껏 피했다.

너도 결국은 나를 버릴 거라고.

하지만 모든 걸 잃을 수도 있게 된 이때까지 내 곁에 남은 이는 그였다. 아비처럼 주술로 묶지 않아도, 샤하웨처럼 속이지 않아도 그는 내 곁에 있었다.

“그래.”

앞으로도 계속.

받은 적도, 준적도 없지만 이 감정을 모르지 않다. 이 감정은 유모가 한없이 어린 날 끌어안을 때랑은 조금 다르고, 아비가 날 바라보던 시선과도 조금 달랐으며, 나베란이 내게 손 내밀었을 때와도 조금 달랐다.

같았으나 결국 조금은 다를 수밖에 없었다.

그래, 그럴 수밖에.

맞닿은 가슴이 뭉개지듯이 가슴 속 서리발처럼 얼어붙은 것들이 조금씩 흘러내리는 게 느껴졌다.

그가 끌어안은 팔을 풀고 손을 들어 베일을 걷었다. 온전한 내 모습이 그의 눈동자에 깃들었다. 그의 손이 내 뺨을 감쌌다.

“사랑해. 사랑해, 아이샤.”

그가 떨리는 손끝으로 입술을 훑어 내리다 조심스럽게 입을 맞췄다. 맞닿은 입술의 까끌함이 느껴질만큼 조용한 입맞춤이었다. 그러나 불씨를 옮겨 받은 것처럼 입술이 뜨거웠다. 소중히 하겠다는 약속대로 나눈 입맞춤이지만 그의 감정이 붙어 뜨거웠다. 시선이 닿은 그가 혀로 입술을 핥으며 씨익 웃었다.

“빨리 이 일이 끝났으면 좋겠어. 그럼 계속 이러고 있을 텐데.”

“허튼 소리.”

고개를 흔들며 그를 밀어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내게 못박힌 것처럼 박혀들었다. 그가 베일을 들어 다시 꼼꼼히 내 머리 위에 씌워주었다. 이제 멈췄던 시간은 흐르고 움직여야 할 현실이었다.

모든 걸 잠시 잠깐 잊었던 고요가 아쉬울 만큼 밖은 소란스러웠다.

“걱정 마. 다 괜찮을 테니까.”

안심하라는 태도로 그가 날 보고는 뚜벅뚜벅 걸어 조심히 바닥에 내려놓았던 나베란을 품에 안았다.

“다 괜찮을 거야, 아이샤.”

그것은 내게 건네는 그만의 위로방법이었다.

휘아르의 위로가 닿자 이제야 온전하게 나베란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은 내게 하는 말이기도 했지만, 이제 깨어날 나베란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얼마나 지독하게 당했는지, 현실이 두려운지 깨지 않는 나베란의 얼굴이 앳되고 가엾었다.

손을 뻗어 나베란의 피묻은 머리카락을 뒤로 넘겼다. 멍든 이마, 굳게 닫힌 눈가와 벌겋게 손자국이 남은 볼. 얼마나 짓씹었는지 피가 묻은 입술을 가만히 손으로 쓸었다.

너는 나의 가장 소중한.

말이 되어 입술 밖으로 나간 적은 비록 단 한 번도 없을지언정 그 오랜 시간 내가 적은 천 조각을 나베란이 지니고 다녔던 것처럼 나 역시 나베란이 소중했다. 그래서 너는 나와는 다른 삶길 바랬다.

위그노드에서 태어나고 자란 겨울성의 여자면서 나처럼 그리 살길 바라지 않았다. 진즉 이브실라에 보냈어야 했다. 레사휘가 무어라 해도 무시하고 보냈었다면 오늘 같은 일은 눈으로 보지도, 겪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녀의 얼굴을 쓸어내린 손으로 주먹을 쥐었다.

두 번은 없다.

“가자.”

이 끔찍한 장소에서부터 발을 떼었다.

아주 예전엔 나도 그랬다.

바라면 이루어질 거라고.

그래서 간절히, 아주 간절히 빌었다.

성 안은 이미 아수라장이었다.

발 빠르게 대처한다 생각했지만, 마수를 상대로, 겨울 여신을 상대로 버텨내는 건 실로 버거운 일이었다. 더군다나 기묘하게 등장했던 것처럼 이전과는 확연하게 달랐다. 이렇게 요란한 침입은 처음이 아니었다. 눈 여우가 최초로 나타났던 9년 전에 성 안에 들어온 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왕좌왕했고 버거웠다.

어떻게 해서든 정문을 부수려는 건지 요란하게 쿵 쿵 울리는 소리가 1층으로 내려가지 않아도 성 전체를 울렸다. 내리는 눈보다 더 많은 수의 눈 여우가 벽 틈에서 새어나오는 한기처럼 밀려들었다.

나베란을 끌어안은 휘아르가 검을 들어 쳐냈다. 나베란을 감싼 이불도, 휘아르의 뺨도, 내 치맛자락도 온통 피로 젖었다. 정문이 아직 굳건히 막혀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수의 눈 여우가 성 내에 들어와 있었다. 새하얀 것을 볼 때마다 숨이 턱턱 막혔다. 제아무리 휘아르라 할지라도 힘을 무한정 쓸 수 있는 게 아니었다.

더군다나, 눈 여우는 아시네헤의 권속.

아무리 그가 날 지키기 위해 아시네헤에 반(反)할 지라도 그도 결국은 아시네헤의 일족이었다. 아시네헤가 얼음으로 빚어 숨을 불어넣은 존재였다. 그랬기에 그가 아무리 힘을 써도 막는 데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움직이기만 하면 무작정 덤비는 눈 여우의 매서운 공격이 나베란을 향하자 휘아르가 빠르게 등을 돌렸다.

“휘아르!”

잇새로 새는 신음하나 없지만 찢겨진 새하얀 등에 선명한 낙인처럼 발톱이 흉하게 남겨졌다. 휘아르가 재빠르게 눈 여우의 목을 베었다. 등에서 팔을 타고 뚝 뚝 떨어지는 핏방울에 조심스레 손을 뻗었다.

조금만 더 깊숙이 발톱으로 박았더라면…!

“괜찮아, 금방 나아.”

내가 손을 뻗자 맞잡으려다 등에서 흐르는 피가 팔을 타고 흘러내리는 탓에 그가 곤란한 얼굴로 쓱쓱 손을 닦았다. 그러나 멈추지 않는 피에 차마 닿지 못하고 손을 아래로 내렸다.

“정말로.”

그리곤 정말 아무렇지 않게 날 향해 웃었다. 스스로 검으로 제 심장을 찔러도 멀쩡했었다. 웬만한 상처쯤은 아무렇지 않게 나았다. 그러나 이번만은 달랐다. 마치 아시네헤가 용서치 않겠다는 것처럼 눈 여우에게 당한 상처는 쉬이 낫지 않았다.

흘러내리는 핏줄기가 선명했다.

“걱정 마. 금방 끝나.”

휘아르는 내게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이 말만은 거짓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의 얼굴이 피와 땀으로 젖어 있었다. 닦아주고 싶은데 몰려드는 눈 여우가 많아 달리는 게 더 급선무였다. 소맷자락을 움켜쥔 손이 자꾸만 떨렸다. 정문은 아직 더 내려가야 했고, 지하실은 그보다 더 아래였다. 아직 정문은 열리지 않았다. 눈 여우들이 정문을 열기 위해 문을 두드리는 굉음이 여전히 성 안을 감돌고 있었다. 하지만 수가 너무 많았다.

아시네헤가 실로이의 기사들을 변하게 한 것처럼 내 사람들도 변하게 했을 까봐 가슴이 자꾸만 두근거렸다. 휘아르가 흘리는 이 피만큼 내 사람들도 다치고 죽었을까봐 자꾸만 가슴이 뛰었다.

아무리 뛰고, 소리 질러도, 울려고 노력해도 이처럼 선명하게 가슴 안에서 울리지 않았다. 9년 만에 요란하게 두근거리는 가슴 안이 버겁고 답답해 섬뜩했다.

이 두근거림은 마치 뭔가를 예고하는 것만 같았다.

쾅—!

선명한 광음이 지축을 뒤흔들어 달리던 걸음을 걸고 붙잡은 탓에 일순간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쓰러졌다. 고막이 찢어질 것처럼 성이 비명을 질렀다. 성을 지탱하는 기둥 중 하나가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것처럼 아래에서부터 연기까지 차올랐다.

휘아르가 다급히 팔을 붙잡아 주지 않았더라면 그대로 바닥에 넘어질뿐더러, 뻥 뚫린 구멍 아래로 떨어질 뻔했다. 우릴 쫓던 눈 여우들은 벽이 허물어지면서 그 아래에 깔렸는지 일단은 눈에 보이지 않았다.

“…!”

뚫린 바닥 아래로 아래층의 눈 여우의 새하얀 털과 귀가 보였다. 그러나 그보다 더 끔찍한 건 내 안에 고였던 피가 커다란 구멍으로 쏟아져 내린 것만 같았다. 그토록 끔찍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정문이…!”

정문이 열렸다.

눈으로 보지 않아도 섬뜩한 떨림에 말로 채 내뱉어지지 않았다. 그래도 9년 전에는 정문은 사수했다. 아무리 아비가 병에 걸려 눈뜨지 않아도, 어미가 우릴 버렸어도 그래도 성의 정문은 남아있기에 우리가 살아남았다.

“아이샤.”

이가 악물렸다. 어떻게든 말살하려는 여신의 잔인함에 치가 떨렸다. 고결한 새를 범한 죄는 그녀가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벗어날 수 없었다.

“아이샤!”

어깨를 잡고 부르는 소리에 시선을 올렸다. 금색의 눈동자가 날 바라보고 있었다. 원망스럽고 원망스러운 금색의 눈동자가. 그토록 버리지 말아 달라 애원했지만, 끝끝내 날 버리고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돌아섰던 그 눈동자가.

“아아악! 저리가! 가라고!!”

뚫린 바닥에서부터 들리는 비명에 나와 휘아르의 시선이 아래로 향했다. 도무지 누구인지 구별도 하지 못할 만큼 피를 뒤집어 쓴 사람이 검을 휘두르며 소리를 내지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를 향해 예닐곱의 눈 여우들이 몰려 사냥감을 몰듯 쫓았다.

“내려가게 해줘.”

“일단, 내가 먼저 내려가서 정리하고 나서…이런, 그새 또!”

또다시 달려드는 눈 여우를 손짓으로 밀어내며 휘아르가 거친 숨을 내뱉었다. 여기에 나와 나베란을 두고 내려가기에도 상황은 좋지 않았다.

별수 없이 휘아르가 내 허리를 감싸 쥐었다. 새하얀 눈과 같던 그의 머리카락이 엉망이었다. 어깨가 잘게 떨렸다. 등을 끌어안자 축축했다. 손바닥 전체를 흠뻑 적실 정도의 피가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 이를 악물었다.

그럼에도 멈춰달라고 말할 수가 없었다.

“놀래지 마. 내려갈게.”

기절한 나베란이나, 나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 똑같았다. 고개를 끄덕이자 그가 조심스레 바닥으로 도약했다. 높이가 낮지 않을 텐데 그는 너무나도 가볍게 뛰어 내려 착지했다. 하늘을 나는 새처럼.

아무리 뿔을 가지고, 네 발을 가진 사슴의 형상을 해도 본디 모습이 창공을 나는 새의 모습이라는 걸 알려주듯이.

그러나 내려갔을 땐 이미 입가에 피를 잔뜩 묻힌 눈 여우 떼뿐이었다. 비명은 송곳니에 먹히고, 절망서린 얼굴은 이미 뜯긴 지 오래였다. 우리가 아래로 내려오자 이제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 달려들었다.

휘아르가 귓가에 소리가 날 정도로 매섭게 검을 휘둘렀다. 시선을 아래로 내렸다. 죽은 이는 비단 그자뿐이 아니었다.

참담했다.

발치에 선명하게 와 닿는 피웅덩이가, 멋대로 파헤쳐진 시신이, 여기저기 난도질되어 벽이고 천장이고 튄 살점들이.

모두 이 안에서 살던 사람들이었다.

웃고, 떠들고, 식사를 하고. 또, 사냥을 나가고, 겨울을 걱정하고, 식량을 채워가며, 가족과 어우러져 살던 겨울민족이었다.

우리는 이브실라처럼 풍요로운 땅도, 테레베의 생장하는 땅도, 헤스티의 만개하는 땅도 아니었다. 우리가 가진 위그노드는 혹한의 땅. 하지만 우리는 그에 만족하고 평생을 살아왔다.

겨울을 받아들이고, 얼음을 베고, 차가운 물에 손을 녹이며 그리 살았다. 그랬더니 죽을 때 눈 하나 멀쩡히 감기지 못하고, 제 시신 하나 온전히 누이지 못하고 먹다 남은 찌꺼기처럼 여기저기 흩어진 채 죽었다.

고개를 내리고 숨을 내쉬었다. 가슴이 아플 정도로 옥죄었다.

“이럴 순 없어.”

이가 떨리고 몸이 떨렸다. 이토록 손쉽게 죽으라고 그리 살아남았던 우리가 아니었다. 한낱 여신의 분노에 이리 으스러져 죽으라고 살아남았던 게 아니었다.

그때, 또다시 울리는 비명 소리에 몸을 일으켰다. 아이의 울부짖는 소리였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만 같았다. 더는 이대로 제정신으로 있을 수 없었다. 만류하는 휘아르를 뿌리치고 내달렸다. 눈여우가 내게 달려듬에도 불구하고 정신이 없었다. 뒤에서 휘아르가 애타게 내 이름을 불렀다. 그가 필사적으로 날 지키기 위해 마법을 사용했다.

그 실날같은 작은 비명이 채찍질해서 넘어지고 발에 채여도 계속해서 달리게 했다. 정문이 휑하게 뚫렸고, 그 사이로 눈 여우가 무작정 쏟아지는 데 멈출 수가 없었다. 도저히 달리는 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살려주세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무너져 내려 그 아래 자리한 바닥이 내비치고 있었다.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저 아래에는 지하실이 있었다. 이 성의 가장 어린 것들과 연약한 것들을 지키는 장소였다.

최후의 최후까지도 지켜야만 하는 곳이었다. 그러나 그 곳에서부터 비명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아, 안 돼!!”

온 몸에 소름이 돋았다. 참을 수 없어 눈앞이 새카맣게 죽은 채로 소리 질렀다.

“안 돼!!!”

부서진 벽의 잔해를 주어들고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뛰어내렸다. 바닥에 떨어지면서 옆으로 떨어져 무언가 부러지는 소리가 몸 안에서 났다. 팔뼈가 부러진 것처럼 늘어졌다. 그럼에도 머뭇거릴 틈이 없었다. 지하실 안에는 빼곡하게 눈 여우가 들어차 있었다.

발작하듯이 소리 지르며 내달렸다.

“안 돼! 그만!!”

얼마나 사람을 먹어치운 건지 순백의 털에 잔뜩 피를 묻힌 붉은 눈 여우에게 돌을 겨누었다.

“그만해!!”

그러나 그건 아주 자잘한 몸부림이라고 단정 짓듯이 거센 발톱에 몸이 뒤로 세차게 떠밀렸다. 다시 일어서려는데 가슴팍에 뭔가가 힘차게 내던져졌다. 신음을 삼키며 발작처럼 다시 일어서자 시선이 아래에 밟혔다.

내 가슴팍을 맞고 발 아래로 굴러 떨어진 건 작았다. 그리고 창백할 정도로 겁에 질린 채 눈을 부릅뜨고 있었다. 온통 피투성이였다. 어디하나 성 한 곳 없이. 목 아래가 없었다. 시선이 억지로 뜯긴 목 아래에 멎었다.

나는 이 아이의 원래 모습을 안다.

희고 말간 얼굴. 따스하게 웃던 소녀였다. 제 어린 동생에게 손 내밀던, 휘아르에게 말린 과일을 내밀던 손을 안다.

“…”

고개를 들어 올렸다. 손을 내뻗어 찢듯이 베일을 걷어 던졌다. 그래, 아시네헤여. 당신이 기어이 내가 가진 소중한 사람들을 죽이려 드는 구나.

이, 잔인한 마수야.

아직 손 안에 남은 돌 조각을 들어 가슴을 세게 내리쳤다. 피가 거꾸로 솟구쳐 입 밖으로 쏟아졌다. 그럼에도 손을 멈추지 않았다. 아직 지하실 안에는 비명이 계속되고 있었다. 살아있는 사람도 있었다. 아직 온전하게 죽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까 지켜야 했다.

“이제 안 잃어.”

눈에서 흐르는 노아의 씨앗들이 내가 토해낸 피에 젖어 붉게 변했다. 계속해서 돌로 가슴을 내리쳤다. 거센 돌에 갈비뼈가 부서져 내리고, 그 피부가 찢겨 파였다. 그럼에도 멈추지 않았다.

아직 노아의 씨앗은 부족했다.

“이제 두 번 다시 안 잃는다고!!”

거세게 가슴에 돌을 내리쳤다. 그 순간, 끔찍하게 두근거리며 답답하던 가슴 속이 일순간 펑 하고 터졌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노아의 씨앗들이 바닥에 쫙 하고 퍼지며 가시나무를 싹틔우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자라난 얼음 가시나무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눈 여우의 몸을 옭아맸다.

한순간이었다.

아무리 아시네헤가 우릴 죽이려 할지라도 그녀에게 받은 힘은 내가 아끼는 사람들을 지켜주려 움직였다. 얼음 가시나무의 날카로운 가시가 눈 여우를 옭아매자 떼어내려고 버둥거리던 눈 여우들이 이내 억센 올가미의 힘에 압사했다.

그리고 그 피를 받아 점차 크기를 키웠다.

바닥을 에워싸던 게 벽을 감싸고 천장에 올라가 뚫린 틈으로 성 전체에 퍼지기 시작했다. 숨죽인 채 멍하니 그걸 바라보다가 이내 피투성이의 가시나무를 손으로 쳐냈다.

“제발...”

손이 아픈 것도, 피투성이가 되는 것도 중요치 않았다. 기도했다. 바라고 또 바랬다. 제발. 얼음가시나무가 따끔하게 얼굴을 스쳐 길게 생채기를 만들어도, 팔을 긁고 옷을 찢어 붉게 피를 흘리게 해도 멈추지 않았다.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아직도 내 눈에서 노아의 씨앗이 흘러내리는 지는 중요치 않았다.

터질 것처럼 두근대던 가슴이 마치 원래 그러했던 것처럼 뛰고 있었다.

“제발…!”

겨우 비집고 들어설 만큼의 틈이 생겨 어두운 지하실 내부가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다. 이를 악물었다. 처참한 흔적은 눈 돌리는 곳마다 있었다. 그것은 아이든, 어른이든 가리지 않았다. 제발. 제발.

제발!

“…”

드디어 멈춰 섰다.

“아이샤!”

휘아르의 목소리가 뒤에서 애타게 날 불렀다. 숨이 가쁘게 차오르다가 나갔다. 가슴이 들썩거렸다. 들썩거릴 때마다 뼈가 와그작 움직이는 소리가 귓가에 들렸다. 부러진 뼈가 페를 찌르는 건지 숨 쉬는 게 아팠다.

숨 쉬는 게 너무나 아팠다. 그래서 쉴 수가 없었다.

목이 떨어져 나간 마샤의 품 안에 끌어안긴 아이 모두 움직이지 않았다. 깊이 심장과 배가 파여진 채 숨을 쉬지 않았다. 최후의 최후까지 울던 비명. 그게 이 아이들이었다.

“…”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었다. 그저 멍하니 마샤를 바라봤다. 아니, 어디에도 마샤는 없었다. 다정한 그녀의 얼굴이 어디에도 없었다. 뭉개지고 우그러져 시체들 틈으로 굴러간 건지 마샤의 얼굴은 어디에도 없었다.

“마…샤.”

입술이 떨리더니 그 다음으로 손이 떨리고, 몸이 떨렸다. 눈앞이 어두웠다. 캄캄했다.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었다. 아무것도.

고통만이 자리했다.

그토록 지키고자 스스로 만들어낸 고통만이.

“아이샤...”

어느새 곁으로 다가온 휘아르가 처참한 내 모습을 보더니 팔을 들어 조심스레 끌어안았다. 어떠한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모든 건 내 오만이었다.

지킬 수 있다는 거.

지켜낸다는 거.

살아남겠다는 거.

나는 9년 전에 누군가의 죽음으로부터 살아남았다. 그런데 이들은? 누가 이들을 죽음으로부터 구하지 못했나.

그건 나다.

“아이샤.”

시선을 올려 휘아르를 그리고, 얼음 가시나무 너머에 있을 나베란을 바라봤다. 그리고 내가 자라게 한 얼음 가시나무를. 이제 곧 이 안은 겨울처럼 얼어붙을 것이다. 이 안에 눈 여우를 감싼 채.

애써 마음을 차게 굳혔다.

“밖에. 아직 사람들이 있어.”

휘아르를 밀어내며 다시 얼음가시나무에 다가갔다. 이 성 안의 사람들은 모조리 죽었을 진 몰라도 이 영지, 위그노드에 남은 사람들이 있었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대피하지 못하고 집에 숨어있을 사람들이.

이 눈 여우는 위에서 내려온 게 아닌 성 안에서 생긴 기상천외한 거였다. 그러니 여기서 묶어두면 영지민은 안전할 것이다. 비록, 우리 모두는 얼음가시 나무에 얼어 죽을 지라도.

움직이자 피가 한웅큼 터져 나왔다. 검붉은 피가 눈물과 함께 흘러내려 가시나무를 더 크게 키웠다.

“이대로 죽을 수 없어.”

이를 악물었다.

“이 안에 들어온 눈 여우를 모두 다 죽여야 해.”

위그노드의 겨울 민족은 아직 살아 있다. 내 손끝에서부터 다시 얼음 가시나무가 빽빽하게 자라기 시작했다.

그런 나를 보며 휘아르가 절망스런 얼굴을 했다.

“꼭 그래야만 해?”

“뭐?”

한순간 잔뜩 일그러지고 괴로워하는 휘아르의 얼굴에 어떠한 말을 해야 될지 알 수 없었다. 멍청하게 되물을 수밖에 없었다. 그가 내게 한걸음 가까이 다가와 끌어안았다. 그의 몸이 다친 사람처럼 바들바들 떨렸다.

“이렇게 아프고 다쳤으면 그만해도 되잖아. 죽지 말고, 이젠 날 바라봐주면 안 돼? 나는 여기에 있어. 아이샤. 나는 여기에 네 곁에 있어. 살아있다고.”

그 말에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언제나 내 속에 가장 깊게 숨겨둔 말을 찾아 꺼내든다. 이제 그만 아프라고. 이제 그만 울라고. 이제 그만 그리 살라고. 그러나 엉망으로 짓이겨진 마샤의 몸이 자꾸 시선 한 켠에 머물러 입을 열 수가 없었다.

제 배로 낳은 자식을 그리 쉽게 버리는 어미도 있는가 하면, 제가 낳지 않아도 제 살점까지 다 주듯이 키우는 사람도 있었다. 온전한 마음하나 받지 못해도, 결국은 뒤로 밀리고 밀려 찾지 않아도 끝없이 기다린다.

혹여 괴롭고 힘들 때 울까 봐 언제나 뒤에 한발자국 머문 채 언제나 곁에 있었다. 제아무리 내가 앓는 소리 한 번 하지 않아도 마샤는 알았다.

마샤는 몰랐어도 아마 알았을지 모른다.

그녀는 날 낳지 않아도 마음으로 낳아 길렀으니까.

“나는 널 사랑해.”

고개를 숙였다. 안다, 그가 날 사랑한다는 걸. 나도 그를 끌어안고 싶었다. 온전히 내 마음 다 주고 싶었다.

하지만.

마샤는 온전히 기다렸다. 제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꼭 오라고. 언제나 그녀의 마음을 송곳으로 들쑤시고, 괴롭히는 건 나였다. 설마하니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이럴 줄은 나조차도 몰랐다.

그녀가 끌어안은 아이들이 너무도 그녀답다. 그래서 휘아르에게 ‘그러마.’ 라고 말할 수가 없었다. 같이 살자고 말할 수가 없었다.

마샤가 그러했듯이 나도 그래야 했다. 왜냐면, 나는 그녀의 아이니까. 설사 제 한 몸 부서질지라도 끌어안고 죽었듯이 나도 그럴 것이다.

나는 그녀의 아이고.

이 성의 주인이니까.

“…그럴 수 없어.”

입가에 피를 토하며 그를 밀어냈다. 그의 얼굴이 얼음보다도 더 창백할지언정 내 결정은 변하지 않았다.

“여길 떠나지 않을 거야.”

그것은 흔들리지 말라는 내 마음의 경고와 다름없었다.

“그게 네…답이야?”

휘아르의 목소리가 부서지듯 떨렸다. 실제로 그의 몸은 떨고 있었다. 아시네헤가 공들여 빚었던, 지상에서 찬란히 빛나는 달의 일족이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내 마음 역시 온전치 못했다.

그를 보는 내 눈 아래에 깊은 어둠이 자리하는 것 같았다. 먹먹하게 가라앉고 떨어져 점차 숨이 막혔다. 그래도 고집스레 입술을 열지 않았다. 입을 열어도 그가 바라는 어떠한 말 하나 나올 구석이 없었다.

더는 흘릴 눈물이 남아있지 않았다. 이제 더 아플 것도, 고통스러울 것도 없었다. 마음이 깊이깊이 가라앉았다. 더는 떠오르지 못할 정도로.

내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였다.

그토록 끊임없이 바랐건만 마지막으로 남은 바람은 생존이 아니었다. 그랬기에 이제 더 노아의 씨앗을 만들 수 없었다. 그 말은 즉, 이제 나에게 이보다 더 크게 마음이 흔들릴 일이 없다는 걸 의미했다.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얼어 발치에 떨어지는 눈물이 아닌, 얼어버린 가슴조차 녹일 눈물을 흘릴 수 있다고 했다. 저주에 걸린 나처럼 그의 모습도 변해 본래 새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를 위해 흘려줄 눈물이 남아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답지 않게 자리에 선 채로 머뭇거렸다. 그 시선이 가엾고 여리고, 한없이 애달파서 입술이 차마 열리지 않았다. 달래줄 수도 없기에 피할 수도 없었다.

휘아르.

어느 날 갑자기, 봄이 시작되는 시기에 새하얀 사슴이 붙잡혀 겨울 성으로 왔다. 그 사슴은 내 눈에만 사람으로 보이면서 멋대로 내게 행동하기 시작했다. 그림자도 없는 것이, 남의 눈에는 한낱 짐승으로 보이는 것이 달콤함에 취해 웃었다.

그리고 울었다.

감정을 모르는 아시네헤의 일족이면서 9년 동안 당연하게 해오던 내 자해를 못 견뎌 하며 스스로의 가슴에 검을 꽂아 넣었다. 사랑해 달라 애원했다. 처음에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 거짓을 속삭인다고 여겼다.

그래서 1년이란 유예기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던 그가 화를 냈다.

레사휘에게 아무렇게나 당하는 내 모습을 보고. 여자로서 무참하게 짓밟혀야 하는 내 모습을 보고. 날 지키기 위해 검을 들고, 날 향해 손을 내밀었다.

언제나 어디서나.

마샤가 조용히 내가 그녀를 필요로 할 때까지 기다리며 있던 것과는 달랐다. 그는 언제든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려고 노력했다. 기다리지 않았다. 끊임없이 바라보고 부르고 손 내밀었다.

하물며 지금조차도.

그는 날 보고 있었다. 아직도 자신을 손을 잡아주길 바라고 있었다. 피투성이의 모습으로 그렇게 서 있는 모습이 미어지게 가엾었다.

그를 사랑해서 진정으로 눈물 흘려줬다면 좋았을 걸. 그럼 그의 저주를 풀어 진정한 모습으로 변하게 해 하늘로 날아가게 해줬을 텐데.

“…미안하다.”

끝에서야 겨우 말 같지 않은 말을 내뱉었다. 이 처참한 곳에 발 딛게 했던 주제에. 나도 결국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멋대로 군 아비와 같았다. 그토록 보내 달라 애원하던 어미에게 모질게 굴었던 것처럼, 나도 아비와 다를 바 없었다.

빈말로라도 사랑한다 말하지 못하는 내가 혐오스러웠다.

“미안해...”

거짓으로도 울지 못하는 내가.

차마 볼 수 없어 고개를 숙여 시선을 피했다.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도 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입술을 더더욱 세게 깨물었다. 이제 되었다. 이제 끝났다. 그러니 어떠한 마음도, 감정의 한 톨도 모두 묻어야 했다. 내가 여기에 스스로 남기로 결정했을 때부터 이제 내 옆에는 아무도 없어야 했다.

나는 그를 사랑하지 않아야 했다.

그래, 나는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

세차게 뛰는 가슴을 외면했다. 그를 볼 때마다 느낀 기쁨을 거부했다. 그가 날 부를 때마다 사정없이 흔들리는 마음을 지웠다. 하지만 나라고 모를까. 아비와는 다르고, 마샤와도 다르고, 나베란과도 다르다.

이토록 올곧고 한결같이 날 바라보고, 나에게 손 내밀 때마다 생각했고, 바래왔다.

나도, 널 위해 눈물 흘리고 싶다고.

바라건대, 저주에 걸려 얼어붙은 여자가 아닌 온전한 여자가 되고 싶다고.

그러나 결국 아니다.

나는 얼음과 다름없어야 했다. 어미에게 버림받을 때처럼, 레사휘에게 모멸 당했을 때처럼, 눈 여우에 의해 내 모든 것이 찢겨진 지금처럼. 모질고 차갑게 벼린 얼음 같은 여자로 남아 그를 내보내고 성을 닫을 것이다. 내가 나고, 살고, 자라왔던 이곳은 이제 내 무덤이 될 것이다.

그러니 실수로라도 말하지 않도록 안간힘 써야 했다. 그래서 시선을 발치에 두었다. 그를 보고 마음 약해지지 않도록.

같이 있어줘.

네 곁에 남아줘.

자칫 실수로라도 말을 내뱉을 까봐. 이제 남은 건 오롯이 나의 일이다. 가시나무가 성 안을 채우며 눈 여우를 붙잡고 있었다. 그렇다면 미처 확인하지 못했으나 분명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설사, 모두가 죽었다 할지라도 나베란이 있었다. 내가 없어도 나베란이 남아 있었다. 겨울 성의 마지막 핏줄.

바닥을 내려다보자 피투성이의 손이 벌벌 떨고 있었다.

“…”

그것을 보자 자꾸만 입술이 벌어지려는 것을 필사적으로 이로 깨물었다. 그럼에도 벌벌 떨리는 손은 멎지 않았다. 한없이 무서웠다, 지금 이 순간이.

이제 진짜 끝이다.

끝을 고하듯 밖에 그토록 잔인하게 내리던 눈조차 멎어 있었다. 떨리는 손을 말아 쥐며 힘겹게 숨을 내쉬었다. 끝은 잔인하다. 9년 동안 살아남기 위해 끝없이 노력했던 결과가 바로 이것이었다. 결국, 혼자 남는 것. 그렇다고 이제라도 모른 척 눈 돌리고 살아가기에 나는 그리 유연한 사람이 아니었다.

내게 맹세를 한 기사들.

나를 주군으로 모신 사람들.

이 안에 죽고 산 사람들과 자신들의 집안에서 숨죽여 있을 위그노드의 백성들. 나는 그들을 버릴 수가 없었다.

고개를 들고 턱에 힘을 줬다.

“나는 널 사랑하지 않아.”

마지막 말에 어떻게든 날 붙잡으려던 휘아르의 손이 아래로 떨어졌다.

달처럼 빛나던 시선이 꺼멓게 죽은 채 가라앉았다. 그가 고개를 아래로 내렸다. 아주 짧은 틈이었다. 그러나 내게는 얼어붙은 마음 한 켠이 부서져 내리는 끔찍한 시간이었다. 휘아르가 고개를 들었다.

더는 내가 알던 얼굴이 아니었다.

무너질 것 같이 흔들리고, 창백하게 질리던 휘아르의 얼굴이 달라졌다. 날 바라보던 시선에는 본디 그것에 감정이라도 깃든 적 없다는 것처럼 가라앉았다.

일순간 낯모르는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무표정해졌다. 아니, 잊고 있었지만 본디 아시네헤 일족이 그러했다.

휘아르 역시 아시네헤의 일족이었다.

“네가 졌어.”

의아스러운 목소리에 휘아르를 바라봤으나 그건 그에게 나온 목소리가 아니었다. 소리는 벽 너머에서부터 울리고 있었다. 혹여나 살아남은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해 움직였으나 무너지는 벽에 의해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흙먼지 사이로 걸어 나온 건, 작은 몸집을 가진 여자아이였다.

“이제 그만.”

여자 아이가 짧게 말하며 나를 응시했다.

겨울 성에서 자라는 아이라 하기엔 본 적 없는 모습이었다. 성 밖에서도 근래 더더욱 길어진 겨울에 아이들이 많이 죽었기에 이정도로 작은 여자아이는 없었다. 이 잔인하고 참담한 틈바구니에서 온전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게 기적이라 할 정도로 어린 소녀였다.

“이제 연극은 그만해. 네가 너무 몰입하는 바람에 시간이 더뎌지잖아. 나한테 더 남은 시간이 없어.”

질책하는 소녀의 시선은 휘아르에게 가 있었다. 내 시선역시 따라 휘아르에게 갔다. 차갑게 가라앉은 무감정한 표정은 한없이 낯설었다.

“휘아르.”

나도 모르게 부르는 목소리를 막을 수 없었다. 갑자기 돌변한 상황만큼이나 돌변한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뭐해? 붙잡지 않고. 계속 날 기다리게 할 거야?”

마치 아는 사이처럼 소녀가 휘아르에게 명령했다. 그 말에 답답한 듯 휘아르가 손을 들어 얼굴을 쓸어내렸다. 손 안에 마르지 않은 피가 얼굴에 묻었어도 그는 개의치 않아 했다. 다시 나를 보며 그가 입을 열었다.

“망했어.”

이제와는 다름없는 말투와 목소리였음에도 본능적으로 이상함을 느꼈다. 뭔가가 달랐다. 한순간 달라진 사람처럼 한없이 이상했다.

날 보던 시선을 돌려 휘아르가 소녀를 노려봤다.

“이게 무슨 짓이지? 그리 조급하게 달려들지만 않았으면 수월하게 해냈을 일이었어.”

“수월하게 해내? 같잖은 소리 마라. 저 여자는 절대 안 돼.”

혀를 차며 소녀가 날 올려봤다. 그 안에 깃든 금색의 눈동자가 맞닿았다. 이제껏 본 어떠한 눈동자보다 더 밝고 진했다.

달을 녹였다 해도 믿을 만큼 진한 눈동자였다. 그러나 그 안에 깃든 빛은 정결하지도, 고고하지도 않았다. 어린 소녀가 갖고 있는 눈빛이라 하기엔 지나치게 광기가 서려 있었다.

“저것은 여자임에도 사랑보다 옥좌에 어울린 자다.”

소녀가 비릿하게 웃었다.

“그래서 내가 더 탐냈던 거고. 과연, 내가 바란 대로 자랐어.”

만족스럽다는 듯 말하며 혀로 입술을 핥았다. 순간, 온몸이 차게 굳었다. 맞닿은 시선이 끔찍하게 혐오스러웠다.

아직 어림에도 불구하고 소녀의 시선은 눈 여우와 다름없었다. 완벽한 강자였다. 먹이사슬의 가장 위. 잡아먹기 위해 바라보는 시선이었다.

“너는 누구지?”

“글쎄, 알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 너는 이제 곧 사라질 텐데.”

소녀가 내게 닿으려는 듯 손을 내밀었으나 차게 쳐내며 뒤로 물러섰다. 아직 어린 소녀였으나 뭔가가 이상했다. 그래, 마치 그 안에 다른 무언가가 들어있는 것 같았다. 절대, 어린 소녀가 보일 수 있는 표정이, 행동이 아니었다.

“아쉽네, 아프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말이야.”

뜨겁게 피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려 주먹을 쥐었다. 고작 쳐냈을 뿐인데 베인 것처럼 상처가 나 있었다. 할 수만 있다면 꾹 눌러 지혈을 했을 텐데 왼팔은 떨어질 때 부러진 건지 이젠 움직이지도 않았다.

“나는 내게 반발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

경고하듯 소녀가 날 바라보며 싱긋 웃었다.

“휘아르를 사랑하질 그랬어. 그럼 아프지 않고 심장만 녹아 죽어버렸을 텐데. 그럼 그 순결하고 예쁜 몸이 상처하나 없이 내 것이 되었을 거잖아. 지금 꼴이 다 뭐야? 아프지 않니?”

다정하고 여상스럽게 묻는 말에 소녀를 노려봤다. 소녀의 금빛 눈동자에 내 모습이 오롯하게 담겼다. 등장했을 때부터 의심했지만, 이 소녀는 인간이 아니다.

겉모습은 분명 아이이나 눈빛이며, 말투, 표정은 어린 아이의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 깃든 건 달랐다. 반이나마 어미에게 이은 피가 속에서 요동친다. 소녀에게서 나오는 위압감이 머릿속에 경종을 울린다.

내 앞에 있는 이 작은 소녀에 대한 두려움을 막을 수가 없다. 그것은 내가 반이라도 아시네헤의 일족이기 때문이었다.

“아시네헤…!”

달의 여신.

빚은 얼음에게 숨을 불어넣어 생명을 준 여신.

인간을 사랑해 이미 진즉에 사라진 아스헤와 다르게 인간을 끔찍이도 싫어하여 얼음장벽 너머 네헤베에 사는 살아있는 여신.

목이 졸린 것처럼 내뱉은 내 말에 앞에 선 소녀는 히죽 웃었다.

“역시 넌 내 마음에 들어. 난 멍청한 것은 질색이거든.”

집요할 정도로 위압적인 시선에 고개를 돌렸다. 내 옆에 선 휘아르를 바라봤다. 혼란스러웠다. 어떻게 아시네헤가. 아시네헤가 어떻게 여기에…!

아무리 그동안 위그노드의 민족을 죽이려 했어도 그녀는 나타난 적이 없었다. 심지어, 아비가 어미를 잡아 가뒀을 때에도.

“휘아르, 너는 알았어? 여기에…”

“아이샤.”

숨이 막혀 헐떡이는 날 그가 다정하게 부르며 손을 내밀었다.

“나도 몰랐어, 정말로. 그러니 이 일은 내 탓이 아냐. 나라면 이렇게 안 해.”

그가 안타깝게 내 뺨을 쓰다듬었다.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이렇게 엉망으로 안 하고 모두 죽였을 텐데. 하나도 남김없이. 그래야 네가 나만 사랑할 거니까. 그럼 네 심장은 나에 대한 사랑으로 녹아 죽어버렸을 테고 내 저주는 풀렸겠지.”

“…!”

다정하게 바라보는 시선으로 다정한 음색으로 말하는 게 소름끼쳤다. 그를 거세게 밀어냈다. 아까처럼 떨던 사람이 아니었다.

부서지듯 흔들리던 사람이.

날 구하기 위해 온힘을 다하던 사람이 아니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사람은.

“어리석긴. 아직도 시간을 탓하고 있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절대 널 사랑하지 않을 거다. 죽으면 죽었지 결코 자신을 위해 살 여자가 아냐. 그래도 네가 어찌어찌 잘하나 했는데. 쯧, 아냐, 이 쓸모없는 것아. 칠칠맞게 아스헤의 혈족과 있는 걸 들키기나 해서 일을 망칠 뻔한 주제에. 그래도 그 멍청한 아스헤의 혈족이 일을 제법 잘 하더군.”

아스헤의 혈족과 있는 걸 들키다니?

데미온과 휘아르라고?

“그게 무슨 말이지?”

휘아르는 계속 내 곁에 있었다. 날 위로하고, 내 곁에서 데미온이 데려간 나베란을 구하고, 여기까지 나베란을 안은 채 싸워왔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에 휘아르를 바라봤다. 발치가 부서져 흔들리는 것 같았다. 그가 조금 이상하게 변했다 할지라도 그는 휘아르였다. 그가 하는 말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다. 아시네헤에게서 날 구하기 위해 연극이라도 하는 걸까?

휘아르.

나의 흰 사슴.

나를 위해 스스럼없이 검을 꽂은 사람.

“레사휘를 죽여야 하는 이유지. 그가 데미온과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버렸거든.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던 터라 이참에 데미온에게 죽이라고 말해뒀었지.”

대답은 무심하게 흘러나왔다. 마치, 기다렸다는 양.

아무렇지 않게 그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내 눈을 경악으로 물들였다. 벌어진 입술 사이로 더는 어떠한 말도 물을 수가 없었다.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거센 손길로 목줄기를 붙잡아 누르는 것 같았다.

피가 흐르는 손끝이 차게 저렸다. 소리가 먹먹하게 울려 들리지 않았다. 휘아르가 뭐라 말하는 데 들리지 않았다.

“너는 그리 살았나.”

라고 말하던 레사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때 당시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노아의 씨앗에 대해 물은 적도, 출처에 대해 관심도 없던 자가 하는 말이라곤 지나치게 낯설었었다. 마치, 그 모든 걸 안다는 듯이 그는 날 그리 바라봤다.

베일 너머 내 눈동자 색을 안다는 듯이.

데미온과 휘아르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무엇을 말했고 무엇을 들었기에 그는

"우리는 결국 모두 다 꼭두각시였던 거야. 너도, 나도. 결국, 이 땅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지.”

라고 말했던 걸까.

“이제 곧 이 땅의 모두가 전멸하고 네 육체가 내 것이 된단 말이었지.”

마치 속이라도 들여다 본 것처럼 아시네헤의 목소리가 먹먹하게 닫힌 귓속을 뚫고 뇌리에 박히듯 울렸다.

“…왜?”

혼란스러웠다. 답답하고 죽을 것 같았다. 그럼에도 속에서 드는 의문을 막을 수 없었다. 대체 왜?

“아비의 죄를 탓할 거라면 9년 전에 이미,”

“아슬렌이 내 명을 거역했거든.”

내 말을 자르며 아시네헤가 담백하게 말했다.

아슬렌.

아비가 붙잡은 아시네헤의 일족. 날 낳은 어미. 그러나 종국엔 저주를 남기고 떠난 내 어미.

몸이 휘청거릴 것처럼 흔들렸다. 그럼에도 기를 쓰고 버텼다. 이 둘을 상대로 쓰러질 수 없었다. 정신을 차려야 했다.

“나는 9년 전 널 네헤베로 데려오라 명했어. 그 멍청한 검은 까마귀만 데려오는 게 아니라! 그럼 이 지지부진한 짓거리를 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부득불 이 죽어가는 육신으로 내가 온 거지. 아직도 모르겠어? 나는 네 육체가 필요해. 지금 육신은 죽어가서 빨리 갈아타야 하거든. 9년이면 그래도 꽤 기다려준 거 아냐?”

날 향해 잔인한 미소를 짓는다.

이 혼란스럽고 이상한 상황의 요점은 하나였다.

휘아르가 날 속여 가며 사랑을 속삭인 것도, 레사휘가 그토록 쉽게 죽은 것도, 데미온의 기사들이 눈 여우로 변한 것도.

그리고 지금 아시네헤가 내 앞에 있는 것도 모두 다.

내 몸을 갖기 위해서였다.

“…하.”

터져버릴 정도로 엄청나게 맞아떨어진 답에 기어이 내 입가에 기막힌 숨이 터져 나왔다. 시선을 돌려 휘아르를, 그리고 아시네헤를 바라봤다. 그리고 발치에 부서진 벽의 잔해와 여자와 아이들의 시체.

그리고 온전하지 못한 마샤의 모습을.

“하. 하…!”

아주 거대한, 극단의 연극을 보는 것 같았다. 가슴 속이 터져나갈 듯 부풀어 지금이라면 웃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애써 입 꼬리를 틀어 올렸지만, 기막힌 숨만이 터져나올 뿐 정작 웃을 수는 없었다.

더는 버틸 수 없어 무너지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토록 살아남기 위해 버텼던 것은 부질없는 일이었다. 아시네헤는 절대 우리를 살려둘 생각이 아니었다. 그저 시기를 가늠했을 뿐. 몸서리치는 겨울에 어른조차 버티지 못하는 추위 앞에 속절없이 죽어가는 어린것들을 보며 이를 악물었다.

다음 해에는 짧아질 거야.

다음 해에는 덜 추워질 거야.

그러나 아이들에게 다음 해는 없었다.

“처음부터…9년 전에 나를 죽여 갖지 그랬어. 힘도 없는 어린 여자애 하나 죽이는 거 당신들한테는 쉬운 일이잖아.”

베일을 방패처럼 쓰고 다니던 어린 여자애 하나 죽이는 건 미숙한 사냥꾼의 검으로도 쉬운 일이었다. 그럼 그토록 혹독한 겨울도, 눈 여우도 위그노드에는 없었을지 모른다.

“저런, 우스운 말을 하는 구나. 말했잖니? 나는 9년 전에도 널 갖으려 했어. 모든 건 다 아슬렌 때문이야. 기껏 내가 옮겨갈 육체를 낳으라고 내 힘을 반절이나 줬더니 기어이 내가 손닿지 못하게 방해해? 네 그 힘! 그게 네 것이라 생각해? 내 것이야. 너는 처음부터 내 것이었어.”

분을 삭히던 아시네헤가 내 얼굴을, 내 몸을 훑었다. 아시네헤의 시선에는 잔인한 소유욕이 깃들었다. 그녀는 진정으로 내 몸을 갖으려 했다. 그녀의 작은 손이 내 머리카락을 붙잡아 빗어 내렸다.

그 손길은 다정하고 조심스럽기 이를 데 없었다.

“그래, 너는 애초에 그러려고 만든 거니까. 처음부터 내 것이었어. 얼음은 금방 녹지. 아무리 내가 공들여 빚어도 내 혼을 받아들이기엔 약해. 하지만 인간은 달라. 아스헤의 경우를 봐. 그런데 나는 싫거든. 그러니 아슬렌을 이용해 만들 수밖에. 나한테는 딱 중간인 네가 필요했거든.”

아시네헤의 손이 이제는 목을 타고 올라왔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쳐 낼수도, 밀어낼 수도 없었다. 절망스러웠다. 손 끝 하나 움직일 수 없었다.

“처음부터…”

그러려고 만들었다.

외면하던 어미의 시선이, 죽어버린 것처럼 굳게 닫혔던 아비의 입매가, 매일 매일 울던 마샤의 흐느낌이 떠오른다. 나는 처음에 내가 동화 속에 나온 이야기의 결말이라 여겼다. 결국은 행복해지는 결말. 그러나 차디찬 어미의 냉대와 샤하웨의 등장에 나는 결국 치욕과 절망의 상징이라는 걸 알았다. 그래서 어떻게든 사랑받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9년 전 정말로 어미에게 버림받았을 때 포기했다.

포기했다.

내게 남은 단 하나만 빼고.

“그럼 다른 사람들은 왜 죽였어?”

순간, 보였다.

경악으로 물든 시선과 파리하게 죽어 벌어진 입술이. 동그랗게 말린 머리카락이 아무렇게나 풀어헤쳐지고, 딱딱하게 굳은 얼굴이.

내 부모.

어디에도 없던 떨어져나간 머리가 아시네헤가 부숴버린 벽의 잔해 사이에 드러나 있었다. 마샤의 시선이 내게 향해져 있었다. 평소에는 절대 나에게 짓던 얼굴이 아니었다. 한없이 두렵고 고통스러운 시선이었다.

그 시선이 내게 꽂혔다.

손을 들어 아시네헤의 손목을 우악스럽게 움켜쥐었다.

"나만 데려가면 되었잖아. 다른 사람들은 왜 죽였어? 우리가 얼마나…! 살아남기 위해 애썼는데!”

사냥터가 점점 줄어들면서 먹을 음식이 점차 사라진다. 그나마 이브실라가 있기에 부족하지 않았던 거지, 결코 풍족한 것은 아니었다. 매해 만년설처럼 굳건하게 자라야 할 아이들이 끝없이 이어지는 눈보라에 지치고, 봄이 되면 내려오는 눈 여우에 녹아 짓이겨진 흙바닥 아래로 사라졌다.

그래서 위그노드의 성에는 아이들이 많았다. 어떻게든 더 먹이고, 더 입히고, 더 자라게 하려고.

어른들은 바랬다.

제발 이 기나긴 겨울 속에 내 아이가 살아남기를.

그래서 나는 바랬다.

제발 내 눈물이 더 오래 가도록.

“왜!”

그랬더니 지금 이 차갑고 삭막한 지하 대피소에 아이들의 시체가 나뒹굴었다. 어디 하나 온전하게 성한 곳 없이 버려져있었다. 아이들뿐만이 아니다. 그들을 지키기 위해 검을 들고 싸우던 어른들의 시체 역시 바스라진 낙엽처럼 부서지고 찢겨 있었다.

“왜 죽였어!”

돌로 가슴을 짓이기고 때리던 것과는 달랐다. 속에서부터 부수고 깨져 터질 것만 같았다. 참지 못하고 섬뜩한 피를 토했다. 그럼에도 속에서 들끓는 건 멈추지 않았다. 이대로 가다간 부풀고 부푼 심장이 터져버릴 것이다.

“나는 너희가 싫어. 정말 끔찍하게 말야.”

진저리를 치며 아시네헤가 붙잡힌 손에 힘을 줬다. 날 그대로 죽이기 위해 목을 붙잡았다. 몸부림치며 이를 악물었다.

“…죽을 거 같아? 절대로!”

입에서 토해내지 못한 피가 눈과 코에서 흘러 내렸다. 뜨겁게 다 녹일 것처럼 흘러내린 피가 발치에 웅덩이를 만들었다. 그럼에도 버텼다. 절대 죽을 수 없었다. 이렇게 하찮게 죽기 위해 우리가 그렇게 기를 쓰고 살아남지 않았다.

기사들이 그리 쉽게 죽었을 리 없다.

성의 정문을 지키라 명했던 아벨린 경, 린드 경, 레만 경, 노어 경.

성의 모든 창문을 막고 눈 여우를 죽이라 명했던 기네드 경, 세이 경.

죽을 때 죽더라도 그들은 모두 제 임무를 완수했을 것이다. 그리 헛되이 죽으라고 보내지도, 쉽게 죽으라고 말하지 않았다.

우리는 긍지 높은 위그노드의 겨울민족.

끝없이 겨울이 밀려와도 죽지 않았다. 우리는 가장 척박하고 혹독한 땅에서 버티고 버텨 정복해 살아남았다.

우리는 위그노드의 겨울민족.

“절대로! 너한테 안 죽어!”

바닥에 떨어진 피 위로 가시나무가 싹 틔우기 시작했다. 거세게 자라나는 가시에 아시네헤가 혀를 차며 몸을 뒤로 물러섰다. 이제껏 보던 것들과는 달랐다. 피처럼 붉디붉은 가시나무가 내 주변을 에워싸며 자랐다.

가슴을 옥죄는 통증에 이를 악물었다.

“그만!”

아시네헤가 비명 같은 소리를 내질렀어도 가시나무는 끝없이 자라났다. 겨울을 내뿜던 이전의 가시나무와는 달랐다. 점차 커져가는 가시나무 속에서 나타난 검은 것들이 휘아르와 아시네헤를 몰아세우기 시작했다.

그것은 눈 여우와는 달랐다. 내 눈물이 아닌 피에서 자라난 가시나무 속에서 나타난 것들은 새카맣고 어두워 마치 그림자 같았다.

마치, 사람의 그림자 같았다.

내 기사들.

내 병사들.

그리고 내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다. 가시나무를 붙잡고 왈칵 피를 토했다. 끝없이 흘러내리는 피에 얼굴과 몸이 피투성이었다. 닦을 틈이 없었다. 저 그림자들은 아시네헤의 것이 아니었다. 그렇기에 아시네헤라 할지라도 쳐내기에 급급했다. 힘을 써도 그뿐. 가시나무는 벽을 뒤흔들고 부술 정도로 계속 커져가고 그 속에서 그림자들은 수도 없이 튀어나왔다.

그들은 사라지지 않았다. 적어도 내가 눈을 뜨고 서 있는 지금까지는.

자꾸 흐르는 피에 발치가 흔들리고 눈앞이 점차 희미해졌다. 가슴이, 아니 그 안에 깃든 심장이 불에 타듯이 뜨거웠다. 내 안에 깃든 얼음이 녹아 심장을 태우고 나를 태워갔다. 그럼에도 버티고 섰다. 더는 물러설 수 없었다.

아시네헤에게 달려들었던 그림자들이 일순간 그녀의 힘에 몰아세워지자마자 험악하게 일그러진 얼굴로 내게 달려들었다.

“너! 너만 잡으면!”

눈 여우의 기다란 손톱처럼 날카롭게 손이 변해 있었다. 피해야 하는데 고작 기대 서있는 게 다였다. 가시나무는 내 피를 빨아먹고, 내 생명을 갉아먹었다. 이 상태로는 도저히 그녀의 우악스런 손길을 막을 수가 없었다. 그대로 놔두면 목을 붙잡혀 꺾일 것 같았다.

검은 장막이 눈앞을 막았다.

일순간 새카만 어둠에 드디어 내가 버티지 못하고 눈을 감은 거라 생각했다.

“네가…네가 감히!”

기괴한 아시네헤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눈을 감았던 게 아니었다. 나는 버티고 있었다. 기절할 것처럼 어지럽고, 입가에 피를 토하고 온몸이 피투성이일 지라도 나는 서 있었다. 검은 장막은 내 앞에 선 사람의 옷자락이었다.

“아이샤.”

샤하웨였다. 그의 차가운 음성이 흔들리는 시선을 바로잡았다.

마치 오래 전에 본 것만 같았다. 그만큼 많은 일들이 일어나 있었다. 그는 오늘 달도 없는 밤에 봤던 모습 그대로 내 앞에 서 있었다.

내 방문 앞에 서 있던 모습처럼.

그러나 나는 너무나 변해 있었다. 더는 숨 쉬는 것조차 잊을 만큼 지쳐 있었다. 저주를 받아 얼어붙었던 가슴 속이 불로 지지듯 타들어 가고, 그 녹아내리는 심장의 피가 저 그림자들을 만들었다. 아시네헤를 물러서게 하고, 휘아르를 막으며 성 안의 눈 여우를 죽이려면 내가 더 버텨야 했다.

힘들고 지쳐도 끝까지 버텨야 했다.

“하찮은 검은 까마귀가 감히 내 앞을 막아서? 비켜!”

아시네헤가 길길이 날뛰며 덤벼들었으나 내 그림자들이 빨랐다. 그림자들이 움직이자 또다시 왈칵 피가 쏟아져 내렸다.

“늦어서, 미안해.”

피투성이의 입가를 흰 손으로 닦으며 그가 말했다. 그러나 그 목소리에는 다정함이라곤 없었다. 무심한 아시네헤의 일족.

감정을 모르는, 그러나 그 손길에 왈칵하고 치솟았다. 그는 그러했다. 어릴 때부터. 다정한 말 한마디, 다정한 눈길 한 줌 없으면서 손 내밀면 닿을 거리에 있었다. 고개를 들면 내 앞에 서 있었다. 내 심장은 9년 전부터 얼어붙어 있었다. 그래서 웃을 수 없었고, 감정이 무뎌지고, 울 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 타오르는 감정의 불길에 심장이 녹아내리는 그 순간부터 눈물을 막을 수 없었다. 눈에서 흐르는 건 피와 눈물이었다.

사랑으로 녹은 게 아니라, 끔찍한 분노로 내 심장이 녹아 흐르는 눈물이. 저 그림자들은 그 피와 눈물로 움직이고 있었다.

“…”

막을 틈 없이 그가 날 붙잡아 안아 올렸다. 그 순간, 타오르는 불길처럼 활활 타던 몸이 진정되듯이 다시 차게 얼었다. 샤하웨의 힘이었다. 남김없이 불태우던 심장의 불길이 조금씩 사그라들었다. 다시 얼기 시작하자 고통스런 통증이 잦아들었다.

“가자.”

“어딜, 감히!”

그가 날 안아 올리자 아시네헤가 발악하며 소리 질렀다. 하지만 샤하웨는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무심한 시선은 그저 내게 향해 있었다.

“잡아!!”

그녀의 외침에 어디선가 나타난 눈 여우들이 그림자들을 잡아먹기 시작했다. 몸이 덜덜 떨렸다. 내 몸에서 흐르는 피가 끊임없이 샤하웨의 품에서 흘러내렸다. 다시금 타오르는 통증이 몸을 잠식했다.

샤하웨는 서둘러 이 자리를 벗어나려 했으나 쉽지 않았다. 그만큼 아시네헤는 절실했다. 죽어가는 몸이라 했으면서 그녀는 강력했다. 아무리 샤하웨가 심장을 태우는 불길을 잠재우려 노력해도 이미 다시 시작된 통증에 고개를 흔들며 이를 악물었다.

“…!”

악물린 시선 틈바귀에 휘아르가 보였다.

무심한 아시네헤의 일족.

거짓으로 사랑을 속삭인 자.

벌벌 떨리는 잇새로 그를 노려봤다. 나는 그를 믿었다. 그러나 그 믿음의 대가는 배신이었다. 눈에서 흐르는 핏방울이 그를 향해 흘러내렸다.

그의 시선이 내게 고정된 것처럼 멎었다.

그토록 내 진실한 눈물을 바랬으나 그에게 흘려준 눈물은 이렇게 고통과 분노로 점철된 피눈물이었다. 그의 저주를 푸는 눈물이 아니었다.

“너를…증오한다. 그런 널…사랑한 나도 증오해.”

그의 투명한 얼음같이 차가운 얼굴이 일순간 부서져 일그러졌다. 그가 입술을 열었으나 더는 보고 싶지 않아 시선을 돌렸다.

“잡아! 잡으라고! 당장 잡아!”

아시네헤가 손을 내 뻗자 눈 여우들이 우루루 나와 샤하웨에게 달려들었다. 더는 기력이 없어 그림자들을 만들 수 없었다. 샤하웨가 필사적으로 움직였으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아시네헤의 만족한 웃음이 귓가에 찢길 정도로 울렸다.

“휘– 데르”

고요한 음성이 눈 여우 사이를 휘몰아쳐 그들을 녹아내리게 했다. 지하실 안을 채울 정도로 울리던 아시네헤의 웃음소리가 멎었다.

“뭐하는 짓이야, 휘아르!”

그 틈에 샤하웨가 빠르게 부서진 천장 위로 올라섰다. 흔들리는 시선 사이로 휘아르가 보였다. 그의 금빛 눈동자는 그저 고요했다. 그의 음성만큼이나. 아시네헤가 비명을 지르며 휘아르의 뺨을 세게 후려쳤다.

“네가 정신을 못 차렸구나! 저주하고 또 저주하리라. 네가 헛된 사랑이란 것에 날 배신했지. 그러니 너는 결코, 네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지지도 못하고 독이 될 거야.”

샤하웨의 품에 안겨 휘아르에게 토해지는 그녀의 저주를 피해 도망쳤다. 이상하게 그의 눈동자가 보였으나 이내 눈을 감았다. 더는 버틸 수 없었다.

“나…”

샤하웨의 옷자락을 붙잡았으나 말이 더 나오지 않았다. 곧 죽을 것처럼 심장이 요동치지 않았다.

나베란.

나베란.

차마 말이 되지 못한 말은 사라지고 샤하웨의 검은 옷자락만큼이나 어두운 시선 아래로 잠겼다.

눈을 뜨자마자 아련할 정도로 익숙한 풍경에 눈살을 찌푸렸다. 그 사람의 앞에서는 저도 여자라고 이 유리 화원에 가득한 꽃내음이 흐드러지게 피어 어여쁠 때도 있었다. 손으로 앞을 가린 것을 쳐내자 파삭하고 바짝 마른 것이 힘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바닥에 밟혀 종잇조각처럼 소리 나는 것에 시선을 던졌다.

지금 이렇게 밟히는 이것은 더는 꽃이라 말할 수 없었다. 한 때는 눈 사이로 기묘하게 아름답던 꽃들은 이제 허상처럼 쓰러지고, 옛 자취만 흉물처럼 남아 그나마 좋은 기억도 별 남지 않는 이곳을 더 암울하게 한다.

꽃은 지고 바짝 말라 예전의 생기는 사라지고 남은 건, 껍질만 남은 허상. 그 안에 있던 건 어디로 갔을까.

“…”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는 여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저 여자도 꽃이었던 적이 있다. 밝고 사랑스러우며 지상 그 무엇보다 아름답게 빛나던 꽃이었던 때가.

“어째서…! 어째서 그딴 인간을!”

그러나 지금은 흉물스럽게 남은 껍데기였다. 하얀 얼굴이 온통 젖을 정도로 흐느껴 울던 여자가 얼마나 긁어내려는지 피투성이의 바닥을 내려치며 악에 바친 비명을 내질렀다. 반짝이던 새하얀 머리카락이 흉물스럽게 변했다.

“왜! 그딴 인간 여자가 뭐라고! 나를…, 나를!”

여자는 구슬피 울고 애달파 했지만, 이건 예고된 비극이었다. 처음부터 그 사람은 이 여자를 사랑하지 않았으니까. 이토록 절절하게 괴로워할 거면 곁에 있어달라고 말이라도 하지. 여자는 그러지 않았다.

늘 그러하듯 그 사람이 제 곁에 남아있어 줄 거라 믿었다. 태초의 약속대로.

그러나 꽃이 지듯, 약속역시 바래고 말라 바닥에 떨어지는 법이다. 그걸 여자는 몰랐다. 그리고 그로 인해 벌어지는 모든 것들을 그 사람은 외면했다. 태양은 홀로서도 빛났지만, 달은 아니었다.

흐느끼는 여자를 향해 작은 손이 내뻗어졌다.

“…울지 마세요.”

아이는 하얗고 작았다. 그러나 태양의 그림자를 닮아 있었다. 그 모습에 여자의 얼굴이 더욱 사납게 일그러졌다. 아이의 작은 바람은 억세게 휘어잡는 여자의 손길로 인해 무너지고 망가졌다.

“너! 너 때문이야! 이 모든 게 다. 네가 있어서!”

바짝 마른 꽃이 또 하나 바닥으로 떨어졌다.

몸을 돌려 외면했다.

이 혐오하리만치 끔찍한 것.

그래, 이것은 꿈이다.

내 본성역시 이것처럼 악하다는 걸 경고하듯. 그러니 그리 쉽게 웃고, 배신했겠지. 그리 쉽게 떠난 그 사람처럼.

그리고 이제는 그때의 일에 대해선 기억조차 못하는 여자처럼 나 역시 모든 걸 새까맣게 그리 잊을 것이다.

“안녕. 너, 나랑 놀래?”

눈이 소복하게 쌓인 나뭇가지 사이로 빼꼼 얼굴을 내민 소녀의 눈동자는 태양에 빛나는 얼음조각처럼 반짝반짝 빛이 났다. 내가 먼저 바라보긴 했으나 이렇게 마주친 적은 이제껏 단 한 번도 없었다. 마주치는 걸 내가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예쁜 새야, 날 두고 가지 마.”

그러나 재차 부르는 목소리가 머뭇거리게 하고 자꾸만 시선을 나무 아래, 지상에 두게 했다. 시리도록 새하얀 얼굴에 자리한 붉은 뺨이 옅은 푸른 눈동자 아래 도드라졌다. 그리고 맑은 날의 호수 같은 그 푸른 눈에 내가 비쳤다. 이제껏 마주치지 않았던 것은 내가 원치 않았기도 했지만, 새의 시선이었기 때문이었다. 멀리서도 바라볼 수 있는, 마주치려 하면 금세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면 되는.

내가 가만히 날아가지 않고 있자 용기가 났는지 소녀가 붉게 물들인 볼을 움직이며 웃었다. 봄이라지만 여기는 위그노드인지라 두꺼운 옷을 잔뜩 껴입은 소녀가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다.

나를 향해.

“이리 와. 응? 나랑 놀자.”

내가 정말 새인 줄 알고.

입술을 둥그렇게 말아 휘파람 비슷한 소리까지 내며 재차 날 불렀다. 발그랗게 물들인 볼, 푸른 눈, 옅은 금사와도 같은 머리카락. 어디에도 어머니의 흔적은 없었다. 그럼에도 저 아이는 어머니를 닮았고, 어머니의 딸이었다.

내 어머니에게서 난 딸.

그러나 그뿐. 나와는 전혀 다른 존재였다. 하물며 저건 아시네헤의 일족도 아니었다. 결국은 스러져 죽을 인간. 어머니를 돌려 달라 떼를 쓰기엔 가슴 안이 공허하기 짝이 없다. 아, 쟤가 내 어머니가 낳은 딸이구나.

그저 그뿐.

겉모습만은 어떻게 얼음을 빚어 인간과 비슷하게 만들었지만, 결국 내용물은 얼음이었다. 텅 빈 채로 얼어붙어 있었다. 그저 시선 한 줌을 계속 주는 이유는 궁금함 때문이었을 것이다.

아시네헤의 바람에 따라 어미가 낳은 결과물.

“예쁜 흰 새야. 제발 이리로 와줘.”

장갑까지 벗은 소녀의 손이 파르라니 떨렸다. 내게 뻗지 않은 손은 두꺼운 나무를 붙잡고 있었다. 오르지도 못할 나무를 야속하게 움켜쥐고, 나를 향해 간절히 눈을 마주쳤다. 그러나 더 볼일은 없었다.

“…앗!”

날아오르자마자 소녀의 짧은 비명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흘깃 시선을 주자 아까까지 나무기둥을 붙잡고 있던 소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그 짧은 틈에 마치 우리가 발휘하는 힘을 쓰기라도 한 건지 사라져 있었다.

곧장 네헤베로 넘어가려다 그 자리에 둥그렇게 맴돌았다. 그러다 나무에서 좀 떨어진 아래, 소복하게 쌓인 눈 더미 사이로 소녀의 옅은 금빛 머리카락이 보였다. 소녀가 서 있었던 곳은 살짝 경사가 진 둔덕이었다. 떨어지지 않기 위해 나무기둥을 붙잡고 있었던 건데 허탈함에 그걸 놓친 모양이었다.

다시 나뭇가지 위에 올라앉았다.

하루 종일 재잘재잘 거리며 홀로 눈 덮인 곳을 돌아다니는 소녀가 처음으로 잘 때 외에 입을 다물고 고요했다. 아니, 모습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아무리 인간이어도 그래도 어머니가 낳은 딸.

뭔가 보여주지 않을까?

아시네헤가 바란 결과물이니까.

얼어붙은 얼음일지라도 감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다. 우리에게도 아주 얕게, 아시네헤가 우릴 빚었을 때 품었던 그 한 방울의 감정은 존재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소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만약, 이대로 죽으면 어찌 되는 걸까?

인간은 쉽게 죽는다. 나이를 먹어도 죽지만, 그보다도 더 일찍 죽기도 한다. 조금만 더 추워도, 조금만 더 배가 고파도, 조금만 더 아파도 죽는다. 우리에겐 추위도, 배고픔도, 아픔도 아무것도 아닌 감정과 같았지만, 인간은 아니었다.

어찌할까 고민하다 옅은 한숨을 내쉬며 바닥으로 내려갔다. 눈에 찍힌 발자국이 새의 것과는 달랐다. 정말로 눈더미에 숨이 막혀 죽은 걸까? 움직임조차 없다.

조금만 더.

“와, 잡았다!”

고작 어린 소녀. 그 소녀의 손에 쉽사리 날개 끝이 잡혔다. 버둥거려도 이미 때는 늦었다. 아시네헤가 말한 적 있다.

인간은 간사하다고.

치사하고, 영악하며, 무엇이든지 갖기 위해서라면 모든 걸 불사한다고.

그래도 반이나마 어머니의 딸. 뭔가 다를 줄 알았는데 고작 인간이었다. 숨을 죽이고 눈더미에 있다가 그대로 날 붙잡았다. 힘을 써야 하나? 정체가 드러날 수 있는 일이라 가급적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대로 있다면 이 소녀의 아비처럼 나를 새장 안에 넣을 수도 있었다.

“놀랐지? 네가 하도 안 오니까. 나는 날 수 없거든. 우리 어머니는 새라지만 나는 아냐. 나는 날개가 없어.”

소녀가 말하던 말던 날개를 더 크게 움직이며 펄럭였다. 이렇게 네헤베를 벗어났다는 걸 아시네헤가 알았다간 불호령이 떨어질 일이지만, 더 급한 건 붙잡혔다는 거였다. 아시네헤는 내가 이 소녀 곁에 맴도는 걸 달가워하지 않았다.

“아, 앗! 그러지 마. 날개가 다치잖아. 내가 놓을게. 미안해. 함부로 붙잡아서...”

붙잡은 손을 쪼며 크게 날갯짓 하자 붙잡힌 날개 쪽의 깃털이 떨어졌다. 손을 쪼을 때엔 가만히 있던 소녀가 깃털이 떨어지자 놀라 손을 놓았다. 그 틈에 세차게 날개를 움직이자 소녀의 빈손이 허공에 머뭇거리듯 남았다.

“미안해. 나는 그저 친구가 갖고 싶어서...”

떨어지는 날개깃 속에서 소녀의 목소리가 작게 내밀어졌다.

친구?

하늘 아래에서 소녀를 내려다보며 어이없는 숨이 짧게 나왔다. 가만히 점처럼 웅크리고 있던 소녀의 주변이 온통 하얗기만 했다. 내 모습이 보이지 않을 진데 소녀는 움직일 생각이 없어 보였다. 이 척박한 눈 덮인 땅에 홀로.

소녀의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 인간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하나 그래도 저 소녀는 영주의 딸이 아닌가.

그럼에도 늘 혼자였다.

한 번씩 몰래 성을 들여다 볼 때면 으레 저 소녀는 혼자였다. 어머니 곁에서 쉼 없이 재잘거려도, 그녀 주변에 누군가 붙어 있었어도 저 소녀는 혼자였다. 말 걸어주는 이가 거의 없었다.

젖을 주고 키운 여자만이 소녀를 돌볼 뿐.

아시네헤가 바란 결과물.

그렇기에 아무리 아시네헤의 일족이라 하나 어미조차 손을 놓고, 인간이 아닌 것의 딸이니 다름을 경외시하는 눈들에게는 배척받고 있겠지. 그렇지 않다면 아직 어린 저 애가 여기까지 나올 리 없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홀로 눈 덮인 땅을 거닐고 친구가 되어달라며 새를 붙잡진 않았을 것이다.

나무 꼭대기 위에 선 채 아래를 내려 봤다. 어느새 새의 모습은 털고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와 그 시선으로 소녀를 바라봤다.

그래, 처음엔 그저 흥미였다.

어머니의 딸.

조금 궁금했다. 나와 닮진 않았을까 하는 그런. 우리의 육체는 아시네헤가 준 거지만 그래도 궁금했다. 그리고 우리가 아닌 아시네헤가 바란 결과물. 그것이 과연 어찌 생겼나 궁금했다.

소녀는 인간이고, 아시네헤의 일족인 어머니에게서 무엇 하나 물려받지 않았으면서도 어머니를 닮았다. 아주 조금 더 오래 지켜보면 더 닮은 걸 발견할 수도. 어쩌면 나와 닮은 점도.

그리고 어차피 이제 몇 년 안에 네헤베로 넘어와 죽을 소녀라는 게 다시 날 움직이게 했다.

발끝을 그러모아 서러워 울음을 삼키는 소녀 앞으로 걸음을 내딛었다. 소녀가 부른 하얀 새의 모습으로.

“…다시 왔어?”

우리는 새의 모습이지만 진짜 새는 아니다. 본디 속은 얼음. 새처럼 구는 건 하늘을 날 때뿐이다. 그럼에도 소녀의 앞에선 제법 새의 모습을 했다.

“나랑 놀 거야?”

어찌 놀아줘야 하는 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순순히 손 안에 머뭇거리듯 부리를 내밀었다. 그러자 소녀가 감격한 울음 섞인 웃음을 터뜨리며 조심스레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까처럼 아프게 하지 않을게.”

이것은 제법 나쁘진 않구나 라고 스치듯 생각했다. 그러나 그뿐 떨어지듯 떨어지지 않듯 그렇게 맴돌 뿐이었다. 쓰다듬게 해준 건 단 한번뿐이었다. 그뿐이면 될 거라 여겼다. 그러나 나역시 어리고 미숙했다.

지나친 흥미는 독이 된다는 걸 알면서도 간과했다.

그리하여 지금.

상처받아 짓이겨지고 녹아내린 심장에서 흘러내리는 피로 죽어가는 얼굴을 목도하게 되었다.

“아이샤.”

고통에 기절한 얼굴을 내려다보며 어릴 때의 소녀를 찾았다. 그러나 그때 그 말갛게 붉은 뺨을 가지고, 새파란 눈동자를 빛내던 소녀는 녹아내리는 심장처럼 사라지고 없었다.

약속한 날은 머지않았다.

앞으로도 이렇게 가까운 듯 가깝지 않게, 먼 듯 멀지 않게 있으면 결국은 다가올 날이었다. 그러나 어린 소녀는 그런 걸 알 리 없을 텐데 매일 매일을 분주히 움직였다.

“오늘도 데려가 줘.”

반짝이는 푸른 눈은 어제와 다름이 없었다. 겨울 성의 창 밖에서 바라보는 어린 여자아이는 매일 매일 울었는데 다음 날 바라보는 푸른 눈은 그 모든 걸 잊은 것처럼 희망에 차 있었다.

오늘은 봐주겠지.

저 작은 손이 시리도록 하나 가득 얼음 눈꽃을 품에 쥐고 희망을 담아 날 부른다. 얇은 나뭇가지 위에 앉은 채 가만히 내려 봤다. 소녀는 절대로 알 지 못하는 냉기를 품은 시선으로.

‘모두 부질없어.’

어머니는 절대 널 봐주지 않을 거야.

달의 일족에게 아시네헤가 어떤 의미인지 그것은 절대 우리가 아니고서 알지 못한다. 낳아준 부모보다도, 세상의 권력자보다도 더 거역하기 어렵고, 뜻에 반하는 게 어려운 분이었다. 아무리 사람처럼 생기고, 말하고, 생각할 지라도 그 분 앞에서 우린 태초의 모습 그대로 얼음이었고, 무생물이었기 때문이었다.

어느 때고 우리는 녹아버릴 수 있었다.

나 역시 무모했다. 아시네헤가 다가가지 말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번번이. 그러나 나 역시 어리석을 정도로 어렸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매번 생각하면서 이렇게 또다시 일족의 ‘샘’으로 데리고 간다.

오로지 일족이 안내자가 되어야만 갈 수 있는 그곳은 이상한 곳이었다. 마치 숨기듯 빽빽하게 가려진 새하얀 침엽수 사이로 하늘을 모두 담을 것 같은 거대한 호수가 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얼어붙은 채 새하얗게 성에가 낀 눈꽃이 자라있다. 이 바깥에 봄이 와도 이곳은 언제나 얼어붙어 있었다.

일족은 이 호숫가를 ‘샘’이라 불렀다. 이 호수에는 그리워하는, 보고싶어 하는 사람의 모습이 비춘다고 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인지는 아무도 몰랐다. 사람과 유사한 모습을 지닌 것처럼 유사한 감정의 편린만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을 리 없었다.

미약한 호기심으로 슬쩍 곁눈질해 바라본 호수는 본디 차게 굳어 흐르지 않는 얼음의 모습처럼 아무것도 비치지 않았다. 일족의 그 누구를 데려올 지라도 저 호수 위에 타인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그런 기묘한 호수를 아시네헤는 왜 만들었을까.

일족만이 갈 수 있으나, 일족은 절대 오지 않는 이곳을. 그녀도 지금 저 애처럼 그리고 바라는 사람이 있었던 걸까.

꽃을 꺾느라 호수 쪽에는 시선조차 주지 못하는 소녀의 모습 대신 호수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었다. 신기해서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봤다.

어느 때는 소녀와 닮은 남자가.

어느 때는 어머니가.

어느 때는 소녀와 함께 성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직 채 여물지도 않은 어린 여자애가 바라고 그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호수가 어지럽게 일렁였다. 하지만 눈꽃을 품 가득 끌어안을 때 즈음엔 어지럽게 일렁이던 그림자가 하나로 합쳐져 하나를 만들었다.

어머니.

단 한 번도 말 걸어주지 않은,

제대로 바라봐주지도 않은,

손 한번 붙잡아주지도 않은,

바로 그 어머니를.

순간, 그 무엇도 아닌 감정들이 뒤엉켜 울컥 치솟았다. 세차게 날아올라 일렁이는 호수 위에 돌을 떨어뜨려 비추는 그림자를 흐트러뜨렸다.

“무슨 일이야? 깜짝 놀랐어!”

어느 때고 닿지 않게 가지 위에 앉아 품에 눈꽃을 다 꺾었을 즈음이면 다시 날아올라 밖으로 안내한다. 그것이 일과였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다.

우리는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

새하얀 이마 위를 감싸는 어린 햇살 같은 머리 아래로 푸른 눈동자가 반짝인다. 태양 옆에 자리한 하늘처럼 더없이 푸르다. 추위에 볼은 빨갛게 물들이고, 연신 손이 시린 지 꽃을 끌어안지 않은 손을 번갈아 호호 분다. 그리 추우면 장갑을 끼지. 장갑을 끼면 꽃을 움켜쥐기 어려워 매번 꽃을 꺾을 때 장갑을 벗어 작은 손이 마른 장작만큼이나 새카맣게 얼어붙었다.

너는 알까. 너는 이제 곧…

“아이샤.”

본디의 모습으로 변해 소녀의 앞에 서자 놀랐는지 품안에 쥐었던 꽃 한 송이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소녀가 놀라 얼어붙자 도리어 나 역시 놀랐다.

“놀라지 마.”

그건 나에게도 하는 말이었다.

나는 어쩌자고 이 애 앞에 섰을까. 이제라도 모른 척 도망갈까.

“누구야?”

그러나 언제 얼어붙었냐는 양 소녀가 먼저 내 쪽으로 한 걸음 다가왔다. 이렇게 마주 서고 보니 알겠다. 이 소녀는 아직 어리다. 아직 나보다도 작은 아이. 이렇게 갑자기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럼없이 호의를 내비치는, 제 어미와 닮은 흔적만 바라봐도 좋은 그런 어린 아이였다.

한숨이 턱 끝까지 치솟는 걸 내리 눌렀다.

“나는 샤하웨. 네게 부탁이 있어.”

“부탁?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거라면 들어줄게.”

이렇게 누군지도 모르고, 갑자기 나타난 낯선 이의 부탁을 선뜻 들어주겠다니.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걸까? 이러다간 약속의 날이 오기도 전에 죽겠다. 이 소녀의 아비인 성주에게 반발하는 자가 이 애를 납치해 죽이는 일이 사냥을 하는 것보다 더 쉽겠다.

지켜줄 이도, 바라보는 자도, 하물며 자기 자신조차 경계가 없으니.

위협을 해서 경각심을 가지라 할까? 이렇게 작으니 목이라도 움켜쥐면 금방 부러질 것 같았다. 그럼 조금은 무서움을 느끼지 않을까.

“…”

그러나 생각대로 손을 뻗을 수는 없었다.

차라리.

내가 곁에 있어주면 안 될까?

약속의 날까지만.

“나를 성에, 저녁 식사에 초대해줘. 내가 성에 들어가려면 네 초대가 필요하거든.”

나도 모르게 간절함이 목소리에 배어 있었다. 이건 그냥 약속의 날까지 살려두려고 하는 행동일 뿐인데.

“왜? 그런 게 왜 필요한데?”

“… 때문에 성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부탁이야.”

‘약속’ 때문에 들리지 않는 말을 재차 소녀가 물어봤지만, 헛수고였다. 이 말은 절대로,

“좋아.”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내뱉는 말은 조금 충격적이었다. 물론, 그러한 내색은 절대 드러날 일이 없다. 소녀가 꽃다발을 한 손으로 끌어안고 나머지 손을 내밀었다. 천천히 손을 붙잡았다. 얼마나 손이 얼었는지 붙잡자 외려 내 손이 따뜻할 지경이었다.

얼음보다 차다니.

얼어 곱은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는데 소녀가 손을 잡아당겼다. 이제 성으로 돌아가자고.

“왜? 안 갈 거야?”

맞잡은 손에 힘을 줬다. 내가 지금 성으로 들어가는 건 분명 어머니가 원치 않을 일이다. 아시네헤 역시 바라지 않은 일이다. 이건 내 치기어린 고집이었다.

이제라도 돌이키려면 손을 놓으면 된다.

손을...

이 위선과 기만의 손을 놓으면 된다.

“아이샤, 미안해.”

그것이 메마른 감정만큼이나 적은 위선이었지만, 필사적으로 그러모은 안타까움이었다. 내가 널 지켜보기 위해 성으로 들어간다면 너는 더 울게 될 거야. 의지하던 희망 하나를 잃고 더더욱 절망에 빠질 거야.

그럼에도.

손을 놓을 수가 없었다. 우습게도 곁에 있고 싶었다. 어째서 이렇게 돼버렸을까 싶어도 이미 그러고 싶다고 마음에 새겨진 뒤였다.

아시네헤는 누누이 우리에게 감정이 없다고 말했다.

“괜찮아.”

소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냐, 우리에게도 감정은 있어.

지금 이 아이를 지키고 싶어. 설사, 날 미워하게 될 지라도.

겨울성은 거대한 새장이었다.

누구나 열린 성문으로 왕래할 수 있는 곳이었으나 오직 아시네헤의 일족만이 거부당했다. 그것은 새를 새장 안에 두길 염원한 성주의 바람이 이루어낸 거래였고, 그로 인해 나 역시 성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

물론, 그걸 구태여 바란 적은 없었다.

주인의 피를 이은자의 초대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새장에 구태여 들어가고 싶은 새는 없었다. 더욱이 그곳은 한 번 발을 디디면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감옥이었다.

“어서 와.”

소녀의 손을 잡고 성 안으로 발을 디딘 순간, 깨달았다.

다시는 새의 모습으로 날 수 없음을. 날개가 꺾인 채 지상에 묶였다. 묵직하게 내려앉는 무게감. 이토록 내리누르는 압박감은 전에 느껴본 적이 없었다. 여긴 고인 물이었다. 고여서 탁하고 음습하게 가라앉은, 결국은 썩어 악취가 날 그런 곳.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결국 그 고인 물은 썩고 이곳은 병들 것이다. 이 성벽을 두른 마법에 의해, 어머니의 뱃속에 깃들다 그리고 종국엔 죽을 이 소녀의 안에 깃든 그 힘에 의해.

“내가 안내해줄게.”

손을 잡아당기는 힘에 그런 불안감과 끔찍함이 사그라들고 묘한 기분이 들었다. 이제껏 바라보던 새의 시선이 아니라, 날 똑바로 마주보는 시선이라니. 닿은 손길도, 부르는 목소리도 무언가 이상했다.

“샤하웨.”

이름이 불렸다.

예쁜 새야. 하얀 새야. 그리 부르던 소리가 아닌, 정확히 나를 부르는 목소리에 순간 목 언저리가 선뜩할 정도로 뜨거워 목 언저리를 살짝 매만졌다. 맞잡은 소녀의 손바닥처럼 미지근하게 따뜻했다.

뜨거운 게 아닌, 그렇다고 차가운 게 아닌.

이상하게 따뜻한 그런. 뭔가가 낯설고 어색한 따스함에 맞잡은 손이 녹을 것 같았다. 이대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만 같았다. 그런 내 머뭇거리는 행동에 소녀가 고개를 돌려 다시 날 바라봤다. 푸른 눈에 내 모습이 비쳐 보였다.

어정쩡하게 서 있는 채 목을 매만지는 소년이.

아.

그러다 눈치챘다.

“아이샤.”

이름을 부르자 명확해졌다.

그건 기쁨이었다. 이름이 불리자 기뻐 곤혹스러워하는 표정이 고스란히 소녀의 푸른 눈에 비치고 있었다. 서늘한 얼굴에 깃들 정도로 선명하게 드러난 감정에 놀라 움직일 수 없었다.

나는 지금 이 애가 여기에 나와 함께 있다는 게 기뻤다.

아무리 썩고 악취나는 공간이라 할지라도 이 안에 있으면 이 소녀는 안전했다. 더 밖으로 나돌아 위험에 노출당할 필요는 없었다. 아시네헤가 이 소녀의 10년을 약속했지만, 그건 모를 일이다.

본디 여신은 변덕이 심하다.

그녀의 손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부서지고 녹아내리는 일족은 많았고, 어느 순간 다시 빚어져 그 끔찍함만을 떠올리며 되살아난 자도 있었다. 마구잡이로 내리는 폭풍우처럼 그녀는 예상할 수 없으며 위험했고, 또한 끔찍했다.

언제 마음이 변했다고 다른 일족을 통해 그녀를 잡아갈지는 모를 일이다. 멋대로 죽여 그 몸을 취할 지도 모를 일이다. 더군다나 이 소녀는 아직 인간이었다. 추위에 죽고 마는, 굶주림에 괴로워 하는 어린 인간.

그러니 모든 게 모를 일이다.

지켜줄게.

맞잡은 손에 힘을 실었다.

네가 싫어할지라도 지켜줄게.

처음의 그 반짝이는 시선이 거멓게 가라앉아 종국엔 날 향해 몸서리치며 끔찍해할지라도 나는 아이샤를 바라봤다. 그녀의 아버지는 아버지임에도 성의 주인이라는 게 더 먼저였다. 제 딸의 안위도 중요했지만, 가장 큰 범주는 인간들이 사는 이 땅. 이 땅의 안전이었다. 아시네헤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그는 인간들을 다스리고, 지키고, 살아남으려 애썼다.

그가 훌륭한 성주가 되면 될수록 그의 단 하나뿐인 딸은 외롭고 고독하게 지내야 했다. 어머니는 북풍의 한기처럼 냉기만 지닌 채 스쳐지나가기만 할 뿐, 절대로 마주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이샤의 눈물은 내가 온 날 이후부터 끝없이 베개를 적실 정도로 흘러 내렸다.

배신당했다고.

결국 어머니에게 버림받았다고.

처음의 발랄함과 밝음의 어디로 가고 그 애는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울부짖은 채 절대로 날 용서하지 않았다. 예상했던 결과였다. 애시당초 자격이 없었다. 나는 아시네헤에게서 아이샤를 지킬 자신도, 용기도, 희망도 없었다.

10살의 겨울이 오기 전까지 지켜보고 싶다는 욕심을 가졌을 뿐. 그러니 지키겠다는 소망을 입 밖으로 내뱉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니까 미움 받아도 어찌할 수 없었다.

“오지 마!”

손끝에 떨어져 부서지는 사기그릇처럼 소녀의 마음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는 게 눈에 보였다. 가까이 다가가면 싫어함을 알면서도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어머니가 더 깊은 정을 주지 말라 누누이 말해도 눈에 보이지 않으면 초조했다.

또 어디로 간 걸까.

혹시 무슨 일이 난 걸까.

움직이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다. 결국 눈을 마주치면 이렇게 큰 사단이 나는 걸 알면서도 나는 견딜 수 없었다.

“네가 끔찍해! 너 때문에 나는…! 나는!”

내 앞에서 나약한 척 하지 않으려고 입술을 뭉개며 아이샤가 얼굴을 피했다. 그 모습 앞에서 부서지고, 녹아내리는 것은 나 역시 매한가지였다. 남들이 보기엔 서늘하기 그지없는 얼굴일지라도 그 안에 녹아내린 감정이 수없이 흔들렸다. 바라만 보는 새로 남았어야 했을까. 아니, 애초에 흥미조차 주지 말았어야 했을까.

부서진 사기조각에 시선을 던지며 고민했다. 이토록 괴로워하는데 내가 더 짐을 얹는 게 아닐까. 어차피 그 짧은 생애에 기쁨보다 고통과 괴로움만이 더 많이 남을 아이에게 내 이기적인 욕심으로 더 괴롭히는 게 아닐까.

그러나 그런 고민들도 흐느끼듯 새어나오는 울음소리에 흩어지고 사라진다. 오로지 남는 건 울음소리 뿐.

고개를 들어 소리를 찾았다. 혹시 아까 사기그릇을 던지다가 다친 건 아닐까. 아이샤는 아직 어렸다. 숨죽인 울음소리에 속이 답답하다. 보이지 않는 게 괴로웠다.

도대체 어디로 숨었을까.

까득―

발아래에 나는 소리와 함께 알싸한 통증이 발에 느껴졌다. 시선을 아래로 내리자 붉은 피가 부서진 사기그릇 사이로 흘러 퍼져나갔다. 본디 모습이 얼음이니 우린 추위를 타지 않았다. 그게 화근이었다. 두꺼운 신발이 필요치 않아 얇게 신은 가죽신을 뚫고 날카로운 사기조각이 발바닥을 찔렀다.

발을 들어 바닥에 박힌 사기조각을 빼냈다.

어차피 우리에게 이런 통증은 그리 크지 않았다. 상처 역시 놔두면 곧 나을 것이다. 그러니 그보다 먼저 찾아야 하는데. 걸음을 내딛자 피 묻은 발자국이 낙인처럼 선명하게 바닥에 찍혔다.

“이게 무슨 짓이야!!”

무섭게 내지르는 비명 같은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잔뜩 젖어버린 푸른 눈동자에 붉게 충혈된 코끝, 연약하게 바랜 금빛 머리카락이 나부끼는.

찾았다.

“빨리 가서 치료해. 이렇게 더럽히지 말고!”

그토록 다가서고 바라볼 때는 피하고 뿌리치더니 이렇게 내가 다치자 먼저 다가왔다. 그 모습이 반갑고 낯설어 가만히 바라봤다.

“왜 그러고 있어? 치료하라고. 빨리!”

숨어서 잔뜩 운 얼굴을 절대 보이고 싶어 하지 않는 주제에. 그토록 끔찍하고 싫으면 가버리면 그만일 텐데. 가만히 서 있자 도리어 아이샤가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날 붙잡았다. 싫고 미워도 내가 이렇게 다치자 치료해야 된다는 생각에 손을 잡은 거였다.

내손을 잡은 아이샤의 손은 눈물로 젖어 축축했다.

내가 이렇게 싫어서 울음을 터뜨렸으면서.

이 아이러니함에 웃음이 새어나올 것 같았다. 싫어할 때는 언제고 이렇게 전전긍긍해 하는 모습을 보자 이상했다. 둔감하지만 그래도 아픈 건 아픈 거였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한 톨의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진즉 이렇게 다친 모습을 보여줄 걸 그랬나 싶은 이상한 생각마저 들 정도로. 가슴 속이 간지럽게 차올랐다. 기뻤다. 다시 내게 손 내밀어 준 것이. 그것이 비록 짧게 사라질 일이라 할지라도.

나보다 작은 애한테 손을 붙잡혀 끌려가면서도 기쁜 얼굴을 감추기가 어려웠다. 우린 금방 낫는다고 말하고 싶지 않았다. 할 수만 있다면 조금만 더. 원래 이렇게 발이 다치면 가만히 있는 게 더 나은 행동이지만, 그런 말은 하지 않았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러고 싶었다.

이제 곧 맞이하는 마지막 겨울이 지나고서도 계속 이렇게.

“...”

네가 살았으면 좋겠어.

그 생각이 머릿속을 차지하는 순간, 우뚝 걸음을 멈췄다. 더는 움직일 수 없었다. 날 끌어당기는 작은 손, 늘 차갑게 보여주던 뒷모습. 파르르 떨리던 목덜미. 세차게 고개를 저을 때마다 흔들리던 얇고 연약하던 머리카락. 지금 그 모든 게 소중해서 견딜 수 없었다.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불티라도 튄 것처럼 아이샤의 손을 놓고 그대로 뒤 돌아 도망쳤다. 이 쏟아지는 감정을 견딜 수 없었다. 이것들을 진심으로 바랄까봐.

나는 아시네헤에게서 아이샤를 지킬 자신도, 용기도, 희망도 없었다. 그런데 그런 걸 바라고 있었다. 한참을 달리다 계단에 발을 헛디뎌 두 계단 아래로 넘어졌다.

바닥을 짚고 일어서자 손바닥이 따뜻했다.

물기가 여전히 묻은 것도 같다. 잘 들으면 어디선가 화를 내는 소리가 들릴 것 같았다. 실은 이렇게 달렸지만 얼마 못 간 것일 수도 있다. 바닥에 주저앉아 웃음 대신 큰 헛숨을 내뱉었다.

아아, 그래.

인정해.

나는 그 애가 살길 바래. 이 짧은 시간이 아닌, 더, 더, 더 많은 시간을.

그것이 또다시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할지라도 나는 이기적일정도로 욕심이 많아 바라고 말았다.

아이샤는 오래도록 잠들었다.

기나긴 겨울 내내 추위를 피해 동면하는 어린 짐승처럼 오래도록 잠들었다. 아픔은 잊고 감긴 눈 안쪽 너머 꿈을 꾸듯 오래도록 눈 뜨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저 물끄러미 바라봤다.

고요히 잠든 것처럼 눈 감은 얼굴을. 잔뜩 찢어진 입술과 새벽보다도 더 창백한 낯빛을. 부드럽고 여린 살결에 오래도록 흉측하게 남을 상처를.

‘지독하구나.’

라고 나직하게 입을 열었다.

우리처럼 통증에 무딘 것도 아니면서 스스로의 손으로 제 가슴을 돌로 내리찧었다. 엉망으로 찢기고 뜯어진 피부 사이로 하얗게 부러진 뼈가 살점 밖으로 내보였다. 돌 부스러기가 찢긴 상처 사이로 피처럼 맺혀 수없이 물로 닦아내도 채 지워지지 못했다.

팔은 부러지고, 손등은 검으로 베이고 빠지고 짓이긴 손톱엔 검붉게 멍이 맺혔다. 다친 마음만큼이나 어디 한 군데 성한 곳이 없었다. 제 감정조차 잘 모르는 아시네헤의 일족이 보기에도 가엾을 만큼. 딱 한번 잡아봤던 손이 더 이상 따뜻하지도, 부드럽지도 않아 안타까울 만큼.

내 눈앞에 있는 이 아이는 예전에도 그랬다. 자꾸만 시선이 갔다. 애써 무시하고 애써 지나치려 해도 끝끝내 보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게 했다.

바라봤다.

아주 오래도록 바라봤다. 새의 눈으로 보는 것과는 달랐다. 미워 어찌할 바 모르는 아이의 시선을 피해 바라보던 것과도 달랐다.

그리고 참으로 많이 달랐다.

이제 그 옛날의, 내가 미워 어찌할 바를 몰라하던 어린 소녀는 표정 한 번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여린 눈처럼 부드럽던 소녀가 단단하게 언 얼음처럼 차가웠다. 단단했다. 굳게 다물린 입매처럼 고집스러웠다.

눈 뜨고 아프다 울어도 좋으련만 결코 눈 뜨지 않았다.

으스러지고 어긋난 뼈를 맞추고, 동여매고, 짓이겨진 상처에 흘러내리는 피를 닦고, 약을 뿌리고 붕대로 감싸고 또다시 벌겋게 새어나오는 핏자국을 닦아냈다.

이제 그만 아파도 좋으련만.

눈 녹인 물로 수건을 적시며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이 열흘이 넘어가자 이대로 죽어버리는 건 아닌지 여리게 내쉬는 숨을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하곤 했다.

제아무리 아시네헤의 힘을 받아 경계가 모호해졌다 하나, 그러해도 아이샤는 인간이었다. 얼음으로 빚어 만든 얼음인형이 아닌, 통증에 아파하고 피 흘리며 가슴이 뛰는 그런 인간이었다.

새 붕대로 감기 무섭게 녹아내리는 심장에서 벌겋게 새어나오는 핏자국이 아니라면 영락없이 죽은 모양새였다.

스무날이 지나자 이상했다.

불안했다. 미숙하고 어린 감정이지만 없는 건 아니었다. 그런 미숙한 감정이 불안해 한시도 시선을 뗄 수 없었다. 잠시라도 눈을 떼었다간 영영 사라지기라도 할까봐 조바심이 났다.

무디고 낡은 감정일지라도 두려웠다. 다시는 눈 뜨고 싶지 않을 만큼, 그 이상으로 상처받고 너덜너덜해졌다는 걸 알면서도 다시는 눈 뜨지 않을 까—

초조했다.

불안했다.

그리고 두려웠다.

잔뜩 다친 피투성이의 몸을 닦고, 상처를 감싸고, 붕대로 감아도 결국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서.

“…결국 늦었나.”

이대로 녹아 사라지려나. 피 묻은 손끝과 대조될 정도로 파리한 안색을 바라보며 입을 다물었다. 앙다문 입술 끝이 아렸다.

보지도 마.

다가오지도 마.

부르지도 마.

아이샤는 늘 내게 그리 말했다. 그럼 그렇게 말했으면 자기 자신도 그리 살았어야 했다. 검은 베일을 그렇게 무겁고 내리고 모든 걸 외면했어야 했다.

‘우리가 너에게 했듯이.’

어머니가 옆에 있어도 없는 것처럼 대했듯, 자신이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이기적으로 그러했듯, 너도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았어야 했다. 우리가 버리고 남긴 자취를 끌어안고 그리 필사적으로 살지 말았어야 했다. 제 몸을 뜯어내듯 살지 말았어야 했다.

단 하나라도 좋으니 자신을 위해 살았어야 했다.

“…”

이기적인 아시네헤의 일족도 아니면서 제 피를 내주고, 몸을 내주고, 심장을 내주고 살다니. 그래서 결과가 이것인가.

어머니처럼 떠나지도, 자신처럼 도망치지도 못하고.

백번을 보고, 천 번을 봐도 파리한 안색은 시들어가고 있었다. 만 번쯤 보면 정말 녹아 있을까.

정말로 내 눈앞에서 녹을까 고개를 돌렸다.

창 너머로 바람 소리가 들렸다. 검게 저문 창 너머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새하얗고 작은 것이 하늘에서 내리는 그 모습에 굳어 섰다. 죽은 것이 되살아나듯 그것은 기묘한 일이었다. 죽은 모습을 구태여 보지 않아도 그녀에게서 만들어진 존재이니 어렴풋하게 알 수 있었다.

겨울의 여신.

겨울의 저편, 위그노드의 북편 얼음장벽 너머의 땅 네헤베를 다스리는 겨울 여왕. 아주 오래 전 인간의 삶 속에 녹아든 아스헤와는 다르게 이 땅에 얼어붙었던 망령.

그 망령은 그날 겨울성에서 사라졌다.

진즉에 사라지고도 남을 망령은 길고도 모질게 생을 이어가다 흔적도 없이 겨울성에서 사라졌다.

몸을 일으켜 창문 너머를 바라봤다.

이미 아시네헤가 죽은 이상 겨울의 권능은 사라진 것이었다. 그럼에도 지금 내 눈앞에서 꽃처럼 흩날리는 눈은 분명 겨울 여신의 권능이었다.

“…”

살짝 창을 열자 그 틈 사이로 눈이 들어왔다. 손을 들어 올리자 그 위로 떨어졌다. 손을 내려 눈에 담자마자 이내 순식간에 녹아 사라졌다.

“녹았다…?”

여신은 얼음으로 빚은 아시네헤의 일족보다도 더 차디찼다. 그런 그녀가 만든 것들은 녹지 않는다. 하물며 그녀가 하찮게 만든 얼음 괴물조차.

녹지 않는다, 그녀가 변덕을 부리기 전까진.

단, 하나의 예외만 제외한다면. 태양의 빛을 받은 존재의 단 하나의 예외만을 제외한다면 녹지 않는다.

하지만—

바닥으로 무거운 이불이 흘러 내려가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다. 그것은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다. 더는 가망 없으리라 생각했던 숨소리였다. 고개를 돌렸다.

—겨울 여왕은 죽었다. 그럼 이 눈은 어디서 불어오는 걸까?

한없이 작고 약하기만 하던 겨울성의 어린 여자애가 비틀거리는 몸으로 일어나려고 움직이고 있었다. 그 사이로 무거운 이불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힘겹게 바닥으로 발을 내딛고 있었다. 가만 놔두면 제풀에 쓰러질 것처럼 약했다.

“…아이샤.”

부르는 소리에 아이샤가 고개를 들었다, 금방이라도 부스러질 것 같은 머리카락 사이로 형형하게 빛나는 금빛의 눈동자는 매서웠다. 손을 내밀 수 없었다.선 채로 그녀가 일어나는 걸 바라봤다.

시간은 걸릴 지라도, 숨을 몰아쉴 지 언정 아이샤는 일어서고 있었다. 그리고 결국은 가슴에 싸맨 붕대에 벌겋게 피가 배어나오면서 이를 악물고 섰다.

지독할 정도였다.

내 앞에 더는 울기만 하던 겨울 성의 어린 딸은 없었다.

“아이샤.”

망령을 죽이고 망령의 힘을 제 안에 담은 겨울성의 주인만이 내 앞에 서 있을 뿐.

손바닥에 녹은 눈에서 나온 물방울이 바닥으로 흘러 떨어졌다.

겨울 여왕은 죽었다. 그러나 겨울 여왕이 갖고자 했으나 결코 가질 수 없었던, 그녀를 피해 어머니가 버리듯이 두고 온 딸은 결국 아시네헤의 온전한 힘을 가졌다.

아이샤가 손을 들어 손바닥을 펼치자 바닥에 떨어진 물방울이 그대로 얼었다. 흔들리던 아이샤가 두 발을 바닥에 힘주어 디뎠다. 위태롭지만 무너지지 않기 위해 등을 피고 턱을 든 채 서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죽을 것처럼 파리했지만, 눈동자만이 형형하게 빛났다.

그녀는 얼어붙은 물방울을 노려봤다.

“결국 가장 더러운 게...”

그녀가 주먹을 쥐자 얼었던 물방울이 다시 녹아 바닥에 남았다.

“내 안에 남았네.”

그러나 아이샤의 말은 차게 얼어 더는 녹을 것 같지 않았다. 비틀거리면서 문 쪽으로 향하는 아이샤의 걸음을 막아섰다. 그렇게라도 막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문을 열어젖힐 기세였다.

내가 막아서자 아이샤가 날 올려봤다.

“데려다줘.”

“어디로?”

아직 그녀의 몸은 낫지 다 낫지 않았다. 지금 당장 부러진 뼈가 다 붙고, 상처가 옅은 상흔으로 남는다 할지라도 그녀의 심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녹아내렸다.

아무리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가슴엔 벌겋게 핏자국이 묻어나는데 입술엔 핏기 하나 남아있지 않았다.

“어디로 갈 거지?”

그러나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눈을 뜨고,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다. 눈을 뜨기만을 바랬는데 움직이기까지 하고 말까지 한다.

그 말을 들어주지 않을 이유 없었다. 그녀는 어리고 어린 소녀가 아니었다. 죽음을 넘은, 이 새카맣고 하얀 세상에 피처럼 붉은 여왕.

그녀의 시선이 창가로 향했다.

“겨울 성으로.”

문고리를 잡아 열었다.

“네 뜻대로.”

그 땅은 옛 모습을 기억하기 어려울 만큼 엉망으로 부서지고 무너져 있었다. 그 땅의 사람들 역시 남아있지 않았다. 이 땅의 사람들은 죽거나, 도망치거나 끌려갔다. 무너진 성처럼 위그노드의 긍지역시 사라져 모든 게 망가져 있었다.

이 곳엔 아무것도 없었다.

심지어 살아있는 것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아이샤는 이곳으로 돌아오길 바랬다. 무언가를 찾듯이 비틀거리면서 움직이는 모습을 눈으로 좇았다. 내게 시선 한 줌 던지지 않듯이 나 역시 아이샤를 그대로 두었다.

말릴 생각 없었다. 때로는 말로 듣는 것보다 본인이 직접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해야만 할 때도 있었다.

바로, 지금처럼.

모든 걸 순식간에 잃어버린 아이샤처럼.

그녀는 가만히 서 있었다.

부서져버린 성의 터전에. 과거 너른 정원의 장소에.

새의 시선으로 본 적이 있다. 과거 이곳에 영지민들이 모여 소리 지르고 환호하며 휘아르와 레사휘의 대결을 바라봤다. 그땐 모두가 살아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었다.

그 요란하고 떠들썩한 소리는 다 어디로 가고 바람한 점 없는 어둠 한 켠만이 공허하게 남았다.

“처음 시작은 눈이었지.”

하늘 위에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되새기듯 아이샤가 입을 열었다. 기묘하리만치 밝은 달 아래 아이샤가 한없이 어려 보였다.

“그리고 그 눈을 맞은 실로이의 병사들이 괴물로 변했어.”

눈이 녹은 자리들을 바라보며 이내 비틀비틀 걸음을 옮겼다. 그녀가 가는 곳은 여지없이 부서진 잔해로 가득해 위험하고 넘어지기 쉬운 곳이었다. 그녀의 등을 눈으로 따라가다 보이지 않게 되자 몸을 일으켜 뒤따랐다.

“사람의 탈을 벗고 눈 여우로 변한 병사들은 성벽을 오르고…”

그녀가 벽만 남은 성벽 한 켠을 손으로 쓸며 부서진 벽 안쪽, 성 안으로 들어갔다. 느릿한 걸음이 금세 따라잡을 만큼 아이샤의 걸음은 느렸다. 넘어질 듯 비틀거렸고, 다칠 듯 위태로웠다.

“창문을 부수고, 문을 부수고 성 안으로 들어왔어.”

그 날의 기억을 더듬듯 아이샤는 단조로이 말했다. 자기 자신에게.

겨울성의 모습은 을씨년스러웠다. 뻥 뚫린 천장 너머로 비치는 달빛에 거대한 기둥이 홀의 한 가운데를 가로질러 무너져 있었고, 그날의 참상을 보여주듯 피투성이의 벽과 죽은 자의 신체 일부 것들이 뒤엉켜 있었다.

그리고 그것들을 덮듯이 뻥 뚫린 천장에 내리는 눈이 붉은 융단으로 뒤덮힌 바닥에 소복히 쌓여 있었다.

“우리는 그들이 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성문을 걸어 잠그고 막았어.”

아이샤는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는 잘린 신체 일부를 주워 붉은 융단 위에 올려놨다.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먹히고 뜯긴 신체를 놓았다.

홀 안에는 온전한 건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았다. 아이샤는 더는 입을 열지 않고 묵묵히 남은 흔적들을 주워 융단 위에 고스란히 올려놨다. 먹히거나, 뜯기거나 잘려 신체로 보이기 어려운 편린일 지라도 조심스레 융단 위 바닥에 올려놨다.

그런 아이샤를 가만히 바라봤다.

죽음이 익숙한 자라 할지라도 차마 손에 들기를 머뭇거릴 정도로 끔찍한 것들도 많았다. 그러나 아이샤의 표정은 변함없이 고요했다.

천장에 내리는 눈처럼.

비틀비틀 거리면서, 옅게 바랜 머리카락이 풀어지고 손이 알 수 없는 것들로 더럽혀진다 할지라도 아이샤는 멈추지 않았다. 도와주는 건 어렵지 않으나 그녀는 결코 바라지 않았다. 그랬기에 멈춰선 채로 바라만 봤다.

이건 의식이었다.

이건 그녀의 의식이었다.

성문이 있는 거대한 홀은 모두가 온힘을 다해 가장 많이 모여 막은 장소답게 시체가 많았다. 부서진 돌 아래 깔린 시체를 꺼내고자 아등바등 움직이는 걸 보며 차라리 바랬다.

그냥 차라리 포기하고 울어버려.

새의 눈으로 아래를 바라볼 때 인간들은 종종 그러했다.

해도해도 되지 않을 때, 이제는 그만 포기해야 할 때, 소중하게 여기던 걸 잃었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 아이고, 어른이고 눈물을 터뜨린다. 그리고 본인이 인정했을 때 눈물을 그치고 일어선다.

일어선다.

다시 살려고.

아이샤는 아니었다. 바짝 마르고 건조한 눈은 달 같았다. 반짝거리지 않는 그런, 어두운 빛깔의. 지금 하늘 위에 있는 달처럼. 그녀의 등 위로 조용히 눈이 내렸다.

“모두가 끔찍한 괴물 앞에 도망치지 않고 막았어.”

이미 죽은 자의, 고통과 두려움이 선연하게 남은 얼굴을 내려다보며 아이샤가 나직히 말했다. 아시네헤조차 어찌하지 못한 위그노드의 긍지가 붉은 융단 위에 처연하게 남았다.

그 시체들 위로 새하얀 눈이 요람처럼 내렸다.

“아이샤.”

못이라도 박힌 양 선 채로 융단 위를 내려다보는 시선에 차마 버티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정말로 온전한 아시네헤의 일족이라도 된 것처럼 감정 한 줌 묻어있지 않은 시선이 불안하게 했다.

“우리는 모두 도망치지 않았어. 그게 우리의 긍지니까.”

아이샤가 바닥에 떨어진 검을 주워들었다.

얼마나 저항했던지 검은 엉망이었다. 잔뜩 엉겨붙은 피가 검게 변한 채 굳어 있었고 검날은 이가 나가있었다. 심지어 손잡이에는 주인의 것으로 보이는 손이 고집스레 쥐여 있었다.

아이샤가 소맷자락으로 검 날을 닦았다. 떨어진 자리에서도 검 날에 쓰여있는 검의 주인의 이름이 보였다.

“아벨린 드 위스.”

고집스레 잡고 있는 손잡이의 뜯겨진 손이 앙상하다. 먹히고 뜯기도 잘린 흔적이다. 그럼에도 검을 놓지 않았다.

아이샤의 시선이 멈춘 채 움직이지 않았다. 더는 시체를 줍지도 입을 열지도 않았다. 눈을 뜬 채로 누워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죽은 것처럼.

“…태초의 어린 민족. 겨울의 고고한 일족. 진정한 북의 지배자.”

그런 아이샤가 검날을 두 손으로 든 채 입을 열었다.

“우리는 태초부터 이곳에 살았어. 아시네헤와 아스헤가 이 세상에 나타나기 전부터. 비록 지금은 아시네헤의 힘이 이 땅에 가득해 그녀가 만든 땅으로 위장되었지만! 그래도 이 위그노드는 우리의 것이었어. 얼음과 더불어 살던 우리에게 갑자기 나타난 건 아시네헤. 여긴 태초에 우리의 땅이었어. 눈보라치지 않은 고요의 땅. 얼어붙은 침묵의 땅 위그노드(Wignode). 그리고 고요와 침묵의 지배자, 윈터(Winter). 그게 우리의 이름인데.”

그녀가 몸을 돌렸다.

“그런데 우리가 그토록 아끼던 고고한 긍지도, 서리같은 위상도, 자부심도 모두 한 순간의 꿈처럼 사라졌어.”

이런 흔적만을 남기고.

모두 다 죽은 흔적.

아이샤의 가슴을 감싼 붕대가 벌겋게 젖어들었다.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녀마저. 몸을 일으켜 그녀에게 가려 했다.

“오지 마.”

그녀가 입술을 앙다물었다. 그러나 앙다문 입술은 새파랗게 질린 채 떨렸다.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는 분노가 그 안에 있었다.

“나는 너희가 끔찍해.”

마주보고 있는 우리의 눈동자는 같은 것이라 할 정도로 같았지만 아이샤가 바라보는 나는 그 날의 끔찍한 아시네헤의 일족이었다.

“우리의 땅을 먼저 빼앗은 주제에 우리에게 침입자라 오명을 씌웠지. 거기다 괴물을 만들어 이 땅을 혼란스럽게 하고, 언제나 고요하던 우리의 땅에 눈보라를 휘몰아치게 해 생명이 살지 못하게 했어. 그리고 결국엔 우리를 다 죽였지.”

검을 끌어안은 그녀의 가슴에서 기어코 피가 흘러내렸다.

“그토록 지키려 했는데…! 내 몸이 부서져도 좋을 만큼 온 힘을 다해서! 그런데 결국은 다 앗아가 버렸어! 모두. 모두!”

달 아래의 처절한 절규에 떨어졌던 거리를 좁히며 한달음에 다가갔다. 그러나 정작 손을 내밀 수가 없었다.

차마 닿을 수 없었다.

같은 빛깔의 눈동자.

같은 체온.

같은 어미를 둔 동복누이.

그럼에도 나는 그 날의 끔찍한 아시네헤의 일족이었다.

바닥에 무릎을 굽히고 고개를 들어 아이샤의 얼굴을 올려봤다. 그녀의 얼굴엔 그 어떠한 것도 흐르지 않았으나 잔뜩 일그러지고 비틀어져있었다.

“미워해.”

아이샤가 질끈 감았던 눈을 떠 나를 내려 봤다.

“얼마든지 미워해.”

내 말에 아이샤가 작게 조소했다.

“누구를?”

“모두를.”

우리 모두를.

아시네헤의 명을 받고 널 낳은 어머니를. 겁탈로 낳은 딸을 외면한 아버지를. 너에게 지독한 외면과 괴로움을 겪게 한 나를. 너를 이용한 성의 주민들을. 너를 두고 죽은 모두를.

그리고 너의 가장 약함을 건드리고 모든 걸 부순 그를.

입으로 소리를 내어 말하지 않았으나 아이샤가 모를 리 없었다.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강인한 성의 대리인이 아니었다. 산산조각으로 부서진 어린 소녀일 뿐이었다.

아이샤가 대답대신 눈을 감아버렸다. 지친 듯 그녀의 몸이 아래로 쓰러졌다. 쓰러지는 몸을 붙잡아 끌어안았다.

나를 바라봐줘.

나를 불러줘.

나에게 다가와 줘.

아이샤는 언제나 외쳤다. 언제나 말했다. 그러기에 검은 베일로 얼굴을 가리면서도 모든 걸 다 주지 못해 안달하곤 했다. 제 아픔따윈 그녀에게 우선순위가 아니었다.

이 거대한 땅을 지키는 사람들.

그게 아이샤의 우선순위였다.

“아이샤.”

언제 얼음처럼 꼿꼿이 섰는지 모를 정도로 아이샤는 눈처럼 녹아내려 허물어지고 있었다.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얼마 남지 않은 수명처럼.

깨지고 바스라져 녹아내릴 그녀의 운명처럼.

“아이샤.”

연약한 금색의 머리를 끌어안으며 불렀다. 아이샤는 작았다. 어른인 척 하던 게 우스울만큼. 그녀는 절대 울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발치엔 어느새 피가 고여 바닥을 적시고 있었다.

기나긴 밤이었다.

소리 없는 절망과 고통이 고고한 달빛에 삼켜져 끝없이 지속될 것만 같은 시간이었다. 그런 밤이었다.

한 소녀가 감내해야 할 밤은.

어느새 지독했던 달빛은 사그라들고 희고 푸르게 빛나는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 찬연하게 빛나는 빛에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다. 평소와 다름없이 어제도, 엊그제에도 봤던 아침. 그러나 기묘하게도 처음 겪은 것처럼 그 전과는 달랐다.

내 눈앞에 보이는 아이샤의 모습처럼.

그 밤, 아니 죽은 듯 잠들었던 아이샤는 그녀가 지키고자 했던 성과 같았다. 지켜야 할 것을 잃어버리고 무너진 성처럼 그녀에게 더는 남아있는 것은 없었다. 남아있다면 녹아내리는 심장 가득 쌓여있는 배신과 분노.

지키고자 했으나 지키지 못하고 놓쳐버린 슬픔.

그 모든 것들이 얽히고 얽혀 아이샤의 심장을 녹아내리게 했다. 본디 완연한 인간이라면 그럴 리도, 그렇다고 녹는 심장을 가지고 살 수 있을 리 없지만 아이샤는 아니었다. 인간이되, 아시네헤의 힘을 품은 일족이었다.

아시네헤는 아이샤가 사랑을 해 진정한 감정으로 울게되면 심장이 녹아내려 죽을 거라 했다. 그럼 그녀의 순결한 육체를 가질 수 있을 거라 여겼다.

아니었다.

아이샤의 심장은 사랑이 아닌, 정 반대의 다른 것으로 녹아내렸다. 그랬기에 몸은 차디차게 굳고 얼지언정 심장은 안에서부터 녹은 채 죽지 않았다. 그녀는 죽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안에서부터 죽어가고 있었다.

이미 안에서부터 부서지고 파괴된 성처럼.

성의 모습은 어제와 똑같았다. 더 나아진 것 하나 없이 을씨년스럽고 외롭고 황폐했다. 과거의 흔적을 찾기보다 언젠간 사라질 미래의 모습을 연상하는 게 더 나아보였다.

그럼에도.

무너진 성터에 걸터앉은 채 햇살에 반짝이는 아이샤를 바라봤다.

그럼에도 어제의 밤처럼 어둡지 않았다. 끔찍하지 않았다. 피투성이일 지라도 그 곳에 더는 시체는 없었다.

어두운 밤부터 빛나는 새벽을 지나 지금까지 아이샤는 부지런히 움직였다.

얼굴을 가리는 베일은 없었다. 빛나오는 아침빛에 아이샤는 금빛 눈을 온전히 드러낸 채 땅을 바라보고 있었다.

까마귀로 날 적 창가에 몰래 훔쳐봤을 때조차 보여주지 않던 맨얼굴이었다.

모두가 베일을 벗고 맨얼굴을 보여 달라 했으나 우습게도 모두가 죽거나 사라진 땅 위에서야 겨우 베일을 벗었다.

그녀가 바닥으로 굽은 허리를 폈다. 이제 할 일을 다 끝냈다는 양 잔뜩 상처 난 손에서 마찬가지로 너덜너덜한 단검을 떨어뜨렸다.

그녀의 주위로 얼어붙은 땅이 파헤쳐지고 ,묻히고 덮였다. 수없이 많은 성의 잔해가 비석처럼 그 묻힌 땅에 세워졌다. 그것들은 기묘하고 이상한 것들이었다. 아시네헤의 일족에게 죽음은 없다.

세상에 사라지는 것을 죽음이라 부른다면 모를까.

아시네헤의 변덕에 얼어붙었던 게 녹는 건 아주 쉬운 일이었다. 우리의 흔적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 땅위에 녹은 자국조차 남지 않았다. 그리고 그건 위그노드의 일족도 매한가지였다.

얼음 위에 살고, 얼음 아래에 죽으리라.

얼어붙은 강을 깨고 그 아래로 죽은 이를 떠나보낸다. 이 땅은 태울 나무가 풍부한 것도, 날려 사라질 만큼 바람과 새가 많은 것도, 얼어붙은 땅에 묻을 만큼 호락호락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온전치 못한 육신을 강의 얼음을 깨고 흘려보낼 수 없었다.

아이샤는 밤새 단검 한 자루와 손으로 바닥을 파냈다. 온전한 제 힘으로.

“비스테 아르 위그노드 윈터.”

땅을 파고 흔적을 묻고, 다시 덮었다. 그리고 부서진 성의 잔해를 비석처럼 세웠다. 희게 뜨는 햇살에 비석이 새파랗게 빛났다.

하나도 아니고 셀 수 없이 많아 마치 눈에 파묻힌 나무 같았다.

그 사이에서 아이샤는 울지 않았다. 심장이 녹아내려 울 수 있음에도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녹은 심장에서 흐르는 피로 부서진 성의 잔해에 이름을 썼다.

“레사휘 온 위그노드 윈터.”

자신이 쓴 비석을 지나가며 아이샤는 나직하게 내뱉었다.

“마샤 이르델.”

멀리서 듣는 목소리는 노래 같았다.

“아벨린 드 위스.”

“린드로이에 드 노베.”

“기네드 드 에티세.”

온전한 흔적조차 남지 않은 것을 긁어모아 무덤을 만든 기분은 어떤 것일까. 우리는 그동안 사라지고 다시 만들어진 일족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레이만 드 슈어. 노에르 드 슈어.”

가슴에 흐르는 핏자국은 어느새 치마를 적셨고 바닥에 점점이 떨어져 내렸다. 그래도 아직은 죽지 않을 목숨이었다. 저 심장이 온전히 다 녹을 때까지.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언젠가 모조리 남김없이 녹아 사라질 때까지.

“세이 드 아타란타.”

그녀의 마음이 남아나지 않을 때까지.

“인트 드 드벨로어.”

얼마 남지 않았을 그때까지.

아이샤는 고요히 이름을 부르며 걸었다. 어느새 눈은 멈췄고, 해는 떠오르고, 아이샤의 치맛자락에서 흐르는 피는 한 곳에서 멎었다.

그 곳이 아이샤가 묻은 가장 마지막 장소였다.

“데르토 인 다프.”

실상 저 수없이 많은 비석 아래에 아무것도 넣지 못하고 그녀의 머리카락을 잘라 넣은 것도 많았다. 살육의 흔적이 있던 곳. 그러니 아무리 뒤져도 없는 것과 알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곳이었다.

“…”

그녀는 오래도록 고개를 들지 않았다. 감은 눈꺼풀 안쪽에서 무언가 흐르지도 않았다. 가슴이 들썩이거나 분노에 찬 소리를 내뱉지도 않았다.

그저 입매를 단단히 굳힌 채 눈을 감았다. 아무것도 흐르지 않는 시간 속 이 장소는 소리조차 없이 고요했다.

망자를 보내는 그녀의 등은 고요했다.

그런 아이샤의 등을 뒤에 걸터앉은 채 오래도록 바라보다 몸을 일으켰다. 소리조차 없는 공터에 발을 내딛는 소리역시 작았다.

내가 이 곳에 살던 건 아주 작은 시간.

아이샤를 뒤흔들고, 성을 뒤흔들고, 종국엔 어미와 함께 파란만을 남기고 떠난 작은 시간이었다.

성주는 날 아들로 삼았으나 그는 절대 내 아비가 아니었고, 물에 뜬 채 결코 가라앉지 않은 얼음처럼 섞이지 못한 채 부유했었다. 그게 이상하지도, 부자연스럽다 느끼지도 못할 만큼 미숙했고 찰나와도 같은 시간이지만, 이곳이 집이었던 적도 있었다.

이들과 한 번 이상은 마주한 적 있었다.

그녀의 뒤쪽에 떨어진 채 서서 눈을 감았다. 애도는 아니었다. 우리에게 죽음은 없다. 그저 이 수없이 많은 비석 속에서 등을 지고 선 아이샤의 등이 작아 보였다. 다가가고 싶었다. 그러나 더는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다.

“샤하웨.”

아이샤에게 나는 증오스런 아시네헤의 일족이었다.

눈을 뜨자 그녀가 고개를 돌린 채 날 보고 있었다. 짧아진 머리카락이 귓가에 닿았다. 그 짧아진 머리카락 사이로 해가 비췄다. 아이샤의 눈이 똑바로 나에게 향했다.

창백해진 낯빛.

엉망으로 잘린 머리카락.

잔뜩 더러워진 손.

그래도 그 사이에 금으로 빛나는 눈동자는 형형하게 빛났다. 정말 달빛으로 빚은 것처럼.

“샤하웨.”

죽은 자들의 이름으로 가득한 곳에서 불리는 이름이었다. 기꺼이 그녀에게 다가갔다.

“나는 여길 떠날 거야.”

“어디로 갈 거지?”

내 말에 그녀가 입술을 비틀었다.

“뺏긴 걸 되찾으러.”

아이샤가 움직이자 잠시 멈췄던 핏방울이 점점이 떨어졌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녀가 뺏긴 걸 되찾을 때까지 이렇게 피 흘리게 될 것이었다. 아니, 되찾지 못할 지도 모른다.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게 말도 안 되듯 다음엔 정말 죽어버릴 지 모른다.

“난 여기에서 태어나고 자라 다른 곳에 간 적 없어. 네 도움이 필요해. 물론, 강제는 아냐. 네가 싫다면…”

“그래, 기꺼이.”

그녀의 말을 끊으며 말하자 아이샤가 말을 멈췄다.

내 시선은 아이샤의 발치에 떨어지는 핏방울에 박혀있어 내 대답에 그녀가 무슨 표정을 짓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언제라도 후회가 들면 떠나도 좋아.”

고개를 들자 덤덤하게 날 보는 아이샤가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끝이 예상이 되었다.

‘어릴 때처럼.’

물끄러미 바라보는 시선에 엉망으로 귓가까지 짧아진 머리끝에 손을 내밀었다. 조금만 더 다가가면 손끝에 닿을 텐데 닿지 않았다. 아이샤는 피하지 않았고 내 손은 움직이지 않았다.

“같이 가고 싶어.”

손끝에 머리카락이 닿았다.

어미의 손을 잡고 떠났을 때 결심한 게 있었다. 그토록 데려다 달라 몸으로 막아가며 애원하는 누이를 보며 더는 피하지도 도망치지도 않겠다고. 가까이 다가가 녹을 지 언정.

어쩌면.

흔적조차 없는 내 죽음에 이 어린 누이는 무덤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생겼다. 곁에 있고 싶었다. 그 끝이 어찌 변할 지 아무도 장담할지 모른다 할지라도.

“네가 빼앗긴 걸 되찾을 때까지.”

아이샤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몸을 돌렸다. 언 땅을 파헤쳐 그 안에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넣고 다시 묻은 것처럼 모든 것들을 이 곳에 묻었다. 그리고 빼앗긴 걸 되찾기 위해 앞으로 걸었다.

그녀의 걸음을 따라가며 시선을 뒤로 돌리자 부서지고 무너진 성벽 위에 새하얀 날개를 지닌 것과 시선이 닿았다.

아주 예전에 나와 같은 모습의, 저주가 풀린 그것의 모습을.

그러나 마주치자마자 눈 녹듯 그것의 모습은 사라졌다.

감긴 눈 너머로 비명소리가 울렸다. 살려 달라 울부짖는 그 비명이 어찌나 끔찍한지 육체에서 아주 멀리 떨어졌던 의식을 거칠게 잡아 올렸다. 귀를 찢고, 발끝에서부터 소름이 올라오는 소리였다.

눈이 떠졌다.

그러나 난폭하게 붙잡아 깨운 의식이기에 잠깐이나마 눈앞이 흐리고 어지러웠다. 한 번 떴다가 감자 제대로 보이는 눈앞은 새하얗게 얼어붙은 폐허의 땅이 아니었다. 금과 대리석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방의 전경이 보였다. 이곳엔 살을 에는 추위도, 얼음도 없었다. 오로지 화려하기 짝이 없는 노란 금뿐.

금은 이 땅의 권력이자 힘의 증표이니 익숙해질 만한데도 절로 눈매가 찌푸려지는 걸 막을 수 없었다.

머리가 지끈거렸다. 기분 나쁜 두통 사이로 데미온의 웃음소리가 거슬렸다. 앉은 채로 시선을 올리자 데미온이 서서 나를 내려 본 채 웃고 있었다.

그의 미소가 소름끼치게 낯익었다.

“…내 경고 잊었어?”

“그럴 리가.”

그가 장난스레 대꾸했지만 예의 섬뜩한 웃는 얼굴은 여전했다. 그의 시선은 앉아있는 내 발치를 향하고 있었다. 시선 아래에 피비린내가 진동했다.

발치에 시체가 있었다.

혐오스럽고 끔찍한 몰골로.

그 비명의 주인이었다. 차마 눈뜨고 못 볼 기괴한 시체였다. 온몸으로 피를 모조리 토하고 죽은 시체는 마치 마른 가지인양 새카맣고 쪼글쪼글하게 변했다. 몸속에 피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걸치고 있는 시녀 옷만 아니면 누군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말라비틀어진 시체 주변으로 새하얀 대리석 바닥에 흥건한 피가 흉측했다.

이 시녀가 이렇게 기괴하게 죽은 원인은 하나였다.

“…그럼 이건 뭐지? 허락 없이 내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이미 경고 했을 텐데. 너든, 그 누구든.”

“아, 이거? 이건 오해하지 말아줬음 하는데. 네가 하도 오래 자서 말이야.”

시체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데미온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처음에야 그 끔찍함에 미간을 엷게 찌푸렸을 뿐, 그것이 횟수를 더해가자 데미온은 이내 무덤덤해졌다. 짐승조차도 피 흘리고 죽어 있으면 끔찍하게 여길 텐데 데미온은 흥건한 피 앞에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마치, 저 자신이 사람이 아닌 것처럼.

누군가를 베고 죽이는데 익숙한 기사들조차도 처음 이것을 볼 때 기겁하며 긴장하는데 도리어 그는 횟수를 더해가며 점차 즐거워하기 시작했다.

“너희 일족은 원래 그런 거라며? 얼음. 기묘해. 얼어붙은 얼음이면서 날아다니는 새이기도 하고 또, 사슴이었나? 뭐, 그런 저주에도 걸렸었다며. 다시 본래 모습으로 돌아갔나 했지.”

“그래서 이 시녀보고 날 만지라 했어?”

내 말에 데미온이 빙긋 웃었다.

“그래, 맞아. 내가 시켰어.”

데미온을 노려봤다.

“미친놈. 또 그런 귀찮은 짓을.”

발치의 피가 신발을 축축하게 적신다. 여긴 그곳과 다르게 신발이 얇아 맨발 사이로 미지근하게 퍼지는 게 느껴졌다.

미간을 찌푸렸다. 처음부터 그러한 건 아니었다.

기대를 부서뜨리고, 한 소녀가 온전히 바라던 희망을 뒤엎은 대가로 스스로가 바라던 것을 온전히 가졌다.

아시네헤의 죽음으로 인해 저주가 풀려 사슴의 몸을 벗을 수 있게 되었다. 다시 원하던 대로 하늘을 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제약은 없었다. 자유였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누구라도 네 죄를 모르지 말라는 듯 선명한 죄의 낙인이 몸에 닿았다. 어느 누구라도 닿기만 하면 이토록 피를 쏟고 기괴하게 죽어버렸다.

죽지 않은 자는 데미온.

그리고 날 만지지 않는 자들 뿐이었다.

사람들이 이리 끔찍이 죽어갈 때마다 데미온은 재미없는 세상에 단 하나의 유흥거리라도 본 양 기뻐 날뛰었다. 오히려 일부러 나를 만지도록 명령하거나 유도하기도 했다.

“더군다나, 무슨 짓을 해도 안 깨는 네가 여자 비명소리만 나야 깨니 별 수 없잖아? 나도 참 골치 아파.”

“여자의 비명소리…?”

“몰랐어? 역시 잔인해. 이 모든 게 모르고 저지른 짓이라니.”

데미온의 말에 이제와 죄책감이 들 리 없을 텐데 가슴 한 켠이 선뜩해졌다. 이제껏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다. 그저 데미온의 즐거움을 위해 벌어지는 일이라 생각했다.

비명소리라.

“휘아르.”

태양을 오롯이 닮은 게 분명할 그 눈동자가 피가 가득 든 잔처럼 광기 어리게 보였다.

“모르는 건 너뿐만이 아니지. 이 멍청한 것들도 잘 몰라. 이 괴물은 겉만 멀쩡하지 속은 끔찍한 독으로 가득하다는 걸.”

데미온은 즐거운지 입가에 만연한 웃음을 참지 못한 채 말했다. 그를 보며 눈매를 가늘게 떴다.

발치의 시체가 거슬린다.

끔찍하고 흉측한 건 사실이지만 이제와 죽음이 껄끄러운 건 아니었다. 더군다나 자신은 이미 더한 짓도 저지르지 않았나.

눈앞에 마주한 괴물보다 더한 게 바로 자신이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기분을 한층 더 더럽게 했다.

“그래서 용건은? 설마하니 용건도 없이 날 부른 건 아니겠지?”

“별 건 아닌데, 시간 나면 나베란에게 가봐. 또 발작한 모양이니까. 기왕 데려온 건데 죽기라도 하면 아깝잖아?”

“…차라리 죽이지 그래?”

지겨워 한숨을 내뱉었다. 이 땅에 온 뒤로 모든 게 무가치하고 지겨우며 귀찮았다. 살아있는 것도, 죽은 것도 무미건조하다.

“벌써? 아직은 안 돼. 그래보여도 제법 가치가 있거든.”

“가치라…”

잠시나마 나베란을 떠올리며 말끝을 흐렸다. 그녀에게 가치가 남았던가? 어디에도 위그노드의 긍지와 위상 따윈 없었다. 허망하고 손쉬운 점령이었다.

전투민족으로 유명한 그들이 그토록 쉬울 리 없었으나, 모든 게 아시네헤 덕분이었다. 신이라 불린 존재에 의해 성이 무너지고 괴물이 날뛰며 살육하자 제아무리 용맹하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신 앞에서 한낱 인간일 뿐이었다.

그 날 위그노드의 겨울민족은 그 자리에서 죽거나, 실로이에 노예로 끌려가거나, 이브실라로 도망쳤다.

“망했어도 단 하나 남은 위그노드의 핏줄이잖아? 아직 그 땅은 내 것이 아니거든.”

“그 얼어붙은 땅을 원해?”

“응. 나한텐 그 땅의 모든 게 필요해.”

전멸했어도 끝까지 살아남아 도주한 전사들의 핏줄.

단 한 번도 침략당한 적 없는 고고한 땅.

풍요의 땅을 복속한, 북쪽의 주인.

실로이는 단 한 번도 위그노드를 정복하지 못했다. 대륙의 패자, 대륙의 주인. 아스헤의 아들. 실로이를 부르는 명칭은 무수히 많으나 위그노드의 주인이란 이름만은 갖지 못했다.

위그노드는 오로지 겨울민족의 땅.

테레베나 헤스티와는 다르다. 그렇기에 위그노드가 이브실라를 복속해 공물을 받는 것을 실로이는 간섭할 수 없었다.

실로이를 왕으로 인정하되, 결코 위그노드는 신하가 되지 않았다. 오로지 이 둘의 사이는 약속의 관계. 아주 오래전, 아스헤가 있을 때부터 지켜온 약속대로 위그노드는 북쪽을 지키며 남쪽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혹독한 땅에서 강인하게 자란 무수한 기사들과 병사들은 오로지 위그노드만을 지키고 존재했다.

실로이의 주인들은 위그노드의 모든 것을 원했다.

다른 이들에겐 얼음과 눈으로 뒤덮인 볼품없는 땅. 그러나 그들에겐 영원토록 갖지 못했던 영원의 땅이었다. 그 증거로 그들은 겨울성의 딸을 끊임없이 원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지금, 눈앞의 이 남자를 제외하고.

그것만으로도 현재 실로이 왕의 수많은 아들 중에서 데미온의 값어치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금은 만능이지만, 유한하지 않고, 아버진 너무 많은 자식을 두셨지.”

그는 왕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모든 힘과 자원을 제 두 손에 욕심껏 움켜쥐었다. 흩어진 위그노드의 겨울민족을 완벽히 제 손안에 두려면 나베란은 데미온의 옆에 있어야 했다.

마지막 남은 겨울성의 혈족의 이름으로.

“너무 많이 자느라 잊어버린 거야? 약속했잖아. 내가 왕이 된다면…”

비꼬는 듯한 데미온의 말에 미간을 와락 구겼다.

“그만 말해, 잊지 않았으니까.”

받을 것만 받는다면 이딴 땅 아래 세상 언제든지 버리고 떠나버릴 일이다. 잊지 않았다는 말에 만족했는지 데미온이 입꼬리를 길게 늘어뜨리며 웃었다.

“나베란이 정말 미쳐 날뛰는 건 상관없다만, 일단은 죽진 않게 해놔.”

망가져도 최소한 죽지 않을 정도라.

저주로 몸을 둘러 기괴하게 사람을 죽이는 괴물과 겉은 무한한 인간 주제에 괴물보다 못한 속을 가진 인간의 조합이라니.

웃음이 나온다.

곁에 있는 이 자만큼이나 나와 어울리는 자가 있을까.

“좋아.”

몸을 일으켰다. 몰래 새의 눈으로 훔쳐보는 것도 지겨워지던 참이었다. 거기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발치엔 언제나 죽은 시체가 존재한다.

이제와 떨떠름하게 느끼는 위선과 가식이라니.

“네가 말한 대로 나베란에게 가볼게.”

“아. 만지진 말아줄래? 죽거나 하면 곤란하거든. 일단은 내 비(妃)잖아.”

그가 붉은 눈을 휘며 말했다. 그 말에 예의상 아무렇게나 벗어던진 장갑을 주워들었다.

복도를 걷자 사이사이 열린 창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듯 비췄다. 실로이의 햇살은 태양의 것답게 밝고 강렬했다. 그 어디에도 시리도록 처연한 빛은 없었다.

여긴 아스헤의 땅이었다.

춥고 혹독한 겨울을 버리고 인간을 사랑한 신의 땅.

한 낮의 열기에 흔적도 없이 녹아내릴 리는 없지만 달가운 빛은 아니었다. 억지로 만든 그림자가 등 뒤에 걸렸다. 본디 인간이 아님에도 인간과 비슷한 겉태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닿아있음이 느껴졌다.

어떤 얼굴로, 어떤 행동으로, 어떤 말을 해야 호감을 사는 지 안다. 그것이 익숙하다는 게 이젠 그다지 역겨울 일도 아니었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토록 노력했으나 그 누군가는 도망쳤고, 그 누군가는 자신을 잊었다.

그리하여 남은 건 한 줌의 진실된 자신도 없는, 그림자마저 거짓으로 만드는 반절의 얼음뿐.

아시네헤의 일족이되 웃을 수 있는 건 그 이유였다.

화려한 장미넝쿨 장식의 문을 지나 수수하기 짝이 없는 문 앞에 서자 어느새 모습을 드러낸 경비병이 문을 두드렸다. 그러자 그 안에서 시녀가 문을 살짝 열어 방문한 이를 확인하더니 문을 열었다.

누구에 의한 보호인지. 누구를 가두기 위한 감금인지 알 수 없는 곳이었다. 벌써부터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어 크라바트를 살짝 풀었다.

겨울은 어디에 있을까.

아직도 눈 속에 파묻혀 얼어붙어 있을까.

적어도 이곳은 아니었다.

“나베란.”

문 안쪽으로 들어서자 이름의 주인은 옆모습만 보여준 채 창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창백한 빛의 머리카락이, 고요한 옅은 푸른 눈동자가, 얼음같이 새하얀 얼굴이 하늘 위를 바라보고 있었다.

대륙의 가장 넓은 땅은 가졌을 지라도 혹독한 기후와 척박한 토지에 정작 그 안에 정착해 산 사람들은 많지 않다. 그들은 강하고 용맹하고 잔인했다. 그 거칠고 호전적인 겨울 일족을 하나로 통합하고 다스린 건 오롯이 하나의 주인이었다.

대륙의 패자인 실로이가 그토록 간절히 거머쥐고자 했으나 결코 손에 쥘 수 없었던 것.

얼음처럼 투명하고 흰 피부, 창백한 금발, 옅은 채도의 푸른 눈.

이 대륙의 어떤 곳을 뒤져도 옅은 빛의, 겨울하늘처럼 시린 푸른 눈동자는 오로지 겨울 성의 일족만이 가졌다. 그리하여 겨울성의 혈족은 결코 타 일족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로지 직계만을 성의 주인으로 두고 방계의 혈족들은 위그노드를 에워싸는 영지를 두고 지켰다.

그들은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 혈족 혼인을 유지해왔다.

신에게 핍박받던 일족.

대륙의 가장 척박하고 고난스러운 땅을 주인으로 가진 자들. 아주 오래 전 시작되었을 때에도 분명 수는 많지 않았을 일족은 이제 겨우 단 둘만이 남았다.

이 너른 대륙에 단 둘.

아니, 하나는 불확실한가...

“나베란.”

재차 부르는 목소리에 그제야 미간을 미미하게 찌푸리며 돌아본다. 경멸어린 시선이 차게 내리 꽂는다.

같이 있을 때에는 몰랐다. 아니, 안중에도 없었다.

그런데—

“나베란.”

그녀의 무심해 보이는 눈동자가, 차게 가라앉은 표정이, 굳게 다물린 입술이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다. 검은 베일 너머 보던 얼굴이 언뜻언뜻 스치듯 머물다 사라졌다. 하긴, 닮지 않을 리 없다. 누구보다 가까운 혈족이니.

“귀 먹지 않았어.”

높지는 않지만 낮지 않은 적당한 음색. 귓가에 스쳐지나간 예전이 떠오른다. 그때 이 아가씨는 높은 음색, 발랄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어둡고 외로운 성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사람 숨 좀 쉬게 내버려두나 했더니만, 그새를 못 참고 오는 거 보면 답은 하나지. 왜, 내가 미쳤을까봐?”

겨울 서리처럼 날카로운 목소리가 매섭게 꽂혔다. 변한 건 비단, 목소리만이 아니었다.

이제 이 땅에 그녀가 소중히 여기던 사람들은 없다.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졌다.

하루아침에 세상이 변한 건, 데미온만이 아니었다.

차갑게 번들거리는 푸른 눈. 그 푸른색이 자기와 닮은 금색도 아님에도 피해 시선을 아래로 내렸다.

“그래. 행여 네가 미쳐 죽을까 봐 나보고 가보라 하더군.”

문가에 등을 기대 선 채 바닥에 깔린 카펫을 보며 답하자 그녀가 크게 비웃음을 내질렀다.

“참, 어이없어. 고작해야 머리 좀 자른 것 치고 공사가 다망하신 분이 온 건 좀 과한 거 아닌가? 유난스럽긴.”

“유난스러워도 네가 아직 죽어버리면 아쉬우니까.”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나베란이 크게 비웃었다.

“아쉬워? 웃겨. 그건 너도 마찬가지잖아?!”

고개를 들자 한껏 비웃고 조롱하던 얼굴이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 잔뜩 일그러져있었다.

“내가 모를 것 같아? 수작부리지 마. 데미온, 그 거지같은 멍청이는 내가 미치던 말던 상관 안 해. 여자구실만 하면 되는 거라고. 그 머저리에게 나는 그저 살아서 내 피를 가진 애만 낳아주면 되는 창녀니까. 그런데, 너! 너는 달라. 내가 모를 줄 알아? 이 배신자. 추악한 괴물!”

나베란이 분을 삭이지 못해 바닥을 발로 치대며 한 걸음에 다가왔다. 당장에라도 따귀를 올려 칠 것처럼 손을 머리 위로 올렸다.

“그만.”

그녀의 눈을 보며 주문처럼 짧게 말하자 나베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벌써 죽을 거 아니면 만지지 마.”

분노를 숨기지 않는 그녀의 푸른 눈은 매서울 만큼 새파랬다. 과거에 피를 토하며 분노를 쏟아내던 그 눈처럼.

닿을 수 없다. 혹여 제풀에 지쳐 닿기라도 할까 한걸음 물러났다. 장갑을 끼긴 했으나 불미스러운 일은 피하는 게 옳다. 마침 나베란 역시 손을 내린 채 주먹을 쥐었다. 그녀역시 닿으면 어찌된다는 걸 모르지 않았다.

“이 살인마.”

악문 입가에 독 같은 말이 흘러나왔다.

“그 애는 널 믿었어! 이런 괴물 같은 줄도 모르고.”

그러나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은 그리운 이를 언급하자마자 눈동자 안에 잔뜩 물기를 어렸다. 단 한 번도 스스로 울지 못한 여자를.

그 눈을 보며 입꼬리를 올려 비웃었다.

“그래, 벌써 몇 번째 이 비루한 대화를 반복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괴물! 너에 비한다면 데미온이 차라리 나을 정도야.”

그녀가 분을 삼키지 못하며 소리를 내질렀다. 킥– 하고 웃음이 막을 틈도 없이 입술 밖으로 새어나왔다. 살 맞대며 침대를 같이 쓰는 이가 죽지도 않으며, 정말로 한겹의 인두겁을 쓴 괴물인 지도 알면서도.

“맞아, 이 추악한 괴물의 달콤한 말을 믿었지. 그래서 너희는 멸망했고, 너는 여기 인질로 갇혔지. 창녀같은 몰골로 말이야. 하지만 나베란. 너 역시 공범자 아냐? 데미온을 끌어들인 건 내가 아냐.”

마지막 말에 순식간에 나베란의 얼굴이 피를 모두 쏟은 것처럼 새파랗게 질렸다.

“나는 공범자가 아니야!”

“그렇다면 데미온은 누구의 편지를 받고 온 거지?”

툭 하고 던진 말에 나베란의 바싹 마른 몸이 휘청이며 테이블 모서리를 부서져라 쥐었다. 마치 그것이 구명줄이라도 된 양 손이 새하얗게 질릴 정도로 쥐고 있었다.

“나는…!”

그녀는 숨을 가파르게 내쉬며 입술을 사정없이 물어뜯었다.

“나는. 아냐. 나는…! 네가 그렇게 만들었잖아. 네가 괴물을 불러 우리 모두를 학살하고…”

“멋대로 상상하지 마. 괴물은 네가 불러온 데미온의 병사들이었어.”

“아니야!! 아니라고! 아냐, 거짓말이야! 아니야!”

고작해야 몇 마디의 말들.

고작 그 정도만으로도 죽을 것 같은 비명을 내지르며 나베란이 바닥으로 무너졌다. 그런 모습을 가만히 보며 혀를 찼다.

과연 살아남을까.

데미온은 죽지만 않게 해달라 했으나 그건 너무나 큰 부탁이었다.

아이샤가 목숨 걸고 지켜온 위그노드 일족은 눈 여우에 의해 학살되었다. 그리고 그 눈 여우는 데미온의 병사들이 변한 괴물이었다.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뜨자마자 나베란은 그 학살을 똑똑히 봤다. 데미온은 기절했던 그녀를 깨워 바로 앞에서 눈 여우에게 위그노드의 겨울 일족을 던져줬으니까.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귀를 막고 눈을 감아버렸다. 이미 나베란은 무너진 성벽이었고, 황폐해진 위그노드였으며 살육당한 일족이었다. 더는 살아날 가망이 없는.

“너는 네 일족의 죄인이야.”

구두코로 그녀의 턱을 들어올렸다. 장갑을 꼈으니 닿아도 무관하지만 구태여 그럴 필요성을 못 느꼈다.

새파란 눈동자에는 눈물이 흐르다 못해 넘쳐 바닥으로 떨어졌다.

“나는…”

하염없이 떨어지는 눈물은 관심 없다. 귀하지도 않은 것. 아깝지도 않은 것. 반짝인다 할지라도 눈물은 보석이 아니었다.

“잊지 마. 그런 죄인이라도 단 하나밖에 안 남은 주인이지. 안 그래? 너도 잘 알듯이. 위그노드에만 눈 여우가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 데미온은 언제든지 자기 병사를 괴물로 만들 줄 알지. 그게 마녀와의 거래였으니까. 아주 조금밖에 남지 않은 위그노드 민족이 괴물에게 찢겨 죽는 걸 원치 않는다면 허튼 생각 따윈 하지 마.”

“…”

나베란은 금방이라도 죽을 짐승처럼 숨을 헐떡였다. 그녀는 더는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했다. 잊으면 일깨워주고 잊으면 일깨워줬다.

그래도 기억 못하면 정말로 눈앞에서 보여줬으니까.

“나베란.”

그녀는 부들부들 떨리는 입술을 애써 억지로 앙다물었다. 곧 죽을 것 같은 짐승일지라도 겨울성의 일족, 위그노드의 주인, 겨울 땅의 딸이었다고 제 딴에는 침착해지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무릎을 굽히고 그녀의 귓가에 살짝 속삭였다.

그 모습이‒

“차라리 포기하고 괴물의 아이를 낳아. 그럼 소원대로 죽을 수 있어.”

-우스웠다.

얼어붙은 그녀의 모습을 한껏 비웃으며 몸을 일으켰다. 사촌이라 할지라도 달랐다. 닮은 건 겉모습. 아무리 애써 버티려 해도 그녀는 한낱 인간이었다.

죽을 수 없는 인질.

그녀는 아직 살아 있어야 했다.

“약을 가져와라.”

부름에 기다렸다는 듯 시녀가 쟁반에 컵을 하나 받쳐왔다. 그것을 보자마자 나베란이 사시나무처럼 부들부들 떨었다.

“시, 싫어, 나는 약을 먹지…”

“꼬박꼬박 마시라는 말을 또 거역했겠지. 그냥 잠들어있어, 나베란. 그게 너와 네 민족을 위한 길이니까.”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

아무것도 기억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잠들어.

차게 바닥에 주저앉은 나베란을 응시했다. 아무렇게나 잘린 머리카락, 목에 여러번 덧칠하듯 흔적이 난 졸린 상처, 양 손목에는 붕대가 두껍게 감겨있었다.

약 없인 밤에 잠들지 못하고 잠들지 못하는 숱한 밤에 그 날의 기억을 되돌리고 또 되돌리다 종내엔 손목을 그었다. 죽으려 하면 그 다음 날 정말로 죽어나가는 건 노예로 끌려온 일족이었다. 죽을 수 없는 나베란은 끔찍한 제 자신의 몸 여기저기에 상처를 냈다.

그러니 머리를 잘라내는 건 아주 귀여운 축이었다.

“…했으면서…”

시녀를 통해 약을 억지로라도 먹이려던 찰나 고개 숙인 얼굴 사이로 중얼거리는 말소리가 새어나왔다.

“마음이 다치지 않게…더는 울지 않게…지켜준다고 했으면서.”

몇 번이나 들었던 원망이었다. 이젠 별스럽지도 않은 말. 억지로 약을 삼켜야 하는 바람에 나베란은 더 말을 하지 못했다.

“그랬던가. 잘 기억이 나질 않네.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해서 그런가.”

거짓을 삼키고 거짓을 내뱉고. 그림자 하나 없는 이 몸 자체가 거짓인데 진실이 가당키나 할까.

더는 볼 일이 남아있지 않기에 몸을 돌렸다.

굳게 닫힌 문을 열고 나갔다.

피 냄새 없이 말끔하게 정리된 방안은 누군가 죽어나갔다고는 상상도 할 수 없이 조용했다. 그 조용한 방 안으로 천천히 들어가 목을 죄듯 누르는 단추를 풀어 내리며 소파에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일어나자마자 한 일이라곤 나베란을 만나는 일. 고작 그뿐인데도 물 먹은 솜처럼 무기력하다. 억지로 깨어난 여파는 아마도 며칠은 갈 것이다, 그 전처럼.

귓가의 이명, 눈앞의 잔상. 두개골을 깨뜨리는 것 같은 두통.

손으로 지끈거리는 미간을 누르려다 장갑을 계속 끼고 있는 걸 깨달았다. 벗기도 귀찮았다. 몸은 한없이 늘어지고, 머리는 아프고, 눈앞은 흐리다. 그러나 편히 쉴 수가 없었다. 신경질적으로 고개를 돌려 문을 노려봤다.

정적 속에 뚜벅뚜벅 걸어오는 발소리가 분노를 터뜨리게 했다.

“데미온…!”

이를 악물며 지끈거리는 미간을 손으로 내리눌렀다. 그렇게 아무도 오지 못하게 하라고 말했어도 귓등으로 듣지 않는다. 아직 왕도 아닌 주제에, 제 성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도리어 좋아하다니.

“미친놈.”

그가 왕이 된 앞날은 이보다 더하면 더 했지 결코 부족할 리 없을 것이다.

뭐, 자신은 어차피 받을 것만 받고 떠나면 그만. 그걸 위해 이 지겹고 진절 머리나는 데미온의 곁에 붙어있는 거였다.

그게 아니라면 이딴 질척한 발 아래 세상 따윈 던지고 진즉에 훨훨 날아갔을 것이다.

똑똑–

“들어오지 마.”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신경질적으로 눈을 감으며 경고했다.

“데미온 저하의 명입니다.”

“나중에 받을 테니 가.”

“용서하십시오. 지금 전하라 하셨습니다.”

데미온의 손속이 난폭하고 잔인한 지라 그 명령을 따르는 시녀들은 자연스레 위축되고 간절해질 수밖에 없었다. 하물며 왕자가 데려온 객. 귀족인지, 신하인지 알 수도 없는 사람의 명령보다 당연히 데미온의 명령이 우선될 수밖에 없었다.

평소엔 그러려니 하고 받아 넘겼지만 오늘은 끝까지 귀찮아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억지로 깨어나 피곤했다. 새의 시선으로 보는 건 꽤나 힘든 일이었다.

하물며 그것이 이 땅에서부터 수백만 걸음 너머 멀리 떨어진 얼음의 대지라면.

“그만 돌아가라. 다시 부르겠다.”

억지로 깨어난 머리가 끊임없이 지끈거린다. 할 수만 있다면 감은 눈처럼 입도 다물고 싶다. 말하고 싶지 않다. 움직이고 싶지 않다.

애당초 평소에는 이런 실랑이는 필요 없었다. 진즉에 날아가면 그만. 헌데 새의 눈으로 보다 억지로 깬 여파에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

“저하의 명령입니다.”

“아아…!”

신경질적으로 팔걸이를 내리치며 일어섰다. 또 헛소리 가득한 전언이라면, 허튼 수작질이라면…!

이 성의 여자들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행동하면 자신의 신분이 상승할 수 있을지 알았다. 그것이 극악무도한 확률일 지라도 엄연히 산 증인인 황금의 여자가 가장 높고 화려한 성에 사니까.

명목으로는 왕자의 지인이자 친구. 그러다 보니 이 신분도 모르고, 정체도 모르는 인간이 어떤 식으로 사람을 죽이는 지도 모르면서 가까이 다가온다.

신경질적으로 문고리를 잡아 돌렸다.

문을 거칠게 열자 놀랐는지 고개를 든 흰 이마 위로 옅은 금색의 머리카락이 흔들렸다. 그리고 그 아래 크게 뜬 눈동자와 마주쳤다.

“…”

순간, 화를 내려던 것을 잊고 시선을 멈췄다. 뭔가 말을 하려고 했었는데 말문이 막혔다.

‘어처구니가 없군.’

“깜찍한 짓에 웃음도 안 나는군. 데미온이 시켰나?”

손잡이를 놓고 닫힌 문에 등을 기댄 채 빤히 보이는 수작질을 지켜봤다. 이젠 어이가 없다 못해 화도 안 날 지경이었다.

“저하의 심부름입니다.”

“심부름?”

주어를 생략한 물음에 시녀는 입가를 들어올렸다. 들고 있는 쟁반에는 서신이 한 장 올려져 있긴 했다. 하지만 본론은 이게 아니란 걸 안다.

데미온의 더러운 장난질.

갈수록 수작이 노골적이다.

장갑을 낀 손을 뻗어 쟁반 위의 서신이 아닌, 쟁반을 쥔 여자의 손목을 낚아채듯 움켜쥐었다. 귀찮고 고단해 장갑을 벗지 않은 건 누구에게 이로운 일이었던 건지.

편지를 낚아채는 것보다 더 쉽게 여자는 방 안까지 끌려왔다. 예상이라도 한 양 놀라움 떠윈 없어 손에 쥔 쟁반을 떨어뜨리는 실수 따윈 저지르지도 않았다. 기대하는 눈동자에 피식 웃음을 터뜨리자 여자가 같이 입 꼬리를 틀어 올렸다.

이제 곧 자신이 어떤 처참한 몰골로 변해 죽을 지도 모르는 주제에.

“좋아?”

“아이, 참.”

무엇이 그리 즐거운지, 손목이 잡힌 게 기쁜 건지 그녀는 발갛게 달아오른 뺨을 감추지 않았다. 품으로 파고들려는 걸음을 손목을 잡아 막았다. 더 이상 다가오는 건 불쾌하다.

붉게 물든 입술이, 고의가 다분한 입매가, 무언가를 기대하는 눈동자가 참을 수 없이 불쾌하다.

그 무엇도 아니었던 얼굴이…

고개를 흔들었다.

장갑을 신경질적으로 입술로 물어 당겼다. 대놓고 죽여대면 더는 다가오지 않겠지. 데미온 옆의 정체모를 사람이 실은 한없이 끔찍한 괴물이라는 걸 알면 이 귀찮은 짓거릴 더 안해도 될 것이다.

쾅—!

그러나 장갑을 마저 다 벗기려는 순간, 열린 문틈으로 찻잔이 부서지는 소리가 요란스럽게 울렸다. 이제야 놀란 건지 손목이 붙잡힌 여자의 미간이 살풋 찌푸려졌다. 밖이 시끄럽건 말건 내겐 해당사항이 없는 일이었다.

마저 장갑을 벗는데 손목이 붙잡힌 시녀가 슬금슬금 몸을 뒤로 뺀다.

“저…죄송하지만, 지금은 밖이 소란스러워서요.”

노골적인 눈매가, 고의가 다분하던 입매가 언제 그러했다는 듯 곤란하게 우물쭈물 거리더니 이내 서신이 든 쟁반을 탁자위에 올려놨다. 그리곤 뒤에 뭐라도 놓고 온 모양새로 빠르게 뒷걸음질쳤다.

순식간에 빈 손아귀에 어이없는 숨을 내뱉었다.

명 줄 한 번 긴가보군.

“그래, 나가보도록 해.”

그러자 여자가 기다렸다는 태도로 문 밖으로 빠르게 나갔다. 갑작스런 돌변이 의아할 정도였다. 마치, 앞에 괴물을 두고 뒤에 귀신이라도 본 양.

장갑을 벗어던지고 열린 문으로 다가섰다.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저 여자의 낯빛이 바뀌었는지 궁금했다. 복도엔 웬 시녀가 하나 더 있었고 그녀들 주변엔 깨진 찻잔이 굴러다니고 있었다.

보아하니 깨뜨린 시녀의 손이 서툰 모양이었다. 서신을 전달하러 왔던 시녀가 빠르게 쟁반 위에 깨진 찻잔을 올려놓으며 작은 목소리로 타박하고 있었다.

별 것 아닌 일.

문고리를 잡아 쥐었다. 지끈거리는 머리를 잠재우려면 잠깐이라도 눈을 붙여야 되겠다.

문을 마저 닫으려는 틈 사이로 창백한 빛의 머리카락이 지나갔다.

마치, 겨울의 색을 닮은 듯한.

아수라장으로 깨진 찻잔을 주워들며 치우고 있자 어느새 곁에 다가와 털썩 주저앉았다. 흰 앞치마가 살짝 흔들렸다.

“가만히 계시지 않고요.”

그리곤 주섬주섬 짚는 내 손을 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타박했다.

“아주 산산조각을 냈네. 됐어요, 건들지 마세요. 그렇게 하다간 손만 다쳐요. 그냥 계세요.”

주섬주섬 집는 서툰 내 손과는 다르게 다가온 손은 그보다 더 확실하고 빠르게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난 찻잔을 정리했다. 손이 어찌나 빠른 지 먹이를 보고 달려드는 새도 이보단 느릴 지경이었다.

타박하는 소리가 제법 사납지만 깨진 찻잔에 손을 대려 하자 슬그머니 밀어내는 손길은 제법 다정했다.

물끄러미 그런 그녀를 바라보다 고개를 숙여 다시 깨진 찻잔을 주웠다. 그녀가 혀를 내두르는게 느껴졌지만 무시했다.

“간이 제법 커. 그대로 먹힐 작정이었어?”

고개는 들지도 않은 채 흘리듯이 묻자 머리 위에서 피식 웃는 소리가 반발하듯 들렸다. 그리곤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웠다.

“설마요, 그저, 음…”

슬쩍 베인 건지 피가 나는 새끼손가락을 보며 샤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샤의 시선을 따라 새끼 손가락을 들어보자 그녀가 피가 흐르기 전에 잽싸게 손수건으로 감아주었다.

“간을 좀 본 거죠.”

“간?”

“아픈지, 아프지 않은지. 그 마음이 허공으로 흘러갔는지 본 거죠. 정말로 얼음처럼 녹아버렸나.”

이번엔 내가 헛웃음과도 같은 소리를 터뜨렸다. 샤의 말은 찻잔이 산산조각으로 깨진 것보다 더한 소음이었다. 웃음 소리는 짧았고 이내 그녀를 노려봤다.

“너는 나면서도 참, 기묘한 짓을 하는구나. 쓸데없어.”

내 말에 샤의 창백한 금빛 머리카락이 비웃듯이 살짝 흔들렸다.

“뭐, 그럴 수도. 아니면 이거 하나만은 본래의 제 성격일 수도 있죠. 음, 그냥 이건 제 성격이라고 할래요.”

마주보는 옅은 푸른 눈이 싱긋 웃었다. 어느 것 하나 진실된 것 없는 그 눈을 빤히 쳐다봤다. 이곳의 하늘과도 닮지 않은 색. 날 바라보는 눈동자의 색은 아주 먼 북쪽의 색이었다.

이제는 죽고, 도망치고, 희미해진 색.

그리운 누군가의 얼굴을 떠오르게 했다.

“그 성격 한번 천방지축이로군.”

손수건이 감긴 손을 굳게 쥐며 뱉듯이 말했다. 그 단어가 마음에 들었는지 샤가 입을 크게 벌리며 웃으려다 뒤에서 들리는 소리에 낯빛을 굳혔다.

뒤에서 작게 울리는 말소리와 함께 구둣발 소리가 들렸다. 서둘러 깨진 찻잔 조각을 담은 쟁반을 품에 안기듯 내게 쥐어줬다.

“깨졌으니 다시 차를 내오도록 해. 위치는 알지? 그리고 새 찻잔은 식당 옆 창고에 있어.”

사뭇 새침한 목소리로 말하고는 샤는 빠르게 뒤돌아섰다. 새로 들어온 신입 시녀를 가르치는 도도한 선임처럼.

쟁반을 쥔 채 고개를 숙였다. 어느새 다가온 다른 시녀 두 명이 손에 짐을 든 채 분주히 지나가고 있었다. 힐끗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졌으나 피차 짐을 들고 있었기에 별다른 말 없이 지나쳤다.

쟁반을 세게 쥐자 손 안에 바스락 거리는 소리가 난다. 손 안에 종이가 남아있었다. 고개를 숙인 채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으로 갔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에, 계단의 빛이 들지 않는 사이로 종이를 잽싸게 피고 접었다.

“만나고 싶다는 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려가는 발 소리가 계단 사이사이 울렸다. 지하는 창도 없을뿐더러 주방, 창고, 사용인들의 숙소가 있는 곳이라 제법 어두웠다. 벽마다 걸린 등에 발치의 그림자가 어둠처럼 길게 늘어진다.

‘배고픈 자가 땅을 판다더니.’

종이를 구겨 바닥에 내던지자 얼음으로 변해 파삭 깨진 뒤 녹아버렸다.

흔적도 없이.

“어이. 너. 지금 어딜 가는 길이야?”

요란한 소리가, 매캐한 연기와 훈기가 가득한 주방을 비켜 지나치자 그 안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멈춰 서자 땀을 닦으며 커다란 체구의 남자가 문 앞으로 나왔다.

“이것 좀 보세요. 저하의 손님께 차를 내갔는데 이렇게 만드셨네요.”

보란듯이 손에 들린 쟁반 위를 바라보자 남자가 혀를 끌끌 찼다.

“성질 머리하고는.”

그가 두툼한 손으로 깨진 찻잔을 툭툭 치면서 고개를 내저었다.

“골라도 이렇게 젤 비싼 걸 아낌없이 깨뜨리다니. 이번엔 뭐가 문제라니?”

“듣자하니 아침부터 심기가 요란하다더군요.”

“그 이가 언제 멀쩡한 적 있었나? 그저 얼굴만 보고는. 그 성질머리를 보고도 눈에 불을 키다니. 제정신들이 아니야.”

성의 요리장인 그는 성의 주인들을 위한 최상의 요리를 만드는 것도 모자라 수다도 수준급이었다. 한번 붙잡히면 누구도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는 진흙과도 같은 이였다.

“또, 어찌나 까다롭고 예민한지…”

“아!”

마치 잊었던 것이 생각이라도 난 양 크게 소리를 내어 말을 끊었다.

“그렇죠. 성격도 급하시고요. 그래서 서둘러 찻잔을 다시 골라서 나가려고요.”

그제야 그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맛을 다시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서 가보도록 해. 늦으면 또 늦는다고 깨부술 테니. 아, 우측 두 번째 선반에 놓인 것들은 절대로 건들지 말고. 그거 아주 귀한 것들이니까. 알지?”

그는 답지 않게 눈을 찡긋하며 다시 주방 안으로 들어섰다. 애써 위로 올렸던 입가를 끌어내리며 몸을 돌렸다.

주방에서 조금 떨어진 구석, 한 켠에 덩그러니 놓인 문, 그 문을 열고 들어서자 사용인이 평생 벌어도 못 살 값비싼 찻잔과 그릇들이 즐비한 방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 안에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람이 등을 보인 채 기다리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 깨진 찻잔이 든 쟁반을 내려놓자 그가 등을 돌렸다. 붉음이 짙지 못한 갈빛의 머리카락이 등 뒤에 흔들렸다.

“오랜만입니다.”

머리색과는 다른 선명한 붉은 눈동자가 똑바로 나에게 향했다. 창도 없는 공간. 고작 등 몇 개가 전부인 방에 그 눈동자는 형형하게 빛났다.

태초에 태양의 아스헤와 그 누이동생 달의 아시네헤가 있었다. 태양은 하늘 위에 고고하게 떠있기를 거부하고 달을 버리고 이 땅으로 떠나 인간을 선택했다.

아시네헤는 인간을 거부하고 고고한 하늘의 달로 남았지만, 아스헤는 인간을 선택해 신의 피를 인간을 통해 흘러내렸다. 그 신의 피는 옅어져 땅으로 흘러갔을까.

아니면 오롯하게 남아있을까.

손을 들어 흐트러진, 귓가에 닿는 머리카락을 쓸어내려 정리했다.

“그렇군요.”

내 말에 그가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아주 오래전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그런데 오래 못 본 새 눈동자 색이 기억과는 많이 달라졌군요.”

피식 웃으며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웃어 본 적이 아주 오래전임에도 다시 웃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내밀어진 그의 손을 붙잡았다.

“그래도 전과 다름없습니다.”

내 말에 그는 아주 잠시 멍하니 내 눈을 바라보다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압니다, 위그노드의 단 하나뿐인 주인. 당신을 만나기 위해 기다렸습니다.”

어린 시절 딱 한번 그를 만났다.

늘 그렇듯 그들이 원해서 청했고, 원해서 찾아왔다. 위그노드는 얼어붙은 차가운 땅이었지만, 그들은 아주 오랫동안 이 땅을 원했다.

풍요로운 실로이.

태양의 신이 사랑한 땅.

얼어붙은 위그노드는 신의 피를 이어받아 황금조차 만들어내는 그들이 탐낼 땅은 아니었다. 그저 모든 걸 다 가진 그들이 더 이상 갖을게 없어지자 신이 기꺼이 버린 이름을 원했다.

아스헤는 태양의 신이었지만 직접 하늘에서 내려와 인간이 되어 인간으로서 죽었다. 그러나 다른 형제 신인 아시네헤는 다르다. 그녀는 여전히 고고한 달의 여신이었다. 그리고 그 여신은 실제로 신화 속이 아닌 위그노드의 저편 네헤베에 산다.

아시네헤가 그 어떤 잔악무도한 존재라 할지라도 신이었다.

실로이의 왕족들은 위그노드를 갖기만 한다면 아스헤가 기꺼이 버린 아시네헤를 얻으리란 망상을 가졌다. 결코 얻을 수 없는 걸 탐내기 시작했다. 스스로 버리고 이제는 흘러가버린 신의 이름을 다시 찾고자 했다.

그리고 그런 망상을 위그노드는 당연히 헛소리로 치부하며 상종조차 하지 않았다.

아직 아버지가 살아있고, 어머니가 있으며, 샤하웨가 아들로서 존재하던 그 시절. 차갑고 잔인한 아시네헤가 위그노드를 도륙내겠다 겨울여우를 만들기 전에 실로이의 왕족이 행차한 적이 있었다.

그것도 차기 왕의 후계자.

왕의 첫 번째 아들이자 정통 왕비의 자손.

그런 귀한 자식을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춥고 혹독한 위그노드에 사절로 보냈다. 그도 어리고, 나도 어리던 그 날 우리는 커다란 연회장에서 처음 만났다.

실로이의 사절단들은 왕자를 아스헤라 추앙하고, 아직 푸른 눈이었던 나를 아시네헤의 현신으로 매도했다.

그 옛날 아스헤와 아시네헤가 그러했듯이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고.

위그노드에 아들인 샤하웨가 있으니 고작 계집딸인 나를 청한다면 기꺼이 실로이로 보내줄 거라 여겼던 것이다.

아비는 나를 아시네헤라 칭하는 사절단의 허무맹랑한 말에 홀이 떠나가라 크게 웃었다. 그리고 그 웃음을 옆에 선 기사들이 따라 합창하듯 웃었다. 실로이 왕자와 나는 손 한번 맞잡았을 뿐, 왈츠 한 번 추지 않고 돌아섰다.

정확히 말하면 돌아서야 했던 건 실로이 쪽이었다.

“여전히 저는 아닌 겁니까?”

어느새 장성한 그가 내 손을 놓지 않으며 물었다. 시간의 힘이라는 건 참 무섭다. 그저 순하고 여려 어린 동물 같다고 제 어린 날에 생각했던 그 눈빛이 이제는 영락없이 힘의 지배논리에 길들어져 있었다.

붉은 눈동자는 타는 듯한 갈증으로 가득했다. 그 역시 실로이 왕의 핏줄이었고, 같은 아비를 둔 데미온의 배다른 형이었다.

물론, 저 달콤한 말을 받아들인다면 일은 너무나도 쉽게 해결된다.

“잊으셨나보군요. 그 날 제 아비는 그리 말하셨습니다.”

그러나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다른 손으로 그 손을 밀어내며 말했다.

“황금을 만들어내는 아스헤의 피는 원치 않습니다. 우리에겐 얼음의 위그노드만이 존재할 뿐”

오로지 위그노드만이 존재할 뿐.

“당신이 그 자리를 버리고 기꺼이 위그노드에 오신다면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그 옛날 아비가 했던 말을 따라하자 그가 아연한 얼굴을 했다.

“잊으셨습니까? 지금 위그노드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땅은 어딘가로 녹아 사라지는 게 아니죠. 흩어진 민족은 언제라도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법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까?”

그는 말로 하는 조롱대신 눈빛으로 비웃었다. 모든 걸 빼앗기고 잃어버려 가진 것 하나 없는 자가 주인 행세한다고.

그 말 그대로 내 차림새와 내 현재 상황은 조롱받아 마땅했다. 그러나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렇기에 당신께서 절 기다리신 거겠죠.”

위그노드의 사냥꾼이 사냥을 할 때는 때로는 말처럼 달려 나가고, 개처럼 냄새를 맡고, 늑대처럼 사냥감의 목을 문다. 단 한 번의 사냥을 하기 위해 진흙에 온몸이 젖을 때도 있고, 덫을 치기 위해 하루 반나절 동안 꽁꽁 언 땅을 파 함정을 만들기도 한다.

“나는 당신의 말대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땅도, 민족도, 명예도.”

나는 지금 사냥꾼이다.

덫을 파서 기다렸고 그는 내가 오랫동안 파 놓은 덫에 빠졌다. 처음 덫에 걸린 짐승들은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했다. 그 덫에 숨겨놓은 미끼를 먹느라 사냥꾼이 제 뒤에서 지켜보는지 모른다. 시간이 지나 미끼를 다 먹고도 도망칠 수 없을 때 그들은 깨닫는다, 자신이 사냥감이라는 걸.

“그러나 이 성에서 당신이 원하는 걸 이뤄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저 하나뿐입니다.”

단 하나라는 말에 그가 자세를 고쳐하고 날 바라봤다.

“그 말 믿을 수 있습니까?”

그의 붉은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했다. 숨 쉬는 것보다 더 익숙한 눈빛에 웃음이 났다. 태어나 머리가 커질 때까지 위그노드의 일족들은 내가 과연 인간인지, 아시네헤의 일족인지 가늠하기 위해 눈을 가늘게 뜨고 의심했다.

그리고 조금 더 커 아비의 자리를 물려받아 차기 대리인이 되었을 때, 과연 내게 운명을 맡겨도 되는지 의심했다.

어미가 사람이 아니기에, 내가 여자이기에, 나에게 아무런 힘이 없기에 그들은 의심하고 또 의심했다. 망설임없이 쟁반 위의 깨진 찻잔을 들어 손바닥을 그었다. 순식간에 붉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리자 날 지켜보던 그가 미간을 찌푸리며 한걸음 뒤로 물러섰다.

‘심약하기는.’

희고 말랑한 손.

그는 검을 다루는 기사가 아니었다.

“무슨 짓입니까?”

“왜 유일한지, 왜 당신이 내게 의지해야 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손바닥에서 손목으로 흘러내리던 핏줄기는 엄지와 검지를 맞부딪쳐 “딱!” 하고 소리를 내자 그 자리에서 언 것처럼 멈췄다.

마치, 피가 얼어붙은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딱”하고 소리를 내자 손목까지 타고 내려갔던 핏줄기가 넘실거리며 서서히 허공에 뭔가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붉은 빛의 형상은 어느새 내 바로 앞의 왕자의 키만큼 쑥쑥 커져갔다. 그는 그걸 눈으로 지켜보며 벌어지려는 입매를 다물었다. 그러나 아무리 침착하려 해도 꽉 쥔 손이 그의 감정을 대변하고 있었다.

피로 된 형상은 순식간에 실로이 왕자와 닮은 모양새를 띄었다.

“이, 이게 대체 …!”

급기야 그는 입을 벌리며 안에 든 치아를 보여줬다. 그 모습에 웃을까 하다 입을 다물었다. 웃기엔 모양새가 좋지 못하다.

아주 적은 소량의 피.

그러나 그것은 어느새 눈 깜짝할 사이에 실로이 왕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변해 서 있었다. 다른 거라곤 놀라 입을 벌린 채 얼어붙은 왕자와 눈을 감은 채 인형처럼 서 있는 모습이 다를 뿐.

“그 옛날 저를 아시네헤의 현신이라 불렀던가요?”

아시네헤는 고작해야 얼음을 자신의 힘으로 빚고 불어넣어 달의 일족을 만들었다. 그렇다면 아시네헤의 힘을 가진 자신은 어떠한가.

그 괴물 같던 신이 하던 걸 자신이 못할 리 없다. 아시네헤가 갖고자 만들었던 육체니. 그리 더럽다 저주하던 힘을 제 무기인양 보여주는 꼴이 치욕스러울 지라도.

“우, 움직이는 겁니까?”

“물론입니다. 원한다면 저하 대신 할 수도 있고, 죽여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누구를?

주어가 없는 말임에도 그는 더는 멍청한 눈을 하고 못 알아듣진 않았다. 뺏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것이 지키는 법이다. 그는 이 잔인한 생존싸움에서 몇 년 동안 뺏기지 않은 채 지키고 있었다.

손을 가벼이 흔들자 순식간에 몇 방울의 피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손수건으로 베인 손바닥을 감아 쥔 채 그에게 내밀었다.

“손을 잡으면 우리는 서로의 협력자가 되는 겁니다. 당신은 가장 처음으로 위그노드의 손을 잡은 이가 되는 것이고, 나는 내 땅을 무너뜨린 이를 밟아버릴 기틀을 잡는 것이죠.”

위그노드의 동업자.

“이제 답변을 들어야겠네요.”

그가 멍청한 눈을 지우고 붉은 눈동자를 빛내며 날 바라봤다. 정확히는 붉게 젖어든 손수건을 향했다. 그는 내 피의 값어치를 매기고 있었다.

생명을 가벼이 만들어내는 피.

그것이 무엇일지는 중요치 않았다.

“서쪽 별채에 아난 이라는 시녀가 있습니다. 그녀에게 가보십시오.”

고개를 끄덕이고는 등을 돌렸다. 그리고 원래의 업무대로 선반에서 찻잔 세트를 꺼내 들고 밖으로 나갔다.

별도, 달도 없는 새카만 밤하늘에 새카만 새 한 마리가 내리꽂듯이 탑 위로 날아들었다. 반쯤 열린 창문을 넘자마자 큰 검은 새는 순식간에 검은 망토를 펄럭이는 미남자로 변했다.

달도 없는 밤, 새카만 망토를 감싼 흰 얼굴이 창백했다.

그린 것처럼 유려한 남자는 감정이라곤 깃들지 않는 얼굴로 어둠 속을 걸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가파른 소용돌이 같은 계단을 오르고 올라 마침내 꼭대기 탑의 문을 열었다.

문을 열자 크지도 넓지도 않은 방 안엔 옅은 등불이 어둠을 가시게 했다. 그리고 문에서 바로 보이는 창가엔 무릎을 끌어안은 채 앉은 이의 몸을 등불이 비추고 있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무릎 위에 고개를 숙이고 있던 이가 얼굴을 들었다.

“겨울 냄새가 나.”

“샘에 다녀왔어.”

그가 차갑기 그지없는 얼굴로 크게 걸어가 창가에 앉은 이의 이마에 살며시 손끝을 대었다. 인형과도 같은 표정과는 다르게 이마에 닿은 손끝은 사뭇 조심스러웠다.

“매일 열이 나는군.”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거든.”

슬며시 그의 손을 치우고는 더운 숨을 가리듯 토한다. 분명 옷에 가려 보이지 않을 뿐, 그녀의 가슴 속, 심장 부근엔 또다시 피가 맺혀 있을 것이다. 그 모습을 금빛의 눈동자가 가만히 응시하다 품에서 얼어붙은 꽃을 꺼내들었다.

“아주 잠깐은 식혀 줄 거야.”

“글쎄...”

통째로 얼어붙은 꽃가지를 빙글 돌리며 후–불자 얼음 성에가 민들레 홀씨처럼 일어났다. 좀처럼 먹을 생각은 하지 않고 장난치듯 흔들기만 하자 그가 미간을 찌푸렸다.

“아이샤.”

그의 목소리가 어둑어둑한 등불 아래 애잔하게 울린다.

“나는 이 꽃이 싫어.”

아주 오래 전, 그녀는 어미를 위해 이 꽃을 한아름 꺾어가곤 했다. 겨울 눈 틈에서 유일하게 피는 눈꽃은 아시네헤의 일족만이 갈 수 있는 샘 근처에서만 존재했다. 이 꽃을 구하고자 하얀 새를 따라갔고, 종국엔 그 하얀 새의 손을 붙잡고 성에 돌아갔다.

“그것도 겨우 구한 거야.”

“잘됐네.”

빈정거리는 말투에 그의 눈동자가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감정을 알아버린 얼음은 언제 이렇게 사람 같은 눈을 하게 됐을까.

“아이샤.”

그가 결국 꽃가지를 든 손을 붙잡자 아이샤가 마지못한 얼굴을 했다. 결국에 더운 숨을 내쉬며 꽃잎을 한 입 물었다. 차가운 얼음 결정이 혀를 타고 목을 넘어 심장에 가 내려앉았다. 금방이라도 녹아 흘러내릴 것 같은 열기를 식혀줬다.

얼어붙은 꽃잎을 삼키고, 가지를 아삭아삭 삼키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울렸다.

등불로도 어쩌지 못할 창백한 안색이 조금씩 살아있는 사람처럼 변해가는 걸 보고 샤하웨는 그제야 안심하듯 긴 숨을 토했다.

“샘이 그러하듯, 네헤베도 녹아가고 있어.”

“얼음의 주인이 태양의 땅에 있으니 뭐든 남아있을까.”

하하 웃는 웃음소리가 흩어질 것처럼 옅었다. 살짝 열린 창문 너머 밤바람이 불어오자 아이샤가 살풋 눈을 감았다.

“아이샤, 차라리 샘에 한 번 갔다 올래?”

벌써 한 달.

언제 저 얕아 바닥이 보이는 생이 말라버릴까 샤하웨는 다급하고 초조했다. 매일 위그노드를 날아 얼음 결정을 물어 와도 새 모이만큼의 목숨을 연명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말라가는 연못에 새가 물어오는 한모금의 물이 얼마나 된다고. 아이샤는 그러지 말라 했지만 샤하웨는 매일 날아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다.

제 눈으로 죽어가는 아이샤를 보는 게 견딜 수 없었다.

아시네헤가 죽고 사라지자 네헤베는 무너지고 있었다. 달과 겨울의 주인이 사라지고 새 주인이 존재함에도 그 주인은 네헤베에 없었다.

멀고 먼, 태양의 땅에 존재한 얼음의 주인.

네헤베에 인간의 침입을 막는 굳건한 얼음 장벽조차 조금씩 녹아내리고 금이 가고 있었다. 몇 남지 않은 아시네헤의 일족조차 아침에 녹아내리는 서리처럼 눈 녹듯 사라지고 있었다.

아이샤가 네헤베에, 하다못해 위그노드에라도 간다면 저렇게 매일같이 아플 일은 없을 텐데. 최소한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 텐데.

샤하웨의 눈엔 말보다 많은 말이 담겨 있었다.

“아직은 안 돼.”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창 너머로 시선을 던졌다. 어두운 밤하늘 아래 높고 뾰족한 성은 환하게 빛을 밝혀 마치 지상의 별처럼 보였다. 저 수많은 별과 같은 빛 속에 그녀가 찾는 사람이 있었다.

“단서를 받았어. 이제 남은 건 기다리는 거겠지.”

뺏기고 잃어버린 걸 찾아 손에 움켜쥘 때까지.

소중한 것을 부순 죗값을 받아내기 전까지.

데미온은 사람 같지 않은 잔인한 성격만큼이나 치밀하고 빈틈없는 자였다. 죽고 뺏은 땅의 혈족으로서 남은 나베란의 가치를 그만큼 높게 볼 이는 없었다. 죽이고 노예로 부리고 집을 버리고 도망치게 했으면서도 언젠가 찾아올 단 한 톨의 불안을 무시하지 않았다.

나베란의 위치는 감추고 감추어져 성의 사용인들이라 할지라도 다 알지 못했다. 그녀는 위그노드의 전리품이었다. 존재는 할지언정 보물창고에 가둬 숨겨둔 탓에 그 모습을 본 이는 아주 적었다.

오직 소수의 몇 명.

그 소수의 사용인들조차 수가 적고 위치가 노출되지 않아 우연히라도 만나기 어려웠다. 그래도 단서는 받았다.

“단서?”

“서쪽 별채의 아난 이라는 시녀와 접선했어. 알아보고 위치를 알려 줄 거야.”

샤하웨는 물끄러미 아이샤를 보다가 고개를 돌리고 몸을 일으켰다. 그에게 지금 중요한 건 아이샤처럼 나베란이 아니었다. 수 없이 많은 말이 목구멍 너머에 있었지만 그는 삼키고 또 삼켜냈다.

“아이샤.”

창가 근처 테이블 옆 의자에 앉아 고민하듯 그녀를 불렀다.

“‘그 애’는 어때?”

샤하웨의 손이 테이블 위에 그림처럼 새하얗게 놓여있다. 그는 미동조차 하지 않은 채 그녀를 바라봤다.

저렇게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는 마치 살아있지 않은 동상처럼 보인다. 어둑어둑한 등불에 음영 진 얼굴이 차가워 더 그렇게 보였다.

“잘해. 너무 잘해서 문제일 정도로.”

그녀가 투박하게 말하자 어른거리는 등불에 그의 입가가 은근하게 올라간 것처럼 보였다. 등불에 어른거리는 그림자 때문에 신기루처럼 보이는 미소지만 기묘할 정도로 다정했다.

얼음이, 얼음이 아닌 것처럼.

“다행이네.”

‘그 애’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아이샤가 움직이기 쉬워진다. 존재의 필요성이 단순히 그 하나의 이유만은 아니지만 샤하웨는 그것으로도 만족했다.

“빌려준 육체의 천성이겠지.”

그리 열심히 하지 않아도 찾기 어렵고, 들킨다면 모질게 다칠 일이니 몸 사리며 한다 해도 탓하지 않을 텐데. 아이샤는 물끄러미 무릎을 감싼 손을 바라봤다.

탓하듯, 안타까워하듯 감싸 쥔 손수건은 이미 다 나아서 없다.

“다정해.”

그저 한 줌의 가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라 할지라도 잡아 준 손은 따뜻했다. 죽거나, 떠나거나, 억지로 끌려가 홀로 남은 사람은 그 작은 마음에 깃대여 고개를 창문에 기댔다. 저 아래 빛나는 등불만큼이나 많은 이가 생각나는 밤이었다.

아이샤는 그 숱한 얼굴들의 모습에 눈을 감았다. 온몸을 태우는 열이 아주 조금이나마 식혀지는 기분이 들었다.

그는 성 안에 있지만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문밖으로 잘 나오지 않았다. 태양의 신이 축복한 땅은 춥지도, 덥지도 않은 낙원 같은 곳인데 그의 방은 창문조차 잘 열리지 않았다. 아름다운 모습처럼 인형처럼, 동상처럼 방 안에 가만히 있었다.

때때로 성의 주인인 데미온의 명이 아니라면 그는 끝없이 방 안에 있을 것 같은 신기한 손님이었다. 그런 그가 문 밖으로 나오는 건 쉽게 볼 일이 아니었다.

무심하게 앞만 바라보며 복도를 걷던 그가 발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멈춰 섰다. 그 옆을 지나가던 시녀 한 무리가 그의 모습을 힐끔거리며 곁눈질 했다.

“…”

그가 멈춰선 앞엔 복도의 창 아래로 성의 정원이 한 눈에 보였다. 정원에 흐드러지게 핀 붉고 흰 장미를 꺾어 정리하고 있는 시종인의 모습들이 보였다. 넘칠 정도로 흐드러진 꽃은 지금이 딱 적기였다. 지금을 넘기면 짙어진 향기는 코를 찌르고, 익다 못해 녹아내릴 것 같은 꽃잎은 축 늘어져 변해버린 색처럼 추해진다.

새하얀 블라우스에 발목까지 닿는 검정 린넨 치마, 민무늬 흰 앞치마, 허리엔 꽃이 담긴 넓은 바구니를 끼고 모두가 분주하게 장미꽃을 따고 있었다. 바람결에 작게 속삭이는 듯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창틀을 두 손으로 붙잡았다. 얼마나 억세게 잡았는지 손아귀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린 것도 같았다.

“다 이 성 소속 시종인인가?”

강팍하게 창틀을 쥐고 밖을 노려보는 모습과는 다르게 목소리는 지나는 길에 묻는 것처럼 무심했다. 그의 말에 맨 앞줄에 선 시종인이 황급히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성 아래 정원에 있는 터라 하나하나가 누군지는 모르나 모두 이 성의 시종인이 맞았다.

“그래, 물러가도 좋아.”

그의 시선은 창밖에 머무른 채 귀찮은 것들을 쫓듯 손짓하여 시종인들을 보냈다. 그리곤 빠르게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 쪽으로 몸을 돌리다 이내 멈췄다.

그는 고민하는 모습으로 얼굴을 딱딱하게 굳혔다.

“…그럴 리 없지.”

한없이 불가능에 가까운 일에 그는 고개를 내저으며 몸을 돌렸다. 그는 불유쾌한 생각에 피로함을 느꼈다. 데미온이 성을 비운 날이기에 모처럼 방문을 열고 나선 길이었지만 어차피 이 땅에 그가 갈 곳은 없었다.

“…세요!”

천천히 방으로 돌아가려는 데 평화롭기만 한 아래 정원에 소란스러운 소리가 소름끼치게 울렸다. 힐끗 시선을 주자 기사들이 시녀 몇 몇에게 다가가 희롱하고 있었다.

성의 주인의 손속이 잔악하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으니 그 아래에 있는 기사들이라고 다를 바 없었다. 제 주인도 눈 감아 주는 데 무엇을 못할까. 하물며 모두가 다 똑같은 곳이었다.

이 성의 시종인이 위로 올라가기 위해 제 몸에 감싼 옷을 스스럼없이 벗듯, 이 성의 모두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기사들 역시 도리어 안으로 검을 휘둘렀다.

그 주인이나, 그 부하나. 과연 데미온의 휘하 사람들이었다.

작게 혀를 차며 눈을 돌렸다.

바구니에 곱게 담아둔 꽃이 바닥으로 와르르 쏟아졌다. 세차게 바닥에 닿은 꽃잎은 물러지고 상처나 검게 변했다. 그 틈으로 희롱 가득한 비웃음이 가득했다.

“하지 마요…하지…하지마세요!”

애타게 빌고 또 빌었지만 무참하게 커다란 발로 차여 뒤로 나뒹굴었다. 벌겋게 피로 얼굴이 젖어 정신을 못 차리는 사이에 흰 앞치마가 갈기갈기 찢어졌다.

“아아악…!”

이렇게 화창하고 맑은 날, 모두가 다 있는 넓은 정원에서 억지로 벗겨져 범해질 지경이었다. 아직 어린 시녀들은 놀라 무서워 바구니를 던진 채 도망치고 시종들은 이 끔찍한 비명에도 못 들은 척 묵묵히 다른 곳을 바라보며 일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콱―

“악! 누구야?!”

돌이라도 던진 것처럼 머리를 강타하는 것에 범하기 급급한 기사가 머리에 피를 흘리며 몸을 돌렸다. 그의 비명에 옆에 킬킬대며 같이 서 있던 동료 기사가 놀란 눈을 했다.

“뭐야, 갑자기 왜 그래?”

“지금 돌에 맞았다고!”

“여기에 돌이 어딨어? 여긴 정원이라고. 으악―!”

그렇게 말하는 그 기사 역시 무언가에 다리를 맞고 휘청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무엇인지 눈에 보이진 않는데 꽤 묵직하고 날카로운 게 꼭 돌과 같았다.

연이어 기사 둘이 무언가를 맞고 쓰러지자 다른 시녀를 희롱하던 기사들이 경계 자세를 취했다. 그러나 그 기사들의 뒤편엔 그저 숨죽이고 바구니를 끌어안고 있는 시녀들밖에 없었다. 시종들은 모두 다른 쪽으로 가 있었다.

“너! 너희들이 그랬어?”

날카롭고 공격적인 말과 행동에 바구니를 끌어안은 시녀들이 흐느끼며 움츠러들었다. 필사적으로 자기들끼리 몸을 부딪치며 질끈 눈을 감았다. 이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지만 그러기엔 주인의 손속이 무서웠다.

기사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자신들에게 행실이 불량하다 고자질하면 이보다 더한 꼴을 겪게 된다.

“오호라, 너희들이 그랬구나. 뭘로 그랬지? 어? 너야? 너가 그랬어?”

기어이 검집에서 검을 꺼내 시녀들에게 하나, 하나 겨누며 위협했다. 자리에 나뒹군 시녀는 빛에 반짝이는 검의 모습에 겨우 찢어진 옷자락을 모아 쥐며 비명을 내질렀다.

한 낮의, 꽃이 흐드러진 정원이 아수라장이었다.

아무도 나서지 않자 머리에 피를 흘린 기사가 욕설을 하며 일어나 시녀 중 하나의 손을 잡아당겼다.

“이것들이 무서운 줄도 모르고! 어딜 감히, 어?! 어디 한 번 무서운 꼴 당해봐야 정신 차릴래?”

새파랗게 빛나는 검에 붙잡힌 시녀는 고개도 들지 못했다. 그 모습에 함께 있던 시녀들이 자지러지는 비명을 내지르며 울부짖었다. 그들을 구해줄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시끄러! 귀 따가워 죽겠네! 죽고 싶어?”

위협을 줄 참인지 기사의 검이 날카롭게 시녀의 머리카락을 한 줌 잘라냈다. 바닥에 나뒹굴어 짓무른 꽃잎 위에 피처럼 머리카락이 떨어졌다.

그 처참한 몰골에 비명조차 목 안으로 사라졌다. 여기서 더 소리를 내질렀다간 정말로 목이 잘릴 지도 몰랐다. 꽃처럼 목이 잘려 바닥에 나뒹굴어도 여기 있는 어느 누구 하나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 일이었다.

“말해, 말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바닥에 떨어진 머릿수건 사이로 창백한 빛의 머리카락이 흩어졌다. 이번엔 머리로 그치지 않겠다는 양 기사의 검은 시녀의 목에 날카롭게 닿았다.

호전적이고 잔인한 그들답게 검은 매우 날카로웠고 금세라도 하얗고 가는 목은 잘릴 것 처럼 위태로웠다. 그런 칼날에 흰 목이 피투성이가 되는 건 금방이었다.

“이래도 말 안 할 거야? 이래도!”

흐느끼는 울음소리 사이로 들릴 듯 말 듯 옅은 한숨소리가 새어나왔다. 마치 짜증스럽기 그지없는 그 소리는 오직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유독 크게 들렸다. 그것은 붙잡혀 검이 겨누어진 시녀의 얼굴 아래에서 새어 나오는 것도 같았다. 기사가 눈을 크게 뜨고 시녀의 얼굴을 보기 위해 손을 내뻗었다.

“귀찮게, 정말.”

검 날을 밀어내는 손길에 기사의 행동이 굳은 것처럼 멎었다. 마치 눈 앞에 괴물을 본 양 그의 눈은 사정없이 흔들렸다.

“그만들 하지.”

아주 나직하게 내뱉는 말에 기사는 손에 힘이 풀려 검을 떨어뜨렸다.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진 검에 기사의 백지장처럼 창백한 낯을 비췄다. 그리고 그 검 날에 또 한 사람의 모습이 같이 비쳤다.

“저, 저주받은…!”

이번엔 반대로 기사들이 목이라도 졸인 양 억눌린 소리를 냈다. 시녀들은 몰라도 성의 저주받은 이가 누군지 아는 기사들은 얼음이라도 된 양 그대로 멈췄다. 그가 다가와 장갑 낀 손으로 검 날을 밀어냈을 때부터.

“겁도 없이 잘도 말하는군.”

검을 꺼내 들었을 땐 흥분으로 붉게 물들었던 얼굴이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진 것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의 표정은 무미건조하기 이를 데 없었지만 그를 보는 기사들은 그에게 손을 대 온몸에 피를 뿜고 말라죽은 시녀를 떠올렸다.

그런 이들을 치우는 건 언제나 기사들이었다. 언제 그런 흉측한 시체의 모습으로 바뀔 지는 그의 손에 달려있었다.

“언제까지 비명을 내질러야 속이 시원한거지?”

그가 순서대로 기사의 검과 손, 그리고 붙잡힌 시녀를 응시한 후 마지막으로 기사에게 말하자 그가 황급히 시녀를 내동댕이치듯 내려놓고 검을 주웠다. 그러나 어찌나 허둥거리는 지 주울 틈도 없이 경례를 하고 빠른 걸음으로 도망치듯 뒤돌아섰다.

뒤에 다리를 붙잡고 쓰러진 기사는 나머지 기사들이 붙잡아 죽은 가축을 끌듯이 질질 끌고 갔다. 마치 돌풍과도 같은 정리였다. 너무나도 선명한 죽음이 코 앞에 있으니 가능한 일이기도 했다.

그가 장갑 낀 손을 매만지며 주변을 둘러봤다.

“언제까지 산책을 방해할 거지?”

마치 방금까지 산책이라도 했다는 것처럼.

여상한 그의 말에 정신을 차린 시녀들이 재빠르게 바구니를 들고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다. 아직은 잘 모르는 성의 주인의 손님. 기사들처럼 막무가내도, 시종들처럼 무례하지도 않다.

하지만 그건 모를 일이다.

지금 남자들에게 놀란 시녀들에겐 지금 이 상황이 끔찍하기만 하다. 아무리 위로 올라가기 위해 옷을 벗기도 하는 시녀들이라지만 그건 이렇게 밝은 대낮의 일이 아니다. 또한, 자의가 아니다.

마지막까지 붙잡혔던 시녀역시 바닥에 떨어진 머리 수건을 주워들었다. 다시 머리에 쓰려하자 장갑을 낀 그가 손목을 붙잡았다.

옅게 부는 바람에 창백한 금색의 머리카락이 흔들렸다. 귓가에 닿는 짧은 머리카락에 그가 숨을 한 번 삼켰다. 그리고 마주친 눈동자에 숨을 멈췄다.

“…”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입술이 붉어질 정도로 깨물었지만, 고개를 든 시녀는 옅게 웃었다. 흰 목은 베인 상처로 피투성이였고 고개 한 쪽의 머리카락은 검에 베여 귓가에 닿을 만큼 뭉텅 잘려 있었다. 그럼에도 그녀는 입꼬리를 올렸다.

처음 봤을 때 유혹했던 것과 같은 눈으로.

“이렇게 저희를 구해주시다니…”

“그저 방해가 되었을 뿐. 착각하지 마.”

그녀의 말을 자르며 그가 귀찮다는 듯 말했다. 하지만 붙잡은 손을 놓으며 짓는 찰나의 표정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혹여, 저와 닮은 사람으로 착각하셨나요?”

순간적으로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푸른 눈이 마치 모든 걸 꿰뚫어 본다는 양 그를 바라봤다. 옅은 푸른 색. 이미 그 눈을 가진 일족은 단 둘뿐이었다.

단 둘.

그가 알기론 그 중 하나는 이곳에 있지만, 다른 한명은 절대 이곳에 있을 수 없다. 그러니 그녀가 겨울 일족일 리 없다. 겨울의 푸른색이 가득한 눈동자에 그는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웃었지만, 그는 웃을 수 없었다.

“그럴 리가.”

손을 놓고 뒤돌아섰다.